기본연구 02-41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II)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2-41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Ⅱ)

연구 책임자 : 한상근

공동 연구원 : 임 언

이지연

이경상

정윤경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 직업 구조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그리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의 종사자 비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감소되어 79.5%(1955년)에서 16.1%(1995년)로 축소되었다. 생산직 종사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 감소되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이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극적이어서 '직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를 Harry Dent는 '직업충격'(job shock)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낡은 패러다임을 몰아내고 직업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직업 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직업 의식이 어떠하며,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보고서는 한국인의 직업 의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최근 언론에는 취업과 직장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사 결과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 자료는 표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인터넷상의 조사이거나 특정 기업체, 특정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한국인의 직업 의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반면, 본 보고서는 16세 이상 우리 나라 전체 인구를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이다.

둘째, 본 보고서는 한국인의 직업 의식에 관한 시계열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8년에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제2차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써 지난 4년간의 직업 의식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한 직업 의식 자료를 갖게 되었다.

셋째, 본 보고서는 한국인의 직업 의식에 관하여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직업생활과 관련된 전과정, 즉 직업 준비, 취업, 직장생활, 직업전환, 은퇴 등에 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직업생활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이 보고서가 최초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 연구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한국인의 직업 의식을 실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방재현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자은은 연구 조원으로서 본 연구의 진행과 조사 결과의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과제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직업 의식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관련 연구의 진행과 관련 정책의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2년 12월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장 강 무 섭

【연 구 요 약】

1. 개요

본 연구는 1998년에 수행된『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 이어서 제2차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직업 세계는 정보화,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인해 급변하였고, 이에 따라 직업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집단 및 계층에게 적합한 노동 및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직업 의식의 현 수준과 변화 양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의식 자체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 계획, 직업 전환, 직업 정보의 제공, 직업 상담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의 수준을 가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국민을 특징별로 집단화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의식을 측정하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이 필요한 이유, 직업에 대한 통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개인의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직업 행동의 측정을 통해 직업 의식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1998년에 수행된 1차 조사와 1998년에 수행된 미국의 NCDA(전국진로 개발협회)의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직업 의식의 변화 및 미국 국민의 직업 의식과 비교하였다.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II)는 2002년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자는 인구 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의 15세 이상 2,514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틀

우리 나라에서 직업 의식이라는 말은 직업관, 직업 가치관, 진로 의식, 취업 의식 등 다양한 개념들과 함께 혼재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고, 그 하위영역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직업 의식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직업인(현장 근로자), 여성, 청소년 등 구체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의식이라는 개념을 직업 가치, 직업에 대한 태도 등 직업 일반에 관한 사고 및 태도를 의미하는 '직업에 대한 의식'과 직업 준비, 취업, 직업 생활, 직업 전환, 은퇴 등 직업 활동의 각 단계별로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갖는 사고와 태도를 의미하는 '직업 활동 단계별 의식'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직업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업 준비중인 실업자, 직장인, 은퇴자, 주부 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 준비에서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직업활동에 있어서 다면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생의 생애 단계를 청소년기, 성인 초기, 중·장년기로 구분하고, 생애 단계별 경험 가능한 직업 행동(vocational behavior)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직업 발달 과업(task)에 따라, 청소년기의 직업 준비단계, 성인 초기의 취업단계, 중·장년 단계의 직업 생활, 직업 전환, 그리고 은퇴 단계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단계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상황적 맥락에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직업 활동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직업에 대한 의식 조사

4점 척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직업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높은 보수(3.41), 안정성(3.37), 능력 발휘(3.32), 쾌적한 근무 환경(3.25) 순이었고, 현재 보수가 높은 편인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수보다는 능력 발휘 등을 중요시한 반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집단에서는 높은 보수를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이 필요한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하여(3.33), 자아 실현을 위하여(2.80),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2.79),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2.73), 일 자체가 좋아서(2.69),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2.67)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인만을 선택하여 성별 비교를 했을 때 일 자체가 좋아서라는 생각은 여성이 높은 반면,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의무에 대한 생각은 남성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일 자체가 좋아서와 자아 실현의 동기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일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 네 가지 주요 측면인 직업 생활, 가정 생활, 여가 생활, 사회 생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학력, 직업, 경제 수준을 결합시켜 비교했을 때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가정 생활을 중요시한 반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 생활과 직업 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는 연령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각 영역별 상대적 중요성을 순위 매기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정 생활(56.0%)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업 생활(26.1%), 학업생활(9.7%), 사회봉사 및 친교(2.4%), 종교생활(5.8)의 순으로 나타났다.평생 직장에 대한 바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중ㆍ고등 학교 시절에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사자들인 10대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청ㆍ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학연ㆍ지연의 중요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맞벌이에 대해서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가장 낮았고,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직업 활동 단계별 의식 조사

가. 직업 준비와 관련된 의식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 즉 부모나 친구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40.0%가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60%는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 1순위는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33.2%)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24.5%), 진학· 유학정보(9.8%), 취업정보(9.4%), 창업 정보(7.0%), 자격증에 관한 정보(6.5%),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4.3%), 산업 및 경제 정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는 남자의 경우 개인 사업(41.8%)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정규직(39.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으로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이 3.31,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이 3.28,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이 3.19,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이 3.39,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이 3.17로 나타났다.

나. 취업에 관한 의식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바라는 직업으로는 교사, 공무원(경찰, 장관), 의사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교사, 공무원(경찰, 장관), 상업인(자영업, 유통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53.8%)이 넘었고, NCDA 문항의 결과 9%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진로 도움의 필요성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은 친구, 이웃, 선·후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친척순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은 친

구나 선배(22.7%)가 가장 많았고, 방송 매체, 정보지·잡지,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의 순이었다. 직업인의 직장 취업 방법(1순위)은 친구, 친지의 소개(39.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준비(16.2%), 구인·구직 정보(14.8%), 학교, 학원 추천(7.0%), 사업체 직접 방문(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직업 생활에 관한 의식

직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70.2%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29.8%였다. 그리고 일과 본인의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직장 생활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력과 성과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평균 2.53),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2.47),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2.24), 직무에 대한 역할 갈등 및 모호성(2.24), 직장 내 승진 어려움(2.13), 직장 내 동료 관계 문제(1.96)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 관계 만족(2.87), 직무 만족(2.73), 근무 환경 만족(2.62), 근로 조건 만족(2.53), 자기 발전 가능성 만족(2.49), 직업의 사회적 평판 만족(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직업 전환에 관한 의식

1,598명의 설문응답자들은 현재 직장이 최소 첫 번째 직장에서 최고 스무번째 직장으로, 현재의 직장은 평균 2.37번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장이동횟수의 분포는 역V자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5~19세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직업 전환 경험이 30~39세에 가장 왕성하게 직업 전환 경험을 나타내며 60~64까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전환 의도는 '직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16.8%)와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 있다'(11.3%)에 비하여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싶다'(72%)는

의견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직업 전환은 자신의 새로운 경력 확장을 통한 직업 발전의 의미보다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같은 현재의 직업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상용 근로자일수록 가능하면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직업 전환의도에서 “가능하면 지금상태로 유지하고 싶다’에 응답한 직업인에게 만약 귀하가 지금보다 나은 근무 환경(보수/ 직위/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안에 대해 ‘현재의 직장을 떠나지 않거나, 옮기고는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에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3.5%로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거나 혹은 당장은 힘들어도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에 응답한 전체의 51.6%보다 적게 응답하여 보수와 직위, 그리고 자신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제안하는 직장으로의 전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 은퇴에 관한 의식

한국인들의 경우 직업 활동을 지속하려는 욕구와 바램이 상당히 높은 편이0었는데, 한국인의 25.4%는 60세를 적정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있고, 31.6%는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직업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26.6%는 60세까지 본인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다른 26.6%는 60세를 넘어서까지도 본인의 직업 활동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희망 은퇴 시기별로 37.8%~65.2%)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또 다른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은퇴시점 이전에 직업을 그만두게 되거나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은퇴시점 이후까지도 직업 활동에 종사해야만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36.3%는 사회적 기회구조의 봉쇄, 직장 내 연령 통제를 은퇴 시기 예상의 주요한 사회적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고,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은 여가(64.6%)와 공부(3.5) 등 개인적인 생활 계획이 68.1%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사회 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적인 생활 계획은 17.0%로 적은 편이었다.

5. 정책적 제언

직업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건강한 직업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는 되어야 하는 반면,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의 진로 지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직업 준비와 취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학령기에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위한 각급 학교별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민 계층별 진로 및 직업에 관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성인 고용 안정 기관의 상담과 정보 제공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겠으며,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및 직업 체험이 직업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 직업 정보 개발 및 제공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 생활에 대해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근로 환경 개선과 여성 취업에 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직업 전환에 대해서는 먼저 직업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실직' 중심의 공공 고용 안정 기관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직업 전환' 서비스로의 확대와 여성 친화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검토, 질 높은 '직업 전환' 상담 서비스의 강화, 저학력·비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한 직업 전환 지원서비스 홍보 및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은퇴에 대해서는 조기 정년화 추세에 따른 직장 내 연령 통제로부터 취업자의 은퇴 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 연장과 같은 직장 내 취업 연령 안정 정책이 요구되고, 사회적 기회 구조의 봉쇄와 같은 사회적 이유로부터 취업자의 은퇴연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은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취업 촉진 정책과 사회 봉사 활동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자원 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 봉사 활동을 뒷받침할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은퇴자들을 위해 건전한 여가 공간과 여가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 례

표 차 례

그 림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그 동안 수행된 단편적인 직업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인을 계층별로 집단화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직업 의식을 분석한 바 있다. 1998년에 수행된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 이어 본 연구는 제2차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직업 세계는 급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업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5 6%대의 고실업 사태를 경험하였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현재도 높은 상태이다. 또한 평생 직장 개념은 평생 직업 개념으로 대체되었으며, 일용 및 임시직 노동자가 상용 노동자보다 더 많은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정보화,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정보 통신 산업 등 서비스 관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 세계의 판도 역시 서비스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이직 및 전직의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직업에 관한 각종 정보와 상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집단 및 계층에게 적합한 노동 및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해선 학력별, 성별, 인구 계층별, 소득 수준별, 지역별 각 집단 및 계층이 갖고 있는 직업 의식의 현 수준과 변화 양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의식 자체뿐만 아니라 미래 직업계획, 직업 전환, 직업 정보의 제공, 직업 상담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제

공의 수준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1998년에 NCDA(전국진로 개발협회) 주관으로 National Survey of Working America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NCDA 조사의 일부 문항을 차용해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의식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민을 특징별로 집단화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의식을 측정한다.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자 · 실업자 · 주부 · 학생 등의 사회 집단, 직업,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각 집단의 직업 의식의 차이를 측정한다.

둘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 태도, 의견 등을 조사한다. 국민들이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이 필요한 이유, 직업에 대한 통념 등을 조사한다.

셋째, 개인의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직업 행동을 측정, 이를 통해서 직업 의식을 측정한다. 개인의 생애 단계를 직업 준비, 취업, 직업 생활, 직업 전환, 은퇴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측정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1998년에 수행된 1차 조사와 1998년에 수행된 NCDA의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의 직업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미국 국민의 그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다.

2. 연구 내용

가. 직업 의식 연구를 위한 분석틀 작성

직업 의식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직업관, 직업 가치, 취업 의식, 진로 의식

등의 각종 개념을 정리하고, 본 연구 주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한다.

나. 직업 의식 조사 설문지 개발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를 개발한다. 특히 직업 생활의 전 과정, 즉 직업 준비, 취업, 직장 생활, 직업 전환, 은퇴에 관한 질문 항목을 개발하여 직업 생활의 실태와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본 연구의 제1차 조사 결과와 제2차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1차 조사 문항의 일부를 활용한다. 또한 미국 NCDA의 조사와 한국의 조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NCDA의 조사 문항 일부를 사용한다.

다. 한국인의 직업 의식 분석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고용 형태 등 각종 배경 변인에 따라 직업 의식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라. 직업 의식의 변화에 관한 분석

1998년과 2002년에 각각 수행된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인의 직업 의식이 지난 4년간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는지를 분석한다.

마.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국민들의 직업 의식을 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이끌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 나라 국민들의 직업 의식과 직업 선택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와 학교,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과

제를 탐구한다.

3. 연구 방법

가. 관련 문헌의 수집 및 분석

직업 의식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저서, 연구 보고서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 개념의 정리, 분석틀의 개발, 논쟁점 발굴, 설문 문항의 구성 등을 수행한다.

나. 설문 조사

15세 이상 성인 남녀를 지역별로 할당, 전국 규모에서 표본추출하여, 직업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목적 :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직업 의식 조사의 방향 설정과 조사 도구 개발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함.
○ 횟수 : 2회
○ 기간 : 2002년 4월 10일 4월 30일

라.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목적 : 연구 결과를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함.
○ 시기 : 2002년 11월 21일 오후 2시 - 5시 (예정)
○ 내용 : ‘한국인의 직업 의식’과 관련하여 연구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

4. 직업 의식 조사 실시

가. 조사 도구 개발

설문지 문항은 1차 조사 설문지와 관련 논문, 책자,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연구진에서 개발한다.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155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2002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이루어 졌다. 예비 조사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연구진 협의를 통하여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나. 조사 실시

○ 대상 : 인구 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의 15세 이상 2,514명
○ 조사 기간 : 6월 4일 - 7월 12일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 조사 지역 : 전국(제주도 제외)
○ 자료 수집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다. 표본추출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서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인구 비례 다단계 층화 추출법(Multi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지역 선정 방법

○ 지역별(7대 도시, 9개 도) 모집단의 인구 크기에 비례하여 조사 지점수 할당(표본 지점수는 15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
○ 지역별 인구수를 할당된 조사지점수로 나누어 이를 추출구간으로 선정
○ 지역별로 인구, 연령, 성별의 순으로 층화된 크기에 비례해 조사대상수를 할당
○ 누적인구수에 추출구간이 해당되는 동·읍·면을 조사지점으로 선정
○ 추출된 조사지점에서 난수표를 부여하여 통·리 선정
○ 추출된 통·리에서 통·이장집을 기점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한 가구씩 건너 뛰어가며 방문하여 면접

2) 가구 선정 방법

○ 한 가구에서는 반드시 한 명의 가구원만 면접
○ 가구 방문시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면접
○ 다세대 주택 및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의 경우 15가구, 고층 아파트의 경우 30가구당 1명씩만 면접
○ 단독 주택에 주인 가구 외에 세입 가구가 있는 경우, 번갈아가면서 면접을 실시

라.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서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 대상자들의 분포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지역별, 혼인 여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1>과 같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의 응답자들은 우리 나라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역별, 직업별로 모집단을 비교하여 대표성을 살펴보았다. <표 I-2>의 모집단과 직업 의식 응답자 분포의 비교(지역별)는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인구분포와 직업 의식 조사의 응답자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시·도별로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며, 직업

의식 조사 대상자들의 시도별 분포는 모집단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표 I-1>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II) 응답자 분포

구분		표본수(명)	표본분포(%)
성별	남자	1,276	50.8
	여자	1,238	49.2
연령별	15~19세	268	10.7
	20~29세	597	23.7
	30~29세	658	26.2
	40~49세	529	21.0
	50~59세	323	12.8
	60~64세	139	5.5
학력별	초등졸	137	5.4
	중졸	179	7.1
	고졸	982	39.1
	전문대졸	240	9.5
	대졸	475	18.9
	대학원졸 이상	50	2.0
	중학교 재학중	51	2.0
	고등학교 재학중	129	5.1
	전문대 재학중	48	1.9
	대학교 재학중	218	8.7
	무학	5	0.2
직업별	의회의원 · 고위임직원	41	1.6
	전문가	113	4.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7	7.4
	사무 종사자	284	11.3
	서비스 종사자	241	9.6
	판매종사자	304	1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0	1.6
	기계조작 및 조립원	179	7.1
	단순노무직 종사자	114	4.5
	실업자	42	1.7
	주부	420	16.7
	학생	415	16.5
	은퇴자	39	1.6
	기능인	95	3.8

<표 계속>

구분		표본수(명)	표본분포(%)
지역별	서울	577	23.0
	부산	210	8.4
	대구	138	5.5
	인천	134	5.3
	광주	71	2.8
	대전	72	2.9
	울산	54	2.1
	경기	485	19.3
	강원	81	3.2
	충북	75	3.0
	충남	98	3.9
	전북	104	4.1
	전남	109	4.3
	경북	145	5.8
	경남	161	6.4
혼인여부별	미혼	885	35.2
	기혼	1,629	64.8

다음으로 <표 I-3>의 모집단과 직업 의식 표집 분포의 비교(직업별)는 조사응답자의 직업별 분포가 우리 나라 직업인들의 직업분포와 일치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도표에 따르면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는 모집단에 비하여 과대 표집되었고,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는 모집단에 비하여 과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모집단과 실제 조사 응답자의 이러한 불일치는 직업별 할당을 따로 주지 않고 실시된 가구대상의 전국 규모 조사에서는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1)]

결론적으로 조사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모집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모집단과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 직업별 할당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지역별 할당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추출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구별 직업 분포에 관한 전국단위의 자료(sampling frame)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조사 결과를 이해 할 때 직업별 편차(bias)**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표** Ⅰ-2> **모집단과 직업 의식 표집 분포의 비교**(**지역별**)

	모집단*		**직업 의식 표집**	
	인구수(**천 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서울특별시	9,854	22.3	577	23.0
부산광역시	3,655	8.3	210	8.4
대구광역시	2,474	5.4	138	5.5
인천광역시	2,466	5.3	134	5.3
광주광역시	1,351	2.9	71	2.8
대전광역시	1,366	3.0	72	2.9
울산광역시	1,012	2.1	54	2.1
경기도	8,938	18.9	485	19.3
강원도	1,485	3.3	81	3.2
충청북도	1,463	3.2	75	3.0
충청남도	1,840	4.1	98	3.9
전라북도	1,887	4.2	104	4.1
전라남도	1,994	4.4	109	4.3
경상북도	2,716	6.1	145	5.8
경상남도	2,971	6.5	161	6.4
합계	**45,472**	**100.0**	**2,514**	**100.0**

***표집에서 제주도를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의 비율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 :// / www.nso.go.kr)

<표 Ⅰ-3> 모집단과 직업 의식 표집 분포의 비교(직업별)

	모집단		직업 의식표집	
	인구수(천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93	2.7	41	2.6
전문가	1,526	6.9	113	7.1
기술공 및 전문가	2,032	9.1	187	11.7
사무 종사자	2,655	11.9	284	17.8
서비스 종사자	2,847	12.8	241	15.1
판매 종사자	2,961	13.3	304	19.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2,209	9.9	40	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13	12.2	90	5.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67	10.6	179	11.2
단순 노무 종사자	2,370	10.6	114	7.1
합계	**22,273**	**100.0**	**1,593**	**100.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 / www.nso.go.kr)

마. 1차 조사 대상자와의 비교

2차 조사의 설문 문항 가운데 1차 조사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표 I-4>에서 보듯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설문 응답자 비교에 따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사회 집단별 분포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1998년의 고실업 상황을 반영하여 1차 조사의 실업자 비중(9.0%)은 2차 조사의 실업자 비중(1.7%) 보다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이러한 관계로 취업자의 비중은 2차 조사가 1차 조사보다 4.5%P 더 높다. 그밖에 2차 조사에는 은퇴자가 39명(1.6%) 포함되어 있으나 1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2) 금년에 실시한 2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실업자는 42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조사 응답자의 실업률(실업자수/ 전체취업자수+실업자수)을 계산하면 2.6%이다. 이것은 조사 당시 우리 나라 실업률과 거의 일치한다.

아니었다.

이와 같이 1·2차 조사 대상자의 집단별 분포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응답 결과를 비교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질문 문항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1·2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한 자료는 조사 대상자들 사이의 표본에서부터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 Ⅰ-4>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설문 응답자 비교 (단위: 명, %)

	1차 조사(1998년)	2차 조사(2002년)
취업자	1,773(59.1)	1,598(63.6)
학생	457(15.2)	415(16.5)
주부	501(16.7)	420(16.7)
실업자	269(9.0)	42(1.7)
은퇴자	-	39(1.6)
전체	3,000(100)	2,514(100)

II.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틀

1. 직업 의식의 개념

직업 의식이라는 말은 우리 나라에서 직업관, 직업 가치관, 진로 의식, 취업 의식 등 다양한 개념들과 함께 혼재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차이점들이 모호한 상태이다.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중심으로 직업 의식 및 관련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업 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자. 안치민・최경구(1992)는 직업 의식이란 직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사상・감정・견해 등 잠재적 의식까지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오늘날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대부분은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 활동은 현대인의 사회 생활에서 중심이 되고, 따라서 직업에 관한 가치 및 태도는 개인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현장의 기술인을 대상으로 직업 가치와 직업 만족, 그리고 관료 조직성과 전문 직업성을 조사하여 기술인의 직업 의식과 직업성을 탐구하였다.

곽유석(2001)은 직업 의식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하에 이 연구는 공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직업 의식을 갖도록 하며,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탐색하고, 학생들의 직업관 및 의식 구조, 직업 가치관의 결정 요인, 진로 선택에 대한 만족도, 장래 진로 선택에 대한 성향 등을 8개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1994)은 직업 군인의 직업 의식 영향 요소, 형성 과정, 형성 기제를 발견함으로써 장교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군 전문 직업주의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직업 군인의 전문 직업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 의식은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 적응, 직업

윤리,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등 직업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일련의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한정자(1987)는 여성에 대한 직업 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직업 의식이란 직업에 대한 가치관, 즉 직업에 대한 생각, 직업을 보는 눈, 직업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 의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 즉, 직업이란 무엇인지 아는 것, 이 사회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 직업과 자신의 장래와의 관련성을 맺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1991)은 직업 의식이란 직업에 대한 가치 기준이며 동시에 직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태도를 말하므로, 직업 의식은 개인이 직업을 정할 때 자기를 알고 무엇을 중요시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의식의 정립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홍기형 · 이승우(1987)는 직업 의식이란, 한 개인 또는 한 사회가 일(work) 또는 자리(status)에 의해 형성되는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1차 보고서인 김병숙 외(1997)는 직업 의식이란 주어진 시점에서의 일에 대하여 지각 · 사고 · 느낌을 통해 정확한 표상의 신념 체계를 갖고 가치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신념 체계에 의하여 행동적인 표상인 태도를 가지며, 태도 · 가치 · 신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상하여 언어적으로 의견으로 표현하고, 일에 있어서 빈번히 반복되는 행동인 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직업 의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직업 가치관, 직업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재태(1987)는 직업 가치관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념 및 태도, 일에 부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직업 환경 그리고 사회화 매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점 또는 의견이라고 정의하면서 연계 교육 기관들의 효율적인 진로 교육 실시를 위해서 공업 고등 학교 학생과 직업 훈련원생의 직업 가치관 및 직업 선정 태도를 조사하였다.

임언 외(2001)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및 가치들에 대해 각 개인이

상대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서의 진로 선택 및 진로 상담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직업 가치관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정의되었다.

한편 Kinnane & Pable(1962)은 Work Value(직업 가치)에 대해서 '직업 가치는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며, 이는 가족, 학교, 가족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매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보았다. Zytowski(1970)는 직업 가치를 진로 결정시 고려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Kalleberg(1977)는 직업 가치를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가지는 생각, 즉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좀 더 일반화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Super(1970)는 직업 가치를 만족의 관점에서 직업 활동 자체에서의 만족(내재적 직업 가치관)과 직업 활동의 결과로서의 만족(외재적 직업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Hyot(1973)는 직업의 의의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직업윤리라는 용어가 직업 가치관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직업 가치관은 특정한 직업에서의 근로자의 적응과 만족에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Wollack은 직업 가치를 특정한 직무에 관해 가지는 견해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직업에 대한 개인적 태도(Wollack, et al., 1971)라고 정의하였다.

김영애(1999)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직업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직업 가치관이란 개인이 직업에 대하여 지닌 사고방식 또는 직업적 신념으로 가치 판단이 함축된 가치 부여를 뜻하며 개인 또는 사회가 일과 자리에 따라 갖게 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정수현 외(1989)는 직업 가치관이란, 직무에 종사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생겨나는 갖가지 사태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가치 의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연구원(1991)은 직업관이란, 개인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이라 하였고, 홍기형 · 이승우(1985)는

직업관이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종사하려는 직업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강맹현(1994)은 직업관이란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개인이 직업에 대하여 지닌 사고 방식 또는 직업적 신념으로 가치 판단이 함축된 가치부여를 의미한다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경요인(성별, 지역별, 부모의 직업별, 부모의 학력별, 생활 수준별)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태도 및 미래의 교육 현장에서 건전한 직업관 확립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 및 진로 선택에 대한 관점, 직업관, 진로 지도 현황, 직업 정보의 활용, 여성취업 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직업 의식, 직업 가치관, 직업관 등과 관련한 내용은 <표 Ⅱ-1>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Ⅱ-1> 직업 의식 관련 용어의 개념

개념	학자	정의
직업 의식	안치민 · 최경구(1992)	직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 · 사상 · 감정 · 견해 등 잠재적 의식까지를 통칭하는 것
	곽유석(2001)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한국국방연구원(1994)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 적응, 직업 윤리,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등 직업에 대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일련의 태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요구하는 당위적 측면의 직업 의식을 포함하는 개념
	한정자(1987)	직업에 대한 가치관, 즉 직업에 대한 생각, 직업을 보는 눈, 직업에 대한 태도(비슷한 용어로 직업관, 직업적 가치관, 취업 의식)
	충청북도교육연구원(1991)	직업에 대한 가치기준이며 동시에 직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태도를 말하므로 직업 의식은 개인이 직업을 정할 때 자기를 알고 무엇을 중요시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의식의 정립
	김병숙 외(1997)	주어진 시점에서의 일에 대하여 지각, 사고, 느낌을 통해 정확한 표상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가치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신념 체계에 의하여 행동적인 표상인 태도를 가지며, 태도 , 가치 , 신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상하여 언어적인 의견으로 표현하고, 일에 있어서 빈번히 반복되는 행동인 습관을 갖는 것
	홍기형 · 이승우(1987)	한 개인이 또는 한 사회가 일(work) 또는 자리(status)에 의해 형성되는 의식
직업 가치관	강재태(1987)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의 대한 관념 및 태도, 일에 부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직업 환경 그리고 사회화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특정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점 또는 의견. 이 연구에서는 직업에 관계된 생활태도와 업무와 여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정수현 외 2인(1989)	직무에 종사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생겨나는 갖가지 사태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가치 의식
	임언 외(2001)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김영애(1999)	개인이 직업에 대하여 지닌 사고방식 또는 직업적 신념으로 가치 판단이 함축된 가치 부여를 뜻하며 개인 또는 사회가 일과 자리에 따라 갖게 되는 가치관을 의미
직업 관	충청북도교육연구원(1991)	개인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
	강맹현(1994)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개인이 직업에 대하여 지닌 사고방식 또는 직업적 신념으로 가치 판단이 함축된 가치부여를 의미
	진인권(1974; 양한주, 1998)	직업과 계급과의 관계를 고착된 것 또는 개인이 그것을 바탕으로 천직으로 삼을 만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
	홍기형, 이승우(1985)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종사하려는 직업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4절의 연구 분석틀에서 그 논리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직업 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먼저 직업 의식이라는 개념은 '직업'에 대한 의식과 '직업 활동 단계별' 직업 의식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직업에 대한 의식은 직업 가치, 직업에 대한 태도 등 직업 일반에 관한 사고와 태도를 말한다. '직업 활동 단계별' 직업 의식은 직업 준비, 취업, 직업 생활, 직업 전환, 은퇴 등 직업 활동의 각 단계별로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의식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직업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직업 의식의 하위 영역

학자마다 직업 의식의 정의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직업 의식의 하위 영역 또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안치민 · 최경구(1992)는 직업 의식을 직업 가치와 직업만족도 두 개의 영역으로 제한해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업을 자아 실현적 · 보상적 · 기여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보면서, 이러한 직업에 대한 견해를 직업 가치 영역으로 삼아서 ① 자아 실현적 가치(일의 재미, 시간적 여유, 지식 활용도, 능력 발휘의 기회, 성취감), ② 보상적 가치(사회적 존경도, 사회적 영향력, 소득, 직업안정성, 장래성), ③ 기여적 가치(사회적 공헌)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7점 척도를 사용해서 직업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한국언론연구원(1993)은 한국과 미국의 언론인들 사이의 직업 의식을 비교하기 위해 ① 직업 만족도, ② 윤리 의식 및 가치관, ③ 직업인으로서의 영향력, 직업환경 등 4가지 영역에서 직업 의식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 만족도는 보수, 상사로부터의 자유, 독자 · 시청자에 봉사할 기회, 회사의 편집 · 편성정책, 직업의 안정성, 전문성 개발 기회, 자율성 정도, 승진 가능성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윤리 의식 및 가치관은 취재 윤리, 뉴스 가치관 형성 요인, 수용자에 대한 태도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직업으로서

의 영향력은 언론인 영향력의 당위적 위상과 실태에 관한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고, 직업 환경은 아이디어를 기사화할 수 있는 자유, 타인으로부터 기사 수정을 받는 태도, 기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평을 받는 대상에 대한 물음을 통해 측정하였다.

신혜식(2000)은 진로 발달 단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인문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직업 교육 지각 및 직업 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12문항의 직업 의식 척도를 통해 직업 의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채택한 12문항은 ① 직업의 귀천, ② 결혼 조건으로서의 학벌, ③ 학과에 대한 정보, ④ 부모의 학생 적성인지 유무, ⑤ 진로 문제와 결혼 문제간의 관련, ⑥ 진로 교육의 효과, ⑦ 진로 정보의 학교 보유 여부, ⑧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 ⑨ 진로 교육 내용의 적절성, ⑩ 적성 검사의 중요성, ⑪ 진로에 대한 부모 의견의 반영, ⑫ 학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에 관한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1994)은 장교를 대상으로 ① 개인적 · 심리적 접근, ② 조직론적 접근, ③ 문화 환경적 접근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책임성, 전문성, 단체성, 군인 정신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 의식의 구성 요인은 네 가지 영역의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성은 애정과 충성심, 충성 서약 준수, 희생적 봉사, 국익 우선 추구, 장교로서의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은 충분한 교육, 전문 지식 · 기술, 판단력 · 통찰력, 부대 관리 지식으로 되어 있으며 단체성은 동료애, 상관의 신임, 동료의 신임, 부하의 신임, 일체감으로 되어 있고, 군인 정신은 진정한 용기, 명예심, 품위와 인격, 불굴의 정신, 규율 준수 항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직업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영역에서 3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개인적 측면에서는 가정 요인(자녀 존경, 자녀 긍지, 아내 느낌), 동료요인(친한 동료, 동료 도움, 죽마고우)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직무내용(업무 적성, 업무 흥미, 업무노력, 자부심, 업무 능력, 부서 만족), 조직전체(정책변화, 위상변화, 상급부대), 보상(보수수준, 복리후생, 직업 안정, 진급 기회, 교육 훈련, 여건 변화), 인사(상벌 체계, 인사 전반, 업무 권한), 업무 자율성(업무 한계, 업무 권

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는 직업관(높은 급료, 직업 안정, 특별 은전), 가치관(자기 절제, 동질 지향, 질서 안정, 절대 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애(1999)는 고등 학생의 직업 의식 측정을 위해 ① 직업 의식, ② 직업 이해, ③ 진로 교육, ④ 직업 준비, ⑤ 직업 선택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 의식은 직업의 의미,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견해, 직업과 귀천의식,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애 목표 결정 여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에 대한 고려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직업 이해는 직업의 종류에 대한 지식, 장래유망한 직업에 대한 지식, 장래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 여부, 장래 직업에 대한 자신감, 직업에 대한 관심 시기, 직장에서의 성공 요건으로, 진로 교육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 빈도, 진로 상담의 대상, 진로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 진로 교육의 소득, 유익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유형으로 측정되었다. 직업 준비는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진학 동기, 직업 관련 정보 수집 경로, 취업과 관련한 상담의 필요성 여부, 사회에 대한 바람으로, 그리고 직업 선택은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 정도, 희망하는 직업 유형, 직업 선택시 장애요인, 직업 선택시 첫 번째 고려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직업 의식을 연구한 권일남(2000)은 직업 의식을 봉사성, 독창성, 독립성, 욕구 충족성 및 자아 실현성, 지도성, 수익성, 안정성 및 장래성, 대인 관계 등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노동부(2000)는 직업 의식을 두 가지 측면, 즉 ① 태도적 측면(직업 인식, 진로 의식 성숙도), ② 행동적 측면(직업 준비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 인식은 취업에 대한 태도(직업 욕구 및 기대, 직업 선택시 고려요인, 취업에 필요한 현실적 요건)와 직무 헌신(일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일의 비중, 성별 업무 구분에 대한 견해)으로 나뉘고, 진로 의식 성숙도는 진로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진취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직업 준비도는 대학 진학 및 전공 선택 과정, 업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취업 준비 활동으로 분류된다.

정석원(1999)은 종사자들의 성격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직

업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의 직업 의식 성향과 직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 의식을 자신의 직업, 사회적 인식도, 천직 의식, 전문성, 장래성, 직장과 가정, 여가와 잔업 등의 항목으로 측정으로 하고, 직무 만족(근무 시간, 업무 성격, 업무 절차, 내·외적 직무 만족, 창조 지향성, 전직시 대우), 의사 소통(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조직 몰입(직무에 대한 느낌), 근무 조건(사내 보수와 근무 조건, 타 일반 산업 보수와 근무 조건)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직업 가치관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자. 임언 외(2001)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발휘, 다양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지도력 발휘, 더불어 일함, 사회봉사, 발전성, 창의성, 자율성의 11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상 성인에게 해당하는 가치들은 제외되었다.

임인재(1990)는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알맞은 직업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장차 만족스럽게 종사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중·고등 학생 및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가치관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 가치관의 하위 영역으로 탐구성, 자율성, 질서정연성, 사회적 안정성, 심미성, 사회봉사성 등 8가지를 설정하였다.

강재태, 강은영(1987)은 직업 가치관을 내발적 영역(intrinsic area), 외발적 영역(extrinsic area), 부수적 영역(concomitant area)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직업관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혜란(2001)은 직업관과 직업 가치관을 동등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인 직업관은 진로 의식, 직업 선택, 직업 준비, 직무 태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 의식은 직업의 필요에 대한 인식, 직업이 필요한 이유,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 원하는 직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부모의 직업에 대한 인식, 직업의 의미 등의 항목으로 측정되었고, 직업 선택은 희망 직업, 직업 획득 방법, 직업 선택의 장애요인, 직업 선택시 부모와 의견이 다를 경우 등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직

업 준비는 직업 준비를 위한 본인의 지식, 직업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직업(취업)에 대한 정보 습득, 취업(진로)과 관련된 상담의 필요성, 사회에 대한 기대 등으로, 직무 태도는 직장 생활에서 하는 싶은 것, 직장에서 희망부서, 직업에 불만이 있을 경우의 행동, 직장 생활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점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문인국(2000)은 진로 의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진로 지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의식에 관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 의식을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진로 선택의 경향, 직업 의식의 세 가지 영역으로 보았다. 이 가운데 직업 의식의 하위 영역은 부모의 직업에 대한 생각, 인생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직업(일)에 대한 의미, 결혼 후 여성의 직장 생활, 직업 선택시 자녀와 의견이 다를 경우,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이해 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업 의식, 직업 가치관, 직업관, 진로 의식의 하위 영역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직업 의식 관련 개념의 하위 영역

개념	학자	하위 영역
직업 의식	안치민 · 최경구 (1992)	• 직업 가치(자아 실현적, 보상적, 기여적) , 직업 만족도
	한국언론연구원 (1993)	• 직업 만족도, 윤리 의식/ 가치관, 직업(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 직업환경
	한국국방연구원 (1994)	• 책임성, 전문성, 단체성, 군인 정신
	한정자(1987) (황응연외, 1977, 재인용)	• 직업에 대한 개념,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과 자신과의 관계
	김영애(1999)	• 직업 의식, 직업 이해, 진로 교육, 직업 준비, 직업 선택
	신혜식(2000)	• 직업의 귀천, 결혼 조건으로서의 학벌, 학과에 대한 정보, 부모의 학생 적성인지 유무, 진로 문제와 결혼 문제간의 관련, 진로 교육의 효과, 진로 정보의 학교 00보유 여부,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 진로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적성검사의 중요성, 진로에 대한 부모의견의 반영, 학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
	권일남(2000)	• 봉사성, 독창성, 독립성, 욕구 충족성 및 자아 실현성, 지도성, 수익성, 안정성 및 장래성, 대인 관계
	노동부(2000)	• 태도적 측면(직업 인식, 진로 의식 성숙도), 행동적 측면(직업 준비도)
직업 가치관	임언 외(2001)	• 능력 발휘, 다양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지도력 발휘, 더불어 일함, 사회 봉사, 발전성, 창의성, 자율성.
	임인재(1990)	• 탐구성, 자율성, 질서 정연성, 사회적 안정성, 심미성, 사회 봉사성
	강재태, 강은영 (1987)	• 내발적 영역(intrinsic area), 외발적 영역(extrinsic area), 부수적 영역(concomitant area)
직업관	정혜란(2001)	• 진로 의식, 직업 선택, 직업 준비, 직업 태도
진로 의식	문인국(2000).	•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 진로 선택의 경향, 직업 의식 • 직업 의식의 구체적인 영역(부모의 직업에 대한 생각, 인생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직업(일)에 대한 의미, 결혼 후 여성의 직장 생활, 직업 선택시 자녀와 의견이 다를 경우,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이해 정도)

3.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

가. 현장 근로자의 직업 의식

안치민, 최경구(1992)는 한국 기술인의 직업 의식과 직업성이라는 연구에서 직업 의식을 직업 가치와 직업 만족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술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의 성향이 52.6%, 불만족의 경향이 20.1%로서 전반적으로 기술직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실현이나 사회적 기여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상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길(1993)은 상선 선원들의 직업 의식의 차이를 세대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선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이직(移職)을 할 때 임금 수준이나 결혼 등의 문제보다도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업의 사회적 평가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정석원(1999)의 연구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 의식은 의사 소통, 직무 몰입, 직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직장 생활이 58.2%로 가정 생활의 41.8%보다 높게 나타났고, 잔업(26.3%)보다는 여가(73.7%)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이직경험은 1~2회가 39.2%로 가장 많았고, 3~4회가 25.5%, 없다가 25.5%로 같게 나타났다.

장기영(2000)은 언론인들의 직업 윤리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 나라 신문기자들의 경우 스스로의 직업 윤리 의식에 대한 물음에서 ‘그저 그렇다’(50.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낮다’(29.8%)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 스스로 직업 윤리 의식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 만족도에서는 언론직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언론직을 전문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언론직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불공정 보

도로 지적을 당한 경험이 적었으며, 오보로 인한 정정 기사보도 경험도 적었다. 또한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촌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국언론연구원(1993)은 한미 언론인의 직업 의식을 비교하였다. 먼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미 언론인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정부의 주장이나 발표 내용의 진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물음에 대해서 미국은 66.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10.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급적이면 대중의 흥미를 끄는 뉴스를 중점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20.2%가 중요하다고 한 반면, 한국은 74.1%가 중요하다고 대답해서 한미 언론인의 의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 만족도 면에서는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미국 언론인의 직업 만족도가 한국 언론인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8가지 직업 만족도 요인(보수, 상사로부터의 자유, 독자・시청자에 봉사할 기회, 회사의 편집・편성 정책, 직업의 안정성, 전문성을 개발시킬 기회, 자신이 가진 자율성의 정도, 승진 가능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미국 언론인들은 대중에게 봉사할 기회(61%), 편집 정책과 직업 안정성(57%)의 순으로 응답했는데, 한국 언론인들은 전문 개발성(51.9%)을 첫 번째로, 자율성(43.4%)을 두 번째로 응답하였고, 보수와 승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 여성의 직업 의식

안영자(1998)는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환경, 작업 환경, 직업 의식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특징은 M자형에서 역U자(∩)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형 여성 취업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이 직장을 가진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이 좋아서'가 15.7%, '자아 실현'이 15.0%로 나타났다. 근로 의욕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보수가 적다'가 17.1%로 나타났고, 다음은 '단순작업이 반복된다'가 15.6%로 나타났다.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여성 고용 정책으로 탁아문제와 가사와 직업

을 조화시킬 수 있는 노동 환경의 조성을 꼽고 있었다.

장하진 외(2000)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학력 여성에 대한 취업 의식을 조사하였다. 여자 대학생들의 96.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고, 직업을 갖는다면 평생 직업으로 갖는다가 8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취업 준비는 취업 희망도에 비해 소극적으로 나타났고, 취업 정보를 입수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자(1987)는 여성 직업 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의식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84.8%가 취업을 했었고, 취업경험에 비추어 66.4%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사와 직장 일의 이중역할에 따른 부담'이 24.8%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이 길거나 일이 고되서'가 18.8%로 두 번째로 나타났고, '대인관계'가 16.8%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취업, 사회 활동 중 겪는 애로점에서 가장 큰 것은 '집안 일과 직장 일을 함께 하기 어려워서'가 45.1%로 결혼으로 인한 이중역할의 부담이 취업 여성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소년의 직업 의식

권일남(2000)은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직업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봉사나 사회적 능력 향상보다는 성공률, 조직 분위기 등 개인의 발전과 관련된 직업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독창성과 창의성은 낮은 수준에 있었다. 독립성과 자아욕구실현성에서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선호하였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많이 나타냈다. 또한 대인 관계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는 개인이 중심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직업 의식을 보였다.

곽유석(2001)은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관과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직업관에 관련된 항목 중에서 직업의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서는 '돈을

벌어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계 수단으로가 21.9%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물질적인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직업의 귀천에 대한 물음에서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75%로 나타났고,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6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진로 만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전공학과와 적성이 잘 맞는지에 관한 물음에서 적성에 잘 맞는다가 48.9%, 잘 맞지 않는다가 51.1%로 나타났고, 공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에서 83.3%가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인국(2000)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의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로 학생(71.6%)과 학부모(75.9%) 모두 능력과 적성이 가장 중요하고 보았고, 인생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은 학력(38.9%), 학부모는 성질과 능력(38.9%)을 꼽아서 약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에 대해서 학생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는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의미에 관한 물음에서는 학생은 생계 수단(43.5%)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는 삶의 보람(52.9%)을 가장 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애(1999)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직업 의식을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직업을 갖는 의미를 생활 수단(45.1%)이나 자아 실현(23.8%)에서 찾았다. 또한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자기 적성에 맞고 안정되며 미래가 약속된 직업(89.3%)을 선호하였다. 또한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하여서는 일반계(51.4%) 고등학생들이 실업계(33.3%)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맹현(1994)은 인문계 고등 학생들의 직업 선택 및 직업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88.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 선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선택에 대한 관심의 시기는 중학교 때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는 능력과 적성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래성이 19.5%, 흥미가 12.4%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수(6.3%)나 명예(1.3%)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희망하는 직업 선택의 조건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60.0%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직업인의 자세로는 책임감(45.3%)과 성실성(21.5%)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숙, 조재순(1994)은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관이 학교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직업 활동 예정시기는 4년제 대학 졸업 후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을 갖는 이유는 소질 계발 및 자아 실현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 선택의 조건으로는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이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장래전망이 좋은 직업(23.0%)으로 나타났다. 직업 활동 예정 기간은 평생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학생은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혜식(2000)은 인문계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직업경험 유형별로 직업 의식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 교육 지각 유형과 직업 교육 경험 유형이 직업 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경(1998)은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진로 선택의 경향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중・고등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예술인이었고, 직업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선호 경향에 있어서는 초등 학생이 '체육인', '과학자' 등을 선호하는 데 비해서 중・고등 학생은 '의료인', '상업・사업가' 등을 선호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선호하는 직업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혜란(2001)은 실업계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관을 진로 의식, 직업 선택, 직업 준비, 직무 태도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먼저,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는 생계 수단(6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하는데 느끼는 보람(17.5%), 자아 실현의 수단(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하는 직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 및 능력'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75.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직업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는 장래성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 기타

조흥복(1995)은 사무직, 영업직, 교사, 은행원 등 네 가지 직업별로 여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 개발을 위한다'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가 활동의 필요성은 절대 필요하다가 50.1%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는 5.4%에 불과했다.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보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과 만족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4.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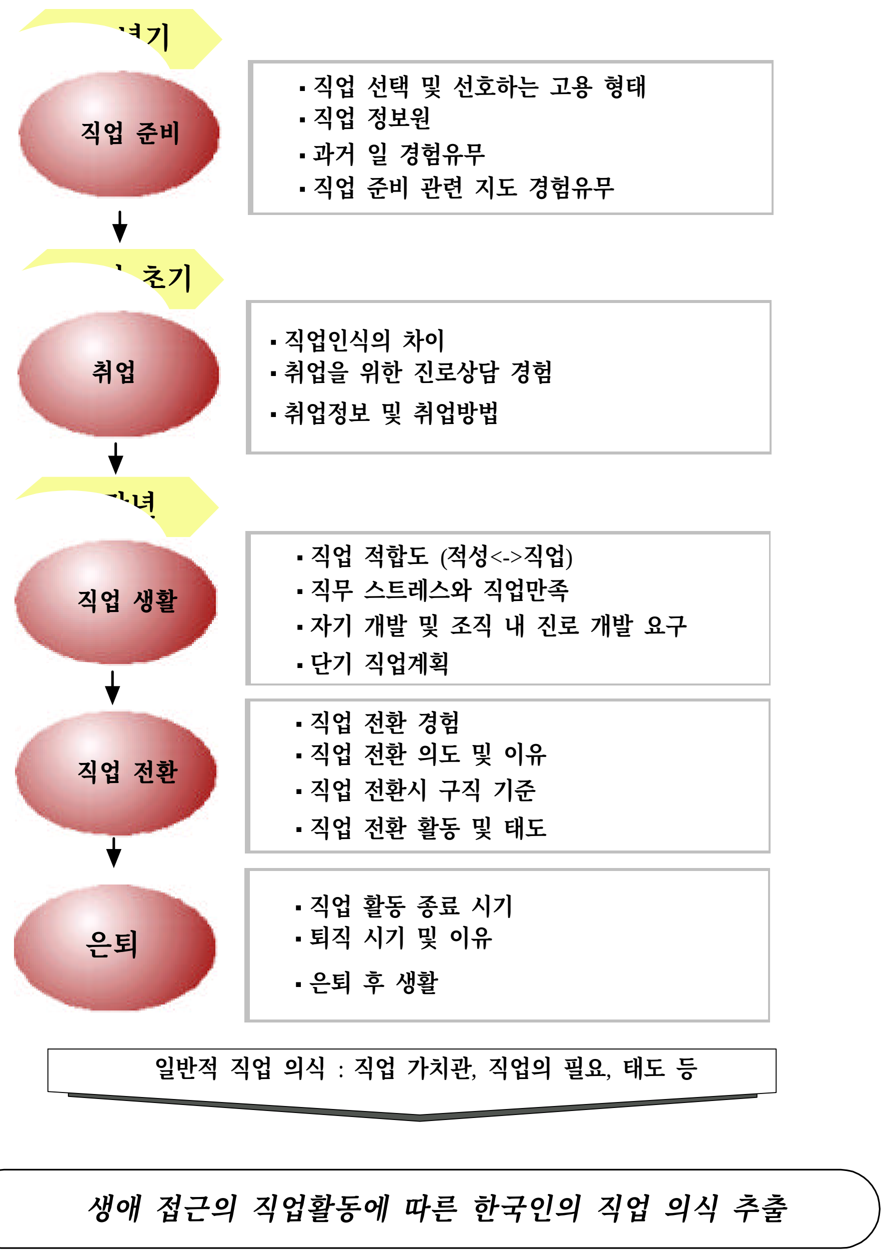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직업 의식은 직업관, 직업 가치관, 취업 의식 그리고 진로 의식 등 다양한 개념들과 함께 혼재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고, 직업 의식에 대한 하위 영역 역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접근되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의식을 직업 준비, 취업, 직장 생활, 직업 전환, 직업 은퇴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식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포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 경험의 유무(有無)를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의 전 국민이며, 이들의 직업 생활 전(前)과 후(後) 모두를 포괄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대상은 직업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업 준비 중인 실업자, 직장인, 은퇴자, 주부 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대상적 특징으로 인하여 직업 준비에서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의 직업 활동의 다면적 측면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작성된 것이 [그림 Ⅱ-1] 한국인의 직업 의식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은 인생의 생애 단계를 청소년기, 성인 초기, 중・장년기로 구분하고 생애 단계별 경험 가능한 직업 행동(vocational behavior)을 구분하였다. 다섯 가지 직업 행동 영역은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어지는 직업 발달 과업(task)에 따라, 청소년기의 직업 준비 단계, 성인 초기의 취업단계, 중・장년기의 직업 생활, 직업 전환, 그리고 은퇴 단계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계마다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적 맥락에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직업 활동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모든 생애 단계에 걸쳐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직업 의식, 즉 직업이 필요한 이유, 직업에 대한 일반 가치의 인식 정도, 그리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림 Ⅱ-1] 한국인의 직업 의식 분석틀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직업 의식을 모든 연령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직업 의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 각 생애 단계별 구체적 직업 생활에 대한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생애 접근의 직업 행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직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Ginzberg(1966),David(1977), Super(1981) 등의 생애 접근(life-span approach)적 연구로부터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본래 진로(career)란 개념은 개인의 직업 생활에서 상향 이동(upward mobility) 혹은 특정 직업의 종사와 같이 개인의 삶 속에서의 발생되는 한 시점의 사건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주용 마차' 라는 희랍어원을 가진 진로의 개념은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을 총칭(Totality of Work)하는 개념으로 진학, 졸업, 취업, 직업 전환, 결혼, 이혼, 여가활동 등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생전반의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Osipow, 1994, 이지연, 2001).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는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수단(means)이기도 하며, 임금을 받는 직업(jobs)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년기에서부터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활동(work activities)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생애 전반적인 모든 활동 중에서 직업 관련 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수의 생애 접근 관련 연구 속에서 지지되고 있다.

David W. Winefordner(1978)는 개인의 진로를 구성하는 많은 종류의 활동을 ①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활동, ② 임금을 받는 직업(occupations) 활동, ③ 가사 일과 집 수리, 자녀와 가족 구성원 돌보는 가정과 가족(home and family) 활동, ④ 지역 사회 및 시민 활동(community and civic activity)으로 나누었으며, 진로를 구성하는 이러한 활동이 여러 시간대의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을 진로 유형(career pattern)이라 하였고, 이러한 진로 활동의 결합 방식의 묶음을 나타나는 종류를 진로 경로(career path)라 총칭하였다(이지연 외, 1998).

David의 연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진로 발달 형성에는 개인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와 같은 의식의 반영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다양한 진로 활동 중 임금을 받는 직업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진로유형차트를 통하여 제시하였다.[3)]

Super(1957)는 개인의 진로-발달 유형을 성별에 따라 여성의 경우는 ① 안정된 가정 주부형, ② 전통적인 진로형, ③ 안정적인 진로형, ④ 이중 진로형, ⑤ 단절 진로형, ⑥ 불안정한 진로형, ⑦ 충동적 진로형의 7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여성이 직업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 선택과 유지, 전환의 특징들을 결혼이라는 변인과 함께 횡단적으로 종합하여 구분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① 안정형, ② 비안정형, ③ 전통형, ④ 시도형(Multiple- Trial)으로 나누어 직업의 성격과 개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주요변인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생애 접근에 기초한 학자들의 연구는 아래 <표 Ⅱ-3>과 같이 개인의 삶 전체에서 경험되는 개인의 진로 발달을 '직업' 생활이라는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3) 진로 유형 차트란 나이와 4종류의 진로 활동을 메트릭스로 만들어 해당 나이에 가장 중요하게 활동한 것을 빗금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진로 활동 정도를 통한 진로 유형 구분을 가능하도록 만든 챠트임.(David W. Winefornder(1978) Career-Decision-Making Program, Appalachia Educational Laboratory, Inc.)

<표 Ⅱ-3> 생애 접근의 진로 발달 분류 시도

Ginzberg(1966) Life-Style	Zytowski(1969) 직업 발달유형	Sanguiliano(1978) 삶의 패턴	Malcolm S. Knowles(1972) 생애역할	Richard N. Bolles(1995)
1.전통적(Traditional) 생애유형 - 가정 위주	1. 중간 직업적 (Mild Vocational)	1. 동면 (Hibernation)	1. 개인적 생애역할 - 학습자 - 자아	1. 교육 세계
2.전환적 (Transitional) 생애유형 - 직업 생활 보다 가정에 중점	2. 평균 직업적 (Moderate Vocational)	2. 부활 (Renewal)	2. 사회적 생애역할 - 친구 - 가족구성원 - 일하는 사람 - 시민 - 여가활용자	2. 일의 세계
		3. 연기 (Postponement)		3. 퇴직후의 세계
3.혁신적(Innovative) 생애유형 - 직업과 가정 생활에 공평한 비중	3. 특별한 직업적 (Unusual Vocational)	4. 실현 (Actualization)		

자료 : 이지연 외(1998). 한국인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 교육모형 연구.

Ginzberg(1966)는 여성의 진로 발달을 '가정'과 '직업'의 변수를 중요한 기준점으로 전통적, 전환적, 그리고 혁신적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Zytowski(1969)는 직업 활동의 강도에 따라 중간, 평균, 그리고 은퇴 이후의 특별한 직업 단계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Sanguiliano (1978)는 삶 속의 일을 대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동면, 부활, 연기, 그리고 실현이란 용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Malcom S.(1972)은 개인과 사회의 생애 역할을 통하여 개인의 직업 발달이 이루어짐을 제시하였다. 한편 Richard(1995)는 정규 교육 과정을 경험하는 사건, 졸업 후의 직업경험, 그리고 퇴직 후의 경험이란 생애사건(life-event)을 교육, 일, 퇴직이란 구분으로 개인의 진로 발달과의 연관성을 일반화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삶 전체라는 횡단적 접근 속에서 '직업'이란 기준을 가지고 삶 속의 시간대를 구분하여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화의 주된 활동을 '직업'생활로 접근한 것이다.

Super(1981)는 진로 유형 연구(Career Patterns Study, CPS)를 심층 성장·변화시켜 25세(Super, Kowalski & Gotkin, 1967), 36세(Kleinberg, 1976), 그

리고 50세 (Fisher, 1989)를 대상으로 장기 연구(Longitudinal Research)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생애 접근 진로 개발(“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이란 논문으로 발표하였다.[4] Super는 생애 단계를 4단계, 즉 청소년기, 성인 초기 단계, 중년 단계, 그리고 장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task)을 성장, 탐색, 확립, 유지, 그리고 쇠퇴로 구분하여 직업과 관련된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과업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생애 접근적 진로 발달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직업과 관련된 활동은 직업의 준비에서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다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의 직업 의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업 활동의 주요 국면에서 맞닥트리는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아래의 <표 Ⅱ-4>는 다면적 직업 활동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개발된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 설문 도구의 하위 영역 및 세부 질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4) 이 논문은 개인의 인생을 나이에 따라 구분하고 그 나이에서 요구하는 생애 역할과 직업 행동을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전제하였다. 인생단계모델(Life-Stage Model)의 ″생애 진로 무지개“(The Life-Career Rainbow, 1980)는 개인의 인생단계별 진로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진일보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애 진로무지개“ 도형은 김병숙외 『‘직업심리학』(1999) 207쪽에 상세히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다.

<표 Ⅱ-4> 직업 의식 설문지 하위 영역 구조

구 분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문항
Ⅰ. 직업에 대한 의식	1. 직업에 대한 가치관	시간적 여유, 쾌적한 근무 환경, 높은 보수,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사회에 봉사, 자유 재량권, 안정성, 발전성, 함께 일함, 창의성 발휘, 다양성, 리더쉽 발휘	13
	2. 직업에 대한 태도	일, 여가 활동, 가정, 사회활동 지향	8
	3.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12
	4.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돈, 일, 자아 실현, 사회적 인정, 의무, 연대감	6
	5. 삶에 있어서의 비중	직업, 가정, 학업, 사회 봉사, 여가	1
Ⅱ. 직업 준비	1. 직업 선택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	1
	2. 진로 지도 경험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과 내용	2
	3. 직업 정보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4. 선호하는 고용 형태	자신의 직업에서 갖고 싶은 고용 형태	1
	5. 학교 재학 중 일의 경험	학교재학 중의 일의 경험	1
	6. 직업에 대한 개인적 준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직업을 위해 준비하고 싶은 것	1
Ⅲ. 취업	1. 이상적인 직업	부모와 본인의 이상적인 직업의 차이	1
	2. 진로에 대한 도움	진로 도움의 필요성, 취업할 때의 도움, 진로를 위해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3
	3. 진로 선택을 위한 상담 경험	방문 여부와 도움의 유용도	2
	4. 직업 정보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주로 얻는 곳	1
	5. 직업인 여부	직업인과 비직업인을 구분	1
	6. 취업 방법	현 직장의 취업 방법	1
Ⅳ. 직업 생활 / 직업인	1. 직업 적합도	직업과 자기 능력과의 적합성 부적합자의 직업 생활 유지 이유	2
Ⅳ. 직업 생활 / 직업인	2. 직무 스트레스와 만족도	직업 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직업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2
	3. 여성의 취업형 태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 형태	1
	4. 바람직한 직업 생활 유형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 생활 유형	1
	5. 직업의 사회적 위세	24개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 평가	1

<표 계속>

Ⅴ. 직업 전환	1. 직업 전환 경험	개인의 직업 경로(직업, 근무 기간, 퇴사 이유)	2
	2. 직업 전환 의도	직업 전환의 의도(직종 변경, 직업 변경, 현상태 유지)	1
	3. 직업 전환 이유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1
	4. 직업 전환시 구직 기준	직업 전환시 중요시되는 구직 기준	1
	5. 직업 전환 활동	직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활동의 종류	1
	6. 직업 전환에 대한 태도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때의 태도	1
Ⅵ. 은퇴	1. 직업 활동의 기간	직업 활동을 마치고 싶은 시기	1
	2. 직장에서의 정년	직장에서의 정년 퇴직의 시기와 이유	2
	3. 은퇴 후 생활	은퇴 후의 생활(공부 시작, 여가 활동, 사회봉사 활동, 일의 지속 등)	1
Ⅶ. 일반사항	일반적 특성	지역, 지역 규모, 성별, 출생 년도, 혼인 상태, 경제적수준, 직업(본인과 부모), 최종학력(본인과 부모), 학교 계열 및 전공 계열, 직위(직급), 직업명, 구체적 업무, 월 평균소득, 고용 형태, 직장 근로자 수, 노조 가입 여부	16
			2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1차 조사와 미국 NCDA의 문항을 비교하기 위해 양 조사의 문항에서 몇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총 21개 문항(직업에 대한 가치는 세부 문항 6개, 직업에 대한 태도는 세부 문항 8개 포함)을 사용하였고, NCDA 조사에서는 네개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Ⅱ-5>와 <표 Ⅱ-6>과 같다.

<표 Ⅱ-5> 한국인의 직업 의식 1차 조사의 2차 조사의 문항 비교

<table>
<tr><th colspan="2">1차 조사</th><th colspan="2">2차 조사</th></tr>
<tr><td>Ⅰ. 직업에 대한 의식</td><td>• 가치 -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10개 문항)
• 태도 - 일, 여가, 사회 활동, 가족 지향(8개 문항)
• 의견 - 진로 지향, 업적주의, 위기 관리, 장기 안목, 전직 의도(5개 문항)
• 관습 - 지위 지향, 연고주의, 인문 숭상, 남성 우월 등 9개 문항</td><td>Ⅰ. 직업에 대한 의식</td><td>• 직업에 대한 가치 - 1차 조사의 가치 관련 문항에서 6개 세부 문항 사용(13개 문항)
• 직업에 대한 태도 - 1차조사 문항 사용(8개 문항)
• 직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12개 문항)
• 직업이 필요한 이유(9개 문항)</td></tr>
<tr><td rowspan="5">Ⅱ. 직업에 대하여</td><td rowspan="5">• 진로에 처음으로 생각해 본 시기
•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
• 진로나 직업에 영향을 미친 사람(직업 준비에서 사용)
• 자격증 소유 여부
• 구체적인 직업 정보원(취업에서 사용)
•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
• 부모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의 차이(취업에서 사용)
• 직업결정요인
• 직업 활동기간 및 정년퇴직 후의 생활(은퇴에서 사용)
• 바람직한 직업 생활 유형(직업 생활에서 사용)
• 여성의 취업형태(직업 생활에서 사용)
• 개인의 직업 전환 경험(직업 전환에서 사용)
•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 처음 직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사항

(직업인만 해당하는 질문)
• 직장에서의 승진 장애요인
• 직무에 대한 만족도
• IMF이후의 어려움
• 이직가능성
• 직업 전환을 위해 하는 활동
•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td><td>Ⅱ. 직업 준비</td><td>•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 1차조사 문항 사용
•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 직업 선택 및 전환을 위해 필요한직업 정보,
• 선호하는 고용 형태
• 학교재학 중 일의 경험
• 직업에 대한 개인적 준비</td></tr>
<tr><td>Ⅲ. 취업</td><td>• 부모님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의 차이 - 1차조사 문항 사용
• 구체적인 직업 정보원 - 1차조사 문항 사용하면서 보기 추가
• 진로에 대한 도움
• 진로선택을 위한 상담 경험
• 직업인 여부
• 취업방법</td></tr>
<tr><td>Ⅳ. 직업 생활</td><td>• 여성의 취업형태 - 1차조사 문항 사용(보기 수정)
• 바람직한 직업 생활 유형 - 1차조사 문항 사용
• 직업적합도
•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
• 직업의 사회적 위세</td></tr>
<tr><td>Ⅴ. 직업 전환</td><td>• 직업 전환 경험 - 1차조사의 문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 직업 전환 의도
• 직업 전환 이유
• 직업 전환시 구직 기준
• 직업 전환 활동
• 직업 전환에 대한 태도</td></tr>
<tr><td>Ⅵ. 은퇴</td><td>• 직업 활동의 기간,
• 직장에서의 정년 - 1차조사의 문항을 사용하였지만 보기를 수정
• 은퇴 후 생활</td></tr>
</table>

<표 계속>

Ⅲ. 일반 사항	∙지역, 지역규모,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혼인상태, 직업, 직위, 평균소득, 직장근로자수 ∙다른 문항 : 출생지, 사업장이 소속된 산업분류	Ⅶ. 일반 사항	∙지역, 지역규모,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혼인상태, 직업, 직위, 평균소득, 직장근로자수는 동일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직업, 고용 형태, 노조가입여부 추가 질문
문항 개수 (세부 문항포함)	67개 문항	문항 개수 (세부 문항포함)	107개 문항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1, 2차 조사의 공통 문항

<표 Ⅱ-6> 질문지에 포함된 NCDA 문항

하위 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진로를 위한 도움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	문13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정보원	문14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정보원	문15
진로선택을 위한 상담경험	진로를 선택할 때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	문16-1

III. 직업에 대한 의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직업에 대한 의식을 직업 가치, 직업이 필요한 이유, 직업에 대한 태도, 삶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성, 직업에 대한 통념, 직업 평가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직업 가치란 직업을 통하여 개인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말하며, 직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조사는 그 하위 요소가 직업 가치와 부분적으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조사에 포함하였다. 가정 생활, 직업 생활, 여가 생활, 사회 생활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으며, 직업에 대한 통념에서는 진로선택 및 개발과 직업 생활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 평가에서는 24개의 직업에 대하여 각 직업이 갖는 위세를 조사하였다.

1. 직업 가치

직업 가치는 한국인이 직업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즉 직업 생활에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본 조사에서의 직업 가치는 임언 외(2001)가 중·고등 학생을 위한 직업 가치로서 규정한 직업 가치의 하위 요소 11개(높은 보수,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사회 봉사, 자율권, 안정성, 발전성, 함께 일함, 창의성 발휘, 다양성, 리더십 발휘)를 기초로 하며, 성인의 직업 생활과 관련된 가치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추가하여 총 13개의 가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가치들간의 상대적 우선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집단별로 중요시하는 가치의 순위를 알아보고, 아울러 성별·학력별·직업별로 각각의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가. 전체 경향

직업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은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대칭적 척도로

제시할 경우 변별력을 갖기 어려우며, 동시에 척도의 간격이 너무 많을 경우 응답이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하되, 비대칭적으로 (①중요하지 않음, ② 약간 중요함, ③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구성하여 질문하였다. 반응 결과에서 ②, ③, ④를 합한 것이 곧 긍정적 반응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3개의 가치에 대하여 94.4 98.7%이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사회 봉사, 일의 다양성, 리더십 발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 차이는 미약하였다.

<표 Ⅲ-1> 직업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한 반응 요약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90	3.6	2,423	96.4	2,513	100.0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함	25	1.0	2,485	99.0	2,510	100.0
높은 보수를 받음	39	1.6	2,471	98.4	2,510	100.0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음	33	1.3	2,476	98.7	2,509	100.0
사회적으로 인정받음	63	2.5	2,448	97.5	2,511	100.0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128	5.1	2,381	94.9	2,509	100.0
자유 재량권이 많음	81	3.2	2,430	96.8	2,511	100.0
안정적으로 오래 동안 일할 수 있음	41	1.6	2,472	98.4	2,513	100.0
더 배우고 발전 할 수 있음	40	1.6	2,473	98.4	2,513	100.0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	87	3.5	2,425	96.5	2,512	100.0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 할 수 있은 기회가 많음	93	3.7	2,420	96.3	2,513	100.0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119	4.7	2,395	95.3	2,514	100.0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141	5.6	2,372	94.4	2,513	100.0

4점 척도상의 평균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보수(3.40)이며, 그 다음이 안정성(3.37), 능력 발휘(3.31), 쾌적한 근무 환경(3.25), 발전성(3.21), 사회적 인정(3.16), 더불어 일함(2.97), 시간적 여유(2.96), 창의성 발휘(2.96), 자율성(2.87), 다양한 업무 수행(2.85), 리더십 발휘

(2.84), 사회 봉사(2.81)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Ⅲ-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 통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1998년 사회 통계 조사 결과(<표 Ⅲ-3> 참조)를 보면, 한국인이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안정성(42.3%)이며, 그 다음이 발전성(20.7%)으로 나타났으며, 수입(18.2%)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계 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변화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두 조사가 직업 가치를 질문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98년 조사가 직업 선택의 요인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택한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치에 대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98년 조사에 포함된 5개 가치 이외의 8개 가치가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인이 직업 선택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변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통계 조사 결과만을 놓고 비교할 때 91년도에 비하여 98년도에 안정성이 특별히 더 강조된 이유는 IMF 체제 하에서 사회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Ⅲ-2> 직업 생활에서 중시하는 가치 평균

	성 별						F	N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 여유	2.95	.77	2.96	.73	2.96	.75	.076	2513
쾌적한 근무 환경	3.20	.70	3.29	.63	3.25	.67	10.859**	2510
높은 보수	3.38	.73	3.42	.66	3.40	.70	1.973	2510
능력 발휘	3.32	.68	3.29	.69	3.31	.68	.964	2509
사회적 인정	3.14	.77	3.18	.74	3.16	.75	1.989	2511
사회에 봉사	2.80	.81	2.81	.79	2.81	.80	.023	2509
자유 재량권이 많음	2.88	.76	2.87	.72	2.87	.74	.208	2511
안정성	3.35	.73	3.39	.67	3.37	.71	2.372	2513
발전성	3.21	.72	3.22	.72	3.21	.72	.066	2513
함께 일함	2.96	.78	2.98	.75	2.97	.77	.237	2512
창의성 발휘	2.99	.78	2.92	.78	2.96	.78	4.458*	2513
다양한 업무 수행	2.84	.79	2.86	.78	2.85	.78	.320	2514
리더십 발휘	2.90	.81	2.78	.82	2.84	.82	13.720***	2513

*p<.05, **p<.01, ***p<.001

<표 Ⅲ-3> 한국인의 직업 선택 요인 (단위 : %)

	명성		안정성		수입		보람		발전성		기타	
	1998	1991	1998	1991	1998	1991	1998	1991	1998	1991	1998	1991
남	2.6	5.5	40.6	42.9	17.2	22.1	16.1	12.4	22.7	16.9	0.9	0.2
여	1.6	3.3	42.3	43.3	19.1	27.6	16.3	13.2	18.9	12.3	1.9	0.3
국졸이하	2.5	3.9	47.0	42.3	25.3	37.7	6.7	7.2	14.2	8.6	4.4	0.3
중졸	2.4	5.0	40.5	41.3	18.7	22.4	15.9	14.8	21.6	16.2	1.0	0.2
고졸	1.6	3.7	41.8	45.5	17.1	18.5	16.4	14.5	22.6	17.6	0.5	0.3
대졸이상	2.2	6.3	34.9	42.4	11.6	10.7	27.7	21.2	23.4	19.1	0.2	0.2
계	2.1	3.1	42.3	37.2	18.2	29.7	16.2	15.1	20.7	14.3	1.4	0.5

자료: 통계청(2000; 1995), 한국의 사회지표 각각 1998년 및 1991년 조사 결과를 임언 · 정윤경(2001)이 정리한 내용임

나. 성별

<표 Ⅲ-2>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가장 중요시한 가치는 높은 보수와 안정성이며, 각 가치별 성별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쾌적한 근무 환경, 창의성 발휘, 리더십 발휘로 나타났다. 여성(3.29)이 남성(3.20)보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중요시하며, 남성(2.99)이 여성(2.91)보다 창의성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리더십 발휘는 남성(2.90)이 여성(2.78)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례 수에 기인한 것으로, 효과 크기는 .2 내외로서 작은 편에 속한다.

다.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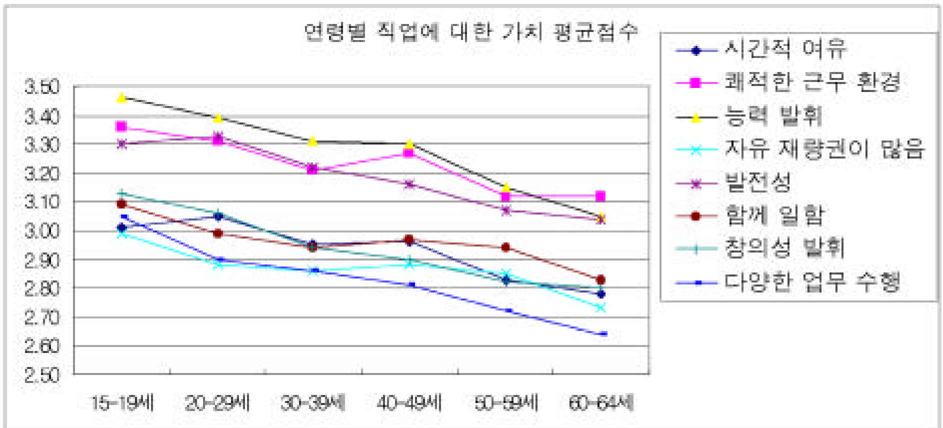
연령별로 우선시하는 가치는 젊은 연령층과 장년층 이상으로 구별되어 나타났다. 10대 및 20대는 보수와 능력 발휘를 가장 중요시 한 반면에, 30대 이상은 공통적으로 보수와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시간적 여유, 쾌적한 근무 환경, 능력 발휘, 자율권, 발전성, 함께 일함, 창의성 발휘,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치들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하다고 평정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그러한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정도의 차이이거나 또는 문항에 대한 반응 경향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을 함에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

[그림 Ⅲ-1]에서 보듯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난 가치들을 보면, 대부분의 가치에서 낮은 연령일수록 제시된 가치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평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높은 보수와 안정성은 연령에 관계 없이 중요시하였으며, 사회 봉사와 리더십 발휘는 연령과 무관하게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Ⅲ-4> 연령별 직업에 대한 가치 평균 점수

	연령별														F	N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 여유	3.01	.73	3.05	.70	2.95	.75	2.96	.74	2.83	.83	2.78	.80	2.96	.75	5.568***	2513
쾌적한 근무 환경	3.36	.65	3.31	.65	3.21	.68	3.27	.64	3.12	.68	3.12	.69	3.25	.67	6.687***	2510
높은 보수	3.37	.70	3.38	.70	3.42	.69	3.42	.69	3.44	.68	3.36	.77	3.40	.70	.634	2510
능력 발휘	3.46	.68	3.39	.66	3.31	.66	3.30	.70	3.15	.72	3.05	.66	3.31	.68	11.881***	2509
사회적 인정	3.20	.79	3.19	.74	3.18	.73	3.16	.77	3.10	.77	3.01	.79	3.16	.75	1.912	2511
사회에 봉사	2.73	.80	2.78	.80	2.77	.80	2.89	.80	2.83	.79	2.83	.82	2.81	.80	2.222	2509
자유 재량권 많음.	2.99	.71	2.88	.74	2.86	.72	2.88	.74	2.85	.75	2.73	.81	2.87	.74	2.486*	2511
안정성	3.35	.76	3.33	.72	3.37	.69	3.39	.70	3.41	.67	3.40	.68	3.37	.71	.677	2513
발전성	3.30	.73	3.33	.71	3.22	.69	3.16	.72	3.07	.76	3.04	.72	3.21	.72	8.716***	2513
함께 일함	3.09	.82	2.99	.77	2.94	.75	2.97	.75	2.94	.77	2.83	.75	2.97	.77	2.412*	2512
창의성 발휘	3.13	.79	3.06	.76	2.94	.76	2.90	.75	2.82	.81	2.80	.85	2.96	.78	8.739***	2513
다양한 업무 수행	3.05	.78	2.90	.78	2.86	.77	2.81	.75	2.72	.83	2.64	.80	2.85	.78	8.008***	2514
리더십 발휘	2.94	.85	2.84	.84	2.85	.80	2.86	.80	2.78	.80	2.71	.81	2.84	.82	2.052	2513

*p<.05, **p<.01, ***p<.001



[그림 Ⅲ-1] 연령별 직업에 대한 가치 평균 점수

※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가치만 포함

라. 학력별

학력별 차이는 학력 구분의 특성상 연령별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재학중'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현재 학생들이므로 주로 10대와 20대이며, 앞에서 분석한 10대 및 20대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재학생보다는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에 해당되는 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보수와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반면,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성(3.34)과 발전성(3.34)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3.30)과 능력 발휘(3.30)를 중시하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그 외의 다른 가치들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5> 학력별 직업에 대한 가치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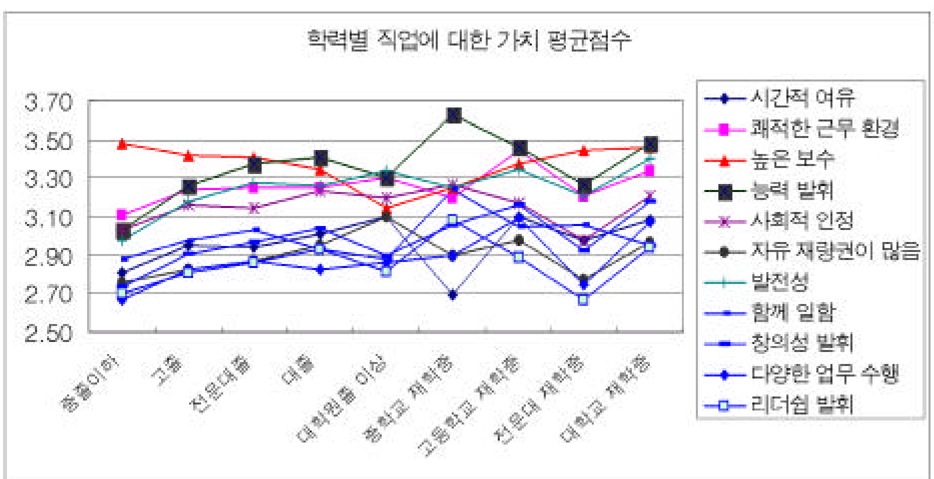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 여유	2.81	.78	2.95	.74	2.94	.76	3.01	.77	3.10	.81	2.69	.86
쾌적한 근무 환경	3.11	.71	3.24	.65	3.25	.60	3.25	.71	3.30	.65	3.20	.63
높은 보수	3.48	.70	3.42	.70	3.41	.66	3.35	.71	3.14	.81	3.25	.87
능력 발휘	3.03	.76	3.26	.67	3.37	.67	3.41	.65	3.30	.76	3.63	.63
사회적 인정	3.03	.80	3.16	.74	3.14	.78	3.23	.73	3.20	.76	3.27	.70
사회에 봉사	2.76	.85	2.83	.79	2.76	.76	2.85	.77	2.90	.84	2.86	.80
자유 재량권 많음	2.76	.78	2.83	.75	2.87	.71	2.95	.72	3.10	.71	2.90	.81
안정성	3.44	.68	3.37	.68	3.40	.67	3.34	.73	3.34	.66	3.20	.75
발전성	2.98	.78	3.18	.71	3.28	.66	3.26	.72	3.34	.72	3.25	.74
함께 일함	2.88	.78	2.98	.75	3.03	.74	2.93	.79	2.88	.77	3.24	.79
창의성 발휘	2.74	.88	2.91	.77	2.97	.79	3.04	.72	2.90	.76	3.06	.88
다양한 업무수행	2.67	.86	2.83	.76	2.87	.83	2.83	.75	2.86	.88	2.90	.92
리더십 발휘	2.70	.85	2.81	.83	2.86	.76	2.93	.78	2.82	.80	3.08	.84

	학력별								F (N =2514)	N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 여유	3.10	.72	2.98	.67	3.08	.66	2.96	.75	4.289***	2513
쾌적한 근무 환경	3.44	.64	3.21	.58	3.34	.64	3.25	.67	3.735***	2510
높은 보수	3.37	.65	3.44	.62	3.46	.65	3.40	.70	2.301*	2510
능력 발휘	3.46	.66	3.27	.68	3.48	.58	3.31	.68	13.001***	2509
사회적 인정	3.17	.84	2.98	.70	3.21	.73	3.16	.75	2.314*	2511
사회에 봉사	2.69	.81	2.56	.92	2.80	.82	2.81	.80	1.559	2509
자유 재량권 많음	2.98	.67	2.77	.72	2.97	.66	2.87	.74	3.538***	2511
안정성	*3.43*	.75	3.21	.85	3.34	.76	3.37	.71	1.409	2513
발전성	3.35	.67	3.21	.65	3.40	.70	3.21	.72	7.510***	2513
함께 일함	3.05	.89	3.06	.63	2.95	.73	2.97	.77	2.061*	2512
창의성 발휘	3.16	.79	2.92	.71	3.18	.72	2.96	.78	7.855***	2513
다양한 업무 수행	3.09	.77	2.75	.67	3.07	.72	2.85	.78	6.189***	2514
리더십 발휘	2.89	.87	2.67	.81	2.94	.77	2.84	.82	3.344**	2513

*p<.05, **p<.01, ***p<.001

[그림 Ⅲ-2]는 학력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가치들을 표시한 것이다. 논의를 명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을 제외하고 졸업자들만을 비교할 때, 중졸 이하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보수를 중요시하였다. 현재 낮은 보수의 직업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반면에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들에 비해서 낮게 평가한 반면, 자유재량권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학력 집단과 비교해서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능력 발휘를 매우 중요시함과 동시에 시간적 여유는 가장 낮게 평가하며 리더십 발휘는 다른 집단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게 평가하는 등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그림 Ⅲ-2] 학력별 직업에 대한 가치 평균 점수

※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가치만 포함

마. 직업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598명만을 따로 떼내어, 직업 사전의 대분류 직업 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직업 가치를 비교한 결과가 <표 Ⅲ-6>이

다.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능력 발휘(3.59)와 사회적 인정(3.56)을 중시하였으며, 전문가는 능력 발휘(3.50)와 발전성(3.39)을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안정성(3.39)과 능력 발휘(3.32)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의 직업군, 즉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은 높은 보수와 안정성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별 비교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집단은 높은 보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으며, 그 대신 능력 발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6> 직업별 직업에 대한 가치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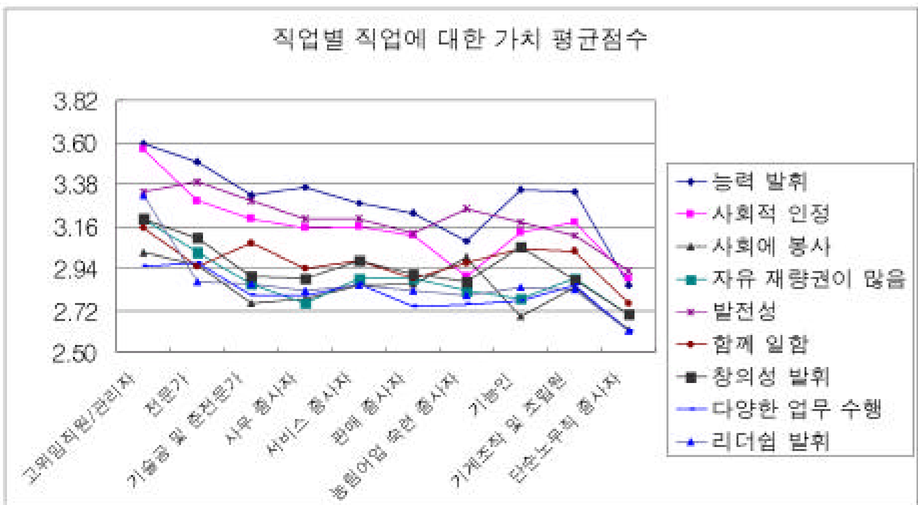
	직업별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 여유	3.00	.77	3.02	.77	2.93	.79	3.01	.75	2.95	.80	2.93	.76
쾌적한 근무환경	3.29	.64	3.27	.67	3.20	.69	3.24	.70	3.30	.76	3.21	.82
높은 보수	3.51	.51	3.29	.74	3.29	.76	3.40	.78	3.46	.87	3.42	.71
능력 발휘	3.59	.55	3.50	.64	3.32	.67	3.38	.77	3.30	.74	3.25	.78
사회적 인정	3.56	.55	3.29	.70	3.20	.66	3.15	.77	3.18	.84	3.13	.83
사회에 봉사	3.02	.76	2.96	.78	2.76	.78	2.78	.79	2.88	.88	2.88	.88
자유 재량권이 많음	3.20	.71	3.02	.77	2.86	.76	2.79	.81	2.91	.85	2.89	.74
안정성	3.49	.60	3.35	.70	3.39	.70	3.33	.74	3.45	.72	3.37	.72
발전성	3.34	.57	3.39	.67	3.29	.70	3.20	.72	3.22	.80	3.12	.73
함께 일함	3.15	.57	2.95	.81	3.07	.79	2.94	.74	3.00	.83	2.89	.80
창의성 발휘	3.20	.75	3.10	.73	2.90	.76	2.89	.76	3.00	.87	2.91	.79
다양한 업무수행	2.95	.80	2.97	.83	2.80	.76	2.80	.78	2.86	.78	2.74	.82
리더십 발휘	3.32	.61	2.87	.86	2.86	.76	2.82	.82	2.88	.90	2.82	.83

<표 계속>

	직업별										F	N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 여유	2.75	.81	2.96	.73	2.94	.72	2.74	.80	2.94	.77	1.638	1598
쾌적한 근무환경	3.05	.81	3.09	.74	3.22	.73	3.13	.69	3.22	.74	1.295	1595
높은 보수	3.45	.88	3.49	.65	3.46	.68	3.38	.78	3.41	.75	1.298	1595
능력 발휘	3.08	.69	3.35	.71	3.34	.65	2.85	.85	3.30	.74	8.350***	1595
사회적 인정	2.90	.84	3.13	.80	3.18	.74	2.89	.90	3.15	.79	4.070***	1596
사회에 봉사	3.00	.82	2.76	1.04	2.84	.78	2.62	.90	2.83	.84	2.301*	1595
자유 재량권이 많음	2.82	.78	2.78	.70	2.89	.75	2.70	.83	2.87	.78	2.803**	1595
안정성	3.28	.78	3.39	.76	3.35	.71	3.23	.79	3.36	.73	1.041	1596
발전성	3.25	.63	3.18	.84	3.11	.69	2.93	.88	3.19	.75	3.696***	1597
함께 일함	2.97	.86	3.04	.76	3.03	.73	2.76	.82	2.97	.79	2.178*	1597
창의성 발휘	2.87	.82	3.05	.75	2.88	.80	2.70	.90	2.93	.80	2.749**	1597
다양한 업무수행	2.75	.84	2.77	.78	2.85	.71	2.61	.88	2.80	.79	2.011*	1597
리더십 발휘	2.80	.85	2.84	.85	2.83	.76	2.61	.91	2.84	.83	2.696**	1598

*p<.05, **p<.01, ***p<.001

직업별로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 [그림 III-3]이며, 효과 크기가 적으므로 통계적 유의성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모든 가치들을 모두 높게 평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모든 가치들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의 차이는 주로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가 높은 평정을 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 낮은 평정을 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그 차이가 두드러진 가치는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자유재량권이다.



[그림 Ⅲ-3] 직업별 직업에 대한 가치 평균 점수

※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가치만 포함

2. 직업이 필요한 이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6가지(돈을 벌기 위하여,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이 이유들은 앞에서 조사한 직업에 대한 가치관, 즉 직업을 통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가치 중에서 보수, 사회적 인정, 함께 일함과 중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달리하여 별도로 질문한 이유는 1차 조사에 같은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를 위하여 문항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단지 1차 조사 결과와의 비교 가능성만이 아니라 질문하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고,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별도로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항들을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1차 조사 결과와의 비교

1998년의 1차 조사에서는 이 문항들을 직업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외재적 가치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후 대책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인정 받기 위해'를, 내재적 가치로는 '일 자체가 좋아', '사회 성원으로서 의무', '자아 실현을 위하여', '사람들과의 교제', '삶의 의미를 느끼려고'라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이들 중에서 명백히 중복되거나 의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직업에 대한 가치라는 제목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 아래 6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직업이 필요한 이유에 포함된 문항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이다.

직업이 필요한 6개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3.33)이며, 그 다음은 자아 실현을 위하여(2.81),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2.79),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2.74), 일 자체가 좋아서(2.7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2.68)의 순서로 나타났다. 6개 항목 모두 4점 척도 상에서 이론적 중간값인 2.5보다 모두 높게 나옴으로써 이들 가치들을 직업이 필요한 이유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와의 응답과 비교한 결과, <표 III-7>에서 보듯이 사회적 인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정이 1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정을 받은 이유는 1차 조사에서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하여'로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그 인정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단정을 내리기는 힘들다.

<표 III-7> 직업이 필요한 이유 '98년 조사와의 비교

항 목	1998년	2002년
돈을 벌기 위해	3.19	3.33
일 자체가 좋아	2.66	2.69
자아 실현	2.83	2.80
사회적 인정	2.53	2.79
사회적 의무	2.77	2.73
사람들과 만남	2.66	2.67

나. 성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생각에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라는 이유에도 남성(2.81)이 여성(2.76)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업의 사회적 의미를 남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Ⅲ-8> 성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평균 점수(전체집단)

	성 별						F	N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32	.64	3.33	.60	3.33	.62	.125	2513
일 자체가 좋아서	2.66	.74	2.72	.72	2.69	.73	3.978	2511
자아 실현을 위하여	2.79	.73	2.81	.72	2.80	.72	.258	2512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81	.76	2.76	.72	2.79	.74	2.763	2512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79	.70	2.67	.70	2.73	.70	19.143***	251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66	.71	2.68	.70	2.67	.70	.286	2511

*p<.05, **p<.01, ***p<.001

본 조사의 표본 중 여성의 1/ 3이 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인들만을 추려서 성별 차이를 검토한 결과 오히려 성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Ⅲ-9>에서 보듯이 일 자체가 좋아서라는 견해는 여성(2.71)이 남성(2.63)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남성 : 2.76, 여성 : 2.66)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남성:2.79, 여성 : 2.62)라는 생각은 남성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사례 수로 인한 것이며 실제 효과크기는 매우 작으므로 성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다.

<표 Ⅲ-9> 성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평균 점수(직업인만 포함)

	성 별						F	N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32	.65	3.33	.61	3.33	.63	.12	1597
일 자체가 좋아서	2.63	.73	2.71	.75	2.66	.74	7.63 **	1596
자아 실현을 위하여	2.72	.71	2.72	.74	2.72	.72	.02	1596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76	.75	2.66	.73	2.72	.75	5.98 **	1596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79	.69	2.62	.71	2.72	.70	26.44 ***	1596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64	.71	2.64	.71	2.64	.71	.03	1595

*p<.05, **p<.01, ***p<.001

전체 집단으로서의 성별 차이와 달리 연령에 따라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대와 20대만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Ⅲ-10>에서 보듯이 10대와 20대만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 차이를 논한 모든 문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국인의 직업 의식에 대한 성별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일반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0> 10대와 20대만을 포함한 성별 차이 비교

	성 별						F	N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27	0.66	3.26	0.63	3.27	0.64	0.01	865
일 자체가 좋아서	2.73	0.76	2.78	0.73	2.76	0.74	1.16	864
자아 실현을 위하여	2.92	0.76	2.91	0.70	2.91	0.73	0.06	864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89	0.78	2.89	0.75	2.89	0.77	0.01	865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74	0.72	2.72	0.71	2.73	0.72	0.23	865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72	0.71	2.74	0.70	2.73	0.70	0.08	865

$^{*}p<.05$, $^{**}p<.01$, $^{***}p<.001$

다. 연령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연령별로 검토한 결과 직업이 필요한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10대는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2.98)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으나 20대는 자아 실현을 위하여(2.90)이며, 30대는 사회적 인정(2.78)과 자아 실현(2.77)이 거의 비슷하였고, 40대와 50대는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2.78, 2.71), 60대는 자아 실현(2.75)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생애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의무감이 많이 요구되는 30대와 40대와는 달리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층과 노년층은 자아 실현을 경제적 목적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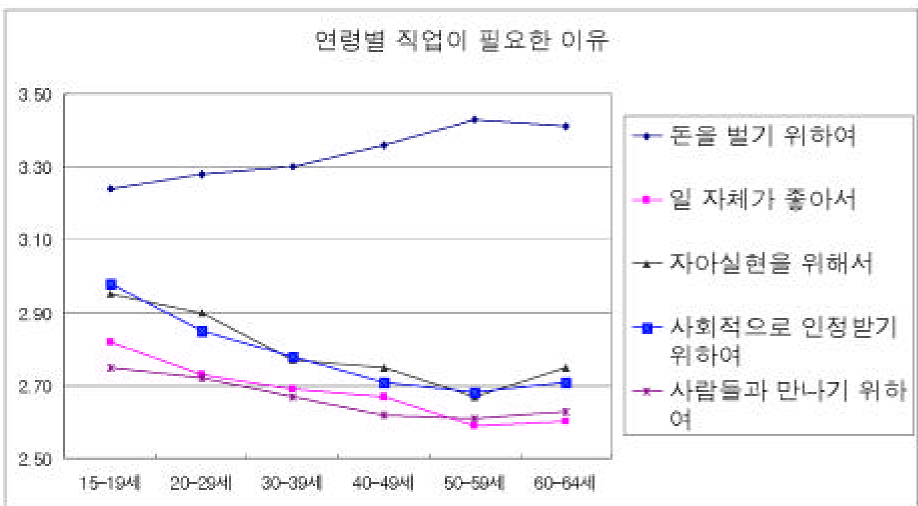
<표 Ⅲ-11> 연령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평균 점수

	연 령 별														F	N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24	.65	3.28	.64	3.30	.61	3.36	.61	3.43	.57	3.41	.63	3.33	.62	4.691***	2513
일 자체가 좋아서	2.82	.74	2.73	.74	2.69	.72	2.67	.72	2.59	.76	2.60	.67	2.69	.73	3.599**	2511
자아 실현을 위하여	2.95	.73	2.90	.73	2.77	.68	2.75	.74	2.67	.73	2.75	.69	2.80	.72	7.742***	2512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98	.78	2.85	.75	2.78	.71	2.71	.74	2.68	.71	2.71	.73	2.79	.74	7.308***	2512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82	.71	2.69	.72	2.72	.65	2.78	.72	2.71	.68	2.71	.73	2.73	.70	1.868	251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75	.70	2.72	.71	2.67	.68	2.62	.72	2.61	.72	2.63	.69	2.67	.70	2.440*	2511

*p<.05, **p<.01, ***p<.001

[그림 Ⅲ-4]는 직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집단별 평정 경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0대는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제외한 모든 이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10대들은 직업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성인들에 비하여 덜 현실적인 이유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라는 이유에는 50대(3.43)와 60대(3.41)가 가장 높은 빈도로 동의하였으며, 10대(3.24)와 20대(3.28)가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반면,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라는 이유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평균 점수를, 50대와 60대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는 집단간의 실제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는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Ⅲ-4] 연령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이유만 포함함

라. 학력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학력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학력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만을 비교할 때 모든 학력 집단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서 중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자아 실현을 선택하였다. 중졸이하의 사람들은 직업이 필요한 이유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2.65)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2.65)로 보았으며, 자아 실현은 다섯 번째 순위에 그쳤다.

<표 Ⅲ-12> 학력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평균 점수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50	.59	3.38	.59	3.27	.57	3.23	.69	3.08	.80
일 자체가 좋아서	2.49	.71	2.63	.73	2.63	.67	2.82	.77	3.02	.91
자아 실현을 위하여	2.57	.73	2.74	.75	2.78	.70	2.88	.72	3.00	.73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65	.72	2.71	.77	2.75	.74	2.86	.74	2.82	.80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65	.73	2.72	.74	2.64	.66	2.81	.72	2.90	.51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60	.72	2.68	.76	2.62	.70	2.71	.74	2.56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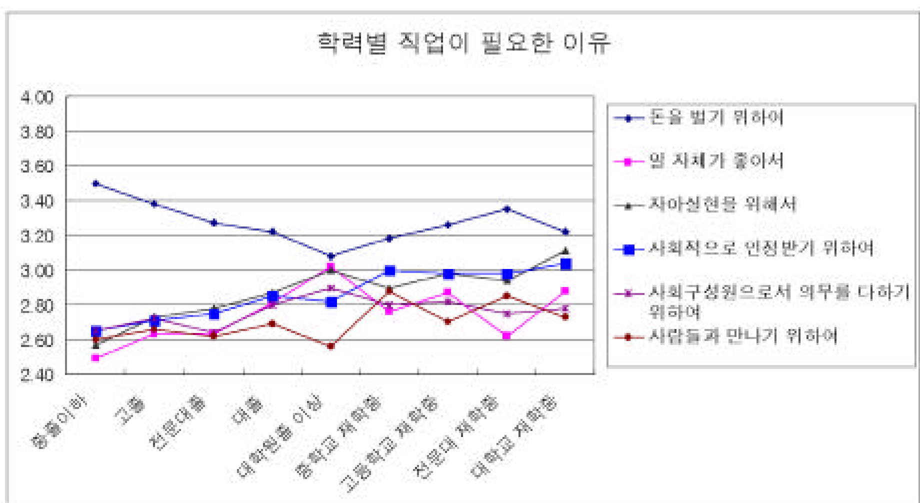
	학력별										F (N =2514)	N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18	.65	3.26	.62	3.35	.64	3.22	.67	3.33	.63	7.983***	2513
일 자체가 좋아서	2.76	.86	2.87	.75	2.75	1.10	2.91	.82	2.70	.76	10.190***	2511
자아 실현을 위하여	2.90	.76	2.98	.75	2.94	.84	3.11	.66	2.81	.74	12.297***	2512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3.00	.82	2.98	.82	2.98	.79	3.04	.70	2.79	.76	8.129***	2512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80	.80	2.82	.68	2.75	.73	2.78	.70	2.74	.72	2.590**	251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88	.71	2.70	.78	2.85	.65	2.73	.65	2.68	.73	1.903	2511

*p<.05, **p<.01, ***p<.001

그림 [Ⅲ-5]는 학력별로 직업을 갖는 이유로서 중요시 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이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집단은 중졸 이하(3.50)이며, 그 다음으로 고졸(3.38), 전문대졸(3.27), 대졸(3.23), 대학원 이상(3.08)의 순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강하게 동의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일 자체가 좋아서'라는 이유는 대학원졸(3.02), 대졸(2.82), 전문대졸(2.63), 고졸(2.63), 중졸 이하(2.49)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자아 실현을 위하여'라는 이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전문대 졸업생(2.64)이 오히려 중졸 이하(2.65)나 고졸(2.72)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Ⅲ-5] 학력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평균 점수

마. 직업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직업군별로 비교할 때, 모든 직업군에서 일관되게 '돈을 벌기 위하여'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시한 이유는 직업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3.00)를, '자아 실현'(2.98)과 '사회적 인정'(2.98)과 거의 비슷하게 중시한 반면, 전문가와 서비스 종사자는 '일 자체가 좋아서'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보았다.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판매 종

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자아 실현을, 사무 종사자는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능인,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직업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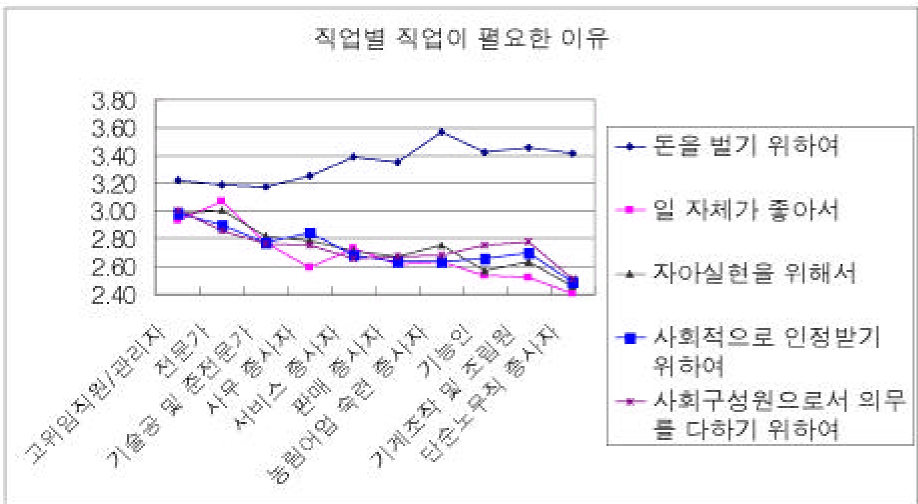
	직업별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22	.72	3.19	.66	3.17	.64	3.27	.74	3.39	.59	3.35	.63
일 자체가 좋아서	2.93	.75	3.07	.74	2.77	.66	2.61	.81	2.73	.73	2.64	.88
자아 실현을 위하여	2.98	.65	3.00	.67	2.82	.71	2.84	.86	2.71	.76	2.67	.73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98	.69	2.90	.71	2.80	.84	2.86	.78	2.70	.79	2.63	.76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3.00	.63	2.86	.62	2.79	.82	2.77	.75	2.68	.74	2.67	.7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80	.64	2.60	.70	2.73	.88	2.67	.78	2.68	.81	2.64	.73

	직업별										F	N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기 위하여	3.57	.59	3.42	.61	3.45	.55	3.41	.64	3.33	.65	4.392***	1597
일 자체가 좋아서	2.63	.63	2.54	.70	2.52	.65	2.41	.77	2.67	.77	7.382***	1596
자아 실현을 위하여	2.75	.59	2.57	.72	2.63	.68	2.46	.75	2.73	.75	5.828***	1596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63	.70	2.66	.72	2.70	.73	2.46	.83	2.73	.78	4.461***	1596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68	.62	2.75	.76	2.78	.67	2.49	.80	2.73	.74	3.068**	1596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2.53	.64	2.53	.77	2.68	.70	2.51	.72	2.65	.76	1.421	1595

*p<.05, **p<.01, ***p<.001

[그림 Ⅲ-6]은 직업별로 직업이 중요한 이유를 평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이유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57)가 가장 높았으며, 기계 조작 및 조립원(3.45), 기능인(3.42), 단순 노무직 종사자(3.41)와 같이 직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3.19), 기술공 및 준전문가(3.17),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3.22)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자체가 좋아서’, ‘자아 실현을 위하여’라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에서 높게 평정하였으며, 단순 노무직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서 가장 높게 평정하였다.



[그림 III-6] 직업별 직업이 필요한 이유

3. 직업에 대한 태도

본 조사에서는 개인의 삶의 주요 영역을 직업 생활, 가정 생활, 여가 활동, 사회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하여 개인이 부과하는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영역별 2문항으로 총 8개의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 내용들은 1차 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거의 수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가. 1차 조사 결과와의 비교

사회 활동, 일, 여가, 가정에 대하여 비중을 두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4점 척도에서의 중간값인 2.5보다 대부분 높게 나왔다. 1차 조사와 비교할 때 2차 조사 결과는 일지향성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업무에 개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1차 조사에서는 2.76이었던 반면, 2002년에는 2.60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도 1차 조사에서는 2.97이었으나 2차 조사에는 2.93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일 지향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업무중 집안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 지향성은 1차 조사에 2.79이던 것에서 2차 조사에는 2.83으로 다소 높아졌다. 사회 활동 지향이나 여가 지향성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14> 직업에 대한 태도 1차년도 조사 결과와의 비교

지향점	구체적 내용	1998년	2002년
사회활동지향	봉사 위해 휴가 사용	2.69	2.65
	사회 활동에 생활비 지출	2.68	2.58
일지향	업무에 개인 돈 사용	2.76	2.60
	시간 외 근무 가능	2.97	2.93
여가지향	여가와 취미가 우선	2.48	2.48
	취미레저에 관심	2.85	2.84
가정지향	업무중 집안 행사 참여	2.79	2.83
	가족 간호를 위해 결근	3.16	3.14

나. 성별 비교

중요시하는 삶의 영역을 성별로 비교할 때, 남자(2.64, 2.97)가 여자(2.55, 2.87)보다 일 지향성이 높았으며, 취미와 레저에 대한 관심도 남자(2.91)가 여자(2.78)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본 조사의 표본에서 여성의 1/3이 주부라는 것으로 인한 편파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남자 : 1011명, 여자 : 704명)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하였다. 업무에 개인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2.65)가 여자(2.61)보다 여전히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291). 그러나 추가 근무를 하는 것(p=.001)과 취미와 레저에 대한 관심(p=.000)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도 여전히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15> 성별 직업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지향점	구체적 내용	성별						F (N=2514)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활동	봉사위해 휴가 사용	2.62	.80	2.68	.75	2.65	.77	3.218
	사회활동에 생활비 지출	2.58	.70	2.58	.69	2.58	.70	.003
일	업무에 개인돈 사용	2.64	.77	2.55	.73	2.60	.75	8.480*
	시간외 근무 가능	2.97	.64	2.87	.66	2.93	.65	14.805***
여가	여가와 취미가 우선	2.45	.80	2.50	.73	2.48	.77	3.240
	취미레저에 관심	2.91	.73	2.78	.72	2.84	.73	18.841***
가정	업무중 집안행사 참여	2.82	.69	2.84	.65	2.83	.67	1.115
	가족 간호를 위해 결근	3.16	.63	3.13	.63	3.14	.63	1.279

*p<.05, **p<.01, ***p<.001

다. 연령별 비교

삶의 다양한 측면의 중요성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일 지향성과 취미와 레저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표 Ⅲ-16> 참조).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0대이고 10대는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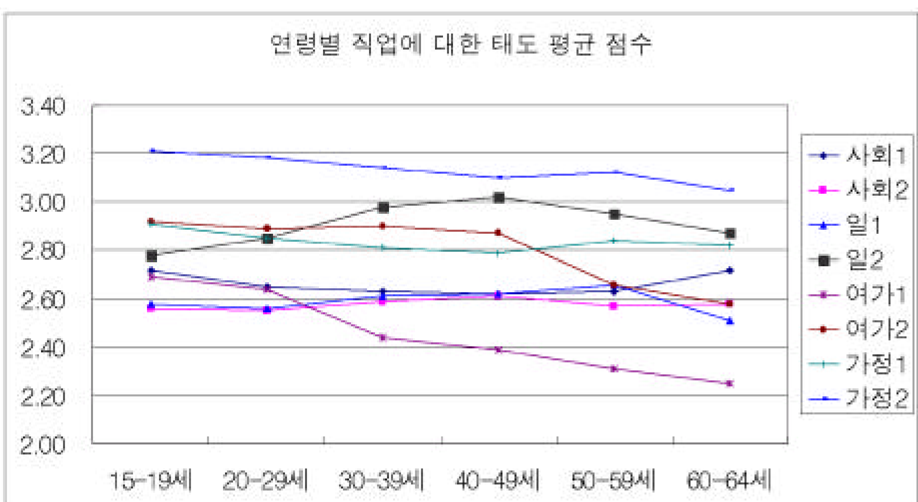
여가와 취미가 희생된다면 직장을 옮기고, 취미와 레저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10대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직업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세대가 30대 40대이므로 직업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연령에 비하여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10대는 가정 생활과 여가 생활을 다른 연령에 비하여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에 따라서 삶의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Ⅲ-7] 참조).

<표 Ⅲ-16> 연령별 직업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연 령 별														F (N=2514)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1	2.72	.74	2.65	.77	2.63	.77	2.62	.79	2.63	.80	2.72	.73	2.65	.77	1.907
사회2	2.56	.75	2.55	.69	2.59	.66	2.61	.70	2.57	.70	2.58	.73	2.58	.70	.499
일1	2.58	.80	2.56	.74	2.61	.75	2.62	.74	2.66	.75	2.51	.76	2.60	.75	1.224
일2	2.78	.67	2.85	.66	2.98	.61	3.02	.65	2.95	.67	2.87	.71	2.93	.65	7.470***
여가1	2.69	.77	2.64	.77	2.44	.74	2.39	.74	2.31	.75	2.25	.72	2.48	.77	17.640***
여가2	2.92	.73	2.89	.68	2.90	.68	2.87	.75	2.66	.74	2.58	.88	2.84	.73	9.826***
가정1	2.91	.67	2.85	.65	2.81	.63	2.79	.69	2.84	.70	2.82	.78	2.83	.67	1.392
가정2	3.21	.68	3.18	.63	3.14	.58	3.10	.61	3.12	.64	3.05	.74	3.14	.63	2.177

*p<.05, **p<.01, ***p<.001

* 각 문항별 상세 내용은 <표 Ⅲ-15> 참조.



[그림 Ⅲ-7] 연령별 직업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라. 직업별 비교

삶의 다양한 측면의 중요성을 직업별로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취미와 레저에 대한 관심, 시간외 근무, 사회활동을 위한 생활비 지출에서 나타났다(<표 Ⅲ-17> 참조). 취미와 레저에 대한 관심은 고위 관리직 및 임시직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높았다. [그림 Ⅲ-8]에서 보듯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여가 생활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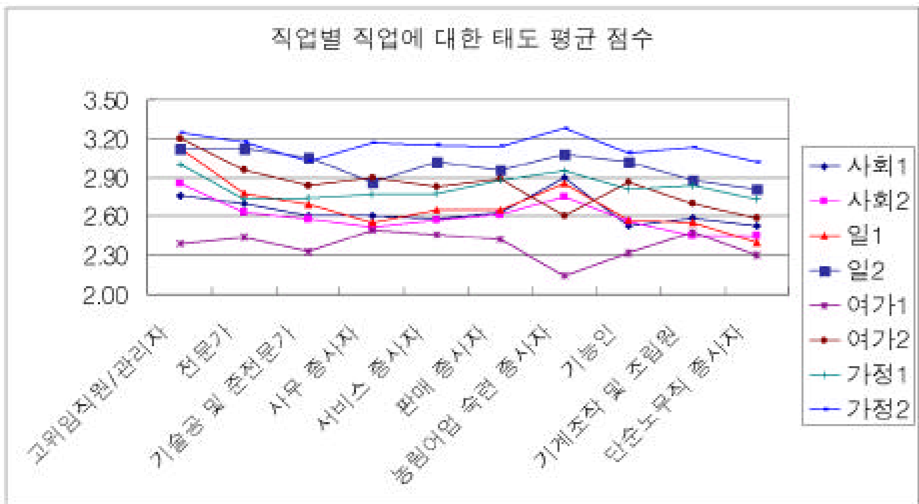
<표 Ⅲ-17> 직업별 직업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직업별											
	고위 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1	2.76	.77	2.70	.86	2.60	.79	2.60	.82	2.58	.88	2.63	.75
사회2	2.85	.73	2.63	.67	2.58	.72	2.52	.67	2.57	.73	2.61	.64
일1	3.12	.64	2.78	.68	2.69	.76	2.55	.75	2.65	.82	2.65	.72
일2	3.12	.64	3.12	.66	3.05	.61	2.86	.64	3.02	.67	2.96	.64
여가1	2.39	.86	2.44	.77	2.33	.78	2.49	.72	2.46	.82	2.42	.74
여가2	3.24	.58	2.96	.72	2.84	.70	2.90	.65	2.83	.75	2.89	.73
가정1	3.00	.71	2.73	.64	2.74	.69	2.77	.64	2.78	.69	2.88	.64
가정2	3.24	.70	3.17	.65	3.03	.59	3.16	.61	3.15	.66	3.14	.58

	직업별										F (N =15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1	2.90	.67	2.53	.82	2.59	.76	2.53	.79	2.61	.80	1.237
사회2	2.75	.63	2.56	.63	2.45	.67	2.45	.72	2.56	.69	2.484**
일1	2.85	.53	2.57	.82	2.55	.74	2.40	.85	2.63	.77	4.761
일2	3.08	.62	3.02	.64	2.88	.65	2.81	.64	2.96	.65	3.663***
여가1	2.15	.53	2.32	.89	2.47	.79	2.30	.66	2.41	.77	1.754
여가2	2.60	.67	2.86	.74	2.70	.78	2.59	.84	2.84	.73	4.856***
가정1	2.95	.64	2.81	.67	2.84	.63	2.73	.76	2.80	.67	1.689
가정2	3.28	.64	3.09	.64	3.13	.54	3.02	.70	3.13	.62	1.529

*p<.05, **p<.01, ***p<.001

* 각 문항별 상세 내용은 <표 Ⅲ-16> 참조



[그림 III-8] 직업별 직업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 각 문항별 상세 내용은 <표 III-15> 참조

마. 학력별 비교

삶의 다양한 측면의 중요성을 학력별로 비교할 때 학력별 차이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II-18> 참조). 봉사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가장 동의한 집단은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2.86)과 대학원 이상(2.82)이었으며, 전문대 재학중인 학생(2.54)이 가장 낮았다. 또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개인 돈을 사용하는 문제도 대학원 이상(2.76)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재학중인 학생(2.40)들이 가장 낮았다.

반면 여가와 취미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에는 전문대 재학중인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2.71),중졸이하의 집단(2.30)이 가장 낮았다. 취미와 레저에 대한 관심은 대졸집단(2.98)과 중·고등 학생(2.96)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 집단(2.53)에서 가장 낮았다.

업무 중 집안 행사 참여 가능성은 중학생(2.96)과 고등 학생(2.95)에서 가장 높았고, 성인 중에서는 중졸 이하(2.92) 학력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졸(2.73) 및 대학원졸 이상(2.72)이 가장 낮게 나와 업무 중 집안일 참여 가능성

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평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정 생활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8> 학력별 직업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1	2.62	.78	2.64	.76	2.60	.82	2.61	.81	2.82	.75
사회2	2.47	.73	2.57	.68	2.53	.71	2.64	.68	2.76	.62
일1	2.57	.72	2.57	.76	2.58	.79	2.68	.72	2.96	.57
일2	2.96	.67	2.93	.67	2.89	.62	2.99	.63	3.20	.70
여가1	2.30	.73	2.45	.77	2.55	.75	2.42	.75	2.54	.73
여가2	2.53	.78	2.82	.72	2.93	.67	2.98	.68	2.88	.77
가정1	2.92	.67	2.84	.66	2.79	.70	2.73	.68	2.72	.67
가정2	3.16	.61	3.11	.62	3.17	.61	3.10	.64	3.26	.60

	학력별										F (N=2514)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1	2.86	.72	2.76	.76	2.54	.74	2.75	.72	2.65	.77	2.073*
사회2	2.57	.76	2.60	.76	2.40	.71	2.68	.65	2.58	.70	3.108**
일1	2.43	.76	2.58	.83	2.44	.71	2.61	.73	2.60	.75	3.155**
일2	2.80	.72	2.78	.71	2.77	.63	2.86	.56	2.93	.65	3.553***
여가1	2.55	.78	2.67	.77	2.71	.71	2.68	.78	2.48	.77	6.735***
여가2	2.96	.69	2.96	.78	2.85	.74	2.94	.65	2.84	.73	11.508***
가정1	2.96	.77	2.95	.68	2.79	.62	2.85	.63	2.83	.67	3.034**
가정2	3.20	.75	3.23	.67	3.13	.67	3.23	.62	3.14	.63	1.887

*p<.05, **p<.01, ***p<.001

4. 삶의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직업 생활, 가정 생활, 학업생활, 사회 봉사·종교 및 친교 생활, 여가 생활의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응답자로 하여금 각 삶의 영역별로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가. 전체 집단의 경향

각 영역에 대하여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표 Ⅲ-19>와 같다.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영역은 가정 생활(56.0%)이며, 그 다음이 직업 생활(26.1%), 학업 생활(9.7%), 여가 생활(5.8)사회 봉사 및 친교(2.4%),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근로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 1997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38.8%)이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가정(32.1%), 레저(16.9%), 사회(6.6%), 종교(5.6%)의 순서(대한상공회의소, 1997, 김병숙 외, 1998 ; 368 에서 재인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97년 조사가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한 조사 결과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표 Ⅲ-19>에서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는 직업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다른 분석 결과에 비하여 가정 생활과 직업 생활의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빈도 수 차이가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집단에서 가정 생활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직업 생활을 가장 중요시한 사람이 49.6%인 반면, 가정 생활은 43.4%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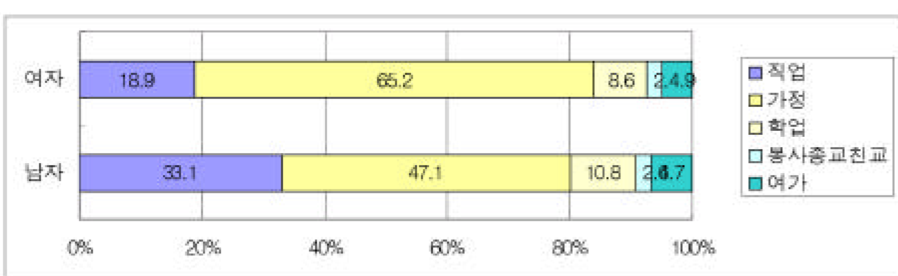
<표 Ⅲ-19> 현재 삶에서 가장 큰 비중 1순위

구분		현재 삶에서 가장 큰 비중 1순위					전체	비고
		직업 생활	가정 생활	학업 생활	사회 봉사 종교 및 친교 생활	여가 생활		
성별	남자(N=1,276)	33.1	47.1	10.8	2.4	6.7	100.0	χ^2=91.606***
	여자(N=1,238)	18.9	65.2	8.6	2.4	4.9	100.0	
연령별	10대(N=268)	10.4	22.0	52.6	1.1	13.8	100.0	χ^2=908.365***
	20　29세(N=597)	30.3	41.5	16.1	2.7	9.4	100.0	
	30　39세(N=658)	30.1	63.8	1.1	1.7	3.3	100.0	
	40　49세(N=529)	29.7	63.9	0.0	3.0	3.4	100.0	
	50　59세(N=323)	20.7	73.4	0.0	3.1	2.8	100.0	
	60　64세(N=139)	18.0	76.3	0.0	2.9	2.9	100.0	
학력별	초등졸(N=137)	13.1	82.5	0.0	1.5	2.9	100.0	χ^2=1195.916***
	중졸(N=179)	22.3	70.9	0.0	3.4	3.4	100.0	
	고졸(N=982)	29.7	62.2	1.0	2.0	5.0	100.0	
	전문대졸(N=240)	33.3	57.1	0.0	2.1	7.5	100.0	
	대졸(N=475)	35.4	56.8	1.7	2.3	3.8	100.0	
	대학원졸 이상(N=50)	36.0	48.0	4.0	6.0	6.0	100.0	
	중학교 재학중(N=51)	3.9	17.6	49.0	2.0	27.5	100.0	
	고등학교 재학중(N=129)	9.3	15.5	60.5	1.6	13.2	100.0	
	전문대학 재학중(N=48)	10.6	33.9	45.9	3.7	6.0	100.0	
	대학교 재학중(N=218)	40.0	60.0	0.0	0.0	0.0	100.0	
직업별	고위 임직원/ 관리자(N=41)	31.7	61.0	0.0	4.9	2.4	100.0	χ^2=40.932
	전문가(N=113)	49.6	43.4	2.7	0.9	3.5	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N=187)	40.6	51.3	2.1	2.7	3.2	100.0	
	사무 종사자(N=284)	39.4	51.1	1.2	4.1	6.7	100.0	
	서비스 종사자(N=241)	34.4	53.1	1.2	4.1	7.1	100.0	
	판매 종사자(N=304)	34.2	58.6	0.3	2.0	4.9	100.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N=40)	30.0	67.5	0.0	0.0	2.5	100.0	
	기능인(N=95)	36.8	48.4	2.1	4.2	8.4	100.0	
	기계조작 및조립원(N=179)	32.4	59.8	1.7	1.1	5.0	100.0	
경제 수준	상(N=44)	25.0	54.5	11.4	0.0	9.1	100.0	χ^2=12.496
	중상(N=1,054)	26.0	55.1	11.2	2.1	5.6	100.0	
	중하(N=1,202)	26.5	56.4	8.7	2.7	5.7	100.0	
	하(N=160)	22.5	61.9	5.6	2.5	7.5	100.0	
소득	100만원 미만(N=334)	27.8	58.1	2.7	3.0	8.4	100.0	χ^2=29.347
	100　199만원(N=768)	37.0	55.1	1.0	2.1	4.8	100.0	
	200　299만원(N=327)	41.6	51.4	0.6	2.1	4.3	100.0	
	300　399만원(N=96)	40.6	52.1	1.0	3.1	3.1	100.0	
	400만원 이상(N=60)	36.7	58.3	0.0	1.7	3.3	100.0	
	무응답(N=13)	30.8	61.5	0.0	0.0	7.7	100.0	
전체	N=2514	26.1	56.0	9.7	2.4	5.8	100.0	

*p<.05, **p<.01, ***p<.001

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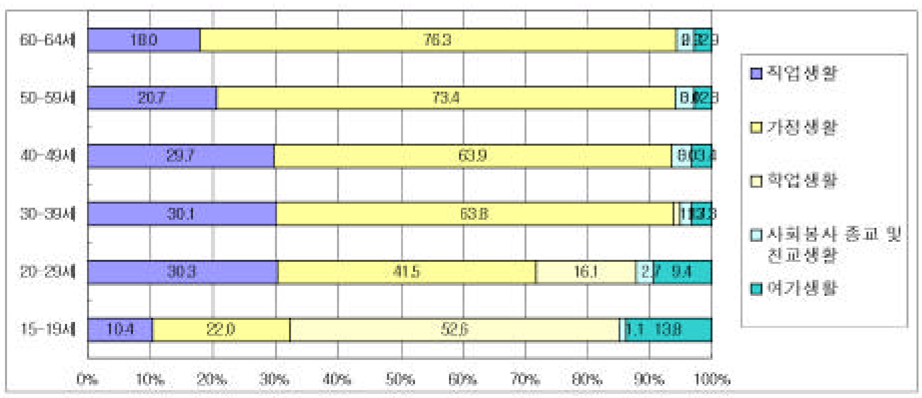
삶의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순위매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자(65.2%)는 남자(47.1%)에 비해 가정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직업 생활보다 가정 생활을 중요시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여성보다 낮았다.



[그림 Ⅲ-9] 성별 현재 삶에서 가장 큰 비중 1순위

나. 연령별

연령별로 비교할 때 가정 생활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 생활을 삶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학업 생활(52.6%)이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며, 그 다음이 가정 생활(22.0%), 여가 생활(13.8%), 직업 생활(10.4%)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 생활의 중요성은 20대에서도 16.1%로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가정 생활(41.5%)이나 직업 생활(30.3%)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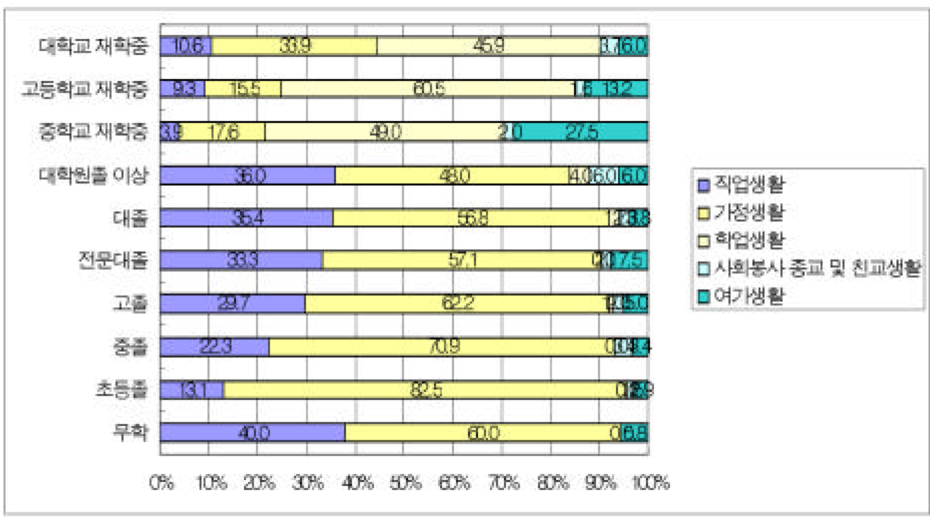


[그림 Ⅲ-10] 연령별 현재 삶에서 가장 큰 비중 1순위

다. 학력별

현재 삶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을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가정 생활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이 48%인 반면에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82.5%가 가정 생활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생(60.5%)이 중학생(49.0%)이나 대학생(45.9%)보다 학업 생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생은 여가 생활을 1순위로 선택한 학생이 27.5%로서 다른 어떤 연령보다 압도적으로 여가 생활을 중시하였다. 한편 대학생은 가정 생활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가 33.9%나 됨으로써, 현재 삶에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향후 삶에서의 중요성으로 해석하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1] 학력별 현재 삶에서 가장 큰 비중 1순위

5. 직업에 대한 통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진로 선택, 직업에서의 성공 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진로선택 및 개발과 관련된 통념으로는 한 가지만 잘 하면 성공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첫 직업이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평생 직장에 대한 희망, 중・고등학교시절에 직업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문과가 유리하다는 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 조건과 관련된 통념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바램이 포함된다. 그 외에 맞벌이를 찬성하는 정도, 미혼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직업을 얻기 쉬운 점과 같은 여성의 직업 생활과 관련된 견해들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직업인일 경우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비직업인일 경우 부모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Ⅲ-20> 직업에 대한 통념 관련 문항

진로 선택 및 개발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
	첫 직업이 경력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
	직업 선택은 중ㆍ고등학교에 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문과가 유리하다
성공의 조건	직업 생활을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
	유능한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지 않는다
직업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여유있게 지내고 싶다
여성관련 직업관	맞벌이는 바람직하다
	동일 능력시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직업을 얻기 쉽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	(직업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다. (비직업인)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자랑스럽다.

가. 전체 의견

조사에 참여한 사람 전체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4점 척도에서 중간 값인 2.5보다 높은 경우는, 한 가지만 잘하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2.67), 첫 직업이 향후의 경력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2.80), 가능하다면 한 직업에서 평생동안 일하고 싶다(2.75),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가지지 않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고 싶다(2.98), 맞벌이는 바람직하다(2.75),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서 취업하기 힘들다(3.09),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2.74)과 부모 직업에 대한 자부심(2.91)이다.

평균값이 2.5 이하인 경우는 직업 선택은 중ㆍ고등학교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2.50),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하여는 능력보다 학연과 지연이 있어야 한다(2.45),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하여는 문과가 이과보다 유리하다(2.39), 유능한 사람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지 않는다(2.25)로 나타났다.

나. 성별

직업에 대한 제반 의식에서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학연 및 지연의 중요성 및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이다. 학연 및 지연의 중요성은 남성(2.50)이 여성(2.41)보다 더 중요시한 반면에, 기혼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에 대해서는 여성(3.13)이 남성(3.05)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표 Ⅲ-21> 성별 직업에 대한 통념 평균

	성 별						F	N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 가지만 잘하면 직업 성공	2.66	.84	2.69	.80	2.67	.82	1.341	2514
첫 직업 중요	2.80	.78	2.80	.76	2.80	.77	.029	2514
평생 직장 바람	2.77	.82	2.73	.81	2.75	.81	1.295	2514
중·고등 때 직업 선택	2.49	.81	2.51	.80	2.50	.80	.489	2514
학연 지연 중요	2.50	.84	2.41	.83	2.45	.83	6.183*	2514
사회적 지위 문과유리	2.42	.79	2.36	.71	2.39	.75	3.454	2514
유능한자 초과 근무안함	2.25	.74	2.25	.69	2.25	.71	.002	2514
경제 해결, 직업 안가짐	2.97	.84	3.00	.85	2.98	.84	.733	2514
맞벌이 바람직	2.72	.74	2.78	.72	2.75	.73	3.320	2514
기혼 여성 차별	3.05	.71	3.13	.70	3.09	.71	8.250**	2514
본인 직업 자부심	2.73	.77	2.74	.74	2.74	.76	.052	1699
부모 직업 자부심	2.93	.71	2.90	.70	2.91	.70	.380	815

*p<.05, **p<.01, ***p<.001

다. 연령별 직업에 대한 통념 차이

직업에 대한 통념은 연령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표 Ⅲ-22> 참조). 한 가지만 잘 하면 직업 생활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은 10대(2.80)가 가장 높았으며, 20대(2.59)와 30대(2.60)가 가장 낮았다. 10대 학생들은 특기와 적성을 강

조하는 최근 교육 풍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대나 30대의 경우 한 가지만 잘 하여 성공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평생직장에 대한 바람은 60대(3.09)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중·고등 학교 시절에 선택해야한다는 생각은 당사자들인 10대(2.72)가 가장 높았으며, 20대(2.44)와 30대(2.46), 40대(2.46)는 상대적으로 낮게 동의하였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는 문과가 이과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에는 50대(2.53)가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10대(2.33), 20대(2.30), 30대(2.33)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학연과 지연의 중요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60대의 평균이 2.63인 반면, 50대는 2.46, 40대는 2.51, 30대는 2.40, 20대는 2.42, 10대는 2.34로서 세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맞벌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은 10대 및 20대(2.85)가 가장 높았으며 40대(2.67)가 가장 낮았다.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30대(2.82)가 가장 높았으며, 10대(2.40)가 가장 낮았다. 대부분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는 연령인 30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2.70으로 낮게 나온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40대의 직업적 지위의 불안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직업이 향후 경력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 유능한 사람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 구직하는 데 있어서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불리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2> **연령별 직업에 대한 통념 평균 점수**

	연령별														F	N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한가지만 잘하면 성공	**2.80**	.78	2.59	.83	2.60	.83	2.73	.81	2.75	.80	2.74	.85	2.67	.82	4.681***	**2514**
첫 직업 중요	2.85	.69	2.83	.77	2.77	.76	2.79	.80	2.76	.79	2.88	.75	2.80	.77	1.162	**25141**
평생직장 바람	2.63	.84	2.61	.82	2.68	.79	2.84	.80	2.97	.77	**3.09**	.78	2.75	.81	17.098***	**2514**
중고등때 직업 선택	**2.72**	.88	2.44	.81	2.46	.78	2.46	.79	2.55	.78	2.61	.76	2.50	.80	6.015***	**2514**
사회적 지위 문과유리	2.33	.76	2.30	.75	2.33	.72	2.49	.77	**2.53**	.74	2.46	.77	2.39	.75	7.121***	**2514**
학연지연 중요	2.34	.85	2.42	.83	2.40	.83	2.51	.83	2.56	.81	**2.63**	.88	2.45	.83	4.610***	**2514**
유능한자 초과근무 안함	2.19	.69	2.21	.71	2.23	.71	2.31	.72	2.27	.68	2.35	.75	2.25	.71	2.219	**2514**
경제해결 ,직업 안가짐	3.02	.85	2.95	.85	2.99	.84	2.96	.86	2.97	.84	3.10	.80	2.98	.84	.992	**2514**
맞벌이 바람직	**2.85**	.74	**2.85**	.70	2.69	.71	2.67	.70	2.72	.77	2.77	.84	2.75	.73	5.932***	**2514**
기혼여성 차별	3.06	.72	3.13	.69	3.05	.72	3.08	.71	3.11	.69	3.23	.65	3.09	.71	2.087	**2514**
본인직업 자부심	2.40	.63	2.72	.77	**2.82**	.70	2.70	.76	2.71	.82	2.75	.83	2.74	.76	3.095***	**1699**
부모직업 자부심	**3.06**	.67	3.00	.68	2.87	.70	2.79	.74	2.71	.66	2.68	.76	2.91	.70	6.527***	**815**

*p<.05, **p<.01, ***p<.001

라. 학력별

직업과 관련된 통념들에 동의하는 정도는 학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표 Ⅲ-23> 참조). 재학생들을 제외하고 논의하면, 한 가지만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학력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중졸 이하의 집단은 평균이 2.73인데 반하여 대학원 졸업 이상은 평균이 2.38에 불과하였다.

평생 직장에 대한 바람은 학력과 곡선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중졸 이하(2.99)와 대학원 이상(2.94)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2.58)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집단이 향후 자영업 등 독립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확인이 없이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중・고등 학교 시절에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학력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중졸 이하의 평균이 2.62인 반면, 대학원졸 이상은 2.16으로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는 문과가 유리하다는 생각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현재 직업 생활의 고달픔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성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은 중졸 이하의 집단으로서 3.03이었으나,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3.10, 고등 학생은 3.00으로서 현재 어린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취업시 기혼 여성에 대하여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임금 직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첫 직업의 중요성, 초과 근무, 맞벌이에 대한 생각은 학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3> 학력별 직업에 대한 통념 평균 점수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	2.73	.80	2.71	.81	2.58	.81	2.60	.85	2.38	.78
첫 직업 중요	2.76	.81	2.76	.77	2.78	.80	2.87	.76	2.78	.86
평생 직장 바람	2.99	.81	2.78	.80	2.58	.74	2.73	.84	2.94	.65
중·고등때 직업 선택	2.62	.78	2.52	.79	2.31	.76	2.44	.76	2.16	.84
학연 지연 중요	2.65	.83	2.47	.84	2.42	.84	2.41	.81	2.38	.73
유능한자 초과근무안함	2.30	.74	2.25	.70	2.31	.71	2.27	.71	2.18	.77
사회적 지위 문과 유리	2.53	.79	2.40	.75	2.34	.75	2.40	.75	2.32	.68
경제해결, 직업 안가짐	3.03	.81	3.04	.84	2.95	.81	2.87	.88	2.74	.90
맞벌이 바람직	2.75	.79	2.74	.74	2.68	.72	2.72	.68	2.80	.67
기혼 여성 차별	3.17	.69	3.09	.73	3.06	.69	3.10	.71	2.82	.63
본인 직업 자부심	2.59	.83	2.70	.79	2.74	.65	2.87	.68	3.04	.74
부모 직업 자부심	2.67	.71	2.80	.70	3.05	.69	2.96	.74	3.00	.00

	학력별										F	N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	2.86	.80	2.83	.86	2.65	.73	2.66	.81	2.67	.82	3.119**	2514
첫 직업 중요	2.75	.74	2.96	.68	2.77	.59	2.84	.72	2.80	.77	1.779	2514
평생 직장 바람	2.63	.82	2.65	.94	2.52	.74	2.63	.78	2.75	.81	6.812***	2514
중고등 때 직업 선택	2.92	.77	2.81	.92	2.67	.75	2.36	.81	2.50	.80	9.731***	2514
학연 지연 중요	2.29	.78	2.33	.90	2.31	.75	2.40	.81	2.45	.83	3.452**	2514
사회적 지위 문과유리	2.41	.67	2.37	.78	2.19	.70	2.24	.74	2.39	.75	3.162**	2514
유능한자 초과근무안함	2.27	.60	2.18	.73	2.15	.71	2.14	.72	2.25	.71	1.494	2514
경제 해결,직업안가짐	3.10	.83	3.00	.83	2.94	.78	2.95	.88	2.98	.84	2.444*	2514
맞벌이 바람직	2.76	.81	2.84	.73	2.83	.63	2.84	.69	2.75	.73	1.209	2514
기혼 여성 차별	2.82	.71	3.13	.73	3.00	.65	3.12	.62	3.09	.71	2.688**	2514
본인 직업 자부심			2.56	.73	2.52	.73	2.70	.72	2.74	.76	4.028***	1699
부모 직업 자부심	3.06	.61	3.03	.68	2.88	.60	3.04	.70	2.91	.70	3.978***	815

*p<.05, **p<.01, ***p<.001

마. 직업별

직업에 대한 통념은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사무 종사자(3.13)와 서비스 종사자(3.12)이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2.88)가 가장 낮았다. 본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전문가(3.1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3.07), 기술공 및 준전문가(2.9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2.87), 서비스 종사자(2.79), 판매 종사자(2.73), 사무 종사자(2.72), 기계조작 및 조립원(2.57), 기능인(2.54), 단순 노무직종사자(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직업별 직업에 대한 통념 평균 점수

	직업별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가지만잘하면 직업성공	2.61	.83	2.47	.85	2.61	.82	2.52	.82	2.70	.87	2.59	.86
첫직업 중요	3.02	.91	2.91	.74	2.84	.78	2.70	.78	2.85	.78	2.69	.76
평생직장 바람	2.85	.61	2.84	.80	2.73	.80	2.73	.79	2.73	.79	2.66	.84
중고등때 직업 선택	2.22	.79	2.41	.80	2.48	.74	2.38	.79	2.45	.79	2.38	.79
학연지연 중요	2.44	.87	2.41	.73	2.32	.86	2.36	.80	2.54	.84	2.52	.81
사회적지위 문과유리	2.39	.83	2.29	.73	2.33	.71	2.29	.72	2.39	.72	2.43	.75
유능한자 초과근무안함	2.24	.70	2.23	.76	2.12	.66	2.22	.67	2.26	.71	2.23	.70
경제해결,직업안가짐	2.98	.91	2.73	.93	2.87	.84	2.91	.85	3.00	.89	3.02	.82
맞벌이 바람직	2.66	.73	2.91	.71	2.64	.68	2.72	.66	2.73	.74	2.76	.74
기혼여성 차별	2.88	.71	3.02	.67	3.07	.73	3.13	.70	3.12	.75	3.00	.72
본인직업 자부심	3.07	.69	3.17	.65	2.91	.66	2.72	.67	2.79	.76	2.73	.76

< 표 계속>

	직업별										F (N=15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가지만잘하면 직업성공	2.60	.84	2.81	.85	2.65	.80	2.66	.81	2.62	.84	.411
첫직업 중요	2.85	.77	2.77	.79	2.73	.80	2.67	.81	2.77	.79	.339
평생직장 바람	3.13	.85	2.84	.80	2.80	.72	2.80	.91	2.76	.81	.987
중고등때 직업 선택	2.55	.85	2.66	.92	2.60	.72	2.47	.81	2.45	.79	.792
학연지연 중요	2.63	.93	2.54	.99	2.53	.81	2.63	.80	2.47	.83	.810
유능한자 초과근무안함	2.30	.72	2.29	.80	2.22	.70	2.37	.73	2.23	.70	.165
경제해결,직업 안가짐	3.18	.90	2.96	.89	2.97	.79	3.14	.77	2.96	.85	.714
맞벌이 바람직	2.97	1.00	2.53	.82	2.74	.71	2.78	.76	2.73	.73	.427
기혼여성 차별	3.20	.76	2.99	.78	3.06	.71	3.04	.66	3.06	.72	3.856**
사회적지위 문과유리	2.35	.66	2.40	.90	2.51	.74	2.46	.84	2.38	.75	1.268
본인직업 자부심	2.87	.91	2.54	.84	2.57	.74	2.31	.77	2.74	.76	5.043***

*p<.05, **p<.01, ***p<.001

6. 직업평가

한 사회 내의 사회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권력이 많은 직업이라든지, 돈이 많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권력도 돈도 없지만 명예가 많은 직업이라든지 등의 직업에 대한 개인적이고 차별적인 서열적 평가를 내리며 직업 생활을 영위한다.

직업 위세 평가는 이러한 권력, 돈,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개별 직업에 대해 내리는 개인적 평가를 사회적으로 종합하여 평가의 차이성에 대해 직업별로 서열을 매긴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 위세를 통하여 한 사회 내의 사회 구성원들이 직업 간의 차이와 서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차별적 평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며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4가지의 직업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우편집배원의 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한 다음, 24가지 직업의 사회적 지위(권력, 돈, 명예를 종합적으로 판단)가 우편집배원의 점수에 비해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를 0점에서 100점까지 직접 기입, 평가하도록 한 다음 직업 위세를 측정하였다. 다음의 분석 결과는 그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내과 의사, 변호사, 프로축구선수, 대기업체 사장 등이 24개 직업 중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과의사, 변호사, 대기업체 사장 등은 직업지위의 면에 있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선호도나 평가가 높은 직업이었는데, 여전히 직업 위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프로축구선수가 3위의 높은 직업 위세의 평가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데다가 아마도 올해 한국에서 치루어진 월드컵의 홍보 효과 덕분으로 그 높아진 실상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다음으로, 초등 학교 교장, 초등 학교 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펀드매니저, 국회의원, 은행원, 토목기술자가 70점 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업지위의 한 축이 되는 명예를 교육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컴퓨터프로그래머나 펀드매니저와 같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신 직종에 속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은행원이나 토목기술자와 같은 전통적인 화이트칼라 직업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업 위세에 대한 평가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25.45점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에 비해 사람들의 평가의 이질성이 큰 폭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요리사, 연예인, 육군 대위, 대기업체 사무원, 전기 기술공, 경찰관이 다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요리사 직업에 대한 상대적인 높은 평가가 눈에 띄는데, 요리사 직업은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하여 그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이 널리 알려진 직업으로 그 홍보효과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은 육군대위, 대기업체 사무원, 전기기술공, 경찰관 등의 전통적인 중간 화이트칼라 직업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직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 생활설계사, 선반공, 목수, 어부, 광원, 단순노무자가 직업 위세의 낮은 서열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직업 위세는 권력, 돈, 명예의 다차원적 토대에서 평가할 때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상위 내과의사의 평가점수가 83.28점임에 비해, 하위 단순노무자는 47.89점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불평등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25> 직업 위세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서열
내과의사	2508	83.28	13.57	1
변호사	2508	81.53	16.01	2
프로축구선수	2508	81.34	14.45	3
대기업체 사장	2509	80.37	17.39	4
초등학교 교장	2508	79.91	14.13	5
초등학교 교사	2508	78.31	13.15	6
컴퓨터프로그래머	2509	78.04	13.34	7
펀드매니저	2506	76.14	15.49	8
국회의원	2508	72.08	25.45	9
은행원	2509	71.57	12.97	10
토목기술자	2508	71.35	13.35	11
요리사	2508	69.93	14.06	12
연예인	2507	69.63	19.38	13
육군대위	2507	69.61	14.69	14
대기업체 사무원	2504	69.57	12.64	15
전기기술공	2507	68.34	13.47	16
경찰관	2508	67.70	14.71	17
농민	2508	61.36	20.68	18
생활설계사	2508	56.76	15.70	19
선반공	2504	55.77	16.53	20
목수	2506	54.99	17.49	21
어부	2507	53.42	18.93	22
광원	2507	52.39	19.35	23
단순노무자	2506	47.89	19.30	24

※단,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한국인의 직업 위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미국에서 수행된 직업 위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인의 직업 위세 평가의 특징적인 한 단면이 어느 정도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1992년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10개 직업의 직업 위세에 대한 평가 자료[5]와 동일한 한국인의 10개 직업에 대한 직업 위세 종합평가 자료를 상대적인 직업 위세 서열의 측면에서 비교,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 10개 직업 중 6개 직업, 즉 내과의사, 변호사, 은행원, 전기기술공, 생활설계사, 목수는 미국과 한국의 상대적인 직업 위세의 평가 순위가 동일하였다. 그러나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것도 있었는데, 토목기술자와 초등 학교 교사에 대한 평가 순위이다. 미국에서는 토목기술자가 3위로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6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7위에 불과했으나 한국에서는 4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 서열의 평가에 관한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오랜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미국에서는 지난 60여년간 다섯 번에 걸쳐서 주요 직업의 서열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925년에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동일한 직업에 대하여 1946년, 1967년, 1975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잡은 10개 직업의 서열은 미국의 마지막 조사(1992년)의 결과이다.

<표 Ⅳ-26> 미국과 한국의 직업서열 평가 비교

직업	미국*	한국**
내과의사(Physician)	1위	1위
변호사(Lawyer)	2위	2위
토목기술자(Civil Engineer)_	3위	6위
초등학교 교장(Superintendent of School)	4위	3위
은행원(Banker)	5위	5위
육군대위(Army Captain)	6위	7위
초등 학교 교사(Elementary School Teacher)	7위	4위
전기기술공(Electrician)	8위	8위
생활설계사(Insurance Agent)	9위	9위
목수(Carpenter)	10위	10위

* Kanzaki, G. A.(1976). Fifty years of stability in the social status of occupat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5, 101-105; and Fredrickson, R. H., Lin, J. G., & Xing, S.(1992). Social status ranking of occup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Career. . Development Quarterly, 40, 351-360. Used by permission of NCDA. 이 자료는 다음의 글에서 인용하였음. Lee E. Isaacson & Duane Brown. (1997).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Boston : Allyn and Bacon.

**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II)에서 평가된 24개 직업 가운데 10개 직업 내의 상대적 순위.

한편, 이러한 종합적 평가에 기초한 직업 위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하위집단별로 보면, 집단의 범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우선 직업 위세의 서열의 측면에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 내과의사를 1위로 평가하고 있고, 남성들은 프로축구선수, 대기업체 사장, 변호사, 초등학교 교장, 컴퓨터프로그래머, 초등 학교 교사, 펀드매니저, 국회의원, 토목기술자, 은행원의 순으로 직업 위세의 서열을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변호사, 프로축구선수, 초등 학교 교장, 대기업체 사장, 초등학교

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펀드매니저, 은행원, 국회의원, 토목기술자의 순으로 직업 위세의 서열을 평가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이 변호사의 직업 위세를 전통적인 관념과 직업 위세의 전체적인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2위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4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들은 초등 학교 교장의 직업 위세를 대기업체 사장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대기업체 사장을 초등학교 교장직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하위서열로 평가된 농민, 생활설계사, 선반공, 목수, 어부, 광원, 단순노무자는 전체적인 직업평가의 서열과 마찬가지로 18-24위의 낮은 서열순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업 위세의 평가 점수 측면에서 보면, 프로축구선수나 대기업체 사장에 대해서는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내과의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래머, 펀드매니저, 국회의원, 토목기술자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초등 학교 교장, 초등 학교 교사, 은행원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직업 위세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요리사, 육군대위, 대기업체 사무원, 전기기술공, 경찰관의 경우에도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내과의사나 변호사에 대해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내과의사나 변호사가 여성들의 배우자의 직업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초등 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 은행원, 연예인의 직업에 대해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농민, 생활설계사, 선반공, 목수, 어부, 광원, 단순노무자의 직업 위세에 대한 평가 점수는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연령별로 보면, 직업 위세의 평가 점수의 측면에서 내과의사, 변호사, 프로축구선수, 대기업체 사장의 직업에 대해서는 각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초등 학교 교장과 교사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직에 대해서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30대 이하의 연령층보다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래머나 펀드매니저와 같은 신종 직업에 대해서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4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더 높은 직업 위세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대조적으로 눈에 띈다. 또한 토목기술자, 육군대위, 대기업체 사무원은 40대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30대, 20대로 내려올수록 평가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직업인 반면, 요리사와 연예인은 50대 이상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그리고 전기기술공, 경찰관, 농민, 생활설계사는 직업 위세의 평가 점수에서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선반공, 목수, 어부, 단순노무자도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받다가 30대, 20대로 내려올수록 평가 점수가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원에 대해서는 각 연령대별로 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낮은 점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표 Ⅳ-27> 성별 직업 위세 평균의 차이

	성 별								F	N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서열	평균	표준편차	서열	평균	표준편차		
내과의사	82.28	14.27	1	84.32	12.72	1	83.28	13.57	14.264***	2508
변호사	80.50	17.49	4	82.59	14.26	2	81.53	16.01	10.734***	2508
프로축구 선수	81.06	14.74	2	81.62	14.14	3	81.34	14.45	.964	2508
대기업체 사장	80.80	17.34	3	79.92	17.44	5	80.37	17.39	1.619	2509
초등 학교 교장	79.31	14.61	5	80.53	13.60	4	79.91	14.13	4.676*	2508
초등 학교 교사	77.33	13.17	7	79.31	13.06	6	78.31	13.15	14.330***	2508
컴퓨터 프로그래머	77.95	13.37	6	78.14	13.31	7	78.04	13.34	.122	2509
펀드매니저	75.92	16.31	8	76.37	14.60	8	76.14	15.49	.543	2506
국회의원	72.19	25.83	9	71.96	25.06	10	72.08	25.45	.051	2508
은행원	70.78	13.44	11	72.39	12.43	9	71.57	12.97	9.584**	2509
토목기술자	71.42	13.88	10	71.27	12.79	11	71.35	13.35	.078	2508
요리사	69.45	14.23	13	70.43	13.88	13	69.93	14.06	3.057	2508
연예인	68.72	20.06	15	70.57	18.62	12	69.63	19.38	5.724*	2507
육군대위	69.50	14.58	12	69.73	14.81	15	69.61	14.69	.160	2507
대기업체 사무원	69.36	12.91	14	69.79	12.36	14	69.57	12.64	.711	2504
전기기술공	68.72	13.55	15	67.94	13.39	17	68.34	13.47	2.106	2507
경찰관	67.20	15.25	17	68.22	14.12	16	67.70	14.71	2.989	2508
농민	61.29	20.88	18	61.44	20.47	18	61.36	20.68	.032	2508
생활설계사	56.38	15.81	19	57.16	15.58	19	56.76	15.70	1.560	2508
선반공	56.07	16.65	20	55.46	16.40	20	55.77	16.53	.841	2504
목수	55.55	17.65	21	54.42	17.31	21	54.99	17.49	2.602	2506
어부	53.81	19.11	22	53.02	18.75	22	53.42	18.93	1.116	2507
광원	52.69	19.73	23	52.07	18.95	23	52.39	19.35	.647	2507
단순노무자	48.13	20.00	24	47.65	18.55	24	47.89	19.30	.392	2506

<표 Ⅳ-28> 연령별 직업 위세 평균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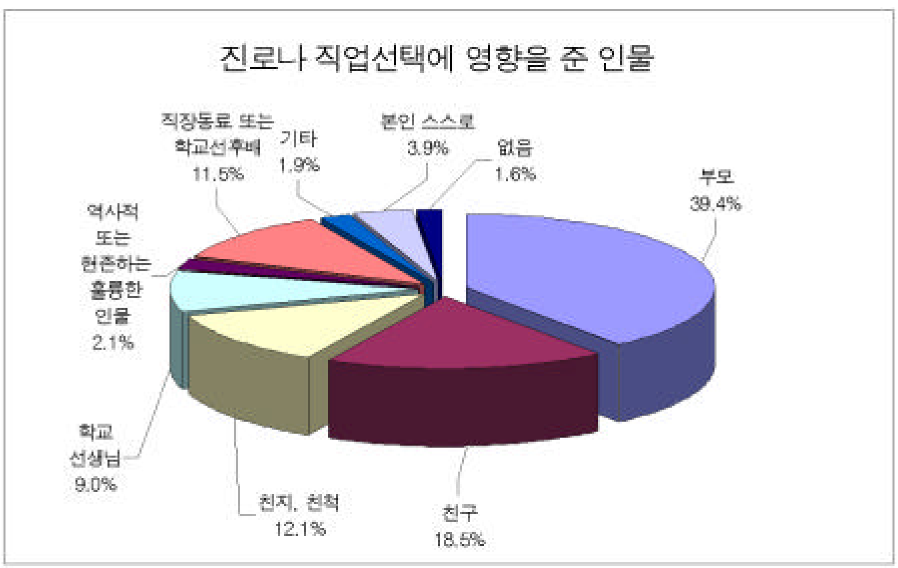
	연 령 별										F	N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과의사	82.63	13.10	83.35	13.81	83.52	14.45	84.15	12.98	83.28	13.57	1.360	2508
변호사	81.54	15.00	81.15	16.36	81.60	17.62	81.97	15.46	81.53	16.01	.247	2508
프로축구 선수	81.93	14.60	81.05	14.79	81.84	13.22	80.04	14.94	81.34	14.45	2.016	2508
대기업체 사장	80.24	18.39	80.79	16.30	80.31	17.11	80.07	17.34	80.37	17.39	.191	2509
초등 학교 교장	78.00	14.79	80.11	13.64	81.46	13.54	81.44	13.83	79.91	14.13	9.319***	2508
초등 학교 교사	77.25	13.32	78.52	13.15	79.09	13.44	79.08	12.40	78.31	13.15	3.101*	2508
컴퓨터 프로그래머	79.33	13.01	78.87	12.84	78.12	13.07	74.37	14.28	78.04	13.34	15.478***	2509
펀드 매니저	77.09	15.25	77.34	15.38	76.37	15.23	72.39	15.87	76.14	15.49	11.563***	2506
국회의원	73.01	24.23	71.49	25.64	70.16	27.34	73.36	25.08	72.08	25.45	1.899	2508
은행원	71.07	12.67	71.52	12.66	71.63	13.38	72.53	13.48	71.57	12.97	1.290	2509
토목기술자	69.74	14.02	72.49	12.92	73.06	12.49	70.78	13.27	71.35	13.35	8.996***	2508
요리사	70.77	14.88	70.38	14.17	70.01	13.22	67.62	13.05	69.93	14.06	5.428**	2508
연예인	71.78	19.48	69.67	19.73	68.12	18.87	67.29	18.88	69.63	19.38	6.881***	2507
육군대위	68.50	16.08	69.49	14.38	70.82	12.91	70.46	14.22	69.61	14.69	3.362*	2507
대기업체 사무원	68.84	13.76	69.21	12.48	70.53	11.61	70.36	11.71	69.57	12.64	2.769*	2504
전기 기술공	67.66	13.89	68.82	13.30	69.32	12.92	67.79	13.51	68.34	13.47	2.177	2507
경찰관	68.56	15.36	67.05	14.15	67.81	14.35	66.89	14.62	67.70	14.71	1.869	2508
농민	60.22	20.23	61.21	20.83	62.56	20.52	62.36	21.39	61.36	20.68	1.842	2508
생활 설계사	55.71	15.88	56.83	15.92	57.85	15.76	57.41	14.90	56.76	15.70	2.401	2508
선반공	53.96	16.65	56.37	16.15	57.21	17.18	56.66	15.79	55.77	16.53	5.557**	2504
목수	53.36	17.38	55.30	17.67	56.00	17.65	56.43	17.04	54.99	17.49	4.228**	2506
어부	51.94	18.41	53.66	18.92	54.88	19.11	54.18	19.57	53.42	18.93	3.099*	2507
광원	51.10	18.80	52.70	19.41	52.92	19.95	53.74	19.49	52.39	19.35	2.230	2507
단순 노무자	45.77	18.86	48.42	19.17	48.82	19.90	50.03	19.28	47.89	19.30	5.970***	2506

IV. 직업 활동 단계별 의식에 관한 조사

1. 직업 준비

가.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전체적으로 부모(39.4%)**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18.5%), **친지 · 친척**(12.1%), **직장동료 및 학교 선후배**(11.5%), **학교 선생님**(9.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 의식 1차 조사**(98**년**)**에서 진로나 직업 선택에 부모**(35.7%)**가 가장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 친구**(17.1%), **동료 또는 선배**(13.3%), **기타**(12.5%), **친지 · 친척**(10.5%), **학교 선생님**(9.6%),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1.3%) **등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로써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인 부모나 친구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

1) 성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는 여자와 달리 친구, 직장동료, 학교 선후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성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부모	빈도	459	532	991
	%	36.0%	43.0%	39.4%
친구	빈도	245	220	465
	%	19.2%	17.8%	18.5%
친지 · 친척	빈도	156	149	305
	%	12.2%	12.0%	12.1%
학교 선생님	빈도	114	112	226
	%	8.9%	9.0%	9.0%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빈도	27	26	53
	%	2.1%	2.1%	2.1%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빈도	184	105	289
	%	14.4%	8.5%	11.5%
기타	빈도	24	23	47
	%	1.9%	1.9%	1.9%
본인/ 스스로	빈도	53	46	99
	%	4.2%	3.7%	3.9%
없음	빈도	14	25	39
	%	1.1%	2.0%	1.6%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x^2=31.565, P=.000

2) 연령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영향은 10대(49.6%)와 60대(54.7%)에서 가장 높고, 친구는 40대(21.6%)와 10대(20.1%)에서 높으며, 친지 · 친척의 영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반면 학교 선생님은 학령기인 10대에서 가장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는 초기 입직과 직업 유지 · 전환이 활발한 시기인 20대와 30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 연령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부모	빈도	133	253	231	177	121	76	991
	%	49.6%	42.4%	35.1%	33.5%	37.5%	54.7%	39.4%
친구	빈도	54	98	129	114	57	13	465
	%	20.1%	16.4%	19.6%	21.6%	17.6%	9.4%	18.5%
친지 · 친척	빈도	8	48	87	78	61	23	305
	%	3.0%	8.0%	13.2%	14.7%	18.9%	16.5%	12.1%
학교 선생님	빈도	35	57	56	46	24	8	226
	%	13.1%	9.5%	8.5%	8.7%	7.4%	5.8%	9.0%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빈도	10	10	13	12	4	4	53
	%	3.7%	1.7%	2.0%	2.3%	1.2%	2.9%	2.1%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빈도	16	90	90	58	30	5	289
	%	6.0%	15.1%	13.7%	11.0%	9.3%	3.6%	11.5%
기타	빈도	8	7	12	9	8	3	47
	%	3.0%	1.2%	1.8%	1.7%	2.5%	2.2%	1.9%
본인/ 스스로	빈도	4	28	31	21	13	2	99
	%	1.5%	4.7%	4.7%	4.0%	4.0%	1.4%	3.9%
없음	빈도		6	9	14	5	5	39
	%		1.0%	1.4%	2.6%	1.5%	3.6%	1.6%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45.324, P=.000

3) 학력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은 전체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모는 성인보다 재학생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고등 학생(51.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의 영향은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을 제외하고 20%대로 높게 나타났고, 성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친지·친척은 학생의 경우 전문대생(12.5%)이 다른 학생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성인의 경우 중졸 이하(20.2%)가 다른 학력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친지·친척의 영향은 낮아졌다. 학교 선생님의 영향은 대학생(12.8%)과 성인 대학원졸(20.0%)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은 중학생(7.8%)과 대학원졸 이상(6.0%)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는 대학생(14.2%), 대졸(16.2%)자 및 대학원졸 이상(18.0%)자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인은 전문대생(6.3%)과 대학원졸 이상(10.0%)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로써 부모는 학력과 상관 없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다른 인물들의 영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 친지·친척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등의 영향은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 학력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부모	빈도	143	344	91	181	18	23	67	19	105	991
	%	44.5%	35.0%	37.9%	38.1%	36.0%	45.1%	51.9%	39.6%	48.2%	39.4%
친구	빈도	60	223	40	64	2	11	27	12	26	465
	%	18.7%	22.7%	16.7%	13.5%	4.0%	21.6%	20.9%	25.0%	11.9%	18.5%
친지 · 친척	빈도	65	130	31	56	3	2	4	6	8	305
	%	20.2%	13.2%	12.9%	11.8%	6.0%	3.9%	3.1%	12.5%	3.7%	12.1%
학교 선생님	빈도	6	82	29	45	10	6	14	6	28	226
	%	1.9%	8.4%	12.1%	9.5%	20.0%	11.8%	10.9%	12.5%	12.8%	9.0%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빈도	2	11	7	13	3	4	6	1	6	53
	%	.6%	1.1%	2.9%	2.7%	6.0%	7.8%	4.7%	2.1%	2.8%	2.1%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빈도	15	118	28	77	9	1	9	1	31	289
	%	4.7%	12.0%	11.7%	16.2%	18.0%	2.0%	7.0%	2.1%	14.2%	11.5%
기타	빈도	5	19	5	10		3	1		4	47
	%	1.6%	1.9%	2.1%	2.1%		5.9%	.8%		1.8%	1.9%
본인/ 스스로	빈도	15	40	7	20	5	1	1	3	7	99
	%	4.7%	4.1%	2.9%	4.2%	10.0%	2.0%	.8%	6.3%	3.2%	3.9%
없음	빈도	10	15	2	9					3	39
	%	3.1%	1.5%	.8%	1.9%					1.4%	1.6%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13.572, P=.000

4) 사회 집단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로 부모의 영향은 은퇴자의 절반(51.3%)이상 가장 영향을 받은 가운데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친구는 다른 집단보다 실업자(23.8%)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친지 · 친척은 직업인(14.6%)에게서, 학교 선생님은 은퇴자(15.4%), 학생(13.3%)에게서,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은 학생(4.1%)에게서,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는 실업자(16.7%)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Ⅳ-4> 사회 집단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부모	빈도	549	16	204	202	20	991
	%	34.4%	38.1%	48.6%	48.7%	51.3%	39.4%
친구	빈도	309	10	74	68	4	465
	%	19.3%	23.8%	17.6%	16.4%	10.3%	18.5%
친지 · 친척	빈도	234	2	48	16	5	305
	%	14.6%	4.8%	11.4%	3.9%	12.8%	12.1%
학교 선생님	빈도	124	5	36	55	6	226
	%	7.8%	11.9%	8.6%	13.3%	15.4%	9.0%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빈도	29		6	17	1	53
	%	1.8%		1.4%	4.1%	2.6%	2.1%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빈도	220	7	24	35	3	289
	%	13.8%	16.7%	5.7%	8.4%	7.7%	11.5%
기타	빈도	34	1	4	8		47
	%	2.1%	2.4%	1.0%	1.9%		1.9%
본인/ 스스로	빈도	73	1	14	11		99
	%	4.6%	2.4%	3.3%	2.7%		3.9%
없음	빈도	26		10	3		39
	%	1.6%		2.4%	.7%		1.6%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29.073, P=.000

5) 직업별

직업별에 따른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영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기능인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경우만 친구(27.9%)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지 · 친척의 영향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및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선생님의 영향은 전문가에게서,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의 영향은 다른 직업보다 고위 임직원 · 관리자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의 영향은 다른 직업보다 고위 임직원 · 관

리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에 본인을 꼽은 직업은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였다.

<표 Ⅳ-5> 직업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부모	빈도	13	42	59	109	74	111	24	38	47	32	549
	%	31.7%	37.2%	31.6%	38.4%	30.7%	36.5%	60.0%	40.0%	26.3%	28.1%	34.4%
친구	빈도	4	11	36	45	52	58	1	21	50	31	309
	%	9.8%	9.7%	19.3%	15.8%	21.6%	19.1%	2.5%	22.1%	27.9%	27.2%	19.3%
친지·친척	빈도	6	14	15	38	37	59	7	14	23	21	234
	%	14.6%	12.4%	8.0%	13.4%	15.4%	19.4%	17.5%	14.7%	12.8%	18.4%	14.6%
학교 선생님	빈도	4	18	20	27	16	13	2	2	16	6	124
	%	9.8%	15.9%	10.7%	9.5%	6.6%	4.3%	5.0%	2.1%	8.9%	5.3%	7.8%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빈도	2	2	3	8	3	5	1	2	2	1	29
	%	4.9%	1.8%	1.6%	2.8%	1.2%	1.6%	2.5%	2.1%	1.1%	.9%	1.8%
직장동료또는 학교선후배	빈도	12	17	29	38	31	36	1	13	28	15	220
	%	29.3%	15.0%	15.5%	13.4%	12.9%	11.8%	2.5%	13.7%	15.6%	13.2%	13.8%
기타	빈도		1	8	7	6	4		1	3	4	34
	%		.9%	4.3%	2.5%	2.5%	1.3%		1.1%	1.7%	3.5%	2.1%
본인/스스로	빈도		8	13	9	15	12	2	4	9	1	73
	%		7.1%	7.0%	3.2%	6.2%	3.9%	5.0%	4.2%	5.0%	.9%	4.6%
없음	빈도			4	3	7	6	2		1	3	26
	%			2.1%	1.1%	2.9%	2.0%	5.0%		.6%	2.6%	1.6%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32.196, P=.000

6)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로 무급 가족 종사자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의 영향은 일용 근로자가 가장 영향을 받았으며, 친지·친척과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의 영향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서 높게 나

타났고, 학교 선생님의 영향은 상용 근로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6> 고용 형태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부모	빈도	329	29	3	15	150	23	549
	%	32.8%	42.0%	23.1%	24.6%	37.0%	50.0%	34.4%
친구	빈도	202	12	6	12	72	5	309
	%	20.1%	17.4%	46.2%	19.7%	17.8%	10.9%	19.3%
친지· 친척	빈도	130	11		12	77	4	234
	%	12.9%	15.9%		19.7%	19.0%	8.7%	14.6%
학교 선생님	빈도	92	2	1	5	19	5	124
	%	9.2%	2.9%	7.7%	8.2%	4.7%	10.9%	7.8%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빈도	20	1		1	7		29
	%	2.0%	1.4%		1.6%	1.7%		1.8%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빈도	155	12	1	12	39	1	220
	%	15.4%	17.4%	7.7%	19.7%	9.6%	2.2%	13.8%
기타	빈도	24	2			6	2	34
	%	2.4%	2.9%			1.5%	4.3%	2.1%
본인/ 스스로	빈도	41		1	2	25	4	73
	%	4.1%		7.7%	3.3%	6.2%	8.7%	4.6%
없음	빈도	11		1	2	10	2	26
	%	1.1%		7.7%	3.3%	2.5%	4.3%	1.6%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75.516, P=.001

나.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있다(40.0%)는 응답보다 없다(60.0%)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특성상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직업 의식 1차 조사(98년)에서는 진로에 대하여 처음 생각해 본 시기와 직

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를 질문하였다. 당시에는 진로에 대하여 처음 생각해 본 시기로 '고등 학교 때(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때(26.7%)', '고등 학교 졸업 후(10.0%)', '초등 학교 때(8.6%)'와 '생각한 적 없음(8.6%)', '기타(5.5%)', '대학교 때(5.1%)', '초등 학교 이전(1.1%)', 대학교 졸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는 '고등 학교 때(28.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20.7%)', '중학교 때(13.0%)', '대학교 때(12.0%)', '생각한 적이 없다(9.2%)', '대학교 졸업이후(3.0%), '초등 학교 때(2.1%)', '기타', '초등 학교 이전(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차 조사에서 고등 학교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하여 생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2차 조사에서 10대와 20대가 진로 지도를 받은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중ㆍ고등 학교 단계에 있거나 거친 시기로서 1차 조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중ㆍ고등 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높지는 않으며, 학교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연령별

연령별로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대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10대(51.1%)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낮아졌다.

<표 Ⅳ-7> 연령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예	빈도	137	346	269	169	67	17	1005
	%	51.1%	58.0%	40.9%	31.9%	20.7%	12.2%	40.0%
아니오	빈도	131	251	389	360	256	122	1509
	%	48.9%	42.0%	59.1%	68.1%	79.3%	87.8%	60.0%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03.130, P=.000

2) 학력별

학력별로 학생의 경우 고교생, 전문대생, 대학생, 성인의 경우 전문대졸이상자의 높은 학력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 이상자의 경우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Ⅳ-8> 학력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예	빈도	18	345	126	238	37	16	71	30	124	1005
	%	5.6%	35.1%	52.5%	50.1%	74.0%	31.4%	55.0%	62.5%	56.9%	40.0%
아니오	빈도	303	637	114	237	13	35	58	18	94	1509
	%	94.4%	64.9%	47.5%	49.9%	26.0%	68.6%	45.0%	37.5%	43.1%	60.0%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77.621, P=.000

3) 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로 실업자와 학생에게서 절반 이상이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자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학생은 학교로부터

진로 지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주부(30.7%)에게서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9> 사회 집단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예	빈도	615	22	129	223	16	1005
	%	38.5%	52.4%	30.7%	53.7%	41.0%	40.0%
아니오	빈도	983	20	291	192	23	1509
	%	61.5%	47.6%	69.3%	46.3%	59.0%	60.0%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51.946, P=.000

4) 직업별

직업별로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은 차이가 있었는데,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고위임직원・관리자(51.2%), 전문가(54.9%), 사무종사자(50.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낮은 집단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0%)와 단순 노무직 종사자(25.4%)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노동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고생산성・고임금・고용 안정의 직업 계층인 1차 노동 시장과 저생산성・저임금・고용 불안의 하층부에 해당하는 2차 노동 시장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1차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차 노동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로 지도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Ⅳ-10> 직업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직 업 별										전체
		고위임 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 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	빈도	21	62	83	142	87	94	4	35	58	29	615
	%	51.2%	54.9%	44.4%	50.0%	36.1%	30.9%	10.0%	36.8%	32.4%	25.4%	38.5%
아니오	빈도	20	51	104	142	154	210	36	60	121	85	983
	%	48.8%	45.1%	55.6%	50.0%	63.9%	69.1%	90.0%	63.2%	67.6%	74.6%	61.5%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7.012, P=.000

5)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은 임시 근로자의 경우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고용 형태에서는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급 가족 종사자(21.7%)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Ⅳ-11> 고용 형태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예	빈도	434	36	4	20	111	10	615
	%	43.2%	52.2%	30.8%	32.8%	27.4%	21.7%	38.5%
아니오	빈도	570	33	9	41	294	36	983
	%	56.8%	47.8%	69.2%	67.2%	72.6%	78.3%	61.5%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42.603, P<.001

다.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

학생 시절(중 · 고 · 대)에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9.9%가 진학 지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업 지도(30.0%), 직업 정보(15.3%), 검사 및 상담(14.3%), 기타(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연령, 학력, 직업, 사회 집단에 따라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령별

학생 시절(중 · 고 · 대)에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으로 진학 지도는 10대(43.9%)에게서,취업 지도는 50대(32.0%)에게서, 검사 및 상담은 10대(23.1%)에게서 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 정보는 60대(25.8%)에게서 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 연령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진학 지도	빈도	116	262	187	130	49	12	756
	%	43.9%	40.2%	37.4%	40.1%	39.2%	38.7%	39.9%
취업 지도	빈도	60	207	156	96	40	9	568
	%	22.7%	31.7%	31.2%	29.6%	32.0%	29.0%	30.0%
검사 및 상담	빈도	61	91	58	40	19	2	271
	%	23.1%	14.0%	11.6%	12.3%	15.2%	6.5%	14.3%
직업 정보	빈도	25	91	97	53	16	8	290
	%	9.5%	14.0%	19.4%	16.4%	12.8%	25.8%	15.3%
기타	빈도	2	1	2	5	1		11
	%	.8%	.2%	.4%	1.5%	.8%		.6%
전체	빈도	137	346	269	169	67	17	1005
	%	51.9%	53.1%	53.8%	52.2%	53.6%	54.8%	53.0%

* <표 IV-12>에서 <표 IV-16>까지는 다중응답표이며, x2와 유의도는 표시하지 않음.

2) 학력별

학생시절(중ㆍ고ㆍ대)에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으로 진학 지도는 전반적으로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학생(50.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진학 지도는 주로 대학 입시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지도는 중졸 이하(41.2%)에게서 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10.0%)에게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검사 및 상담은 중학생(30.0%)과 고등 학생(26.3%)에게서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선 중ㆍ고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지도)의 일환으로 검사 실시 및 상담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 정보는 성인의 경우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학생의 경우 중학생(16.7%)과 전문대생(13.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 학력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진학 지도	빈도	11	213	95	193	28	12	60	27	117	756
	%	32.4%	32.8%	40.6%	42.9%	40.0%	40.0%	43.8%	46.6%	50.2%	39.9%
취업 지도	빈도	14	250	68	116	23	3	29	14	51	568
	%	41.2%	38.5%	29.1%	25.8%	32.9%	10.0%	21.2%	24.1%	21.9%	30.0%
검사 및 상담	빈도	3	67	29	60	7	9	36	9	51	271
	%	8.8%	10.3%	12.4%	13.3%	10.0%	30.0%	26.3%	15.5%	21.9%	14.3%
직업 정보	빈도	6	116	39	79	12	5	11	8	14	290
	%	17.6%	17.8%	16.7%	17.6%	17.1%	16.7%	8.0%	13.8%	6.0%	15.3%
기타	빈도		4	3	2		1	1			11
	%		.6%	1.3%	.4%		3.3%	.7%			.6%
전체	빈도	18	345	126	238	37	16	71	30	124	1005
	%	52.9%	53.1%	53.8%	52.9%	52.9%	53.3%	51.8%	51.7%	53.2%	53.0%

3) 사회 집단별

학생시절(중ㆍ고ㆍ대)에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은 사회 집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학 지도뿐 아니라 학생(47.9%)에게서, 검사 및 상담도 학생(23.1%)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 지도는 주부(35.0%)에게서, 직업 정보는 은퇴자(18.8%)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4> 사회 집단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진학 지도	빈도	437	15	89	203	12	756
	%	37.9%	37.5%	36.2%	47.9%	37.5%	39.9%
취업 지도	빈도	373	13	86	86	10	568
	%	32.3%	32.5%	35.0%	20.3%	31.3%	30.0%
검사 및 상담	빈도	136	6	27	98	4	271
	%	11.8%	15.0%	11.0%	23.1%	12.5%	14.3%
직업 정보	빈도	200	6	43	35	6	290
	%	17.3%	15.0%	17.5%	8.3%	18.8%	15.3%
기타	빈도	8		1	2		11
	%	.7%		.4%	.5%		.6%
전체	빈도	615	22	129	223	16	1005
	%	53.3%	55.0%	52.4%	52.6%	50.0%	53.0%

4) 직업별

직업인들이 학생 시절(중ㆍ고ㆍ대)에 받은 진로 지도 내용은 직업 정보(41.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업 지도(35.7%), 진학 지도(21.6%)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직업 정보는 판매 종사자(60.5%)와 기능인(54.7%)에게서, 취업지도는 전문가(51.3%)와 사무 종사자(47.2%)에게서, 진학지도는 전문가(34.5%)와 사무 종사자(30.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 직업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

		직 업 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진학 지도	빈도	10	39	46	86	47	60	4	19	24	10	345
	%	24.4%	34.5%	24.6%	30.3%	19.5%	19.7%	10.0%	20.0%	13.4%	8.8%	21.6%
취업 지도	빈도	14	58	67	134	77	60	15	22	73	51	571
	%	34.1%	51.3%	35.8%	47.2%	32.0%	19.7%	37.5%	23.2%	40.8%	44.7%	35.7%
검사 및상담	빈도		1	3	3	4			2	1	6	20
	%		.9%	1.6%	1.1%	1.7%			2.1%	.6%	5.3%	1.3%
직업 정보	빈도	17	15	68	61	113	184	21	52	81	47	659
	%	41.5%	13.3%	36.4%	21.5%	46.9%	60.5%	52.5%	54.7%	45.3%	41.2%	41.2%
기타	빈도			3								3
	%			1.6%								.2%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고용 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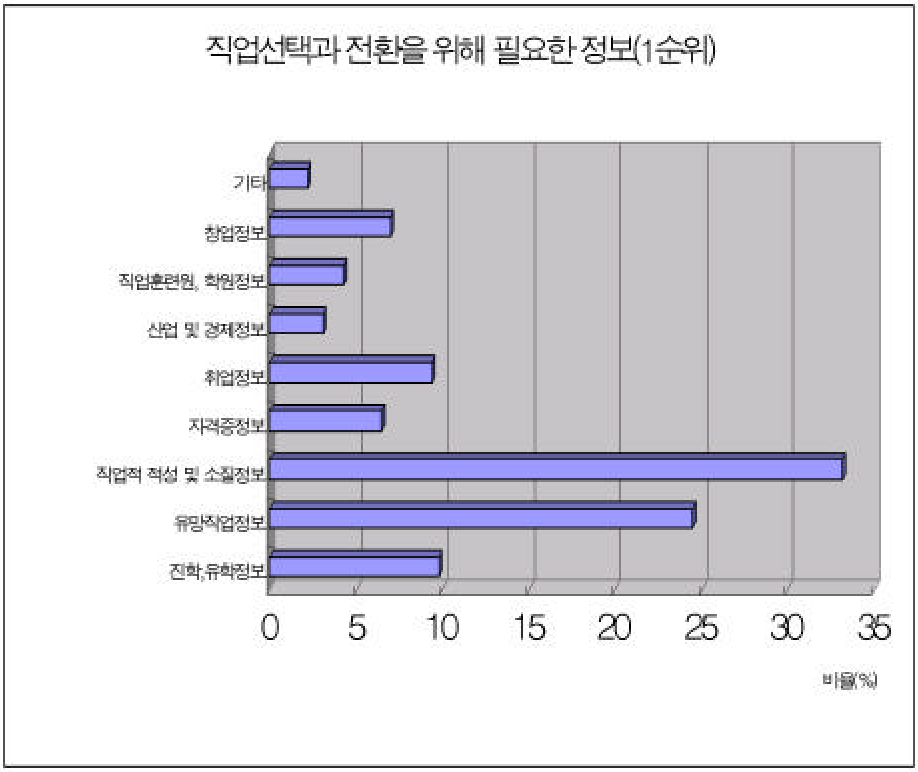
직업 정보는 전체 고용 형태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고용주(65.6%)와 자영업자(65.2%)에게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일용 근로자(23.1%)에게서 다른 고용 형태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진학 지도는 상용 근로자(24.6%)와 일용 근로자(23.1%)에게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영업자(15.1%)에게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 지도는 일용 근로자(46.2%), 상용 근로자(43.7%), 임시 근로자(42.0%)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무급 가족 종사자(28.3%), 자영업자(18.5%) 등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검사 및 상담은 전체 고용 형태에서 낮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일용 근로자(7.7%)에게서 다른 고용 형태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Ⅳ-16> 고용 형태별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의 내용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진학 지도	빈도	247	14	3	12	61	8	345
	%	24.6%	20.3%	23.1%	19.7%	15.1%	17.4%	21.6%
취업 지도	빈도	439	29	6	9	75	13	571
	%	43.7%	42.0%	46.2%	14.8%	18.5%	28.3%	35.7%
검사 및 상담	빈도	11	3	1		4	1	20
	%	1.1%	4.3%	7.7%		1.0%	2.2%	1.3%
직업 정보	빈도	305	23	3	40	264	24	659
	%	30.4%	33.3%	23.1%	65.6%	65.2%	52.2%	41.2%
기타	빈도	2				1		3
	%	.2%				.2%		.2%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는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3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24.5%), 진학 · 유학 정보(9.8%), 취업 정보(9.4%), 창업 정보(7.0%), 자격증에 관한 정보(6.5%), 직업 훈련원 · 학원에 대한 정보(4.3%), 산업 및 경제 정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Ⅳ-2]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성별

남녀 모두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로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진학 · 유학정보, 취업정보 등의 순으로 꼽았은 반면에, 자격증에 관한 정보와 직업 훈련원 · 학원에 대한 정보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창업 정보와 산업 및 경제 정보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남녀간에 필요로 하는 직업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7> 성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진학 · 유학정보	빈도	124	121	245
	%	9.7%	9.8%	9.8%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빈도	336	278	614
	%	26.4%	22.5%	24.5%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빈도	399	435	834
	%	31.3%	35.2%	33.2%
자격증에 관한 정보	빈도	80	83	163
	%	6.3%	6.7%	6.5%
취업정보	빈도	118	117	235
	%	9.3%	9.5%	9.4%
산업 및 경제 정보	빈도	56	22	78
	%	4.4%	1.8%	3.1%
직업 훈련원 · 학원에 대한 정보	빈도	36	72	108
	%	2.8%	5.8%	4.3%
창업정보	빈도	98	77	175
	%	7.7%	6.2%	7.0%
기타	빈도	17	14	31
	%	1.3%	1.1%	1.2%
없음	빈도	9	17	26
	%	.7%	1.4%	1.0%
전체	빈도	1273	1236	2509
	%	100.0%	100.0%	100.0%

χ^2=38.684, P=.000

2) 연령별

진학 · 유학 정보는 10대에게서, 유망 직업 정보는 40대에게서,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는 20대와 30대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자격증 정보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20대와 30대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정보는 다른 연령대보다 60대에게서, 산업 및 경제 정보와 직업 훈련원 · 학원에 대한 정보는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정보는 60대(15.1%)와 40대(12.5%)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연령별로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다

름을 알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구체적인 직업 준비, 초기 입직 및 취업한 직업에서의 경력을 쌓아나가는 시기이다. 그런데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20대와 30대가 직업 준비와 입직 및 재직 중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특성(적성)에 맞는 직업 준비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망직업 정보와 창업 정보에 대한 40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명 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보편화되면서 40대가 직업 전환 또는 경력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유망 직업이나 창업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8> **연령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진학 · 유학정보	빈도	90	80	38	23	11	3	245
	%	33.6%	13.4%	5.8%	4.4%	3.4%	2.2%	9.8%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빈도	45	136	174	152	82	25	614
	%	16.8%	22.8%	26.5%	28.8%	25.5%	18.0%	24.5%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빈도	98	241	244	140	76	35	834
	%	36.6%	40.4%	37.1%	26.5%	23.7%	25.2%	33.2%
자격증에 관한 정보	빈도	14	42	46	36	19	6	163
	%	5.2%	7.0%	7.0%	6.8%	5.9%	4.3%	6.5%
취업 정보	빈도	14	49	67	50	37	18	235
	%	5.2%	8.2%	10.2%	9.5%	11.5%	12.9%	9.4%
산업 및 경제 정보	빈도	2	9	23	20	18	6	78
	%	.7%	1.5%	3.5%	3.8%	5.6%	4.3%	3.1%
직업 훈련원 · 학원에 대한 정보	빈도	4	19	25	28	24	8	108
	%	1.5%	3.2%	3.8%	5.3%	7.5%	5.8%	4.3%
창업 정보	빈도		18	35	66	35	21	175
	%		3.0%	5.3%	12.5%	10.9%	15.1%	7.0%
기타	빈도	1	2	2	5	10	11	31
	%	.4%	.3%	.3%	.9%	3.1%	7.9%	1.2%
없음	빈도			3	8	9	6	26
	%			.5%	1.5%	2.8%	4.3%	1.0%
전체	빈도	268	596	657	528	321	139	2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489.238, P=.000

3) 학력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로 학생의 경우 진학·유학 정보가 높게 나타났고, 성인의 경우 유망 직업 정보가 높게 나타났다. 진학 · 유학 정보의 경우 중·고등 학생**(35.1%, 34.1%)**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 또는 입시 문제가 중요하므로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유망 직업 정보는 대졸**(27.4%), **고졸**(27.1%), **전문대생**(25.0%) **등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취업 및 직업 전환에 관심 있는 학력 집단으로서 유망 직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생(43.1%)과 전문대졸(41.9%)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자격증과 산업 및 경제 정보는 대학원 졸 이상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직업 훈련원·학원 정보와 창업 정보는 중졸 이하에서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19> **학력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진학·유학정보	빈도	7	59	11	26	4	18	44	14	62	245
	%	2.2%	6.0%	4.7%	5.5%	8.0%	35.3%	34.1%	29.2%	28.4%	9.8%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빈도	75	266	56	130	11	5	24	12	35	614
	%	23.4%	27.1%	23.7%	27.4%	22.0%	9.8%	18.6%	25.0%	16.1%	24.5%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빈도	64	327	99	162	16	22	46	13	85	834
	%	20.0%	33.3%	41.9%	34.1%	32.0%	43.1%	35.7%	27.1%	39.0%	33.2%
자격증에 관한 정보	빈도	10	65	16	41	6	3	7		15	163
	%	3.1%	6.6%	6.8%	8.6%	12.0%	5.9%	5.4%		6.9%	6.5%
취업정보	빈도	44	102	21	39	5	2	4	5	13	235
	%	13.8%	10.4%	8.9%	8.2%	10.0%	3.9%	3.1%	10.4%	6.0%	9.4%
산업 및 경제 정보	빈도	13	27	8	21	4		1	2	2	78
	%	4.1%	2.7%	3.4%	4.4%	8.0%		.8%	4.2%	.9%	3.1%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	빈도	34	48	3	14		1	2	1	5	108
	%	10.6%	4.9%	1.3%	2.9%		2.0%	1.6%	2.1%	2.3%	4.3%
창업정보	빈도	38	79	18	36	3			1		175
	%	11.9%	8.0%	7.6%	7.6%	6.0%			2.1%		7.0%
기타	빈도	17	5	2	5			1		1	31
	%	5.3%	.5%	.8%	1.1%			.8%		.5%	1.2%
없음	빈도	18	4	2	1	1					26
	%	5.6%	.4%	.8%	.2%	2.0%					1.0%
전체	빈도	320	982	236	475	50	51	129	48	218	2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565.007, P=.000

4) 사회 집단별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3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학생**(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

유학 정보도 학생 집단(32.5%)에서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유망 직업 정보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인(27.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에 관한 정보는 주부(7.9%)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취업 정보는 은퇴자(25.6%)와 실업자(21.4%)가 높았으며, 산업 및 경제 정보는 은퇴자(5.1%)와 직업인(4.0%)에게서,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는 주부(7.6%)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 정보는 은퇴자(10.3%)와 실업자(9.5%)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Ⅳ-20> 사회 집단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진학· 유학 정보	빈도	85	3	20	135	2	245
	%	5.3%	7.1%	4.8%	32.5%	5.1%	9.8%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빈도	437	11	91	71	4	614
	%	27.4%	26.2%	21.7%	17.1%	10.3%	24.5%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빈도	516	14	139	152	13	834
	%	32.4%	33.3%	33.1%	36.6%	33.3%	33.2%
자격증에 관한 정보	빈도	104	1	33	23	2	163
	%	6.5%	2.4%	7.9%	5.5%	5.1%	6.5%
취업정보	빈도	146	9	49	21	10	235
	%	9.2%	21.4%	11.7%	5.1%	25.6%	9.4%
산업 및 경제 정보	빈도	63		8	5	2	78
	%	4.0%		1.9%	1.2%	5.1%	3.1%
직업 훈련원· 학원에 대한 정보	빈도	68		32	6	2	108
	%	4.3%		7.6%	1.4%	5.1%	4.3%
창업정보	빈도	135	4	31	1	4	175
	%	8.5%	9.5%	7.4%	.2%	10.3%	7.0%
기타	빈도	24		6	1		31
	%	1.5%		1.4%	.2%		1.2%
없음	빈도	15		11			26
	%	.9%		2.6%			1.0%
전체	빈도	1593	42	420	415	39	2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403.471, P=.000

5) 직업별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종사자(40.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망직업 정보와 진학·유학 정보는 고위 임직원/ 관리자(36.6%, 9.8%)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격증 정보는 전체적으로 10%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기술공 및 준 전문가(9.7%)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정보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25.4%)에게서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산업 및 경제 정보는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20.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림 어업직이 산업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에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으며, 창업정보는 판매 종사자(12.5%)와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12.2%)에게서 높게 나타나 판매 종사자와 고위 임직원 및관리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IV-21> **직업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

		직업별										전체
		고위임 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진학·유학 정보	빈도	4	8	9	21	13	10	2	8	7	3	85
	%	9.8%	7.1%	4.9%	7.4%	5.4%	3.3%	5.0%	8.5%	3.9%	2.6%	5.3%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빈도	15	22	50	90	64	91	6	20	50	29	437
	%	36.6%	19.6%	27.0%	31.7%	26.7%	29.9%	15.0%	21.3%	27.9%	25.4%	27.4%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빈도	10	42	59	94	96	98	8	26	62	21	516
	%	24.4%	37.5%	31.9%	33.1%	40.0%	32.2%	20.0%	27.7%	34.6%	18.4%	32.4%
자격증에 관한 정보	빈도	3	7	18	22	15	10	1	8	13	7	104
	%	7.3%	6.3%	9.7%	7.7%	6.3%	3.3%	2.5%	8.5%	7.3%	6.1%	6.5%
취업정보	빈도	3	6	11	32	13	24		8	20	29	146
	%	7.3%	5.4%	5.9%	11.3%	5.4%	7.9%		8.5%	11.2%	25.4%	9.2%
산업 및 경제 정보	빈도	1	9	7	7	8	8	8	10	3	2	63
	%	2.4%	8.0%	3.8%	2.5%	3.3%	2.6%	20.0%	10.6%	1.7%	1.8%	4.0%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	빈도		4	10	6	8	18	4	6	5	7	68
	%		3.6%	5.4%	2.1%	3.3%	5.9%	10.0%	6.4%	2.8%	6.1%	4.3%
창업정보	빈도	5	11	19	11	18	38	1	6	15	11	135
	%	12.2%	9.8%	10.3%	3.9%	7.5%	12.5%	2.5%	6.4%	8.4%	9.6%	8.5%
기타	빈도		1	2	1	3	4	8	1	1	3	24
	%		.9%	1.1%	.4%	1.3%	1.3%	20.0%	1.1%	.6%	2.6%	1.5%
없음	빈도		2			2	3	2	1	3	2	15
	%		1.8%			.8%	1.0%	5.0%	1.1%	1.7%	1.8%	.9%
전체	빈도	41	112	185	284	240	304	40	94	179	114	159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84.930, P=.000

6) 고용 형태별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임시 근로자(52.2%)**에게서 가장 높은 반면, 무급 가족 종사자**

(17.4%)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나 임시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 파악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유망 직업 정보는 무급 가족 종사자(30.4%)와 자영업자(30.2%)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취업 정보는 일용 근로자(23.1%)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학・유학 정보와 자격증 정보는 전체적으로 10%미만의 낮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산업 및 경제 정보는 무급 가족 종사자(8.7%)에게서, 직업훈련원・학원 정보는 무급 가족 종사자(10.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2> 고용 형태별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 정보(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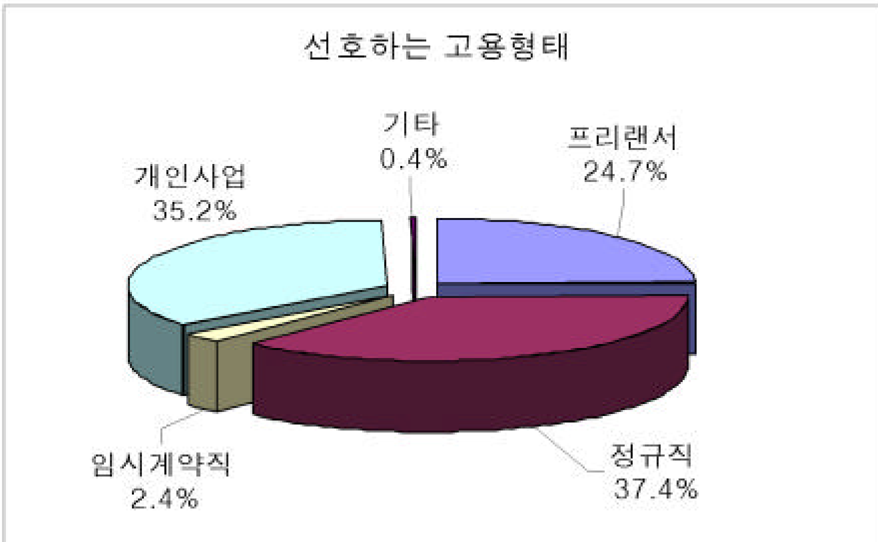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진학 · 유학 정보	빈도	60	7	1	1	13	3	85
	%	6.0%	10.1%	7.7%	1.6%	3.2%	6.5%	5.3%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빈도	276	8	1	16	122	14	437
	%	27.6%	11.6%	7.7%	26.2%	30.2%	30.4%	27.4%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빈도	342	36	4	20	106	8	516
	%	34.2%	52.2%	30.8%	32.8%	26.2%	17.4%	32.4%
자격증에 관한 정보	빈도	76	5	1	3	17	2	104
	%	7.6%	7.2%	7.7%	4.9%	4.2%	4.3%	6.5%
취업정보	빈도	101	8	3	2	25	7	146
	%	10.1%	11.6%	23.1%	3.3%	6.2%	15.2%	9.2%
산업 및 경제 정보	빈도	32			3	24	4	63
	%	3.2%			4.9%	5.9%	8.7%	4.0%
직업 훈련원 · 학원에 대한 정보	빈도	36	3	1	3	20	5	68
	%	3.6%	4.3%	7.7%	4.9%	5.0%	10.9%	4.3%
창업정보	빈도	68	1	1	12	52	1	135
	%	6.8%	1.4%	7.7%	19.7%	12.9%	2.2%	8.5%
기타	빈도	4	1	1		17	1	24
	%	.4%	1.4%	7.7%		4.2%	2.2%	1.5%
없음	빈도	5			1	8	1	15
	%	.5%			1.6%	2.0%	2.2%	.9%
전체	빈도	1000	69	13	61	404	46	159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40.116, P=.000

마.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

전체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는 정규직(37.4%), 개인사(35.2%)업,프리랜서(2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Ⅳ-3] 선호하는 고용 형태

1) 성별

남자의 경우 개인 사업(41.8%)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직(35.8%), 프리랜서(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정규직(39.1%)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프리랜서(28.4%)와 개인 사업(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성별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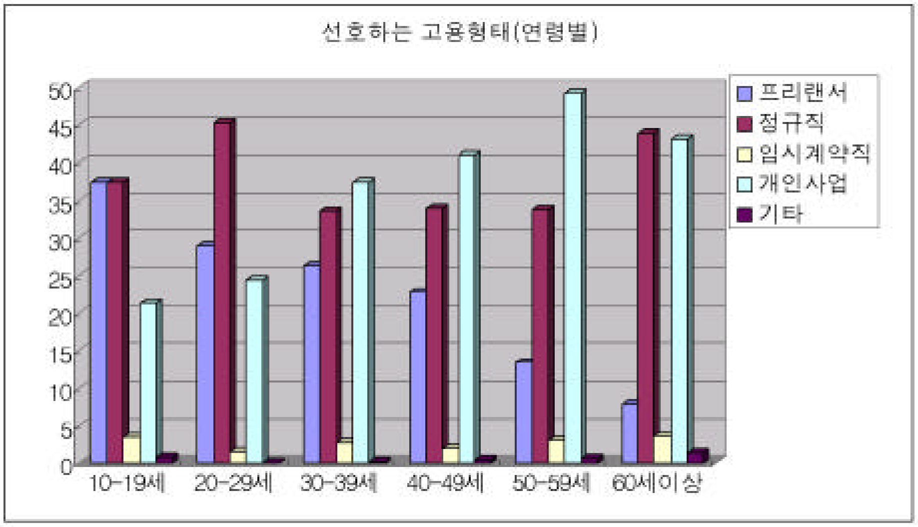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프리랜서	빈도	269	351	620
	%	21.1%	28.4%	24.7%
정규직	빈도	457	484	941
	%	35.8%	39.1%	37.4%
임시 계약직	빈도	14	46	60
	%	1.1%	3.7%	2.4%
개인사업	빈도	534	350	884
	%	41.8%	28.3%	35.2%
기타	빈도	2	7	9
	%	.2%	.6%	.4%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χ^2=69.024, P=.000

2) 연령별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고용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10대는 프리랜서(37.3%)와 정규직(37.3%)을 가장 선호하고, 20대는 정규직(45.2%)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는 개인 사업(37.4%)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33.6%), 프리랜서(26.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는 30대와 같은 순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사업(41.0%, 49.2%)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의 경우는 정규직(43.9%)과 개인사업(43.%)을 많이 선호하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프리랜서가 10대에게서 가장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은 20대에게서 가장 높았으며, 임시 계약직은 10대와 60대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개인 사업은 6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4] 선호하는 고용 형태(연령별)

<표 Ⅳ-24> 연령별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프리랜서	빈도	100	173	173	120	43	11	620
	%	37.3%	29.0%	26.3%	22.7%	13.3%	7.9%	24.7%
정규직	빈도	100	270	221	180	109	61	941
	%	37.3%	45.2%	33.6%	34.0%	33.7%	43.9%	37.4%
임시 계약직	빈도	9	9	17	10	10	5	60
	%	3.4%	1.5%	2.6%	1.9%	3.1%	3.6%	2.4%
개인사업	빈도	57	145	246	217	159	60	884
	%	21.3%	24.3%	37.4%	41.0%	49.2%	43.2%	35.2%
기타	빈도	2		1	2	2	2	9
	%	.7%		.2%	.4%	.6%	1.4%	.4%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48.740, P=.000

3) 학력별

학생의 경우 중학생(37.3%)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40%대)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프리랜서(30%대), 개인 사업(10-20%대) 순으로 선호하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프리랜서는 대학원졸 이상(42.0%)과 대학생(38.1%)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은 전문대생(45.8%)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임시계약직 등 고용 형태의 변화와 고용 불안 속에서 안정된 정규직을 대부분이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임시 계약직은 전체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학력이 낮은 종졸 이하(5.9%)와 중학생(5.9%)에게서 다른 학력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개인 사업은 중졸 이하(48.0%)에게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표 Ⅳ-25> 학력별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프리 랜서	빈도	26	201	70	140	21	18	46	15	83	620
	%	8.1%	20.5%	29.2%	29.5%	42.0%	35.3%	35.7%	31.3%	38.1%	24.7%
정규직	빈도	118	349	77	190	21	19	53	22	92	941
	%	36.8%	35.5%	32.1%	40.0%	42.0%	37.3%	41.1%	45.8%	42.2%	37.4%
임시 계약직	빈도	19	18	5	5		3	3	2	5	60
	%	5.9%	1.8%	2.1%	1.1%		5.9%	2.3%	4.2%	2.3%	2.4%
개인 사업	빈도	154	413	87	139	8	11	26	9	37	884
	%	48.0%	42.1%	36.3%	29.3%	16.0%	21.6%	20.2%	18.8%	17.0%	35.2%
기타	빈도	4	1	1	1			1		1	9
	%	1.2%	.1%	.4%	.2%			.8%		.5%	.4%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97.195, P=.000

4) 사회 집단별

직업인과 실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 프리랜서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와 은퇴자는 정규직을 더 선호하였고 그 다

음 개인사업, 프리랜서순이었다. 학생은 정규직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는 프리랜서는 학생(36.6%)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은 은퇴자(48.7%)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전반적으로 30%대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시 계약직은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주부(6.2%)에게서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인 사업은 직업인과 실업자에게서 40%대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Ⅳ-26> 사회 집단별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프리랜서	빈도	345	8	110	152	5	620
	%	21.6%	19.0%	26.2%	36.6%	12.8%	24.7%
정규직	빈도	571	16	161	174	19	941
	%	35.7%	38.1%	38.3%	41.9%	48.7%	37.4%
임시 계약직	빈도	20	1	26	13		60
	%	1.3%	2.4%	6.2%	3.1%		2.4%
개인사업	빈도	659	17	119	74	15	884
	%	41.2%	40.5%	28.3%	17.8%	38.5%	35.2%
기타	빈도	3		4	2		9
	%	.2%		1.0%	.5%		.4%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38.409, P=.000

5) 직업별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고용 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프리랜서는 전문가(34.5%)와 사무 종사자(30.3%)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은 전문가(51.3%)와 사무 종사자(47.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시계약직은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단순 노무직 종사자(5.3%)에게서 다른 직업에서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개인 사업은 판매 종사자(60.5%)와 기능인(54.7%), 그리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2.5%)에게서 높게 나타나, 자신의 직

업의 고용 특성과 관련 있는 고용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7> 직업별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

		직업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종사자	
프리랜서	빈도	10	39	46	86	47	60	4	19	24	10	345
	%	24.4%	34.5%	24.6%	30.3%	19.5%	19.7%	10.0%	20.0%	13.4%	8.8%	21.6%
정규직	빈도	14	58	67	134	77	60	15	22	73	51	571
	%	34.1%	51.3%	35.8%	47.2%	32.0%	19.7%	37.5%	23.2%	40.8%	44.7%	35.7%
임시계약직	빈도		1	3	3	4			2	1	6	20
	%		.9%	1.6%	1.1%	1.7%			2.1%	.6%	5.3%	1.3%
개인사업	빈도	17	15	68	61	113	184	21	52	81	47	659
	%	41.5%	13.3%	36.4%	21.5%	46.9%	60.5%	52.5%	54.7%	45.3%	41.2%	41.2%
기타	빈도			3								3
	%			1.6%								.2%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15.264, P=.000

바. 학교 재학중 일의 경험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학교 재학 중 전반적으로 일 경험(21.5%)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정규직 직장 경험

가) 성별

남녀의 학교 재학 중 정규직 직장 경험은 남자 21.8%, 여자 21.2%으로 대부분이 높지 않으며,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성별 학교 재학중 일의 경험 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있다	빈도	278	262	540
	%	21.8%	21.2%	21.5%
없다	빈도	997	972	1969
	%	78.2%	78.8%	78.5%
전체	빈도	1275	1234	2509
	%	100.0%	100.0%	100.0%

x^2=.122, P=.727

나)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정규직 직장 경험이 높지 않은 가운데 20대가 28.3%로 다른 연령대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대(26.9%), 40대(21.6%) 순으로 나타났다. 50대(16.4%)와 60대(9.4%)의 정규직 직장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연령별 학교 재학중 일의 경험 유무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있다	빈도	15	169	176	114	53	13	540
	%	5.6%	28.3%	26.9%	21.6%	16.4%	9.4%	21.5%
없다	빈도	253	428	478	414	270	126	1969
	%	94.4%	71.7%	73.1%	78.4%	83.6%	90.6%	78.5%
전체	빈도	268	597	654	528	323	139	2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84.953, P=.000

다) 학력별

학력별로 정규직 직장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문대졸(3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생(27.1%), 대졸자(25.6%), 고졸(25.3%), 대학원졸 이상(24.0%), 대학생(12.4%), 중졸 이하(10.3%), 고교생(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생에게서 직장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문 대학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며, 재학 시절, 직장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Ⅳ-30> 학력별 학교 재학중 일의 경험 유무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있다	빈도	33	248	83	121	12		3	13	27	540
	%	10.3%	25.3%	34.7%	25.6%	24.0%		2.3%	27.1%	12.4%	21.5%
없다	빈도	288	732	156	352	38	51	126	35	191	1969
	%	89.7%	74.7%	65.3%	74.4%	76.0%	100.0%	97.7%	72.9%	87.6%	78.5%
전체	빈도	321	980	239	473	50	51	129	48	218	2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15.584, P=.000

라) 사회 집단별

정규직 직장 경험이 있는 비율은 실업자(26.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업인(25.4%), 주부(21.1%), 은퇴자(17.9%), 학생(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 사회 집단별 학교 재학중 일의 경험 유무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있다	빈도	405	11	88	29	7	540
	%	25.4%	26.2%	21.1%	7.0%	17.9%	21.5%
없다	빈도	1190	31	330	386	32	1969
	%	74.6%	73.8%	78.9%	93.0%	82.1%	78.5%
전체	빈도	1595	42	418	415	39	2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6.935, P=.000

2)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가) 성별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남자의 경우 14.8%, 여자의 경우 13.2%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며 남녀간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성별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있다	빈도	189	163	352
	%	14.8%	13.2%	14.0%
없다	빈도	1086	1068	2154
	%	85.2%	86.8%	86.0%
전체	빈도	1275	1231	2506
	%	100.0%	100.0%	100.0%

x^2=1.299, P=.254

나) 연령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20대(21.1%)가 가장 경험이 많고, 그 다음 30대(17.2%), 40대(12.9%), 10대(8.2%), 50대(5.6%), 60대(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연령별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있다	빈도	22	126	112	68	18	6	352
	%	8.2%	21.1%	17.2%	12.9%	5.6%	4.3%	14.0%
없다	빈도	246	470	540	460	305	133	2154
	%	91.8%	78.9%	82.8%	87.1%	94.4%	95.7%	86.0%
전체	빈도	268	596	652	528	323	139	25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8.412, P=.000

다) 학력별

학력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대학원졸 이상에게서 절반(56.0%)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대졸(33.6%), 대학생(30.3%), 전문대졸(16.4%), 전문대생(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과외 지도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의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사회 집단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회 집단별로 학생(17.3%)이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 직업인(15.1%), 주부(8.4%), 실업자(7.1%), 은퇴자(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사회 집단별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있다	빈도	240	3	35	72	2	352
	%	15.1%	7.1%	8.4%	17.3%	5.1%	14.0%
없다	빈도	1354	39	381	343	37	2154
	%	84.9%	92.9%	91.6%	82.7%	94.9%	86.0%
전체	빈도	1594	42	416	415	39	25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0.257, P=.000

마) 직업별

직업별로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문가가 4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술공 및 준 전문가(24.6%), 사무 종사자(19.4%), 고위임직원/관리자(17.1%), 서비스종사자(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직업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직업별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직 업 별										전체
		고위임 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 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있다	빈도	7	50	46	55	29	26	3	7	11	6	240
	%	17.1%	44.2%	24.6%	19.4%	12.1%	8.6%	7.5%	7.4%	6.2%	5.3%	15.1%
없다	빈도	34	63	141	228	211	277	37	88	167	108	1354
	%	82.9%	55.8%	75.4%	80.6%	87.9%	91.4%	92.5%	92.6%	93.8%	94.7%	84.9%
전체	빈도	41	113	187	283	240	303	40	95	178	114	15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30.260, P=.000

3)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사회 집단별, 직업별, 고용 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 성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남자 36.0%, 여자 27.5%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성별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있다	빈도	459	338	797
	%	36.0%	27.5%	31.8%
없다	빈도	816	893	1709
	%	64.0%	72.5%	68.2%
전체	빈도	1275	1231	2506
	%	100.0%	100.0%	100.0%

x^2=21.073, P=.000

나) 연령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20대(52.9%)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36.9%), 10대(30.6%), 40대(21.6%), 50대(11.5%), 60대(5.8%)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를 학교 재학중에 많이 하고 있었으며, 과거보다 점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37> 연령별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있다	빈도	82	316	240	114	37	8	797
	%	30.6%	52.9%	36.9%	21.6%	11.5%	5.8%	31.8%
없다	빈도	186	281	411	414	286	131	1709
	%	69.4%	47.1%	63.1%	78.4%	88.5%	94.2%	68.2%
전체	빈도	268	597	651	528	323	139	25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61.281, P=.000

다) 학력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6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생(56.3%)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49.6%), 대졸(49.5%), 대학원졸 이상(4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고졸(21.3%)과 고등 학생(27.9%), 중학생(11.8%), 중졸이하(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8> 학력별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학력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중학교재학중	고등학교재학중	전문대재학중	대학교재학중	
있다	빈도	12	209	118	233	24	6	36	27	132	797
	%	3.7%	21.3%	49.6%	49.5%	48.0%	11.8%	27.9%	56.3%	60.6%	31.8%
없다	빈도	309	771	120	238	26	45	93	21	86	1709
	%	96.3%	78.7%	50.4%	50.5%	52.0%	88.2%	72.1%	43.8%	39.4%	68.2%
전체	빈도	321	980	238	471	50	51	129	48	218	25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81.299, P=.000

라) 사회 집단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생(45.1%)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실업자(42.9%), 직업인(32.4%), 주부(16.8%), 은퇴자(1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 집단별로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Ⅳ-39> 사회 집단별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있다	빈도	516	18	70	187	6	797
	%	32.4%	42.9%	16.8%	45.1%	15.4%	31.8%
없다	빈도	1078	24	346	228	33	1709
	%	67.6%	57.1%	83.2%	54.9%	84.6%	68.2%
전체	빈도	1594	42	416	415	39	25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84.098, P=.000

마) 직업별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고위 임직원/관리자(53.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50.4%), 사무 및 종사자(40.6%), 기술공 및 준전문가(33.9%), 서비스 종사자(31.5%), 판매종사자(28.4%), 기계조작 및 조립원(27.0%), 기능인(24.2%), 단순 노무직 종사자

(19.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직업별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있다	빈도	22	57	63	115	76	86	4	23	48	22	516
	%	53.7%	50.4%	33.9%	40.6%	31.5%	28.4%	10.0%	24.2%	27.0%	19.3%	32.4%
없다	빈도	19	56	123	168	165	217	36	72	130	92	1078
	%	46.3%	49.6%	66.1%	59.4%	68.5%	71.6%	90.0%	75.8%	73.0%	80.7%	67.6%
전체	빈도	41	113	186	283	241	303	40	95	178	114	15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59.951, P=.000

바)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로 학교 재학중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임시 근로자(4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용 근로자**(36.4%), **고용주**(27.9%), **자영업자**(22.3%), **무급 가족 종사자**(17.4%), **일용 근로자**(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1> 고용 형태별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있다	빈도	365	34	2	17	90	8	516
	%	36.4%	49.3%	15.4%	27.9%	22.3%	17.4%	32.4%
없다	빈도	637	35	11	44	313	38	1078
	%	63.6%	50.7%	84.6%	72.1%	77.7%	82.6%	67.6%
전체	빈도	1002	69	13	61	403	46	15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42.080, P=.000

4) 현장 실습(교생 실습)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9.4%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고용 형태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 성별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은 남자 22.0%, 여자 16.8%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Ⅳ-42> 성별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 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있다	빈도	280	207	487
	%	22.0%	16.8%	19.4%
없다	빈도	995	1022	2017
	%	78.0%	83.2%	80.6%
전체	빈도	1275	1229	2504
	%	100.0%	100.0%	100.0%

x^2=10.462, P=.001

나) 연령별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은 30대(25.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대(24.2%), 40대(19.2%), 50대(15.8%), 60대(7.9%), 10대(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3> **연령별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 유무**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있다	빈도	17	144	163	101	51	11	487
	%	6.3%	24.2%	25.0%	19.2%	15.8%	7.9%	19.4%
없다	빈도	251	452	488	426	272	128	2017
	%	93.7%	75.8%	75.0%	80.8%	84.2%	92.1%	80.6%
전체	빈도	268	596	651	527	323	139	250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5.406, P=.000

다) 학력별

학력별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은 대학원졸 이상**(4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35.1%), **대졸**(29.3%), **전문대생**(20.8%), **고졸**(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학력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통 현장 실습**(교생 실습)**은 주로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대학원졸 이상, 전문대졸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4> **학력별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 유무**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있다	빈도	18	182	84	138	24		10	10	21	487
	%	5.6%	18.6%	35.1%	29.3%	48.0%		7.8%	20.8%	9.6%	19.4%
없다	빈도	302	796	155	333	26	51	119	38	197	2017
	%	94.4%	81.4%	64.9%	70.7%	52.0%	100.0%	92.2%	79.2%	90.4%	80.6%
전체	빈도	320	978	239	471	50	51	129	48	218	250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69.301, P=.000

라) 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은 은퇴자**(25.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업인**(24.1%), **실업자**(16.7%), **주부**(12.7%), **학생**(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5> 사회 집단별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 유무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있다	빈도	383	7	53	34	10	487
	%	24.1%	16.7%	12.7%	8.2%	25.6%	19.4%
없다	빈도	1209	35	363	381	29	2017
	%	75.9%	83.3%	87.3%	91.8%	74.4%	80.6%
전체	빈도	1592	42	416	415	39	250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68.261, P=.000

마) 직업별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은 전문가(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전문가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기능인(32.6%), 기술공 및 준전문가(29.6%), 고위임직원/ 관리자(26.8%), 사무 종사자(25.1%)와 기계조작 및 조립원(25.1%), 서비스 종사자(20.8%), 판매 종사자(1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2.5%), 단순 노무직 종사자(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6> 직업별 현장 실습(교생 실습) 경험 유무

		직 업 별										전체
		고위임 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있다	빈도	11	45	55	71	50	56	5	31	45	14	383
	%	26.8%	39.8%	29.6%	25.1%	20.8%	18.6%	12.5%	32.6%	25.1%	12.3%	24.1%
없다	빈도	30	68	131	212	190	245	35	64	134	100	1209
	%	73.2%	60.2%	70.4%	74.9%	79.2%	81.4%	87.5%	67.4%	74.9%	87.7%	75.9%
전체	빈도	41	113	186	283	240	301	40	95	179	114	159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40.583, P=.000

5) 보수 없는 직업 체험

학교 재학중 보수 없는 직업 체험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7.7%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성별, 사회 집단별, 직업별, 고용 형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 성별

학교 재학중 보수 없는 직업 체험 경험은 남자 18.6%, 여자 16.7% 으로 남녀에 차이가 없었다.

<표 Ⅳ-47> 성별 보수 없는 직업 체험 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있다	빈도	237	205	442
	%	18.6%	16.7%	17.7%
없다	빈도	1037	1024	2061
	%	81.4%	83.3%	82.3%
전체	빈도	1274	1229	2503
	%	100.0%	100.0%	100.0%

x^2=1.590, P=.207

나) 연령별

학교 재학중 보수 없는 직업 체험 경험은 20대(22.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19.9%), 30대(18.2%), 10대(13.4%), 50대(12.1%), 60대(6.5%)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보수 없는 직업 체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보다 최근에 학교 재학중 보수 없는 직업 체험에 점차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Ⅳ-48> 연령별 보수 없는 직업 체험 유무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있다	빈도	36	135	118	105	39	9	442
	%	13.4%	22.6%	18.2%	19.9%	12.1%	6.5%	17.7%
없다	빈도	232	462	531	423	283	130	2061
	%	86.6%	77.4%	81.8%	80.1%	87.9%	93.5%	82.3%
전체	빈도	268	597	649	528	322	139	25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4.064, P=.000

다) 학력별

학력별 학교 재학중 보수 없는 직업 체험 경험은 대학원졸 이상(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23.4%)과 대졸(23.2%), 대학생(21.1%), 전문대생(16.7%)과 고졸(16.4%), 고교생(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학력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에게서 학교 재학중 보수 없는 직업 체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학력집단보다 학업의 연장으로 학교 재학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직업 체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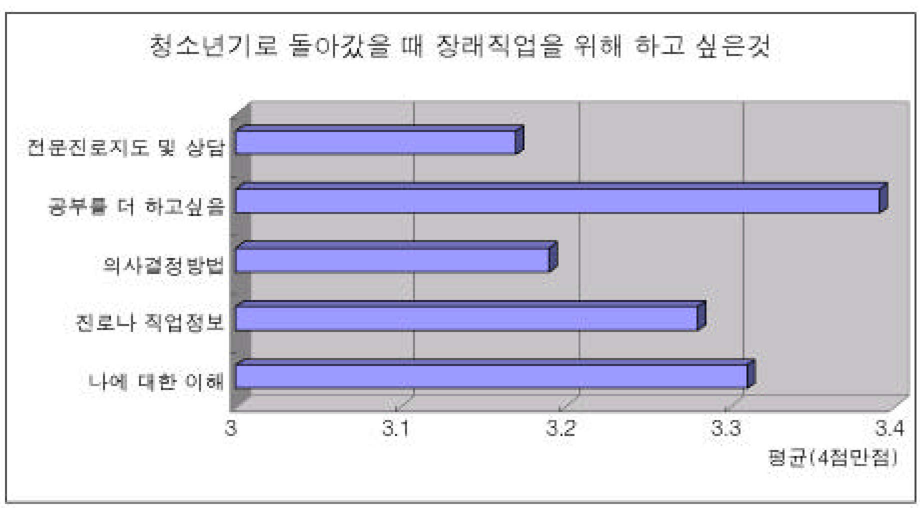
<표 Ⅳ-49> 학력별 보수 없는 직업 체험 유무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있다	빈도	23	160	56	109	19	4	17	8	46	442
	%	7.2%	16.4%	23.4%	23.2%	38.0%	7.8%	13.2%	16.7%	21.1%	17.7%
없다	빈도	298	818	183	360	31	47	112	40	172	2061
	%	92.8%	83.6%	76.6%	76.8%	62.0%	92.2%	86.8%	83.3%	78.9%	82.3%
전체	빈도	321	978	239	469	50	51	129	48	218	25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2.169, P=.000

바.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3.39),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3.31),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3.28), '진로/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방법을 기르고 싶음'(3.19),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3.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사회 집단별, 직업별, 고용 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Ⅳ-5]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1) 성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에서 여자(3.45)가 남자(3.32)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에서도 여자(3.22)가 남자(3.12)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내용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Ⅳ-50> 성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성 별						F (N=2099)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3.29	.58	3.33	.58	3.31	.58	1.639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3.27	.59	3.30	.58	3.28	.59	1.354
진로/직업에 대한 의사결정방법을 기르고 싶음	3.16	.63	3.21	.61	3.19	.62	3.538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3.32	.72	3.45	.64	3.39	.68	17.944***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3.12	.65	3.22	.67	3.17	.66	12.332***

*p<.05, **p<.01, ***p<.001

2) 연령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으로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진로/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등 대부분의 내용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 30대, 40대, 10대, 50대, 60대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에서는 40대(3.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3.39), 50대(3.37), 20대(3.33), 60대(3.32), 10대(3.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Ⅳ-51> 연령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연 령 별														F (N=2099)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29	.69	3.39	.58	3.33	.58	3.31	.56	3.25	.59	3.09	.56	3.31	.58	6.484***
2)	3.25	.61	3.35	.56	3.31	.57	3.30	.59	3.21	.59	3.04	.64	3.28	.59	7.536***
3)	3.21	.78	3.27	.62	3.19	.61	3.22	.62	3.10	.62	3.00	.61	3.19	.62	5.689***
4)	3.17	.87	3.33	.72	3.39	.68	3.47	.63	3.37	.67	3.32	.77	3.39	.68	2.846*
5)	3.12	.61	3.22	.67	3.20	.67	3.20	.65	3.09	.63	2.99	.68	3.17	.66	4.182**

*p<.05, **p<.01, ***p<.001

1)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3) 진로/ 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5)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3) 학력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으로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은 대학생(3.38)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은 전문대졸(3.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졸(3.31), 대졸(3.30), 대학생(3.24), 대학원졸 이상(3.23), 전문대생(3.20), 중졸 이하(3.14)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은 전문대생(3.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3.28), 고졸(3.22), 대졸(3.20), 대학생(3,19), 대학원졸 이상(3.04), 중졸 이하(3.03)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문대졸(3.4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졸(3.42), 전문대생(3.40), 고졸(3.38), 중졸 이하(3.34), 대학원졸 이상(3.29), 대학생(3.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음'의 경우, 전문대생(3.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3.25), 대학생(3.24), 고졸(3.19), 대

졸(3.18), 대학원졸 이상(3.12), 중졸 이하(3.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학력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학 력 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16	.62	3.31	.56	3.37	.58	3.37	.58	3.37	.61
2)	3.14	.64	3.31	.57	3.33	.59	3.30	.57	3.23	.63
3)	3.03	.70	3.22	.60	3.28	.60	3.20	.59	3.04	.80
4)	3.34	.75	3.38	.67	3.45	.69	3.42	.65	3.29	.77
5)	3.05	.72	3.19	.65	3.25	.67	3.18	.65	3.12	.64

	학 력 별						F (N=2099)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10	.57	3.38	.50	3.31	.58	6.484***
2)	3.20	.63	3.24	.44	3.28	.59	7.536***
3)	3.30	.67	3.19	.51	3.19	.62	5.689***
4)	3.40	.52	3.10	.77	3.39	.68	2.846*
5)	3.30	.67	3.24	.62	3.17	.66	4.182**

*p<.05, **p<.01, ***p<.001

1)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3) 진로/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5)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음

4) 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로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주부(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인(3.37), 실업자(3.33)와 은퇴자(3.33)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53> 사회 집단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사 회 집 단 별										F (N=2099)
	직업인		실업자		주부		은퇴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31	.58	3.17	.70	3.32	.55	3.13	.66	3.31	.58	2.224
2)	3.28	.59	3.36	.53	3.29	.55	3.23	.67	3.28	.59	.378
3)	3.19	.63	3.17	.58	3.19	.59	3.10	.68	3.19	.62	.297
4)	3.37	.70	3.33	.69	3.48	.61	3.33	.87	3.39	.68	3.250*
5)	3.16	.67	3.17	.62	3.22	.64	3.05	.65	3.17	.66	1.165

*p<.05, **p<.01, ***p<.001

1)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3) 진로/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5)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5) 직업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진로/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세 가지에서 직업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기계 조작 및 조립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표 Ⅳ-54> 직업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직 업 별											
	고위임직원 /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32	.57	3.38	.54	3.30	.58	3.35	.55	3.34	.61	3.31	.67
2)	3.22	.52	3.33	.60	3.28	.55	3.32	.57	3.38	.59	3.20	.70
3)	3.20	.68	3.14	.64	3.24	.54	3.26	.72	3.26	.59	3.18	.72
4)	3.44	.71	3.35	.64	3.40	.66	3.38	.67	3.42	.69	3.37	.76
5)	3.02	.61	3.14	.67	3.15	.60	3.18	.68	3.27	.65	3.18	.76

	직 업 별										F (N=15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05	.68	3.27	.61	3.44	.80	3.28	.83	3.33	.65	1.880
2)	2.85	.70	3.33	.55	3.38	.84	3.27	.81	3.29	.66	4.541***
3)	2.90	.63	3.13	.73	3.28	.87	3.17	.87	3.21	.71	2.036*
4)	3.25	.81	3.27	.78	3.44	.89	3.32	.97	3.38	.75	.853
5)	2.83	.71	3.11	.78	3.23	.87	3.21	.91	3.18	.73	2.190*

*p<.05, **p<.01, ***p<.001

1)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3) 진로/ 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5)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음

6) 고용 형태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에서 고용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다. 하나는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으로 상용 근로자(3.31)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음'으로 임시 근로자(3.25)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Ⅳ-55> **고용 형태별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

	고 용 형 태 별														F (N=1598)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33	.56	3.38	.67	3.15	.69	3.26	.54	3.28	.62	3.20	.58	3.31	.58	1.366
2)	3.31	.56	3.26	.75	3.31	.48	3.31	.53	3.20	.64	3.13	.65	3.28	.59	2.757*
3)	3.21	.62	3.24	.74	3.23	.73	3.18	.59	3.16	.64	3.04	.59	3.19	.63	.925
4)	3.39	.67	3.37	.75	3.15	.80	3.28	.69	3.33	.73	3.39	.80	3.37	.70	.827
5)	3.20	.66	3.25	.70	3.15	.69	2.90	.68	3.13	.69	2.98	.68	3.16	.67	3.483**

*p<.05, **p<.01, ***p<.001

1)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음
3) 진로/ 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을 기르고 싶음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5)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음

2. 취업

가. 부모와 본인의 이상적인 직업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바라는 직업으로는 교사(25.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경찰, 장관)(20.5%)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의사(7.2%), 회사원(6.1%), 간호사(4.1%), 주부(3.5%), 법조인(3.4%), 교수(2.7%), 금융관련직(은행원, 금융업)(2.3%), 직업군인(여군)(2.1%), 기업가 및 기술자(1.9%), 디자이너(1.0%), 농림어업인(1.0%), 상업인(자영업, 유통업)(1.0%), 정치인(0.9%), 약사(0.8%), 미용사(0.8%), 직업운동선수(0.8%), 성직자(0.5%), 기타(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56> 참조).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역시 교사(16.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경찰, 장관)(15.0%), 상업인(자영업, 유통업)(12.5%), 기업가(7.6%), 의사(5.4%), 교수(2.7%), 회사원(2.6%), 디자이너(2.2%), 법조인 및 기술자(2.0%), 프리랜서(1.8%), 전문직(1.6%), 간호사(1.4%), 컴퓨터프로그래머(1.3%), 주부(1.1%), 미용사 및 컴퓨터 관련 직업(1.1%), 서비스업 및 직업운동선수(1.0%), 회계사(0.6%), 기타(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로나 직업 선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바라는 직업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은 상위 두 개 직업, 즉 교사와 공무원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부모와 본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직업으로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의사, 회사원, 교수, 법조인, 간호사, 기술자, 기업가, 상업인(자영업, 유통업), 디자이너, 직업운동선수, 미용사, 주부 등 많은 직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바라는 직업이지만 본인이 이상적인 직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직업으로는 금융 관련원(은행원, 금융업), 직업 군인(여군), 농림 어업인, 정치인, 약사, 성직자 등이 있었으며, 본인이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되 부모가 바라는 직업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으로는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서비스

업, 회계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부모와 본인의 차이는 이상적인 직업을 바라보는 의식(관점)의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간의 직업의 수요와 공급,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직업 의식 1차 조사(98년)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는데, 1차 조사에서 부모가 바라는 직업은 교사(537명, 17.9%)와 공무원(537명, 17.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회사원(263명, 8.8%)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은 부모가 바라는 직업의 순위와 동일하게 교사(456명, 15.2%), 공무원(328명, 10.9%), 상업인/자영업(257명, 8.6%), 회사원(227명,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위 1, 2위 직업이 4년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양 조사에서 유사하게 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1차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차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동일하게 상위 20위 직업에 포함된 직업은 교사, 공무원, 상업인/자영업, 회사원, 기업가, 기술자, 의사, 간호사, 교수, 법조인 등 10개 직업이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위 20위 직업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은 예술가, 기능인/생산직, 농업인, 군인, 연예인, 약사, 금융 관련업, 방송인 등 10개 직업으로 절반이상의 직업이 바뀌었다.

<표 Ⅳ-56> 부모와 자신이 바라는 직업

순위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바라는 직업	명	비율(%)	순위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	명	비율(%)
1	교사[1]	637	25.3	1	교사[1]	406	16.1
2	공무원(경찰, 장관)	516	20.5	2	공무원(경찰, 장관)	378	15.0
3	의사[2]	180	7.2	3	상업인(자영업, 유통업)	315	12.5
4	회사원[3]	153	6.1	4	기업가[5]	192	7.6
5	간호사	104	4.1	5	의사[2]	137	5.4
6	주부	88	3.5	6	교수[4]	69	2.7
7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 법무사)	86	3.4	7	회사원[3]	66	2.6
8	교수[4]	67	2.7	8	디자이너[7]	55	2.2
9	금융관련원(은행원, 금융업)	57	2.3	9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 법무사)	50	2.0
10	직업군인(여군)	52	2.1		기술자[6]		
11	기업가[5]	49	1.9	11	프리랜서*	44	1.8
	기술자[6]			12	전문직*	39	1.6
13	디자이너[7]	26	1.0	13	간호사	35	1.4
14	농림어업인(농부, 축산업, 어부)	25	1.0	14	컴퓨터프로그래머	32	1.3
15	상업인(자영업, 유통업)	24	1.0	15	주부	28	1.1
16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	22	0.9	16	미용사 컴퓨터관련직업	27	1.1
17	약사	21	0.8	18	서비스업*	26	1.0
18	미용사	20	0.8		직업운동선수		
19	직업운동선수	19	0.8	20	회계사	16	0.6
20	성직자[8]	13	0.5				
21	기타[9]	306	12.2	21	기타[9]	496	19.7
	총 계	2514	100.0		총 계	2514	100.0

주)
1) 교사(중등학교교사, 초등 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2)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3) 회사원(경리, 사무직, 마케팅, 비서)
4) 교수(대학교수, 학자, 연구원, 과학자, 생명공학자, 생물학자, 사회학자, 화학자, 신학자)
5) 기업가(사업가, 무역업, 경영인, CEO, 교육사업가)
6) 기술자(건축설계사, 토목기술자, 엔지니어, 건축, 벤처사업가)
7) 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귀금속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섬유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캐릭터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8) 성직자(목사, 선교사, 종교인, 신부, 스님)
9) 기타 : 전문직, 예술가, 화가, 피아니스트, 연극배우, 연기자, 음악인, 외교관, 방송인, 신문기자, 사회사업가, 회계사, 통역사, 요리사, 관광가이드, 스튜어디스, 판매사, 서비스업, 자동차관련직종, 제조업, 호텔지배인, 강사, 의류관련직업, 항공기조종사, 기계정비, 안경사, 운전기사, 경호경비요원, 영상제작, 코디네이터, 일러스트레이터, 화장품관련업,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선장・기관장, 항공기정비사, 항해사, 전기관련직종, 제단사・미싱사, 운수업, 여행가, , 관세사, 노무사, 컨설턴트, 변리사, 바텐더, 호텔지배인, 상담원, 경호경비요원, 카피라이터, 환경미화원, 애니메이터, 미정, 모르겠음.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한 직업명을 그대로 제시함.

한편,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바라던 직업과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간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Ⅳ-57> 참조). 부모와 본인의 이상적인 직업 일치율은 교사(55.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간호사(45.7%), 공무원(43.9%), 회사원(39.4%), 주부(32.1%), 의사(29.2%), 법조인(22.0%), 교수(20.3%), 기업가(10.9%), 상업인(3.2%), 기타(1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57> 부모가 바라던 직업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간 일치정도

구분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바라던 직업			
	직업명	전체	일치율	
			명수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	교사	406	226	55.7
	공무원	378	166	43.9
	의사	137	40	29.2
	회사원	66	26	39.4
	기업가	192	21	10.9
	간호사	35	16	45.7
	교수	69	14	20.3
	법조인	50	11	22.0
	상업인	315	10	3.2
	주부	28	9	32.1
	기타	838	117	14.0
	총 계	2514	656	26.1

청소년 시기의 부모가 바라던 직업과 본인의 현재 직업간 일치정도를 살펴보았다(<표 Ⅳ-58> 참조). 그 결과 청소년시기의 부모가 바라던 직업과 본인의 현재 직업과 일치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교육계(4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료·법조계(정부)(32.4%), 의료계(24.3%), 농림어업계(13.6%), 기술계(전문가, 준전문가)(8.1%), 경영·사무계(사업)(5.4%), 미용·디자인·요리계(3.5%), 기능계(기능원)(1.1%), 전문 서비스계(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8> 부모가 바라던 직업과 본인의 현재 직업간의 일치정도

직 업 분 류	전 체	일치율	
		명수	%
관료.·법조계(정부)	102	33	32.4
경영·사무계(사업)	447	24	5.4
종교·봉사계	5	0	0
전문서비스계	368	3	0.8
언론·방송계	12	0	0
교육계	74	31	41.9
과학·연구계	10	0	0
미용·디자인·요리계	115	4	3.5
의료계	37	9	24.3
기술계(전문가·준전문가)	149	12	8.1
컴퓨터관련직업	25	0	0
기능계(기능원)	175	2	1.1
농림어업계	44	6	13.6
연예계	1	0	0
음악·미술계	6	0	0
스포츠계	3	0	0
기타	102	0	0
합 계	1675	145	8.7

나. 진로 도움의 필요성 여부

전체 응답자의 절반(53.8%)이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성 여부에 차이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문항은 NCDA 문항을 반영한 것으로 NCDA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중에서 9%만이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20-30대에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진로

도움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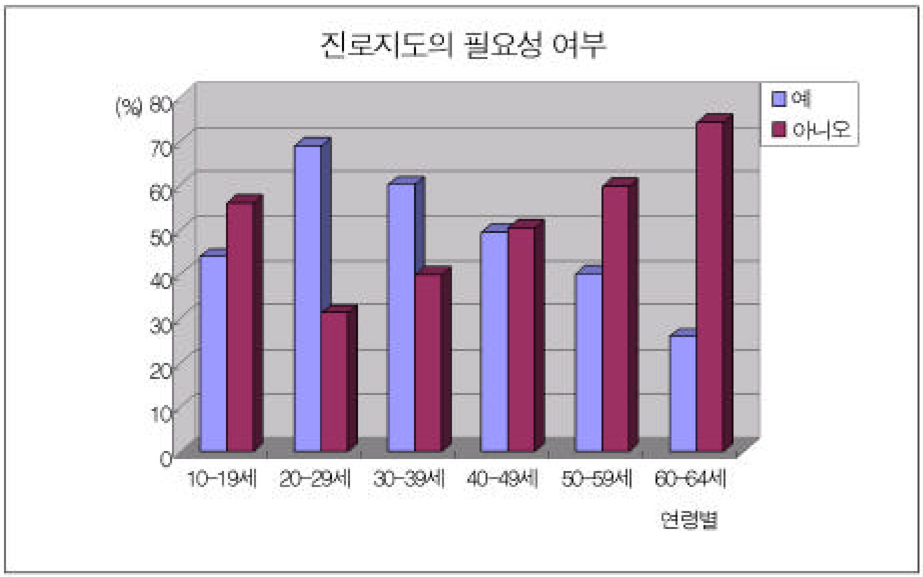
<표 Ⅳ-59> 미국 NCDA와 직업 의식조사(2002)의 진로 도움의 필요성 비교

	구 분		18~25세	26~40세	41~55세	56~65세	66세이상	전체
미국 NCDA 자료	예	빈도	16	9	7	3	0	72
		%	16%	9%	7%	3%	0%	9%
	아니오	빈도	84	91	93	97	100	726
		%	84%	91%	93%	97%	100%	91%
	전체	빈도	124	313	254	74	20	7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전체
2002 직업 의식 조사	예	빈도	118	411	396	262	130	36	1353
		%	44.0%	68.8%	60.2%	49.5%	40.2%	25.9%	53.8%
	아니오	빈도	150	186	262	267	193	103	1161
		%	56.0%	31.2%	39.8%	50.5%	59.8%	74.1%	46.2%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연령별

연령에 따라서 진로 도움의 필요성은 20대(68.8%)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60.2%), 40대(49.5%), 10대(44.0%), 50대(40.2%), 60대(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 진로 지도의 필요성 여부(연령별)

<표 Ⅳ-60> 연령별 진로 도움의 필요성 여부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예	빈도	118	411	396	262	130	36	1353
	%	44.0%	68.8%	60.2%	49.5%	40.2%	25.9%	53.8%
아니오	빈도	150	186	262	267	193	103	1161
	%	56.0%	31.2%	39.8%	50.5%	59.8%	74.1%	46.2%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46.731, P=.000

2) 학력별

학력에 따라 진로 도움의 필요성은 대학원졸 이상(68.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66.7%), 대졸(66.5%), 전문대생(62.5%), 대학생(60.6%), 고졸(53.3%), 고등학생(43.4%), 중학생(29.4%), 중졸 이하(27.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 도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Ⅳ-61> 학력별 진로 도움의 필요성 여부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예	빈도	87	523	160	316	34	15	56	30	132	1353
	%	27.1%	53.3%	66.7%	66.5%	68.0%	29.4%	43.4%	62.5%	60.6%	53.8%
아니오	빈도	234	459	80	159	16	36	73	18	86	1161
	%	72.9%	46.7%	33.3%	33.5%	32.0%	70.6%	56.6%	37.5%	39.4%	46.2%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66.429, P=.000

3) 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로 진로 도움의 필요성은 직업인(57.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실업자(54.8%), 학생(49.4%), 주부(43.8%), 은퇴자(4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들도 진로 도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2> 사회 집단별 진로 도움의 필요성 여부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예	빈도	924	23	184	205	17	1353
	%	57.8%	54.8%	43.8%	49.4%	43.6%	53.8%
아니오	빈도	674	19	236	210	22	1161
	%	42.2%	45.2%	56.2%	50.6%	56.4%	46.2%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2.156, P=.000

4) 직업별

직업별로 진로 도움의 필요성은 전문가(72.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65.9%), 사무 종사자(65.5%), 기술공 및 준전문가(60.4%), 기계 조작 및 조립원(60.3%), 서비스 종사자(59.8%), 기능인(57.9%), 단순 노무직 종사자(50.9%), 판매 종사자(47.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Ⅳ-63> 사회 집단별 진로 도움의 필요성 여부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	빈도	27	82	113	186	144	143	8	55	108	58	924
	%	65.9%	72.6%	60.4%	65.5%	59.8%	47.0%	20.0%	57.9%	60.3%	50.9%	57.8%
아니오	빈도	14	31	74	98	97	161	32	40	71	56	674
	%	34.1%	27.4%	39.6%	34.5%	40.2%	53.0%	80.0%	42.1%	39.7%	49.1%	42.2%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59.571, P=.000

5)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 진로 도움의 필요성은 불안전한 고용 형태에 있는 임시 근로자(71.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용 근로자(62.5%), 일용 근로자(61.5%), 고용주(55.7%), 자영업자(46.2%), 무급 가족 종사자(4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64> 고용 형태별 진로 도움의 필요성 여부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예	빈도	627	49	8	34	187	19	924
	%	62.5%	71.0%	61.5%	55.7%	46.2%	41.3%	57.8%
아니오	빈도	377	20	5	27	218	27	674
	%	37.5%	29.0%	38.5%	44.3%	53.8%	58.7%	42.2%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41.606, P=.000

다. 진로 도움을 받은 곳

1) 1순위

전체 응답자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은 곳(1순위)으로 친구, 이웃, 선・후배(4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친척(14.0%), 도움을 받지 않음(12.2%),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8.4%),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5.3%),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4.9%), 교사나 교수(2.8%)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질문은 NCDA 문항을 반영한 것으로 NCDA의 결과에서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친구・이웃・협회원으로부터 진로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척, 신문으로부터도 진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나라와 미국 NCDA 결과와의 차이점은 미국 사람들은 직장, 교육기관, 사설 기관 등의 진로 전문가 및 상담가로부터 진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로 전문가와 진로 상담가을 통해 진로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진로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진로 전문가 및 진로 상담가로부터의 체계적인 진로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Ⅳ-65> 미국 NCDA와 직업 의식조사(2002)의 진로 도움을 받은 곳

미국 NCDA			직업 의식 조사(2002)		
구 분	예 (%)	아니오 (%)	구 분	빈도 (명)	백분비
친구/ 이웃/ 협회원	32	29	친구/ 이웃/ 선후배	1090	43.4
친척	27	14	친척	352	14.0
고용 지역내 인적자원/ 경력개발 전문가	21	12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직장내 상담 전문가	58	2.3
사설 진로전문가 또는 상담가	13	12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30	1.2
학교, 대학, 교육훈련기관의 진로전문가, 상담가	16	14	교육기관의 상담 전문가	212	8.4
상담가외의 교육자	9	6	교사나 교수	70	2.8
지역사회, 회사, 또는 종교의 지도자	5	5	지역사회, 회사 또는 종교의 지도자	19	0.8
동료(co-worker)	4	10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134	5.3
신문	22	30	신문	51	2.0
인터넷 진로사이트	14	13	인터넷 진로 지도 사이트	122	4.9
기타	13	13	도움받지 않음 및 잘모름	376	15.0
전 체	75명	723명	전 체	2514	100.0

주) 미국 NCDA의 전체 인터뷰 응답자는 798명이며 각 항목은 복수응답

가) 성별

남녀 모두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의 순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친구, 이웃, 선·후배,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로부터 도움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친척,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로부터 도움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66> **성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친척	빈도	159	193	352
	%	12.5%	15.6%	14.0%
친구, 이웃, 선· 후배	빈도	594	496	1090
	%	46.6%	40.1%	43.4%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23	7	30
	%	1.8%	.6%	1.2%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24	21	45
	%	1.9%	1.7%	1.8%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85	127	212
	%	6.7%	10.3%	8.4%
교사나 교수	빈도	31	39	70
	%	2.4%	3.2%	2.8%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5	8	13
	%	.4%	.6%	.5%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0	9	19
	%	.8%	.7%	.8%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83	51	134
	%	6.5%	4.1%	5.3%
신문	빈도	26	25	51
	%	2.0%	2.0%	2.0%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66	56	122
	%	5.2%	4.5%	4.9%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143	163	306
	%	11.2%	13.2%	12.2%
잘모름	빈도	27	43	70
	%	2.1%	3.5%	2.8%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x^2=43.689, P=.000

나) 연령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친척에게 도움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친구, 이웃, 선·후배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40**대**(3.6%)**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는**

다른 연령보다 10대(23.1%)와 20대(11.4%)에서, 교사나 교수 역시 10대(4.1%)와 20대(4.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도 20대(9.2%)와 10대(7.1%)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50대(8.0%), 40대(7.0%), 30대(6.7%) 등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진로 도움을 받은 곳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67> 연령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친척	빈도	28	62	87	81	60	34	352
	%	10.4%	10.4%	13.2%	15.3%	18.6%	24.5%	14.0%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86	291	324	220	123	46	1090
	%	32.1%	48.7%	49.2%	41.6%	38.1%	33.1%	43.4%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2	6	13	5	4		30
	%	.7%	1.0%	2.0%	.9%	1.2%		1.2%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1	12	7	19	4	2	45
	%	.4%	2.0%	1.1%	3.6%	1.2%	1.4%	1.8%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62	68	42	26	13	1	212
	%	23.1%	11.4%	6.4%	4.9%	4.0%	.7%	8.4%
교사나 교수	빈도	11	27	19	7	5	1	70
	%	4.1%	4.5%	2.9%	1.3%	1.5%	.7%	2.8%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2	5	3	2	1	13
	%		.3%	.8%	.6%	.6%	.7%	.5%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	4	2	7	3	2	19
	%	.4%	.7%	.3%	1.3%	.9%	1.4%	.8%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1	19	44	37	26	7	134
	%	.4%	3.2%	6.7%	7.0%	8.0%	5.0%	5.3%
신문	빈도	3	5	15	16	11	1	51
	%	1.1%	.8%	2.3%	3.0%	3.4%	.7%	2.0%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19	55	35	10	3		122
	%	7.1%	9.2%	5.3%	1.9%	.9%		4.9%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39	35	54	83	58	37	306
	%	14.6%	5.9%	8.2%	15.7%	18.0%	26.6%	12.2%
잘모름	빈도	15	11	11	15	11	7	70
	%	5.6%	1.8%	1.7%	2.8%	3.4%	5.0%	2.8%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71.541, P=.000

다) 학력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으로 친구, 이웃, 선·후배는 모든 학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문대졸(48.8%), 고졸(46.7%), 대졸(45.5%)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는 학생에게서, 교사나 교수는 학력이 높은 대학원졸 이상(18.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내 상담 전문가와 지역사회, 사회, 종교의 지도 등도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대학원졸 이상(10.0%)과 고졸(7.3%)에서,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대학생(10.1%)과 전문대졸(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친척은 중졸 이하(22.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졸(16.0%), 전문대생(14.6%), 전문대졸(13.3%), 대졸(10.1%) 순으로 나타나 낮은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은 중졸 이하(26.5%), 중학생(21.6%), 고등 학생(15.5%) 등 학력이 낮거나 중·고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68> 학력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친척	빈도	71	157	32	48	1	5	15	7	16	352
	%	22.1%	16.0%	13.3%	10.1%	2.0%	9.8%	11.6%	14.6%	7.3%	14.0%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117	459	117	216	18	16	37	20	90	1090
	%	36.4%	46.7%	48.8%	45.5%	36.0%	31.4%	28.7%	41.7%	41.3%	43.4%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12	2	10	1		2	1	2	30
	%		1.2%	.8%	2.1%	2.0%		1.6%	2.1%	.9%	1.2%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4	22	6	11	1			1		45
	%	1.2%	2.2%	2.5%	2.3%	2.0%			2.1%		1.8%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41	26	43	3	11	32	9	47	212
	%		4.2%	10.8%	9.1%	6.0%	21.6%	24.8%	18.8%	21.6%	8.4%
교사나 교수	빈도		12	5	22	9	3	3	2	14	70
	%		1.2%	2.1%	4.6%	18.0%	5.9%	2.3%	4.2%	6.4%	2.8%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2	6	1	3	1					13
	%	.6%	.6%	.4%	.6%	2.0%					.5%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3	7	1	3	2		1		2	19
	%	.9%	.7%	.4%	.6%	4.0%		.8%		.9%	.8%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13	72	13	28	5				3	134
	%	4.0%	7.3%	5.4%	5.9%	10.0%				1.4%	5.3%
신문	빈도	7	27	4	12			1			51
	%	2.2%	2.7%	1.7%	2.5%			.8%			2.0%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27	23	31	4	2	10	3	22	122
	%		2.7%	9.6%	6.5%	8.0%	3.9%	7.8%	6.3%	10.1%	4.9%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85	118	7	40	4	11	20	2	19	306
	%	26.5%	12.0%	2.9%	8.4%	8.0%	21.6%	15.5%	4.2%	8.7%	12.2%
잘모름	빈도	19	22	3	8	1	3	8	3	3	70
	%	5.9%	2.2%	1.3%	1.7%	2.0%	5.9%	6.2%	6.3%	1.4%	2.8%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525.412, P=.000

라) 사회 집단별

친구, 이웃, 선·후배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척은 은퇴자(33.3%)와 주부(20.7%)에게서,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은퇴자(5.1%)와

실업자(4.8%)에게서 다른 사회 집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기관의 상담전문가와 교사나 교수는 학생(23.6%, 4.8%)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신문은 직업인(2.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 회사, 종교 지도자는 다른 집단보다 주부(1.4%)에게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은퇴자(12.8%)와 직업인(7.4%)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학생(8.4%)과 실업자(7.1%)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진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주부(17.4%)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69> 사회 집단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친척	빈도	208	6	87	38	13	352
	%	13.0%	14.3%	20.7%	9.2%	33.3%	14.0%
친구, 이웃, 선· 후배	빈도	753	21	156	146	14	1090
	%	47.1%	50.0%	37.1%	35.2%	35.9%	43.4%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25			5		30
	%	1.6%			1.2%		1.2%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34	2	7		2	45
	%	2.1%	4.8%	1.7%		5.1%	1.8%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73	2	37	98	2	212
	%	4.6%	4.8%	8.8%	23.6%	5.1%	8.4%
교사나 교수	빈도	36		13	20	1	70
	%	2.3%		3.1%	4.8%	2.6%	2.8%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10		3			13
	%	.6%		.7%			.5%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0		6	3		19
	%	.6%		1.4%	.7%		.8%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118	1	9	1	5	134
	%	7.4%	2.4%	2.1%	.2%	12.8%	5.3%
신문	빈도	43		7	1		51
	%	2.7%		1.7%	.2%		2.0%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73	3	11	35		122
	%	4.6%	7.1%	2.6%	8.4%		4.9%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174	6	73	52	1	306
	%	10.9%	14.3%	17.4%	12.5%	2.6%	12.2%
잘모름	빈도	41	1	11	16	1	70
	%	2.6%	2.4%	2.6%	3.9%	2.6%	2.8%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20.069, P=.000

마) 직업별

직업에 따라 진로 도움을 받은 곳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친척은 기능인(21.1%)과 판매 종사자(18.4%)에게서 다른 직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친구, 이웃, 선·후배는 전체 직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기계조작 및 조립원(53.6%), 단순 노무직 종사자(52.6%), 기술공 및 준전문가(52.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는 기능인(3.2%), 기술공 및 준전문가(2.7%), 사무 종사자(2.5%),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2.4%) 등에서 다소 높

게 나타났고,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기능인(4.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종사자(2.9%), 단순 노무직 종사자(2.6%), 사무종사자(2.5%) 등에서 약간의 비율을 나타났다. 또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기계 조작 및 조립원(10.6%), 기능인(10.5%),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9.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는 전문가(9.7%), 사무 종사자(6.3%), 고위임직원/ 관리자(4.9%), 기술공 및 준전문가(4.8%), 서비스 종사자(4.6%)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나 교수도 전문가(8.8%), 사무 종사자(4.6%), 기술공 및 준전문가(3.2%)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내 상담 전문가와 지역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는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전문가(11.5%), 사무종사자(7.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5.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 종사자(15.1%), 기능인(13.7%), 기술공 및 준전문가(12.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2.2%) 등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나 직업별로 진로 도움을 받은 곳에 차이가 있었다.

<표 Ⅳ-70> 직업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친척	빈도	6	6	11	33	38	56	6	20	16	16	208
	%	14.6%	5.3%	5.9%	11.6%	15.8%	18.4%	15.0%	21.1%	8.9%	14.0%	13.0%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19	47	98	128	119	141	8	37	96	60	753
	%	46.3%	41.6%	52.4%	45.1%	49.4%	46.4%	20.0%	38.9%	53.6%	52.6%	47.1%
민간부문의 상담전문가	빈도	1	1	5	7	4	2		3	1	1	25
	%	2.4%	.9%	2.7%	2.5%	1.7%	.7%		3.2%	.6%	.9%	1.6%
공공직업 안정기관	빈도	1		3	7	7	5		4	4	3	34
	%	2.4%		1.6%	2.5%	2.9%	1.6%		4.2%	2.2%	2.6%	2.1%
교육기관의 상담전문가	빈도	2	11	9	18	11	9	1	2	7	3	73
	%	4.9%	9.7%	4.8%	6.3%	4.6%	3.0%	2.5%	2.1%	3.9%	2.6%	4.6%
교사나 교수	빈도		10	6	13	2			1	3	1	36
	%		8.8%	3.2%	4.6%	.8%			1.1%	1.7%	.9%	2.3%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1		1	2	1	1		1	1	2	10
	%	2.4%		.5%	.7%	.4%	.3%		1.1%	.6%	1.8%	.6%
지역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	1	1	2		3		1		1	10
	%	2.4%	.9%	.5%	.7%		1.0%		1.1%		.9%	.6%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빈도	4	10	8	21	19	20		10	19	7	118
	%	9.8%	8.8%	4.3%	7.4%	7.9%	6.6%		10.5%	10.6%	6.1%	7.4%
신문	빈도		4	6	10	7	6	1	1	5	3	43
	%		3.5%	3.2%	3.5%	2.9%	2.0%	2.5%	1.1%	2.8%	2.6%	2.7%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1	13	12	22	9	6			10		73
	%	2.4%	11.5%	6.4%	7.7%	3.7%	2.0%			5.6%		4.6%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5	8	23	16	19	46	18	13	15	11	174
	%	12.2%	7.1%	12.3%	5.6%	7.9%	15.1%	45.0%	13.7%	8.4%	9.6%	10.9%
잘모름	빈도		2	4	5	5	9	6	2	2	6	41
	%		1.8%	2.1%	1.8%	2.1%	3.0%	15.0%	2.1%	1.1%	5.3%	2.6%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67.158, P=.000

바)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로 진로 도움을 받은 곳은 차이를 보였는데, 친구, 이웃, 선후배는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고용주(52.5%), 임시근로자(52.2%), 상용 근로자(49.5%)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친척은 무급 가족 종사자(26.1%)와 일용 근로자(23.1%)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민간 부문의 상담전문가는 무급 가족 종사자(2.2%)에게서,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일용 근로자(7.7%)와 임시 근로자(5.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는 무급 가족 종사자(6.5%)와 상용 근로자(5.4%)에게서, 교사나 교수는 임시 근로자(4.3%)와 상용 근로자(3.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는 상용 근로자(9.1%)에게서, 신문은 임시 근로자(5.8%)에게서,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일용 근로자(7.7%)와 임시 근로자(7.2%)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은 자영업자(20.7%)에게서 잘모름은 일용 근로자(15.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Ⅳ-71> 고용 형태별 진로 도움을 받은 곳(1순위)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친척	빈도	107	7	3	10	69	12	208
	%	10.7%	10.1%	23.1%	16.4%	17.0%	26.1%	13.0%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497	36	5	32	166	17	753
	%	49.5%	52.2%	38.5%	52.5%	41.0%	37.0%	47.1%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17			1	6	1	25
	%	1.7%			1.6%	1.5%	2.2%	1.6%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23	4	1	1	5		34
	%	2.3%	5.8%	7.7%	1.6%	1.2%		2.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54	2		1	13	3	73
	%	5.4%	2.9%		1.6%	3.2%	6.5%	4.6%
교사나 교수	빈도	32	3			1		36
	%	3.2%	4.3%			.2%		2.3%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9				1		10
	%	.9%				.2%		.6%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7	1		1	1		10
	%	.7%	1.4%		1.6%	.2%		.6%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91	2		2	22	1	118
	%	9.1%	2.9%		3.3%	5.4%	2.2%	7.4%
신문	빈도	26	4		2	10	1	43
	%	2.6%	5.8%		3.3%	2.5%	2.2%	2.7%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55	5	1	2	10		73
	%	5.5%	7.2%	7.7%	3.3%	2.5%		4.6%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70	3	1	9	84	7	174
	%	7.0%	4.3%	7.7%	14.8%	20.7%	15.2%	10.9%
잘모름	빈도	16	2	2		17	4	41
	%	1.6%	2.9%	15.4%		4.2%	8.7%	2.6%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65.008, P=.000

라.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으로 친구, 이웃, 선·후배(35.6%)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11.4%), 친척

(9.8%),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8.0%), 공공 직업 안정 기관(7.1%), 도움을 받지 않음(6.1%),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5.8%),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4.8%), 잘모름(4.2%), 교사나 교수(2.5%), 직장 내 상담 전문가(1.9%), 신문(1.6%),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1.2%) 순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에 따라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에 차이가 있었다.

1) 1순위

가) 성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으로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는 여자보다 친구, 이웃, 선·후배(38.6%),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7.0%)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남자보다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12.2%), 친척(11.5%),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8.6%), 교사나 교수(3.3%)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표 Ⅳ-72> 성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친척	빈도	105	142	247
	%	8.2%	11.5%	9.8%
친구, 이웃, 선· 후배	빈도	493	401	894
	%	38.6%	32.4%	35.6%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67	54	121
	%	5.3%	4.4%	4.8%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85	94	179
	%	6.7%	7.6%	7.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96	106	202
	%	7.5%	8.6%	8.0%
교사나 교수	빈도	22	41	63
	%	1.7%	3.3%	2.5%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21	27	48
	%	1.6%	2.2%	1.9%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9	10	29
	%	1.5%	.8%	1.2%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89	56	145
	%	7.0%	4.5%	5.8%
신문	빈도	23	18	41
	%	1.8%	1.5%	1.6%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135	151	286
	%	10.6%	12.2%	11.4%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85	69	154
	%	6.7%	5.6%	6.1%
잘모름	빈도	36	69	105
	%	2.8%	5.6%	4.2%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x^2=47.113, P=.000

나) 연령별

친척은 1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젊은 연령층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 이웃, 선후배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는 30-40대에서, 직장 내 상담전문가와 신문은 30대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와 교사나 교수는 10-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20대, 40-50대 등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대에서는 5.6%로 낮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에는 차이를 보였다.

<표 Ⅳ-73> 연령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친척	빈도	28	35	59	56	46	23	247
	%	10.4%	5.9%	9.0%	10.6%	14.2%	16.5%	9.8%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85	211	242	191	117	48	894
	%	31.7%	35.3%	36.8%	36.1%	36.2%	34.5%	35.6%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7	22	49	29	11	3	121
	%	2.6%	3.7%	7.4%	5.5%	3.4%	2.2%	4.8%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5	53	37	48	26	10	179
	%	1.9%	8.9%	5.6%	9.1%	8.0%	7.2%	7.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61	70	37	24	9	1	202
	%	22.8%	11.7%	5.6%	4.5%	2.8%	.7%	8.0%
교사나 교수	빈도	20	25	7	9	2		63
	%	7.5%	4.2%	1.1%	1.7%	.6%		2.5%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4	9	19	10	4	2	48
	%	1.5%	1.5%	2.9%	1.9%	1.2%	1.4%	1.9%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3	6	2	11	6	1	29
	%	1.1%	1.0%	.3%	2.1%	1.9%	.7%	1.2%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2	28	41	38	29	7	145
	%	.7%	4.7%	6.2%	7.2%	9.0%	5.0%	5.8%
신문	빈도	3	6	16	9	6	1	41
	%	1.1%	1.0%	2.4%	1.7%	1.9%	.7%	1.6%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31	99	91	46	13	6	286
	%	11.6%	16.6%	13.8%	8.7%	4.0%	4.3%	11.4%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7	14	35	37	35	26	154
	%	2.6%	2.3%	5.3%	7.0%	10.8%	18.7%	6.1%
잘모름	빈도	12	19	23	21	19	11	105
	%	4.5%	3.2%	3.5%	4.0%	5.9%	7.9%	4.2%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85.052, P=.000

다) 학력별

친척은 중졸 이하(19.3%) 등 낮은 학력과 초·중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친구, 이웃, 선·후배는 모든 학력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고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직업 안정 기관도 고졸(9.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에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는 대졸(7.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는 학생 특히 고등학생(27.1%)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나 교수는 학생과 대학원졸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장 내 상담 전문가는 대졸(2.5%)에게서,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대학원졸 이상(4.0%, 12.0%)에게서, 신문은 대졸(2.3%)에게서,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대학원 이상(18.0%)에게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은 집단에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거나 잘 모름은 중졸 이하(18.7%, 9.3%)등 낮은 학력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74> 학력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

		학력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중학교재학중	고등학교재학중	전문대재학중	대학교재학중	
친척	빈도	62	107	24	20	2	6	13	2	11	247
	%	19.3%	10.9%	10.0%	4.2%	4.0%	11.8%	10.1%	4.2%	5.0%	9.8%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118	369	84	159	17	18	42	16	71	894
	%	36.8%	37.6%	35.0%	33.5%	34.0%	35.3%	32.6%	33.3%	32.6%	35.6%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5	52	13	35	2		6	1	7	121
	%	1.6%	5.3%	5.4%	7.4%	4.0%		4.7%	2.1%	3.2%	4.8%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19	92	15	42	2		1		8	179
	%	5.9%	9.4%	6.3%	8.8%	4.0%		.8%		3.7%	7.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2	35	14	39	4	10	35	12	51	202
	%	.6%	3.6%	5.8%	8.2%	8.0%	19.6%	27.1%	25.0%	23.4%	8.0%
교사나 교수	빈도		10	5	10	3	4	5	5	21	63
	%		1.0%	2.1%	2.1%	6.0%	7.8%	3.9%	10.4%	9.6%	2.5%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6	22	4	12	1	1	1	1		48
	%	1.9%	2.2%	1.7%	2.5%	2.0%	2.0%	.8%	2.1%		1.9%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	16	2	4	2	1	1		2	29
	%	.3%	1.6%	.8%	.8%	4.0%	2.0%	.8%		.9%	1.2%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11	81	14	29	6			1	3	145
	%	3.4%	8.2%	5.8%	6.1%	12.0%			2.1%	1.4%	5.8%
신문	빈도	3	19	4	11			2	1	1	41
	%	.9%	1.9%	1.7%	2.3%			1.6%	2.1%	.5%	1.6%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4	87	41	82	9	5	16	6	36	286
	%	1.2%	8.9%	17.1%	17.3%	18.0%	9.8%	12.4%	12.5%	16.5%	11.4%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60	57	6	20	2	3	1	2	3	154
	%	18.7%	5.8%	2.5%	4.2%	4.0%	5.9%	.8%	4.2%	1.4%	6.1%
잘모름	빈도	30	35	14	12		3	6	1	4	105
	%	9.3%	3.6%	5.8%	2.5%		5.9%	4.7%	2.1%	1.8%	4.2%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525.412, P=.000

라) 사회 집단별

친구, 이웃, 선·후배는 모든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실업자(52.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직업 안정 기관도 실업자(14.3%)와 은퇴자(10.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친척도 주부(17.6%)에게서 높게 나타

났으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는 직업인(5.6%)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교육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및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학생(24.6%, 8.2%, 14.0%)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상담 전문가는 직업인, 실업자, 은퇴자에게서 2%대를 보였으며,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은퇴자(12.8%)와 직업인(8.0%)에게서, 진로 도움을 받지 않음은 주부(9.0%)에게서, 잘 모름은 은퇴자(10.3%)에게서 높게 나타나 사회 집단별로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Ⅳ-75> 사회 집단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친척	빈도	132	5	74	31	5	247
	%	8.3%	11.9%	17.6%	7.5%	12.8%	9.8%
친구, 이웃, 선· 후배	빈도	579	22	144	137	12	894
	%	36.2%	52.4%	34.3%	33.0%	30.8%	35.6%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90		20	9	2	121
	%	5.6%		4.8%	2.2%	5.1%	4.8%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130	6	31	8	4	179
	%	8.1%	14.3%	7.4%	1.9%	10.3%	7.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72	2	24	102	2	202
	%	4.5%	4.8%	5.7%	24.6%	5.1%	8.0%
교사나 교수	빈도	27		2	34		63
	%	1.7%		.5%	8.2%		2.5%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40	1	3	3	1	48
	%	2.5%	2.4%	.7%	.7%	2.6%	1.9%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21		4	4		29
	%	1.3%		1.0%	1.0%		1.2%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128		9	3	5	145
	%	8.0%		2.1%	.7%	12.8%	5.8%
신문	빈도	31		6	4		41
	%	1.9%		1.4%	1.0%		1.6%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182	3	41	58	2	286
	%	11.4%	7.1%	9.8%	14.0%	5.1%	11.4%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104	2	38	8	2	154
	%	6.5%	4.8%	9.0%	1.9%	5.1%	6.1%
잘모름	빈도	62	1	24	14	4	105
	%	3.9%	2.4%	5.7%	3.4%	10.3%	4.2%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99.029, P=.000

마) 직업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으로 친척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5.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 이웃, 선·후배와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는 서비스 종사자(41.9%, 8.7%))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직업 안정 기관은 단순 노무직 종사자(13.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및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전문가(10.6%, 4.4%, 20.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장 내 상담 전문가와 지역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4.9%, 4.9%)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기계 조작 및 조립원(14.0%)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신문은 판매 종사자(2.6%)와 단순노무직 종사자(2.6%)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와 잘모름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7.5%, 15.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직업별로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에는 차이를 보였다.

<표 Ⅳ-76> 직업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종사자	
친척	빈도		3	11	15	19	40	6	13	13	12	132
	%		2.7%	5.9%	5.3%	7.9%	13.2%	15.0%	13.7%	7.3%	10.5%	8.3%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16	30	64	94	101	122	5	34	71	42	579
	%	39.0%	26.5%	34.2%	33.1%	41.9%	40.1%	12.5%	35.8%	39.7%	36.8%	36.2%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3	4	13	22	21	11	2	6	4	4	90
	%	7.3%	3.5%	7.0%	7.7%	8.7%	3.6%	5.0%	6.3%	2.2%	3.5%	5.6%
공공 직업 안정 기관		2	9	16	31	19	14	2	6	16	15	130
		4.9%	8.0%	8.6%	10.9%	7.9%	4.6%	5.0%	6.3%	8.9%	13.2%	8.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3	12	13	10	10	10	1	6	5	2	72
	%	7.3%	10.6%	7.0%	3.5%	4.1%	3.3%	2.5%	6.3%	2.8%	1.8%	4.5%
교사나 교수	빈도	1	5	5	7	2	4			2	1	27
	%	2.4%	4.4%	2.7%	2.5%	.8%	1.3%			1.1%	.9%	1.7%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2	2	5	12	4	11		2	2		40
	%	4.9%	1.8%	2.7%	4.2%	1.7%	3.6%		2.1%	1.1%		2.5%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2		2	2	3	5	1	1	2	3	21
	%	4.9%		1.1%	.7%	1.2%	1.6%	2.5%	1.1%	1.1%	2.6%	1.3%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4	13	11	21	9	24	1	11	25	9	128
	%	9.8%	11.5%	5.9%	7.4%	3.7%	7.9%	2.5%	11.6%	14.0%	7.9%	8.0%
신문	빈도		1	2	7	5	8		1	4	3	31
	%		.9%	1.1%	2.5%	2.1%	2.6%		1.1%	2.2%	2.6%	1.9%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6	23	28	48	30	21	1	3	14	8	182
	%	14.6%	20.4%	15.0%	16.9%	12.4%	6.9%	2.5%	3.2%	7.8%	7.0%	11.4%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2	7	13	8	9	21	15	9	10	10	104
	%	4.9%	6.2%	7.0%	2.8%	3.7%	6.9%	37.5%	9.5%	5.6%	8.8%	6.5%
잘모름	빈도		4	4	7	9	13	6	3	11	5	62
	%		3.5%	2.1%	2.5%	3.7%	4.3%	15.0%	3.2%	6.1%	4.4%	3.9%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70.577, P=.000

바) 고용 형태별

친척은 무급 가족 종사자(21.7%)와 자영업자(14.3%)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친구, 이웃, 선후배는 고용주(44.3%)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는 무급 가족 종사자(6.5%, 8.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공공 직업 안정 기관과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는 일용 근로자(23.1%, 7.7%)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교사나 교수,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및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는 임시 근로자(8.7%, 4.3%, 7.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신문는 고용주(3.3%)에게서,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는 고용주(13.1%)와 상용 근로자(13.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자영업자(13.6%)에게서, 잘 모름은 무급 가족 종사자(8.7%)와 일용 근로자(7.7%)에게서 높게 나타나 고용 형태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에는 차이를 보였다.

<표 Ⅳ-77> 고용 형태별 앞으로 진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1순위)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친척	빈도	59	3	1	1	58	10	132
	%	5.9%	4.3%	7.7%	1.6%	14.3%	21.7%	8.3%
친구, 이웃, 선·후배	빈도	368	26	5	27	139	14	579
	%	36.7%	37.7%	38.5%	44.3%	34.3%	30.4%	36.2%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빈도	59	2		2	24	3	90
	%	5.9%	2.9%		3.3%	5.9%	6.5%	5.6%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94	7	3	3	19	4	130
	%	9.4%	10.1%	23.1%	4.9%	4.7%	8.7%	8.1%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빈도	44	4		4	16	4	72
	%	4.4%	5.8%		6.6%	4.0%	8.7%	4.5%
교사나 교수	빈도	15	6		2	3	1	27
	%	1.5%	8.7%		3.3%	.7%	2.2%	1.7%
직장 내 상담 전문가	빈도	28	3		1	8		40
	%	2.8%	4.3%		1.6%	2.0%		2.5%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빈도	10	2	1	2	6		21
	%	1.0%	2.9%	7.7%	3.3%	1.5%		1.3%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빈도	101	5	1	3	18		128
	%	10.1%	7.2%	7.7%	4.9%	4.4%		8.0%
신문	빈도	23			2	6		31
	%	2.3%			3.3%	1.5%		1.9%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빈도	133	5	1	8	32	3	182
	%	13.2%	7.2%	7.7%	13.1%	7.9%	6.5%	11.4%
도움을 받지 않는다	빈도	37	4		5	55	3	104
	%	3.7%	5.8%		8.2%	13.6%	6.5%	6.5%
잘모름	빈도	33	2	1	1	21	4	62
	%	3.3%	2.9%	7.7%	1.6%	5.2%	8.7%	3.9%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77.075, P=.000

마. 상담가를 방문한 경험

전체 응답자의 7.2%만이 진로 선택을 위해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가를 방문한 경험은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연령,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미국 NCDA 결과를 보면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21%로 나타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진로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8> 미국 NCDA와 직업 의식 조사의 상담가 방문 경험 비교

미국 NCDA 자료						직업 의식 조사(2002)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명수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명수
연령	18 25세	30	70	100	125	15 19세	7.8	92.2	100.0	268
	26 40세	24	76	100	318	20 39세	8.1	91.9	100.0	1,255
	41 55세	25	75	100	269	40 49세	7.9	92.1	100.0	529
	56 65세	11	89	100	127	50 59세	5.3	94.7	100.0	323
	66세이상	6	93	100	136	60 64세	0.0	100.0	100.0	139
학력	고졸미만	11	89	100	79	재학생	9.0	91.0	100.0	446
						중졸이하	1.2	98.8	100.0	321
	고 졸	13	87	100	305	고 졸	6.3	93.7	100.0	982
	전문대학졸	31	69	100	131	전문대학졸	9.2	90.8	100.0	240
	4년제 대학졸	26	74	100	141	4년제 대학졸	9.3	90.7	100.0	475
	대학원졸	29	70	100	328	대학원졸	16.0	84.0	100.0	50
전체		21	79	100	1,001	전체	7.2	92.8	100.0	2,514

1) 학력별

진로 선택을 위해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은 대학원졸 이상(16.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 학생(10.1%)과 대학생(10.1%), 대졸(9.3%), 전문대졸(9.2%), 전문대생(8.3%), 고졸(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79> 학력별 상담가를 방문한 경험 유무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예	빈도	4	62	22	44	8	1	13	4	22	180
	%	1.2%	6.3%	9.2%	9.3%	16.0%	2.0%	10.1%	8.3%	10.1%	7.2%
아니오	빈도	317	920	218	431	42	50	116	44	196	2334
	%	98.8%	93.7%	90.8%	90.7%	84.0%	98.0%	89.9%	91.7%	89.9%	92.8%
전체	빈도	321	982	240	475	50	51	129	48	218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5.084, P=.000

바. 전문가나 상담가를 방문한 경험의 도움 정도

진로 선택을 위해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도움이 된 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78.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없었다.

<표 Ⅳ-80> 방문했을시 도움된 정도

구 분	빈 도	백분비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	11.1
도움이 되었다	121	67.2
도움이 되지 않았다	31	17.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4.4
합 계	180	100.0

사.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은 전체적으로 친구나 선배(2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송 매체(20.4%), 정보지·잡지(15.3%), 신문(12.1%), 인터넷 사이트(10.9%), 가족·친지(7.2%), 공공 직업 안정 기관(5.6), 대학의 취업정보센터(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사회 집단, 직업,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직업 의식 1차 조사(98년)에서는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으로 TV등 방송매체(3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선배(19.3%), 신문(18.6%), 구인 정보지 등(12.1%), 가족이나 친지(6.3%), 인력 은행 등(1.5%)과 PC통신(1.5%), 취업 설명회(1.1%), 기타(1.0%), 사회 단체(0.6%) 순으로 나타나 1998년에 비하여 올해 TV등 방송 매체보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신문보다는 정보지·잡지로부터 더 많은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와 공공 직업 안정 기관로부터 직업 정보를 얻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차 조사가 이뤄진 IMF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국민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 정보 인터넷 사이트와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 노력과 이것을 국민들이 적극 활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미국 NCDA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또는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2%가 인쇄 매체와 TV를 통하여 직업 및 진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 친척 및 협회원(35%), 지역사회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진로 정보 센터(16%), 인터넷 진로 사이트(12%), 공공 도서관(12%), 고등학교 내 진로 정보 센터(6%), 공공 직업 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6%), 지역사회 내 진로 정보 센터(6%) 등에서 직업 및 진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구, 친척 등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직업 및 진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공공 진로 정보 서비스 기관(센터)을 자주 이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으로 직업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센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1순위

가) 성별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직업 정보 출처는 친구나 선배, 방송 매체 등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직업 정보 출처는 정보지 · 잡지, 가족 · 친지 등으로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Ⅳ-81> 성별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방송 매체	빈도	267	239	506
	%	21.1%	19.4%	20.3%
신문	빈도	137	134	271
	%	10.8%	10.9%	10.9%
정보지 · 잡지	빈도	156	228	384
	%	12.3%	18.6%	15.4%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60	56	116
	%	4.7%	4.6%	4.6%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빈도	43	38	81
	%	3.4%	3.1%	3.2%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 그램	빈도	13	6	19
	%	1.0%	.5%	.8%
취업 설명회	빈도	18	14	32
	%	1.4%	1.1%	1.3%
사회 단체	빈도	5	9	14
	%	.4%	.7%	.6%
친구나 선배	빈도	316	222	538
	%	24.9%	18.1%	21.6%
가족 · 친지	빈도	88	128	216
	%	6.9%	10.4%	8.7%
인터넷 사이트	빈도	156	140	296
	%	12.3%	11.4%	11.9%
기타	빈도	8	15	23
	%	.6%	1.2%	.9%
전체	빈도	1267	1229	2496
	%	100.0%	100.0%	100.0%

χ^2=46.010, P=.000

나) 연령별

친구나 선배는 10대(23.4%)와 30대(23.4%)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가족·친지는 10대(11.3%)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인터넷 사이트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송 매체와 신문 등은 40대(25.4%, 16.7%)와 50대(24.1%, 12.9%)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보지·잡지는 30대(18.3%)와 40대(16.3%)에서, 공공 직업 안정 기관과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는 20대(7.3%, 7.4%)에게서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Ⅳ-82> **연령별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방송 매체	빈도	61	77	128	134	77	29	506
	%	23.0%	13.0%	19.5%	25.4%	24.1%	21.3%	20.3%
신문	빈도	18	39	69	88	41	16	271
	%	6.8%	6.6%	10.5%	16.7%	12.9%	11.8%	10.9%
정보지 ·잡지	빈도	20	89	120	86	50	19	384
	%	7.5%	15.0%	18.3%	16.3%	15.7%	14.0%	15.4%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2	43	34	19	13	5	116
	%	.8%	7.3%	5.2%	3.6%	4.1%	3.7%	4.6%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빈도	10	44	16	4	5	2	81
	%	3.8%	7.4%	2.4%	.8%	1.6%	1.5%	3.2%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 그램	빈도	4	5	7	3			19
	%	1.5%	.8%	1.1%	.6%			.8%
취업 설명회	빈도	3	9	8	10	1	1	32
	%	1.1%	1.5%	1.2%	1.9%	.3%	.7%	1.3%
사회 단체	빈도		1	1	5	6	1	14
	%		.2%	.2%	.9%	1.9%	.7%	.6%
친구나 선배	빈도	62	136	152	99	67	22	538
	%	23.4%	22.9%	23.2%	18.8%	21.0%	16.2%	21.6%
가족· 친지	빈도	30	29	32	46	44	35	216
	%	11.3%	4.9%	4.9%	8.7%	13.8%	25.7%	8.7%
인터넷 사이트	빈도	51	117	85	30	12	1	296
	%	19.2%	19.7%	13.0%	5.7%	3.8%	.7%	11.9%
기타	빈도	4	4	4	3	3	5	23
	%	1.5%	.7%	.6%	.6%	.9%	3.7%	.9%
전체	빈도	265	593	656	527	319	136	24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57.497, P=.000

다) 학력별

중졸이하에서는 방송 매체(26.0%)**와 가족·친지**(23.2%)**를 통해 직업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으며, 고졸은 정보지·잡지**(22.1%)**와 친구나 선배**(21.6%)**를 통해, 전문대졸과 대졸은 친구나 선배**(21.0%, 20.8%)**를 통해, 대학원졸 이상은 신문**(22.0%)**과 친구나 선배**(22.0%)**를 통해 직업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전문대생은 친구나 선배**(32.0%, 34.0%)**를 통해, 고등학생은 방송매체**(24.4%)**를 통해, 대학생은 인터넷 사이트**(22.5%)**를 통해 직업**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신문,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인터넷 사이트 등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방송 매체, 정보지·잡지, 가족·친지 등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Ⅳ-83> 학력별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중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방송 매체	빈도	82	189	44	95	8	12	31	6	39	506
	%	26.0%	19.3%	18.5%	20.1%	16.0%	24.0%	24.4%	12.8%	17.9%	20.3%
신문	빈도	24	134	20	61	11	1	7	2	11	271
	%	7.6%	13.7%	8.4%	12.9%	22.0%	2.0%	5.5%	4.3%	5.0%	10.9%
정보지 · 잡지	빈도	54	216	42	32	2	1	9	6	22	384
	%	17.1%	22.1%	17.6%	6.8%	4.0%	2.0%	7.1%	12.8%	10.1%	15.4%
공공 직업 안정기관	빈도	8	50	19	32	2		1	1	3	116
	%	2.5%	5.1%	8.0%	6.8%	4.0%		.8%	2.1%	1.4%	4.6%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빈도		6	9	24	4	1	3	6	28	81
	%		.6%	3.8%	5.1%	8.0%	2.0%	2.4%	12.8%	12.8%	3.2%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 그램	빈도		11	1	3		1	3			19
	%		1.1%	.4%	.6%		2.0%	2.4%			.8%
취업 설명회	빈도		13	4	7			1		7	32
	%		1.3%	1.7%	1.5%			.8%		3.2%	1.3%
사회 단체	빈도	3	4		6	1					14
	%	1.0%	.4%		1.3%	2.0%					.6%
친구나 선배	빈도	62	211	50	98	11	16	27	16	47	538
	%	19.7%	21.6%	21.0%	20.8%	22.0%	32.0%	21.3%	34.0%	21.6%	21.6%
가족 · 친지	빈도	73	78	6	20	2	8	16	2	11	216
	%	23.2%	8.0%	2.5%	4.2%	4.0%	16.0%	12.6%	4.3%	5.0%	8.7%
인터넷 사이트	빈도	2	60	41	92	9	10	25	8	49	296
	%	.6%	6.1%	17.2%	19.5%	18.0%	20.0%	19.7%	17.0%	22.5%	11.9%
기타	빈도	7	7	2	2			4		1	23
	%	2.2%	.7%	.8%	.4%			3.1%		.5%	.9%
전체	빈도	315	979	238	472	50	50	127	47	218	24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548.874, P=.000

라) 사회 집단별

방송매체는 주부(21.7%), 직업인(20.4%) 및 학생(20.2%)등에서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으로 높게 나타났고, 친구나 선배도 모든 사회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실업자(33.3%)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와 인터넷 사이트는 학생(9.0%, 19.7%)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정보지·잡지는 주부(23.9%)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문과 가족·친지는 은퇴자(18.4%, 21.1%)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실업자(9.5%)와 은퇴자(7.9%)에게서 높게 나타나 사회 집단에 따라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Ⅳ-84> 사회 집단별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방송 매체	빈도	324	4	90	83	5	506
	%	20.4%	9.5%	21.7%	20.2%	13.2%	20.3%
신문	빈도	192	5	45	22	7	271
	%	12.1%	11.9%	10.8%	5.4%	18.4%	10.9%
정보지 ·잡지	빈도	243	5	99	34	3	384
	%	15.3%	11.9%	23.9%	8.3%	7.9%	15.4%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89	4	16	4	3	116
	%	5.6%	9.5%	3.9%	1.0%	7.9%	4.6%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빈도	37	1	6	37		81
	%	2.3%	2.4%	1.4%	9.0%		3.2%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그램	빈도	13	2		4		19
	%	.8%	4.8%		1.0%		.8%
취업 설명회	빈도	20	1	3	7	1	32
	%	1.3%	2.4%	.7%	1.7%	2.6%	1.3%
사회 단체	빈도	9		5			14
	%	.6%		1.2%			.6%
친구나 선배	빈도	361	14	53	99	11	538
	%	22.7%	33.3%	12.8%	24.1%	28.9%	21.6%
가족· 친지	빈도	115		58	35	8	216
	%	7.2%		14.0%	8.5%	21.1%	8.7%
인터넷 사이트	빈도	174	6	35	81		296
	%	10.9%	14.3%	8.4%	19.7%		11.9%
기타	빈도	13		5	5		23
	%	.8%		1.2%	1.2%		.9%
전체	빈도	1590	42	415	411	38	24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26.534, P=.000

마) 직업별

직업별로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은 차이가 있었는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판매 종사자 및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는 방송 매체(31.7%, 25.5%, 40.5%)를 통해, 전문가는 인터넷 사이트(25.0%)를 통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기능인,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친구나 선배(25.8%, 20.8%, 26.3%, 29.6%, 24.6%)를 통해, 서비스 종사자는 정보지 · 잡지(21.6%)를 통해 가장 많이 직업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으로 방송 매체와 가족·친지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0.5%, 29.7%)가 많이 이용하고, 신문,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및 인터넷 사이트는 전문가(21.4%, 8.0%, 25.0%)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지·잡지는 서비스 종사자(21.6%)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사무 종사자(8.8%)와 기능인(8.4%)가, 친구나 선배는 기계 조작 및 조립원(29.6%)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5> 직업별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1순위)

		직업별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전체
방송매체	빈도	13	18	35	46	50	77	15	24	28	18	324
	%	31.7%	16.1%	18.8%	16.3%	20.7%	25.5%	40.5%	25.3%	15.6%	15.8%	20.4%
신문	빈도	8	24	23	34	29	33	1	11	16	13	192
	%	19.5%	21.4%	12.4%	12.0%	12.0%	10.9%	2.7%	11.6%	8.9%	11.4%	12.1%
정보지·잡지	빈도	2	4	21	36	52	55	1	13	36	23	243
	%	4.9%	3.6%	11.3%	12.7%	21.6%	18.2%	2.7%	13.7%	20.1%	20.2%	15.3%
공공직업안정기관	빈도	2	2	13	25	12	9	1	8	12	5	89
	%	4.9%	1.8%	7.0%	8.8%	5.0%	3.0%	2.7%	8.4%	6.7%	4.4%	5.6%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빈도	2	9	6	5	7	4		2	1	1	37
	%	4.9%	8.0%	3.2%	1.8%	2.9%	1.3%		2.1%	.6%	.9%	2.3%
국가운영직업훈련프로그램	빈도	1	1	3	2		2		1	2	1	13
	%	2.4%	.9%	1.6%	.7%		.7%		1.1%	1.1%	.9%	.8%
취업설명회	빈도		2	5	4	2	6			1		20
	%		1.8%	2.7%	1.4%	.8%	2.0%			.6%		1.3%
사회단체	빈도		1	1	1		3	1			2	9
	%		.9%	.5%	.4%		1.0%	2.7%			1.8%	.6%
친구나 선배	빈도	7	19	48	59	51	67	4	25	53	28	361
	%	17.1%	17.0%	25.8%	20.8%	21.2%	22.2%	10.8%	26.3%	29.6%	24.6%	22.7%
가족·친지	빈도	1	4	8	12	21	25	11	9	11	13	115
	%	2.4%	3.6%	4.3%	4.2%	8.7%	8.3%	29.7%	9.5%	6.1%	11.4%	7.2%
인터넷 사이트	빈도	5	28	23	55	14	20	1	2	17	9	174
	%	12.2%	25.0%	12.4%	19.4%	5.8%	6.6%	2.7%	2.1%	9.5%	7.9%	10.9%
기타	빈도				4	3	1	2		2	1	13
	%				1.4%	1.2%	.3%	5.4%		1.1%	.9%	.8%
전체	빈도	41	112	186	283	241	302	37	95	179	114	159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59.971, P=.000

바) 고용 형태별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는 친구나 선배(24.4%, 21.7%)를 통해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는 방송 매체(38.5%, 23.0%, 28.3%, 39.1%)를 통해 주로 직업 정

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에 따라 방송 매체는 무급 가족 종사자(39.1%)와 일용 근로자(38.5%)가 많이 이용하고, 신문은 고용주(13.1%)가 많이 이용하며, 공공 직업 안정 기관과 인터넷 사이트는 임시 근로자(14.5%, 18.8%)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나 선배는 상용 근로자(24.4%)가 많이 이용하고, 가족·친지는 무급 가족 종사자(17.4%)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6> 고용 형태별 일반적인 직업 정보 얻는 곳(1순위)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방송 매체	빈도	170	4	5	14	113	18	324
	%	17.0%	5.8%	38.5%	23.0%	28.3%	39.1%	20.4%
신문	빈도	127	7	1	8	46	3	192
	%	12.7%	10.1%	7.7%	13.1%	11.5%	6.5%	12.1%
정보지 ·잡지	빈도	144	12	3	6	73	5	243
	%	14.4%	17.4%	23.1%	9.8%	18.3%	10.9%	15.3%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빈도	58	10		3	14	4	89
	%	5.8%	14.5%		4.9%	3.5%	8.7%	5.6%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빈도	28	2		1	5	1	37
	%	2.8%	2.9%		1.6%	1.3%	2.2%	2.3%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 그램	빈도	10	1			2		13
	%	1.0%	1.4%			.5%		.8%
취업 설명회	빈도	14	2		1	3		20
	%	1.4%	2.9%		1.6%	.8%		1.3%
사회 단체	빈도	4	1	1	1	2		9
	%	.4%	1.4%	7.7%	1.6%	.5%		.6%
친구나 선배	빈도	244	15	3	14	78	7	361
	%	24.4%	21.7%	23.1%	23.0%	19.5%	15.2%	22.7%
가족· 친지	빈도	64	2		3	38	8	115
	%	6.4%	2.9%		4.9%	9.5%	17.4%	7.2%
인터넷 사이트	빈도	133	13		9	19		174
	%	13.3%	18.8%		14.8%	4.8%		10.9%
기타	빈도	6			1	6		13
	%	.6%			1.6%	1.5%		.8%
전체	빈도	1002	69	13	61	399	46	159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33.271, P=.000

아. (직업인) 직장의 취업 방법

1) 1순위

전체적으로 직업인의 직장 취업 방법(1순위)은 친구, 친지 소개(39.9%)를 통해 가장 많이 취업하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 준비(16.2%), 구인ㆍ구직 정보(14.8%), 학교, 학원 추천(7.0%), 사업체 직접 방문(6.7%), 인터넷 사이트(5.1%),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등록(4.0%), 기타(2.9%) 등을 통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인의 직장 취업 방법은 성별을 제외한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 연령별

직업인의 직장 취업 방법(1순위)은 모든 연령대에서 친구, 친지 소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장 취업 방법에 따라서는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등록과 구인 구직 정보는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사이트와 학교, 학원 추천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직접 방문은 40대, 30대, 50대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 준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87> 연령별 직업인의 직장의 취업 방법(1순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공공 직업 안전기관 등록	빈도	4	20	12	19	12	1	68
	%	9.8%	4.9%	2.3%	4.5%	5.0%	1.6%	4.0%
민간 취업 알선기관 등록	빈도		8	13	6	3	1	31
	%		2.0%	2.4%	1.4%	1.3%	1.6%	1.8%
구인· 구직 정보	빈도	10	58	82	81	20	2	253
	%	24.4%	14.3%	15.4%	19.1%	8.4%	3.1%	14.8%
인터넷 사이트	빈도	2	46	29	8	2		87
	%	4.9%	11.4%	5.4%	1.9%	.8%		5.1%
채용· 취업 박람회	빈도		6	7	2			15
	%		1.5%	1.3%	.5%			.9%
학교, 학원 추천	빈도	4	46	40	17	11	1	119
	%	9.8%	11.4%	7.5%	4.0%	4.6%	1.6%	7.0%
사업체 직접 방문	빈도	1	18	38	36	18	4	115
	%	2.4%	4.4%	7.1%	8.5%	7.5%	6.3%	6.7%
친구, 친지 소개	빈도	19	170	222	150	92	28	681
	%	46.3%	42.0%	41.7%	35.3%	38.5%	43.8%	39.9%
자영업 준비	빈도		23	74	92	67	20	276
	%		5.7%	13.9%	21.6%	28.0%	31.3%	16.2%
인턴 사원제 통해	빈도		4	7	1	1		13
	%		1.0%	1.3%	.2%	.4%		.8%
기타	빈도	1	6	9	13	13	7	49
	%	2.4%	1.5%	1.7%	3.1%	5.4%	10.9%	2.9%
전체	빈도	41	405	533	425	239	64	170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41.080, P=.000

나) 학력별

직업인의 직장 취업 방법(1순위)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장 취업 방법(1순위)에 따라, 학교, 학원 추천은 다른 학력보다 대학원졸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업체 직접 방문은 전문대생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 친지 소개는 모든 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대학원졸 이상과 대졸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자영업 준비는 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Ⅳ-88> 학력별 직업인의 직장의 취업 방법(1순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공공 직업 안전기관 등록	빈도	5	35	10	13	4.2%		1	2	68
	%	2.4%	4.6%	5.0%	3.3%			4.2%	3.2%	4.0%
민간 취업 알선기관 등록	빈도	1	14	3	11			1	1	31
	%	.5%	1.8%	1.5%	2.8%			4.2%	1.6%	1.8%
구인· 구직 정보	빈도	18	115	27	65	7	1	4	16	253
	%	8.6%	15.1%	13.4%	16.6%	14.6%	14.3%	16.7%	25.4%	14.8%
인터넷 사이트	빈도		23	16	37	2		2	7	87
	%		3.0%	8.0%	9.4%	4.2%		8.3%	11.1%	5.1%
채용· 취업 박람회	빈도		4	4	7					15
	%		.5%	2.0%	1.8%					.9%
학교, 학원 추천	빈도	1	31	19	42	18	1	2	5	119
	%	.5%	4.1%	9.5%	10.7%	37.5%	14.3%	8.3%	7.9%	7.0%
사업체 직접 방문	빈도	10	66	10	25			4		115
	%	4.8%	8.7%	5.0%	6.4%			16.7%		6.7%
친구, 친지 소개	빈도	94	326	84	124	11	4	10	28	681
	%	44.8%	42.8%	41.8%	31.6%	22.9%	57.1%	41.7%	44.4%	39.9%
자영업 준비	빈도	63	127	24	54	5			3	276
	%	30.0%	16.7%	11.9%	13.8%	10.4%			4.8%	16.2%
인턴 사원제 통해	빈도	1	2	1	7	1			1	13
	%	.5%	.3%	.5%	1.8%	2.1%			1.6%	.8%
기타	빈도	17	19	3	7	2	1			49
	%	8.1%	2.5%	1.5%	1.8%	4.2%	14.3%			2.9%
전체	빈도	210	762	201	392	48	7	24	63	170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79.324, P=.000

다) 직업별

직업별로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자영업 준비(27.5%)를 통해, 전문가는 학교, 학원 추천(30.1%)을 통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기타(43.6%)를 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밖의 직업에서는 친구, 친지 소개를 통해 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방법의 비율을 보면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및 사업체 직접 방문은 기계 조작 및 조립원(7.8%, 11.2%)이 높고, 구인·구직정보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21.0%)이 높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학교, 학원 추천은 전문가(11.5%, 3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

취업 박람회와 인턴 사원제 등은 사무 종사자(2.8%, 2.1%)**가 높으며, 친구, 친지 소개는 기능인**(50.0%)**과 단순 노무직 종사자**(50.0%)**가 높으며, 마지막으로 자영업 준비는 판매 종사자**(33.6%)**가 높게 나타나 직업에 따라 직장 취업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Ⅳ-89> **직업별 직업인의 직장의 취업 방법**(1**순위**)

		직업별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전체
공공 직업 안전기관 등록	빈도		4	11	11	11	3	1	5	14	6	66
	%		3.5%	5.9%	3.9%	4.6%	1.0%	2.6%	5.3%	7.8%	5.3%	4.2%
민간 취업 알선기관 등록	빈도	2		2	6	7	3		1	5	4	30
	%	5.0%		1.1%	2.1%	2.9%	1.0%		1.1%	2.8%	3.5%	1.9%
구인·구직 정보	빈도	6	12	39	52	32	29	2	13	29	22	236
	%	15.0%	10.6%	21.0%	18.4%	13.3%	9.6%	5.1%	13.8%	16.2%	19.3%	14.9%
인터넷 사이트		3	13	16	23	7	7			7	2	78
		7.5%	11.5%	8.6%	8.2%	2.9%	2.3%			3.9%	1.8%	4.9%
채용·취업 박람회	빈도		1	1	8	2	1		1	1		15
	%		.9%	.5%	2.8%	.8%	.3%		1.1%	.6%		.9%
학교, 학원 추천	빈도	3	34	20	34	12	2		4	4	2	115
	%	7.5%	30.1%	10.8%	12.1%	5.0%	.7%		4.3%	2.2%	1.8%	7.2%
사업체 직접 방문	빈도	3	4	7	18	18	22		6	20	12	110
	%	7.5%	3.5%	3.8%	6.4%	7.5%	7.3%		6.4%	11.2%	10.5%	6.9%
친구, 친지 소개	빈도	10	31	57	111	95	129	10	47	78	57	625
	%	25.0%	27.4%	30.6%	39.4%	39.6%	42.9%	25.6%	50.0%	43.6%	50.0%	39.4%
자영업 준비	빈도	11	10	28	7	51	101	9	15	18	6	256
	%	27.5%	8.8%	15.1%	2.5%	21.3%	33.6%	23.1%	16.0%	10.1%	5.3%	16.1%
인턴 사원제 통해	빈도		1	3	6	2					1	13
	%		.9%	1.6%	2.1%	.8%					.9%	.8%
기타	빈도	2	3	2	6	3	4	17	2	3	2	44
	%	5.0%	2.7%	1.1%	2.1%	1.3%	1.3%	43.6%	2.1%	1.7%	1.8%	2.8%
전체	빈도	40	113	186	282	240	301	39	94	179	114	158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629.902, P=.000

라) 고용 형태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주로 친구, 친지 소개(43.3%, 37.7%, 46.2%)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 자영업자 및 무급 자족 종사자는 자영업 준비(36.7%, 46.3%, 34.1%)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방법의 비율은 구인·구직 정보와 인터넷 사이트는 임시 근로자(23.2%, 11.6%)가 가장 높고, 학교, 학원 추천은 상용근로자(10.2%)가 가장 높으며, 사업체 직접 방문은 고용주(1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 친지 소개는 일용 근로자(46.2%)가 가장 높으며, 자영업 준비는 자영업자(46.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 취업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표 Ⅳ-90> 고용 형태별 직업인의 직장의 취업 방법(1순위)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공공 직업 안전 기관 등록	빈도	49	4		3	8	2	66
	%	4.9%	5.8%		5.0%	2.0%	4.5%	4.2%
민간 취업 알선 기관 등록	빈도	24	1	3		2		30
	%	2.4%	1.4%	23.1%		.5%		1.9%
구인· 구직 정보	빈도	179	16	1	6	30	4	236
	%	17.9%	23.2%	7.7%	10.0%	7.5%	9.1%	14.9%
인터넷 사이트	빈도	62	8	1	2	4	1	78
	%	6.2%	11.6%	7.7%	3.3%	1.0%	2.3%	4.9%
채용· 취업 박람회	빈도	13	1			1		15
	%	1.3%	1.4%			.2%		.9%
학교, 학원 추천	빈도	102	3			10		115
	%	10.2%	4.3%			2.5%		7.2%
사업체 직접 방문	빈도	81	4	1	6	17	1	110
	%	8.1%	5.8%	7.7%	10.0%	4.2%	2.3%	6.9%
친구, 친지 소개	빈도	433	26	6	19	129	12	625
	%	43.3%	37.7%	46.2%	31.7%	32.1%	27.3%	39.4%
자영업 준비	빈도	27	5	1	22	186	15	256
	%	2.7%	7.2%	7.7%	36.7%	46.3%	34.1%	16.1%
인턴 사원제 통해	빈도	12	1					13
	%	1.2%	1.4%					.8%
기타	빈도	18			2	15	9	44
	%	1.8%			3.3%	3.7%	20.5%	2.8%
전체	빈도	1000	69	13	60	402	44	158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584.535, P=.000

3. 직업 생활

가.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 여부

1) 성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맞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70.2%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9.8%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의 부정적인 응답(30.7%)이 남성(29.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Ⅳ-91>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여부(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매우 그렇다.	빈도	124	84	208
	%	12.3%	11.9%	12.1%
그렇다.	빈도	592	404	996
	%	58.6%	57.4%	58.1%
그렇지 않다.	빈도	239	181	420
	%	23.6%	25.7%	24.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56	35	91
	%	5.5%	5.0%	5.3%
전체.	빈도	1011	704	1715
	%	100.0%	100.0%	100.0%

χ^2=6.280, P=.043

2) 연령별

연령별로 일과 적성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세대보다는 낮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10대는 46.3%, 20대는 32.5%, 30대는 26.1%, 40대는 29.4%,

50대는 32.1%, 60대는 27.7%로 나타났다.

<표 Ⅳ-92>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 여부(연령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29세	40~49세	50~59세	60~64세	
매우 그렇다.	빈도	2	47	70	58	25	6	208
	%	4.9%	11.6%	13.1%	13.5%	10.4%	9.2%	12.1%
그렇다.	빈도	20	227	325	245	138	41	996
	%	48.8%	55.9%	60.9%	57.1%	57.5%	63.1%	58.1%
그렇지 않다.	빈도	14	103	121	103	65	14	420
	%	34.1%	25.4%	22.7%	24.0%	27.1%	21.5%	24.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5	29	18	23	12	4	91
	%	12.2%	7.1%	3.4%	5.4%	5.0%	6.2%	5.3%
전체.	빈도	41	406	534	429	240	65	171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52.541, P=.000

3) 학력별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중졸 이하에서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졸(31.4%), 전문대졸(28.9%), 대졸(19.5%), 대학원졸 이상(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표 Ⅳ-93>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 여부(학력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매우 그렇다.	빈도	15	96	23	57	10	1	1	5	208
	%	7.1%	12.5%	11.4%	14.4%	20.8%	14.3%	4.2%	7.9%	12.1%
그렇다.	빈도	109	429	120	261	32	3	9	33	996
	%	51.7%	56.0%	59.7%	66.1%	66.7%	42.9%	37.5%	52.4%	58.1%
그렇지 않다.	빈도	70	201	46	66	5	1	11	20	420
	%	33.2%	26.2%	22.9%	16.7%	10.4%	14.3%	45.8%	31.7%	24.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17	40	12	11	1	2	3	5	91
	%	8.1%	5.2%	6.0%	2.8%	2.1%	28.6%	12.5%	7.9%	5.3%
전체.	빈도	211	766	201	395	48	7	24	63	171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73.333, P=.000

4) 직업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를 직업별로 살펴본 것이 <표 Ⅳ-94>의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 여부(직업별)이다. 이 표에 따르면 직업별로 설문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자와 서비스종사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46.5%, 32.0%이었다. 반면 관리자 및 (준)전문가 직업군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11.5%에 불과하였다.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26.0%, 28.4%이었다.

<표 Ⅳ-94>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 여부(직업별)

		직업별(5그룹)					전체
		관리자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노동자	
매우 그렇다.	빈도	63	28	28	38	26	183
	%	18.5%	9.9%	11.6%	12.5%	7.8%	12.2%
그렇다.	빈도	239	185	136	179	152	891
	%	70.1%	65.1%	56.4%	59.1%	45.6%	59.3%
그렇지 않다.	빈도	35	62	65	75	120	357
	%	10.3%	21.8%	27.0%	24.8%	36.0%	23.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4	9	12	11	35	71
	%	1.2%	3.2%	5.0%	3.6%	10.5%	4.7%
전체.	빈도	341	284	241	303	333	15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20.590, P=.000

5)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는 긍정적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고용주는 긍정적 응답이 91.8%로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상용 근로자는 72.1%, 자영업자는 71.1%이었다. 반면, 일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76.9%, 43.5%로 나타났다.

<표 Ⅳ-95> 현재의 직무와 적성의 일치여부(직업별)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매우 그렇다	빈도	128	5		15	51	1	200
	%	12.8%	7.2%		24.6%	12.6%	2.2%	12.5%
그렇다	빈도	594	34	3	41	237	28	937
	%	59.3%	49.3%	23.1%	67.2%	58.5%	60.9%	58.7%
그렇지 않다	빈도	237	22	7	4	98	12	380
	%	23.7%	31.9%	53.8%	6.6%	24.2%	26.1%	23.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43	8	3	1	19	5	79
	%	4.3%	11.6%	23.1%	1.6%	4.7%	10.9%	4.9%
전체	빈도	1002	69	13	61	405	46	15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1.691, .P=.306

나.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1) 성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과 본인의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사람들이 29.8%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과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61.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13.7%),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10.4%),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남녀별로 분석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58.6%),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18.0%), '일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9.5%),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65.1%), '일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11.6%),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8.4%),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96>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빈도	173	140	313
	%	58.6%	65.1%	61.4%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빈도	53	17	70
	%	18.0%	7.9%	13.7%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	빈도	12	9	21
	%	4.1%	4.2%	4.1%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빈도	7	18	25
	%	2.4%	8.4%	4.9%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빈도	17	2	19
	%	5.8%	.9%	3.7%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도	28	25	53
	%	9.5%	11.6%	10.4%
기타	빈도	5	4	9
	%	1.7%	1.9%	1.8%
전체	빈도	295	215	510
	%	100.0%	100.0%	100.0%

χ^2=27.513, P=.000

2) 연령별

적성이 맞지 않는 데도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를 연령 변수와 교차시켜 볼 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발견되었다. 20대 이하는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서(21.9%)라는 이유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높았고, 30대와 40대는 경제적인 이유가 각각 62.3%, 72.2%로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16.8%)과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어서(6.3%),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6.3%)라는 이유가 타 집단에 비하여 많았다.

<표 Ⅳ-97>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연령별)

		연령별(세대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빈도	79	86	91	57	313
	%	52.3%	62.3%	72.2%	60.0%	61.4%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빈도	33	17	12	8	70
	%	21.9%	12.3%	9.5%	8.4%	13.7%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	빈도	8	7	5	1	21
	%	5.3%	5.1%	4.0%	1.1%	4.1%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빈도	7	8	4	6	25
	%	4.6%	5.8%	3.2%	6.3%	4.9%
자율적 으로 일할 수 있어서	빈도	3	4	6	6	19
	%	2.0%	2.9%	4.8%	6.3%	3.7%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도	16	15	6	16	53
	%	10.6%	10.9%	4.8%	16.8%	10.4%
기타	빈도	5	1	2	1	9
	%	3.3%	.7%	1.6%	1.1%	1.8%
전체	빈도	151	138	126	95	510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4.336, P=.011

3) 학력별

적성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를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교차표를 만든 것이 <표 Ⅳ-98>이다. 고졸이하의 직업인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65.2%)이라는 것과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5.8%)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 직장인은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16.4%)와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12.9%), 그리고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5.7%)라는 이유가 고 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98>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학력별)

		학력별(2그룹)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빈도	214	77	291
	%	65.2%	55.0%	62.2%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빈도	38	23	61
	%	11.6%	16.4%	13.0%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	빈도	10	8	18
	%	3.0%	5.7%	3.8%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빈도	19	5	24
	%	5.8%	3.6%	5.1%
자율적 으로 일할 수 있어서	빈도	14	4	18
	%	4.3%	2.9%	3.8%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도	31	18	49
	%	9.5%	12.9%	10.5%
기타	빈도	2	5	7
	%	.6%	3.6%	1.5%
전체	빈도	328	140	468
	%	100.0%	100.0%	100.0%

χ^2=13528, P=.035

4) 고용 형태별

적성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이유를 고용 형태별로 알아보면, 임시근로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76.7%)과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13.3%) 등이 상용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8.6%)가 상용근로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서(16.8%)와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어서(6.46%)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99>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빈도	164	23	5	5	75	12	284
	%	58.6%	76.7%	50.0%	100.0%	64.7%	70.6%	62.0%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빈도	47		1		12		60
	%	16.8%		10.0%		10.3%		13.1%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	빈도	11	1			5		17
	%	3.9%	3.3%			4.3%		3.7%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빈도	18				3	1	22
	%	6.4%				2.6%	5.9%	4.8%
자율적 으로 일할 수 있어서	빈도	8	1			10		19
	%	2.9%	3.3%			8.6%		4.1%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도	28	4	4		10	3	49
	%	10.0%	13.3%	40.0%		8.6%	17.6%	10.7%
기타	빈도	4	1			1	1	7
	%	1.4%	3.3%			.9%	5.9%	1.5%
전체	빈도	280	30	10	5	116	17	45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41.583, P=.078

다. 직무 스트레스

1) 성별 평균

현재 직장 생활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세부 문항은 ①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 ② 직무에 대한 역할 갈등 및 모호성, ③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 ④ 직장 내 동료 관계 문제, ⑤ 직장 내 승진 어려움, ⑥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봉급 수준, 수당)의 낮음 등이다.[6] 여섯 가지 세부 문항

6)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은 크게 자율성,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승진, 보상, 업무량, 그리고 동료관계의 7개 요인에 의하여 구분된다(Cohen, S., & Willis, 1985).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은 Cohen & Willis(1985)가 제시한 개념을 토대

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평균 2.47),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낮음(2.53),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2.24), 직무에 대한 역할갈등 및 모호성(2.24), 직장 내 승진 어려움(2.13), 직장 내 동료관계 문제(1.96)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별로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Ⅳ-100> 성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

	성별						F (N=1715)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	2.24	.78	2.23	.78	2.24	.78	.054
직무에 대한 역할 갈등 및 모호성	2.24	.71	2.25	.75	2.24	.73	.018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	2.47	.81	2.45	.82	2.47	.81	.256
직장 내 동료 관계 문제	1.97	.72	1.94	.76	1.96	.73	.522
직장 내 승진 어려움	2.15	.88	2.10	.98	2.13	.92	1.343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2.56	.85	2.50	.93	2.53	.88	1.804
전 체	2.27	.53	2.23	.50	2.25	.52	2.879

*p<.05, **p<.01, ***p<.001

2) 연령별 평균

연령별로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표 Ⅳ-101>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내 승진 어려움과 직무에 대한 역할 갈등 및 모호성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 내 승진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전체 평균은 4점 척도로 2.13이었으며, 50대(1.98)와 60대(1.78)는 승진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특히 낮게 관찰되었다.

로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된 척도(이지연, 2000)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7개 영역별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 alpha는 자율성(3문항)이 .72, 역할갈등(3문항)이 .55, 역할 모호성(2문항)이 .23, 승진(2문항)이 .55, 보상(2문항)이 .79, 업무량(2문항)이 .31, 동료관계(2문항)이 .44로 총 .71의 신뢰도를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역할모호성을 역할갈등문항과 합쳐 총 6문항으로 축약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직장 내 역할 갈등 및 모호성과 관련해서도 20대(2.26)와 30대(2.26) 보다도 50대(2.13)와 60대(2.0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냈다.

여섯 개 세부 문항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20대(2.32)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2.19)의 스트레스는 가장 낮았다.

<표 Ⅳ-101> 연령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

	연 령 별														F (N=1715)
	15~19세		20~29세		30~2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2.41	.63	2.29	.68	2.22	.75	2.24	.89	2.18	.82	2.14	.85	2.24	.78	1.377
역할갈등	2.17	.54	2.34	.68	2.26	.73	2.24	.78	2.13	.71	2.06	.75	2.24	.73	3.598**
업무량과다	2.20	.71	2.45	.73	2.46	.83	2.49	.85	2.48	.84	2.57	.87	2.47	.81	1.258
동료관계	2.05	.67	2.03	.72	1.95	.69	1.95	.78	1.86	.76	1.85	.75	1.96	.73	1.976
승진어려움	2.10	.77	2.27	.87	2.16	.89	2.10	1.04	1.98	.87	1.78	.82	2.13	.92	5.099***
경제적보상	2.56	.81	2.56	.83	2.54	.93	2.50	.90	2.49	.88	2.68	.85	2.53	.88	.691
전체	2.25	.49	2.32	.48	2.26	.52	2.23	.51	2.19	.56	2.22	.57	2.25	.52	2.407*

*p<.05, **p<.01, ***p<.001

3) 학력별 평균

학력별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유의 수준 0.1%에서 유의성을 가진 문항은 직장 내 동료 관계의 문제와 직장 내 승진 어려움이었다. 재학생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직장 내 동료 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고졸(2.01), 대졸(1.98), 전문대졸(1.95), 대학원졸 이상(1.88), 중졸 이하(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승진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재학생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문대졸(2.32), 대학원졸 이상(2.21), 고졸(2.18), 대졸(2.11), 중졸 이하(1.84)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스트레스를 종합해 보면, 전문대졸(2.32)과 고졸(2.28) 보다는 대학원

졸 이상(2.14)과 중졸 이하(2.18)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Ⅳ-102> 학력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2.10	.80	2.28	.80	2.30	.74	2.20	.77	2.17	.78
역할갈등	2.11	.71	2.26	.74	2.26	.76	2.32	.69	2.00	.74
업무량과다	2.59	.88	2.48	.85	2.50	.78	2.41	.74	2.40	.82
동료관계	1.79	.68	2.01	.77	1.95	.67	1.98	.71	1.88	.84
승진어려움	1.84	.80	2.18	.93	2.32	1.00	2.11	.79	2.21	1.34
경제적보상	2.62	.90	2.54	.91	2.61	.87	2.44	.77	2.31	.97
전체	2.18	.51	2.28	.51	2.32	.54	2.25	.51	2.14	.61

	학력별								F (N=1715)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2.43	.98	2.25	.61	2.27	.77	2.24	.78	1.724
역할갈등	2.29	.49	2.17	.70	2.16	.65	2.24	.73	2.560*
업무량과다	2.29	.95	2.38	.82	2.16	.65	2.47	.81	2.525*
동료관계	2.57	.79	1.92	.72	1.75	.57	1.96	.73	3.789***
승진어려움	2.43	.79	2.17	1.66	1.92	.77	2.13	.92	5.153***
경제적보상	3.00	.82	3.13	1.48	2.40	.73	2.53	.88	3.573**
전체	2.50	.58	2.20	.46	2.10	.45	2.25	.52	2.712**

*p<.05, **p<.01, ***p<.001

4) 직업별 평균

직업별로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유의 수준 0.1%에서 여섯 개 세부 문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 판매종사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은 업무량 과다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응답했다. 단, 이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설문 문항의 중간값(2.5%) 이하 수준 이었다.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봉급수준,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무 종사자는 경제적 보상 다음으로 승진 어려움을 두 번째로 큰 스트레스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직급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간부 직급의 승진 문턱을 높인 최근 사무실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2.42)과 사무 종사자(2.38), 그리고 기계 조작 및 조립원(2.37)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2.08)와 판매 종사자(2.11)의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Ⅳ-103> 직업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

	직업별											
	고위임직원 /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1.88	.71	2.18	.66	2.23	.79	2.34	.77	2.21	.78	2.20	.80
역할 갈등	2.17	.67	2.15	.73	2.27	.71	2.39	.76	2.22	.75	2.10	.66
업무량 과다	2.37	.73	2.51	.73	2.39	.89	2.43	.79	2.51	.79	2.36	.77
동료 관계	2.00	.71	1.96	.77	1.94	.67	2.12	.80	1.95	.77	1.82	.69
승진 어려움	1.90	.77	2.16	1.18	2.11	.81	2.49	.87	2.11	.90	1.85	.77
경제적 보상	2.15	.76	2.32	.82	2.43	.82	2.67	.83	2.55	.86	2.34	.92
전체	2.08	.47	2.20	.49	2.22	.52	2.38	.49	2..26	.56	2.11	.49

	직업별										F (N=15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1.60	.78	2.19	.90	2.28	.68	2.47	.74	2.23	.78	6.128***
역할 갈등	2.03	.80	2.20	.86	2.31	.67	2.41	.68	2.25	.73	4.392***
업무량 과다	3.33	.80	2.41	.92	2.60	.78	2.55	.83	2.48	.82	6.800***
동료 관계	1.63	.67	1.91	.85	2.08	.66	2.01	.64	1.96	.74	4.447***
승진 어려움	1.58	.75	2.07	1.33	2.30	.83	2.36	.87	2.15	.93	11.797***
경제적 보상	3.05	.96	2.61	1.11	2.65	.76	2.69	.81	2.53	.88	6.982***
전체	2.20	.59	2..18	.51	2.37	.51	2.42	.51	2..26	.52	8.330***

*p<.05, **p<.01, ***p<.001

5) 고용 형태별 평균

고용 형태별로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는 경제적 보상, 승진 어려움, 업무량 과다 순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업무량 과다, 경제적 보상, 역할 갈등의 순으로, 일용 근로자는 경제보상, 역할 갈등, 낮은 자율성 순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용 형태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항목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종합해서 보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임금 근로자들이 비임금 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들이 임시 · 일용 근로자보다 스트레스를 거의 동일하게 받고 있거나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업무량의 과다, 동료 관계, 승진 문제 등은 특히 상용 근로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4> 고용 형태별 직무 스트레스 정도

	고용형태별														F (N=1596)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2.34	.73	2.38	.71	2.46	.78	1.92	.78	2.00	.86	2.13	.65	2.23	.78	14.234***
역할 갈등	2.34	.72	2.35	.66	2.54	.78	2.08	.71	2.01	.72	2.17	.64	2.25	.73	14.047***
업무량과다	2.51	.81	2.43	.74	2.15	.69	2.30	.78	2.44	.85	2.46	.86	2.48	.82	1.532
동료 관계	2.08	.72	1.99	.83	1.92	.64	1.82	.67	1.70	.72	2.02	.68	1.96	.74	16.824***
승진어려움	2.39	.89	2.39	.94	2.23	.83	1.52	.67	1.63	.72	1.91	1.26	2.15	.93	53.683***
경제적보상	2.60	.82	2.68	.85	2.69	.85	2.15	.81	2.37	.99	2.52	.86	2.53	.88	7.091***
전체	2.37	.48	2.37	.57	2.33	.51	1.96	.50	2.02	.52	2.16	.43	2.26	.52	33.637***

*p<.05, **p<.01, ***p<.001

라. 직무만족도

1) 1차 조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직업 생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세부 항목별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여섯 가지 세부 항목은 ① 직무, ②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 ③ (월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 등) 근로조건, ④ (편의 시설 등) 근무 환경, ⑤ 회사에서 자기 발전의 가능성, ⑥ 자신이 속한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이다.[7)]

설문 결과를 보면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 만족(2.87), 직무 만족(2.73), 근무 환경 만족(2.62), 근로 조건 만족(2.53), 자기 발전 가능성 만족(2.49), 직업의 사회적 평판 만족(2.63) 등으로 나타났다.

1차 년도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서는 '귀하가 하는 직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이 문항은 직무에 관한 만족을 물어보는 2차 조사의 설문문항과 동일하다. 1차 조사 결과를 2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자.

1차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75.7%이었지만, 2002년 2차 조사에서는 65.6%로서 현저히 만족도가 낮아졌다. 반면 직무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1차 조사에서는 23.3.%에 불과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32.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외환 위기하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활이 임금과 고용 형태 등의 근로 조건이나 근무 환경

---

7) 직업만족이란 직무만족의 광의개념으로 직무수행의 영향과 대인관계와 근로조건 등과 같은 직무이외의 만족(Rain, Lane & Steiner, 1991), 그리고 자기발전가능성 등과 같이 직무에서 오는 보상(Shore, Newton, Thornton, 1990)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직업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은 Quinn과 Staines(1979)가 개발한 '직무만족'의 4문항을 기초로 개발한 취업만족척도(이지연, 1999)의 10개 문항을 재구성, 축약하여 간편하게 사용하였다.

측면에서 보다 힘들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Ⅳ-105> 직무 만족 여부에 관한 1차 조사와의 비교

	1차 조사(1998)		2차 조사(2002)	
	빈도	%	빈도	%
전체	1,755	100	1,710	100
매우 만족한다.	188	10.6	34	5.3
만족한다.	1,555	65.1	521	62.3
만족하지 않는다.	363	20.5	1065	30.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9	2.8	90	2.0

2) 성별 평균

직업 만족도와 관련된 개별 항목과 남녀 사이에는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106> 성별 직업 만족도

	성 별						F (N=1715)
	남자		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에 대한 만족도	2.72	.66	2.74	.71	2.73	.68	.572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2.87	.65	2.88	.59	2.87	.62	.103
근로조건 만족도	2.51	.71	2.56	.71	2.53	.71	1.935
근무 환경 만족도	2.61	.70	2.62	.70	2.62	.70	.083
자기발전 가능성 만족도	2.52	.75	2.45	.74	2.49	.75	3.790
직업의 사회적 평판 만족도	2.65	.66	2.61	.71	2.63	.68	1.388
전체	2.64	.47	2.63	.45	2.64	.46	.104

*p<.05, **p<.01, ***p<.001

3) 연령별 평균

연령별로 직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직무에 관한 만족도는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10대의 경우 근무 환경에 관한 만족도가 대인관계와 더불어 공동 1위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세부적인 직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7> 연령별 직업 만족도

	연령별														F (N=1715)
	15~19세		20~29세		30~2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	2.59	.63	2.72	.67	2.75	.63	2.73	.73	2.68	.62	2.80	1.00	2.73	.68	.894
대인관계	2.80	.56	2.90	.59	2.88	.57	2.88	.62	2.82	.74	2.91	.74	2.87	.62	.684
근로조건	2.46	.67	2.50	.67	2.57	.66	2.54	.81	2.53	.71	2.43	.81	2.53	.71	.757
근무 환경	2.80	.78	2.63	.65	2.63	.68	2.62	.74	2.59	.67	2.42	.86	2.62	.70	1.786
자기발전 가능성	2.37	.77	2.44	.71	2.55	.68	2.52	.80	2.45	.83	2.37	.80	2.49	.75	1.898
사회적 평판	2.44	.74	2.64	.67	2.68	.62	2.60	.77	2.63	.65	2.48	.71	2.63	.68	1.358
전체	2.58	.46	2.63	.44	2.67	.43	2.60	.49	2.55	.60	2.55	.60	2.64	.46	1.31

*p<.05, **p<.01, ***p<.001

4) 학력별 평균

재학생을 제외하고 학력별로 직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에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사회적 평판과 관련해서는 대학원졸 이상(2.94), 대졸(2.77), 전문대졸(2.72), 고졸(2.60), 중졸 이하(2.38)로 나타났으며, 자기 발전 가능성, 근무 환경, 근로 조건, 직무 등에 관해서도 만족도의 순서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Ⅳ-108> **학력별 직업 만족도**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	2.62	.89	2.70	.68	2.70	.56	2.83	.63	2.83	.60
대인관계	2.85	.78	2.86	.60	2.84	.52	2.94	.63	2.85	.58
근로조건	2.31	.71	2.51	.73	2.57	.71	2.65	.65	2.73	.76
근무 환경	2.35	.74	2.59	.69	2.64	.63	2.74	.70	2.90	.69
자기발전 가능성	2.24	.68	2.50	.75	2.53	.66	2.63	.79	2.65	.79
사회적평판	2.38	.67	2.60	.70	2.72	.60	2.77	.63	2.94	.70
전체	2..44	.50	2.62	.45	2.67	.44	2.75	.43	2.82	.52

	학력별								F (N=1715)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	2.71	.95	2.63	.58	2.76	.53	2.73	.68	2.543*
대인관계	2.86	.38	2.88	.54	2.87	.55	2.87	.62	.848
근로조건	2.86	.90	2.25	.61	2.62	.63	2.53	.71	5.949***
근무 환경	3.14	1.07	2.63	.65	2.73	.54	2.62	.70	8.818***
자기발전 가능성	2.43	1.13	2.17	.70	2.32	.64	2.49	.75	6.970***
사회적평판	2.71	.95	2.46	.72	2.52	.64	2.63	.68	9.080***
전체	2..79	.74	2.50	.42	2.64	.38	2.64	.46	10.725***

*p<.05, **p<.01, ***p<.001

5) 직업별 평균

직업 만족도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여섯 개 모든 항목에서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직업 만족도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인의 직업 만족도 순위는 문항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직무에 관한 만족도의 경우 전문가(2.94), 기술공 및 준전문가(2.9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2.88), 기능인(2.80), 서비스 종사자(2.75)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3.00), 전문가(2.73), 기술공 및 준전문가(2.70), 판매 종사자(2.59), 서비스 종사자(2.54), 사무 종사자(2.50)의 순이었다. 한편, 자기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는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2.95), 전문가(2.85), 기술공 및 준전문가(2.73), 판매 종사자(2.56), 서비스 종사자(2.54), 사무 종사자(2.45)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Ⅳ-109> 직업별 직업 만족도

	직업별											
	고위임직원 /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	2.88	.46	2.94	.54	2.90	.53	2.72	.68	2.75	.71	2.74	.66
대인관계	3.10	.49	3.00	.78	2.94	.53	2.87	.66	2.89	.56	2.83	.69
근로조건	3.00	.59	2.73	.67	2.70	.63	2.50	.77	2.54	.71	2.59	.75
근무 환경	2.95	.71	2.81	.62	2.74	.59	2.70	.81	2.62	.66	2.66	.65
자기발전 가능성	2.95	.71	2.85	.95	2.72	.66	2.45	.80	2.54	.69	2.56	.67
사회적평판	3.00	.59	2.90	.58	2.90	.60	2.73	.72	2.61	.64	2.62	.64
전체	2.98	.43	2.86	.42	2.82	.40	2.63	.42	2.66	.47	2.66	.43

	직업별										F (N=15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	2.48	.72	2.80	.92	2.62	.76	2.35	.65	2.73	.69	7.944***
대인관계	2.75	.74	2.81	.61	2.86	.51	2.82	.62	2.88	.63	1.851
근로조건	2.08	.80	2.50	.65	2.40	.61	2.24	.67	2.54	.72	9.397***
근무 환경	2.18	.81	2.45	.74	2.44	.59	2.34	.73	2.62	.70	9.185***
자기발전 가능성	2.20	.88	2.37	.75	2.35	.63	2.06	.67	2.51	.75	13.554***
사회적평판	2.40	.63	2.56	.68	2.53	.65	2.10	.65	2.64	.68	17.749***
전체	2.35	.57	2.57	.47	2.53	.42	2.31	.46	2.64	.46	19.460***

*p<.05, **p<.01, ***p<.001

6) 고용 형태별 평균

고용 형태별로 직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 조건

(2.50)과 자기 발전 가능성(2.46)에서는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조건(2.32), 자기 발전 가능성(2.32), 사회적 평판(2.39)에서 각각 평균보다 낮았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대인 관계 만족도 이외에 나머지 다섯 문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고용주는 여섯 개 모든 문항에서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자기 발전 가능성(3.08)에서는 평균(2.51)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자영업자는 근무 환경(2.59)은 전체 평균(2.54)보다 낮았지만, 나머지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Ⅳ-110> 고용 형태별 직업 만족도

	고용형태별														F (N=1596)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	2.72	.68	2.67	1.04	2.08	.64	3.03	.52	2.76	.66	2.59	.54	2.73	.69	5.435**
대인관계	2.87	.58	2.81	.62	2.77	.44	3.21	.91	2.88	.68	2.74	.61	2.88	.63	4.250**
근로조건	2.50	.69	2.32	.70	2.31	.48	2.92	.71	2.61	.78	2.48	.66	2.54	.72	6.394***
근무 환경	2.62	.70	2.62	.73	2.15	.55	2.85	.73	2.59	.70	2.50	.66	2.62	.70	2.913**
자기발전 가능성	2.46	.72	2.32	.83	2.00	.41	3.08	1.05	2.59	.73	2.41	.62	2.51	.75	11.297***
사회적 평판	2.65	.68	2.39	.83	1.92	.49	2.87	.53	2.67	.65	2.59	.58	2.64	.68	6.468***
전체	2.63	.44	2.51	.53	2.20	.36	2.98	.46	2.68	.50	2.55	.43	2.64	.46	1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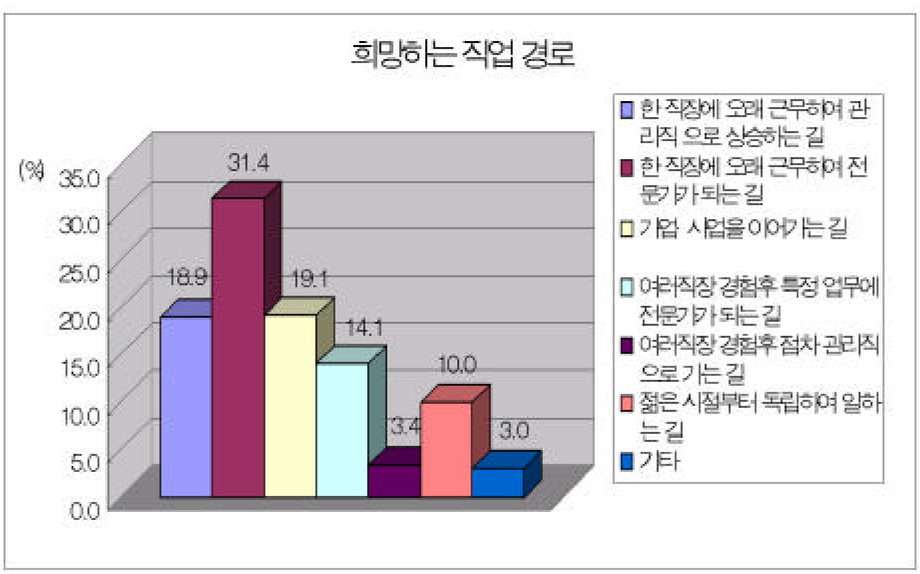
*p<.05, **p<.01, ***p<.001

마. 희망하는 직업 경로

직업 생활에 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업 생활의 다양한 길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a.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점차 관리적인 지위(최고 경영자, 임원 등)로 상승해 가는 길

b.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특정 업무에 있어 전문가가 되는 길
c. 젊은 시절 고용되어 일한 후 독립하여 일을 하거나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
d. 몇 군데 직장을 경험하고 특정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길
e. 몇 군데 직장을 경험하고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f.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을 하거나 가업이나 사업을 이어가는 길



[그림 Ⅳ-7] 희망하는 직업 경로

응답 결과를 보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3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19.1%),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18.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이고,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직장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6가지의 직업 생활의 길과 관련하여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남성은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28.1%),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23.4%),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19.8%), 여러 직장 경험 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12.5%),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는 길(1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은 한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34.8%),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17.9%), 여러 직장 경험 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15.8%),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14.7%),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8.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111> 희망하는 직업 경로(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 으로 상승하는 길	빈도	253	222	475
	%	19.8%	17.9%	18.9%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358	431	789
	%	28.1%	34.8%	31.4%
가업· 사업을 이어가는 길	빈도	298	182	480
	%	23.4%	14.7%	19.1%
여러직장 경험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159	196	355
	%	12.5%	15.8%	14.1%
여러직장 경험후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빈도	39	47	86
	%	3.1%	3.8%	3.4%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	빈도	142	109	251
	%	11.1%	8.8%	10.0%
모르겠다	빈도	25	46	71
	%	2.0%	3.7%	2.8%
기타	빈도	1	4	5
	%	.1%	.3%	.2%
전체	빈도	1275	1237	2512
	%	100.0%	100.0%	100.0%

χ^2=53.198, P=.000

2) 연령별

연령별로 바람직한 직업 경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을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다음 순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 이하는 여러 직장 경험 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19.2%), 가업 · 사업을 이어가는 길(19.0%),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17.6%)의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23.6%), 가업 · 사업을 이어가는 길(15.8%),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14.3%)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든 세대와 비교하여 젊은 세대는 여러 직장을 경험한 후 특정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길과 가업 · 사업을 이어가는 길을 선호하였다. 반면,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하여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과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을 선호하였다.

<표 Ⅳ-112> 희망하는 직업 경로(연령별)

		연령별(세대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 으로 상승하는 길	빈도	152	110	104	109	475
	%	17.6%	16.7%	19.7%	23.6%	18.9%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269	203	174	143	789
	%	31.2%	30.9%	32.9%	31.0%	31.4%
가업 · 사업을 이어가는 길	빈도	164	155	88	73	480
	%	19.0%	23.6%	16.6%	15.8%	19.1%
여러직장 경험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166	91	66	32	355
	%	19.2%	13.8%	12.5%	6.9%	14.1%
여러직장 경험후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빈도	30	26	17	13	86
	%	3.5%	4.0%	3.2%	2.8%	3.4%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	빈도	59	60	66	66	251
	%	6.8%	9.1%	12.5%	14.3%	10.0%
모르겠다.	빈도	23	13	14	26	76
	%	2.7%	2.0%	2.6%	5.6%	3.0%
기타	빈도	863	658	529	462	2512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88.904, P=.000

3) 학력별

학력별로 바람직한 직업 경로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24.3%)과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는 길(14.3%)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러 직장 경험 후 특정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길(7.5%)과 여러 직장 경험 후 관리직으로 가는 길(1.6%)에 대한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대졸 이상에서는 한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38.1%)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6.7%)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표 Ⅳ-113> 희망하는 직업 경로(학력별)

		학력별(5그룹으로 분류)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학생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 으로 상승하는 길	빈도	78	163	37	100	62	440
	%	24.3%	16.6%	15.4%	19.0%	27.2%	19.2%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97	280	71	200	63	711
	%	30.2%	28.5%	29.6%	38.1%	27.6%	31.0%
가업· 사업을 이어가는 길	빈도	51	208	55	98	35	447
	%	15.9%	21.2%	22.9%	18.7%	15.4%	19.5%
여러직장 경험후 특정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24	138	39	67	41	309
	%	7.5%	14.1%	16.3%	12.8%	18.0%	13.5%
여러직장 경험후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빈도	5	41	13	16	7	82
	%	1.6%	4.2%	5.4%	3.0%	3.1%	3.6%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	빈도	46	118	23	35	10	232
	%	14.3%	12.0%	9.6%	6.7%	4.4%	10.1%
모르겠다	빈도	20	33	2	9	10	74
	%	6.2%	3.4%	.8%	1.7%	4.4%	3.2%
기타	빈도	321	981	240	525	228	229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98.807, P=.000

4) 직업인 대 비직업인

직업인과 비직업인으로 나누어 바람직한 직업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인은 한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29.6%),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21.6%),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18.7%), 여러 직장 경험 후 전문가가 되는 길(13.0%),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는 길(1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직업인은 한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34.5%), 한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19.2%), 여러 직장 경험 후 전문가가 되는 길(16.2%),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14.8%),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는 길(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4> 희망하는 직업 경로(직업인 대 비직업인)

		직업인과 비직업인		전체
		직업인	비직업인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 으로 상승하는 길	빈도	299	176	475
	%	18.7%	19.2%	18.9%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473	316	789
	%	29.6%	34.5%	31.4%
가업· 사업을 이어가는 길	빈도	345	135	480
	%	21.6%	14.8%	19.1%
여러직장 경험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	빈도	207	148	355
	%	13.0%	16.2%	14.1%
여러직장 경험후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빈도	50	36	86
	%	3.1%	3.9%	3.4%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	빈도	180	71	251
	%	11.3%	7.8%	10.0%
모르겠다	빈도	43	33	76
	%	2.7%	3.6%	3.0%
기타	빈도	1597	915	2512
	%	100.0%	100.0%	100.0%

χ^2=32.971, P=.000

바. 여성 취업에 관한 의식

1) 1차 조사와의 비교

여성 취업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하기 위하여, 여성의 취업은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도 동일한 설문 문항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9가지 선택지에 대한 응답 순위를 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1위에서 3위까지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4위는 1차 조사에서는 자녀 성장 후 취업이었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결혼 전까지 취업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는 1차 조사 결과 보다 여성 취업에 관하여 우리 나라 국민들이 보다 개방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이나 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차 조사에서는 38.5%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40.0%로 증가하였다. 반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응답은 8.5%에서 6.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 취업에 관하여 2차 조사의 결과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여성 취업에 반드시 개방적으로 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결혼 전까지 취업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은 1차 조사에서는 6.0%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9.7%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이 문항을 채택한 남성들이 1997년에는 7.4%이었는데 2002년에는 1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 취업에 관해 남성들의 보다 개방적 의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표 Ⅳ-115>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형태에 관한 1차 조사와의 비교

		1차 조사(1997)			2차 조사(2002)		
		성별		전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가정에만 전념	빈도	195	59	254	106	58	164
	%	12.5	4.1	8.5	8.3%	4.7%	6.5%
결혼 전까지 취업	빈도	116	65	181	161	82	243
	%	7.4	4.5	6.0	12.6%	6.6%	9.7%
자녀출산 전까지 취업	빈도	133	66	199	108	51	159
	%	8.5	4.6	6.6	8.5%	4.1%	6.3%
자녀출산 후 취업	빈도	34	42	79	42	27	69
	%	2.2	2.9	2.5	3.3%	2.2%	2.7%
자녀성장 후 취업	빈도	164	146	310	82	102	184
	%	10.5	10.2	10.3	6.4%	8.2%	7.3%
결혼전과 자녀출산 후 취업	빈도	144	168	312	125	129	254
	%	9.2	11.7	10.4	9.8%	10.4%	10.1%
결혼전과 자녀양육 후 취업	빈도	229	266	495	183	229	412
	%	14.6	18.5	16.5	14.3%	18.5%	16.4%
결혼· 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빈도	538	617	1,155	450	556	1006
	%	34.4	43.0	38.5	35.3%	44.9%	40.0%
기타	빈도	13	5	18	19	4	23
	%	0.7	0.5	0.7	1.5%	.3%	.9%
전체	빈도	1566	1434	300	1276	1238	2514
	%	100	100	1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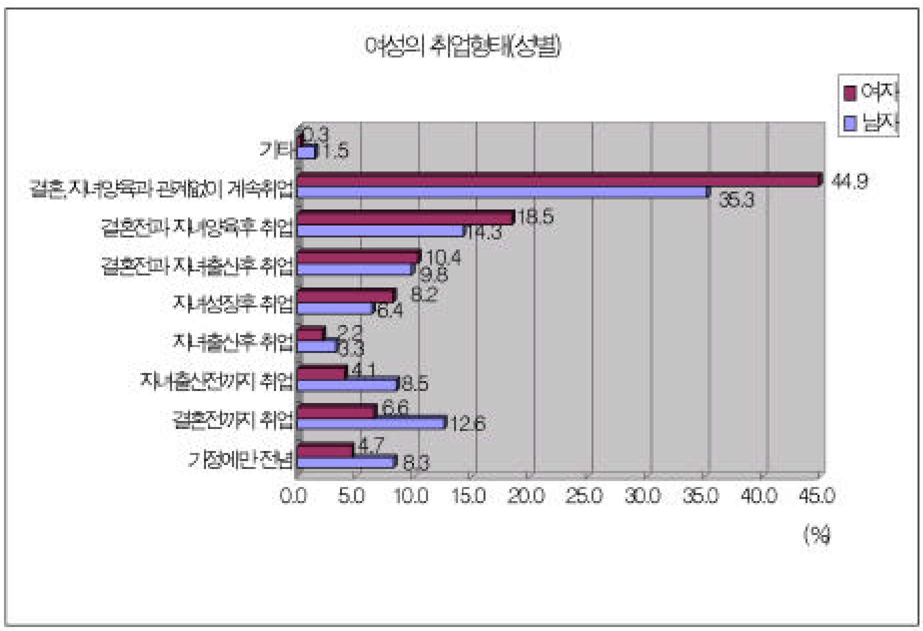
χ^2=91.198, P=.000

2) 성별

<표 Ⅳ-116>의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성별)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자녀 양육과 관계 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16.4%), 결혼 전과 자녀출산 후 취업(10.1%), 자녀 성장 후 취업(7.3%), 결혼 전까지 취업(9.7%), 가정에만 전면(6.5%), 자녀 출산 후 취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결혼 전까지 취업(12.6%),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8.5%), 가정에만 전념(8.3%)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여자는 결혼·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44.9%),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18.5%), 자녀 성장 후 취업(8.2%)에 대한 응답이 남성에 비하여 많았다.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여성 취업에 관하여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Ⅳ-8]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 형태(성별)

<표 Ⅳ-116>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가정에만 전념	빈도	106	58	164
	%	8.3%	4.7%	6.5%
결혼 전까지 취업	빈도	161	82	243
	%	12.6%	6.6%	9.7%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	빈도	108	51	159
	%	8.5%	4.1%	6.3%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42	27	69
	%	3.3%	2.2%	2.7%
자녀 성장 후 취업	빈도	82	102	184
	%	6.4%	8.2%	7.3%
결혼 전과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125	129	254
	%	9.8%	10.4%	10.1%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	빈도	183	229	412
	%	14.3%	18.5%	16.4%
결혼·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빈도	450	556	1006
	%	35.3%	44.9%	40.0%
기타	빈도	19	4	23
	%	1.5%	.3%	.9%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χ^2=91.198, P=.000

3) 연령별

바람직한 여성의 취업 형태에 관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대조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20대 이하의 경우 결혼·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48.8%)과 결혼 전과 자녀 출산 후 취업(11.7%),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7.5%)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17.3%), 가정에만 전념(12.6%), 자녀 성장 후 취업(10.4%)에 관한 응답이 20대 이하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체로 50대 이상은 여성 취업에 관하여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 Ⅳ-117>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연령별)

		연령별(세대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가정에만 전념	빈도	21	39	46	58	164
	%	2.4%	5.9%	8.7%	12.6%	6.5%
결혼 전까지 취업	빈도	89	56	52	46	243
	%	10.3%	8.5%	9.8%	10.0%	9.7%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	빈도	65	44	23	27	159
	%	7.5%	6.7%	4.3%	5.8%	6.3%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18	28	13	10	69
	%	2.1%	4.3%	2.5%	2.2%	2.7%
자녀 성장 후 취업	빈도	26	51	59	48	184
	%	3.0%	7.8%	11.2%	10.4%	7.3%
결혼 전과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101	67	48	38	254
	%	11.7%	10.2%	9.1%	8.2%	10.1%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	빈도	114	128	90	80	412
	%	13.2%	19.5%	17.0%	17.3%	16.4%
결혼· 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빈도	422	237	193	154	1006
	%	48.8%	36.0%	36.5%	33.3%	40.0%
기타	빈도	9	8	5	1	23
	%	1.0%	1.2%	.9%	.2%	.9%
전체	빈도	865	658	529	462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48.517, P=.000

4) 학력별

학력은 여성에게 바람직한 취업 형태에 대한 의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은 가정에만 전념(11.5%)과 자녀 성장 후 취업(12.1%)에 관해서는 타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지만, 결혼 전과 자녀출산 후 취업(5.6%), 그리고 결혼·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36.4%)에 관해서는 평균이하의 응답을 보였다. 반면 대졸이상의 응답자는 결혼 전과 자녀 출산 후 취업(12.4%),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7.4%)에서는 수치가 높았지만, 자녀 성장 후 취업(6.7%)과 가정에만 전념(4.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표 Ⅳ-118>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학력별)

		학력별(5그룹으로구분)					전체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학생	
가정에만 전념	빈도	37	83	13	25	6	164
	%	11.5%	8.5%	5.4%	4.8%	1.3%	6.5%
결혼 전까지 취업	빈도	27	96	22	48	50	243
	%	8.4%	9.8%	9.2%	9.1%	11.2%	9.7%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	빈도	17	46	25	39	32	159
	%	5.3%	4.7%	10.4%	7.4%	7.2%	6.3%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7	35	6	11	10	69
	%	2.2%	3.6%	2.5%	2.1%	2.2%	2.7%
자녀 성장 후 취업	빈도	39	90	12	35	8	184
	%	12.1%	9.2%	5.0%	6.7%	1.8%	7.3%
결혼 전과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18	101	29	65	41	254
	%	5.6%	10.3%	12.1%	12.4%	9.2%	10.1%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	빈도	57	182	40	85	48	412
	%	17.8%	18.5%	16.7%	16.2%	10.8%	16.4%
결혼· 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빈도	117	344	89	209	247	1006
	%	36.4%	35.0%	37.1%	39.8%	55.4%	40.0%
기타	빈도	2	5	4	8	4	23
	%	.6%	.5%	1.7%	1.5%	.9%	.9%
전체	빈도	321	982	240	525	446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54.997, P=.000

5) 사회 집단별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등 사회 집단별로 여성의 바람직한 취업형태에 관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집단별로 응답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부는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22.9%)과 자녀 성장 후 취업(11.4%)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았지만 결혼 전까지 취업(6.9%)과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7.6%)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았다. 이 점은 자녀들을 일정하게 성장시킨 다음,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은 결혼·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55.7%)에 대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결혼 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11.1%)과 가정에만 전념(1.4%),

자녀 성장 후 취업(2.4%)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응답을 보였다.

<표 Ⅳ-119>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가정에만 전념	빈도	119	2	29	6	8	164
	%	7.4%	4.8%	6.9%	1.4%	20.5%	6.5%
결혼 전까지 취업	빈도	164	5	29	42	3	243
	%	10.3%	11.9%	6.9%	10.1%	7.7%	9.7%
자녀 출산 전까지 취업	빈도	99	3	20	31	6	159
	%	6.2%	7.1%	4.8%	7.5%	15.4%	6.3%
자녀 출산 후 취업	빈도	39	3	14	10	3	69
	%	2.4%	7.1%	3.3%	2.4%	7.7%	2.7%
자녀 성장 후 취업	빈도	124	3	48	6	3	184
	%	7.8%	7.1%	11.4%	1.4%	7.7%	7.3%
결혼 전과 자녀출산 후 취업	빈도	176	2	32	40	4	254
	%	11.0%	4.8%	7.6%	9.6%	10.3%	10.1%
결혼 전과 자녀양육 후 취업	빈도	259	6	96	46	5	412
	%	16.2%	14.3%	22.9%	11.1%	12.8%	16.4%
결혼· 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빈도	600	17	151	231	7	1006
	%	37.5%	40.5%	36.0%	55.7%	17.9%	40.0%
기타	빈도	18	1	1	3		23
	%	1.1%	2.4%	.2%	.7%		.9%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41.990, P=.000

4. 직업 전환

현재 직업이 있는 근로자에게 묻는 직업 전환 질문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업 전환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개인의 직업명과 퇴사이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는 현재 상태에서 직종·직장 전환 의도를 질문하였고, 셋째는 직업 전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에게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를 질문하였다. 넷째는 직업 전환 시 중요하게 인식되는 구직 기준을 질문하였으며, 다섯째는 이러한 직업 전환을 위하여 준비하는 구체적 활

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만약,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는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상황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질문하여 보다 실제적 상황에서의 직업 전환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가. 직업 전환 경험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현재의 직장이 학교를 졸업하신 후, 설문한 시점인 2002년 6월 시점까지의 직장 옮긴 횟수를 질문하였다. 1,598명의 응답자들은 현재 직장이 최소 첫 번째에서 최고 스무번째 직장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직장은 평균 2.37번째로 나타났다.

1)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현재의 직장이 두 번째인 경우가 33.1%로 가장 집중된 현상을 나타냈으며, 여성의 경우도 두 번째에 35.1%의 집중된 현상을 나타냈다. 직장을 옮기는 분포를 보면, 남성은 첫 번째에서 스무 번째까지의 넓은 직업 전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약 68.3%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직장이 세 번째인 경우부터는 남자의 경우가 23.8%로 여자의 경우 21.5%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직업이동부터 보이는 낮은 여성의 빈도 분포 결과는 여성의 직업 전환 경험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음과 동시에 직업 전환의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가사’와 ‘양육’이라는 부담으로 ‘가정 지향’ 혹은 ‘경력 지향’의 이중 구조의 선택을 하거나 혹은 가정과 경력이라는 직업 생활의 탄력적 운영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직업 활동 특성 및 그 장애 요인이라 설명할 수 있다.

<표 Ⅳ-120> 현재의 직장이 몇 번째인가(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첫 번째	빈도	258	209	467
	%	26.6%	33.2%	29.2%
두 번째	빈도	321	221	542
	%	33.1%	35.1%	33.9%
세 번째	빈도	231	135	366
	%	23.8%	21.5%	22.9%
네 번째	빈도	75	39	114
	%	7.7%	6.2%	7.1%
다섯 번째	빈도	43	13	56
	%	4.4%	2.1%	3.5%
여섯 번째	빈도	15	7	22
	%	1.5%	1.1%	1.4%
일곱번째	빈도	15	1	16
	%	1.5%	.2%	1.0%
여덟번째	빈도	3		3
	%	.3%		.2%
아홉번째	빈도		1	1
	%		.2%	.1%
열번째		6	3	9
		.6%	.5%	.6%
열다섯번째		1		1
		.1%		.1%
스무번째		1		1
		.1%		.1%
전체	빈도	969	629	1598
	%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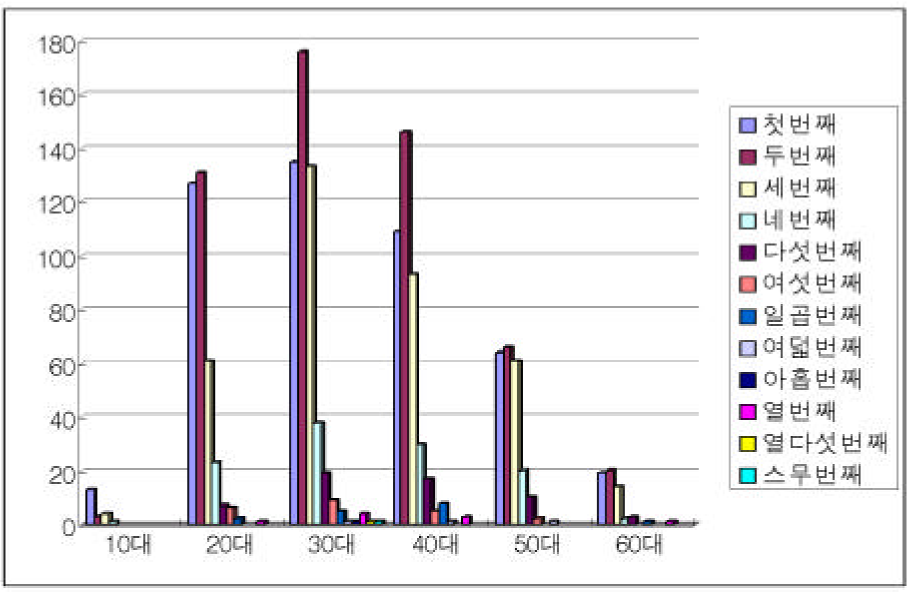
χ^2=184.478, P=.000

2) 연령별

연령에 따른 직장이동 횟수를 살펴보면, 10대(61.9%)의 경우 현재의 직장이 첫 번째인 경우로 과반수이상이 몰려있는 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경우는 2회에 36.6%, 33.7%, 35.4%, 29.5%, 33.3%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0 39세의 경우는, 현재의 직장이 4번째부터 20번째인 경우가 15.2%나 되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다양한 직장 전환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30대에 빈번한 직장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은 40-50대에 비하여 30대가 자신의 경력 확대를 위하여 가장 활발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는 양상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년 이후의 직업 전환보다는 30대의 직업 전환이 한국의 조직 문화 속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직장 이동 횟수의 분포는 역V자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10대부터 점차 증가하는 직업 전환경험을 시작하여 30 39세에 가장 왕성한 직업 전환경험을 보이다 60대까지 점차 감소하는 역V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9] 현재의 직장이 몇 번째인가(연령별)

<표 Ⅳ-121> 현재의 직장이 몇 번째인가(연령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첫 번째	빈도	13	127	135	109	64	19	467
	%	61.9%	35.5%	25.8%	26.5%	28.6%	31.7%	29.2%
두 번째	빈도	3	131	176	146	66	20	542
	%	14.3%	36.6%	33.7%	35.4%	29.5%	33.3%	33.9%
세 번째	빈도	4	61	133	93	61	14	366
	%	19.0%	17.0%	25.4%	22.6%	27.2%	23.3%	22.9%
네 번째	빈도	1	23	38	30	20	2	114
	%	4.8%	6.4%	7.3%	7.3%	8.9%	3.3%	7.1%
다섯 번째	빈도		7	19	17	10	3	56
	%		2.0%	3.6%	4.1%	4.5%	5.0%	3.5%
여섯 번째	빈도		6	9	5	2		22
	%		1.7%	1.7%	1.2%	.9%		1.4%
일곱번째	빈도		2	5	8		1	16
	%		.6%	1.0%	1.9%		1.7%	1.0%
여덟번째	빈도			1	1	1		3
	%			.2%	.2%	.4%		.2%
아홉번째	빈도			1				1
	%			.2%				.1%
열번째			1	4	3		1	9
			.3%	.8%	.7%		1.7%	.6%
열다섯번째				1				1
				.2%				.1%
스무번째	빈도			1				1
	%			.2%				.1%
전체	빈도	21	358	523	412	224	60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36.758, P=.000

3) 학력별

학력별에 따른 직장 이동 횟수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갈수록 직장이동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졸 이하, 그리고 고졸의 경우는 현재의 직장이 열 번째에서 20번째까지의 다양한 직장 이동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문대졸에서 대학원졸 이상으로 갈수록 그 양상이 줄어들고 있다. 전문대졸의 경우 열 번째 직장 경험까지, 대졸

의 경우 일곱 번째 직장 경험까지,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는 다섯 번째까지의 직장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일수록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 및 지위의 안정이 주어지는 반면, 저학력의 경우 불완전한 고용 형태 및 직장 내 지위로 인하여 잦은 직장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22> 현재의 직장이 몇 번째인가(학력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첫 번째	빈도	62	180	51	136	21	5	12	467
	%	32.5%	24.3%	26.0%	34.8%	44.7%	45.5%	60.0%	29.2%
두 번째	빈도	54	270	73	124	17	1	3	542
	%	28.3%	36.4%	37.2%	31.7%	36.2%	9.1%	15.0%	33.9%
세 번째	빈도	47	182	32	92	7	4	2	366
	%	24.6%	24.5%	16.3%	23.5%	14.9%	36.4%	10.0%	22.9%
네 번째	빈도	12	54	19	26	1	1	1	114
	%	6.3%	7.3%	9.7%	6.6%	2.1%	9.1%	5.0%	7.1%
다섯 번째	빈도	7	27	12	8	1		1	56
	%	3.7%	3.6%	6.1%	2.0%	2.1%		5.0%	3.5%
여섯 번째	빈도	1	14	4	2			1	22
	%	.5%	1.9%	2.0%	.5%			5.0%	1.4%
일곱번째	빈도	2	8	3	3				16
	%	1.0%	1.1%	1.5%	.8%				1.0%
여덟번째	빈도	2		1					3
	%	1.0%		.5%					.2%
아홉번째			1						1
			.1%						.1%
열번째		4	4	1					9
		2.1%	.5%	.5%					.6%
열다섯번째	빈도		1						1
	%		.1%						.1%
스무번째	빈도		1						1
	%		.1%						.1%
전체	빈도	191	742	196	391	47	11	20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45.107, P=.000

나. 직업 전환경로

1) 퇴직 이유

현재 직장을 제외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직장 이동 중에서 경험한 퇴사 이유를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직장 전환을 경험한 1,102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문항은 '근로조건이 나빠서'(22.5%)의 응답이었다. 그 외, '적성에 안 맞아서(19.6%),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11.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현재의 직장이 두 번째인 경우의 응답자 566명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문항은 '근로 조건이 나빠서'(20%), '일이 힘들어서'(16.3%), '적성에 안 맞아서'(14.8%)로 응답되었으며, 3회에서 6회까지의 직장 퇴사 이유의 빈도 1순위는 '근로 조건이 나빠서'로 응답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퇴직 이유를 '회사의 휴업·폐업', '회사 인원 감축', '근로조건이 나빠서' 등과 같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 인맥 없음', '대인 관계 문제', '능력 부족', '건강', '운 없음' 등과 같이 자기 내부에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의 귀인양식이 외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3>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근로 조건이 나빠서	248	22.5	113	20.0	53	24.5	31	29.8	15	29.4	7	23.3
일이 힘들어서	132	12.0	92	16.3	25	11.6	12	11.5	5	9.8	6	20.0
적성에 안맞아서	216	19.6	84	14.8	25	11.6	17	16.3	10	19.6	4	13.3
회사의 휴업· 폐업 등으로	76	6.9	65	11.5	23	10.6	7	6.7	3	5.9	2	6.7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34	3.1	19	3.4	12	5.6	2	1.9	2	3.9	1	3.3
직장 기여도 부족	14	1.3	5	.9	5	2.3						
상사와의 마찰로	37	3.4	24	4.2	15	6.9	3	2.9	2	3.9	1	3.3
인맥이 없음	5	.5	2	.4	1	.5			1	2.0	1	3.3
대인관계 문제	13	1.2	9	1.6	4	1.9	4	3.8	2	3.9		
성차별	3	.3	2	.4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21	1.9	11	1.9	8	3.7	4	3.8			1	3.3
결혼,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130	11.8	42	7.4	8	3.7	3	2.9				
건강상의 이유로	37	3.4	14	2.5	9	4.2	1	1.0	1	2.0	3	10.0
운이 없음	4	.4	9	1.6	5	2.3	4	3.8	1	2.0		
기타	132	12.0	75	13.3	23	10.6	16	15.4	9	17.6	4	13.3
합 계	**1102**	**100.0**	**566**	**100.0**	**216**	**100.0**	**104**	**100.0**	**51**	**100.0**	**30**	**100.0**

2) 직장이동에 따른 재직 기간

직장을 옮긴 횟수에 따른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직장 옮긴 횟수가 많을수록 재직 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회의 경우 평균 재직 기간은 71.80, 2회는 53.55, 3회는 37.86, 4회는 32.13, 5회는 21.88로 점차 줄어드는 재직 기간을 보이다가 6회의 경우는 다시 27.07개월로 다소 재직 기간의 증가를 엿볼 수 있다.

<표 Ⅳ-124>직장을 옮긴 횟수에 따른 재직 기간 (단위 : 월)

	1회 (N=541)		2회 (N=364)		3회 (N=113)		4회 (N=55)		5회 (N=21)		6회 (N=3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	71.80	80.16	53.55	42.75	37.86	28.00	32.13	21.02	21.88	14.33	27.07	21.32

3) 직업별 직업이동경로

전체 1,124명이 9개 직업 분류에 따라 직업 이동한 경로가 다음의 표에서 제시되어 있다. 9개 직업은 입법 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근로자, 농·어업 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원, 그리고 단순 노무원이다.

<표Ⅳ-125>는 첫 직업과 현재의 직업과의 일치 여부가 빈도와 %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 1,124명중 첫 직업과 현재의 직업이 동일한 사람은 총 420명(37.4%)인 반면, 타 직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총 804명(62.6%)으로 나타났다.

입법 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총 10명의 근로자 중 첫 직업과 현재의 직업이 동일한 사람은 전체의 3명(30%)인 반면 다른 직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7명(70%)으로 나타났다. 단순 노무원의 경우, 총 65명의 근로자중 첫 직업과 현재의 직업이 동일한 사람은 15명(23.1%)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직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50명(76.9%)으로 나타났다. 입법 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중 직업 이동에 응답한 근로자가 총 10명에 지나지 않아 직업별 %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9개 직업별 첫 직업과 현재 직업이 일치하는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서비스, 판매 근로자(49.4%), 전문가(43.8%), 사무직원(41.3%)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직업은 농·어업근로자(7.4%)와 단순 노무원(23.1%)으로 나타나, 서비스·판매 근로자, 전문가, 사무 직원에 비하여 농·어업 근로자 및 단순 노무원의 이동이 타 직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5> 첫 직업과 현재 직업의 일치·비일치 (단위 : 명)

직업군	1	2	3	4	5	6	7	8	9	합계
동일 직업	3(30.0)	39(43.8)	36(24)	148(41.3)	127(49.4)	2(7.4)	29(26.1)	21(36.8)	15(23.1)	420(37.4)
타직업 이동	7(70.0)	50(56.2)	114(76)	210(58.7)	130(50.6)	25(92.6)	82(73.9)	36(63.2)	50(76.9)	804(62.6)
합계	10(100.0)	89(100.0)	150(100.0)	358(100.0)	257(100.0)	27(100.0)	111(100.0)	57(100.0)	65(100.0)	1124(100.0)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직업이동경로에 대한 직업 전환횟수와 근무기간이 1회부터 7회(현재 직업)까지 9개 직업분류별로 부록2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2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근로자의 직업 전환마다의 직업명을 9개 번호로 그리고 재직 기간이 괄호안에 표시되어 있고 총 1,124명에 대한 %가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직업과 현재 직업과의 비일치로 타 직업으로의 전환이 높은 농어업근로자 및 단순노무원의 직업이동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업근로자의 경우 부록2의 <표 7>에 자세하게 직업 전환 횟수별 근무기간 및 직업명이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첫 줄의 경우, 첫 직업이 농어업근로자이기에 6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첫 직업에서 120개월 근무하였으며 설문당시 3번의 직업인 기술공 및 준 전문가인 사람이 1,124명중 1명으로 전체의 0.1%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줄의 경우는 첫 직업(농어업근로자)에서 148개월 일하였으며, 설문 당시 4번으로 표기된 사무직원인 사람이 1,124명중 3명이고 전체의 0.3%로 표시되어 있다. 가장 하단의 경우는 총 4회의 직업 전환이 있었으며, 첫 직업은 농어업근로자로 36개월 일하였고, 두 번째 직업은 9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단순노무원으로 12개월, 세 번째 직업도 동일한 단순노무원으로 24개월, 네 번째 직업도 단순노무원으로 18개월 일하였으며, 설문 당시 역시 단순노무원으로 1,124명중 1명인 0.1%로 표시되어 있다.

단순노무원의 직업이동이 부록2의 <표 9>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첫 줄의 경우, 첫 직업이 단순노무원이기에 9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회의 직업 전환을 하였고, 첫 직업에서 36개월간 일하였고 설문당시에는 1번으로 표기된 입법/ 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124명중 1명으로 전체의 0.1%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줄의 경우 역시 1회의 직업 전환이 있고 첫 직업(단순노무원)에서 9.5개월 일하였으며 설문당시 4번으로 표기된 사무직원인 사람이 2명으로 전체의 0.2%로 표시되어 있다. 맨 하단의 경우는 총 4회의 직업 전환이 있었으며, 직업 전환마다 동일한 직업내의 이동(직장의 전환)으로 첫 번째는 12개월 두, 세 번째는 3개월, 네 번째는 24개월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124명중 1명으로 0.1%로 표시되어 있다.[8]

---

8) 직업별직업이동경로표는 직업별 근로자의 직업이동 방향(동일직업 혹은 타직

다. 직업 전환 의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 전환에 대한 의도를 질문하였다. 총 1,697명의 응답자 중 '직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16.8%)와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 있다'(11.3%)에 비해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72%)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를 전후한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평생 직장'의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 평생 직업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빠른 직업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의 요소가 직업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직업이 주는 안정성(job security)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조직 상황에서 새롭게 직업을 전환한 사람에 대한 적합한 예우 및 처우 제공, 그리고 조직 내 직원들 간의 화합의 문제 등이 직업 전환자에게 이롭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1) 연령별

본 응답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의 빈도가 15-19세의 경우, 47.2%, 20 29세의 경우, 57.6%, 30 39세의 경우, 70.4%, 40 49세 76.5%, 50 59세의 경우 90.8%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직업 전환에 대한 부정적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업)과 직업이동횟수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 있어 향후, 직업별 직업이동경로연구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표 Ⅳ-126> 연령별 직업 전환의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직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	빈도	13	107	87	61	12	5	285
	%	36.1%	27.0%	16.3%	14.2%	5.0%	7.8%	16.8%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 있다	빈도	6	61	71	40	10	3	191
	%	16.7%	15.4%	13.3%	9.3%	4.2%	4.7%	11.3%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빈도	17	228	375	328	217	56	1221
	%	47.2%	57.6%	70.4%	76.5%	90.8%	87.5%	72.0%
전체	빈도	36	396	533	429	239	64	169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10.503, P=.000

2) 고용 형태별

직업 전환 의도와 고용 형태와의 관계 역시 매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 형태가 비교적 안정된 상용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의 빈도가 각 70.2%, 85.2%,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7> 고용 형태별 직업 전환의도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직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	빈도	170	19	3	6	56	5	259
	%	16.9%	27.5%	23.1%	9.8%	13.8%	10.9%	16.2%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 있다	빈도	129	16	6	3	24	3	181
	%	12.8%	23.2%	46.2%	4.9%	5.9%	6.5%	11.3%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빈도	705	34	4	52	325	38	1158
	%	70.2%	49.3%	30.8%	85.2%	80.2%	82.6%	72.5%
전체	빈도	1004	69	13	61	405	46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62.395, .P=.000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직업 전환은 자신의 새로운 경력 확장을 통한 직업발전의 의미보다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같은 현재의 직업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상용근로자일수록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본 응답의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직업 세계는 끊임없이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 전환을 준비할 충분할 시간과 자원으로 자신의 직업 생활을 발전을 스트레스 없이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Ⅳ-128> 직업 전환의도(현재상태유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직업 전환의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N=1,158)		전체 (N=159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	2.17	.17	2.24	.78
직무에 대한 역할갈등 및 모호성	2.17	.69	2.24	.73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	2.44	.77	2.47	.81
직장내 동료관계 문제	1.92	.70	1.96	.73
직장내 승진 어려움	2.06	.82	2.13	.92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2.44	.82	2.53	.88

‘현재 직업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로 응답한 1158명과 전체집단 1598명과의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위 표에서 살펴보았다. 표와 같이 전체 집단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6문항의 평균 값에 비하여 현재 직업 전환 의도를 갖지 않는 집단의 평균값이 전 문항에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라. 직업 전환의 고려 이유

직장 및 직종 전환과 관련하여 70.2%가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로 응답하였으나, 새로운 직종(업종)과 직장(일터)의 전환 의도를 가지고 있는 476명에게 12개 항목의 이유를 구조화하여 질문하였다.

전체응답자 476명 중,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19.5%,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18.5%, '보람을 느낄 수 가 없다' 12%, '회사전망이 좋지 않다' 11.3%, '근로 조건이 불만스럽다' 9.7%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1)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총 184명 중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1순위가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20.7%)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20.7%), 2순위가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10.3%)로 나타난 반면, 남성응답자 총 292명중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1순위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18.8%), 2순위가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17.1%), 3순위는 '회사전망이 좋지 않다'(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여성의 경우, 직업을 전환하는 1순위가 '적성의 문제와 일한 만큼의 인정'이라면 남성의 경우 '일한 만큼의 인정'이 1순위로 그리고 '적성의 문제'는 2순위의 빈도로 나타냈다. 빈도에 의한 순위를 가지고 성별에 의한 직업 전환 이유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나,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는 달리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다'의 요인이 개인의 적성 불일치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직업 전환 이유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정경제'의 책임이 남성에게 주어진 사회 관습적 요인으로 인하여 직업 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직'으로 연결되고 곧 '경

제적 독립감'을 상실한다는 전제가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내부 문제로부터 오는 '적성 불일치'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신, 자신의 외부 문제로부터 오는 '대가의 불인정' 그리고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다'와 같은 환경적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외부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경향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또 다른 결과는 여성의 경우 직업 전환 고려 이유의 3순위 이유로 '보람을 느낄 수 가 없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남성의 직업 전환 고려이유의 3순위인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와 상호 대응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직업 전환의 실패로 인한 실직, 그리고 상실되는 '경제적 독립감'에 대한 사회관습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자신의 내부와 결부된 문제, 즉 '보람과 적성'의 문제를 보다 비중 있는 직업 전환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Ⅳ-129> 성별 직업 전환 고려 이유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빈도	50	38	88
	%	17.1%	20.7%	18.5%
일 자체가 재미 없다.	빈도	15	16	31
	%	5.1%	8.7%	6.5%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빈도	38	19	57
	%	13.0%	10.3%	12.0%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빈도	46	8	54
	%	15.8%	4.3%	11.3%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 하지 않는다.	빈도	55	38	93
	%	18.8%	20.7%	19.5%
근로 조건이 불만 스럽다.	빈도	29	17	46
	%	9.9%	9.2%	9.7%
직급이 불만 스럽다.	빈도	3	1	4
	%	1.0%	.5%	.8%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빈도	1	4	5
	%	.3%	2.2%	1.1%
공장의 작업 환경과 복지 여건이 나쁘다.	빈도	3		3
	%	1.0%		.6%
출· 퇴근이 불편 하다.	빈도	6	3	9
	%	2.1%	1.6%	1.9%
개인 사정.	빈도	16	20	36
	%	5.5%	10.9%	7.6%
직무 관련 기술과 전문성 부족.	빈도	12	10	22
	%	4.1%	5.4%	4.6%
기타.	빈도	18	10	28
	%	6.2%	5.4%	5.9%
전체.	빈도	292	184	476
	%	100.0%	100.0%	100.0%

χ^2=27.610, P=.006

2) 직업별

직업별 직업 전환 고려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1순위로 응답된 '대가에 대한 인정'과 2순위 '적성 불일치'의 두 항목 응답에 대한 직업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를 1순위의 빈도로 표시한 직업의 경우는 '판매 종사자'(26.6%), '기능인'(29%), '기계 조작 및 조립원'(23.7%), '단순 노무직 종사자'(25%)와 같이 비전문직 분야인 반면, 승진 혹은 봉급 인상 등과 같이 외적 보상을 통하여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직장으로부터 얻지 못하여 나타나는 불만족, 즉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를 1순위의 빈도로 표시한 직업은 '전문가'(18.2%), '기술공 및 준전문가'(31.1%), '사무종사자'(24.5%), '서비스 종사자'(18.7%)로 나타나,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비전문직종의 사람들에 비하여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직업 전환 고려 1순위는 구조 조정, 정리 해고, 임금 체불 등의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40%)로 나타났다.

<표 Ⅳ-130> 직업별 직업 전환고려이유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종사자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빈도		2	2	15	12	17		9	14	10	81
	%		9.1%	4.4%	16.0%	16.0%	26.6%		29.0%	23.7%	25.0%	18.4%
일 자체가 재미없다	빈도		1	1	6	9	5	1		4	3	30
	%		4.5%	2.2%	6.4%	12.0%	7.8%	20.0%		6.8%	7.5%	6.8%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빈도		2	3	12	15	6		1	7	6	52
	%		9.1%	6.7%	12.8%	20.0%	9.4%		3.2%	11.9%	15.0%	11.8%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빈도	2	4	4	13	7	6		4	10	2	52
	%	40.0%	18.2%	8.9%	13.8%	9.3%	9.4%		12.9%	16.9%	5.0%	11.8%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 하지 않는다	빈도	1	4	14	23	14	9	1	5	12	7	90
	%	20.0%	18.2%	31.1%	24.5%	18.7%	14.1%	20.0%	16.1%	20.3%	17.5%	20.5%
근로 조건이 불만 스럽다	빈도		2	5	12	4	6	2	1	3	6	41
	%		9.1%	11.1%	12.8%	5.3%	9.4%	40.0%	3.2%	5.1%	15.0%	9.3%
직급이 불만 스럽다	빈도			1	1	1	1					4
	%			2.2%	1.1%	1.3%	1.6%					.9%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빈도		1		1		1			2		5
	%		4.5%		1.1%		1.6%			3.4%		1.1%
공장의 작업 환경과 복지 여건이 나쁘다	빈도								2		1	3
	%								6.5%		2.5%	.7%
출·퇴근이 불편 하다	빈도		1	1	2		1		1	1		7
	%		4.5%	2.2%	2.1%		1.6%		3.2%	1.7%		1.6%
개인 사정	빈도		2	7	4	8	3	1	3	2	3	33
	%		9.1%	15.6%	4.3%	10.7%	4.7%	20.0%	9.7%	3.4%	7.5%	7.5%
직무 관련 기술과 전문성 부족	빈도		1	4	3	2	2		3	1	2	18
	%		4.5%	8.9%	3.2%	2.7%	3.1%		9.7%	1.7%	5.0%	4.1%
기타	빈도	2	2	3	2	3	7		2	3		24
	%	40.0%	9.1%	6.7%	2.1%	4.0%	10.9%		6.5%	5.1%		5.5%
전체	빈도	5	22	45	94	75	64	5	31	59	40	44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28.288, P=.089

3) 고용 형태별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23.1%)를 제1순위 직업 전환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은 '보람을 느낄 수 없다',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근로 조건이 불만스럽다'의 요인을 1,2순위로 인식하고 있어, 직업 전환과 개인의 고용 형태와의 긴밀한 상호관계성을 볼 수 있다.

<표 Ⅳ-131> 고용 형태별 직업 전환고려 이유

		고용 형태(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빈도	53	7		2	15	4	81
	%	17.7%	20.0%		22.2%	18.8%	50.0%	18.4%
일 자체가 재미 없다	빈도	20	2			8		30
	%	6.7%	5.7%			10.0%		6.8%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빈도	33	6	2	1	10		52
	%	11.0%	17.1%	22.2%	11.1%	12.5%		11.8%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빈도	32	6	2	4	8		52
	%	10.7%	17.1%	22.2%	44.4%	10.0%		11.8%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 하지 않는다	빈도	69	3	1	1	14	2	90
	%	23.1%	8.6%	11.1%	11.1%	17.5%	25.0%	20.5%
근로 조건이 불만스럽다	빈도	23	6	2	1	9		41
	%	7.7%	17.1%	22.2%	11.1%	11.3%		9.3%
직급이 불만 스럽다	빈도	3				1		4
	%	1.0%				1.3%		.9%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빈도	5						5
	%	1.7%						1.1%
공장의 작업 환경과 복지 여건이 나쁘다	빈도	2		1				3
	%	.7%		11.1%				.7%
출· 퇴근이 불편하다	빈도	6				1		7
	%	2.0%				1.3%		1.6%
개인 사정	빈도	18	3			10	2	33
	%	6.0%	8.6%			12.5%	25.0%	7.5%
직무 관련 기술과 전문성 부족	빈도	14		1		3		18
	%	4.7%		11.1%		3.8%		4.1%
기타	빈도	21	2			1		24
	%	7.0%	5.7%			1.3%		5.5%
전체	빈도	299	35	9	9	80	8	44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70.464, P=.167

마. 직업 전환을 할 경우 구직 기준

현재 직업 전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총 475명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을 할 경우 구직 기준에 대한 질문을 6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직업 전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전체 응답자 475명 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어야 한다'에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3.2%로 1순위이며, '근무 시간 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25.7%)가 2순위,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14.9%)가 3순위로 나타났다.

1)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응답자간의 직업 전환 구직 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순위는 동일하나 빈도의 양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21.6%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32.2%로, '정년 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상관없다'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6.2%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가사'와 '양육'이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을 선호하고 가능하면 직업 전환으로 인하여 만약의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기보다는 정년 퇴직까지 직장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의 경우 남성은 17.5%인 반면, 여성은 10.9%로 응답하여 직업 전환시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을 남성에 비하여 낮게 가지고 있으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임금 수준은 상관없다'의 경우는 남자가 7.2%, 여자가 4.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직업 전환시 구직 기준으로 이전 직장과 조금은 월등한 조건이어야 하거나 혹은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수준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구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 눈높이를 낮추는 '하향취업'에 대한 구직 기준을 여성보다 다소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여성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남성의 직업 생활 특징이

라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32> 직업 전환시 구직 기준(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먹고 살수만 있으면 임금 수준은 상관없다	빈도	21	8	29
	%	7.2%	4.4%	6.1%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 이어야 한다	빈도	51	20	71
	%	17.5%	10.9%	14.9%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 이어야 한다	빈도	126	79	205
	%	43.2%	43.2%	43.2%
더블 직업이 가능한 직업 이어야 한다	빈도	13	4	17
	%	4.5%	2.2%	3.6%
정년 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상관없다		18	13	31
		6.2%	7.1%	6.5%
근무 시간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빈도	63	59	122
	%	21.6%	32.2%	25.7%
전체	빈도	292	183	475
	%	100.0%	100.0%	100.0%

χ^2=11.430, P=.043

2) 연령별

연령별 경향성을 살펴보면, 각 연령마다 전체 응답자의 순위별 구직 기준과 동일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몇 문항의 경우 연령대 별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정년 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상관없다’ 항목 경우는 ‘10대’ 연령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직업 전환시의 구직 기준으로 응답된 반면, ‘근무시간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항목의 경우는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직업 전환시의 구직 기준으로 응답되었다.

<표 Ⅳ-133> 연령별 직업 전환시 구직 기준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먹고 살수만 있으면 임금 수준은 상관없다	빈도	1	9	6	10	1	2	29
	%	5.3%	5.4%	3.8%	9.9%	4.5%	25.0%	6.1%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 이어야 한다	빈도		23	30	12	5	1	71
	%		13.7%	19.1%	11.9%	22.7%	12.5%	14.9%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 이어야 한다	빈도	13	78	67	34	9	4	205
	%	68.4%	46.4%	42.7%	33.7%	40.9%	50.0%	43.2%
더블 직업이 가능한 직업 이어야 한다	빈도	2	5	7	3			17
	%	10.5%	3.0%	4.5%	3.0%			3.6%
정년 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상관없다			8	7	14	1	1	31
			4.8%	4.5%	13.9%	4.5%	12.5%	6.5%
근무 시간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3	45	40	28	6		122
		15.8%	26.8%	25.5%	27.7%	27.3%		25.7%
전체	빈도	19	168	157	101	22	8	47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9.780, P=.031

이러한 결과는 성인 이전의 청소년층(10대)과 노년층(60대)간의 직업 선택의 선호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하루 8시간 정해진 직장 내에서의 일과 근무 시간외 개인 일과의 균형적 측면을 강조하는 구직 기준이 10대의 청소년층(15.8%), 20대의 성인 초기(26.8%), 30대의 성인 중기(25.5%), 40대의 성인 말기(13.9%) 그리고 장년층의 50대(27.3%)와는 달리 노년층인 60대의 집단에서는 한 사람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다. 직업과 자신의 개인 일간의 상호 균형적인 중요성이라는 측면이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를 경험한 60대 집단에게 또 다른 직업을 갖게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년 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을 직업 전환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는 청소년층인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이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 초・중・말기 응답자와 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는 안정적인 직장의 중요성을 직업 전환 기준으로 인식한 반면, 직업 경험이 없는 청소년층의 경우는 이와 같이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인식보다는 개인과

일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구직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더블직업이 가능한 직업에 대한 항목에서는 청소년층(10대, 10.5%)과 성인층(20대 : 3.0%, 30대 : 4.5%, 40대 : 3.0%)에 의하여 직업 전환 기준으로 인식된 반면, 장년층(50대)과 노년층(60대) 집단에서는 단 한 명도 직업 전환의 기준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일과 개인의 일을 선호하며, 정년 퇴직이 보장된 직장보다는 직장간의 연계 및 이동이 수월한 더블 직업이 가능한 기준을 청소년·성인층이 주요한 직업 전환 기준으로 인식하는 반면, 장년·노년층의 경우는 정년 퇴직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과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의 직장을 주요한 직업 전환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직업별

직업별 직업 전환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빈도 1순위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어야 한다'의 경우 10개 직업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빈도 2순위 항목에는 다소 직업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각 직업별 응답 빈도 2순위에 대한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위 임직원·관리자의 경우 '정년 보장의 직장'(20%)과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20%)을,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의 직장'을(19%, 20.2%),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인, 기계 조작 및 조립원, 그리고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근무 시간 외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26.7%, 33.3%, 32.8%, 19.4%, 23.7%, 35.%)으로 응답한 반면,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는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먹고살 수 만 있는 직장'을(40%) 직업 전환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직업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표 Ⅳ-134> **직업별 직업 전환시 구직 기준**

		직업별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종사자	
먹고 살수만 있으면 임금 수준은 상관없다	빈도			2	2	6	4	2	4	6	1	27
	%			4.4%	2.1%	8.0%	6.3%	40.0%	12.9%	10.2%	2.5%	6.2%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빈도	1	4	9	19	12	4	1	5	10	5	70
	%	20.0%	19.0%	20.0%	20.2%	16.0%	6.3%	20.0%	16.1%	16.9%	12.5%	15.9%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어야 한다	빈도	3	11	16	50	27	26	1	12	25	17	188
	%	60.0%	52.4%	35.6%	53.2%	36.0%	40.6%	20.0%	38.7%	42.4%	42.5%	42.8%
더블 직업이 가능한 직업이어야 한다				3	3	2	3	1		3	1	16
				6.7%	3.2%	2.7%	4.7%	20.0%		5.1%	2.5%	3.6%
정년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상관없다		1	3	3	7	3	6		4	1	2	30
		20.0%	14.3%	6.7%	7.4%	4.0%	9.4%		12.9%	1.7%	5.0%	6.8%
근무시간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빈도		3	12	13	25	21		6	14	14	108
	%		14.3%	26.7%	13.8%	33.3%	32.8%		19.4%	23.7%	35.0%	24.6%
전체	빈도	5	21	45	94	75	64	5	31	59	40	43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60.819, P=.058

바. 직업 전환 준비 활동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응답자 총 483명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활동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전체의 28.2%가 '구체적 정보수집', 24.6%가 '주변 사람과의 상담', 5.4%가 '잠시 휴직 계획 수립', 3.9%가 '학교 입학과 유학 준비', 3.3%가 '직업 훈련과 사설 학원 등록'으로 응답한 반면 본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34.6%가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되었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직업 전환 준비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응답자 292명 중 36%와 여자 응답자 191명 중 32.5%가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퍼센트를 보이는 직업 전환 활동으로는 '주변사람과의 상담'(남 : 26.7%, 여 : 21.5%)인 반면 여성이 남성에 높은 퍼센트를 보이는 직업 전환 활동은 '구체적 정보수집'(남 : 28.1% 여 : 28.3%), '직업 훈련과 사설 학원 등록'(남 : 1.7%, 여 : 5.8%), '학교 입학과 유학 준비'(남 : 3.1%, 여 : 5.2%), '휴직 계획 수립'(남 : 4.8%, 여 : 6.8%)으로 나타났다.

<표 Ⅳ-135> 성별 직업 전환 준비활동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빈도	105	62	167
	%	36.0%	32.5%	34.6%
구체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빈도	82	54	136
	%	28.1%	28.3%	28.2%
주변 사람과의 상담.	빈도	78	41	119
	%	26.7%	21.5%	24.6%
직업 훈련과 사설학원 등록.	빈도	5	11	16
	%	1.7%	5.8%	3.3%
학교 입학과 유학을 준비.		9	10	19
		3.1%	5.2%	3.9%
잠시 직장 생활을 쉬기 위한 계획 수립.	빈도	13	13	26
	%	4.5%	6.8%	5.4%
전체	빈도	292	191	483
	%	100.0%	100.0%	100.0%

χ^2=9.959, P=.076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정보 수집, 직업 훈련과 사설학원 등록, 학교 입학 및 유학 준비를 직업 전환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 36%가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에 응답하여 직업 전환을 고려는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년층인 50대 집단과 은퇴층인 60대 집단의 경우 '직업 훈련과 사설 학원 등록'과 '학교 입학과 유학의 준비' 항목에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과 성인층과는 달리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교육과 훈련 측면의 준비 활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 '주변사람과의 상담'이 전체 응답자 중 32.9%를 차지하여 1순위의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는 직업 생활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적·비공적 인적망이 형성되어 있고, 자신의 직업 전환 의사를 남에게 공개할 수 있

는 무리없는 나이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36> 연령별 직업 전환 준비활동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빈도	8	65	43	37	9	5	167
	%	42.1%	38.5%	26.7%	35.9%	39.1%	62.5%	34.6%
구체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빈도	3	36	47	39	9	2	136
	%	15.8%	21.3%	29.2%	37.9%	39.1%	25.0%	28.2%
주변 사람과의 상담.	빈도	4	41	53	16	4	1	119
	%	21.1%	24.3%	32.9%	15.5%	17.4%	12.5%	24.6%
직업 훈련과 사설 학원 등록.	빈도	2	10	2	2			16
	%	10.5%	5.9%	1.2%	1.9%			3.3%
학교 입학과 유학을 준비.	빈도	2	6	9	2			19
	%	10.5%	3.6%	5.6%	1.9%			3.9%
잠시 직장 생활을 쉬기 위한 계획 수립.	빈도		11	7	7	1		26
	%		6.5%	4.3%	6.8%	4.3%		5.4%
전체	빈도	19	169	161	103	23	8	48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41.608, P=.020

3) 학력별

학력에 따른 직업 전환 준비 활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48.6%), 고졸(42.7%), 전문대졸(23%), 대졸(21.7%), 대학원졸 이상(7.7%)과 같이 학력이 낮아질수록 직업 전환 의사는 있되 이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37> 학력별 직업 전환 준비활동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빈도	17	88	17	25	1	1	6	12	167
	%	48.6%	42.7%	23.0%	21.7%	7.7%	50.0%	54.5%	44.4%	34.6%
구체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빈도	10	44	24	44	9	1	1	3	136
	%	28.6%	21.4%	32.4%	38.3%	69.2%	50.0%	9.1%	11.1%	28.2%
주변 사람과의 상담.	빈도	7	54	24	26	1		3	4	119
	%	20.0%	26.2%	32.4%	22.6%	7.7%		27.3%	14.8%	24.6%
직업 훈련과 사설학원 등록.	빈도		8	1	5				2	16
	%		3.9%	1.4%	4.3%				7.4%	3.3%
학교 입학과 유학을 준비.			2	2	8	1		1	5	19
			1.0%	2.7%	7.0%	7.7%		9.1%	18.5%	3.9%
잠시 직장 생활을 쉬기 위한 계획 수립		1	10	6	7	1			1	26
		2.9%	4.9%	8.1%	6.1%	7.7%			3.7%	5.4%
전체	빈도	35	206	74	115	13	2	11	27	48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77.432, P=.000

4) 직업별

직업 전환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음'에 응답한 사람 149명의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면,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60%), 단순 노무직 종사자(45%), 기계조작 및 조립원(44.8%),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0%), 판매 종사자(36.9%), 서비스 종사자(36%), 사무종사자(28.4%), 기능인(25.8%), 기술 공 및 준전문가(22.2%), 전문가(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직업의 근로자가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직업 전환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며 직업 생활을 해야하는 기술·전문가 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직업 전환 준비활동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0%), 단순 노무직(45%), 기계 조작 및 조립원(44.8%)의 경우는 직업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

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활동 내용이 정보 수집, 직업 훈련과 사설 학원의 등록, 학교 입학과 유학 준비 등의 유형보다 ‘주변 사람과의 상담’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20%), 기계 조작 및 조립원(24.1%), 단순 노무직 종사자(25%)들이 직업 전환의 준비 유형으로 응답한 주변 사람과의 상담은 매우 소극적인 준비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인 정보를 통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취업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상담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가 공공 고용 안정 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통로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Ⅳ-138> 직업별 직업 전환 준비활동

		직업별										
		고위임 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전체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빈도	2	4	10	27	27	24	3	8	26	18	149
	%	40.0%	19.0%	22.2%	28.4%	36.0%	36.9%	60.0%	25.8%	44.8%	45.0%	33.9%
구체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빈도	1	10	12	28	25	26	1	8	8	10	129
	%	20.0%	47.6%	26.7%	29.5%	33.3%	40.0%	20.0%	25.8%	13.8%	25.0%	29.3%
주변 사람과의 상담	빈도	1	5	14	23	19	10	1	14	14	10	111
	%	20.0%	23.8%	31.1%	24.2%	25.3%	15.4%	20.0%	45.2%	24.1%	25.0%	25.2%
직업 훈련과 사설학원 등록			1	1	4	2	1		1	1	2	13
			4.8%	2.2%	4.2%	2.7%	1.5%		3.2%	1.7%	5.0%	3.0%
학교 입학과 유학을 준비			1	4	4	1	2			2		14
			4.8%	8.9%	4.2%	1.3%	3.1%			3.4%		3.2%
잠시 직장 생활을 쉬기 위한 계획 수립	빈도	1		4	9	1	2			7		24
	%	20.0%		8.9%	9.5%	1.3%	3.1%			12.1%		5.5%
전체	빈도	5	21	45	95	75	65	5	31	58	40	44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58.157, P=.090

사. 보다 좋은 조건에서의 스카우트 제안에 대한 반응

현재 직업 전환 의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으로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에 응답한 직업인에게 만약 귀하가 지금보다 나은 근무 환경(보수/ 직위/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의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총 1, 696명이 응답한 가운데 31%의 직업인이 ‘당장은 힘들지만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 25%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 20.6%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 16.7%가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6.8%가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로 응답하였다. 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 스카우트 제안에 대하여 ‘현재의 직장을 떠나지 않거나, 옮기고는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에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3.5%로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거나 혹은 당장은 힘들어도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에 응답한 전체의 51.6%보다 적게 응답하여 보수와 직위, 그리고 자신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제안하는 직장으로의 전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 연령별

연령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다 나은 직장 스카우트 제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40대 집단, 장년 집단(50대)과 은퇴 집단(60대)의 경우,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에 응답한 사람이 28.2%, 27.2%, 23.5%로 청소년(10대)의 11.1%, 성인 초기(20대)의 18.9%, 성인 중기(30대)의 22.2%에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특히,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10대가 38.9%, 20대가 23.5%, 30대가 21.1%, 40대가 20%, 50대가 14.2%, 60대세 15.6%로 6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빈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과 근로자간의 신뢰와 믿음을 오랜

터전으로 성장해온 우리 나라 조직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직업 경험이 많은 연장자일수록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직장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오랜 관습적 인식이 남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Ⅳ-139> 성별 스카우트 제안에 대한 반응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	빈도	14	93	112	86	34	10	349
	%	38.9%	23.5%	21.1%	20.0%	14.2%	15.6%	20.6%
당장은 힘들지만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	빈도	11	164	186	115	41	8	525
	%	30.6%	41.4%	35.0%	26.8%	17.2%	12.5%	30.9%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	빈도	4	35	40	26	9	1	115
	%	11.1%	8.8%	7.5%	6.1%	3.8%	1.6%	6.8%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빈도		40	78	95	56	14	283
	%		10.1%	14.7%	22.1%	23.4%	21.9%	16.7%
생각해 보지 않았다		7	64	116	107	99	31	424
		19.4%	16.2%	21.8%	24.9%	41.4%	48.4%	25.0%
전체	빈도	36	396	532	429	239	64	16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51.594, P=.000

2) 학력별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에 응답한 직업인에 대한 사람들의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23.8%, 고졸이 20%, 전문대졸 17,9%, 대졸 17.6%, 대학원졸 이상이 19.1%로 응답하여 학력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의 집단의 경우가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긴다는 인식을 높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좋은 직장의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올 경우, 현 직장에 대한 예의나 신뢰를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40> 학력별 스카우트 제안에 대한 반응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 졸이상	고등학교 재학중	전문대 재학중	대학교 재학중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	빈도	50	153	36	69	9	2	8	22	349
	%	23.8%	20.0%	17.9%	17.6%	19.1%	33.3%	36.4%	42.3%	20.6%
당장은 힘들지만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	빈도	33	223	91	143	13	2	6	14	525
	%	15.7%	29.2%	45.3%	36.4%	27.7%	33.3%	27.3%	26.9%	31.0%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	빈도	6	60	18	22	3	1	1	4	115
	%	2.9%	7.8%	9.0%	5.6%	6.4%	16.7%	4.5%	7.7%	6.8%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38	125	23	78	13		3	3	283
		18.1%	16.3%	11.4%	19.8%	27.7%		13.6%	5.8%	16.7%
생각해 보지 않았다		83	204	33	81	9	1	4	9	424
		39.5%	26.7%	16.4%	20.6%	19.1%	16.7%	18.2%	17.3%	25.0%
전체	빈도	210	765	201	393	47	6	22	52	16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06.436, P=.000

3) 직업별

이러한 결과는 직업별 응답의 차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9%), 전문가(11.5%), 기술공 및 준전문가(10.7%) 집단의 직업인들에 비하여 사무 종사자(20.8%), 서비스 종사자(22.8%), 판매 종사자(17.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15%), 기능인(21.1%), 기계 조작 및 조립원(27.4%), 단순 노무직 종사자(36.8%)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좋은 근무 환경을 제안하는 새로운 직장으로의 전환이 전문가 집단일수록 현재 직장과의 의리와 신뢰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 반면, 단순 노무직의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쉽게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직업별 차이는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의 항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고위 임직원 관리자(31.7%),

전문가 (23%), 기술공 및 준전문가(19.8%)에 비하여 사무 종사자(11.3%), 서비스 종사자(16.6%), 판매 종사자(31.9%),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20%), 기능인(17.9%), 기계 조작 및 조립원(14.5%), 단순 노무직 종사자(12.3%) 직업인이 낮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하여 고위직이나 전문직종의 사람들보다는 단순노무직과 같은 사람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의 데이터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고용 형태와 관련이 되어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과 같은 사람들의 직업 전환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표 Ⅳ-141> 직업별 스카우트 제안에 대한 반응

		직업별										전체
		고위임 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인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	빈도	2	13	20	59	55	52	6	20	49	42	318
	%	4.9%	11.5%	10.7%	20.8%	22.8%	17.1%	15.0%	21.1%	27.4%	36.8%	19.9%
당장은 힘들지만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	빈도	9	47	65	115	72	77	1	33	55	26	500
	%	22.0%	41.6%	34.8%	40.5%	29.9%	25.3%	2.5%	34.7%	30.7%	22.8%	31.3%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	빈도	4	6	16	19	18	14	1	7	13	10	108
	%	9.8%	5.3%	8.6%	6.7%	7.5%	4.6%	2.5%	7.4%	7.3%	8.8%	6.8%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빈도	13	26	37	32	40	64	8	17	26	14	277
	%	31.7%	23.0%	19.8%	11.3%	16.6%	21.1%	20.0%	17.9%	14.5%	12.3%	17.3%
생각해 보지 않았다.	빈도	13	20	49	59	56	97	24	18	36	22	394
	%	31.7%	17.7%	26.2%	20.8%	23.2%	31.9%	60.0%	18.9%	20.1%	19.3%	24.7%
전체	빈도	41	113	187	284	241	304	40	95	179	114	159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132.337, P=.000

5. 은퇴

가.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

직업 활동에서 물러나 은퇴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신의 직업 조직 내에서의 타인으로부터의 시간적·공간적· 육체적 통제와 직업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수행 부담의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획득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임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상실, 직업 활동 그 자체로부터 오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감의 상실, 갑작스런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과 변화로부터 오는 소외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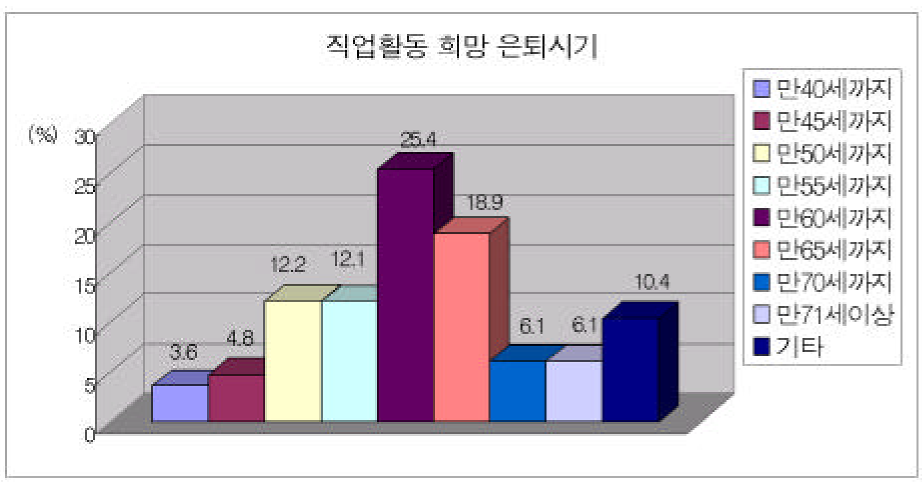
직업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나 직업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하여 쉬고 싶은 연령을 묻는 질문(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포함.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직업을 가질 경우 몇 세까지 일하고 싶은 지에 대한 의사)[9]에는 '만 6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5.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만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수에 달했는데, '만 6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8.9%로 나타났으며, '만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1%, '만 71세 이상' 일할 수 있는 한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31.6%는 만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은퇴하지 않고 직업 활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에 3명 정도는 60세를 넘어서까지도 계속 직업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직업 활

9) 1997년의 제 1차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의 결과는 '일할 수 있는 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7.7%, '70세까지'가 1.8%, '65세까지'가 5.7%, '60세까지'가 13.8%, '55세까지'가 7.5%, '50세까지'가 7.8%의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번 2002년도의 직업 의식 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에 대한 애착과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만 5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2.2%, ‘만 5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2.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24.3%는 적정 은퇴 시기를 50세 – 55세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4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6%, ‘만 45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8%로 나타나 40세 – 45세까지를 적정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8.4%에 그쳤으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0]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

<표 Ⅳ-142>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전체)

		전체
만40세 까지	빈도	90
	%	3.6%
만45세 까지	빈도	121
	%	4.8%
만50세 까지	빈도	306
	%	12.2%
만55세 까지	빈도	304
	%	12.1%
만60세 까지	빈도	638
	%	25.4%
만65세 까지	빈도	475
	%	18.9%
만70세 까지	빈도	153
	%	6.1%
만71세 이상	빈도	166
	%	6.6%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52
	%	2.1%
모르겠다	빈도	116
	%	4.6%
기타	빈도	93
	%	3.7%
전체	빈도	2514
	%	100.0%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등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분석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 6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3.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만 6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직업인의 20.0%, '만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직업인의 6.4%, '만 71세 이상' 일할 수 있는 한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직업인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직업인들의 34.1%는 만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은퇴하지 않고 직업 활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5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1.1%, '만 5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11.7%로 나타나, 전체 직업인의 22.8%는 적정 은퇴 시기를 50세 — 55세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4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1%, '만 45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1%로 나타나 40세 45세까지를 적정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3>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만40세 까지	빈도	66		9	15		90
	%	4.1%		2.1%	3.6%		3.6%
만45세 까지	빈도	81	1	21	17	1	121
	%	5.1%	2.4%	5.0%	4.1%	2.6%	4.8%
만50세 까지	빈도	178	8	58	62		306
	%	11.1%	19.0%	13.8%	14.9%		12.2%
만55세 까지	빈도	187	3	53	57	4	304
	%	11.7%	7.1%	12.6%	13.7%	10.3%	12.1%
만60세 까지	빈도	373	16	115	120	14	638
	%	23.3%	38.1%	27.4%	28.9%	35.9%	25.4%
만65세 까지	빈도	320	8	70	69	8	475
	%	20.0%	19.0%	16.7%	16.6%	20.5%	18.9%
만70세 까지	빈도	103	1	28	17	4	153
	%	6.4%	2.4%	6.7%	4.1%	10.3%	6.1%
만71세 이상	빈도	123	1	17	23	2	166
	%	7.7%	2.4%	4.0%	5.5%	5.1%	6.6%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29	1	18	2	2	52
	%	1.8%	2.4%	4.3%	.5%	5.1%	2.1%
모르겠다	빈도	77	1	19	17	2	116
	%	4.8%	2.4%	4.5%	4.1%	5.1%	4.6%
기타	빈도	61	2	12	16	2	93
	%	3.8%	4.8%	2.9%	3.9%	5.1%	3.7%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68.633, P=.003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오랫동안 직업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 ‘만 55세까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나, ‘만 60세까지’ 이후부터는 남성들의 응답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144>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만 40세까지	빈도	22	68	90
	%	1.7%	5.5%	3.6%
만 45세까지	빈도	37	84	121
	%	2.9%	6.8%	4.8%
만 50세까지	빈도	106	200	306
	%	8.3%	16.2%	12.2%
만 55세까지	빈도	143	161	304
	%	11.2%	13.0%	12.1%
만 60세까지	빈도	359	279	638
	%	28.1%	22.5%	25.4%
만 65세까지	빈도	308	167	475
	%	24.1%	13.5%	18.9%
만 70세까지	빈도	106	47	153
	%	8.3%	3.8%	6.1%
만 71세이상	빈도	99	67	166
	%	7.8%	5.4%	6.6%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14	38	52
	%	1.1%	3.1%	2.1%
모르겠다	빈도	41	75	116
	%	3.2%	6.1%	4.6%
기타	빈도	41	52	93
	%	3.2%	4.2%	3.7%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χ^2=174.324, P=.000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10대 — 20대보다는 30대 이후의 연령대가 만 60세 이후까지도 직업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50대 60대의 연령대는 만 65세를 넘어서까지도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145>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연령별)

		연령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만 40세까지	빈도	14	46	27	1	2		90
	%	5.2%	7.7%	4.1%	.2%	.6%		3.6%
만 45세까지	빈도	9	44	53	10	4	1	121
	%	3.4%	7.4%	8.1%	1.9%	1.2%	.7%	4.8%
만 50세까지	빈도	50	82	107	61	3	3	306
	%	18.7%	13.7%	16.3%	11.5%	.9%	2.2%	12.2%
만 55세까지	빈도	34	71	83	76	31	9	304
	%	12.7%	11.9%	12.6%	14.4%	9.6%	6.5%	12.1%
만 60세까지	빈도	74	147	139	156	102	20	638
	%	27.6%	24.6%	21.1%	29.5%	31.6%	14.4%	25.4%
만 65세까지	빈도	35	88	127	109	87	29	475
	%	13.1%	14.7%	19.3%	20.6%	26.9%	20.9%	18.9%
만 70세까지	빈도	9	21	23	35	35	30	153
	%	3.4%	3.5%	3.5%	6.6%	10.8%	21.6%	6.1%
만 71세이상	빈도	13	37	32	33	27	24	166
	%	4.9%	6.2%	4.9%	6.2%	8.4%	17.3%	6.6%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2	10	9	11	10	10	52
	%	.7%	1.7%	1.4%	2.1%	3.1%	7.2%	2.1%
모르겠다	빈도	18	35	32	18	7	6	116
	%	6.7%	5.9%	4.9%	3.4%	2.2%	4.3%	4.6%
기타	빈도	10	16	26	19	15	7	93
	%	3.7%	2.7%	4.0%	3.6%	4.6%	5.0%	3.7%
전체	빈도	268	597	658	529	323	1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74.034, P=.000

나.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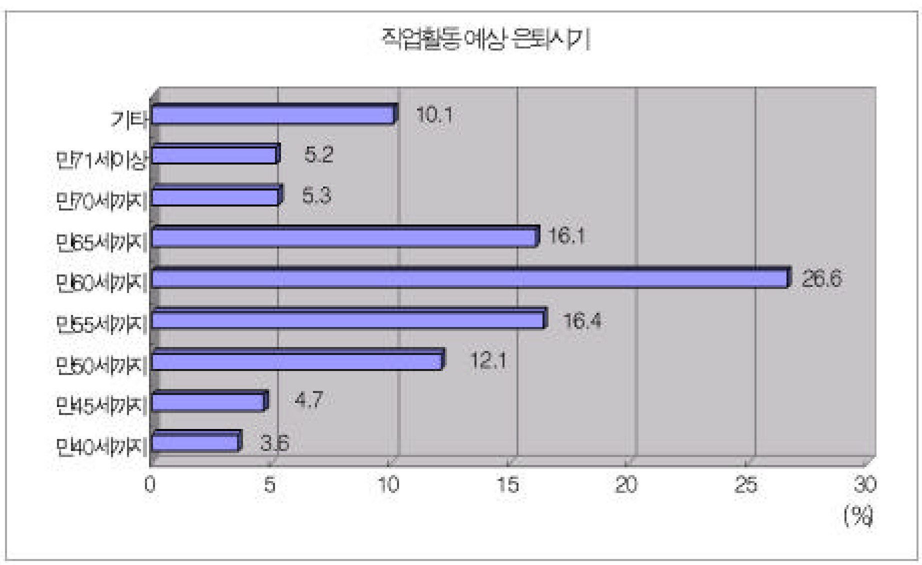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직업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될 본인의 예상 은퇴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만 60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6.6%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수에 달했는데, ‘만 6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6.1%, ‘만 70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3%, ‘만 71세 이상’ 일할 수 있는 한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26.6%는 만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은퇴하지 않고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55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6.4%, ‘만 50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2.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28.5%는 본인의 예상 은퇴 시기를 50세 - 55세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45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7%, ‘만 40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6%로 나타나 40세 - 45세까지를 본인의 예상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

<표 Ⅳ-146>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

		전 체
만 40세까지	빈도	90
	%	3.6%
만 45세까지	빈도	117
	%	4.7%
만 50세까지	빈도	304
	%	12.1%
만 55세까지	빈도	412
	%	16.4%
만 60세까지	빈도	669
	%	26.6%
만 65세까지	빈도	406
	%	16.1%
만 70세까지	빈도	132
	%	5.3%
만 71세이상	빈도	130
	%	5.2%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33
	%	1.3%
모르겠다	빈도	177
	%	7.0%
기타	빈도	44
	%	1.8%
전체	빈도	2514
	%	100.0%

직업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만 60세까지’를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로 응답한 응답자가 24.7%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만 60세 이상까지를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많았는데, ‘만 6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17.1%, ‘만 70세까지’를 본인의 예상 은퇴 시기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직업인의 5.7%, ‘만 71세 이상’ 일할 수 있는 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직업인의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직업인들의 30.1%는 만 60세를 넘어서까지도 은퇴하지 않고 직업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50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0%, '만 55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가 16.3%로 나타나, 전체 직업인의 27.3%는 본인의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를 50세 55세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40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8%, '만 45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8%로 나타나 40세 45세까지를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비율은 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7>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만 40세까지	빈도	61		11	18		90
	%	3.8%		2.6%	4.3%		3.6%
만 45세까지	빈도	76	1	17	23		117
	%	4.8%	2.4%	4.0%	5.5%		4.7%
만 50세까지	빈도	175	6	61	60	2	304
	%	11.0%	14.3%	14.5%	14.5%	5.1%	12.1%
만 55세까지	빈도	260	3	75	70	4	412
	%	16.3%	7.1%	17.9%	16.9%	10.3%	16.4%
만 60세까지	빈도	394	17	117	128	13	669
	%	24.7%	40.5%	27.9%	30.8%	33.3%	26.6%
만 65세까지	빈도	274	7	61	55	9	406
	%	17.1%	16.7%	14.5%	13.3%	23.1%	16.1%
만 70세까지	빈도	91	2	24	11	4	132
	%	5.7%	4.8%	5.7%	2.7%	10.3%	5.3%
만 71세이상	빈도	100	2	12	15	1	130
	%	6.3%	4.8%	2.9%	3.6%	2.6%	5.2%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14	2	15		2	33
	%	.9%	4.8%	3.6%		5.1%	1.3%
모르겠다	빈도	121	2	21	30	3	177
	%	7.6%	4.8%	5.0%	7.2%	7.7%	7.0%
기타	빈도	32		6	5	1	44
	%	2.0%		1.4%	1.2%	2.6%	1.8%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89.997, P=.000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오랫동안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까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나, ‘만 55세까지’이후부터는 남성들의 응답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148>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만 40세까지	빈도	14	76	90
	%	1.1%	6.1%	3.6%
만 45세까지	빈도	35	82	117
	%	2.7%	6.6%	4.7%
만 50세까지	빈도	116	188	304
	%	9.1%	15.2%	12.1%
만 55세까지	빈도	210	202	412
	%	16.5%	16.3%	16.4%
만 60세까지	빈도	384	285	669
	%	30.1%	23.0%	26.6%
만 65세까지	빈도	257	149	406
	%	20.1%	12.0%	16.1%
만 70세까지	빈도	89	43	132
	%	7.0%	3.5%	5.3%
만 71세이상	빈도	75	55	130
	%	5.9%	4.4%	5.2%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10	23	33
	%	.8%	1.9%	1.3%
모르겠다	빈도	65	112	177
	%	5.1%	9.0%	7.0%
기타	빈도	21	23	44
	%	1.6%	1.9%	1.8%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χ^2=158.440, P=.000

다. 직업 활동 희망은퇴 시기별 예상 은퇴 시기

한편,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업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시기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응답자는 본인의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 이전에 직업을 그만두게 되거나, 본인의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 이후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71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62.0%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31.2%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71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70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52.3%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41.8%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70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3.3%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70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57.9%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34.0%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65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4.7%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65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0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65.2%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21.5%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60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0.3%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60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5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60.9%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15.5%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55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9.1%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55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53.3%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12.8%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50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7.1%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50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5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39.7%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12.4%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45세가 되기 전에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42.1%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45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0세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37.8%가 본인의 의사대로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45.5%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만 40세를 넘어서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9>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별 예상 은퇴 시기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											전체
			만40세 까지	만45세 까지	만50세 까지	만55세 까지	만60세 까지	만65세 까지	만70세 까지	만71세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기타	
직업 활동 희망 은퇴 시기	만40세 까지	빈도	34	18	9	4	7	2	1			14	1	90
		%	37.8%	20.0%	10.0%	4.4%	7.8%	2.2%	1.1%			15.6%	1.1%	100.0%
	만45세 까지	빈도	15	48	26	16	9					7		121
		%	12.4%	39.7%	21.5%	13.2%	7.4%					5.8%		100.0%
	만50세 까지	빈도	18	21	163	39	33	6	1	4	2	17	2	306
		%	5.9%	6.9%	53.3%	12.7%	10.8%	2.0%	.3%	1.3%	.7%	5.6%	.7%	100.0%
	만55세 까지	빈도	7	9	31	185	45	10	2	1		13	1	304
		%	2.3%	3.0%	10.2%	60.9%	14.8%	3.3%	.7%	.3%		4.3%	.3%	100.0%
	만60세 까지	빈도	5	8	37	87	416	55	8	3	1	16	2	638
		%	.8%	1.3%	5.8%	13.6%	65.2%	8.6%	1.3%	.5%	.2%	2.5%	.3%	100.0%
	만65세 까지	빈도	2	6	16	43	94	275	15	7	1	13	3	475
		%	.4%	1.3%	3.4%	9.1%	19.8%	57.9%	3.2%	1.5%	.2%	2.7%	.6%	100.0%
	만70세 까지	빈도			6	10	24	24	80	5		3	1	153
		%			3.9%	6.5%	15.7%	15.7%	52.3%	3.3%		2.0%	.7%	100.0%
	만71세 이상	빈도	1	1	3	8	16	12	11	103	1	10		166
		%	.6%	.6%	1.8%	4.8%	9.6%	7.2%	6.6%	62.0%	.6%	6.0%		100.0%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2	1	1	4	4	5	4		21	10		52
		%	3.8%	1.9%	1.9%	7.7%	7.7%	9.6%	7.7%		40.4%	19.2%		100.0%
	모르겠다	빈도	2	5	9	10	8	9	5	1	6	59	2	116
		%	1.7%	4.3%	7.8%	8.6%	6.9%	7.8%	4.3%	.9%	5.2%	50.9%	1.7%	100.0%
	기타	빈도	4		3	6	13	8	5	6	1	15	32	93
		%	4.3%		3.2%	6.5%	14.0%	8.6%	5.4%	6.5%	1.1%	16.1%	34.4%	100.0%
전체		빈도	90	117	304	412	669	406	132	130	33	177	44	2514
		%	3.6%	4.7%	12.1%	16.4%	26.6%	16.1%	5.3%	5.2%	1.3%	7.0%	1.8%	100.0%

x2=6325.427, P=.000

라.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

응답자들이 자신의 특정 연령을 본인의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될 예상 은퇴 시기로 생각하는 주관적 이유를 자발성과 강제성의 측면에서 자발적 포기, 직장 내에서의 연령 통제, 사회적인 기회구조의 봉쇄, 정신적, 육체적 한계, 경제적 강제의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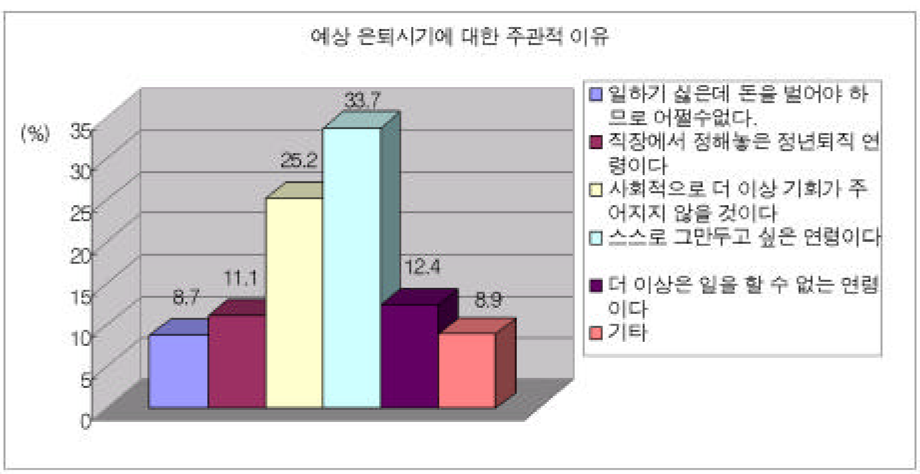
우선 본인의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로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3.7%를 차지하여,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로 직업 활동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 포기

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을 더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5.2%를 차지하여 본인의 예상 은퇴 시기로 사회적 기회구조의 봉쇄를 이유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연령이다'라고 응답하여 직장 내에서의 연령 통제를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인 이유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1.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라고 응답하여,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예상 은퇴 시기의 주된 이유로 응답한 응답자가 12.4%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기 싫은데 돈(부양가족 등)을 벌어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응답하여 경제적인 강제가 예상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7%로 제일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발적 포기, 정신적, 육체적 한계, 경제적 강제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보면, 사회적인 기회구조의 봉쇄(25.2%)와 직장 내 연령 통제(11.1%)와 같은 사회적인 이유가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3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 예상 은퇴 시기에 대한 주관적 이유

<표 Ⅳ-150>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

		전체
일하기 싫은데 돈(부양가족 등)을 벌어야하므로 어쩔 수 없다	빈도	219
	%	8.7%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연령이다	빈도	278
	%	11.1%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빈도	634
	%	25.2%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	빈도	848
	%	33.7%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빈도	311
	%	12.4%
모르겠다	빈도	143
	%	5.7%
기타	빈도	81
	%	3.2%
전 체	빈도	2514
	%	100.0%

이러한 결과는 비직업인들을 제외하고 직업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2.7%를 차지고 있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2.7%,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 연령이다’라고 응답하여 직장 내에서의 연령 통제를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인 이유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2.0%,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2.8%, 마지막으로, ‘일하기 싫은데 돈(부양가족 등)을 벌어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151>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일하기 싫은데 돈을 벌어야 하므로 어쩔수 없다.	빈도	172	5	19	19	4	219
	%	10.8%	11.9%	4.5%	4.6%	10.3%	8.7%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 연령이다.	빈도	191	3	30	48	6	278
	%	12.0%	7.1%	7.1%	11.6%	15.4%	11.1%
사회적 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빈도	363	7	109	137	18	634
	%	22.7%	16.7%	26.0%	33.0%	46.2%	25.2%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	빈도	523	17	172	132	4	848
	%	32.7%	40.5%	41.0%	31.8%	10.3%	33.7%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빈도	205	6	62	34	4	311
	%	12.8%	14.3%	14.8%	8.2%	10.3%	12.4%
모르겠다.	빈도	85	3	21	33	1	143
	%	5.3%	7.1%	5.0%	8.0%	2.6%	5.7%
기타	빈도	59	1	7	12	2	81
	%	3.7%	2.4%	1.7%	2.9%	5.1%	3.2%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88.197, P=.000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별로 응답자들이 제시한 은퇴의 주관적 이유를 살펴보면, ‘만 40세까지’에서 ‘만 50세까지’를 예상 은퇴 시기로 응답한 사람들은 은퇴의 주관적 이유로 자발적 포기, 사회적 기회구조의 봉쇄를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고, ‘만 55세까지’에서 ‘만 60세까지’를 예상 은퇴 시기로 응답한 사람들은 자발적 포기, 사회적 기회 구조의 봉쇄 외에 직장에서의 연령통제를 은퇴의 주요한 이유로 답하고 있으며, ‘만 65세 까지’를 예상 은퇴 시기로 응답한 사람들은 자발적 포기, 사회적 기회 구조의 봉쇄 외에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주요한 이유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만 70세까지’에서 ‘만 75세까지’를 예상 은퇴 시기로 응답한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가장 중요한 은퇴 이유로 제시한 후, 자발적 포기, 사회적 기회구조의 봉쇄를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자발적 포기, 정신적, 육체적 한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보면,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공통적인 이유로 전 응답자가 사회적인 기회 구조의 봉쇄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만 55세까지’와 ‘만 60세까지’로 응답한 응답자들에게는 부가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연령 통제를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Ⅳ-152> 예상 은퇴 시기별 주관적 이유

			예상 은퇴 시기의 주관적 이유							전체
			일하기 싫은데 돈을 벌어야 하므로 어쩔수 없다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 연령이다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모르겠다	기타	
직업 활동 예상 은퇴 시기	만40세 까지	빈도	9	8	26	36	3	4	4	90
		%	10.0%	8.9%	28.9%	40.0%	3.3%	4.4%	4.4%	100.0%
	만45세 까지	빈도	11	10	30	56	2	6	2	117
		%	9.4%	8.5%	25.6%	47.9%	1.7%	5.1%	1.7%	100.0%
	만50세 까지	빈도	31	22	98	129	16	5	3	304
		%	10.2%	7.2%	32.2%	42.4%	5.3%	1.6%	1.0%	100.0%
	만55세 까지	빈도	28	85	119	150	15	12	3	412
		%	6.8%	20.6%	28.9%	36.4%	3.6%	2.9%	.7%	100.0%
	만60세 까지	빈도	48	107	183	244	68	12	7	669
		%	7.2%	16.0%	27.4%	36.5%	10.2%	1.8%	1.0%	100.0%
	만65세 까지	빈도	30	37	112	159	63	3	2	406
		%	7.4%	9.1%	27.6%	39.2%	15.5%	.7%	.5%	100.0%
	만70세 까지	빈도	19	4	16	30	57	5	1	132
		%	14.4%	3.0%	12.1%	22.7%	43.2%	3.8%	.8%	100.0%
	만71세 이상	빈도	14	3	15	14	64	7	13	130
		%	10.8%	2.3%	11.5%	10.8%	49.2%	5.4%	10.0%	100.0%
	일하고 싶지 않다	빈도	7		4	6	8	7	1	33
		%	21.2%		12.1%	18.2%	24.2%	21.2%	3.0%	100.0%
	모르겠다	빈도	19	1	29	22	9	80	17	177
		%	10.7%	.6%	16.4%	12.4%	5.1%	45.2%	9.6%	100.0%
	기타	빈도	3	1	2	2	6	2	28	44
		%	6.8%	2.3%	4.5%	4.5%	13.6%	4.5%	63.6%	100.0%
전체		빈도	219	278	634	848	311	143	81	2514
		%	8.7%	11.1%	25.2%	33.7%	12.4%	5.7%	3.2%	100.0%

χ^2=1683.272, P=.000

마. 은퇴 이후의 생활

한편, 직업 활동로부터의 은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을 묻는 질문[10]에는 64.6%가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고 응답하여 압도적인 다수가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을 개인적인 삶을 위해 여가를 즐기면서 보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사람도 3.5%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68.1%, 즉,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본인의 여가를 통한 재미 추구와 공부 등의 개인적인 생활에 주로 할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7.0%는 '자원봉사 등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고 응답하여,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은퇴 이후의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개인적인 일보다는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보낼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것이므로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고 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낸 사람의 비율도 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10명중에 1명 정도는 은퇴 이후의 생활 자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1997년의 제 1차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의 결과는 '여행' 19.8%, '취미활동' 15.7%, '다양한 여가즐김' 24.4%로 전체 응답자의 59.9%가 은퇴 이후의 생활을 개인적인 생활에 주로 할애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을 계획중인 응답자가 전체의 12.8%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 운영' 14.4%, '직업 활동' 3.2%로 전체 응답자의 17.6%는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번 2002년도의 직업 의식 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153> 은퇴 이후의 생활

		전 체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겠다.	빈도	89
	%	3.5%
취미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	빈도	1623
	%	64.6%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빈도	428
	%	17.0%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것이므로 나에게 은퇴후란 없다.	빈도	245
	%	9.7%
모르겠다.	빈도	107
	%	4.3%
기타	빈도	22
	%	0.9%
전 체	빈도	2514
	%	100.0%

이러한 결과는 직업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인들의 62.6%가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4.0%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인들의 16.1%는 '자원봉사 등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고 응답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것이므로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고 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낸 사람의 비율은 12.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4>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사회 집단별)

		사회 집단별					전체
		직업인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빈도	64	1	8	16		89
	%	4.0%	2.4%	1.9%	3.9%		3.5%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	빈도	1001	27	264	304	27	1623
	%	62.6%	64.3%	62.9%	73.3%	69.2%	64.6%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빈도	258	6	102	57	5	428
	%	16.1%	14.3%	24.3%	13.7%	12.8%	17.0%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	빈도	196	3	23	21	2	245
	%	12.3%	7.1%	5.5%	5.1%	5.1%	9.7%
모르겠다.	빈도	66	4	17	15	5	107
	%	4.1%	9.5%	4.0%	3.6%	12.8%	4.3%
기타	빈도	13	1	6	2		22
	%	.8%	2.4%	1.4%	.5%		.9%
전체	빈도	1598	42	420	415	39	251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71.282, P=.000

성별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은퇴 이후의 생활을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회지향적인 일로 보내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155>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빈도	43	46	89
	%	3.4%	3.7%	3.5%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	빈도	845	778	1623
	%	66.2%	62.8%	64.6%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빈도	151	277	428
	%	11.8%	22.4%	17.0%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	빈도	168	77	245
	%	13.2%	6.2%	9.7%
모르겠다.	빈도	57	50	107
	%	4.5%	4.0%	4.3%
기타	빈도	12	10	22
	%	.9%	.8%	.9%
전체	빈도	1276	1238	2514
	%	100.0%	100.0%	100.0%

χ2=73.843, P=.000

한편, 평소 생활에서 사회봉사활동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개인적인 여가보다는 사회적인 봉사활동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6> 평소 중시하는 생활영역별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

			은퇴 이후의 생활						전체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	모르겠다	기타	
평소 중시하는 생활영역	직업 생활	빈도	30	425	80	84	31	6	656
		%	4.6	64.8	12.2	12.8	4.7	.9	100.0
	가정 생활	빈도	42	902	265	128	58	13	1408
		%	3.0	64.1	18.8	9.1	4.1	.9	100.0
	학업 생활	빈도	7	166	41	15	13	2	244
		%	2.9	68.0	16.8	6.1	5.3	.8	100.0
	사회봉사 종교 및 친교생활	빈도	2	20	29	8	1		60
		%	3.3	33.3	48.3	13.3	1.7		100.0
	여가 생활	빈도	8	110	13	10	4	1	146
		%	5.5	75.3	8.9	6.8	2.7	.7	100.0
전 체		빈도	89	1623	428	245	107	22	2514
		%	3.5	64.6	17.0	9.7	4.3	.9	100.0

x2=84.800, P=.000

V. 정책 제언

한국인의 직업 의식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정부 기관이 수행해야하는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 의식의 함양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직업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건강한 직업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70.8%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상당한 사람들이 직업 생활에 대한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만 이러한 경향이 약간 낮았을 뿐, 학력과 연령,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3.33)에만 두고 있으며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2.80)하거나 일 자체가 좋아서(2.69), 혹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2.67)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직업 생활이 갖는 가치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단지 잘못된 교육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직업 생활이 여가와 가정 생활과 함께 병행하기에는 일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너무 큰 데서 온다고 본다.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영역은 가정 생활(50.6%)이며, 그 다음이 직업 생활(26.1%)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중요시하는 생활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 생활의 현실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포함하여 노동의 강도를 줄이고 일자리는 나누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가정 생활만이 아니라 여가 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영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직업기초능력을 바탕으로한 능력과 특성의 개발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진로 지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한 가지만 잘하면 직업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10대(2.80)가 가장 동의하고 있었으며 20대(2.59)와 30대(2.60)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반면에 40대 이상은 2.73-2.75로서 2,30대보다는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다.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기초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특기 · 적성의 강조 과정에서 마치 '한 가지만 잘하면 정말 직업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중 ·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만 잘한다는 것이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학교 및 사회의 진로 교육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업 준비와 관련된 정책 제언

첫째, 국민들이 학령기에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진로 지도를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주로 중 · 고등 학교 때에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시기는 직업에 가치관과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지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에 진로 지도를 받은 사람은 40% 정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20-30대의 경우 구체적인 직업 준비, 입직 및 취업 후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어 학령기의 진로 지도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일수록 진로 지도를 받은 비율이 높다. 그러나 최근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학지도 또는 검사 실시 및 해석 등에 치우쳐 있고 직업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절한 직업 선택과 준비라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있는 인력양성을 위하여라도 전 국민들이 학령기에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단계 진로 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계층별 진로 및 직업에 관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성인 고용 안정 기관의 상담과 정보 제공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겠다.

국민들의 계층별이라 함은 먼저 이번 조사에서 40대와 60대 국민들이 진로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이 없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유망 직업 정보와 창업 정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명예 퇴직 및 직업 전환을 맞는 연령층이거나 노령층에 해당한다. 또한 저생산성·저임금·고용불안 등의 특징을 지닌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및 직업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직업 지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직업 지도 및 직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 은행, 고용 안정 센터, 기타 직업 상담 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 지도 및 상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집단 중에서 주부(30.7%)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취업 욕구가 높고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의 진로·직업 지도를 위하여 여성 회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여성 근로자 복지 센터 등 각 기관에서 여성특화 진로·직업지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 실시되어야 하겠다.

셋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및 직업 체험이 직업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우리 나라의 전문대생 및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등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과외, 기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으며 무보수 직업 체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직업 체험이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한 대학생들이 직업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취업동아리 활동, 취업을 위한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 또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국민들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직업 정보 개발 및 제공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4년 전이나 현재(2002년)나 안정적인 직업인 교사와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 밖의 선호하는 직업의 절반정도가 4년 전과 비교하여 변화하였다. 이것은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부모와 본인의 선호하는 직업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직업 정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 의식 1차 조사(98년)와 이번 2차 조사에서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은 동일하게 주로 친구나 선배, 방송매체, 정보지, 신문 등으로 나타났다. 단지 1차 조사와 비교하여 2차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직업 정보를 얻는 곳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1차 조사가 이뤄진 IMF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국민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 정보 인터넷 사이트와 공공 직업 안정기관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나라 국민의 절반(54%)이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NCDA의 결과(9%)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진로 도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들이 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정보 연구 및 지원체제의 구축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3. 취업에 관한 정책 제언

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은 취업과 관련해서 구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현재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은 곳(1순위)으로 친구, 이웃, 선・후배(43.4%), 친적(14.0%), 교육기관의 상담 전문가(8.4%) 등을 높게 들었다. 반면,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하였다. 직업안정기관의 저조한 이용 실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현 직장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 취업했느냐는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 친지 소개(39.9%), 자영업 준비(16.2%), 구인・구직 정보(14.8%), 학교, 학원 추천(7.0%)의 순으로 현직장에 취업했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 안정 기관의 등록(4.0%)을 통했다는 응답은 저조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의 기능이 확장된 것이 1990년대 말 이후인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직업안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친구, 친지와 같이 비공식적 통로를 이용하여 취업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다 공평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진 사회가 되기 위하여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 등과 관련해서 공공 직업 안정 기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 전문가의 양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진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진로에 관한 과학적 식견을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은 향후 주요한 과제이다. 친구, 이웃, 선·후배와 같이 비공식적 통로가 아니라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과학적인 상담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진로 상담 전문가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설문 조사에서도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 등에 관하여 앞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곳으로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4.8%)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8.0%)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까지 도움을 받은 곳과 관련해서 각각 1.6%, 4.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전문 상담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진로에 관한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진로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진로상담 교사, 그리고 대학의 취업담당자를 위한 예산 확보와 연수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는 이직·전직, 은퇴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채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직업 생활에 관한 정책 제언

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근로 환경 개선

우리 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상용 근로자 보다 더 높아 전체 임금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임시·일용 근로자들은 근로 조선, 근무 환경, 자기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임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조건(4점 척도기준으로 2.32), 자기 발전 가능성

(2.32), 사회적 평판(2.39)에서 각각 평균보다 낮았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대인 관계 만족도 이외에 나머지 다섯 문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향후에도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임시·일용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금, 근로 시간, 고용 기간, 작업 환경, 사회 보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임시·일용 근로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여성취업에 관한 인식 제고

바람직한 여성 취업의 형태에 관한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현재 유례 없이 빠르게 저산아(低産兒) 및 노령(老齡)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1년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1.30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준에 접근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 저하 속도는 놀랍게 진행되어 일본의 출산율이 2.1에서 1.33으로 떨어지는 데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 나라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도 기록적이다. 2000년 우리 나라의 65살 이상 인구는 7.2%로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으나,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23.1%로 젊은 사람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11]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다면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 활동은 여성 자신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하여도 필수적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국민들의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보수적 시각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 취업에 관하여 2002년(2차 조사)의 국민 의식이 1998년(1차 조사)보다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이해되지만, 아직도 보수적 견해가 만만찮다. 여성은

11) 한겨레 신문. 2002년 10월 25일. 김연명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

결혼 전까지 취업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이 1차 조사에서는 6.0%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9.7%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이 문항을 채택한 남성들이 1997년에는 7.4%이었는데 2002년에는 1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 취업에 관해 남성들의 보다 개방적 의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은 학교현장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여성 취업의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특히 남성을 상대로 홍보해야한다. 또한 여성이 기꺼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과 각종 근로 조건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대책이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직업 전환에 관한 정책 제언

본 연구에 의하면, 1,598명의 설문응답자들은 현재 직장이 최소 첫 번째 직장에서 최고 스무번째 직장으로, 현재의 직장은 평균 2.37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구조 조정 및 비자발적 실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 평생 직장의 인식에서 평생 직업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부각된 직업 전환의 양상이 아직 외환 위기의 시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 전환을 경험한 근로자의 직장 옮긴 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첫 번째에서 스무 번째 까지의 넓은 직업 전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첫 번째에서 열 번째 까지의 분포를 보이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동에 약 68.3%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 직업 전환 이후 부터는 남자의 경우가 23.8%로 여자의 경우 21.5% 보다 다소 많은 이동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전환이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과, 여성의 직업 전환 경험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성과 비교된 여성의 직업 전환의 양상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가사'와 '양육'이라는 부담으로 '가정지

향' 혹은 '경력지향'의 이중 구조의 선택을 하거나 혹은 가정과 경력이라는 직업 생활의 탄력적 운영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직업 활동 특성 및 그 장애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업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 직장 대신 평생 직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요구는 매우 강조되어 증가된 반면, 실질적으로 직업 전환을 실행해야 하는 국민 개인차원에서는 직업 전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매우 약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 전환에 대한 의도를 묻는 항목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지되고 있다. 총 1,697명에게 직업 전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직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16.8%)와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있다'(11.3%)에 비하여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싶다'(72%)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전환'에 대한 인식은 직업 세계와 사회가 주장하는 평생 직업의 요구와 강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직업 전환에 대한 미약한 인식을 갖는 원인을 진단하면 남성의 경우 '직업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시간적 준비가 생략되어 '실직'을 경험할 경우, 그로 인한 '가정 경제'의 곤란도가 증가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업 전환'의 문제는 대다수의 남성 개인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 전환'과정에서 야기되는 개인의 스트레스 내용과 그 정도를 파악하여 보다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전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

나. '실직' 중심의 공공 고용 안정 기관 역할로부터 '직업

전환’ 서비스로의 확대

구체적인 정책적 배려로는 각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전직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직업 전환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조롭지 못한 직업 전환은 개인에게 ‘실직’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곤란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실직’문제 중심의 공공 고용 안정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직업 전환자’의 전직 지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직업 전환자를 위한 특화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 전환의 순조로운 연계를 지원하여 사전에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이 공공 고용 안정 조직의 주요한 역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여성친화 직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검토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직업 전환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직업 세계에서 여성의 활발한 직업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직업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 참여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구인자의 인식 변화, 여성의 특성이 부각되어 능력 발휘가 되는 유망 여성 직종의 개발,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의 능력과 성과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의 인사 정책 등이 직장 내・외에서 여성의 직업 경험이 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특히, 여성 진로 개발을 막는 장애의 특징인 ‘가사와 육아’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정부간의 여성 친화적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 제도, 탁아 시설 등의 기존 법과 제도의 검토를 제안한다.

라. 질 높은 '직업 전환' 상담 서비스의 강화

본 연구에 의하면,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응답자 총 483명의 직업 전환 준비활동을 살펴보면 전체의 28.2%가 '구체적 정보 수집', 24.6%가 '주변 사람과의 상담', 5.4%가 '잠시 휴직 계획 수립', 3.9%가 '학교 입학과 유학 준비', 3.3%가 '직업 훈련과 사설 학원 등록'으로 응답한 반면, 본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34.6%가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34.6%가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직업 전환 의도는 가지고 있으나 직업 전환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도와 실행 간의 큰 괴리를 엿볼 수 있으며, 학력과 직업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변 사람 과의 상담'이 상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직업 전환 의도는 있으나 현재 어떤 준비 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상담 역할의 중요성이다. 직업 전환 의도는 있으되 어떤 준비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유형은 직업 전환 의도는 있되 어떤 준비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직업 전환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직업 전환 의도가 자기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직장에서의 따돌림과 무능함으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직업 전환을 해야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의 특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충분한 직업 전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질이 높은 직업 전환 상담서비스의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은 크게 정부와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공공고용안정센터이고 후자의 경우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담의 기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직업 전환과 관련하여 몇몇 선진 기업들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조직내 조직원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점차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이 보다 활발

히 이루어질 것을 전망한다면, 기업 내에서 조직원의 순조로운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특화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업별 규모에 따라 기업 내 상담 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고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공공 고용 안정 조직을 통하여 개인의 직업 전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 전환'관련 상담 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 저학력 · 비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한 직업 전환지원서비스 홍보 및 강화

우리 나라 사람 중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과의 상담'을 직업 전환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혈연 · 지연 · 학연의 전통적 인맥을 중요시하여 비공식적 정보망에 친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나 학력이 낮고 단순 노무직과 같은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변 사람과의 상담'은 직업 전환 성공을 위한 실질적 도움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낮은 학력 소지자와 비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비공식적인 인맥을 통한 상담과 동시에 공식적인 채널에 있는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하여 질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보 수집을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공공 고용 안정 조직은 낮은 학력 소지자와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것을 제안한다.

6. 은퇴 정책 제언

이처럼, 한국인들의 직업 활동 가능 지속 시기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상당수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다른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직장 내 연령 통제와 사회적

기회구조의 봉쇄를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은퇴 시점 이전에 직업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은퇴 연령의 연장을 위한 정책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첫째, 조기정년화 추세와 같은 직장 내 연령 통제로부터 취업자의 은퇴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과 같은 직장 내 취업 연령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직장 내 연령 통제를 유발하는 조기 정년화 추세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임금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노동비 절감에 대한 고려, 사회적 연금 제도와 같은 직장 외 사회적 안정 장치의 부분적 발달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수명 연장의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노년 인구의 직업 활동 지속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연령과 경력위주의 임금 및 퇴직금 누진체계의 연령별 상승 효과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근로나 재고용제와 같은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널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회구조의 봉쇄와 같은 사회적 이유로부터 취업자의 은퇴연령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은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취업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은퇴자를 수용하기 위한 은퇴자에게 적합한 직종이 새롭게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자 적합 직종의 개발은 은퇴자의 기존 경력에 부합하게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근로와 같은 은퇴자의 경력과 부합되지 않는 임시적인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령화 사회의 직업 활동 은퇴연령의 실질적인 연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또한, 은퇴자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구인, 구직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나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취업자의 은퇴 연령 연장을 위한 노동 시장 인프라로써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퇴자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 공간과 여가 산업의 발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압도적인 다수가 여가 생활을 은퇴 이후의 생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은퇴자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자치 단체별로 노인 전용 공원이나, 노인 체육 활동이나 노인 문화 활동을 위한 노인 전용 광장과 프로그램의 설치,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 이에 연동된 노인 여가 산업의 발전 같은 것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 봉사 활동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자원 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 봉사 활동을 뒷받침할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자치 단체 산하의 구별로 사회 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쪽과 사회 봉사 활동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연결하는 지원 연결망과 같은 프로그램을 인프라로써 구축하여 은퇴 이후의 여생을 사회 봉사 활동으로 보내고자 하는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맹현(1995).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 선택 및 직업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재태, 강은영(1987).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직업 훈련원생의 직업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경상대 새마을연구, 5, 109 127.

곽유석(200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 및 진로 만족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일남(2001). '청소년의 직업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김경동(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 변화의 경험적 추적. 박영사.

김병숙(1998). '한국인의 직업 의식 실태'. 교육월보 1998.

김양희(1998). '여성의 직업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김영애(1999).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간의 직업 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재 · 류창열(1996). '직업 의식 연구의 발전과 동향'. 충남대 공업교육연구소논문집 19.

김정자 외(1989). '여대생의 직업관 연구'. 여성학연구.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소.

노동부(2000). 여대생의 직업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노동부.

문인국(200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덕(1993). '대학신임교수가 인식하는 그들의 역할과 직업관'.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재진(1994). '북한주민의 직업 의식'. 북한. 통권 제 275호. 북한연구소.

신혜식(2000). 인문계 고등학생의 직업 교육지각 및 경험 유형별 직업 의식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영자(1998). '한국여성의 직업 의식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15.

안치민 · 최경구(1992). '한국 기술인의 직업 의식과 직업성'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양 춘(2000). 한국사회 : 계층구조와 동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양한주(1998). 중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석재(1989).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호 가치'. 교육학연구.

이인학(1998). '전문대학생의 직업관과 진로 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한국아동교육학회.

이주경(1998). 직업선호도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연 외(1998). 한국인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 교육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_(1999). 실업자의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경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_(2000).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적용(Ⅰ)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개발 요구조사 중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향숙 · 조재순(1994).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관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日本勞動研究機構 編(1998). 集團歸屬意識の變化と職業生活. 日本勞動研究機構.

임언 외(2001). 직업 가치관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인재(1990). 직업 가치관 검사. 서울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임종길(1993). '상선선원의 직업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해운학회지. 한국해운학회.

장기영(2000). 언론인의 직업, 윤리 의식 연구.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하진(1993). '고학력여성 취업 의식 연구'. 여성과 사회 4.

장하진 외(2000). 여대생의 직업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노동부.

정경숙(1989). 여성근로자의 직업 의식과 직무수행 및 차별대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논문.

정경아(2001). 중학교의 진로 의식 및 직업관지도 활성화 방안. 2001년도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주관 제23회 교육논문 공모 입선작.

정석원(1999). 한국 Animation 산업종사자의 직업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란(2001).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흥복(1995). '직업별 여가활동의 의식분석'. 청주대 민족문화예술연구소논문집 4.

차종천(1998). '직업 위세와 계층구조'. 한국사회학.

충청북도교육연구원(1991).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청주 : 오천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1994). 직업 의식의 정착과 생산성 향상 : 품질관리 분임조활동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1994). 직업군인의 전문직업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1993). 한미 언론인 직업 의식 비교. 한국언론연구원.

한정자 · 김노아 · 이정아(1987). 여성직업 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홍기형, 이승우(1987). 진로 지도. 서울 : 교육출판사.

홍두서(1982). 직업 의식의 변화. 유네스코 위원회.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Canad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yul-Young, Jung(1989). Predictors of Student Career Maturity in Central Ohio High School. Thesis(doctoral). Ohio State University.

Cohen, S., & Willis(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tt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DuBrin, Andrew J.(1997). Fundament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an applied approach. Cincinnati: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Gy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1998).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Allyn and Bacon.

Harrington, T. F. & O'shea, A. J.(2000). Career decision-making system-revised.

Hellriegel, Don · Slocum, John W. Jr. · Woodman, Richard W.(1998) Organizational Behavior. Cincinnati: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Isaacson, L. E. & Brown, D(1997).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6th edition. Allyn & Bacon.

Kinnane, J. F. & M. W. Pable(1962). Family background and work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4), 320 325.

Nevill, D. D., Super, D. E.(1989). Manual to the Values Scale(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Osipow, S. H. & Fitzgerald. L. F.(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4th edition. Allyn & Bacon.

Peterson, Nadene & Gonzalez, Roberto Cortez(2000). The Role of Work in People's Lives.

Qyinn, R.P., & Stainers G.L.(1979) The 1977 Quality of employment survey. Ann Arbor, MI:Survey Research Center.

Rain, J.S., Lane, I.M., & Steiner, D.D.(1991) A current look at the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Review and future considerations Human Relations, 44, 287-307

Rosenberg, M.(1957). Occupations and values. Glenco, Ⅲ.: The Free Press.

Rounds, J. B, Henly, G. A., Dawis, R. V. Lofquist, L. H. & Weiss, D.

J.(1981). Manual for the 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 a measure of vacational needs and value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Shore, L.M., Newton, L.A., & Thornton, G.C.(1990) Job and organizational attitudes in relation to employee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1, 57-67.

Super, Donald E. & Sverko, Branimir(1995). Life roles, Values, and Careers -International Findings of the Work Impotance Stud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Walsh, W. B. & Osipow, S. H.(1983).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Vol. 1. Foundations. New Jers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Walsh, W. B. & Osipow, S. H.(1995).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2nd edition. New Jers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Westbrook, C.(1991). Manual for the Career Values Scale. FL:Talico.

Zunker, V. G.(1998).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Texas: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Zytowski, D. G.(1994). A Super contribution to vocational theory : Work valu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25 31.

ABSTRACT

Study of Koreans Job Mentality (II)

Research-in-Charge: Han, Sang-Geun
Reseacher: Lim, Eun
Lee, Ji Yeon
Lee, Kyeong Sang
Jeong, Yun-Kyoung

1. Overview

Following the first such study held in 1998, this paper intends to perform a study of Koreans job mentality. This study has divided the entire population into groups sharing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has evaluated the job mentality of each group. This paper also studied the philosophy, attitudes and common ideas that people displayed with regards to their vocations, and also analyzed the reason why people consider a job to be necessary. In addition, job mentality was evaluated by investigating the occupational behavior needed for each stage of an individuals career.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first study conducted in 1998 as well as with the NCDA results, which exhibit the changing trends of job mentality in the U.S, that were collected that same year,

This Second Study of Koreans Job mentality was conducted from June 4th to July 12th 2002 nationwide with 2,512 subjects over the age of 15. This study was based on population census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study was collected by visiting private residences and holding interviews.

2. Pre-study investigation and framework of analysis

The concept of job mentality in this paper is defined as the mentality toward a vocation and refers to the general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 a job held by people, such as career values and attitudes. Moreover, we have referred to job mentality at each stage of occupational behavior, defined as the individual thoughts and attitudes needed to make choices and take actions at each stage of occupational behavior including preparation for ones career, employment, career life, job transfer and finally retirement.

Therefore, this paper includes many aspects of occupational behavior from preparation of ones career to retirement for the entire population including students, the unemployed, employees, retirees and housewives. Accordingly, career stages are divided into the juvenile, adult and middle and old age periods, with the occupational behavior at each career stage being clarified. In addition, based on the particular career development tasks and situation required during each stage,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ones career stage during the juvenile period, the employment stage during the early adult period, and the career life, job transfer & retirement stages during the middle and old age periods, the mentality of the detailed occupational activities influencing individual decisions has been studied.

3. Study of Job mentality

The values Koreans considered as being the most important during their career life include salary (3.41), job stability (3.37), ability to carry out work duties (3.32), and enjoyable working conditions (3.25). Those who had a high level of education and a high-ranking job with good remuneration regarded salary as being less important than their ability to carry out work duties, while those in bad working conditions from weak economic backgrounds had a tendency to think of the salary as being very important.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reasons why a job is necessary include the following: to make money (3.33), to achieve self-realization (2.80), to gain social recognition (2.79), to fulfill ones responsibilities as a social member (2.73), because of interest in the job itself (2.69), and to meet others (2.67). In addition, many female employees answered that they liked the job in itself as the main reason for getting a job, while male employees had a strong interest in gaining social recognition and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y to society. Those who were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who had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higher social-economic backgrounds demonstrated more interest in the work itself and in self-realization, while those who were older, and had a lower level of education and a low social-economic position tended to answer that the reason why they were working was to make money.

When analyzing the importance of the following 4 aspects: career life, family life, personal life and social life, those with low social-economic levels considered family life as being critical, while those from high level socioeconomic backgrounds tended to value their social and career lives. The personal life aspect was found to ha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age than with socioeconomic pos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of the aspects of individual life revealed that family life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with 56.0%, followed by career life (26.1%), campus life (9.7%), community service and good social relationships (2.4%), as well as religious life (5.8).

Older people tended to have a high level of expectation with regards to lifelong employment, while teenagers, unlike juveniles and middle aged people, demonstrated the most positive response in terms of the belief that ones future vocation should be decided during the middle or high school year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with schools and hometowns is widely accepted by older people, while those with a low level of education tend to think that they will not find employment as long as the economic situation is not resolved. Those in their teenage years as well as those in their twenties tend to think of a womans social life as being natural, while those in their forties exhibited less support for this particular matter.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married women appears to have been more widely agreed on by women and those with low levels of education than by men.

4. Study on mentality at each stage of occupational behavior

A. Mentality toward preparation for ones career.

Koreans are deeply influenced by their own parents or friends in the selection of their future careers and with regards to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40% of respondents had previous experience with guidance counseling, while the remaining 60% responded to this question in the negative. Respondents felt that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needed for job selection and job transfer was information about their aptitudes and talents (33.2%), followed by information on promising careers (24.5%), information on education and studying abroad (9.8%), employment information (9.4%), informa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7.0%), information on certificates (6.5%), information on occupational training institutes (4.3%) and information on the industrial situation as well as economics (3.1%). The most popular occupational area for males was found to be the personal business field with 41.8% of respondents providing this response, while 39.1% of females asserted that they preferred steady employment. When asked what they would want to know if they could go back to their youth to prepare for the future, the answer want to know exactly who I am scored 3.31 points, want to get enough information on future direction and job scored 3.28, while the answers want to acquire skills to decide my own life direction and job scored 3.19 points, want to study harder 3.39 points and finally the want to receive professional guidance counseling answer received 3.17 points.

B. Mentality toward employment

Parents of teenagers want their children to be teachers, public officials (policeman, high government official) and doctors, while teenagers themselves thought of teachers, public officials (policeman, high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men (independent businessman, distributor) as being ideal vocations. Over 53.8%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needed support in planning their future life direction, selecting a job, and transferring to another job. A comparison with the 9% results achieved in the NCDA study reveals that overall, Koreans were found to need more help with future guidance than Americans. The best counselors for future guidance included friends, neighbors and university colleagues, followed by internet sites and relatives, while most people were found to get general information on jobs from friends and university alumni, followed by the mass media, magazines, newspapers and internet sites. The main methods of obtaining a job included introduction by friends or relatives (39.9%), followed by the starting up of an independent business (16.2%), information from other job seekers/ companies (14.8%), recommendations by schools and institutes (7.0%), and visits to companies (6.7%).

C. Mentality toward career life

On the question of if the current job is fit for ones aptitude, 70.2%

provided a positive answer while 29.8% answered negatively. The negative answers indicated that for economic reasons, many people are still employed in work places unsuited for them. The main stress felt by employees included low remuneration for their efforts and performance (2.53 on average), too many work duties (2.47), no independence in performing work duties (2.24), contradiction of roles and ambiguity regarding work duties (2.24), difficulty in obtaining promotion (2.13), and problems with co-workers (1.96). In terms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different aspects related to ones job, the study found 2.87 points of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boss and coworkers, 2.73 points of satisfaction with work duties, 2.62 of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2.53 of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2.49 of satisfaction with self-development possibilities and 2.63 of satisfaction with the social reputation of the job.

D. Mentality toward job transfers

By June 2002, the number of times an individual transferred jobs after graduation ranged from 1 to 20 times, with 2.37 times being the average. The job transfer graph according to age exhibited a V sign; indicating that people increasingly transferred jobs from the ages of 15 to 19, had active experiences with job transfers from the age of 30 to 39, and tended to change jobs less from the age of 60 to 64. 72% of employees said that they wanted to remain in their current jobs; while a lower percentage of people answered that they were either thinking of changing their jobs (16.8%) or actively wanted to change jobs (11.3%). These results indicate that job transfers are not the result of a wish for career development or to achieve new career experiences, but rather indicates that job transfers are seen as a means of overcoming unstable career conditions. And thus,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who worked in professional fields, as well as full time employees, tended to prefer their current situation.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wanted to stay in their current careers were asked what they would do if they got a job offer which had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alary/ title/ future potential etc.). 23.5% answered that they would not change places of employment becaus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resent company, while 51.6% answered that they would immediately quit their current job and move to the new place, thus indicating that most employees were more interested in salary, title and future potential than in other factors.

E. Mentality toward retirement

Koreans have high expectations and hopes that their current occupational activities will be upheld. 25.4%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age of 60 was the proper time to retire, while 31.6% professed their wish to continue working even after they reach the age of 60. 26.6% of Koreans are positive that they will continue to work until they become 60 years old. On the other hand, most Koreans exhibited a positive belief that they would be able to work up until the age they desire (with scores ranging from 37.8% to 65.2% depending on the suggested retirement age), while many Koreans still think that they may be forced to stop working, or have to work over the age of retirement. 36.3% of Koreans considered that the lack of further advancement and the age limit in the work place were the main reasons for retirement. 64.6% of retired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plan their personal leisure time and plan studies (3.5%), thus meaning that a total of 68,1% respondents were preoccupied with plans for their personal life after retirement, while planning for their social life such as community service accounted for only 17.0% of the answers.

부록 1. 직업 의식 조사 설문지

ID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원의「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에 기꺼이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직업 준비, 취업, 직장 생활, 직업 전환, 은퇴 등 직업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와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설문지 문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5월

연 구 기 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전화** 02-564-6854 7 **팩스** 558-3831 4)

• **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연구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 박사, 임언 박사, 이지연 박사, 정윤경 전문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상 박사

전 화 : 02-3444-3226, 02-3444-3596 FAX : 02-516-259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2 세림빌딩 8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135-090

Ⅰ. 직업에 대한 의식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시간적 여유가 많음	1	2	3	4
2)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함	1	2	3	4
3) 높은 보수를 받음	1	2	3	4
4)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음	1	2	3	4
5) 사회적으로 인정받음	1	2	3	4
6)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1	2	3	4
7) 자유 재량권이 많음	1	2	3	4
8) 안정적으로 오래 동안 일할 수 있음	1	2	3	4
9)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1	2	3	4
10)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	1	2	3	4
11)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1	2	3	4
12)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1	2	3	4
13) 리더쉽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1	2	3	4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2	3	4

1)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다)	
2) 필요하다면 업무와 관계된 일에 개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3) 여가와 취미가 희생된다면 직장을 옮기겠다	
4) 집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5) 취미, 레저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며 관련된 신문이나 TV 잡지를 본다	
6)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7) 생활비를 아껴서 가능한 한 사회활동(클럽 및 단체활동)에 쓰고 싶다	
8)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결근할 수 있다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2	3	4

1)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	
2)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업이 향후의 경력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유능한 사람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지 않는다	
4)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하여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	
5) 가능하다면, 남은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	
6)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있게 지내고 싶다	
7)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8) 동일한 능력이라면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이 직업을 얻기가 쉽다	
9)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이과보다는 문과 출신이 더 유리하다	
10) 직업 선택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11) 【직업인】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자랑스럽다	
12) 【비직업인】 우리 아버지(어머니, 남편)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자랑스럽다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돈을 벌기 위하여	1	2	3	4
2) 일 자체가 좋아서	1	2	3	4
3) 자아 실현을 위하여	1	2	3	4
4)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1	2	3	4
5)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1	2	3	4
6)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1	2	3	4

문5.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또는 우선 순위가 있는) 순서대로 고른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	

1) 직업 생활　　2) 가정 생활　　3) 학업 생활
4) 사회봉사, 종교 및 친교생활　　5) 여가 생활

Ⅱ. 직업 준비

문6. **귀하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인물입니까?** □

1) 부모　　2) 친구　　3) 친지ㆍ친척
4) 학교 선생님　　5)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6)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7) 기　타 ____________

문7. **귀하는 학생시절(중, 고, 대)에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문7-1로)**　　□ 2) **아니오 (→문8로)**

문7-1. **진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2가지 선택)**

1) 진학지도　　2) 취업지도　　3) 검사 및 상담
4) 직업 정보　　5) 기타 _ _ _ _ _ _

문8. **귀하께서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을 위해 궁금하거나 필요로 하는 직업 정보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1) 진학ㆍ유학 정보　　2) 유망직업에 대한 정보
3)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4) 자격증에 관한 정보
5) 취업정보　　6) 산업 및 경제 정보
7)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 훈련원이나 학원에 대한 정보
8) 창업정보　　9) 기타 _ _ _ _

문9. **귀하께서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

1) 프리랜서　　2) 정규직　　3) 임시계약직(파트타임)

4) 개인사업(자영업) 5) 기타 _ _ _ _ _ _ _ _ _ _ _ _ _

문10. 귀하는 학교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1) 정규직 직장 취업경험	1	2
2) 과외 지도 아르바이트	1	2
3) 과외 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1	2
4) 현장 실습(교생 실습)	1	2
5) 보수 없는 직업 체험	1	2

문11. 【학생은 제외】만약 귀하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하고싶지 않음	하고싶지 않음	하고 싶음	매우 하고싶음
1) 적성, 흥미 등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1	2	3	4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음	1	2	3	4
3) 진로·직업에 대한 의사결정방법을 기르고 싶음	1	2	3	4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1	2	3	4
5) 전문적인 진로 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1	2	3	4

Ⅲ. 취업

문12. 다음 빈칸에 구체적인 직업명을 한가지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항	직 업 명
1) 청소년시기에 부모가 바라던 직업	
2)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	

문13. 귀하는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4. 귀하는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1순위		2순위	

1) 친척
2) 친구, 이웃, 선・후배
3) 민간부문의 상담전문가
4) 공공 직업안정기관
5) 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의 상담전문가
6) 상담가와는 다른 일반적인 교사나 교수
7) 직장 내의 상담전문가
8) 지역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9)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10) 신문
11) 인터넷의 진로관련 사이트
12) 도움을 받지 않는다
13)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문15. 만일 귀하가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앞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1순위		2순위	

1) 친척
2) 친구, 이웃, 선・후배
3) 민간부문의 상담전문가
4) 공공 직업안정기관
5) 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의 상담전문가
6) 상담가와는 다른 일반적인 교사나 교수
7) 직장 내의 상담전문가
8) 지역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9)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10) 신문
11) 인터넷의 진로관련 사이트
12) 도움을 받지 않는다
13)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문16. 귀하는 진로선택을 위해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문16-1로)　　☐ 2) 아니오 (→문17로)

문16-1. 만일 귀하께서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진로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도움이 되었다
3)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17. 귀하는 일반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1순위		2순위	

1)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2) 신문
3) 구인정보지・생활정보지(벼룩시장)・잡지
4)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5)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6)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
7) 취업설명회
8) 사회단체(봉사단체, 복지관 등)
9) 친구나 선배
10) 가족이나 친지
11) 인터넷 사이트
12) 기타 _ _ _ _ _

문18.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 1) 예 (→ 직업인)
□ 2) 아니오 (→ 비직업인)

문19.【직업인】귀하는 현 직장(일)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1순위		2순위	

1)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등록
2)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3) 신문, 잡지, 벽보 등 구인・구직정보
4) 인터넷 사이트
5)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6) 학교, 학원 추천
7) 사업체를 직접 방문
8) 친구, 친지 소개
9) 자영업 준비
10) 인턴사원제를 통해
11) 기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Ⅲ. 직업 생활 (직업인만 응답하세요)

문20. 귀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문21로)
□ 3)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20-1로)

문20-1. 위에서 3), 4)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이유를 다음 중 한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2) 적성/능력/기술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서
3)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
4) 근무조건이 맘에 들어서(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5) 상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6) 일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7) 기타 _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 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	1	2	3	4
2) 직무에 대한 역할갈등 및 모호성	1	2	3	4
3)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	1	2	3	4
4) 직장 내 동료관계 문제	1	2	3	4
5) 직장 내 승진 어려움	1	2	3	4
6)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봉급수준, 수당) 낮음	1	2	3	4

문22.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직무에 대해	1	2	3	4
2)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에 대해	1	2	3	4
3) 근로조건에 대해(월소득,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1	2	3	4
4) 근무 환경에 대해(편의시설 등)	1	2	3	4
5) 회사에서 자기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1	2	3	4
6) 내 직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해	1	2	3	4

Ⅲ-1. 직업 생활 (모두 응답하세요)

문23. 귀하는 여성의 취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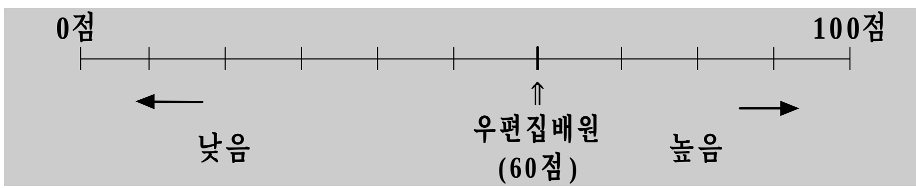
1) 가정에만 전념
2) 결혼전까지 취업
3) 자녀출산 전까지 취업
4) 자녀출산 후 취업
5) 자녀성장 후 취업
6) 결혼전과 자녀출산 후 취업
7) 결혼전과 자녀양육 후 취업
8) 결혼·자녀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9) 기타 _ _ _ _ _ _ _ _ _ _

문24. 직업 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점차 관리적인 지위(최고경영자, 임원 등)로 상승해 가는 길
2)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특정 업무에 있어 전문가가 되는 길
3) 젊은 시절 고용되어 일한 후 독립하여 일을 하거나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
4) 몇 군데 직장을 경험하고 특정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길
5) 몇 군데 직장을 경험하고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6)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을 하거나 가업이나 사업을 이어가는 길

7) 모르겠다
8) 기타 _

문25.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각자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우편집배원'의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직업들이 사회적 지위(권력, 돈, 명예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면에서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점수는 0 100점 사이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편 집배원	60점				
1) 국회의원	점	9) 대기업체 사무원(대리)	점	17) 연예인	점
2) 대기업체 사장	점	10) 변호사	점	18) 광원(광부)	점
3) 은행원	점	11) 펀드매니저	점	19) 목수	점
4) 초등 학교 교장	점	12) 전기기술공	점	20) 어부	점
5) 컴퓨터프로그래머	점	13) 요리사	점	21) (보험)생활 설계사	점
6) 토목기술자	점	14) 경찰관	점	22)선반공(선반 조작원)	점
7) 내과의사	점	15) 프로 축구선수	점	23) 육군대위	점
8) 초등 학교 교사	점	16) (쌀재배)농민	점	24) 단순노무자	점

Ⅳ. 직업 전환

• 【학생은 제외】다음은 과거 귀하께서 직업 전환(이·전직)을 했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 현직자가 아닌 경우는 과거의 직장 생활 경험에 대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26. 학교를 졸업하신 후, 현재(2002년 6월) 몇 번째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번째

문27. 학교를 졸업하신 후, 현재까지의 직업, 근무기간, 퇴사이유에 대해서 밑의 <보기>를 참조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직장이 8번째 이상일 경우 5번째 직장까지 기재하시고, 현직장과 직전 직장에 대해 기입해주십시오.

* 자영이란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사업체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임(자영업주와 고용주 포함

		직 업 <보기카드1제시>	자영여부	근무기간	퇴사이유 <보기카드2 제시>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번째			년 개월	
	두 번째			년 개월	
	세 번째			년 개월	
	네 번째			년 개월	
	다섯번째			년 개월	

	직전 직장			년 개월	
2002년 5월 현재				**년 개월**	

<보기카드1> 직업	1)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10) 실업자(미취업자) 11) 주부 12) 학생 13) 은퇴자
<보기카드2> 퇴직사유	1)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나빠서 2) 일이 힘들어서 3) 적성에 안맞아서 4) 회사의 휴업・폐업 등으로 5)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6) 직장 기여도(성과) 부족 7) 상사와의 마찰로 8) 인맥(빽)이 없음 9) 대인관계 문제 10) 성차별 11)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12) 결혼,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13) 건강상의 이유로 14) 운이 없음 15) 기타
<자영여부>	자영업 여부를 ○,×로 표시

문28. 【직업인】 귀하의 현재 직업 전환 의도는?

☐ 1) 직종(업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예: 의류제조업 -기계조립제조업)
☐ 2) 새 직장(일터)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 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직장으로) **(→문28-1로)**
☐ 3) 가능하면 지금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문29으로)**

문28-1. 귀하께서 직업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2) 일 자체가 재미없다
3)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4)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이 나쁘다)
5)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승진, 봉급인상 등을 통해)
6) 근로조건이 불만스럽다 (예:연봉삭감・동결, 근로시간, 고용 형태 등)
7) 직급(직위)이 불만스럽다
8)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9) 공장의 작업환경과 복지여건이 나쁘다
10) 출・퇴근이 불편하다
11) 개인 사정 (예:이사, 결혼, 이혼, 진학 등)
12) 직무관련 기술과 전문성 부족
13) 기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문28-2. 귀하가 직업 전환을 할 때 갖고 계시는 구직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최소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임금수준은 상관없다
2) 최소한 이전직장과 동일한 직위(직책)나 임금수준의 일자리여야 한다
3) 임금수준이나 직위(직책)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어야 한다
4) 더블 직업(이중 직업)이 가능한 직업이어야 한다
5) 정년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다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6)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개인 일(가정)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문28-3. 현재 귀하는 직업 전환을 위해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

1)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2) 구체적 정보(구인업체/창업 등) 수집을 하고 있음
3) 주변사람(학교 선.후배/동료 등)과의 상담
4) 직업훈련과 사설학원 등록
5) 학교입학(전문대/대학/특수대학원 등)과 유학을 준비

6) 잠시 직장 생활을 쉬기 위한 계획 수립

문29.【직업인】만약, 귀하에게 지금보다 나은 근무 환경(보수/직위/가능성 등)의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 두고 옮길 것이다
2) 당장은 힘들지만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
3) 당장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4) 아무리 좋은 근무조건을 제안하여도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5) 생각해보지 않았다

Ⅴ. 은퇴

문30. 귀하는 몇 세까지 일(직업 활동)하기 원하십니까? □

-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직업을 가질 경우 몇 세까지 일하고 싶은 지를 응답받을 것

1) 만40세 까지	2) 만45세 까지	3) 만50세 까지
4) 만55세 까지	5) 만60세 까지	6) 만65세 까지
7) 만70세 까지	8) 만71세 이상	
9) 일하고 싶지 않다	10) 모르겠다	11) 기타 _ _

문31.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몇 세까지 일(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직업을 가질 경우 몇 세까지 일하게 될 것인 지를 응답받을 것

1) 만40세 까지	2) 만45세 까지	3) 만50세 까지
4) 만55세 까지	5) 만60세 까지	6) 만65세 까지
7) 만70세 까지	8) 만71세 이상	
9) 일하고 싶지 않다	10) 모르겠다	11) 기타 _ _

문31-1. 위 31번 문항에서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하기 싫은데 돈(부양가족 등)을 벌어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
2)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 연령이다

3)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일을 더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
5)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6) 모르겠다
7) 기타 _

문32. 귀하는 (직업 생활로부터의) 은퇴 이후에 주로 어떤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

•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직업을 가질 경우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 지를 응답**

1)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겠다----
2) 취미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4)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것이므로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
5) 모르겠다
6) 기타 _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table>
<tr><td>지역</td><td colspan="5">□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td></tr>
<tr><td>지역 규모</td><td colspan="5">□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td></tr>
<tr><td>성별</td><td colspan="2">□1) 남자 □2) 여자</td><td>출생 년도</td><td colspan="2">19 _ _ _ 년 (만_ _ _ _ 세)</td></tr>
<tr><td>혼인 상태</td><td colspan="2">□1)미혼 □2)기혼 □3)기타</td><td>경제적 수준</td><td colspan="2">□1)상 □2)중상 □3)중하 □4)하</td></tr>
<tr><td rowspan="3">최종 학력 (단, 계열은 본인의 계열만 표시)</td><td>본 인</td><td></td><td>부 모 님</td><td>1) 아버지 :</td><td>2) 어머니 :</td></tr>
<tr><td colspan="5">1) 초등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졸이상 7) 중학교 재학중 8) 고등학교 재학중
9) 전문대 재학중 10) 대학교 재학중</td></tr>
<tr><td colspan="5"><table><tr><th>고등학교의 계열
(고등학생)</th><th>최종학력의 전공 계열(전문대졸 이상)</th></tr><tr><td>□1) 인문계 □2) 실업계
□3) 예체능계</td><td>□1) 인문계 □2) 사회계 □3) 이・공계
□4) 의・약계□5) 사범계 □6) 예체능계
□7) 기타_ _ _ _ _ _</td></tr></table></td></tr>
<tr><td rowspan="2">직업</td><td>본 인</td><td></td><td>부모</td><td>1) 아버지 :</td><td>2) 어머니 :</td></tr>
<tr><td colspan="5">(부모님 직업은 은퇴했을 경우 직장 생활을 한 당시의 직업을 표시, 사망하였을 경우 살아있을 당시의 직업을 표시)
1)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 종사자
5) 서비스 종사자 6) 판매종사자
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종사자 10) 실업자(미취업자)
11) 주부 12) 학생
13) 은퇴자 14) 기능원
15) 군인</td></tr>
</table>

【아래 내용은 직업인만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위(직급)	□1) 최고관리층(부장이상) □2) 중간관리층(과장이상) □3) 하위층(과장 미만)		
직업명		직장에서 하는 일	
월평균 소득액	□ 1) 50만원 미만 □ 2) 50 99만원 □ 3) 100 149만원 □ 4) 150 199만원 □ 5) 200 249만원 □ 6) 250 299만원 □ 7) 300 349만원 □ 8) 350 399만원 □ 9) 400 449만원 □10) 450 499만원 □11) 500만원이상		
고용형태	**임금 근로자** □1) 고용계약 기간이 1년이상(특별히 하지 않고 근무함) □2) 1개월 이상 1년 미만 □3) 1개월 미만	**비임금 근로자** □1) 고용주 □2)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직장의 근로자수	□1)5인 미만 □2) 5 9인 □3) 10 29인 □4) 30 49인 □5) 50 99인 □6) 100 299인 □7) 300 999인 □8) 1000인 이상		
노조가입여부	□1) 노조원 □2) 비노조원 □3) 노조없음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있게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면접원 이름		전화번호	
면 접 일 시	2002년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 ___ 시 ___ 분까지		

부록 2.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

<표 1>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1(228)						1	2	0.2
1(12)						2	1	0.1
1(120)						3	1	0.1
1(12)						4	1	0.1
1(128)						5	1	0.1
1(54)						8	1	0.1
1(90)	3(185)					8	1	0.1
1(132)	5(60)					5	1	0.1
1(56)	5(28)					1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2>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전문가)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2(77.7)						1	3	0.3
2(41)						2	23	2.0
2(64.3)						3	8	0.7
2(41.5)						4	2	0.2
2(86.5)						5	11	1.0
2(36)						6	1	0.1
2(84)						7	1	0.1
2(36)						8	1	0.1
2(480)						9	1	0.1
2(38.3)	2(57.8)					2	10	0.9
2(10.5)	2(13.5)					3	2	0.2
2(312)	2(60)					5	1	0.1
2(120)	2(60)					6	1	0.1
2(6)	3(12)					4	1	0.1
2(18)	4(27)					3	1	0.1
2(34)	4(56)					4	3	0.3
2(36)	4(36)					5	1	0.1
2(69.5)	5(30)					2	2	0.2
2(36)	5(48)					4	1	0.1
2(96.8)	5(75)					5	4	0.4
2(336)	9(24)					9	1	0.1
2(24)	2(12)	2(12)				1	1	0.1
2(22)	2(62.5)	2(24.5)				2	2	0.2
2(13)	2(6)	2(12)	2(30)			5	1	0.1
2(12)	2(7)	2(24)	2(9)	2(26)		2	2	0.2
2(6)	2(3)	2(6)	2(2)	2(1)		8	1	0.1
2(30)	3(96)	3(180)	5(120)			3	1	0.1
2(120)	4(7)	4(6)	4(12)			2	1	0.1
2(36)	5(180)	5(84)				5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3>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3(40)						1	3	0.3
3(82)						2	3	0.3
3(45.9)						3	21	1.9
3(49.5)						4	8	0.7
3(84.5)						5	25	2.2
3(140)						6	3	0.3
3(46.5)						7	4	0.4
3(55.5)						8	8	0.7
3(228)						9	2	0.2
3(61)	2(12)					8	1	0.1
3(88)	3(36)					1	2	0.2
3(24)	3(22)					2	2	0.2
3(36.9)	3(73.1)					3	7	0.6
3(72)	3(12)					4	1	0.1
3(60)	3(36)					5	1	0.1
3(60)	3(60)					7	1	0.1
3(31.4)	3(41.4)					8	5	0.4
3(48)	4(36)					7	1	0.1
3(19)	5(12)					3	2	0.2
3(27)	5(315)					4	1	0.1
3(36.5)	5(48.8)					5	4	0.4
3(72)	5(144)					8	2	0.2
3(55)	7(60)					5	2	0.2
3(37.5)	7(96.5)					7	2	0.2
3(24)	7(180)					9	1	0.1
3(14)	8(36)					4	1	0.1
3(24)	8(66)					5	2	0.2
3(12)	8(84)					8	1	0.1
3(216)	8(216)					9	1	0.1
3(48)	9(48)					3	1	0.1
3(72)	9(240)					6	1	0.1
3(24)	9(8)					8	1	0.1
3(36)	3(24)	2(12)				2	1	0.1
3(12)	3(18)	2(108)				5	1	0.1
3(14.7)	3(22)	3(26)				3	3	0.3
3(36)	3(12)	3(24)				8	1	0.1
3(60)	3(36)	3(120)				9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계속>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3(36)	3(12)	3(24)				8	1	0.1
3(60)	3(36)	3(120)				9	1	0.1
3(6)	3(6)	5(14)				3	1	0.1
3(24)	3(12)	8(24)				8	1	0.1
3(24)	3(12)	8(24)				9	1	0.1
3(24)	3(24)	3(36)	3(36)			5	1	0.1
3(4)	3(12)	3(5)	5(15)			5	1	0.1
3(18)	3(5)	3(18)	3(1)	3(12)		7	1	0.1
3(63)	3(48)	5(62)	5(37)			5	1	0.1
3(12)	3(48)	5(48)	7(24)			3	1	0.1
3(72)	4(12)	3(108)				8	1	0.1
3(14)	4(30)	4(116)				7	1	0.1
3(14)	5(12)	2(18)				2	1	0.1
3(18)	5(24)	5(20)				2	1	0.1
3(24)	5(24)	5(6)				8	1	0.1
3(8)	5(18)	7(36)				3	1	0.1
3(36)	5(24)	3(24)	7(36)			8	1	0.1
3(31)	5(48)	4(24)	3(36)	3(36)	5(36)	5	1	0.1
3(1)	5(12)	5(12)	5(12)	5(12)		5	1	0.1
3(14)	5(12)	9(12)	5(24)			5	1	0.1
3(8)	7(8)	7(12)				8	1	0.1
3(28)	7(42)	3(14)	5(66)			3	1	0.1
3(48)	8(84)	8(120)	9(24)			9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4>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사무직원)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4(45.6)						1	5	0.4
4(30.4)						2	5	0.4
4(45.4)						3	16	1.4
4(35.3)						4	46	4.1
4(64.3)						5	70	6.2
4(366)						6	2	0.2
4(134)						7	3	0.3
4(63.9)						8	7	0.6
4(130.2)						9	11	1.0
4(96)	2(24)					1	1	0.1
4(30)	2(24)					2	2	0.2
4(72)	2(30)					4	1	0.1
4(99)	2(48)					5	2	0.2
4(22)	3(24)					3	2	0.2
4(37.5)	3(48)					4	4	0.4
4(48)	3(12)					5	1	0.1
4(24)	3(36)					9	1	0.1
4(39.8)	4(66)					1	4	0.4
4(63)	4(53.1)					3	10	0.9
4(37.5)	4(36.4)					4	27	2.4
4(43.4)	4(38.1)					5	16	1.4
4(30)	4(42)					7	1	0.1
4(28.3)	4(32.3)					8	3	0.3
4(24)	4(18)					9	1	0.1
4(60)	5(24)					1	1	0.1
4(38)	5(44)					3	3	0.3
4(29.6)	5(40.4)					4	9	0.8
4(49.5)	5(48.3)					5	24	2.1
4(56)	5(132)					8	3	0.3
4(60)	5(24)					9	1	0.1
4(96)	6(120)					3	1	0.1
4(84)	6(72)					5	1	0.1
4(60)	6(48)					6	1	0.1
4(24)	7(36)					8	1	0.1
4(36)	8(180)					4	1	0.1
4(180)	8(24)					5	1	0.1
4(145)	8(37)					8	2	0.2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계속>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4(62)	8(48)					9	1	0.1
4(36)	9(36)					5	1	0.1
4(6)	9(30)					8	1	0.1
4(72)	1(24)	1(24)	1(36)	1(24)	1(36)	1	1	0.1
4(60)	2(24)	2(36)				5	1	0.1
4(32)	2(6)	4(24)				4	1	0.1
4(24)	2(5)	7(7)	7(18)			7	1	0.1
4(24)	3(36)	7(24)	5(36)	5(24)	5(36)	5	1	0.1
4(15)	4(27)	3(12)				5	1	0.1
4(36)	4(24)	4(24)				1	1	0.1
4(42)	4(30)	4(42)				3	2	0.2
4(23)	4(25)	4(15.3)				4	4	0.4
4(49.8)	4(32.5)	4(54.8)				5	4	0.4
4(12)	4(8)	4(22)				7	1	0.1
4(60)	4(120)	4(96)				9	1	0.1
4(12)	4(12)	5(18)				1	1	0.1
4(36)	4(36)	5(24)				3	1	0.1
4(24.7)	4(27.7)	5(33.3)				4	3	0.3
4(24)	4(36)	5(68)				5	3	0.3
4(36)	4(12)	5(12)				8	1	0.1
4(18)	4(18)	2(48)	4(12)	2(24)		2	1	0.1
4(36)	4(36)	4(96)	2(60)			3	1	0.1
4(6)	4(6)	4(3)	3(3)			3	1	0.1
4(120)	4(96)	4(60)	4(60)			1	1	0.1
4(6)	4(8)	4(12)	4(5)			3	1	0.1
4(21)	4(24)	4(12)	4(24)			5	2	0.2
4(20)	4(42)	4(12)	5(12)			5	1	0.1
4(12)	4(188)	4(12)	9(12)			9	1	0.1
4(96)	4(24)	4(6)	4(48)	4(60)	1(24)	1	1	0.1
4(6)	4(4.5)	4(4.5)	4(6)	4(2)	4(5.5)	4	2	0.2
4(12)	4(24)	4(3)	4(24)	4(36)	4(12)	5	1	0.1
4(12)	4(12)	5(12)	5(12)			5	1	0.1
4(6)	4(6)	5(6)	4(12)	4(12)	4(48)	5	1	0.1
4(21.5)	4(38)	5(19.5)	5(37)	5(11)		5	2	0.2
4(12)	4(24)	7(12)	4(18)	4(4)		4	1	0.1
4(18)	5(36)	2(18)				4	1	0.1
4(8)	5(13)	4(9)				4	1	0.1
4(6)	5(6)	4(6)				5	1	0.1
4(24)	5(120)	5(115)				1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계속>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4(62)	8(48)					9	1	0.1
4(36)	9(36)					5	1	0.1
4(6)	9(30)					8	1	0.1
4(72)	1(24)	1(24)	1(36)	1(24)	1(36)	1	1	0.1
4(60)	2(24)	2(36)				5	1	0.1
4(32)	2(6)	4(24)				4	1	0.1
4(24)	2(5)	7(7)	7(18)			7	1	0.1
4(24)	3(36)	7(24)	5(36)	5(24)	5(36)	5	1	0.1
4(15)	4(27)	3(12)				5	1	0.1
4(36)	4(24)	4(24)				1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5>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서비스, 판매근로자)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5(192)						1	1	0.1
5(84)						2	1	0.1
5(79.2)						3	13	1.2
5(46.6)						4	15	1.3
5(74.9)						5	65	5.8
5(123.5)						6	4	0.4
5(72.6)						7	13	1.2
5(58.4)						8	18	1.6
5(148)						9	5	0.4
5(36)	2(3)					5	1	0.1
5(18)	3(42)					3	2	0.2
5(24)	3(6)					4	1	0.1
5(66)	3(132)					5	2	0.2
5(17)	3(27)					8	1	0.1
5(55.5)	4(73)					3	2	0.2
5(28.8)	4(33.8)					4	4	0.4
5(44.9)	4(38)					5	7	0.6
5(18.7)	4(26)					7	3	0.3
5(24)	4(30)					8	1	0.1
5(66)	5(54)					3	2	0.2
5(66)	5(28)					4	2	0.2
5(38.2)	5(42.2)					5	25	2.2
5(24)	5(24)					7	2	0.2
5(51.5)	5(54.5)					8	4	0.4
5(29)	5(65)					9	1	0.1
5(14)	7(6)					4	1	0.1
5(4)	7(11)					5	1	0.1
5(120)	7(36)					9	1	0.1
5(68.5)	8(25)					5	2	0.2
5(18)	8(36)					7	1	0.1
5(12)	8(6)					9	1	0.1
5(144)	9(36)					3	1	0.1
5(48)	9(18)					5	1	0.1
5(60)	9(144)					7	1	0.1
5(60)	9(60)					9	1	0.1
5(12)	2(36)	5(24)				5	1	0.1
5(12)	2(12)	5(48)				8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계속>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5(12)	2(24)	3(24)	3(25)			8	1	0.1
5(31)	3(68)	3(32)				8	1	0.1
5(36)	4(48)	4(48)				5	1	0.1
5(42)	4(30)	9(5)				4	1	0.1
5(24)	4(12)	4(12)	4(12)			4	1	0.1
5(14)	4(28)	4(18)	5(40)			5	1	0.1
5(24)	4(3)	5(60)	5(8)	5(24)	5(60)	2	1	0.1
5(36)	4(24)	9(36)	8(24)	3(120)	5(72)	5	1	0.1
5(24)	5(48)	3(36)				8	1	0.1
5(12)	5(6)	4(6)				4	1	0.1
5(8)	5(12)	5(24)				2	1	0.1
5(37.5)	5(27.5)	5(27.9)				5	11	1.0
5(16)	5(30)	5(18)				7	2	0.2
5(6)	5(6)	5(1)				8	1	0.1
5(38)	5(41)	5(69)				9	1	0.1
5(24)	5(36)	8(72)				8	1	0.1
5(3)	5(2)	9(3)				8	1	0.1
5(6)	5(12)	4(36)	5(6)			5	1	0.1
5(60)	5(24)	5(12)	4(48)			4	1	0.1
5(36)	5(5)	5(19)	5(12)			3	1	0.1
5(18)	5(8)	5(30)	5(42)			5	2	0.2
5(36)	5(12)	5(12)	5(12)			8	1	0.1
5(12)	5(6)	5(12)	3(12)	4(6)		5	1	0.1
5(5)	5(3)	5(24)	5(12)	5(24)	5(10)	5	1	0.1
5(6)	5(6)	5(6)	5(10)	5(6)	5(12)	9	1	0.1
5(5)	5(6)	5(6)	5(6)	5(6)	8(14)	9	1	0.1
5(3)	5(7)	5(7)	7(60)	7(14)		5	1	0.1
5(12)	5(12)	5(12)	8(60)	5(12)	5(6)	5	1	0.1
5(3)	5(24)	5(18)	8(8)	8(12)	8(12)	7	1	0.1
5(12)	7(36)	4(12)				7	1	0.1
5(30)	7(66)	7(69)				7	2	0.2
5(12)	7(12)	7(12)	7(12)	7(12)	7(12)	5	1	0.1
5(48)	7(18)	9(36)	7(12)	6(72)	9(24)	6	1	0.1
5(72)	8(36)	5(36)				5	1	0.1
5(12)	8(6)	7(6)	7(63)	7(6)	5(25)	5	1	0.1
5(16)	9(6)	4(12)	3(4)	5(4)		9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6>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농어업근로자)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6(120)						3	1	0.1
6(148)						4	3	0.3
6(255)						5	4	0.4
6(540)						6	1	0.1
6(120)						8	1	0.1
6(280)						9	3	0.3
6(180)	4(36)					5	1	0.1
6(60)	5(90)					5	2	0.2
6(180)	5(180)					7	1	0.1
6(156)	6(360)					6	1	0.1
6(120)	7(12)					8	1	0.1
6(240)	9(120)					9	1	0.1
6(77)	5(28)	5(51)	5(36)			5	1	0.1
6(120)	6(240)	9(12)				5	1	0.1
6(36)	6(120)	5(24)	5(12)	5(24)	9(36)	5	1	0.1
6(30)	7(24)	7(24)				7	1	0.1
6(24)	8(120)	5(48)				8	1	0.1
6(36)	8(36)	8(24)				5	1	0.1
6(36)	9(12)	9(24)	9(18)			9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7>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기능원)

직업 전환 경로						현재 직업	빈도	(%)
1	2	3	4	5	6			
7(120)						1	1	0.1
7(28)						3	3	0.3
7(49.3)						4	4	0.4
7(66.7)						5	15	1.3
7(48)						6	2	0.2
7(113.9)						7	8	0.7
7(43.9)						8	7	0.6
7(72)						9	4	0.4
7(168)	3(36)					5	1	0.1
7(12)	3(12)					8	1	0.1
7(12)	4(48)					3	1	0.1
7(24)	4(12)					4	1	0.1
7(36)	4(84)					5	1	0.1
7(12)	4(24)					7	1	0.1
7(14)	5(11)					3	1	0.1
7(7)	5(3)					4	1	0.1
7(150)	5(132)					5	2	0.2
7(70)	5(151)					7	2	0.2
7(52)	5(20.3)					8	3	0.3
7(162)	5(90)					9	2	0.2
7(84)	7(36)					4	1	0.1
7(67.8)	7(86.5)					5	4	0.4
7(64.8)	7(72)					7	5	0.4
7(42)	7(36)					8	2	0.2
7(75)	7(73)					9	4	0.4
7(56)	8(92)					7	1	0.1
7(24)	8(12)					8	1	0.1
7(240)	8(72)					9	1	0.1
7(27.5)	9(21)					5	2	0.2
7(24)	9(15)					8	1	0.1
7(36)	3(12)	3(12)	3(18)			8	1	0.1
7(12)	3(12)	8(1)	7(48)			6	1	0.1
7(48)	5(60)	4(36)				9	1	0.1
7(18)	5(36)	5(12)				5	1	0.1
7(24)	5(24)	7(24)	8(24)			5	1	0.1
7(60)	5(24)	9(84)	7(120)			5	1	0.1
7(30)	6(48)	6(66)				6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계속>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7(72)	7(36)	5(60)				5	1	0.1
7(60)	7(84)	6(120)				9	1	0.1
7(102)	7(30.3)	7(50.3)				8	3	0.3
7(120)	7(51)	8(240)				8	1	0.1
7(26)	7(18)	9(12)				9	1	0.1
7(6)	7(5)	4(6)	7(3)	5(12)	7(6)	3	1	0.1
7(24)	7(36)	6(24)	3(36)			9	1	0.1
7(36)	7(3)	7(6)	3(48)			9	1	0.1
7(24)	7(12)	7(6)	7(12)			4	1	0.1
7(49)	7(38)	7(25)	7(25)			7	1	0.1
7(12)	7(24)	7(12)	7(12)	7(24)		7	1	0.1
7(264)	7(180)	7(36)	7(36)	7(48)	7(36)	5	1	0.1
7(30)	7(24)	7(29)	7(30)	7(30)	7(12)	7	1	0.1
7(14)	7(41)	8(12)	5(96)	9(60)		5	1	0.1
7(24)	7(120)	8(72)	7(36)	7(24)		8	1	0.1
7(24)	8(60)	2(216)	3(12)			7	1	0.1
7(24)	8(108)	7(60)	9(36)	9(42)		5	1	0.1
7(60)	9(60)	9(120)				9	1	0.1
7(33)	9(12)	3(12)	3(12)	3(12)	3(12)	4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8>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기계조작 및 조립원)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8(120)						3	1	0.1
8(53.9)						5	7	0.6
8(60)						6	1	0.1
8(56)						7	4	0.4
8(41.3)						8	7	0.6
8(60)	2(18)					8	1	0.1
8(96)	3(42)					1	1	0.1
8(69)	3(96)					3	2	0.2
8(67)	3(29)					8	1	0.1
8(6)	5(36)					3	1	0.1
8(12)	5(12)					4	1	0.1
8(43)	5(21)					5	2	0.2
8(18)	5(12)					8	1	0.1
8(144)	5(72)					9	1	0.1
8(36)	7(36)					7	1	0.1
8(42)	8(18)					5	2	0.2
8(50.4)	8(95)					8	5	0.4
8(138)	8(174)					9	2	0.2
8(104)	9(102)					5	3	0.3
8(24)	9(84)					7	1	0.1
8(12)	3(36)	3(36)				7	1	0.1
8(15)	3(12)	7(24)	5(38)	9(14)		8	1	0.1
8(84)	3(36)	8(24)	8(72)			3	1	0.1
8(12)	4(12)	5(18)				8	1	0.1
8(28)	4(12)	4(24)	4(144)			8	1	0.1
8(120)	5(60)	5(36)				5	1	0.1
8(44)	5(18)	5(18)				8	1	0.1
8(24)	5(5)	9(5)	3(12)	5(12)		4	1	0.1
8(12)	7(24)	7(2)	5(36)	5(84)	5(60)	8	1	0.1
8(36)	8(36)	3(24)				7	1	0.1
8(72)	8(36)	8(48)				8	1	0.1
8(96)	8(36)	5(36)	6(36)			9	1	0.1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표 9> 직업별 직업이동 경로(단순노무원)

직업 전환 경로								
1	2	3	4	5	6	현재 직업	빈도	(%)
9(36)						1	1	0.1
9(9.5)						4	2	0.2
9(56.2)						5	9	0.8
9(27.9)						8	7	0.6
9(62.3)						9	9	0.8
9(56)	3(12)					3	1	0.1
9(2)	4(14)					4	1	0.1
9(96)	5(96)					3	1	0.1
9(6)	5(12)					4	1	0.1
9(18)	5(20)					5	1	0.1
9(6)	5(12)					8	1	0.1
9(36)	6(84)					5	1	0.1
9(18)	7(28)					3	1	0.1
9(12)	7(36)					7	1	0.1
9(7)	8(36)					7	1	0.1
9(28)	9(16)					5	3	0.3
9(42.8)	9(59.5)					8	4	0.4
9(84.3)	9(6.3)					9	3	0.3
9(36)	3(12)	9(11)	3(72)			5	1	0.1
9(48)	4(12)	4(12)	4(18)	4(24)		7	1	0.1
9(6)	5(7)	5(15)				8	1	0.1
9(60)	5(14)	8(17)				7	1	0.1
9(38)	5(26)	4(42)	7(78)			8	1	0.1
9(6)	5(5)	6(15)	1(82)			5	1	0.1
9(12)	7(3)	4(36)	5(12)	4(36)		5	1	0.1
9(12)	7(17)	9(6)	8(14)	8(24)	8(20)	5	1	0.1
9(6)	8(15)	8(15)	8(18)			4	1	0.1
9(12)	8(24)	8(60)	8(36)	8(48)	9(36)	8	1	0.1
9(120)	9(240)	7(60)				8	1	0.1
9(24)	9(24)	8(12)				8	1	0.1
9(42)	9(72)	9(96)				3	1	0.1
9(12)	9(12)	9(156)				9	1	0.1
9(36)	9(24)	5(24)	5(24)	9(36)	9(12)	9	1	0.1
9(36)	9(36)	5(48)	9(24)	9(24)		9	1	0.1
9(12)	9(3)	9(3)	9(24)			9	1	0.1
							1124	100.0

주)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판매근로자 6. 농어업근로자
7. 기능원 8. 기계조작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원

*( )괄호 안은 재직 기간(월)

부록3. 한국인 직업의식 조사(II) 통계표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시간적 여유가 많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3.6	19.6	54.2	22.6	.0	3.6	96.4	.0	100.0	3.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3	20.1	53.5	22.2	.0	4.3	95.7	.0	100.0	2.9
비직업인	(799)	2.1	18.5	55.8	23.4	.1	2.1	97.7	.1	100.0	3.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1	21.0	56.0	18.0	.0	5.1	94.9	.0	100.0	2.9
100~199만원	(768)	4.2	19.3	53.8	22.8	.0	4.2	95.8	.0	100.0	3.0
200~299만원	(327)	3.1	19.3	52.3	25.4	.0	3.1	96.9	.0	100.0	3.0
300~399만원	(96)	4.2	21.9	49.0	25.0	.0	4.2	95.8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6.7	21.7	45.0	26.7	.0	6.7	93.3	.0	100.0	2.9
무응답	(13)	7.7	30.8	53.8	7.7	.0	7.7	92.3	.0	100.0	2.6
경제수준											
상	(44)	4.5	9.1	56.8	29.5	.0	4.5	95.5	.0	100.0	3.1
중상	(1054)	3.2	19.9	53.2	23.5	.1	3.2	96.7	.1	100.0	3.0
중하	(1202)	3.4	19.3	55.0	22.3	.0	3.4	96.6	.0	100.0	3.0
하	(160)	7.5	20.0	53.8	18.8	.0	7.5	92.5	.0	100.0	2.8
무응답	(54)	1.9	25.9	55.6	16.7	.0	1.9	98.1	.0	100.0	2.9
혼인상태											
미혼	(885)	1.8	17.2	54.9	26.0	.1	1.8	98.1	.1	100.0	3.1
기혼	(1629)	4.5	20.9	53.8	20.7	.0	4.5	95.5	.0	100.0	2.9
지역											
서울	(577)	2.8	18.9	53.9	24.4	.0	2.8	97.2	.0	100.0	3.0
부산	(210)	4.8	23.3	44.3	27.6	.0	4.8	95.2	.0	100.0	2.9
대구	(138)	1.4	12.3	60.9	25.4	.0	1.4	98.6	.0	100.0	3.1
인천	(134)	3.0	23.1	51.5	22.4	.0	3.0	97.0	.0	100.0	2.9
광주	(71)	.0	21.1	40.8	38.0	.0	.0	100.0	.0	100.0	3.2
대전	(72)	4.2	11.1	59.7	25.0	.0	4.2	95.8	.0	100.0	3.1
울산	(54)	.0	24.1	46.3	29.6	.0	.0	100.0	.0	100.0	3.1
경기	(485)	4.5	20.4	53.8	21.0	.2	4.5	95.3	.2	100.0	2.9
강원	(81)	3.7	14.8	61.7	19.8	.0	3.7	96.3	.0	100.0	3.0
충북	(75)	1.3	18.7	52.0	28.0	.0	1.3	98.7	.0	100.0	3.1
충남	(98)	1.0	12.2	69.4	17.3	.0	1.0	99.0	.0	100.0	3.0
전북	(104)	8.7	14.4	40.4	36.5	.0	8.7	91.3	.0	100.0	3.0
전남	(109)	.9	22.0	65.1	11.9	.0	.9	99.1	.0	100.0	2.9
경북	(145)	4.1	27.6	59.3	9.0	.0	4.1	95.9	.0	100.0	2.7
경남	(161)	7.5	21.1	57.1	14.3	.0	7.5	92.5	.0	100.0	2.8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함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1.0	9.9	52.5	36.4	.2	1.0	98.8	.2	100.0	3.2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3	11.3	52.2	35.0	.2	1.3	98.5	.2	100.0	3.2
비직업인	(799)	.3	7.1	52.9	39.5	.1	.3	99.6	.1	100.0	3.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8	10.5	52.4	35.0	.3	1.8	97.9	.3	100.0	3.2
100~199만원	(768)	1.0	11.1	53.8	34.0	.1	1.0	98.8	.1	100.0	3.2
200~299만원	(327)	1.2	13.5	48.0	37.0	.3	1.2	98.5	.3	100.0	3.2
300~399만원	(96)	3.1	13.5	45.8	37.5	.0	3.1	96.9	.0	100.0	3.2
400만원 이상	(60)	3.3	6.7	53.3	36.7	.0	3.3	96.7	.0	100.0	3.2
무응답	(13)	.0	15.4	61.5	23.1	.0	.0	100.0	.0	100.0	3.1
경제수준											
상	(44)	.0	4.5	59.1	34.1	2.3	.0	97.7	2.3	100.0	3.3
중상	(1054)	1.1	8.4	52.8	37.6	.1	1.1	98.8	.1	100.0	3.3
중하	(1202)	.7	11.5	51.6	36.0	.2	.7	99.1	.2	100.0	3.2
하	(160)	2.5	10.0	55.6	31.9	.0	2.5	97.5	.0	100.0	3.2
무응답	(54)	.0	9.3	51.9	38.9	.0	.0	100.0	.0	100.0	3.3
혼인상태											
미혼	(885)	.6	9.5	47.8	42.0	.1	.6	99.3	.1	100.0	3.3
기혼	(1629)	1.2	10.2	55.0	33.4	.2	1.2	98.6	.2	100.0	3.2
지역											
서울	(577)	1.0	12.5	51.1	35.4	.0	1.0	99.0	.0	100.0	3.2
부산	(210)	.0	8.1	45.2	46.7	.0	.0	100.0	.0	100.0	3.4
대구	(138)	1.4	4.3	59.4	34.8	.0	1.4	98.6	.0	100.0	3.3
인천	(134)	.7	9.0	56.7	32.8	.7	.7	98.5	.7	100.0	3.2
광주	(71)	.0	5.6	39.4	54.9	.0	.0	100.0	.0	100.0	3.5
대전	(72)	1.4	4.2	50.0	44.4	.0	1.4	98.6	.0	100.0	3.4
울산	(54)	.0	1.9	33.3	64.8	.0	.0	100.0	.0	100.0	3.6
경기	(485)	1.9	10.5	50.5	36.9	.2	1.9	97.9	.2	100.0	3.2
강원	(81)	2.5	7.4	54.3	35.8	.0	2.5	97.5	.0	100.0	3.2
충북	(75)	.0	4.0	41.3	54.7	.0	.0	100.0	.0	100.0	3.5
충남	(98)	.0	4.1	70.4	24.5	1.0	.0	99.0	1.0	100.0	3.2
전북	(104)	1.0	6.7	38.5	53.8	.0	1.0	99.0	.0	100.0	3.5
전남	(109)	.0	21.1	63.3	15.6	.0	.0	100.0	.0	100.0	2.9
경북	(145)	.7	19.3	59.3	20.7	.0	.7	99.3	.0	100.0	3.0
경남	(161)	1.2	8.1	65.2	24.8	.6	1.2	98.1	.6	100.0	3.1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높은 보수를 받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1.6	7.5	40.0	50.8	.2	1.6	98.3	.2	100.0	3.4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9	7.7	39.2	51.0	.2	1.9	97.9	.2	100.0	3.4
비직업인	(799)	.8	7.0	41.6	50.6	.1	.8	99.1	.1	100.0	3.4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6	12.9	38.3	44.6	.6	3.6	95.8	.6	100.0	3.2
100~199만원	(768)	1.4	6.6	38.2	53.8	.0	1.4	98.6	.0	100.0	3.4
200~299만원	(327)	.6	6.1	40.4	52.6	.3	.6	99.1	.3	100.0	3.5
300~399만원	(96)	5.2	6.3	39.6	49.0	.0	5.2	94.8	.0	100.0	3.3
400만원 이상	(60)	1.7	5.0	40.0	53.3	.0	1.7	98.3	.0	100.0	3.5
무응답	(13)	.0	7.7	38.5	53.8	.0	.0	100.0	.0	100.0	3.5
경제수준											
상	(44)	2.3	11.4	45.5	40.9	.0	2.3	97.7	.0	100.0	3.3
중상	(1054)	1.2	7.3	40.9	50.5	.1	1.2	98.7	.1	100.0	3.4
중하	(1202)	1.5	7.2	39.2	51.9	.2	1.5	98.3	.2	100.0	3.4
하	(160)	3.8	8.1	41.9	46.3	.0	3.8	96.3	.0	100.0	3.3
무응답	(54)	1.9	13.0	29.6	55.6	.0	1.9	98.1	.0	100.0	3.4
혼인상태											
미혼	(885)	1.7	8.4	40.3	49.3	.3	1.7	98.0	.3	100.0	3.4
기혼	(1629)	1.5	7.0	39.8	51.7	.1	1.5	98.5	.1	100.0	3.4
지역											
서울	(577)	1.4	8.0	40.9	49.7	.0	1.4	98.6	.0	100.0	3.4
부산	(210)	.0	2.9	19.5	77.6	.0	.0	100.0	.0	100.0	3.7
대구	(138)	.0	5.8	37.7	56.5	.0	.0	100.0	.0	100.0	3.5
인천	(134)	.7	13.4	46.3	38.8	.7	.7	98.5	.7	100.0	3.2
광주	(71)	.0	.0	35.2	64.8	.0	.0	100.0	.0	100.0	3.6
대전	(72)	2.8	5.6	27.8	63.9	.0	2.8	97.2	.0	100.0	3.5
울산	(54)	.0	9.3	38.9	51.9	.0	.0	100.0	.0	100.0	3.4
경기	(485)	2.5	8.7	45.4	43.1	.4	2.5	97.1	.4	100.0	3.3
강원	(81)	3.7	8.6	58.0	29.6	.0	3.7	96.3	.0	100.0	3.1
충북	(75)	.0	4.0	30.7	65.3	.0	.0	100.0	.0	100.0	3.6
충남	(98)	2.0	6.1	50.0	40.8	1.0	2.0	96.9	1.0	100.0	3.3
전북	(104)	.0	3.8	41.3	54.8	.0	.0	100.0	.0	100.0	3.5
전남	(109)	2.8	7.3	40.4	49.5	.0	2.8	97.2	.0	100.0	3.4
경북	(145)	1.4	10.3	40.7	47.6	.0	1.4	98.6	.0	100.0	3.3
경남	(161)	3.7	9.9	39.1	47.2	.0	3.7	96.3	.0	100.0	3.3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중요하지 않음	종합: 중요함	종합: 무응답	계	4점 평균
전체	(2514)	1.3	8.8	47.6	42.0	.2	1.3	98.5	.2	100.0	3.3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6	9.7	46.8	41.7	.2	1.6	98.2	.2	100.0	3.3
비직업인	(799)	.6	7.0	49.3	42.8	.3	.6	99.1	.3	100.0	3.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6	14.4	49.4	32.6	.0	3.6	96.4	.0	100.0	3.1
100~199만원	(768)	1.2	8.5	49.5	40.6	.3	1.2	98.6	.3	100.0	3.3
200~299만원	(327)	.0	9.2	44.6	45.9	.3	.0	99.7	.3	100.0	3.4
300~399만원	(96)	4.2	5.2	36.5	54.2	.0	4.2	95.8	.0	100.0	3.4
400만원 이상	(60)	1.7	3.3	45.0	50.0	.0	1.7	98.3	.0	100.0	3.4
무응답	(13)	.0	15.4	15.4	69.2	.0	.0	100.0	.0	100.0	3.5
경제수준											
상	(44)	2.3	11.4	36.4	50.0	.0	2.3	97.7	.0	100.0	3.3
중상	(1054)	.8	6.8	46.9	45.4	.2	.8	99.1	.2	100.0	3.4
중하	(1202)	1.1	9.5	49.5	39.8	.2	1.1	98.8	.2	100.0	3.3
하	(160)	6.9	15.0	43.1	34.4	.6	6.9	92.5	.6	100.0	3.1
무응답	(54)	.0	13.0	42.6	44.4	.0	.0	100.0	.0	100.0	3.3
혼인상태											
미혼	(885)	1.5	6.3	41.9	50.2	.1	1.5	98.4	.1	100.0	3.4
기혼	(1629)	1.2	10.2	50.7	37.6	.2	1.2	98.5	.2	100.0	3.3
지역											
서울	(577)	1.0	9.2	44.2	45.6	.0	1.0	99.0	.0	100.0	3.3
부산	(210)	.0	14.8	45.7	39.5	.0	.0	100.0	.0	100.0	3.2
대구	(138)	.0	4.3	37.7	58.0	.0	.0	100.0	.0	100.0	3.5
인천	(134)	3.7	6.7	43.3	45.5	.7	3.7	95.5	.7	100.0	3.3
광주	(71)	.0	.0	53.5	46.5	.0	.0	100.0	.0	100.0	3.5
대전	(72)	.0	6.9	34.7	58.3	.0	.0	100.0	.0	100.0	3.5
울산	(54)	.0	5.6	37.0	57.4	.0	.0	100.0	.0	100.0	3.5
경기	(485)	2.7	7.8	44.5	44.5	.4	2.7	96.9	.4	100.0	3.3
강원	(81)	3.7	17.3	53.1	25.9	.0	3.7	96.3	.0	100.0	3.0
충북	(75)	.0	6.7	33.3	60.0	.0	.0	100.0	.0	100.0	3.5
충남	(98)	.0	4.1	61.2	33.7	1.0	.0	99.0	1.0	100.0	3.3
전북	(104)	.0	6.7	51.9	41.3	.0	.0	100.0	.0	100.0	3.3
전남	(109)	1.8	9.2	74.3	14.7	.0	1.8	98.2	.0	100.0	3.0
경북	(145)	1.4	11.0	57.2	30.3	.0	1.4	98.6	.0	100.0	3.2
경남	(161)	1.2	13.0	56.5	28.6	.6	1.2	98.1	.6	100.0	3.1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사회적으로 인정받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2.5	14.1	48.2	35.1	.1	2.5	97.4	.1	100.0	3.2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9	14.3	47.6	35.1	.1	2.9	97.0	.1	100.0	3.2
비직업인	(799)	1.8	13.8	49.3	35.0	.1	1.8	98.1	.1	100.0	3.2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8	16.5	52.4	26.3	.0	4.8	95.2	.0	100.0	3.0
100~199만원	(768)	2.5	16.0	47.1	34.2	.1	2.5	97.4	.1	100.0	3.1
200~299만원	(327)	.9	12.5	46.5	39.8	.3	.9	98.8	.3	100.0	3.3
300~399만원	(96)	5.2	5.2	51.0	38.5	.0	5.2	94.8	.0	100.0	3.2
400만원 이상	(60)	1.7	5.0	45.0	48.3	.0	1.7	98.3	.0	100.0	3.4
무응답	(13)	.0	15.4	46.2	38.5	.0	.0	100.0	.0	100.0	3.2
경제수준											
상	(44)	2.3	13.6	50.0	34.1	.0	2.3	97.7	.0	100.0	3.2
중상	(1054)	1.7	10.8	49.8	37.5	.2	1.7	98.1	.2	100.0	3.2
중하	(1202)	2.7	15.6	48.2	33.4	.1	2.7	97.3	.1	100.0	3.1
하	(160)	7.5	22.5	38.1	31.9	.0	7.5	92.5	.0	100.0	2.9
무응답	(54)	.0	20.4	44.4	35.2	.0	.0	100.0	.0	100.0	3.1
혼인상태											
미혼	(885)	3.2	11.8	47.8	37.1	.2	3.2	96.6	.2	100.0	3.2
기혼	(1629)	2.1	15.4	48.4	34.0	.1	2.1	97.8	.1	100.0	3.1
지역											
서울	(577)	2.6	13.5	48.2	35.5	.2	2.6	97.2	.2	100.0	3.2
부산	(210)	1.4	18.6	39.5	40.5	.0	1.4	98.6	.0	100.0	3.2
대구	(138)	2.2	7.2	44.9	45.7	.0	2.2	97.8	.0	100.0	3.3
인천	(134)	6.7	17.2	40.3	35.1	.7	6.7	92.5	.7	100.0	3.0
광주	(71)	.0	5.6	50.7	43.7	.0	.0	100.0	.0	100.0	3.4
대전	(72)	1.4	18.1	41.7	38.9	.0	1.4	98.6	.0	100.0	3.2
울산	(54)	1.9	7.4	38.9	51.9	.0	1.9	98.1	.0	100.0	3.4
경기	(485)	2.9	12.2	48.7	36.1	.2	2.9	96.9	.2	100.0	3.2
강원	(81)	3.7	17.3	49.4	29.6	.0	3.7	96.3	.0	100.0	3.0
충북	(75)	.0	5.3	32.0	62.7	.0	.0	100.0	.0	100.0	3.6
충남	(98)	.0	14.3	51.0	34.7	.0	.0	100.0	.0	100.0	3.2
전북	(104)	1.0	14.4	47.1	37.5	.0	1.0	99.0	.0	100.0	3.2
전남	(109)	1.8	28.4	56.9	12.8	.0	1.8	98.2	.0	100.0	2.8
경북	(145)	5.5	12.4	60.0	22.1	.0	5.5	94.5	.0	100.0	3.0
경남	(161)	1.9	18.0	61.5	18.6	.0	1.9	98.1	.0	100.0	3.0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중요하지 않음	종합: 중요함	종합: 무응답	계	4점 평균
전체	(2514)	5.1	28.3	47.3	19.1	.2	5.1	94.7	.2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5	27.6	47.4	19.4	.2	5.5	94.3	.2	100.0	2.8
비직업인	(799)	4.3	29.9	47.1	18.5	.3	4.3	95.5	.3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9	30.5	44.6	18.0	.0	6.9	93.1	.0	100.0	2.7
100~199만원	(768)	4.9	29.2	46.7	19.0	.1	4.9	94.9	.1	100.0	2.8
200~299만원	(327)	3.1	26.0	47.1	23.5	.3	3.1	96.6	.3	100.0	2.9
300~399만원	(96)	5.2	20.8	54.2	19.8	.0	5.2	94.8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3.3	20.0	58.3	16.7	1.7	3.3	95.0	1.7	100.0	2.9
무응답	(13)	7.7	23.1	46.2	23.1	.0	7.7	92.3	.0	100.0	2.8
경제수준											
상	(44)	6.8	25.0	50.0	18.2	.0	6.8	93.2	.0	100.0	2.8
중상	(1054)	3.6	27.1	49.5	19.4	.3	3.6	96.1	.3	100.0	2.9
중하	(1202)	5.2	28.5	47.7	18.5	.2	5.2	94.7	.2	100.0	2.8
하	(160)	14.4	33.1	32.5	20.0	.0	14.4	85.6	.0	100.0	2.6
무응답	(54)	3.7	35.2	37.0	24.1	.0	3.7	96.3	.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5.8	30.3	44.9	19.0	.1	5.8	94.1	.1	100.0	2.8
기혼	(1629)	4.7	27.3	48.6	19.2	.2	4.7	95.0	.2	100.0	2.8
지역											
서울	(577)	5.4	28.9	48.4	17.2	.2	5.4	94.5	.2	100.0	2.8
부산	(210)	11.4	28.6	39.0	21.0	.0	11.4	88.6	.0	100.0	2.7
대구	(138)	2.9	32.6	50.0	14.5	.0	2.9	97.1	.0	100.0	2.8
인천	(134)	10.4	28.4	44.8	15.7	.7	10.4	88.8	.7	100.0	2.7
광주	(71)	1.4	23.9	52.1	22.5	.0	1.4	98.6	.0	100.0	3.0
대전	(72)	4.2	27.8	41.7	26.4	.0	4.2	95.8	.0	100.0	2.9
울산	(54)	1.9	20.4	33.3	44.4	.0	1.9	98.1	.0	100.0	3.2
경기	(485)	4.7	26.0	47.6	21.0	.6	4.7	94.6	.6	100.0	2.9
강원	(81)	9.9	29.6	48.1	12.3	.0	9.9	90.1	.0	100.0	2.6
충북	(75)	4.0	42.7	29.3	24.0	.0	4.0	96.0	.0	100.0	2.7
충남	(98)	1.0	23.5	60.2	15.3	.0	1.0	99.0	.0	100.0	2.9
전북	(104)	1.9	20.2	52.9	25.0	.0	1.9	98.1	.0	100.0	3.0
전남	(109)	1.8	33.0	55.0	10.1	.0	1.8	98.2	.0	100.0	2.7
경북	(145)	3.4	26.9	53.1	16.6	.0	3.4	96.6	.0	100.0	2.8
경남	(161)	3.7	32.9	44.1	19.3	.0	3.7	96.3	.0	100.0	2.8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자유 재량권이 많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3.2	24.5	53.6	18.5	.1	3.2	96.7	.1	100.0	2.9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9	24.5	53.1	18.4	.1	3.9	96.0	.1	100.0	2.9
비직업인	(799)	1.8	24.5	54.8	18.8	.1	1.8	98.1	.1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2	26.6	52.7	13.5	.0	7.2	92.8	.0	100.0	2.7
100~199만원	(768)	3.3	25.3	54.3	17.1	.1	3.3	96.6	.1	100.0	2.9
200~299만원	(327)	3.4	23.9	52.6	19.9	.3	3.4	96.3	.3	100.0	2.9
300~399만원	(96)	3.1	18.8	49.0	29.2	.0	3.1	96.9	.0	100.0	3.0
400만원 이상	(60)	1.7	10.0	56.7	31.7	.0	1.7	98.3	.0	100.0	3.2
무응답	(13)	.0	30.8	46.2	23.1	.0	.0	100.0	.0	100.0	2.9
경제수준											
상	(44)	9.1	6.8	59.1	25.0	.0	9.1	90.9	.0	100.0	3.0
중상	(1054)	2.2	25.0	53.3	19.5	.0	2.2	97.8	.0	100.0	2.9
중하	(1202)	3.2	24.4	54.5	17.7	.2	3.2	96.6	.2	100.0	2.9
하	(160)	8.8	25.6	48.1	17.5	.0	8.8	91.3	.0	100.0	2.7
무응답	(54)	3.7	31.5	51.9	13.0	.0	3.7	96.3	.0	100.0	2.7
혼인상태											
미혼	(885)	3.2	21.9	55.1	19.7	.1	3.2	96.7	.1	100.0	2.9
기혼	(1629)	3.3	26.0	52.8	17.9	.1	3.3	96.6	.1	100.0	2.9
지역											
서울	(577)	2.1	19.2	59.3	19.4	.0	2.1	97.9	.0	100.0	3.0
부산	(210)	3.3	23.8	51.0	21.9	.0	3.3	96.7	.0	100.0	2.9
대구	(138)	2.2	15.2	54.3	28.3	.0	2.2	97.8	.0	100.0	3.1
인천	(134)	6.0	23.9	51.5	17.9	.7	6.0	93.3	.7	100.0	2.8
광주	(71)	.0	23.9	50.7	25.4	.0	.0	100.0	.0	100.0	3.0
대전	(72)	1.4	34.7	61.1	2.8	.0	1.4	98.6	.0	100.0	2.7
울산	(54)	1.9	16.7	48.1	33.3	.0	1.9	98.1	.0	100.0	3.1
경기	(485)	3.7	24.5	52.0	19.4	.4	3.7	95.9	.4	100.0	2.9
강원	(81)	9.9	28.4	51.9	9.9	.0	9.9	90.1	.0	100.0	2.6
충북	(75)	2.7	29.3	52.0	16.0	.0	2.7	97.3	.0	100.0	2.8
충남	(98)	3.1	27.6	60.2	9.2	.0	3.1	96.9	.0	100.0	2.8
전북	(104)	1.9	24.0	45.2	28.8	.0	1.9	98.1	.0	100.0	3.0
전남	(109)	1.8	40.4	48.6	9.2	.0	1.8	98.2	.0	100.0	2.7
경북	(145)	4.1	23.4	55.9	16.6	.0	4.1	95.9	.0	100.0	2.8
경남	(161)	5.0	36.0	47.2	11.8	.0	5.0	95.0	.0	100.0	2.7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안정적으로 오래 동안 일할 수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중요하지 않음	종합: 중요함	종합: 무응답	계	4점 평균
전체	(2514)	1.6	8.3	41.4	48.6	.0	1.6	98.3	.0	100.0	3.4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7	8.3	41.0	48.9	.1	1.7	98.2	.1	100.0	3.4
비직업인	(799)	1.4	8.3	42.4	47.9	.0	1.4	98.6	.0	100.0	3.4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7	10.5	41.0	45.8	.0	2.7	97.3	.0	100.0	3.3
100~199만원	(768)	1.4	8.3	42.8	47.4	.0	1.4	98.6	.0	100.0	3.4
200~299만원	(327)	1.2	8.9	41.0	48.6	.3	1.2	98.5	.3	100.0	3.4
300~399만원	(96)	3.1	6.3	37.5	53.1	.0	3.1	96.9	.0	100.0	3.4
400만원 이상	(60)	1.7	1.7	38.3	58.3	.0	1.7	98.3	.0	100.0	3.5
무응답	(13)	.0	7.7	38.5	53.8	.0	.0	100.0	.0	100.0	3.5
경제수준											
상	(44)	2.3	.0	43.2	54.5	.0	2.3	97.7	.0	100.0	3.5
중상	(1054)	1.3	8.7	42.0	47.9	.0	1.3	98.7	.0	100.0	3.4
중하	(1202)	1.7	7.7	40.3	50.1	.1	1.7	98.2	.1	100.0	3.4
하	(160)	2.5	10.6	44.4	42.5	.0	2.5	97.5	.0	100.0	3.3
무응답	(54)	1.9	13.0	44.4	40.7	.0	1.9	98.1	.0	100.0	3.2
혼인상태											
미혼	(885)	1.9	10.3	39.3	48.5	.0	1.9	98.1	.0	100.0	3.3
기혼	(1629)	1.5	7.2	42.6	48.6	.1	1.5	98.5	.1	100.0	3.4
지역											
서울	(577)	2.1	9.2	44.9	43.8	.0	2.1	97.9	.0	100.0	3.3
부산	(210)	.0	6.7	39.5	53.8	.0	.0	100.0	.0	100.0	3.5
대구	(138)	1.4	5.8	40.6	52.2	.0	1.4	98.6	.0	100.0	3.4
인천	(134)	3.7	9.0	38.8	47.8	.7	3.7	95.5	.7	100.0	3.3
광주	(71)	.0	1.4	33.8	64.8	.0	.0	100.0	.0	100.0	3.6
대전	(72)	.0	8.3	37.5	54.2	.0	.0	100.0	.0	100.0	3.5
울산	(54)	.0	5.6	35.2	59.3	.0	.0	100.0	.0	100.0	3.5
경기	(485)	2.3	9.5	39.6	48.7	.0	2.3	97.7	.0	100.0	3.3
강원	(81)	2.5	12.3	49.4	35.8	.0	2.5	97.5	.0	100.0	3.2
충북	(75)	1.3	17.3	18.7	62.7	.0	1.3	98.7	.0	100.0	3.4
충남	(98)	1.0	7.1	49.0	42.9	.0	1.0	99.0	.0	100.0	3.3
전북	(104)	1.0	2.9	51.0	45.2	.0	1.0	99.0	.0	100.0	3.4
전남	(109)	.9	15.6	36.7	46.8	.0	.9	99.1	.0	100.0	3.3
경북	(145)	2.8	4.8	41.4	51.0	.0	2.8	97.2	.0	100.0	3.4
경남	(161)	.6	5.6	46.6	47.2	.0	.6	99.4	.0	100.0	3.4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1.6	12.9	48.1	37.4	.0	1.6	98.4	.0	100.0	3.2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0	13.1	48.5	36.3	.1	2.0	98.0	.1	100.0	3.2
비직업인	(799)	.8	12.4	47.3	39.5	.0	.8	99.2	.0	100.0	3.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3	14.7	46.4	35.6	.0	3.3	96.7	.0	100.0	3.1
100~199만원	(768)	1.7	13.8	50.1	34.4	.0	1.7	98.3	.0	100.0	3.2
200~299만원	(327)	.9	13.1	48.6	37.0	.3	.9	98.8	.3	100.0	3.2
300~399만원	(96)	3.1	9.4	44.8	42.7	.0	3.1	96.9	.0	100.0	3.3
400만원 이상	(60)	3.3	8.3	55.0	33.3	.0	3.3	96.7	.0	100.0	3.2
무응답	(13)	.0	15.4	38.5	46.2	.0	.0	100.0	.0	100.0	3.3
경제수준											
상	(44)	2.3	9.1	52.3	36.4	.0	2.3	97.7	.0	100.0	3.2
중상	(1054)	1.2	12.0	49.3	37.5	.0	1.2	98.8	.0	100.0	3.2
중하	(1202)	1.4	12.6	48.3	37.6	.1	1.4	98.5	.1	100.0	3.2
하	(160)	5.0	21.9	40.6	32.5	.0	5.0	95.0	.0	100.0	3.0
무응답	(54)	1.9	14.8	38.9	44.4	.0	1.9	98.1	.0	100.0	3.3
혼인상태											
미혼	(885)	1.7	9.3	43.7	45.3	.0	1.7	98.3	.0	100.0	3.3
기혼	(1629)	1.5	14.9	50.5	33.0	.1	1.5	98.4	.1	100.0	3.2
지역											
서울	(577)	1.9	12.8	49.0	36.2	.0	1.9	98.1	.0	100.0	3.2
부산	(210)	.0	16.7	43.3	40.0	.0	.0	100.0	.0	100.0	3.2
대구	(138)	.7	5.1	47.8	46.4	.0	.7	99.3	.0	100.0	3.4
인천	(134)	1.5	9.7	47.0	41.0	.7	1.5	97.8	.7	100.0	3.3
광주	(71)	1.4	2.8	52.1	43.7	.0	1.4	98.6	.0	100.0	3.4
대전	(72)	.0	12.5	55.6	31.9	.0	.0	100.0	.0	100.0	3.2
울산	(54)	.0	7.4	29.6	63.0	.0	.0	100.0	.0	100.0	3.6
경기	(485)	3.5	12.2	41.2	43.1	.0	3.5	96.5	.0	100.0	3.2
강원	(81)	4.9	14.8	46.9	33.3	.0	4.9	95.1	.0	100.0	3.1
충북	(75)	1.3	16.0	32.0	50.7	.0	1.3	98.7	.0	100.0	3.3
충남	(98)	.0	13.3	58.2	28.6	.0	.0	100.0	.0	100.0	3.2
전북	(104)	.0	8.7	52.9	38.5	.0	.0	100.0	.0	100.0	3.3
전남	(109)	1.8	27.5	52.3	18.3	.0	1.8	98.2	.0	100.0	2.9
경북	(145)	.7	11.0	60.7	27.6	.0	.7	99.3	.0	100.0	3.2
경남	(161)	.0	18.0	59.0	23.0	.0	.0	100.0	.0	100.0	3.0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3.5	20.7	51.3	24.5	.1	3.5	96.5	.1	100.0	3.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7	20.6	51.3	24.3	.1	3.7	96.2	.1	100.0	3.0
비직업인	(799)	2.9	20.8	51.3	25.0	.0	2.9	97.1	.0	100.0	3.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3	19.2	57.8	19.8	.0	3.3	96.7	.0	100.0	2.9
100~199만원	(768)	3.6	22.5	49.6	24.2	.0	3.6	96.4	.0	100.0	2.9
200~299만원	(327)	4.9	18.7	51.1	25.1	.3	4.9	94.8	.3	100.0	3.0
300~399만원	(96)	4.2	16.7	51.0	28.1	.0	4.2	95.8	.0	100.0	3.0
400만원 이상	(60)	1.7	13.3	55.0	30.0	.0	1.7	98.3	.0	100.0	3.1
무응답	(13)	7.7	7.7	46.2	38.5	.0	7.7	92.3	.0	100.0	3.2
경제수준											
상	(44)	2.3	9.1	56.8	31.8	.0	2.3	97.7	.0	100.0	3.2
중상	(1054)	2.7	20.3	52.0	25.0	.0	2.7	97.3	.0	100.0	3.0
중하	(1202)	3.9	20.3	50.7	24.9	.2	3.9	95.9	.2	100.0	3.0
하	(160)	6.9	26.9	46.9	19.4	.0	6.9	93.1	.0	100.0	2.8
무응답	(54)	.0	27.8	57.4	14.8	.0	.0	100.0	.0	100.0	2.9
혼인상태											
미혼	(885)	3.1	20.1	48.9	27.9	.0	3.1	96.9	.0	100.0	3.0
기혼	(1629)	3.7	21.0	52.5	22.7	.1	3.7	96.2	.1	100.0	2.9
지역											
서울	(577)	3.8	22.4	51.8	22.0	.0	3.8	96.2	.0	100.0	2.9
부산	(210)	2.4	21.9	47.1	28.6	.0	2.4	97.6	.0	100.0	3.0
대구	(138)	2.2	15.9	53.6	28.3	.0	2.2	97.8	.0	100.0	3.1
인천	(134)	3.0	25.4	39.6	31.3	.7	3.0	96.3	.7	100.0	3.0
광주	(71)	7.0	31.0	32.4	29.6	.0	7.0	93.0	.0	100.0	2.8
대전	(72)	4.2	19.4	54.2	22.2	.0	4.2	95.8	.0	100.0	2.9
울산	(54)	3.7	22.2	31.5	42.6	.0	3.7	96.3	.0	100.0	3.1
경기	(485)	5.2	16.5	50.1	28.0	.2	5.2	94.6	.2	100.0	3.0
강원	(81)	3.7	24.7	45.7	25.9	.0	3.7	96.3	.0	100.0	2.9
충북	(75)	4.0	36.0	36.0	24.0	.0	4.0	96.0	.0	100.0	2.8
충남	(98)	1.0	12.2	70.4	16.3	.0	1.0	99.0	.0	100.0	3.0
전북	(104)	1.0	13.5	61.5	24.0	.0	1.0	99.0	.0	100.0	3.1
전남	(109)	.0	29.4	56.0	14.7	.0	.0	100.0	.0	100.0	2.9
경북	(145)	4.8	17.9	55.9	21.4	.0	4.8	95.2	.0	100.0	2.9
경남	(161)	1.9	18.6	64.0	15.5	.0	1.9	98.1	.0	100.0	2.9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무응답		
전체	(2514)	3.7	21.6	49.8	24.8	.0	3.7	96.3	.0	100.0	3.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3	21.8	50.6	23.3	.1	4.3	95.7	.1	100.0	2.9
비직업인	(799)	2.5	21.3	48.3	27.9	.0	2.5	97.5	.0	100.0	3.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0	21.6	50.9	21.6	.0	6.0	94.0	.0	100.0	2.9
100~199만원	(768)	4.0	23.3	49.9	22.8	.0	4.0	96.0	.0	100.0	2.9
200~299만원	(327)	3.7	22.6	50.2	23.2	.3	3.7	96.0	.3	100.0	2.9
300~399만원	(96)	3.1	14.6	57.3	25.0	.0	3.1	96.9	.0	100.0	3.0
400만원 이상	(60)	3.3	16.7	50.0	30.0	.0	3.3	96.7	.0	100.0	3.1
무응답	(13)	7.7	15.4	38.5	38.5	.0	7.7	92.3	.0	100.0	3.1
경제수준											
상	(44)	6.8	13.6	50.0	29.5	.0	6.8	93.2	.0	100.0	3.0
중상	(1054)	2.5	21.2	49.9	26.5	.0	2.5	97.5	.0	100.0	3.0
중하	(1202)	4.0	21.8	50.7	23.5	.1	4.0	95.9	.1	100.0	2.9
하	(160)	9.4	25.6	43.8	21.3	.0	9.4	90.6	.0	100.0	2.8
무응답	(54)	1.9	22.2	48.1	27.8	.0	1.9	98.1	.0	100.0	3.0
혼인상태											
미혼	(885)	2.3	17.9	48.8	31.1	.0	2.3	97.7	.0	100.0	3.1
기혼	(1629)	4.5	23.7	50.4	21.4	.1	4.5	95.5	.1	100.0	2.9
지역											
서울	(577)	2.8	20.5	53.6	23.2	.0	2.8	97.2	.0	100.0	3.0
부산	(210)	3.3	23.8	41.4	31.4	.0	3.3	96.7	.0	100.0	3.0
대구	(138)	1.4	18.1	51.4	29.0	.0	1.4	98.6	.0	100.0	3.1
인천	(134)	3.7	21.6	47.0	26.9	.7	3.7	95.5	.7	100.0	3.0
광주	(71)	2.8	11.3	59.2	26.8	.0	2.8	97.2	.0	100.0	3.1
대전	(72)	.0	27.8	55.6	16.7	.0	.0	100.0	.0	100.0	2.9
울산	(54)	.0	14.8	33.3	51.9	.0	.0	100.0	.0	100.0	3.4
경기	(485)	6.4	20.2	45.6	27.8	.0	6.4	93.6	.0	100.0	2.9
강원	(81)	11.1	17.3	53.1	18.5	.0	11.1	88.9	.0	100.0	2.8
충북	(75)	2.7	29.3	40.0	28.0	.0	2.7	97.3	.0	100.0	2.9
충남	(98)	2.0	12.2	71.4	14.3	.0	2.0	98.0	.0	100.0	3.0
전북	(104)	2.9	20.2	41.3	35.6	.0	2.9	97.1	.0	100.0	3.1
전남	(109)	1.8	34.9	52.3	11.0	.0	1.8	98.2	.0	100.0	2.7
경북	(145)	4.8	23.4	50.3	21.4	.0	4.8	95.2	.0	100.0	2.9
경남	(161)	3.1	29.2	53.4	14.3	.0	3.1	96.9	.0	100.0	2.8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종합: 중요하지 않음	종합: 중요함	계	4점 평균
전체	(2514)	4.7	25.3	50.3	19.6	4.7	95.3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3	26.9	49.3	18.5	5.3	94.7	100.0	2.8
비직업인	(799)	3.5	21.9	52.4	22.2	3.5	96.5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7	29.6	45.8	18.9	5.7	94.3	100.0	2.8
100~199만원	(768)	5.3	28.4	50.1	16.1	5.3	94.7	100.0	2.8
200~299만원	(327)	5.5	23.9	50.2	20.5	5.5	94.5	100.0	2.9
300~399만원	(96)	4.2	26.0	46.9	22.9	4.2	95.8	100.0	2.9
400만원 이상	(60)	5.0	20.0	56.7	18.3	5.0	95.0	100.0	2.9
무응답	(13)	7.7	23.1	46.2	23.1	7.7	92.3	100.0	2.8
경제수준									
상	(44)	4.5	18.2	52.3	25.0	4.5	95.5	100.0	3.0
중상	(1054)	3.8	23.1	52.1	21.1	3.8	96.2	100.0	2.9
중하	(1202)	4.7	26.8	49.8	18.6	4.7	95.3	100.0	2.8
하	(160)	11.3	27.5	45.0	16.3	11.3	88.8	100.0	2.7
무응답	(54)	3.7	35.2	40.7	20.4	3.7	96.3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3.2	23.1	48.8	25.0	3.2	96.8	100.0	3.0
기혼	(1629)	5.6	26.5	51.1	16.8	5.6	94.4	100.0	2.8
지역									
서울	(577)	4.9	23.6	52.2	19.4	4.9	95.1	100.0	2.9
부산	(210)	1.0	21.0	50.0	28.1	1.0	99.0	100.0	3.1
대구	(138)	2.9	13.0	52.2	31.9	2.9	97.1	100.0	3.1
인천	(134)	7.5	30.6	43.3	18.7	7.5	92.5	100.0	2.7
광주	(71)	2.8	16.9	63.4	16.9	2.8	97.2	100.0	2.9
대전	(72)	2.8	30.6	55.6	11.1	2.8	97.2	100.0	2.8
울산	(54)	.0	14.8	40.7	44.4	.0	100.0	100.0	3.3
경기	(485)	6.4	27.4	44.1	22.1	6.4	93.6	100.0	2.8
강원	(81)	11.1	28.4	50.6	9.9	11.1	88.9	100.0	2.6
충북	(75)	5.3	29.3	38.7	26.7	5.3	94.7	100.0	2.9
충남	(98)	2.0	17.3	68.4	12.2	2.0	98.0	100.0	2.9
전북	(104)	4.8	25.0	47.1	23.1	4.8	95.2	100.0	2.9
전남	(109)	2.8	36.7	56.0	4.6	2.8	97.2	100.0	2.6
경북	(145)	4.8	36.6	44.8	13.8	4.8	95.2	100.0	2.7
경남	(161)	6.2	25.5	59.6	8.7	6.2	93.8	100.0	2.7

문1. 귀하의 직업 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종합: 중요하지 않음	종합: 중요함	종합: 무응답	계	4점 평균
전체	(2514)	5.6	25.5	47.8	21.0	.0	5.6	94.4	.0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6.0	25.0	48.3	20.6	.1	6.0	93.9	.1	100.0	2.8
비직업인	(799)	4.8	26.7	46.7	21.9	.0	4.8	95.2	.0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3	28.1	47.3	15.3	.0	9.3	90.7	.0	100.0	2.7
100~199만원	(768)	5.9	26.4	49.9	17.8	.0	5.9	94.1	.0	100.0	2.8
200~299만원	(327)	3.4	25.1	45.6	25.7	.3	3.4	96.3	.3	100.0	2.9
300~399만원	(96)	4.2	14.6	49.0	32.3	.0	4.2	95.8	.0	100.0	3.1
400만원 이상	(60)	3.3	11.7	53.3	31.7	.0	3.3	96.7	.0	100.0	3.1
무응답	(13)	23.1	15.4	38.5	23.1	.0	23.1	76.9	.0	100.0	2.6
경제수준											
상	(44)	13.6	11.4	45.5	29.5	.0	13.6	86.4	.0	100.0	2.9
중상	(1054)	4.3	25.6	47.8	22.3	.0	4.3	95.7	.0	100.0	2.9
중하	(1202)	5.4	25.5	48.3	20.7	.1	5.4	94.5	.1	100.0	2.8
하	(160)	14.4	29.4	41.9	14.4	.0	14.4	85.6	.0	100.0	2.6
무응답	(54)	3.7	25.9	53.7	16.7	.0	3.7	96.3	.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6.1	24.5	44.7	24.6	.0	6.1	93.9	.0	100.0	2.9
기혼	(1629)	5.3	26.1	49.4	19.1	.1	5.3	94.6	.1	100.0	2.8
지역											
서울	(577)	6.4	26.2	48.2	19.2	.0	6.4	93.6	.0	100.0	2.8
부산	(210)	1.4	23.3	42.9	32.4	.0	1.4	98.6	.0	100.0	3.1
대구	(138)	1.4	21.0	51.4	26.1	.0	1.4	98.6	.0	100.0	3.0
인천	(134)	8.2	29.1	44.8	17.2	.7	8.2	91.0	.7	100.0	2.7
광주	(71)	5.6	35.2	39.4	19.7	.0	5.6	94.4	.0	100.0	2.7
대전	(72)	5.6	26.4	52.8	15.3	.0	5.6	94.4	.0	100.0	2.8
울산	(54)	1.9	20.4	27.8	50.0	.0	1.9	98.1	.0	100.0	3.3
경기	(485)	7.8	24.9	43.7	23.5	.0	7.8	92.2	.0	100.0	2.8
강원	(81)	8.6	22.2	53.1	16.0	.0	8.6	91.4	.0	100.0	2.8
충북	(75)	6.7	38.7	32.0	22.7	.0	6.7	93.3	.0	100.0	2.7
충남	(98)	3.1	14.3	72.4	10.2	.0	3.1	96.9	.0	100.0	2.9
전북	(104)	5.8	17.3	49.0	27.9	.0	5.8	94.2	.0	100.0	3.0
전남	(109)	1.8	49.5	42.2	6.4	.0	1.8	98.2	.0	100.0	2.5
경북	(145)	6.9	20.7	53.1	19.3	.0	6.9	93.1	.0	100.0	2.8
경남	(161)	5.0	21.7	60.2	13.0	.0	5.0	95.0	.0	100.0	2.8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그렇지 않음	종합 그러함	계	4점 평균
전체	(2514)	8.1	29.5	51.9	10.5	37.6	62.4	100.0	2.6
직업형태									
직업인	(1715)	9.6	29.9	50.0	10.6	39.4	60.6	100.0	2.6
비직업인	(799)	4.9	28.8	55.9	10.4	33.7	66.3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9	33.5	44.6	12.0	43.4	56.6	100.0	2.6
100~199만원	(768)	10.9	29.3	50.5	9.2	40.2	59.8	100.0	2.6
200~299만원	(327)	8.9	29.4	52.6	9.2	38.2	61.8	100.0	2.6
300~399만원	(96)	8.3	21.9	52.1	17.7	30.2	69.8	100.0	2.8
400만원 이상	(60)	8.3	28.3	51.7	11.7	36.7	63.3	100.0	2.7
무응답	(13)	.0	15.4	61.5	23.1	15.4	84.6	100.0	3.1
경제수준									
상	(44)	4.5	11.4	68.2	15.9	15.9	84.1	100.0	3.0
중상	(1054)	7.1	30.2	52.3	10.4	37.3	62.7	100.0	2.7
중하	(1202)	8.6	30.0	50.9	10.5	38.6	61.4	100.0	2.6
하	(160)	11.9	25.6	51.9	10.6	37.5	62.5	100.0	2.6
무응답	(54)	7.4	31.5	51.9	9.3	38.9	61.1	100.0	2.6
혼인상태									
미혼	(885)	6.7	29.7	51.1	12.5	36.4	63.6	100.0	2.7
기혼	(1629)	8.8	29.4	52.3	9.5	38.2	61.8	100.0	2.6
지역									
서울	(577)	8.0	28.9	51.1	12.0	36.9	63.1	100.0	2.7
부산	(210)	2.9	32.9	56.2	8.1	35.7	64.3	100.0	2.7
대구	(138)	5.8	34.1	50.7	9.4	39.9	60.1	100.0	2.6
인천	(134)	11.9	40.3	43.3	4.5	52.2	47.8	100.0	2.4
광주	(71)	9.9	28.2	54.9	7.0	38.0	62.0	100.0	2.6
대전	(72)	4.2	22.2	58.3	15.3	26.4	73.6	100.0	2.8
울산	(54)	7.4	18.5	53.7	20.4	25.9	74.1	100.0	2.9
경기	(485)	12.4	28.2	46.4	13.0	40.6	59.4	100.0	2.6
강원	(81)	4.9	25.9	60.5	8.6	30.9	69.1	100.0	2.7
충북	(75)	10.7	32.0	53.3	4.0	42.7	57.3	100.0	2.5
충남	(98)	4.1	44.9	45.9	5.1	49.0	51.0	100.0	2.5
전북	(104)	15.4	25.0	34.6	25.0	40.4	59.6	100.0	2.7
전남	(109)	.9	17.4	75.2	6.4	18.3	81.7	100.0	2.9
경북	(145)	9.0	30.3	55.2	5.5	39.3	60.7	100.0	2.6
경남	(161)	4.3	27.3	59.6	8.7	31.7	68.3	100.0	2.7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2) 필요하다면 업무와 관계된 일에 개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8.3	31.4	52.5	7.8	39.7	60.3	100.0	2.6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5	28.7	54.0	8.7	37.3	62.7	100.0	2.6
비직업인	(799)	7.9	37.0	49.4	5.6	44.9	55.1	100.0	2.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6	32.9	47.3	7.2	45.5	54.5	100.0	2.5
100~199만원	(768)	7.8	30.3	53.4	8.5	38.2	61.8	100.0	2.6
200~299만원	(327)	8.9	25.7	58.1	7.3	34.6	65.4	100.0	2.6
300~399만원	(96)	3.1	21.9	56.3	18.8	25.0	75.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1.7	16.7	61.7	20.0	18.3	81.7	100.0	3.0
무응답	(13)	15.4	30.8	46.2	7.7	46.2	53.8	100.0	2.5
경제수준									
상	(44)	9.1	20.5	45.5	25.0	29.5	70.5	100.0	2.9
중상	(1054)	6.6	31.4	54.2	7.8	38.0	62.0	100.0	2.6
중하	(1202)	8.7	32.0	52.0	7.2	40.8	59.2	100.0	2.6
하	(160)	13.1	29.4	50.6	6.9	42.5	57.5	100.0	2.5
무응답	(54)	16.7	31.5	44.4	7.4	48.1	51.9	100.0	2.4
혼인상태									
미혼	(885)	8.9	30.5	52.4	8.1	39.4	60.6	100.0	2.6
기혼	(1629)	8.0	31.9	52.6	7.6	39.8	60.2	100.0	2.6
지역									
서울	(577)	8.5	26.7	56.2	8.7	35.2	64.8	100.0	2.6
부산	(210)	5.7	47.1	36.2	11.0	52.9	47.1	100.0	2.5
대구	(138)	2.2	24.6	68.1	5.1	26.8	73.2	100.0	2.8
인천	(134)	20.9	32.1	41.0	6.0	53.0	47.0	100.0	2.3
광주	(71)	.0	45.1	47.9	7.0	45.1	54.9	100.0	2.6
대전	(72)	1.4	16.7	69.4	12.5	18.1	81.9	100.0	2.9
울산	(54)	5.6	27.8	55.6	11.1	33.3	66.7	100.0	2.7
경기	(485)	11.3	27.6	53.0	8.0	39.0	61.0	100.0	2.6
강원	(81)	4.9	33.3	54.3	7.4	38.3	61.7	100.0	2.6
충북	(75)	16.0	41.3	38.7	4.0	57.3	42.7	100.0	2.3
충남	(98)	4.1	29.6	57.1	9.2	33.7	66.3	100.0	2.7
전북	(104)	17.3	27.9	43.3	11.5	45.2	54.8	100.0	2.5
전남	(109)	4.6	46.8	45.9	2.8	51.4	48.6	100.0	2.5
경북	(145)	5.5	29.7	62.1	2.8	35.2	64.8	100.0	2.6
경남	(161)	4.3	34.8	54.0	6.8	39.1	60.9	100.0	2.6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여가와 취미가 희생된다면 직장을 옮기겠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7.3	47.3	35.8	9.5	54.7	45.3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3	50.0	32.7	9.0	58.3	41.7	100.0	2.4
비직업인	(799)	5.1	41.7	42.7	10.5	46.8	53.2	100.0	2.6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6	49.4	35.3	8.7	56.0	44.0	100.0	2.5
100~199만원	(768)	7.8	51.0	31.9	9.2	58.9	41.1	100.0	2.4
200~299만원	(327)	10.1	49.2	32.7	8.0	59.3	40.7	100.0	2.4
300~399만원	(96)	10.4	58.3	20.8	10.4	68.8	31.3	100.0	2.3
400만원 이상	(60)	15.0	53.3	25.0	6.7	68.3	31.7	100.0	2.2
무응답	(13)	7.7	46.2	38.5	7.7	53.8	46.2	100.0	2.5
경제수준									
상	(44)	4.5	40.9	45.5	9.1	45.5	54.5	100.0	2.6
중상	(1054)	7.2	46.5	36.9	9.4	53.7	46.3	100.0	2.5
중하	(1202)	7.2	48.0	35.0	9.7	55.2	44.8	100.0	2.5
하	(160)	8.1	51.3	31.3	9.4	59.4	40.6	100.0	2.4
무응답	(54)	11.1	42.6	38.9	7.4	53.7	46.3	100.0	2.4
혼인상태									
미혼	(885)	6.3	37.2	42.7	13.8	43.5	56.5	100.0	2.6
기혼	(1629)	7.9	52.9	32.1	7.2	60.7	39.3	100.0	2.4
지역									
서울	(577)	8.0	45.2	35.7	11.1	53.2	46.8	100.0	2.5
부산	(210)	2.9	40.5	43.8	12.9	43.3	56.7	100.0	2.7
대구	(138)	6.5	44.2	32.6	16.7	50.7	49.3	100.0	2.6
인천	(134)	7.5	43.3	40.3	9.0	50.7	49.3	100.0	2.5
광주	(71)	4.2	35.2	52.1	8.5	39.4	60.6	100.0	2.6
대전	(72)	5.6	48.6	30.6	15.3	54.2	45.8	100.0	2.6
울산	(54)	5.6	53.7	29.6	11.1	59.3	40.7	100.0	2.5
경기	(485)	10.3	45.4	36.1	8.2	55.7	44.3	100.0	2.4
강원	(81)	7.4	43.2	40.7	8.6	50.6	49.4	100.0	2.5
충북	(75)	5.3	61.3	29.3	4.0	66.7	33.3	100.0	2.3
충남	(98)	2.0	61.2	32.7	4.1	63.3	36.7	100.0	2.4
전북	(104)	16.3	40.4	33.7	9.6	56.7	43.3	100.0	2.4
전남	(109)	2.8	56.9	33.9	6.4	59.6	40.4	100.0	2.4
경북	(145)	11.0	53.8	28.3	6.9	64.8	35.2	100.0	2.3
경남	(161)	3.1	57.8	33.5	5.6	60.9	39.1	100.0	2.4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집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3.3	22.6	62.0	12.1	25.9	74.1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4	23.2	62.4	11.0	26.6	73.4	100.0	2.8
비직업인	(799)	3.0	21.3	61.2	14.5	24.3	75.7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3	25.1	59.3	12.3	28.4	71.6	100.0	2.8
100~199만원	(768)	3.1	23.0	63.9	9.9	26.2	73.8	100.0	2.8
200~299만원	(327)	4.9	23.9	60.9	10.4	28.7	71.3	100.0	2.8
300~399만원	(96)	3.1	19.8	63.5	13.5	22.9	77.1	100.0	2.9
400만원 이상	(60)	3.3	18.3	66.7	11.7	21.7	78.3	100.0	2.9
무응답	(13)	7.7	7.7	76.9	7.7	15.4	84.6	100.0	2.8
경제수준									
상	(44)	6.8	20.5	63.6	9.1	27.3	72.7	100.0	2.8
중상	(1054)	4.0	22.4	61.7	12.0	26.4	73.6	100.0	2.8
중하	(1202)	2.8	24.1	61.1	12.0	27.0	73.0	100.0	2.8
하	(160)	.6	13.8	71.9	13.8	14.4	85.6	100.0	3.0
무응답	(54)	5.6	20.4	59.3	14.8	25.9	74.1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2.7	21.6	62.1	13.6	24.3	75.7	100.0	2.9
기혼	(1629)	3.6	23.1	61.9	11.3	26.8	73.2	100.0	2.8
지역									
서울	(577)	2.8	18.7	64.3	14.2	21.5	78.5	100.0	2.9
부산	(210)	.5	35.2	45.2	19.0	35.7	64.3	100.0	2.8
대구	(138)	4.3	26.8	63.0	5.8	31.2	68.8	100.0	2.7
인천	(134)	6.0	17.9	64.9	11.2	23.9	76.1	100.0	2.8
광주	(71)	2.8	15.5	73.2	8.5	18.3	81.7	100.0	2.9
대전	(72)	2.8	19.4	66.7	11.1	22.2	77.8	100.0	2.9
울산	(54)	.0	9.3	72.2	18.5	9.3	90.7	100.0	3.1
경기	(485)	4.9	20.0	62.5	12.6	24.9	75.1	100.0	2.8
강원	(81)	3.7	28.4	54.3	13.6	32.1	67.9	100.0	2.8
충북	(75)	2.7	28.0	61.3	8.0	30.7	69.3	100.0	2.7
충남	(98)	1.0	27.6	67.3	4.1	28.6	71.4	100.0	2.7
전북	(104)	4.8	15.4	61.5	18.3	20.2	79.8	100.0	2.9
전남	(109)	1.8	24.8	69.7	3.7	26.6	73.4	100.0	2.8
경북	(145)	6.2	24.8	62.8	6.2	31.0	69.0	100.0	2.7
경남	(161)	1.2	29.8	55.9	13.0	31.1	68.9	100.0	2.8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5) 취미, 레저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며 관련된 신문이나 TV 잡지를 본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그렇지 않음	종합 그러함	계	4점 평균
전체	(2514)	3.7	24.3	55.8	16.2	28.0	72.0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0	24.1	55.3	16.6	28.1	71.9	100.0	2.8
비직업인	(799)	3.3	24.7	56.8	15.3	27.9	72.1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1	28.7	51.2	15.0	33.8	66.2	100.0	2.8
100~199만원	(768)	4.2	25.7	56.6	13.5	29.8	70.2	100.0	2.8
200~299만원	(327)	3.7	19.0	57.2	20.2	22.6	77.4	100.0	2.9
300~399만원	(96)	.0	19.8	58.3	21.9	19.8	80.2	100.0	3.0
400만원 이상	(60)	5.0	16.7	51.7	26.7	21.7	78.3	100.0	3.0
무응답	(13)	.0	30.8	53.8	15.4	30.8	69.2	100.0	2.8
경제수준									
상	(44)	4.5	13.6	59.1	22.7	18.2	81.8	100.0	3.0
중상	(1054)	2.4	21.8	56.8	19.0	24.2	75.8	100.0	2.9
중하	(1202)	4.0	26.2	55.4	14.4	30.2	69.8	100.0	2.8
하	(160)	10.0	26.9	50.6	12.5	36.9	63.1	100.0	2.7
무응답	(54)	5.6	31.5	55.6	7.4	37.0	63.0	100.0	2.6
혼인상태									
미혼	(885)	2.5	22.4	56.3	18.9	24.9	75.1	100.0	2.9
기혼	(1629)	4.4	25.4	55.5	14.7	29.8	70.2	100.0	2.8
지역									
서울	(577)	4.2	20.6	54.4	20.8	24.8	75.2	100.0	2.9
부산	(210)	1.4	31.0	52.4	15.2	32.4	67.6	100.0	2.8
대구	(138)	3.6	32.6	55.1	8.7	36.2	63.8	100.0	2.7
인천	(134)	2.2	20.1	57.5	20.1	22.4	77.6	100.0	3.0
광주	(71)	5.6	22.5	67.6	4.2	28.2	71.8	100.0	2.7
대전	(72)	1.4	16.7	48.6	33.3	18.1	81.9	100.0	3.1
울산	(54)	14.8	29.6	48.1	7.4	44.4	55.6	100.0	2.5
경기	(485)	4.3	17.7	57.9	20.0	22.1	77.9	100.0	2.9
강원	(81)	2.5	32.1	53.1	12.3	34.6	65.4	100.0	2.8
충북	(75)	.0	26.7	65.3	8.0	26.7	73.3	100.0	2.8
충남	(98)	4.1	36.7	50.0	9.2	40.8	59.2	100.0	2.6
전북	(104)	4.8	29.8	45.2	20.2	34.6	65.4	100.0	2.8
전남	(109)	.9	28.4	67.0	3.7	29.4	70.6	100.0	2.7
경북	(145)	5.5	24.8	57.2	12.4	30.3	69.7	100.0	2.8
경남	(161)	3.1	28.0	56.5	12.4	31.1	68.9	100.0	2.8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6)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2.5	17.9	64.2	15.4	20.4	79.6	100.0	2.9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4	16.2	64.6	16.8	18.6	81.4	100.0	3.0
비직업인	(799)	2.8	21.4	63.3	12.5	24.2	75.8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9	22.2	62.6	11.4	26.0	74.0	100.0	2.8
100~199만원	(768)	2.1	15.1	67.8	15.0	17.2	82.8	100.0	3.0
200~299만원	(327)	2.1	12.2	65.1	20.5	14.4	85.6	100.0	3.0
300~399만원	(96)	1.0	11.5	60.4	27.1	12.5	87.5	100.0	3.1
400만원 이상	(60)	1.7	10.0	58.3	30.0	11.7	88.3	100.0	3.2
무응답	(13)	.0	23.1	46.2	30.8	23.1	76.9	100.0	3.1
경제수준									
상	(44)	2.3	11.4	59.1	27.3	13.6	86.4	100.0	3.1
중상	(1054)	2.8	15.4	64.5	17.3	18.2	81.8	100.0	3.0
중하	(1202)	2.4	19.3	65.2	13.1	21.7	78.3	100.0	2.9
하	(160)	1.9	23.8	60.6	13.8	25.6	74.4	100.0	2.9
무응답	(54)	.0	22.2	50.0	27.8	22.2	77.8	100.0	3.1
혼인상태									
미혼	(885)	2.9	20.3	63.5	13.2	23.3	76.7	100.0	2.9
기혼	(1629)	2.3	16.5	64.6	16.6	18.8	81.2	100.0	3.0
지역									
서울	(577)	2.6	14.7	62.9	19.8	17.3	82.7	100.0	3.0
부산	(210)	2.9	21.4	57.1	18.6	24.3	75.7	100.0	2.9
대구	(138)	2.2	15.9	69.6	12.3	18.1	81.9	100.0	2.9
인천	(134)	5.2	23.9	59.0	11.9	29.1	70.9	100.0	2.8
광주	(71)	1.4	23.9	59.2	15.5	25.4	74.6	100.0	2.9
대전	(72)	1.4	13.9	72.2	12.5	15.3	84.7	100.0	3.0
울산	(54)	5.6	14.8	53.7	25.9	20.4	79.6	100.0	3.0
경기	(485)	2.9	15.9	67.4	13.8	18.8	81.2	100.0	2.9
강원	(81)	3.7	21.0	64.2	11.1	24.7	75.3	100.0	2.8
충북	(75)	2.7	12.0	76.0	9.3	14.7	85.3	100.0	2.9
충남	(98)	1.0	18.4	64.3	16.3	19.4	80.6	100.0	3.0
전북	(104)	1.0	24.0	47.1	27.9	25.0	75.0	100.0	3.0
전남	(109)	1.8	30.3	65.1	2.8	32.1	67.9	100.0	2.7
경북	(145)	2.1	11.7	71.7	14.5	13.8	86.2	100.0	3.0
경남	(161)	.6	21.1	68.3	9.9	21.7	78.3	100.0	2.9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7) 생활비를 아껴서 가능한 한 사회활동(클럽 및 단체활동)에 쓰고 싶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5.2	38.6	49.4	6.8	43.8	56.2	100.0	2.6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2	39.2	49.6	6.0	44.4	55.6	100.0	2.6
비직업인	(799)	5.1	37.3	49.1	8.5	42.4	57.6	100.0	2.6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0	41.9	44.3	4.8	50.9	49.1	100.0	2.4
100~199만원	(768)	3.5	39.6	50.8	6.1	43.1	56.9	100.0	2.6
200~299만원	(327)	4.9	38.5	49.8	6.7	43.4	56.6	100.0	2.6
300~399만원	(96)	6.3	34.4	52.1	7.3	40.6	59.4	100.0	2.6
400만원 이상	(60)	6.7	30.0	58.3	5.0	36.7	63.3	100.0	2.6
무응답	(13)	.0	53.8	38.5	7.7	53.8	46.2	100.0	2.5
경제수준									
상	(44)	11.4	31.8	50.0	6.8	43.2	56.8	100.0	2.5
중상	(1054)	4.0	37.6	51.0	7.4	41.6	58.4	100.0	2.6
중하	(1202)	5.3	39.4	49.0	6.2	44.8	55.2	100.0	2.6
하	(160)	10.6	40.0	43.1	6.3	50.6	49.4	100.0	2.5
무응답	(54)	3.7	42.6	44.4	9.3	46.3	53.7	100.0	2.6
혼인상태									
미혼	(885)	5.2	39.7	47.7	7.5	44.9	55.1	100.0	2.6
기혼	(1629)	5.2	38.1	50.3	6.4	43.2	56.8	100.0	2.6
지역									
서울	(577)	4.5	37.3	50.8	7.5	41.8	58.2	100.0	2.6
부산	(210)	6.2	50.5	37.6	5.7	56.7	43.3	100.0	2.4
대구	(138)	2.2	35.5	58.7	3.6	37.7	62.3	100.0	2.6
인천	(134)	12.7	40.3	40.3	6.7	53.0	47.0	100.0	2.4
광주	(71)	2.8	35.2	53.5	8.5	38.0	62.0	100.0	2.7
대전	(72)	1.4	31.9	54.2	12.5	33.3	66.7	100.0	2.8
울산	(54)	1.9	48.1	42.6	7.4	50.0	50.0	100.0	2.6
경기	(485)	7.2	33.2	51.3	8.2	40.4	59.6	100.0	2.6
강원	(81)	3.7	34.6	56.8	4.9	38.3	61.7	100.0	2.6
충북	(75)	5.3	56.0	36.0	2.7	61.3	38.7	100.0	2.4
충남	(98)	1.0	38.8	56.1	4.1	39.8	60.2	100.0	2.6
전북	(104)	12.5	46.2	32.7	8.7	58.7	41.3	100.0	2.4
전남	(109)	2.8	44.0	50.5	2.8	46.8	53.2	100.0	2.5
경북	(145)	4.8	35.9	52.4	6.9	40.7	59.3	100.0	2.6
경남	(161)	.6	34.8	57.8	6.8	35.4	64.6	100.0	2.7

문2.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8)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결근할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1.0	10.7	61.5	26.8	11.7	88.3	100.0	3.1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0	10.2	62.6	26.2	11.2	88.8	100.0	3.1
비직업인	(799)	1.0	11.8	59.1	28.2	12.8	87.2	100.0	3.1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8	10.5	60.5	27.2	12.3	87.7	100.0	3.1
100~199만원	(768)	.8	11.6	63.3	24.3	12.4	87.6	100.0	3.1
200~299만원	(327)	.6	11.0	63.3	25.1	11.6	88.4	100.0	3.1
300~399만원	(96)	1.0	6.3	61.5	31.3	7.3	92.7	100.0	3.2
400만원 이상	(60)	1.7	6.7	65.0	26.7	8.3	91.7	100.0	3.2
무응답	(13)	.0	7.7	69.2	23.1	7.7	92.3	100.0	3.2
경제수준									
상	(44)	4.5	15.9	47.7	31.8	20.5	79.5	100.0	3.1
중상	(1054)	.9	10.8	62.2	26.0	11.8	88.2	100.0	3.1
중하	(1202)	1.0	10.6	61.9	26.5	11.6	88.4	100.0	3.1
하	(160)	.6	7.5	58.8	33.1	8.1	91.9	100.0	3.2
무응답	(54)	.0	16.7	57.4	25.9	16.7	83.3	100.0	3.1
혼인상태									
미혼	(885)	.9	9.5	58.4	31.2	10.4	89.6	100.0	3.2
기혼	(1629)	1.0	11.4	63.2	24.4	12.4	87.6	100.0	3.1
지역									
서울	(577)	1.0	9.5	57.4	32.1	10.6	89.4	100.0	3.2
부산	(210)	.5	19.5	58.1	21.9	20.0	80.0	100.0	3.0
대구	(138)	1.4	15.9	68.8	13.8	17.4	82.6	100.0	2.9
인천	(134)	3.0	10.4	56.0	30.6	13.4	86.6	100.0	3.1
광주	(71)	.0	5.6	69.0	25.4	5.6	94.4	100.0	3.2
대전	(72)	2.8	8.3	68.1	20.8	11.1	88.9	100.0	3.1
울산	(54)	.0	3.7	68.5	27.8	3.7	96.3	100.0	3.2
경기	(485)	1.4	6.0	64.7	27.8	7.4	92.6	100.0	3.2
강원	(81)	1.2	14.8	51.9	32.1	16.0	84.0	100.0	3.1
충북	(75)	.0	13.3	56.0	30.7	13.3	86.7	100.0	3.2
충남	(98)	.0	18.4	69.4	12.2	18.4	81.6	100.0	2.9
전북	(104)	1.0	10.6	39.4	49.0	11.5	88.5	100.0	3.4
전남	(109)	.9	11.0	78.0	10.1	11.9	88.1	100.0	3.0
경북	(145)	.0	5.5	68.3	26.2	5.5	94.5	100.0	3.2
경남	(161)	.0	15.5	60.2	24.2	15.5	84.5	100.0	3.1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6.6	35.3	42.0	16.0	42.0	58.0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0	37.0	39.5	15.4	45.1	54.9	100.0	2.6
비직업인	(799)	3.6	31.7	47.4	17.3	35.3	64.7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0.5	39.8	39.8	9.9	50.3	49.7	100.0	2.5
100~199만원	(768)	8.2	38.0	37.9	15.9	46.2	53.8	100.0	2.6
200~299만원	(327)	6.4	30.9	45.0	17.7	37.3	62.7	100.0	2.7
300~399만원	(96)	10.4	37.5	38.5	13.5	47.9	52.1	100.0	2.6
400만원 이상	(60)	1.7	40.0	38.3	20.0	41.7	58.3	100.0	2.8
무응답	(13)	15.4	38.5	30.8	15.4	53.8	46.2	100.0	2.5
경제수준									
상	(44)	11.4	29.5	40.9	18.2	40.9	59.1	100.0	2.7
중상	(1054)	6.5	34.8	43.1	15.6	41.4	58.6	100.0	2.7
중하	(1202)	6.5	35.8	41.3	16.5	42.3	57.7	100.0	2.7
하	(160)	8.1	36.9	40.0	15.0	45.0	55.0	100.0	2.6
무응답	(54)	3.7	35.2	46.3	14.8	38.9	61.1	100.0	2.7
혼인상태									
미혼	(885)	7.0	36.9	40.1	15.9	44.0	56.0	100.0	2.6
기혼	(1629)	6.4	34.4	43.1	16.0	40.9	59.1	100.0	2.7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	(488)	7.6	29.1	49.4	13.9	36.7	63.3	100.0	2.7
실업계	(603)	6.0	32.8	41.8	19.4	38.8	61.2	100.0	2.7
예체능계	(8)	.0	50.0	50.0	.0	50.0	50.0	100.0	2.5
무응답	(12)	8.3	25.0	50.0	16.7	33.3	66.7	100.0	2.8
지역									
서울	(577)	7.8	36.4	40.2	15.6	44.2	55.8	100.0	2.6
부산	(210)	.5	24.8	42.4	32.4	25.2	74.8	100.0	3.1
대구	(138)	4.3	33.3	50.0	12.3	37.7	62.3	100.0	2.7
인천	(134)	6.7	39.6	42.5	11.2	46.3	53.7	100.0	2.6
광주	(71)	4.2	29.6	52.1	14.1	33.8	66.2	100.0	2.8
대전	(72)	5.6	43.1	40.3	11.1	48.6	51.4	100.0	2.6
울산	(54)	7.4	33.3	46.3	13.0	40.7	59.3	100.0	2.6
경기	(485)	7.6	38.1	37.7	16.5	45.8	54.2	100.0	2.6
강원	(81)	6.2	40.7	43.2	9.9	46.9	53.1	100.0	2.6
충북	(75)	8.0	33.3	44.0	14.7	41.3	58.7	100.0	2.7
충남	(98)	4.1	40.8	45.9	9.2	44.9	55.1	100.0	2.6
전북	(104)	9.6	29.8	33.7	26.9	39.4	60.6	100.0	2.8
전남	(109)	1.8	30.3	60.6	7.3	32.1	67.9	100.0	2.7
경북	(145)	9.7	33.8	46.2	10.3	43.4	56.6	100.0	2.6
경남	(161)	10.6	37.9	34.2	17.4	48.4	51.6	100.0	2.6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2)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업이 향후의 경력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3.9	29.7	48.8	17.6	33.5	66.5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6	30.7	47.3	17.3	35.3	64.7	100.0	2.8
비직업인	(799)	2.3	27.4	52.1	18.3	29.7	70.3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9	34.1	43.4	15.6	41.0	59.0	100.0	2.7
100~199만원	(768)	4.0	28.5	49.9	17.6	32.6	67.4	100.0	2.8
200~299만원	(327)	3.4	34.6	45.9	16.2	37.9	62.1	100.0	2.7
300~399만원	(96)	3.1	27.1	44.8	25.0	30.2	69.8	100.0	2.9
400만원 이상	(60)	8.3	33.3	38.3	20.0	41.7	58.3	100.0	2.7
무응답	(13)	7.7	38.5	46.2	7.7	46.2	53.8	100.0	2.5
경제수준									
상	(44)	4.5	22.7	36.4	36.4	27.3	72.7	100.0	3.0
중상	(1054)	2.7	29.5	50.7	17.2	32.2	67.8	100.0	2.8
중하	(1202)	4.3	29.5	48.6	17.6	33.8	66.2	100.0	2.8
하	(160)	6.3	32.5	43.1	18.1	38.8	61.3	100.0	2.7
무응답	(54)	9.3	35.2	46.3	9.3	44.4	55.6	100.0	2.6
혼인상태									
미혼	(885)	3.3	29.4	49.8	17.5	32.7	67.3	100.0	2.8
기혼	(1629)	4.2	29.8	48.3	17.7	34.0	66.0	100.0	2.8
지역									
서울	(577)	4.2	34.7	44.5	16.6	38.8	61.2	100.0	2.7
부산	(210)	.5	24.3	45.7	29.5	24.8	75.2	100.0	3.0
대구	(138)	2.9	34.1	51.4	11.6	37.0	63.0	100.0	2.7
인천	(134)	3.7	25.4	53.7	17.2	29.1	70.9	100.0	2.8
광주	(71)	1.4	19.7	56.3	22.5	21.1	78.9	100.0	3.0
대전	(72)	.0	22.2	50.0	27.8	22.2	77.8	100.0	3.1
울산	(54)	9.3	37.0	33.3	20.4	46.3	53.7	100.0	2.6
경기	(485)	6.4	24.3	49.1	20.2	30.7	69.3	100.0	2.8
강원	(81)	4.9	29.6	48.1	17.3	34.6	65.4	100.0	2.8
충북	(75)	2.7	28.0	53.3	16.0	30.7	69.3	100.0	2.8
충남	(98)	4.1	25.5	65.3	5.1	29.6	70.4	100.0	2.7
전북	(104)	2.9	22.1	43.3	31.7	25.0	75.0	100.0	3.0
전남	(109)	3.7	46.8	45.0	4.6	50.5	49.5	100.0	2.5
경북	(145)	4.8	35.2	51.0	9.0	40.0	60.0	100.0	2.6
경남	(161)	1.2	31.7	55.3	11.8	32.9	67.1	100.0	2.8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유능한 사람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지 않는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10.7	59.1	24.9	5.3	69.8	30.2	100.0	2.2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1.0	60.1	24.0	5.0	71.0	29.0	100.0	2.2
비직업인	(799)	10.0	57.1	26.8	6.1	67.1	32.9	100.0	2.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0	63.5	19.2	5.4	75.4	24.6	100.0	2.2
100~199만원	(768)	9.9	61.1	24.3	4.7	71.0	29.0	100.0	2.2
200~299만원	(327)	10.1	56.9	27.5	5.5	67.0	33.0	100.0	2.3
300~399만원	(96)	16.7	54.2	20.8	8.3	70.8	29.2	100.0	2.2
400만원 이상	(60)	10.0	61.7	26.7	1.7	71.7	28.3	100.0	2.2
무응답	(13)	15.4	38.5	46.2	.0	53.8	46.2	100.0	2.3
경제수준									
상	(44)	9.1	59.1	25.0	6.8	68.2	31.8	100.0	2.3
중상	(1054)	10.5	59.8	24.9	4.8	70.3	29.7	100.0	2.2
중하	(1202)	11.1	58.3	25.0	5.6	69.5	30.5	100.0	2.2
하	(160)	7.5	60.6	26.3	5.6	68.1	31.9	100.0	2.3
무응답	(54)	13.0	59.3	20.4	7.4	72.2	27.8	100.0	2.2
혼인상태									
미혼	(885)	14.0	58.6	22.5	4.9	72.7	27.3	100.0	2.2
기혼	(1629)	8.8	59.4	26.2	5.6	68.2	31.8	100.0	2.3
지역									
서울	(577)	14.7	54.8	25.0	5.5	69.5	30.5	100.0	2.2
부산	(210)	1.9	51.9	32.4	13.8	53.8	46.2	100.0	2.6
대구	(138)	13.8	58.0	24.6	3.6	71.7	28.3	100.0	2.2
인천	(134)	11.2	56.0	26.1	6.7	67.2	32.8	100.0	2.3
광주	(71)	4.2	74.6	19.7	1.4	78.9	21.1	100.0	2.2
대전	(72)	2.8	65.3	22.2	9.7	68.1	31.9	100.0	2.4
울산	(54)	7.4	70.4	18.5	3.7	77.8	22.2	100.0	2.2
경기	(485)	13.2	58.4	24.1	4.3	71.5	28.5	100.0	2.2
강원	(81)	7.4	64.2	25.9	2.5	71.6	28.4	100.0	2.2
충북	(75)	13.3	65.3	20.0	1.3	78.7	21.3	100.0	2.1
충남	(98)	6.1	52.0	36.7	5.1	58.2	41.8	100.0	2.4
전북	(104)	16.3	62.5	18.3	2.9	78.8	21.2	100.0	2.1
전남	(109)	6.4	74.3	18.3	.9	80.7	19.3	100.0	2.1
경북	(145)	10.3	56.6	26.2	6.9	66.9	33.1	100.0	2.3
경남	(161)	6.8	65.2	24.2	3.7	72.0	28.0	100.0	2.2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직업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11.9	41.2	36.5	10.4	53.1	46.9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1.3	41.4	36.8	10.6	52.7	47.3	100.0	2.5
비직업인	(799)	13.1	40.9	35.8	10.1	54.1	45.9	100.0	2.4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9	41.3	32.0	13.8	54.2	45.8	100.0	2.5
100~199만원	(768)	9.9	39.2	41.5	9.4	49.1	50.9	100.0	2.5
200~299만원	(327)	12.2	44.3	33.0	10.4	56.6	43.4	100.0	2.4
300~399만원	(96)	11.5	38.5	40.6	9.4	50.0	50.0	100.0	2.5
400만원 이상	(60)	15.0	43.3	26.7	15.0	58.3	41.7	100.0	2.4
무응답	(13)	23.1	30.8	38.5	7.7	53.8	46.2	100.0	2.3
경제수준									
상	(44)	11.4	45.5	20.5	22.7	56.8	43.2	100.0	2.5
중상	(1054)	10.9	42.4	36.8	9.9	53.3	46.7	100.0	2.5
중하	(1202)	12.7	40.6	36.4	10.3	53.3	46.7	100.0	2.4
하	(160)	11.3	36.9	40.6	11.3	48.1	51.9	100.0	2.5
무응답	(54)	13.0	42.6	33.3	11.1	55.6	44.4	100.0	2.4
혼인상태									
미혼	(885)	13.0	44.1	33.8	9.2	57.1	42.9	100.0	2.4
기혼	(1629)	11.2	39.7	37.9	11.1	51.0	49.0	100.0	2.5
지역									
서울	(577)	12.5	47.1	32.2	8.1	59.6	40.4	100.0	2.4
부산	(210)	.0	14.8	48.1	37.1	14.8	85.2	100.0	3.2
대구	(138)	8.0	48.6	40.6	2.9	56.5	43.5	100.0	2.4
인천	(134)	12.7	45.5	35.1	6.7	58.2	41.8	100.0	2.4
광주	(71)	7.0	47.9	36.6	8.5	54.9	45.1	100.0	2.5
대전	(72)	5.6	47.2	38.9	8.3	52.8	47.2	100.0	2.5
울산	(54)	16.7	38.9	38.9	5.6	55.6	44.4	100.0	2.3
경기	(485)	19.4	42.7	28.9	9.1	62.1	37.9	100.0	2.3
강원	(81)	14.8	46.9	32.1	6.2	61.7	38.3	100.0	2.3
충북	(75)	16.0	49.3	29.3	5.3	65.3	34.7	100.0	2.2
충남	(98)	12.2	38.8	43.9	5.1	51.0	49.0	100.0	2.4
전북	(104)	14.4	41.3	31.7	12.5	55.8	44.2	100.0	2.4
전남	(109)	7.3	39.4	44.0	9.2	46.8	53.2	100.0	2.6
경북	(145)	12.4	41.4	36.6	9.7	53.8	46.2	100.0	2.4
경남	(161)	5.6	31.7	54.0	8.7	37.3	62.7	100.0	2.7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5) 가능하다면, 남은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5.6	31.7	44.5	18.2	37.3	62.7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7	30.7	45.5	18.1	36.4	63.6	100.0	2.8
비직업인	(799)	5.4	33.9	42.4	18.3	39.3	60.7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2	27.8	44.0	21.0	35.0	65.0	100.0	2.8
100~199만원	(768)	5.1	33.3	45.8	15.8	38.4	61.6	100.0	2.7
200~299만원	(327)	4.6	29.4	47.1	19.0	33.9	66.1	100.0	2.8
300~399만원	(96)	9.4	26.0	47.9	16.7	35.4	64.6	100.0	2.7
400만원 이상	(60)	1.7	21.7	60.0	16.7	23.3	76.7	100.0	2.9
무응답	(13)	15.4	38.5	30.8	15.4	53.8	46.2	100.0	2.5
경제수준									
상	(44)	.0	38.6	38.6	22.7	38.6	61.4	100.0	2.8
중상	(1054)	4.4	33.4	43.7	18.5	37.8	62.2	100.0	2.8
중하	(1202)	6.4	30.7	45.3	17.6	37.1	62.9	100.0	2.7
하	(160)	8.1	26.9	46.9	18.1	35.0	65.0	100.0	2.8
무응답	(54)	7.4	31.5	40.7	20.4	38.9	61.1	100.0	2.7
혼인상태									
미혼	(885)	7.7	38.2	38.6	15.5	45.9	54.1	100.0	2.6
기혼	(1629)	4.4	28.2	47.7	19.6	32.7	67.3	100.0	2.8
지역									
서울	(577)	7.8	35.2	42.8	14.2	43.0	57.0	100.0	2.6
부산	(210)	1.9	14.8	50.0	33.3	16.7	83.3	100.0	3.1
대구	(138)	2.9	25.4	58.0	13.8	28.3	71.7	100.0	2.8
인천	(134)	6.7	29.1	48.5	15.7	35.8	64.2	100.0	2.7
광주	(71)	4.2	31.0	39.4	25.4	35.2	64.8	100.0	2.9
대전	(72)	6.9	38.9	37.5	16.7	45.8	54.2	100.0	2.6
울산	(54)	14.8	35.2	40.7	9.3	50.0	50.0	100.0	2.4
경기	(485)	5.8	33.4	42.1	18.8	39.2	60.8	100.0	2.7
강원	(81)	3.7	39.5	43.2	13.6	43.2	56.8	100.0	2.7
충북	(75)	5.3	46.7	30.7	17.3	52.0	48.0	100.0	2.6
충남	(98)	4.1	34.7	44.9	16.3	38.8	61.2	100.0	2.7
전북	(104)	2.9	39.4	32.7	25.0	42.3	57.7	100.0	2.8
전남	(109)	6.4	26.6	58.7	8.3	33.0	67.0	100.0	2.7
경북	(145)	7.6	24.8	47.6	20.0	32.4	67.6	100.0	2.8
경남	(161)	1.2	32.3	44.7	21.7	33.5	66.5	100.0	2.9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6)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있게 지내고 싶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3.7	25.4	39.9	30.9	29.2	70.8	100.0	3.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9	26.6	38.8	30.7	30.5	69.5	100.0	3.0
비직업인	(799)	3.4	22.9	42.3	31.4	26.3	73.7	100.0	3.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6	26.9	35.0	34.4	30.5	69.5	100.0	3.0
100~199만원	(768)	3.9	26.7	39.2	30.2	30.6	69.4	100.0	3.0
200~299만원	(327)	3.7	24.8	43.7	27.8	28.4	71.6	100.0	3.0
300~399만원	(96)	4.2	27.1	40.6	28.1	31.3	68.8	100.0	2.9
400만원 이상	(60)	5.0	33.3	31.7	30.0	38.3	61.7	100.0	2.9
무응답	(13)	15.4	15.4	38.5	30.8	30.8	69.2	100.0	2.8
경제수준									
상	(44)	11.4	25.0	29.5	34.1	36.4	63.6	100.0	2.9
중상	(1054)	3.4	26.1	39.8	30.7	29.5	70.5	100.0	3.0
중하	(1202)	3.7	24.2	41.3	30.7	28.0	72.0	100.0	3.0
하	(160)	3.8	25.6	35.0	35.6	29.4	70.6	100.0	3.0
무응답	(54)	3.7	38.9	33.3	24.1	42.6	57.4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3.5	27.5	38.2	30.8	31.0	69.0	100.0	3.0
기혼	(1629)	3.9	24.3	40.8	31.0	28.2	71.8	100.0	3.0
지역									
서울	(577)	4.3	26.5	39.0	30.2	30.8	69.2	100.0	2.9
부산	(210)	1.0	20.5	36.7	41.9	21.4	78.6	100.0	3.2
대구	(138)	1.4	21.7	52.9	23.9	23.2	76.8	100.0	3.0
인천	(134)	3.0	20.9	42.5	33.6	23.9	76.1	100.0	3.1
광주	(71)	2.8	18.3	53.5	25.4	21.1	78.9	100.0	3.0
대전	(72)	5.6	25.0	29.2	40.3	30.6	69.4	100.0	3.0
울산	(54)	3.7	27.8	38.9	29.6	31.5	68.5	100.0	2.9
경기	(485)	5.6	25.8	37.5	31.1	31.3	68.7	100.0	2.9
강원	(81)	3.7	34.6	45.7	16.0	38.3	61.7	100.0	2.7
충북	(75)	5.3	32.0	32.0	30.7	37.3	62.7	100.0	2.9
충남	(98)	2.0	27.6	45.9	24.5	29.6	70.4	100.0	2.9
전북	(104)	4.8	18.3	22.1	54.8	23.1	76.9	100.0	3.3
전남	(109)	.9	33.0	51.4	14.7	33.9	66.1	100.0	2.8
경북	(145)	2.1	17.9	43.4	36.6	20.0	80.0	100.0	3.1
경남	(161)	5.0	33.5	37.9	23.6	38.5	61.5	100.0	2.8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7)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그렇지 않음	종합: 그러함	계	4점 평균
전체	(2514)	3.2	32.5	50.4	13.9	35.7	64.3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3	32.6	49.9	14.2	35.9	64.1	100.0	2.7
비직업인	(799)	3.0	32.3	51.4	13.3	35.3	64.7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2	29.9	48.5	17.4	34.1	65.9	100.0	2.8
100~199만원	(768)	3.0	32.6	51.0	13.4	35.5	64.5	100.0	2.7
200~299만원	(327)	2.4	38.2	47.4	11.9	40.7	59.3	100.0	2.7
300~399만원	(96)	6.3	33.3	49.0	11.5	39.6	60.4	100.0	2.7
400만원 이상	(60)	5.0	35.0	50.0	10.0	40.0	60.0	100.0	2.7
무응답	(13)	15.4	23.1	53.8	7.7	38.5	61.5	100.0	2.5
경제수준									
상	(44)	4.5	31.8	45.5	18.2	36.4	63.6	100.0	2.8
중상	(1054)	3.3	32.4	49.9	14.3	35.8	64.2	100.0	2.8
중하	(1202)	3.2	32.1	51.2	13.5	35.4	64.6	100.0	2.7
하	(160)	3.1	38.1	43.1	15.6	41.3	58.8	100.0	2.7
무응답	(54)	.0	25.9	68.5	5.6	25.9	74.1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2.3	27.5	53.1	17.2	29.7	70.3	100.0	2.9
기혼	(1629)	3.7	35.2	48.9	12.1	39.0	61.0	100.0	2.7
지역									
서울	(577)	2.4	32.4	54.8	10.4	34.8	65.2	100.0	2.7
부산	(210)	1.0	25.7	42.4	31.0	26.7	73.3	100.0	3.0
대구	(138)	5.1	20.3	63.0	11.6	25.4	74.6	100.0	2.8
인천	(134)	6.7	32.8	46.3	14.2	39.6	60.4	100.0	2.7
광주	(71)	8.5	42.3	42.3	7.0	50.7	49.3	100.0	2.5
대전	(72)	1.4	26.4	56.9	15.3	27.8	72.2	100.0	2.9
울산	(54)	.0	46.3	48.1	5.6	46.3	53.7	100.0	2.6
경기	(485)	5.8	33.6	48.2	12.4	39.4	60.6	100.0	2.7
강원	(81)	3.7	34.6	53.1	8.6	38.3	61.7	100.0	2.7
충북	(75)	1.3	36.0	56.0	6.7	37.3	62.7	100.0	2.7
충남	(98)	.0	35.7	55.1	9.2	35.7	64.3	100.0	2.7
전북	(104)	3.8	21.2	40.4	34.6	25.0	75.0	100.0	3.1
전남	(109)	.0	41.3	55.0	3.7	41.3	58.7	100.0	2.6
경북	(145)	2.8	29.0	47.6	20.7	31.7	68.3	100.0	2.9
경남	(161)	1.2	42.2	44.7	11.8	43.5	56.5	100.0	2.7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8) 동일한 능력이라면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이 직업을 얻기가 쉽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1.9	15.1	54.9	28.1	16.9	83.1	100.0	3.1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2	15.7	54.3	27.8	17.9	82.1	100.0	3.1
비직업인	(799)	1.3	13.6	56.2	28.9	14.9	85.1	100.0	3.1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4	17.1	52.1	28.4	19.5	80.5	100.0	3.1
100~199만원	(768)	2.2	15.1	55.1	27.6	17.3	82.7	100.0	3.1
200~299만원	(327)	1.5	15.9	56.9	25.7	17.4	82.6	100.0	3.1
300~399만원	(96)	3.1	13.5	60.4	22.9	16.7	83.3	100.0	3.0
400만원 이상	(60)	5.0	23.3	50.0	21.7	28.3	71.7	100.0	2.9
무응답	(13)	7.7	23.1	46.2	23.1	30.8	69.2	100.0	2.8
경제수준									
상	(44)	2.3	27.3	47.7	22.7	29.5	70.5	100.0	2.9
중상	(1054)	2.0	15.8	56.2	26.0	17.8	82.2	100.0	3.1
중하	(1202)	1.7	14.3	53.3	30.6	16.1	83.9	100.0	3.1
하	(160)	1.9	11.9	59.4	26.9	13.8	86.3	100.0	3.1
무응답	(54)	1.9	16.7	59.3	22.2	18.5	81.5	100.0	3.0
혼인상태									
미혼	(885)	2.1	14.6	55.8	27.5	16.7	83.3	100.0	3.1
기혼	(1629)	1.7	15.3	54.5	28.5	17.1	82.9	100.0	3.1
지역									
서울	(577)	1.9	17.3	57.2	23.6	19.2	80.8	100.0	3.0
부산	(210)	.5	11.0	44.8	43.8	11.4	88.6	100.0	3.3
대구	(138)	2.2	20.3	37.0	40.6	22.5	77.5	100.0	3.2
인천	(134)	4.5	13.4	51.5	30.6	17.9	82.1	100.0	3.1
광주	(71)	.0	8.5	45.1	46.5	8.5	91.5	100.0	3.4
대전	(72)	1.4	15.3	55.6	27.8	16.7	83.3	100.0	3.1
울산	(54)	.0	16.7	63.0	20.4	16.7	83.3	100.0	3.0
경기	(485)	3.5	12.8	57.9	25.8	16.3	83.7	100.0	3.1
강원	(81)	2.5	18.5	55.6	23.5	21.0	79.0	100.0	3.0
충북	(75)	1.3	10.7	68.0	20.0	12.0	88.0	100.0	3.1
충남	(98)	2.0	14.3	62.2	21.4	16.3	83.7	100.0	3.0
전북	(104)	1.0	9.6	49.0	40.4	10.6	89.4	100.0	3.3
전남	(109)	.9	32.1	56.0	11.0	33.0	67.0	100.0	2.8
경북	(145)	.7	15.2	60.0	24.1	15.9	84.1	100.0	3.1
경남	(161)	.0	11.2	58.4	30.4	11.2	88.8	100.0	3.2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9)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이과보다는 문과 출신이 더 유리하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7.9	54.1	29.4	8.7	61.9	38.1	100.0	2.4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0	54.6	28.5	8.8	62.7	37.3	100.0	2.4
비직업인	(799)	7.5	52.8	31.3	8.4	60.3	39.7	100.0	2.4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9	55.7	26.6	7.8	65.6	34.4	100.0	2.3
100~199만원	(768)	7.3	54.9	29.4	8.3	62.2	37.8	100.0	2.4
200~299만원	(327)	5.5	56.0	28.7	9.8	61.5	38.5	100.0	2.4
300~399만원	(96)	9.4	46.9	33.3	10.4	56.3	43.8	100.0	2.4
400만원 이상	(60)	10.0	51.7	30.0	8.3	61.7	38.3	100.0	2.4
무응답	(13)	15.4	46.2	38.5	.0	61.5	38.5	100.0	2.2
경제수준									
상	(44)	9.1	65.9	18.2	6.8	75.0	25.0	100.0	2.2
중상	(1054)	7.8	55.9	28.7	7.7	63.7	36.3	100.0	2.4
중하	(1202)	7.7	51.7	31.3	9.3	59.4	40.6	100.0	2.4
하	(160)	8.8	51.9	28.1	11.3	60.6	39.4	100.0	2.4
무응답	(54)	11.1	66.7	14.8	7.4	77.8	22.2	100.0	2.2
혼인상태									
미혼	(885)	10.1	56.6	26.4	6.9	66.7	33.3	100.0	2.3
기혼	(1629)	6.7	52.7	31.0	9.6	59.4	40.6	100.0	2.4
지역									
서울	(577)	10.2	53.4	29.8	6.6	63.6	36.4	100.0	2.3
부산	(210)	3.3	41.0	30.0	25.7	44.3	55.7	100.0	2.8
대구	(138)	6.5	59.4	29.0	5.1	65.9	34.1	100.0	2.3
인천	(134)	11.2	60.4	20.9	7.5	71.6	28.4	100.0	2.2
광주	(71)	2.8	46.5	35.2	15.5	49.3	50.7	100.0	2.6
대전	(72)	8.3	58.3	19.4	13.9	66.7	33.3	100.0	2.4
울산	(54)	1.9	50.0	31.5	16.7	51.9	48.1	100.0	2.6
경기	(485)	11.3	56.3	26.2	6.2	67.6	32.4	100.0	2.3
강원	(81)	7.4	59.3	27.2	6.2	66.7	33.3	100.0	2.3
충북	(75)	4.0	62.7	32.0	1.3	66.7	33.3	100.0	2.3
충남	(98)	4.1	52.0	38.8	5.1	56.1	43.9	100.0	2.4
전북	(104)	6.7	54.8	25.0	13.5	61.5	38.5	100.0	2.5
전남	(109)	5.5	52.3	38.5	3.7	57.8	42.2	100.0	2.4
경북	(145)	9.7	51.0	33.1	6.2	60.7	39.3	100.0	2.4
경남	(161)	2.5	57.8	32.9	6.8	60.2	39.8	100.0	2.4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0) 직업선택은 중 고등학교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2514)	8.4	44.0	36.3	11.2	52.5	47.5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9.3	45.7	34.9	10.1	55.0	45.0	100.0	2.5
비직업인	(799)	6.6	40.4	39.4	13.5	47.1	52.9	100.0	2.6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9	44.3	35.9	9.9	54.2	45.8	100.0	2.5
100~199만원	(768)	8.1	46.5	34.0	11.5	54.6	45.4	100.0	2.5
200~299만원	(327)	6.7	49.5	36.1	7.6	56.3	43.7	100.0	2.4
300~399만원	(96)	12.5	43.8	34.4	9.4	56.3	43.8	100.0	2.4
400만원 이상	(60)	21.7	36.7	36.7	5.0	58.3	41.7	100.0	2.3
무응답	(13)	15.4	76.9	7.7	.0	92.3	7.7	100.0	1.9
경제수준									
상	(44)	15.9	43.2	38.6	2.3	59.1	40.9	100.0	2.3
중상	(1054)	7.9	45.2	36.6	10.3	53.0	47.0	100.0	2.5
중하	(1202)	8.2	43.5	36.1	12.1	51.7	48.3	100.0	2.5
하	(160)	10.6	39.4	38.8	11.3	50.0	50.0	100.0	2.5
무응답	(54)	11.1	48.1	25.9	14.8	59.3	40.7	100.0	2.4
혼인상태									
미혼	(885)	10.5	40.6	35.7	13.2	51.1	48.9	100.0	2.5
기혼	(1629)	7.3	45.9	36.6	10.1	53.2	46.8	100.0	2.5
지역									
서울	(577)	15.4	45.8	33.3	5.5	61.2	38.8	100.0	2.3
부산	(210)	5.7	37.6	31.9	24.8	43.3	56.7	100.0	2.8
대구	(138)	2.2	49.3	37.7	10.9	51.4	48.6	100.0	2.6
인천	(134)	9.0	44.8	33.6	12.7	53.7	46.3	100.0	2.5
광주	(71)	.0	31.0	33.8	35.2	31.0	69.0	100.0	3.0
대전	(72)	13.9	51.4	27.8	6.9	65.3	34.7	100.0	2.3
울산	(54)	3.7	53.7	27.8	14.8	57.4	42.6	100.0	2.5
경기	(485)	7.4	39.8	41.2	11.5	47.2	52.8	100.0	2.6
강원	(81)	8.6	50.6	32.1	8.6	59.3	40.7	100.0	2.4
충북	(75)	6.7	37.3	50.7	5.3	44.0	56.0	100.0	2.5
충남	(98)	2.0	42.9	43.9	11.2	44.9	55.1	100.0	2.6
전북	(104)	9.6	44.2	29.8	16.3	53.8	46.2	100.0	2.5
전남	(109)	5.5	56.0	36.7	1.8	61.5	38.5	100.0	2.3
경북	(145)	10.3	42.8	35.9	11.0	53.1	46.9	100.0	2.5
경남	(161)	1.9	46.6	42.2	9.3	48.4	51.6	100.0	2.6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1) 【직업인】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자랑스럽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1699)	4.8	30.9	50.1	14.2	35.7	64.3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687)	4.8	30.8	50.2	14.2	35.6	64.4	100.0	2.7
비직업인	(12)	.0	50.0	33.3	16.7	50.0	50.0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0)	9.4	37.0	41.5	12.1	46.4	53.6	100.0	2.6
100~199만원	(762)	3.5	33.1	50.0	13.4	36.6	63.4	100.0	2.7
200~299만원	(327)	4.3	24.2	56.3	15.3	28.4	71.6	100.0	2.8
300~399만원	(96)	3.1	27.1	50.0	19.8	30.2	69.8	100.0	2.9
400만원 이상	(60)	.0	8.3	65.0	26.7	8.3	91.7	100.0	3.2
무응답	(13)	.0	30.8	53.8	15.4	30.8	69.2	100.0	2.8
경제수준									
상	(29)	3.4	13.8	51.7	31.0	17.2	82.8	100.0	3.1
중상	(687)	2.8	24.0	56.8	16.4	26.8	73.2	100.0	2.9
중하	(834)	5.5	34.9	47.6	12.0	40.4	59.6	100.0	2.7
하	(116)	12.1	44.8	31.0	12.1	56.9	43.1	100.0	2.4
무응답	(33)	3.0	39.4	39.4	18.2	42.4	57.6	100.0	2.7
혼인상태									
미혼	(496)	4.8	31.7	48.6	14.9	36.5	63.5	100.0	2.7
기혼	(1203)	4.7	30.6	50.7	14.0	35.3	64.7	100.0	2.7
지역									
서울	(378)	4.5	28.6	50.8	16.1	33.1	66.9	100.0	2.8
부산	(135)	3.7	40.7	45.9	9.6	44.4	55.6	100.0	2.6
대구	(86)	3.5	34.9	50.0	11.6	38.4	61.6	100.0	2.7
인천	(100)	6.0	28.0	54.0	12.0	34.0	66.0	100.0	2.7
광주	(47)	8.5	17.0	53.2	21.3	25.5	74.5	100.0	2.9
대전	(58)	.0	24.1	56.9	19.0	24.1	75.9	100.0	2.9
울산	(29)	10.3	31.0	48.3	10.3	41.4	58.6	100.0	2.6
경기	(326)	5.5	27.9	50.0	16.6	33.4	66.6	100.0	2.8
강원	(50)	2.0	44.0	46.0	8.0	46.0	54.0	100.0	2.6
충북	(48)	2.1	31.3	56.3	10.4	33.3	66.7	100.0	2.8
충남	(68)	2.9	27.9	58.8	10.3	30.9	69.1	100.0	2.8
전북	(77)	1.3	37.7	39.0	22.1	39.0	61.0	100.0	2.8
전남	(74)	4.1	48.6	44.6	2.7	52.7	47.3	100.0	2.5
경북	(108)	12.0	31.5	38.9	17.6	43.5	56.5	100.0	2.6
경남	(115)	3.5	23.5	60.9	12.2	27.0	73.0	100.0	2.8

문3.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2) 【비직업인】 우리 아버지(어머니, 남편)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자랑스럽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전체	(815)	2.3	22.6	56.7	18.4	24.9	75.1	100.0	2.9
직업형태									
직업인	(28)	.0	21.4	71.4	7.1	21.4	78.6	100.0	2.9
비직업인	(787)	2.4	22.6	56.2	18.8	25.0	75.0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4)	.0	50.0	50.0	.0	50.0	50.0	100.0	2.5
100~199만원	(6)	.0	16.7	83.3	.0	16.7	83.3	100.0	2.8
경제수준									
상	(15)	.0	33.3	53.3	13.3	33.3	66.7	100.0	2.8
중상	(367)	1.4	16.1	58.3	24.3	17.4	82.6	100.0	3.1
중하	(368)	3.0	26.9	56.0	14.1	29.9	70.1	100.0	2.8
하	(44)	4.5	36.4	50.0	9.1	40.9	59.1	100.0	2.6
무응답	(21)	4.8	23.8	57.1	14.3	28.6	71.4	100.0	2.8
혼인상태									
미혼	(389)	2.3	15.9	59.4	22.4	18.3	81.7	100.0	3.0
기혼	(426)	2.3	28.6	54.2	14.8	31.0	69.0	100.0	2.8
지역									
서울	(199)	3.0	20.6	56.8	19.6	23.6	76.4	100.0	2.9
부산	(75)	.0	40.0	52.0	8.0	40.0	60.0	100.0	2.7
대구	(52)	3.8	23.1	53.8	19.2	26.9	73.1	100.0	2.9
인천	(34)	.0	20.6	67.6	11.8	20.6	79.4	100.0	2.9
광주	(24)	4.2	29.2	54.2	12.5	33.3	66.7	100.0	2.8
대전	(14)	7.1	14.3	57.1	21.4	21.4	78.6	100.0	2.9
울산	(25)	4.0	20.0	52.0	24.0	24.0	76.0	100.0	3.0
경기	(159)	2.5	15.7	57.2	24.5	18.2	81.8	100.0	3.0
강원	(31)	3.2	41.9	48.4	6.5	45.2	54.8	100.0	2.6
충북	(27)	.0	18.5	59.3	22.2	18.5	81.5	100.0	3.0
충남	(30)	.0	3.3	60.0	36.7	3.3	96.7	100.0	3.3
전북	(27)	.0	3.7	59.3	37.0	3.7	96.3	100.0	3.3
전남	(35)	.0	51.4	45.7	2.9	51.4	48.6	100.0	2.5
경북	(37)	8.1	24.3	45.9	21.6	32.4	67.6	100.0	2.8
경남	(46)	.0	17.4	78.3	4.3	17.4	82.6	100.0	2.9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돈을 벌기 위하여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그렇지 않음	종합 그러함	종합 무응답	계	4점 평균
전체	(2514)	1.0	5.4	53.7	39.9	.0	6.4	93.6	.0	100.0	3.3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2	5.2	52.7	40.9	.1	6.4	93.5	.1	100.0	3.3
비직업인	(799)	.5	5.9	55.9	37.7	.0	6.4	93.6	.0	100.0	3.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	5.7	52.7	41.3	.0	6.0	94.0	.0	100.0	3.4
100~199만원	(768)	1.4	4.0	52.2	42.3	.0	5.5	94.5	.0	100.0	3.4
200~299만원	(327)	.6	7.0	56.6	35.5	.3	7.6	92.0	.3	100.0	3.3
300~399만원	(96)	4.2	8.3	45.8	41.7	.0	12.5	87.5	.0	100.0	3.3
400만원 이상	(60)	3.3	1.7	61.7	33.3	.0	5.0	95.0	.0	100.0	3.3
무응답	(13)	.0	.0	53.8	46.2	.0	.0	100.0	.0	100.0	3.5
경제수준											
상	(44)	2.3	11.4	54.5	31.8	.0	13.6	86.4	.0	100.0	3.2
중상	(1054)	.9	6.2	57.4	35.5	.0	7.1	92.9	.0	100.0	3.3
중하	(1202)	1.1	4.7	51.5	42.7	.1	5.7	94.2	.1	100.0	3.4
하	(160)	.0	3.8	45.6	50.6	.0	3.8	96.3	.0	100.0	3.5
무응답	(54)	.0	9.3	53.7	37.0	.0	9.3	90.7	.0	100.0	3.3
혼인상태											
미혼	(885)	1.4	7.2	55.6	35.8	.0	8.6	91.4	.0	100.0	3.3
기혼	(1629)	.7	4.5	52.7	42.1	.1	5.2	94.7	.1	100.0	3.4
지역											
서울	(577)	.9	6.1	57.5	35.5	.0	6.9	93.1	.0	100.0	3.3
부산	(210)	.0	1.9	35.2	62.9	.0	1.9	98.1	.0	100.0	3.6
대구	(138)	.0	4.3	58.0	37.7	.0	4.3	95.7	.0	100.0	3.3
인천	(134)	2.2	3.7	55.2	38.8	.0	6.0	94.0	.0	100.0	3.3
광주	(71)	.0	2.8	36.6	60.6	.0	2.8	97.2	.0	100.0	3.6
대전	(72)	.0	4.2	56.9	38.9	.0	4.2	95.8	.0	100.0	3.3
울산	(54)	.0	1.9	53.7	44.4	.0	1.9	98.1	.0	100.0	3.4
경기	(485)	1.9	5.2	56.5	36.3	.2	7.0	92.8	.2	100.0	3.3
강원	(81)	.0	12.3	70.4	17.3	.0	12.3	87.7	.0	100.0	3.0
충북	(75)	1.3	6.7	61.3	30.7	.0	8.0	92.0	.0	100.0	3.2
충남	(98)	1.0	2.0	66.3	30.6	.0	3.1	96.9	.0	100.0	3.3
전북	(104)	1.9	4.8	44.2	49.0	.0	6.7	93.3	.0	100.0	3.4
전남	(109)	.9	2.8	45.0	51.4	.0	3.7	96.3	.0	100.0	3.5
경북	(145)	.7	7.6	49.7	42.1	.0	8.3	91.7	.0	100.0	3.3
경남	(161)	.6	12.4	52.8	34.2	.0	13.0	87.0	.0	100.0	3.2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 일 자체가 좋아서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2514)	3.4	36.8	47.0	12.6	.1	40.3	59.6	.1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7	38.4	45.1	12.7	.1	42.0	57.8	.1	100.0	2.7
비직업인	(799)	2.9	33.5	50.9	12.5	.1	36.4	63.5	.1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2	42.2	42.2	11.4	.0	46.4	53.6	.0	100.0	2.6
100~199만원	(768)	3.9	41.7	44.0	10.4	.0	45.6	54.4	.0	100.0	2.6
200~299만원	(327)	3.1	35.8	45.9	14.7	.6	38.8	60.6	.6	100.0	2.7
300~399만원	(96)	5.2	26.0	52.1	16.7	.0	31.3	68.8	.0	100.0	2.8
400만원 이상	(60)	1.7	20.0	58.3	20.0	.0	21.7	78.3	.0	100.0	3.0
무응답	(13)	7.7	30.8	46.2	15.4	.0	38.5	61.5	.0	100.0	2.7
경제수준											
상	(44)	.0	25.0	54.5	20.5	.0	25.0	75.0	.0	100.0	3.0
중상	(1054)	2.6	32.7	49.8	14.9	.0	35.3	64.7	.0	100.0	2.8
중하	(1202)	3.7	39.6	45.4	11.0	.2	43.3	56.4	.2	100.0	2.6
하	(160)	8.8	46.3	37.5	7.5	.0	55.0	45.0	.0	100.0	2.4
무응답	(54)	.0	37.0	48.1	14.8	.0	37.0	63.0	.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3.1	32.8	47.7	16.4	.1	35.8	64.1	.1	100.0	2.8
기혼	(1629)	3.6	39.0	46.6	10.6	.1	42.7	57.2	.1	100.0	2.6
지역											
서울	(577)	1.9	31.5	51.5	15.1	.0	33.4	66.6	.0	100.0	2.8
부산	(210)	4.3	39.0	41.4	15.2	.0	43.3	56.7	.0	100.0	2.7
대구	(138)	4.3	32.6	45.7	17.4	.0	37.0	63.0	.0	100.0	2.8
인천	(134)	4.5	28.4	56.7	10.4	.0	32.8	67.2	.0	100.0	2.7
광주	(71)	4.2	32.4	50.7	12.7	.0	36.6	63.4	.0	100.0	2.7
대전	(72)	2.8	33.3	56.9	6.9	.0	36.1	63.9	.0	100.0	2.7
울산	(54)	9.3	16.7	44.4	29.6	.0	25.9	74.1	.0	100.0	2.9
경기	(485)	3.3	37.5	44.9	13.6	.6	40.8	58.6	.6	100.0	2.7
강원	(81)	7.4	51.9	33.3	7.4	.0	59.3	40.7	.0	100.0	2.4
충북	(75)	1.3	41.3	53.3	4.0	.0	42.7	57.3	.0	100.0	2.6
충남	(98)	1.0	29.6	58.2	11.2	.0	30.6	69.4	.0	100.0	2.8
전북	(104)	1.0	39.4	45.2	14.4	.0	40.4	59.6	.0	100.0	2.7
전남	(109)	2.8	74.3	20.2	2.8	.0	77.1	22.9	.0	100.0	2.2
경북	(145)	9.0	33.8	50.3	6.9	.0	42.8	57.2	.0	100.0	2.6
경남	(161)	1.9	42.2	45.3	10.6	.0	44.1	55.9	.0	100.0	2.6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3) 자아실현을 위하여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2514)	3.0	29.0	52.8	15.1	.1	32.0	67.9	.1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6	32.0	51.4	12.9	.1	35.6	64.3	.1	100.0	2.7
비직업인	(799)	1.8	22.7	55.8	19.8	.0	24.4	75.6	.0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4	38.3	45.2	10.8	.3	43.7	56.0	.3	100.0	2.6
100~199만원	(768)	3.5	33.7	51.4	11.3	.0	37.2	62.8	.0	100.0	2.7
200~299만원	(327)	1.5	29.7	53.5	15.0	.3	31.2	68.5	.3	100.0	2.8
300~399만원	(96)	6.3	20.8	56.3	16.7	.0	27.1	72.9	.0	100.0	2.8
400만원 이상	(60)	3.3	20.0	65.0	11.7	.0	23.3	76.7	.0	100.0	2.9
무응답	(13)	7.7	38.5	46.2	7.7	.0	46.2	53.8	.0	100.0	2.5
경제수준											
상	(44)	2.3	29.5	45.5	22.7	.0	31.8	68.2	.0	100.0	2.9
중상	(1054)	1.9	24.3	56.5	17.3	.0	26.2	73.8	.0	100.0	2.9
중하	(1202)	3.2	32.1	50.7	13.9	.2	35.3	64.6	.2	100.0	2.8
하	(160)	9.4	36.3	46.3	8.1	.0	45.6	54.4	.0	100.0	2.5
무응답	(54)	3.7	29.6	53.7	13.0	.0	33.3	66.7	.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2.6	23.2	53.9	20.2	.1	25.8	74.1	.1	100.0	2.9
기혼	(1629)	3.3	32.2	52.2	12.3	.1	35.4	64.5	.1	100.0	2.7
지역											
서울	(577)	1.7	27.0	55.8	15.3	.2	28.8	71.1	.2	100.0	2.8
부산	(210)	3.3	26.7	48.1	21.9	.0	30.0	70.0	.0	100.0	2.9
대구	(138)	2.2	22.5	48.6	26.8	.0	24.6	75.4	.0	100.0	3.0
인천	(134)	2.2	29.9	56.7	11.2	.0	32.1	67.9	.0	100.0	2.8
광주	(71)	4.2	39.4	46.5	9.9	.0	43.7	56.3	.0	100.0	2.6
대전	(72)	1.4	37.5	43.1	18.1	.0	38.9	61.1	.0	100.0	2.8
울산	(54)	1.9	13.0	40.7	44.4	.0	14.8	85.2	.0	100.0	3.3
경기	(485)	4.9	26.8	52.6	15.5	.2	31.8	68.0	.2	100.0	2.8
강원	(81)	2.5	40.7	45.7	11.1	.0	43.2	56.8	.0	100.0	2.7
충북	(75)	4.0	45.3	46.7	4.0	.0	49.3	50.7	.0	100.0	2.5
충남	(98)	1.0	17.3	68.4	13.3	.0	18.4	81.6	.0	100.0	2.9
전북	(104)	3.8	28.8	53.8	13.5	.0	32.7	67.3	.0	100.0	2.8
전남	(109)	.9	36.7	56.9	5.5	.0	37.6	62.4	.0	100.0	2.7
경북	(145)	6.2	27.6	57.2	9.0	.0	33.8	66.2	.0	100.0	2.7
경남	(161)	2.5	37.3	50.3	9.9	.0	39.8	60.2	.0	100.0	2.7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4)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2514)	3.6	29.5	51.4	15.4	.1	33.1	66.8	.1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3	32.3	49.7	13.6	.1	36.6	63.3	.1	100.0	2.7
비직업인	(799)	2.3	23.4	55.1	19.3	.0	25.7	74.3	.0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4	39.5	42.5	12.6	.0	44.9	55.1	.0	100.0	2.6
100~199만원	(768)	4.9	33.6	48.7	12.6	.1	38.5	61.3	.1	100.0	2.7
200~299만원	(327)	2.8	29.7	53.8	13.5	.3	32.4	67.3	.3	100.0	2.8
300~399만원	(96)	4.2	19.8	57.3	18.8	.0	24.0	76.0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3.3	16.7	61.7	18.3	.0	20.0	80.0	.0	100.0	3.0
무응답	(13)	7.7	7.7	76.9	7.7	.0	15.4	84.6	.0	100.0	2.8
경제수준											
상	(44)	6.8	22.7	50.0	20.5	.0	29.5	70.5	.0	100.0	2.8
중상	(1054)	2.7	25.3	54.0	17.9	.1	28.0	71.9	.1	100.0	2.9
중하	(1202)	3.6	32.8	49.7	13.9	.1	36.4	63.6	.1	100.0	2.7
하	(160)	8.8	35.6	46.9	8.8	.0	44.4	55.6	.0	100.0	2.6
무응답	(54)	5.6	24.1	55.6	14.8	.0	29.6	70.4	.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3.4	24.0	51.4	21.2	.0	27.3	72.7	.0	100.0	2.9
기혼	(1629)	3.7	32.5	51.4	12.2	.1	36.2	63.7	.1	100.0	2.7
지역											
서울	(577)	2.8	29.1	52.9	15.3	.0	31.9	68.1	.0	100.0	2.8
부산	(210)	3.3	22.4	46.2	28.1	.0	25.7	74.3	.0	100.0	3.0
대구	(138)	2.2	24.6	52.2	21.0	.0	26.8	73.2	.0	100.0	2.9
인천	(134)	6.0	36.6	45.5	11.9	.0	42.5	57.5	.0	100.0	2.6
광주	(71)	7.0	29.6	50.7	12.7	.0	36.6	63.4	.0	100.0	2.7
대전	(72)	2.8	37.5	48.6	11.1	.0	40.3	59.7	.0	100.0	2.7
울산	(54)	1.9	20.4	35.2	42.6	.0	22.2	77.8	.0	100.0	3.2
경기	(485)	5.4	28.9	50.3	15.1	.4	34.2	65.4	.4	100.0	2.8
강원	(81)	3.7	42.0	46.9	7.4	.0	45.7	54.3	.0	100.0	2.6
충북	(75)	2.7	25.3	62.7	9.3	.0	28.0	72.0	.0	100.0	2.8
충남	(98)	1.0	20.4	64.3	14.3	.0	21.4	78.6	.0	100.0	2.9
전북	(104)	2.9	37.5	42.3	17.3	.0	40.4	59.6	.0	100.0	2.7
전남	(109)	.9	36.7	59.6	2.8	.0	37.6	62.4	.0	100.0	2.6
경북	(145)	6.9	30.3	52.4	10.3	.0	37.2	62.8	.0	100.0	2.7
경남	(161)	1.9	29.8	56.5	11.8	.0	31.7	68.3	.0	100.0	2.8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5)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2514)	3.5	30.7	54.6	11.1	.1	34.2	65.7	.1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8	31.4	54.3	10.4	.1	35.2	64.7	.1	100.0	2.7
비직업인	(799)	2.9	29.3	55.2	12.6	.0	32.2	67.8	.0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3	34.4	49.7	9.6	.0	40.7	59.3	.0	100.0	2.6
100~199만원	(768)	3.6	30.6	56.0	9.6	.1	34.2	65.6	.1	100.0	2.7
200~299만원	(327)	1.8	30.9	55.4	11.6	.3	32.7	67.0	.3	100.0	2.8
300~399만원	(96)	4.2	22.9	54.2	18.8	.0	27.1	72.9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3.3	28.3	55.0	13.3	.0	31.7	68.3	.0	100.0	2.8
무응답	(13)	7.7	30.8	38.5	23.1	.0	38.5	61.5	.0	100.0	2.8
경제수준											
상	(44)	2.3	25.0	61.4	11.4	.0	27.3	72.7	.0	100.0	2.8
중상	(1054)	2.5	28.1	57.9	11.5	.1	30.6	69.4	.1	100.0	2.8
중하	(1202)	3.5	33.4	51.7	11.4	.1	36.9	63.1	.1	100.0	2.7
하	(160)	11.3	29.4	53.1	6.3	.0	40.6	59.4	.0	100.0	2.5
무응답	(54)	1.9	31.5	55.6	11.1	.0	33.3	66.7	.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85)	4.0	29.3	55.5	11.3	.0	33.2	66.8	.0	100.0	2.7
기혼	(1629)	3.3	31.5	54.1	11.0	.1	34.7	65.1	.1	100.0	2.7
지역											
서울	(577)	3.6	30.3	56.7	9.4	.0	34.0	66.0	.0	100.0	2.7
부산	(210)	3.3	26.2	47.6	22.9	.0	29.5	70.5	.0	100.0	2.9
대구	(138)	4.3	28.3	52.9	14.5	.0	32.6	67.4	.0	100.0	2.8
인천	(134)	6.0	36.6	49.3	8.2	.0	42.5	57.5	.0	100.0	2.6
광주	(71)	11.3	32.4	49.3	7.0	.0	43.7	56.3	.0	100.0	2.5
대전	(72)	2.8	43.1	40.3	13.9	.0	45.8	54.2	.0	100.0	2.7
울산	(54)	.0	22.2	46.3	31.5	.0	22.2	77.8	.0	100.0	3.1
경기	(485)	4.9	30.7	50.3	13.6	.4	35.7	63.9	.4	100.0	2.7
강원	(81)	3.7	38.3	54.3	3.7	.0	42.0	58.0	.0	100.0	2.6
충북	(75)	.0	33.3	64.0	2.7	.0	33.3	66.7	.0	100.0	2.7
충남	(98)	1.0	10.2	80.6	8.2	.0	11.2	88.8	.0	100.0	3.0
전북	(104)	1.0	27.9	59.6	11.5	.0	28.8	71.2	.0	100.0	2.8
전남	(109)	.9	33.9	63.3	1.8	.0	34.9	65.1	.0	100.0	2.7
경북	(145)	2.8	36.6	55.2	5.5	.0	39.3	60.7	.0	100.0	2.6
경남	(161)	1.2	33.5	57.1	8.1	.0	34.8	65.2	.0	100.0	2.7

문4. 귀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이유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6)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2514)	3.9	34.9	51.4	9.7	.1	38.7	61.1	.1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4	36.3	49.7	9.4	.2	40.7	59.1	.2	100.0	2.6
비직업인	(799)	2.6	31.9	55.2	10.3	.0	34.5	65.5	.0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1	36.5	49.1	9.0	.3	41.6	58.1	.3	100.0	2.6
100~199만원	(768)	4.2	37.1	49.7	8.9	.1	41.3	58.6	.1	100.0	2.6
200~299만원	(327)	3.4	36.1	50.8	9.5	.3	39.4	60.2	.3	100.0	2.7
300~399만원	(96)	8.3	36.5	45.8	9.4	.0	44.8	55.2	.0	100.0	2.6
400만원 이상	(60)	3.3	36.7	43.3	16.7	.0	40.0	60.0	.0	100.0	2.7
무응답	(13)	7.7	15.4	61.5	15.4	.0	23.1	76.9	.0	100.0	2.8
경제수준											
상	(44)	.0	31.8	61.4	6.8	.0	31.8	68.2	.0	100.0	2.8
중상	(1054)	2.8	34.7	52.4	10.1	.1	37.5	62.4	.1	100.0	2.7
중하	(1202)	4.4	34.6	51.0	9.8	.2	39.0	60.8	.2	100.0	2.7
하	(160)	8.1	39.4	45.0	7.5	.0	47.5	52.5	.0	100.0	2.5
무응답	(54)	3.7	33.3	53.7	9.3	.0	37.0	63.0	.0	100.0	2.7
혼인상태											
미혼	(885)	3.6	32.3	52.2	11.9	.0	35.9	64.1	.0	100.0	2.7
기혼	(1629)	4.0	36.3	51.0	8.5	.2	40.3	59.5	.2	100.0	2.6
지역											
서울	(577)	2.8	39.5	49.7	8.0	.0	42.3	57.7	.0	100.0	2.6
부산	(210)	2.4	34.8	50.5	12.4	.0	37.1	62.9	.0	100.0	2.7
대구	(138)	3.6	31.2	52.2	13.0	.0	34.8	65.2	.0	100.0	2.7
인천	(134)	4.5	34.3	49.3	11.9	.0	38.8	61.2	.0	100.0	2.7
광주	(71)	16.9	22.5	49.3	11.3	.0	39.4	60.6	.0	100.0	2.5
대전	(72)	5.6	36.1	48.6	9.7	.0	41.7	58.3	.0	100.0	2.6
울산	(54)	.0	18.5	55.6	25.9	.0	18.5	81.5	.0	100.0	3.1
경기	(485)	7.0	34.0	47.0	11.3	.6	41.0	58.4	.6	100.0	2.6
강원	(81)	4.9	42.0	40.7	12.3	.0	46.9	53.1	.0	100.0	2.6
충북	(75)	1.3	52.0	45.3	1.3	.0	53.3	46.7	.0	100.0	2.5
충남	(98)	1.0	18.4	73.5	7.1	.0	19.4	80.6	.0	100.0	2.9
전북	(104)	1.0	26.9	62.5	9.6	.0	27.9	72.1	.0	100.0	2.8
전남	(109)	1.8	35.8	58.7	3.7	.0	37.6	62.4	.0	100.0	2.6
경북	(145)	3.4	37.2	51.7	7.6	.0	40.7	59.3	.0	100.0	2.6
경남	(161)	.6	36.0	56.5	6.8	.0	36.6	63.4	.0	100.0	2.7

문5.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또는 우선 순위가 있는) 순서대로 고른다면?
<1> 1순위

	사례수	직업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사회봉사 종교 및 친교생활	여가생활	계
전체	(2514)	26.1	56.0	9.7	2.4	5.8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4.8	54.5	3.0	2.3	5.4	100.0
비직업인	(799)	7.5	59.2	24.2	2.5	6.6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7.8	58.1	2.7	3.0	8.4	100.0
100~199만원	(768)	37.0	55.1	1.0	2.1	4.8	100.0
200~299만원	(327)	41.6	51.4	.6	2.1	4.3	100.0
300~399만원	(96)	40.6	52.1	1.0	3.1	3.1	100.0
400만원 이상	(60)	36.7	58.3	.0	1.7	3.3	100.0
무응답	(13)	30.8	61.5	.0	.0	7.7	100.0
경제수준							
상	(44)	25.0	54.5	11.4	.0	9.1	100.0
중상	(1054)	26.0	55.1	11.2	2.1	5.6	100.0
중하	(1202)	26.5	56.4	8.7	2.7	5.7	100.0
하	(160)	22.5	61.9	5.6	2.5	7.5	100.0
무응답	(54)	31.5	48.1	14.8	1.9	3.7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28.5	31.0	26.6	2.7	11.3	100.0
기혼	(1629)	24.8	69.6	.6	2.2	2.8	100.0
지역							
서울	(577)	24.1	55.1	11.3	3.5	6.1	100.0
부산	(210)	25.2	55.7	11.9	1.0	6.2	100.0
대구	(138)	23.2	55.8	13.8	2.2	5.1	100.0
인천	(134)	20.9	58.2	8.2	3.0	9.7	100.0
광주	(71)	45.1	46.5	2.8	1.4	4.2	100.0
대전	(72)	37.5	50.0	8.3	1.4	2.8	100.0
울산	(54)	38.9	40.7	9.3	3.7	7.4	100.0
경기	(485)	26.6	59.0	6.8	3.1	4.5	100.0
강원	(81)	13.6	69.1	8.6	2.5	6.2	100.0
충북	(75)	17.3	68.0	9.3	1.3	4.0	100.0
충남	(98)	27.6	58.2	6.1	.0	8.2	100.0
전북	(104)	17.3	69.2	6.7	2.9	3.8	100.0
전남	(109)	35.8	44.0	11.0	2.8	6.4	100.0
경북	(145)	33.1	50.3	8.3	.7	7.6	100.0
경남	(161)	24.2	52.2	16.8	1.2	5.6	100.0

문5.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또는 우선 순위가 있는) 순서대로 고른다면?
<2> 2순위

	사례수	직업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사회봉사 종교 및 친교생활	여가생활	계
전체	(2511)	37.3	31.9	3.7	8.5	18.6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3)	44.5	35.5	1.9	5.1	13.0	100.0
비직업인	(798)	21.7	24.3	7.5	15.9	30.6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8.5	30.5	1.5	6.9	12.6	100.0
100~199만원	(767)	45.6	35.9	1.2	3.8	13.6	100.0
200~299만원	(327)	41.9	40.1	.9	5.8	11.3	100.0
300~399만원	(95)	41.1	41.1	1.1	4.2	12.6	100.0
400만원 이상	(60)	48.3	38.3	1.7	3.3	8.3	100.0
무응답	(13)	46.2	23.1	7.7	.0	23.1	100.0
경제수준							
상	(44)	27.3	36.4	4.5	15.9	15.9	100.0
중상	(1052)	34.0	33.3	4.0	9.3	19.4	100.0
중하	(1201)	40.0	31.4	3.4	7.7	17.5	100.0
하	(160)	43.1	25.0	2.5	8.1	21.3	100.0
무응답	(54)	29.6	35.2	5.6	7.4	22.2	100.0
혼인상태							
미혼	(883)	24.1	40.7	8.6	5.9	20.7	100.0
기혼	(1628)	44.4	27.2	1.0	10.0	17.4	100.0
지역							
서울	(576)	32.6	30.2	4.0	13.5	19.6	100.0
부산	(210)	44.8	34.8	2.4	1.9	16.2	100.0
대구	(137)	37.2	38.0	2.2	4.4	18.2	100.0
인천	(134)	35.1	24.6	4.5	8.2	27.6	100.0
광주	(71)	28.2	38.0	9.9	4.2	19.7	100.0
대전	(72)	30.6	41.7	2.8	8.3	16.7	100.0
울산	(54)	27.8	44.4	3.7	9.3	14.8	100.0
경기	(484)	36.6	28.5	3.7	9.7	21.5	100.0
강원	(81)	43.2	18.5	7.4	9.9	21.0	100.0
충북	(75)	56.0	17.3	2.7	6.7	17.3	100.0
충남	(98)	41.8	31.6	1.0	5.1	20.4	100.0
전북	(104)	40.4	22.1	5.8	8.7	23.1	100.0
전남	(109)	37.6	43.1	3.7	7.3	8.3	100.0
경북	(145)	37.2	40.7	2.1	6.2	13.8	100.0
경남	(161)	41.6	39.1	2.5	6.2	10.6	100.0

문5.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또는 우선 순위가 있는) 순서대로 고른다면?
<3> 우선순위 가중종합

	사례수	직업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사회봉사 종교 및 친교생활	여가생활	계
전체	(2514)	27.7	39.9	6.8	7.6	17.9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4.4	40.2	2.8	6.1	16.5	100.0
비직업인	(799)	13.5	39.3	15.5	10.9	20.8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2.9	40.4	2.7	7.1	16.9	100.0
100~199만원	(768)	35.7	40.6	1.5	5.5	16.8	100.0
200~299만원	(327)	36.5	40.2	1.2	6.2	16.0	100.0
300~399만원	(96)	35.9	40.6	1.9	6.0	15.6	100.0
400만원 이상	(60)	35.8	42.5	.8	5.8	15.0	100.0
무응답	(13)	33.3	39.7	2.6	2.6	21.8	100.0
경제수준							
상	(44)	23.9	40.2	8.0	8.7	19.3	100.0
중상	(1054)	26.7	39.9	7.8	7.6	18.1	100.0
중하	(1202)	28.8	40.0	6.2	7.6	17.4	100.0
하	(160)	28.1	41.1	4.1	7.9	18.9	100.0
무응답	(54)	26.9	37.0	9.9	8.3	17.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24.7	31.9	17.5	6.2	19.7	100.0
기혼	(1629)	29.4	44.3	1.0	8.4	16.8	100.0
지역							
서울	(577)	25.3	39.2	7.7	9.6	18.3	100.0
부산	(210)	29.4	40.5	7.4	4.9	17.7	100.0
대구	(138)	26.9	41.3	8.4	5.7	17.7	100.0
인천	(134)	25.1	38.7	6.5	7.7	22.0	100.0
광주	(71)	34.5	36.9	5.4	7.3	16.0	100.0
대전	(72)	31.3	39.1	5.8	6.5	17.4	100.0
울산	(54)	30.7	36.8	7.4	8.0	17.0	100.0
경기	(485)	27.7	40.5	5.5	8.6	17.7	100.0
강원	(81)	23.5	42.0	7.0	8.0	19.5	100.0
충북	(75)	29.0	41.6	6.0	6.7	16.7	100.0
충남	(98)	29.7	40.6	4.4	6.5	18.8	100.0
전북	(104)	24.7	43.3	5.8	8.8	17.3	100.0
전남	(109)	31.8	37.8	7.8	6.1	16.5	100.0
경북	(145)	31.5	39.5	5.7	6.0	17.2	100.0
경남	(161)	27.7	40.2	9.7	6.2	16.1	100.0

문6. 귀하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인물입니까?

	사례수	부모	친구	친지·친척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기타	본인/스스로	없음	계
전체	(2514)	39.4	18.5	12.1	9.0	2.1	11.5	1.9	3.9	1.6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4.3	19.8	14.6	7.9	1.7	13.4	2.0	4.5	1.7	100.0
비직업인	(799)	50.4	15.8	6.8	11.3	3.0	7.4	1.5	2.6	1.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4.7	21.3	14.7	6.9	.6	12.9	3.6	3.3	2.1	100.0
100~199만원	(768)	33.9	20.6	15.0	6.9	1.4	13.3	2.0	5.7	1.3	100.0
200~299만원	(327)	36.4	17.1	12.8	9.8	3.1	13.5	1.8	4.0	1.5	100.0
300~399만원	(96)	33.3	13.5	17.7	9.4	5.2	16.7	1.0	1.0	2.1	100.0
400만원 이상	(60)	28.3	11.7	16.7	11.7	1.7	21.7	.0	6.7	1.7	100.0
무응답	(13)	38.5	30.8	7.7	.0	.0	15.4	.0	.0	7.7	100.0
경제수준											
상	(44)	45.5	15.9	13.6	4.5	2.3	13.6	.0	4.5	.0	100.0
중상	(1054)	42.3	15.5	10.8	10.4	3.0	12.0	1.1	3.3	1.4	100.0
중하	(1202)	38.0	19.6	12.6	8.7	1.6	11.2	2.5	4.1	1.7	100.0
하	(160)	29.4	31.3	16.9	2.5	.0	11.3	1.9	5.0	1.9	100.0
무응답	(54)	38.9	18.5	11.1	9.3	1.9	5.6	3.7	9.3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44.0	18.8	6.8	9.9	2.7	11.8	1.8	3.5	.8	100.0
기혼	(1629)	37.0	18.4	15.0	8.5	1.8	11.4	1.9	4.2	2.0	100.0
지역											
서울	(577)	39.7	17.3	11.3	8.3	2.8	12.8	1.0	6.1	.7	100.0
부산	(210)	34.3	28.6	10.5	13.8	4.3	5.7	.0	2.9	.0	100.0
대구	(138)	47.1	18.1	13.8	6.5	.0	9.4	.0	2.2	2.9	100.0
인천	(134)	23.9	21.6	13.4	7.5	1.5	19.4	5.2	6.0	1.5	100.0
광주	(71)	54.9	8.5	16.9	7.0	4.2	5.6	.0	2.8	.0	100.0
대전	(72)	27.8	13.9	23.6	6.9	.0	16.7	2.8	5.6	2.8	100.0
울산	(54)	57.4	11.1	7.4	7.4	1.9	7.4	.0	7.4	.0	100.0
경기	(485)	33.2	20.2	9.7	10.5	1.9	15.5	4.3	2.3	2.5	100.0
강원	(81)	23.5	30.9	13.6	8.6	1.2	13.6	2.5	3.7	2.5	100.0
충북	(75)	40.0	8.0	18.7	8.0	2.7	9.3	1.3	9.3	2.7	100.0
충남	(98)	49.0	20.4	9.2	6.1	2.0	9.2	2.0	2.0	.0	100.0
전북	(104)	41.3	8.7	20.2	12.5	4.8	8.7	1.0	.0	2.9	100.0
전남	(109)	53.2	11.0	11.9	14.7	2.8	2.8	.9	1.8	.9	100.0
경북	(145)	52.4	13.8	10.3	4.8	.0	11.0	.7	4.8	2.1	100.0
경남	(161)	42.2	24.2	11.2	6.2	.0	8.7	1.9	3.1	2.5	100.0

문7. 귀하는 학생시절(중, 고, 대)에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514)	40.0	60.0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9.3	60.7	100.0
비직업인	(799)	41.4	58.6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8.9	61.1	100.0
100~199만원	(768)	38.3	61.7	100.0
200~299만원	(327)	38.2	61.8	100.0
300~399만원	(96)	39.6	60.4	100.0
400만원 이상	(60)	40.0	60.0	100.0
무응답	(13)	30.8	69.2	100.0
경제수준				
상	(44)	36.4	63.6	100.0
중상	(1054)	43.2	56.8	100.0
중하	(1202)	38.9	61.1	100.0
하	(160)	25.6	74.4	100.0
무응답	(54)	48.1	5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53.8	46.2	100.0
기혼	(1629)	32.5	67.5	100.0
지역				
서울	(577)	45.9	54.1	100.0
부산	(210)	44.3	55.7	100.0
대구	(138)	37.7	62.3	100.0
인천	(134)	38.8	61.2	100.0
광주	(71)	42.3	57.7	100.0
대전	(72)	41.7	58.3	100.0
울산	(54)	38.9	61.1	100.0
경기	(485)	38.4	61.6	100.0
강원	(81)	32.1	67.9	100.0
충북	(75)	33.3	66.7	100.0
충남	(98)	31.6	68.4	100.0
전북	(104)	43.3	56.7	100.0
전남	(109)	27.5	72.5	100.0
경북	(145)	40.7	59.3	100.0
경남	(161)	37.3	62.7	100.0

문7-1.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사례수	진학지도	취업지도	검사 및 상담	직업정보	기타
전체	(1005)	75.2	56.5	27.0	28.9	1.1
직업형태						
직업인	(674)	72.8	59.3	23.0	31.5	1.2
비직업인	(331)	80.1	50.8	35.0	23.6	.9
소득						
100만원 미만	(130)	67.7	66.2	24.6	30.0	.8
100~199만원	(294)	71.4	61.9	21.4	31.3	1.0
200~299만원	(125)	73.6	52.0	19.2	36.8	2.4
300~399만원	(38)	71.1	55.3	28.9	34.2	2.6
400만원 이상	(24)	75.0	66.7	25.0	29.2	.0
무응답	(4)	50.0	75.0	.0	75.0	.0
경제수준						
상	(16)	75.0	56.3	37.5	31.3	.0
중상	(455)	78.9	55.8	26.6	26.4	1.3
중하	(467)	73.7	57.4	26.6	30.0	.6
하	(41)	58.5	58.5	34.1	36.6	2.4
무응답	(26)	65.4	50.0	23.1	38.5	3.8
혼인상태						
미혼	(476)	80.0	54.0	32.8	23.1	.8
기혼	(529)	70.9	58.8	21.7	34.0	1.3
지역						
서울	(265)	78.9	53.2	26.4	31.3	.8
부산	(93)	84.9	73.1	22.6	16.1	.0
대구	(52)	80.8	69.2	13.5	19.2	.0
인천	(52)	73.1	51.9	26.9	38.5	1.9
광주	(30)	80.0	46.7	40.0	20.0	.0
대전	(30)	86.7	66.7	13.3	23.3	3.3
울산	(21)	61.9	42.9	71.4	19.0	.0
경기	(186)	62.9	58.1	26.3	37.1	1.6
강원	(26)	69.2	38.5	34.6	34.6	7.7
충북	(25)	68.0	56.0	12.0	56.0	.0
충남	(31)	77.4	58.1	22.6	25.8	.0
전북	(45)	73.3	60.0	22.2	33.3	2.2
전남	(30)	73.3	53.3	43.3	26.7	3.3
경북	(59)	76.3	47.5	25.4	23.7	.0
경남	(60)	81.7	53.3	36.7	13.3	.0

문8. 귀하께서 직업선택과 직업전환을 위해 궁금하거나 필요로 하는 직업정보는 무엇입니까?
<1> 1순위

	사례수	진학·유학정보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자격증에 관한 정보	취업정보	산업 및 경제 정보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	창업정보	기타	없음	무응답	계
전체	(2514)	9.7	24.4	33.2	6.5	9.3	3.1	4.3	7.0	1.2	1.0	.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8	27.3	32.2	6.5	9.3	3.8	4.3	8.2	1.4	1.0	.3	100.0
비직업인	(799)	18.3	18.3	35.2	6.5	9.5	1.6	4.3	4.4	.9	1.1	.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4	26.3	33.8	6.0	10.2	2.1	5.4	5.7	3.6	1.2	.3	100.0
100~199만원	(768)	5.1	27.3	34.2	6.8	9.4	3.3	4.3	7.6	.9	.9	.3	100.0
200~299만원	(327)	5.5	28.4	28.1	7.0	7.3	5.8	3.7	12.2	1.2	.6	.0	100.0
300~399만원	(96)	7.3	26.0	28.1	4.2	13.5	5.2	3.1	9.4	1.0	1.0	1.0	100.0
400만원 이상	(60)	1.7	30.0	28.3	6.7	5.0	11.7	1.7	15.0	.0	.0	.0	100.0
무응답	(13)	15.4	23.1	30.8	7.7	.0	.0	7.7	.0	.0	7.7	7.7	100.0
경제수준													
상	(44)	9.1	9.1	36.4	15.9	13.6	4.5	2.3	6.8	.0	2.3	.0	100.0
중상	(1054)	11.8	26.1	31.7	6.7	7.9	2.8	4.2	7.0	.9	.7	.3	100.0
중하	(1202)	8.7	23.6	35.0	6.2	10.1	3.5	3.9	6.7	1.2	1.0	.2	100.0
하	(160)	5.0	19.4	31.9	4.4	13.1	3.1	7.5	10.6	3.1	1.9	.0	100.0
무응답	(54)	9.3	37.0	22.2	7.4	7.4	.0	7.4	1.9	1.9	5.6	.0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9.3	22.1	38.4	5.9	6.9	2.0	2.6	1.8	.6	.1	.2	100.0
기혼	(1629)	4.5	25.7	30.3	6.8	10.7	3.7	5.2	9.8	1.6	1.5	.2	100.0
지역													
서울	(577)	8.8	24.1	39.0	6.1	7.1	3.5	3.6	6.1	.9	.7	.2	100.0
부산	(210)	14.3	25.2	30.5	1.0	17.1	.5	4.8	6.7	.0	.0	.0	100.0
대구	(138)	5.1	29.7	30.4	5.8	11.6	3.6	2.9	8.7	.7	1.4	.0	100.0
인천	(134)	9.7	22.4	29.1	7.5	11.2	9.0	3.7	6.7	.0	.0	.7	100.0
광주	(71)	9.9	33.8	31.0	4.2	9.9	.0	5.6	5.6	.0	.0	.0	100.0
대전	(72)	9.7	23.6	36.1	12.5	4.2	4.2	.0	6.9	1.4	1.4	.0	100.0
울산	(54)	11.1	14.8	38.9	7.4	11.1	5.6	1.9	9.3	.0	.0	.0	100.0
경기	(485)	6.8	20.8	38.1	7.2	9.3	2.3	5.4	8.0	1.0	.4	.6	100.0
강원	(81)	9.9	27.2	28.4	4.9	17.3	1.2	6.2	1.2	.0	3.7	.0	100.0
충북	(75)	8.0	10.7	37.3	8.0	6.7	8.0	.0	12.0	.0	9.3	.0	100.0
충남	(98)	9.2	28.6	31.6	4.1	5.1	1.0	8.2	7.1	5.1	.0	.0	100.0
전북	(104)	11.5	34.6	20.2	11.5	4.8	2.9	3.8	6.7	1.9	1.9	.0	100.0
전남	(109)	21.1	22.0	25.7	6.4	8.3	1.8	9.2	5.5	.0	.0	.0	100.0
경북	(145)	7.6	15.9	29.7	9.7	9.7	6.9	5.5	6.2	5.5	3.4	.0	100.0
경남	(161)	13.7	37.3	22.4	6.2	8.7	.0	1.2	8.1	2.5	.0	.0	100.0

문8. 귀하께서 직업선택과 직업전환을 위해 궁금하거나 필요로 하는 직업정보는 무엇입니까?
<2> 2순위

	사례수	진학·유학정보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자격증에 관한 정보	취업정보	산업 및 경제 정보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	창업정보	기타	계
전체	(2367)	4.0	22.6	16.6	14.7	13.4	7.1	7.9	12.8	.8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607)	2.7	21.5	15.5	15.1	13.3	8.3	7.8	14.8	1.0	100.0
비직업인	(760)	6.7	25.1	19.1	13.8	13.6	4.6	8.0	8.7	.4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04)	2.6	17.1	14.8	18.1	19.7	6.3	10.2	10.5	.7	100.0
100~199만원	(728)	2.9	21.6	15.5	15.0	12.8	8.1	8.1	14.7	1.4	100.0
200~299만원	(308)	1.9	24.7	13.6	12.0	11.7	9.7	7.8	17.2	1.3	100.0
300~399만원	(90)	3.3	21.1	20.0	13.3	5.6	13.3	3.3	20.0	.0	100.0
400만원 이상	(59)	.0	25.4	18.6	8.5	3.4	16.9	3.4	23.7	.0	100.0
무응답	(11)	9.1	18.2	9.1	9.1	18.2	9.1	.0	27.3	.0	100.0
경제수준											
상	(42)	16.7	31.0	2.4	14.3	9.5	11.9	.0	14.3	.0	100.0
중상	(1004)	3.6	22.0	18.8	14.3	14.0	7.0	6.5	13.0	.7	100.0
중하	(1128)	3.9	23.8	16.1	14.4	12.8	7.1	9.0	12.2	.8	100.0
하	(146)	2.1	17.1	10.3	18.5	15.1	8.2	11.6	15.1	2.1	100.0
무응답	(47)	8.5	19.1	14.9	19.1	12.8	4.3	6.4	14.9	.0	100.0
혼인상태											
미혼	(861)	7.7	23.8	18.6	18.0	14.1	3.9	7.1	6.4	.5	100.0
기혼	(1506)	1.9	22.0	15.5	12.8	13.0	9.0	8.3	16.5	1.0	100.0
지역											
서울	(554)	5.4	28.2	14.8	13.9	12.3	6.7	5.6	13.0	.2	100.0
부산	(209)	2.9	28.2	18.7	13.9	19.6	1.9	7.7	6.7	.5	100.0
대구	(131)	3.1	25.2	22.1	16.0	8.4	5.3	9.2	10.7	.0	100.0
인천	(127)	2.4	18.9	14.2	12.6	18.9	6.3	10.2	16.5	.0	100.0
광주	(68)	4.4	20.6	16.2	19.1	8.8	5.9	8.8	16.2	.0	100.0
대전	(67)	4.5	14.9	23.9	16.4	13.4	14.9	6.0	6.0	.0	100.0
울산	(54)	.0	27.8	20.4	11.1	14.8	7.4	5.6	11.1	1.9	100.0
경기	(446)	3.8	20.9	15.9	15.0	11.7	7.8	8.7	15.0	1.1	100.0
강원	(77)	6.5	7.8	9.1	16.9	14.3	11.7	15.6	15.6	2.6	100.0
충북	(61)	1.6	37.7	3.3	8.2	16.4	13.1	4.9	11.5	3.3	100.0
충남	(94)	4.3	18.1	17.0	17.0	16.0	10.6	6.4	9.6	1.1	100.0
전북	(93)	3.2	11.8	23.7	18.3	10.8	11.8	8.6	10.8	1.1	100.0
전남	(107)	3.7	14.0	20.6	14.0	28.0	1.9	7.5	6.5	3.7	100.0
경북	(121)	5.0	17.4	13.2	14.9	6.6	7.4	15.7	19.0	.8	100.0
경남	(158)	3.2	24.7	20.3	15.2	8.9	7.0	3.8	17.1	.0	100.0

문8. 귀하께서 직업선택과 직업전환을 위해 궁금하거나 필요로 하는 직업정보는 무엇입니까?
<3> 우선순위 가중종합

	사례수	진학·유학정보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	나의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에 관한 정보	자격증에 관한 정보	취업정보	산업 및 경제 정보	직업 훈련원·학원에 대한 정보	창업정보	기타	없음	무응답	계
전체	(2514)	7.9	23.9	27.9	9.1	10.6	4.4	5.4	8.8	1.1	.7	.1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8	25.4	26.9	9.2	10.6	5.2	5.4	10.3	1.3	.7	.2	100.0
비직업인	(799)	14.5	20.5	30.0	8.9	10.8	2.6	5.5	5.8	.7	.8	.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5	23.5	27.9	9.8	13.2	3.4	6.9	7.2	2.7	.8	.2	100.0
100~199만원	(768)	4.4	25.5	28.2	9.4	10.5	4.8	5.5	9.8	1.1	.6	.2	100.0
200~299만원	(327)	4.4	27.2	23.5	8.6	8.7	7.1	5.0	13.8	1.2	.4	.0	100.0
300~399만원	(96)	6.0	24.5	25.5	7.1	11.0	7.8	3.2	12.8	.7	.7	.7	100.0
400만원 이상	(60)	1.1	28.5	25.1	7.3	4.5	13.4	2.2	17.9	.0	.0	.0	100.0
무응답	(13)	13.5	21.6	24.3	8.1	5.4	2.7	5.4	8.1	.0	5.4	5.4	100.0
경제수준													
상	(44)	11.5	16.2	25.4	15.4	12.3	6.9	1.5	9.2	.0	1.5	.0	100.0
중상	(1054)	9.1	24.8	27.5	9.2	9.9	4.1	4.9	9.0	.9	.4	.2	100.0
중하	(1202)	7.1	23.7	29.0	8.8	10.9	4.6	5.5	8.4	1.1	.7	.1	100.0
하	(160)	4.1	18.7	25.1	8.8	13.7	4.7	8.8	12.0	2.8	1.3	.0	100.0
무응답	(54)	9.0	31.6	20.0	11.0	9.0	1.3	7.1	5.8	1.3	3.9	.0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5.5	22.7	31.9	9.8	9.2	2.7	4.1	3.3	.5	.1	.2	100.0
기혼	(1629)	3.7	24.5	25.7	8.7	11.4	5.4	6.2	11.9	1.4	1.0	.1	100.0
지역													
서울	(577)	7.7	25.4	31.1	8.6	8.8	4.5	4.3	8.3	.6	.5	.1	100.0
부산	(210)	10.5	26.2	26.6	5.2	18.0	1.0	5.7	6.7	.2	.0	.0	100.0
대구	(138)	4.4	28.3	27.8	9.1	10.6	4.2	4.9	9.3	.5	1.0	.0	100.0
인천	(134)	7.3	21.3	24.3	9.1	13.7	8.1	5.8	9.9	.0	.0	.5	100.0
광주	(71)	8.1	29.5	26.2	9.0	9.5	1.9	6.7	9.0	.0	.0	.0	100.0
대전	(72)	8.1	20.9	32.2	13.7	7.1	7.6	1.9	6.6	.9	.9	.0	100.0
울산	(54)	7.4	19.1	32.7	8.6	12.3	6.2	3.1	9.9	.6	.0	.0	100.0
경기	(485)	5.9	20.8	31.1	9.7	10.0	4.0	6.4	10.2	1.1	.3	.4	100.0
강원	(81)	8.8	20.9	22.2	8.8	16.3	4.6	9.2	5.9	.8	2.5	.0	100.0
충북	(75)	6.2	18.5	27.5	8.1	9.5	9.5	1.4	11.8	.9	6.6	.0	100.0
충남	(98)	7.6	25.2	26.9	8.3	8.6	4.1	7.6	7.9	3.8	.0	.0	100.0
전북	(104)	9.0	27.6	21.3	13.6	6.6	5.6	5.3	8.0	1.7	1.3	.0	100.0
전남	(109)	15.4	19.4	24.0	8.9	14.8	1.8	8.6	5.8	1.2	.0	.0	100.0
경북	(145)	6.8	16.3	24.8	11.2	8.8	7.1	8.5	10.0	4.1	2.4	.0	100.0
경남	(161)	10.2	33.1	21.7	9.2	8.8	2.3	2.1	11.0	1.7	.0	.0	100.0

문9. 귀하께서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고용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사례수	프리랜서	정규직	임시 계약직	개인사업	기타	계
전체	(2514)	24.7	37.4	2.4	35.2	.4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2.3	35.8	1.4	40.3	.2	100.0
비직업인	(799)	29.8	40.9	4.5	24.2	.6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1.0	44.3	2.7	31.7	.3	100.0
100~199만원	(768)	19.1	36.6	.8	43.4	.1	100.0
200~299만원	(327)	24.5	28.4	.9	45.9	.3	100.0
300~399만원	(96)	31.3	28.1	1.0	39.6	.0	100.0
400만원 이상	(60)	26.7	28.3	1.7	43.3	.0	100.0
무응답	(13)	15.4	38.5	.0	46.2	.0	100.0
경제수준							
상	(44)	29.5	34.1	2.3	34.1	.0	100.0
중상	(1054)	27.2	36.9	1.8	33.8	.3	100.0
중하	(1202)	23.3	38.1	2.7	35.5	.3	100.0
하	(160)	18.1	37.5	3.1	40.6	.6	100.0
무응답	(54)	20.4	35.2	3.7	38.9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29.9	42.6	1.9	25.4	.1	100.0
기혼	(1629)	21.8	34.6	2.6	40.5	.5	100.0
지역							
서울	(577)	30.0	36.6	1.6	31.4	.5	100.0
부산	(210)	19.5	41.0	.5	39.0	.0	100.0
대구	(138)	21.7	35.5	2.9	39.9	.0	100.0
인천	(134)	20.9	35.8	6.0	36.6	.7	100.0
광주	(71)	25.4	40.8	.0	33.8	.0	100.0
대전	(72)	37.5	38.9	1.4	22.2	.0	100.0
울산	(54)	16.7	44.4	1.9	37.0	.0	100.0
경기	(485)	28.2	36.9	4.1	30.1	.6	100.0
강원	(81)	21.0	39.5	2.5	35.8	1.2	100.0
충북	(75)	25.3	30.7	2.7	41.3	.0	100.0
충남	(98)	23.5	51.0	.0	25.5	.0	100.0
전북	(104)	22.1	31.7	5.8	39.4	1.0	100.0
전남	(109)	16.5	52.3	.9	30.3	.0	100.0
경북	(145)	17.2	24.8	1.4	56.6	.0	100.0
경남	(161)	19.9	34.8	1.9	43.5	.0	100.0

문10. 귀하는 학교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정규직 직장 취업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14)	21.5	78.3	.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4.7	75.1	.2	100.0
비직업인	(799)	14.5	85.2	.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8.1	71.6	.3	100.0
100~199만원	(768)	25.3	74.7	.0	100.0
200~299만원	(327)	20.2	79.5	.3	100.0
300~399만원	(96)	29.2	69.8	1.0	100.0
400만원 이상	(60)	30.0	70.0	.0	100.0
무응답	(13)	38.5	61.5	.0	100.0
경제수준					
상	(44)	20.5	79.5	.0	100.0
중상	(1054)	21.1	78.8	.1	100.0
중하	(1202)	22.7	77.1	.2	100.0
하	(160)	15.6	83.8	.6	100.0
무응답	(54)	20.4	77.8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21.6	78.4	.0	100.0
기혼	(1629)	21.4	78.3	.3	100.0
지역					
서울	(577)	23.2	76.4	.3	100.0
부산	(210)	24.3	75.7	.0	100.0
대구	(138)	10.9	89.1	.0	100.0
인천	(134)	31.3	68.7	.0	100.0
광주	(71)	18.3	81.7	.0	100.0
대전	(72)	12.5	87.5	.0	100.0
울산	(54)	14.8	85.2	.0	100.0
경기	(485)	26.0	73.4	.6	100.0
강원	(81)	22.2	77.8	.0	100.0
충북	(75)	13.3	86.7	.0	100.0
충남	(98)	29.6	70.4	.0	100.0
전북	(104)	16.3	83.7	.0	100.0
전남	(109)	7.3	92.7	.0	100.0
경북	(145)	13.1	86.9	.0	100.0
경남	(161)	25.5	74.5	.0	100.0

문10. 귀하는 학교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2) 과외지도 아르바이트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14)	14.0	85.7	.3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5.7	84.1	.2	100.0
비직업인	(799)	10.4	89.1	.5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0.2	89.2	.6	100.0
100~199만원	(768)	13.4	86.5	.1	100.0
200~299만원	(327)	18.7	81.0	.3	100.0
300~399만원	(96)	25.0	75.0	.0	100.0
400만원 이상	(60)	26.7	73.3	.0	100.0
무응답	(13)	15.4	84.6	.0	100.0
경제수준					
상	(44)	29.5	70.5	.0	100.0
중상	(1054)	17.2	82.6	.2	100.0
중하	(1202)	11.3	88.4	.3	100.0
하	(160)	8.8	90.6	.6	100.0
무응답	(54)	14.8	83.3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7.2	82.7	.1	100.0
기혼	(1629)	12.3	87.3	.4	100.0
지역					
서울	(577)	19.8	79.7	.5	100.0
부산	(210)	9.0	91.0	.0	100.0
대구	(138)	10.1	89.9	.0	100.0
인천	(134)	19.4	79.9	.7	100.0
광주	(71)	9.9	90.1	.0	100.0
대전	(72)	6.9	93.1	.0	100.0
울산	(54)	9.3	90.7	.0	100.0
경기	(485)	19.0	80.2	.8	100.0
강원	(81)	8.6	91.4	.0	100.0
충북	(75)	6.7	93.3	.0	100.0
충남	(98)	12.2	87.8	.0	100.0
전북	(104)	12.5	87.5	.0	100.0
전남	(109)	2.8	97.2	.0	100.0
경북	(145)	9.7	90.3	.0	100.0
경남	(161)	9.9	90.1	.0	100.0

문10. 귀하는 학교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3) 과외지도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14)	31.7	68.0	.3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3.6	66.1	.3	100.0
비직업인	(799)	27.7	72.0	.4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33.5	66.2	.3	100.0
100~199만원	(768)	29.8	70.1	.1	100.0
200~299만원	(327)	31.2	68.5	.3	100.0
300~399만원	(96)	39.6	59.4	1.0	100.0
400만원 이상	(60)	48.3	51.7	.0	100.0
무응답	(13)	46.2	53.8	.0	100.0
경제수준					
상	(44)	18.2	81.8	.0	100.0
중상	(1054)	33.0	66.7	.3	100.0
중하	(1202)	32.3	67.5	.2	100.0
하	(160)	23.8	75.6	.6	100.0
무응답	(54)	27.8	70.4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45.3	54.7	.0	100.0
기혼	(1629)	24.3	75.2	.5	100.0
지역					
서울	(577)	39.0	60.3	.7	100.0
부산	(210)	23.3	76.7	.0	100.0
대구	(138)	31.2	68.8	.0	100.0
인천	(134)	38.1	61.9	.0	100.0
광주	(71)	25.4	74.6	.0	100.0
대전	(72)	26.4	73.6	.0	100.0
울산	(54)	11.1	88.9	.0	100.0
경기	(485)	40.4	58.8	.8	100.0
강원	(81)	29.6	70.4	.0	100.0
충북	(75)	20.0	80.0	.0	100.0
충남	(98)	27.6	72.4	.0	100.0
전북	(104)	21.2	78.8	.0	100.0
전남	(109)	28.4	71.6	.0	100.0
경북	(145)	26.9	73.1	.0	100.0
경남	(161)	19.9	80.1	.0	100.0

문10. 귀하는 학교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4) 현장실습(교생실습)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14)	19.4	80.2	.4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3.3	76.3	.4	100.0
비직업인	(799)	11.0	88.6	.4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9.8	79.3	.9	100.0
100~199만원	(768)	24.0	75.9	.1	100.0
200~299만원	(327)	25.4	74.3	.3	100.0
300~399만원	(96)	32.3	66.7	1.0	100.0
400만원 이상	(60)	25.0	75.0	.0	100.0
무응답	(13)	30.8	69.2	.0	100.0
경제수준					
상	(44)	18.2	81.8	.0	100.0
중상	(1054)	20.4	79.2	.4	100.0
중하	(1202)	19.0	80.6	.4	100.0
하	(160)	13.8	86.3	.0	100.0
무응답	(54)	25.9	72.2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9.0	80.9	.1	100.0
기혼	(1629)	19.6	79.9	.6	100.0
지역					
서울	(577)	22.5	76.8	.7	100.0
부산	(210)	24.8	75.2	.0	100.0
대구	(138)	21.7	78.3	.0	100.0
인천	(134)	18.7	80.6	.7	100.0
광주	(71)	14.1	85.9	.0	100.0
대전	(72)	15.3	84.7	.0	100.0
울산	(54)	14.8	85.2	.0	100.0
경기	(485)	19.2	79.8	1.0	100.0
강원	(81)	16.0	84.0	.0	100.0
충북	(75)	16.0	84.0	.0	100.0
충남	(98)	19.4	80.6	.0	100.0
전북	(104)	19.2	80.8	.0	100.0
전남	(109)	13.8	86.2	.0	100.0
경북	(145)	22.1	77.9	.0	100.0
경남	(161)	10.6	89.4	.0	100.0

문10. 귀하는 학교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5) 보수 없는 직업체험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14)	17.6	82.0	.4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9.8	79.8	.4	100.0
비직업인	(799)	12.9	86.6	.5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6.2	82.9	.9	100.0
100~199만원	(768)	19.8	80.2	.0	100.0
200~299만원	(327)	18.3	81.0	.6	100.0
300~399만원	(96)	33.3	65.6	1.0	100.0
400만원 이상	(60)	23.3	76.7	.0	100.0
무응답	(13)	.0	100.0	.0	100.0
경제수준					
상	(44)	27.3	72.7	.0	100.0
중상	(1054)	17.7	81.8	.5	100.0
중하	(1202)	17.3	82.4	.3	100.0
하	(160)	11.9	87.5	.6	100.0
무응답	(54)	29.6	68.5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9.8	80.2	.0	100.0
기혼	(1629)	16.4	82.9	.7	100.0
지역					
서울	(577)	23.1	76.4	.5	100.0
부산	(210)	10.5	89.5	.0	100.0
대구	(138)	15.2	84.8	.0	100.0
인천	(134)	18.7	80.6	.7	100.0
광주	(71)	12.7	87.3	.0	100.0
대전	(72)	20.8	79.2	.0	100.0
울산	(54)	11.1	88.9	.0	100.0
경기	(485)	21.4	77.1	1.4	100.0
강원	(81)	18.5	81.5	.0	100.0
충북	(75)	29.3	70.7	.0	100.0
충남	(98)	12.2	87.8	.0	100.0
전북	(104)	14.4	85.6	.0	100.0
전남	(109)	7.3	92.7	.0	100.0
경북	(145)	15.2	84.8	.0	100.0
경남	(161)	8.1	91.9	.0	100.0

문11. 【학생은 제외】 만약 귀하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적성, 흥미 등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음

	사례수	전혀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음	매우 하고싶음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하고싶지 않음	하고 싶음	무응답		
전체	(2099)	.6	4.4	58.3	36.5	.2	5.0	94.8	.2	100.0	3.3
직업형태											
직업인	(1651)	.6	4.3	57.7	37.1	.2	4.9	94.9	.2	100.0	3.3
비직업인	(448)	.4	4.9	60.5	34.2	.0	5.4	94.6	.0	100.0	3.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	6.3	53.0	38.9	.6	7.5	91.9	.6	100.0	3.3
100~199만원	(768)	.0	4.0	61.3	34.4	.3	4.0	95.7	.3	100.0	3.3
200~299만원	(327)	.9	4.0	57.2	37.9	.0	4.9	95.1	.0	100.0	3.3
300~399만원	(96)	2.1	2.1	54.2	41.7	.0	4.2	95.8	.0	100.0	3.4
400만원 이상	(60)	.0	1.7	53.3	45.0	.0	1.7	98.3	.0	100.0	3.4
무응답	(13)	7.7	.0	53.8	38.5	.0	7.7	92.3	.0	100.0	3.2
경제수준											
상	(36)	.0	.0	66.7	33.3	.0	.0	100.0	.0	100.0	3.3
중상	(842)	.7	5.1	57.7	36.3	.1	5.8	94.1	.1	100.0	3.3
중하	(1034)	.6	3.4	57.6	38.2	.2	4.0	95.8	.2	100.0	3.3
하	(144)	.0	8.3	62.5	28.5	.7	8.3	91.0	.7	100.0	3.2
무응답	(43)	.0	7.0	65.1	27.9	.0	7.0	93.0	.0	100.0	3.2
혼인상태											
미혼	(475)	.4	4.6	52.0	42.3	.6	5.1	94.3	.6	100.0	3.4
기혼	(1624)	.6	4.4	60.2	34.8	.1	5.0	95.0	.1	100.0	3.3
지역											
서울	(468)	.4	3.2	60.0	36.3	.0	3.6	96.4	.0	100.0	3.3
부산	(172)	.0	4.7	51.7	43.6	.0	4.7	95.3	.0	100.0	3.4
대구	(114)	.0	1.8	60.5	37.7	.0	1.8	98.2	.0	100.0	3.4
인천	(111)	1.8	6.3	63.1	27.0	1.8	8.1	90.1	1.8	100.0	3.2
광주	(61)	.0	1.6	60.7	36.1	1.6	1.6	96.7	1.6	100.0	3.4
대전	(61)	.0	3.3	55.7	41.0	.0	3.3	96.7	.0	100.0	3.4
울산	(45)	2.2	.0	44.4	53.3	.0	2.2	97.8	.0	100.0	3.5
경기	(411)	1.2	3.6	53.0	42.1	.0	4.9	95.1	.0	100.0	3.4
강원	(70)	2.9	12.9	57.1	27.1	.0	15.7	84.3	.0	100.0	3.1
충북	(64)	.0	1.6	54.7	43.8	.0	1.6	98.4	.0	100.0	3.4
충남	(84)	.0	7.1	64.3	28.6	.0	7.1	92.9	.0	100.0	3.2
전북	(92)	.0	5.4	50.0	44.6	.0	5.4	94.6	.0	100.0	3.4
전남	(91)	.0	8.8	73.6	17.6	.0	8.8	91.2	.0	100.0	3.1
경북	(126)	.0	7.9	57.1	34.1	.8	7.9	91.3	.8	100.0	3.3
경남	(129)	.0	3.1	71.3	25.6	.0	3.1	96.9	.0	100.0	3.2

문11. 【학생은 제외】 만약 귀하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 진로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음

	사례수	전혀하고 싫지않음	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음	매우 하고싶음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하고싶지 않음	하고 싶음	무응답		
전체	(2099)	.3	6.1	58.6	34.7	.2	6.4	93.3	.2	100.0	3.3
직업형태											
직업인	(1651)	.4	6.5	58.0	34.9	.2	6.8	92.9	.2	100.0	3.3
비직업인	(448)	.0	4.9	60.9	33.9	.2	4.9	94.9	.2	100.0	3.3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	6.6	58.4	33.2	.6	7.8	91.6	.6	100.0	3.2
100~199만원	(768)	.0	6.6	58.2	34.9	.3	6.6	93.1	.3	100.0	3.3
200~299만원	(327)	.6	5.2	60.6	33.6	.0	5.8	94.2	.0	100.0	3.3
300~399만원	(96)	.0	6.3	50.0	43.8	.0	6.3	93.8	.0	100.0	3.4
400만원 이상	(60)	.0	8.3	56.7	35.0	.0	8.3	91.7	.0	100.0	3.3
무응답	(13)	.0	15.4	46.2	38.5	.0	15.4	84.6	.0	100.0	3.2
경제수준											
상	(36)	.0	8.3	75.0	16.7	.0	8.3	91.7	.0	100.0	3.1
중상	(842)	.2	6.5	59.5	33.5	.2	6.8	93.0	.2	100.0	3.3
중하	(1034)	.4	5.3	55.8	38.3	.2	5.7	94.1	.2	100.0	3.3
하	(144)	.0	9.7	66.7	22.9	.7	9.7	89.6	.7	100.0	3.1
무응답	(43)	.0	4.7	69.8	25.6	.0	4.7	95.3	.0	100.0	3.2
혼인상태											
미혼	(475)	.2	5.7	55.4	38.1	.6	5.9	93.5	.6	100.0	3.3
기혼	(1624)	.3	6.3	59.6	33.7	.1	6.6	93.3	.1	100.0	3.3
지역											
서울	(468)	.2	4.7	65.2	29.9	.0	4.9	95.1	.0	100.0	3.2
부산	(172)	.0	8.1	50.6	41.3	.0	8.1	91.9	.0	100.0	3.3
대구	(114)	.0	7.0	52.6	40.4	.0	7.0	93.0	.0	100.0	3.3
인천	(111)	.0	11.7	59.5	27.0	1.8	11.7	86.5	1.8	100.0	3.2
광주	(61)	.0	1.6	59.0	37.7	1.6	1.6	96.7	1.6	100.0	3.4
대전	(61)	.0	6.6	65.6	27.9	.0	6.6	93.4	.0	100.0	3.2
울산	(45)	.0	2.2	42.2	55.6	.0	2.2	97.8	.0	100.0	3.5
경기	(411)	.7	2.9	53.8	42.3	.2	3.6	96.1	.2	100.0	3.4
강원	(70)	1.4	15.7	57.1	25.7	.0	17.1	82.9	.0	100.0	3.1
충북	(64)	.0	3.1	59.4	37.5	.0	3.1	96.9	.0	100.0	3.3
충남	(84)	.0	8.3	63.1	28.6	.0	8.3	91.7	.0	100.0	3.2
전북	(92)	.0	5.4	44.6	50.0	.0	5.4	94.6	.0	100.0	3.4
전남	(91)	.0	9.9	74.7	15.4	.0	9.9	90.1	.0	100.0	3.1
경북	(126)	.0	4.0	65.9	29.4	.8	4.0	95.2	.8	100.0	3.3
경남	(129)	.8	11.6	57.4	30.2	.0	12.4	87.6	.0	100.0	3.2

문11. 【학생은 제외】 만약 귀하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진로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방법을 기르고 싶음

	사례수	전혀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음	매우 하고싶음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하고싶지 않음	하고 싶음	무응답		
전체	(2099)	.6	9.8	59.4	29.9	.3	10.4	89.3	.3	100.0	3.2
직업형태											
직업인	(1651)	.7	9.8	59.1	30.2	.3	10.5	89.2	.3	100.0	3.2
비직업인	(448)	.2	9.8	60.7	29.0	.2	10.0	89.7	.2	100.0	3.2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5	9.9	59.0	29.0	.6	11.4	88.0	.6	100.0	3.2
100~199만원	(768)	.3	10.7	59.4	29.4	.3	10.9	88.8	.3	100.0	3.2
200~299만원	(327)	1.2	8.6	56.9	33.0	.3	9.8	89.9	.3	100.0	3.2
300~399만원	(96)	.0	5.2	61.5	33.3	.0	5.2	94.8	.0	100.0	3.3
400만원 이상	(60)	1.7	10.0	58.3	30.0	.0	11.7	88.3	.0	100.0	3.2
무응답	(13)	.0	7.7	46.2	46.2	.0	7.7	92.3	.0	100.0	3.4
경제수준											
상	(36)	2.8	8.3	61.1	27.8	.0	11.1	88.9	.0	100.0	3.1
중상	(842)	.5	8.3	61.9	29.1	.2	8.8	91.0	.2	100.0	3.2
중하	(1034)	.6	10.0	56.9	32.3	.3	10.5	89.2	.3	100.0	3.2
하	(144)	.7	16.0	62.5	20.1	.7	16.7	82.6	.7	100.0	3.0
무응답	(43)	2.3	14.0	60.5	23.3	.0	16.3	83.7	.0	100.0	3.0
혼인상태											
미혼	(475)	1.3	8.6	58.9	30.5	.6	9.9	89.5	.6	100.0	3.2
기혼	(1624)	.4	10.1	59.5	29.7	.2	10.5	89.3	.2	100.0	3.2
지역											
서울	(468)	.9	8.1	64.7	26.3	.0	9.0	91.0	.0	100.0	3.2
부산	(172)	.6	13.4	45.3	40.7	.0	14.0	86.0	.0	100.0	3.3
대구	(114)	.0	13.2	46.5	40.4	.0	13.2	86.8	.0	100.0	3.3
인천	(111)	.0	14.4	60.4	23.4	1.8	14.4	83.8	1.8	100.0	3.1
광주	(61)	.0	4.9	62.3	31.1	1.6	4.9	93.4	1.6	100.0	3.3
대전	(61)	1.6	13.1	70.5	14.8	.0	14.8	85.2	.0	100.0	3.0
울산	(45)	.0	.0	60.0	40.0	.0	.0	100.0	.0	100.0	3.4
경기	(411)	1.2	5.8	54.0	38.4	.5	7.1	92.5	.5	100.0	3.3
강원	(70)	2.9	21.4	54.3	21.4	.0	24.3	75.7	.0	100.0	2.9
충북	(64)	.0	9.4	64.1	26.6	.0	9.4	90.6	.0	100.0	3.2
충남	(84)	.0	10.7	70.2	19.0	.0	10.7	89.3	.0	100.0	3.1
전북	(92)	.0	8.7	56.5	34.8	.0	8.7	91.3	.0	100.0	3.3
전남	(91)	.0	18.7	67.0	14.3	.0	18.7	81.3	.0	100.0	3.0
경북	(126)	.0	12.7	56.3	30.2	.8	12.7	86.5	.8	100.0	3.2
경남	(129)	.0	5.4	72.9	21.7	.0	5.4	94.6	.0	100.0	3.2

문11. 【학생은 제외】 만약 귀하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4)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음

	사례수	전혀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음	매우 하고싶음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하고싶지 않음	하고 싶음	무응답		
전체	(2099)	1.0	8.5	41.1	49.2	.2	9.5	90.2	.2	100.0	3.4
직업형태											
직업인	(1651)	1.1	9.1	41.3	48.2	.2	10.2	89.5	.2	100.0	3.4
비직업인	(448)	.7	6.3	40.2	52.7	.2	6.9	92.9	.2	100.0	3.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5	10.2	40.7	47.0	.6	11.7	87.7	.6	100.0	3.3
100~199만원	(768)	.8	10.0	41.8	47.1	.3	10.8	88.9	.3	100.0	3.4
200~299만원	(327)	1.5	7.3	41.3	49.8	.0	8.9	91.1	.0	100.0	3.4
300~399만원	(96)	1.0	7.3	43.8	47.9	.0	8.3	91.7	.0	100.0	3.4
400만원 이상	(60)	1.7	6.7	45.0	46.7	.0	8.3	91.7	.0	100.0	3.4
무응답	(13)	.0	7.7	15.4	76.9	.0	7.7	92.3	.0	100.0	3.7
경제수준											
상	(36)	2.8	16.7	30.6	50.0	.0	19.4	80.6	.0	100.0	3.3
중상	(842)	.4	7.1	43.5	48.8	.2	7.5	92.3	.2	100.0	3.4
중하	(1034)	1.5	8.4	39.5	50.5	.2	9.9	89.9	.2	100.0	3.4
하	(144)	.7	16.0	40.3	42.4	.7	16.7	82.6	.7	100.0	3.3
무응답	(43)	2.3	7.0	44.2	46.5	.0	9.3	90.7	.0	100.0	3.3
혼인상태											
미혼	(475)	1.9	12.0	41.9	43.6	.6	13.9	85.5	.6	100.0	3.3
기혼	(1624)	.7	7.5	40.8	50.8	.1	8.3	91.6	.1	100.0	3.4
지역											
서울	(468)	1.1	6.4	43.8	48.7	.0	7.5	92.5	.0	100.0	3.4
부산	(172)	1.7	5.2	43.0	50.0	.0	7.0	93.0	.0	100.0	3.4
대구	(114)	.9	7.0	36.0	56.1	.0	7.9	92.1	.0	100.0	3.5
인천	(111)	.9	11.7	44.1	41.4	1.8	12.6	85.6	1.8	100.0	3.3
광주	(61)	.0	3.3	45.9	49.2	1.6	3.3	95.1	1.6	100.0	3.5
대전	(61)	.0	11.5	34.4	54.1	.0	11.5	88.5	.0	100.0	3.4
울산	(45)	.0	2.2	31.1	66.7	.0	2.2	97.8	.0	100.0	3.6
경기	(411)	1.2	9.0	42.3	47.2	.2	10.2	89.5	.2	100.0	3.4
강원	(70)	1.4	22.9	35.7	40.0	.0	24.3	75.7	.0	100.0	3.1
충북	(64)	.0	6.3	32.8	60.9	.0	6.3	93.8	.0	100.0	3.5
충남	(84)	.0	8.3	51.2	40.5	.0	8.3	91.7	.0	100.0	3.3
전북	(92)	2.2	14.1	25.0	58.7	.0	16.3	83.7	.0	100.0	3.4
전남	(91)	.0	16.5	42.9	40.7	.0	16.5	83.5	.0	100.0	3.2
경북	(126)	2.4	11.1	24.6	61.1	.8	13.5	85.7	.8	100.0	3.5
경남	(129)	.0	2.3	57.4	40.3	.0	2.3	97.7	.0	100.0	3.4

문11. 【학생은 제외】 만약 귀하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장래 직업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5)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을 받아보고 싶음

	사례수	전혀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지않음	하고 싶음	매우 하고싶음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하고싶지 않음	하고 싶음	무응답		
전체	(2099)	1.0	11.8	56.0	31.0	.2	12.8	87.0	.2	100.0	3.2
직업형태											
직업인	(1651)	1.2	12.1	55.7	30.8	.2	13.2	86.6	.2	100.0	3.2
비직업인	(448)	.4	10.7	57.1	31.5	.2	11.2	88.6	.2	100.0	3.2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8	11.1	53.0	33.5	.6	12.9	86.5	.6	100.0	3.2
100~199만원	(768)	.7	13.2	56.0	29.9	.3	13.8	85.9	.3	100.0	3.2
200~299만원	(327)	1.2	10.1	57.8	30.9	.0	11.3	88.7	.0	100.0	3.2
300~399만원	(96)	2.1	7.3	61.5	29.2	.0	9.4	90.6	.0	100.0	3.2
400만원 이상	(60)	3.3	18.3	55.0	23.3	.0	21.7	78.3	.0	100.0	3.0
무응답	(13)	.0	15.4	46.2	38.5	.0	15.4	84.6	.0	100.0	3.2
경제수준											
상	(36)	.0	22.2	52.8	25.0	.0	22.2	77.8	.0	100.0	3.0
중상	(842)	.6	12.7	56.3	30.2	.2	13.3	86.5	.2	100.0	3.2
중하	(1034)	1.5	10.3	55.6	32.5	.2	11.7	88.1	.2	100.0	3.2
하	(144)	.7	16.7	53.5	28.5	.7	17.4	81.9	.7	100.0	3.1
무응답	(43)	.0	4.7	72.1	23.3	.0	4.7	95.3	.0	100.0	3.2
혼인상태											
미혼	(475)	1.7	12.4	53.1	32.2	.6	14.1	85.3	.6	100.0	3.2
기혼	(1624)	.8	11.6	56.9	30.6	.1	12.4	87.5	.1	100.0	3.2
지역											
서울	(468)	1.3	12.6	56.6	29.5	.0	13.9	86.1	.0	100.0	3.1
부산	(172)	1.2	12.8	46.5	39.5	.0	14.0	86.0	.0	100.0	3.2
대구	(114)	.9	11.4	48.2	39.5	.0	12.3	87.7	.0	100.0	3.3
인천	(111)	1.8	16.2	50.5	29.7	1.8	18.0	80.2	1.8	100.0	3.1
광주	(61)	.0	3.3	67.2	27.9	1.6	3.3	95.1	1.6	100.0	3.3
대전	(61)	1.6	9.8	72.1	16.4	.0	11.5	88.5	.0	100.0	3.0
울산	(45)	.0	2.2	37.8	60.0	.0	2.2	97.8	.0	100.0	3.6
경기	(411)	1.2	9.7	54.7	34.1	.2	10.9	88.8	.2	100.0	3.2
강원	(70)	1.4	28.6	47.1	22.9	.0	30.0	70.0	.0	100.0	2.9
충북	(64)	.0	15.6	53.1	31.3	.0	15.6	84.4	.0	100.0	3.2
충남	(84)	.0	8.3	71.4	20.2	.0	8.3	91.7	.0	100.0	3.1
전북	(92)	.0	14.1	43.5	42.4	.0	14.1	85.9	.0	100.0	3.3
전남	(91)	.0	14.3	74.7	11.0	.0	14.3	85.7	.0	100.0	3.0
경북	(126)	.8	13.5	50.0	34.9	.8	14.3	84.9	.8	100.0	3.2
경남	(129)	1.6	4.7	73.6	20.2	.0	6.2	93.8	.0	100.0	3.1

문12. 다음 빈칸에 구체적인 직업명을 한가지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청소년시기에 부모가 바라던 직업

	사례수	
전체	(2514)	100.0
관료 법조계	(640)	25.5
공무원	(476)	18.9
경찰	(39)	1.6
변호사	(35)	1.4
판사	(26)	1.0
법조인	(15)	.6
검사	(10)	.4
대통령	(9)	.4
정치인	(9)	.4
외교관	(8)	.3
법무사	(8)	.3
국회의원	(4)	.2
장관	(1)	.0
경영 사무계	(130)	5.2
은행원	(57)	2.3
사업가	(38)	1.5
자영업	(21)	.8
무역업	(5)	.2
경영인	(4)	.2
호텔지배인	(2)	.1
마케팅	(1)	.0
금융업	(1)	.0
C.E.O.	(1)	.0
종교 봉사계	(14)	.6
목사	(5)	.2
선교사	(3)	.1
종교인	(3)	.1
신부	(2)	.1
사회사업가	(1)	.0
전문서비스계	(23)	.9
관광가이드	(4)	.2
회계사	(4)	.2
스튜어디스	(3)	.1
판매사	(3)	.1
서비스업	(3)	.1
유통업	(3)	.1
통역가	(2)	.1
경호경비요원	(1)	.0
언론 방송계	(9)	.4
아나운서	(3)	.1
방송PD	(2)	.1
방송인	(2)	.1
신문기자	(1)	.0
영상제작	(1)	.0
교육계	(690)	27.4
중등학교교사	(601)	23.9
대학교수	(50)	2.0
초등학교교사	(26)	1.0
유치원교사	(8)	.3
강사	(2)	.1
보육교사	(1)	.0
특수학교교사	(1)	.0
교육사업가	(1)	.0

	사례수	
전체	(2514)	100.0
과학 ·연구계	(17)	.7
학자, 연구원	(7)	.3
과학자	(5)	.2
생명공학자	(1)	.0
생물학자	(1)	.0
신학자	(1)	.0
사회학자	(1)	.0
화학자	(1)	.0
미용 ·디자인 ·요리계	(56)	2.2
미용사	(20)	.8
디자이너	(16)	.6
패션디자이너	(5)	.2
요리사	(5)	.2
산업디자이너	(2)	.1
의류관련직업	(2)	.1
건축디자이너	(1)	.0
코디네이터	(1)	.0
일러스트레이터	(1)	.0
귀금속디자이너	(1)	.0
화장품관련업	(1)	.0
섬유디자이너	(1)	.0
의료계	(307)	12.2
의사	(166)	6.6
간호사	(104)	4.1
약사	(21)	.8
한의사	(9)	.4
치과의사	(3)	.1
수의사	(2)	.1
임상병리사	(1)	.0
치위생사	(1)	.0
기술계	(74)	2.9
기술자	(35)	1.4
전문직	(11)	.4
건축설계사	(5)	.2
토목기술자	(4)	.2
엔지니어	(3)	.1
자동차관련직종	(3)	.1
제조업	(3)	.1
항공기조종사	(2)	.1
건축	(2)	.1
기계정비	(2)	.1
선장, 기관장	(1)	.0
항공기정비사	(1)	.0
항해사	(1)	.0
전기관련직종	(1)	.0
컴퓨터 관련직업	(9)	.4
컴퓨터프로그래머	(4)	.2
컴퓨터관련직업	(2)	.1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2)	.1
인터넷관련직업	(1)	.0
기능계	(14)	.6
기능원	(7)	.3
안경사	(2)	.1
운전기사	(2)	.1
재단사, 미싱사	(1)	.0
생산직	(1)	.0
운수업	(1)	.0

	사례수	
전체	(2514)	100.0
농림어업계	(25)	1.0
농부	(22)	.9
축산업	(2)	.1
어부	(1)	.0
연예계	(5)	.2
연예인	(3)	.1
연극배우	(1)	.0
연기자	(1)	.0
음악·미술계	(8)	.3
화가	(4)	.2
피아니스트	(2)	.1
음악인	(1)	.0
예술가	(1)	.0
스포츠계	(19)	.8
직업운동선수	(19)	.8
기타	(318)	12.6
주부	(88)	3.5
회사원	(85)	3.4
사무직	(58)	2.3
직업군인	(45)	1.8
미정	(25)	1.0
경리	(9)	.4
여군	(7)	.3
여행가	(1)	.0
없음/무응답	(156)	6.2
없음	(156)	6.2

문12. 다음 빈칸에 구체적인 직업명을 한가지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2)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

	사례수	
전체	(2514)	100.0
관료 법조계	(442)	17.6
공무원	(356)	14.2
변호사	(28)	1.1
경찰	(20)	.8
검사	(11)	.4
판사	(7)	.3
정치인	(7)	.3
법조인	(4)	.2
대통령	(3)	.1
외교관	(3)	.1
형사	(2)	.1
법무사	(1)	.0
경영 사무계	(524)	20.8
자영업	(293)	11.7
사업가	(149)	5.9
무역업	(13)	.5
은행원	(12)	.5
경영인	(11)	.4
펀드매니저	(9)	.4
벤처사업가	(7)	.3
네트워크사업가	(5)	.2
투자가	(4)	.2
호텔지배인	(4)	.2
금융업	(4)	.2
컨설턴트	(3)	.1
관리사	(3)	.1
세무사	(2)	.1
마케팅	(1)	.0
외환딜러	(1)	.0
C.E.O.	(1)	.0
경제관련직	(1)	.0
노무사	(1)	.0
종교 봉사계	(17)	.7
사회복지사	(5)	.2
사회사업가	(5)	.2
종교인	(4)	.2
성직자	(1)	.0
선교사	(1)	.0
스님	(1)	.0
전문서비스계	(141)	5.6
서비스업	(26)	1.0
유통업	(22)	.9
회계사	(16)	.6
판매사	(15)	.6
부동산중개업	(14)	.6
관광가이드	(13)	.5
통역가	(7)	.3
번역가	(6)	.2
보험설계사	(6)	.2
스튜어디스	(5)	.2
경호경비요원	(3)	.1
상담원	(3)	.1
상담심리사	(2)	.1
이벤트사업	(1)	.0
레크리에이션 강사	(1)	.0
속기사	(1)	.0

	사례수	
전체	(2514)	100.0
문학계	(19)	.8
작가	(10)	.4
소설가	(6)	.2
시인	(2)	.1
자유기고가	(1)	.0
언론 방송계	(35)	1.4
방송PD	(7)	.3
신문기자	(7)	.3
아나운서	(6)	.2
방송인	(4)	.2
광고감독	(3)	.1
영상제작	(2)	.1
카피라이터	(2)	.1
스크립터	(1)	.0
리포터	(1)	.0
방송기자	(1)	.0
방송엔지니어	(1)	.0
교육계	(462)	18.4
중등학교교사	(368)	14.6
대학교수	(47)	1.9
초등학교교사	(21)	.8
유치원교사	(14)	.6
교육사업가	(5)	.2
강사	(4)	.2
특수학교교사	(2)	.1
보육교사	(1)	.0
과학 연구계	(22)	.9
학자, 연구원	(12)	.5
과학자	(4)	.2
고고학자	(1)	.0
공학박사	(1)	.0
생명공학자	(1)	.0
역사학자	(1)	.0
수학자	(1)	.0
화학자	(1)	.0
미용 디자인 요리계	(127)	5.1
디자이너	(28)	1.1
미용사	(27)	1.1
건축디자이너	(20)	.8
패션디자이너	(15)	.6
요리사	(14)	.6
메이크업아티스트	(3)	.1
코디네이터	(3)	.1
케릭터디자이너	(3)	.1
의류관련직업	(3)	.1
광고디자이너	(2)	.1
산업디자이너	(2)	.1
귀금속디자이너	(2)	.1
영양사	(1)	.0
스타일리스트	(1)	.0
일러스트레이터	(1)	.0
가구디자이너	(1)	.0
피부관리, 피부미용	(1)	.0

	사례수	
전체	(2514)	100.0
의료계	(184)	7.3
의사	(108)	4.3
간호사	(35)	1.4
한의사	(18)	.7
약사	(9)	.4
치과의사	(8)	.3
수의사	(3)	.1
심리치료	(2)	.1
의료계통직업	(1)	.0
기술계	(137)	5.4
전문직	(39)	1.6
기술자	(28)	1.1
건축설계사	(22)	.9
건축	(13)	.5
제조업	(10)	.4
토목기술자	(5)	.2
엔지니어	(4)	.2
기계정비	(4)	.2
전기관련직종	(3)	.1
항공기조종사	(2)	.1
공학계역직종	(2)	.1
선장, 기관장	(1)	.0
항공기정비사	(1)	.0
자동차관련직종	(1)	.0
항공관련직종	(1)	.0
전자관련직종	(1)	.0
컴퓨터 관련직업	(71)	2.8
컴퓨터프로그래머	(32)	1.3
컴퓨터관련직업	(20)	.8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5)	.2
정보통신분야	(4)	.2
인터넷관련직업	(3)	.1
프로게이머	(2)	.1
웹디자이너	(2)	.1
애니메이터	(1)	.0
해커	(1)	.0
전산관련직업	(1)	.0
기능계	(27)	1.1
운수업	(8)	.3
제과제빵사	(4)	.2
안경사	(4)	.2
운전기사	(3)	.1
기능원	(3)	.1
자동차정비기사	(1)	.0
제단사, 미싱사	(1)	.0
중장비기사	(1)	.0
환경미화원	(1)	.0
노동자	(1)	.0
농림어업계	(18)	.7
농부	(12)	.5
축산업	(5)	.2
어부	(1)	.0

	사례수	
전체	(2514)	100.0
연예계	(28)	1.1
연예인	(13)	.5
가수	(7)	.3
연기자	(3)	.1
영화감독	(2)	.1
백댄서	(1)	.0
연극배우	(1)	.0
영화관련직업	(1)	.0
음악·미술계	(34)	1.4
화가	(10)	.4
만화가	(4)	.2
공예가	(4)	.2
음악인	(3)	.1
성악가	(3)	.1
사진작가	(3)	.1
예술가	(2)	.1
작곡가	(1)	.0
미술관련직업	(1)	.0
피아노강사	(1)	.0
화랑관리인	(1)	.0
피아노조율사	(1)	.0
스포츠계	(30)	1.2
직업운동선수	(26)	1.0
체육관	(1)	.0
카레이서	(1)	.0
스포츠관련직종	(1)	.0
스포츠마사지	(1)	.0
기타	(166)	6.6
프리랜서	(40)	1.6
회사원	(32)	1.3
사무직	(30)	1.2
주부	(28)	1.1
직업군인	(15)	.6
미정	(14)	.6
경리	(3)	.1
여군	(2)	.1
간호장교	(1)	.0
기타	(1)	.0
없음/무응답	(30)	1.2
없음	(30)	1.2

문13. 귀하는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514)	53.8	46.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7.3	42.7	100.0
비직업인	(799)	46.3	53.7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59.3	40.7	100.0
100~199만원	(768)	55.5	44.5	100.0
200~299만원	(327)	59.3	40.7	100.0
300~399만원	(96)	65.6	34.4	100.0
400만원 이상	(60)	61.7	38.3	100.0
무응답	(13)	46.2	53.8	100.0
경제수준				
상	(44)	61.4	38.6	100.0
중상	(1054)	52.1	47.9	100.0
중하	(1202)	55.5	44.5	100.0
하	(160)	50.6	49.4	100.0
무응답	(54)	53.7	46.3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60.6	39.4	100.0
기혼	(1629)	50.2	49.8	100.0
지역				
서울	(577)	59.3	40.7	100.0
부산	(210)	47.1	52.9	100.0
대구	(138)	31.2	68.8	100.0
인천	(134)	61.9	38.1	100.0
광주	(71)	60.6	39.4	100.0
대전	(72)	58.3	41.7	100.0
울산	(54)	35.2	64.8	100.0
경기	(485)	65.2	34.8	100.0
강원	(81)	56.8	43.2	100.0
충북	(75)	54.7	45.3	100.0
충남	(98)	35.7	64.3	100.0
전북	(104)	45.2	54.8	100.0
전남	(109)	56.9	43.1	100.0
경북	(145)	51.0	49.0	100.0
경남	(161)	37.9	62.1	100.0

문14. 귀하는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1> 1순위

	사례수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직장내 상담 전문가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신문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잘모름	계
전체	(2514)	14.0	43.4	1.2	1.8	8.4	2.8	.5	.8	5.3	2.0	4.9	12.2	2.8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3.2	46.9	1.5	2.1	5.1	2.4	.6	.6	6.9	2.5	4.4	11.0	2.6	100.0
비직업인	(799)	15.6	35.7	.6	1.1	15.5	3.6	.4	1.0	1.9	1.0	5.8	14.6	3.1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3.2	47.6	.9	3.3	3.6	1.8	.3	.6	4.2	3.3	4.5	11.4	5.4	100.0
100~199만원	(768)	12.6	49.0	2.0	1.8	5.1	2.0	.8	.4	8.3	1.8	5.1	9.5	1.7	100.0
200~299만원	(327)	14.1	43.1	1.2	1.5	4.3	3.4	.6	.9	7.6	4.0	4.3	13.1	1.8	100.0
300~399만원	(96)	14.6	37.5	2.1	1.0	5.2	2.1	1.0	1.0	12.5	5.2	2.1	11.5	4.2	100.0
400만원 이상	(60)	5.0	56.7	1.7	5.0	3.3	3.3	.0	1.7	5.0	.0	5.0	13.3	.0	100.0
무응답	(13)	30.8	53.8	.0	.0	7.7	.0	.0	.0	.0	.0	.0	7.7	.0	100.0
경제수준															
상	(44)	13.6	47.7	.0	2.3	6.8	11.4	.0	.0	2.3	2.3	4.5	9.1	.0	100.0
중상	(1054)	11.8	43.1	1.7	1.3	10.5	3.0	.8	.9	5.9	2.2	5.3	11.1	2.5	100.0
중하	(1202)	15.7	44.1	.7	1.9	7.3	2.6	.3	.7	4.8	2.0	4.4	12.4	2.9	100.0
하	(160)	15.6	40.0	1.3	4.4	2.5	.0	.0	.0	6.9	1.9	5.6	16.9	5.0	100.0
무응답	(54)	14.8	38.9	1.9	.0	11.1	3.7	1.9	1.9	3.7	.0	3.7	16.7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9.9	44.5	1.5	1.2	13.8	4.4	.3	.7	2.1	.9	8.6	9.2	2.8	100.0
기혼	(1629)	16.2	42.7	1.0	2.1	5.5	1.9	.6	.8	7.1	2.6	2.8	13.8	2.8	100.0
지역															
서울	(577)	11.1	46.4	1.6	1.2	8.3	5.5	.9	1.2	5.5	1.6	4.7	10.4	1.6	100.0
부산	(210)	10.5	55.7	1.0	4.8	12.4	.5	.0	.5	5.2	2.4	4.3	1.9	1.0	100.0
대구	(138)	12.3	43.5	.7	1.4	5.8	1.4	.0	.7	1.4	2.2	2.2	27.5	.7	100.0
인천	(134)	12.7	37.3	.7	3.0	6.7	3.0	1.5	1.5	9.7	3.7	3.7	10.4	6.0	100.0
광주	(71)	25.4	49.3	1.4	1.4	7.0	.0	1.4	.0	8.5	.0	2.8	2.8	.0	100.0
대전	(72)	8.3	52.8	.0	1.4	11.1	1.4	.0	.0	6.9	1.4	4.2	8.3	4.2	100.0
울산	(54)	16.7	29.6	.0	3.7	3.7	.0	.0	.0	1.9	1.9	.0	33.3	9.3	100.0
경기	(485)	11.1	42.9	1.4	1.9	9.7	2.7	.4	.6	6.0	3.1	7.8	9.5	2.9	100.0
강원	(81)	9.9	50.6	1.2	2.5	11.1	1.2	.0	1.2	2.5	.0	12.3	6.2	1.2	100.0
충북	(75)	17.3	34.7	.0	1.3	10.7	4.0	.0	.0	2.7	1.3	1.3	25.3	1.3	100.0
충남	(98)	15.3	43.9	1.0	2.0	7.1	3.1	.0	1.0	6.1	3.1	1.0	14.3	2.0	100.0
전북	(104)	15.4	38.5	1.9	1.9	10.6	1.0	.0	.0	1.9	1.9	3.8	21.2	1.9	100.0
전남	(109)	45.0	33.9	2.8	.0	4.6	.0	.0	.9	1.8	.9	2.8	4.6	2.8	100.0
경북	(145)	16.6	27.6	1.4	.0	3.4	3.4	.7	.7	4.1	1.4	3.4	29.0	8.3	100.0
경남	(161)	12.4	44.1	.0	1.2	8.7	2.5	1.2	.6	9.3	1.9	6.8	6.8	4.3	100.0

문14. 귀하는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2> 2순위

	사례수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직장내 상담 전문가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신문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계
전체	(1875)	16.0	30.6	1.9	4.6	6.9	4.7	2.1	2.3	12.4	8.3	10.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283)	16.1	28.6	1.6	5.3	5.8	4.0	2.3	2.6	15.0	9.1	9.6	100.0
비직업인	(592)	15.7	34.8	2.7	3.2	9.1	6.3	1.7	1.9	6.8	6.4	11.5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239)	13.8	24.3	2.5	7.1	4.6	5.4	2.1	2.9	17.6	10.0	9.6	100.0
100~199만원	(584)	17.6	27.4	1.0	5.1	5.1	3.1	2.1	3.4	17.1	9.6	8.4	100.0
200~299만원	(244)	16.8	32.4	2.5	2.9	8.2	3.3	3.3	1.2	11.5	7.4	10.7	100.0
300~399만원	(75)	13.3	32.0	1.3	8.0	8.0	2.7	2.7	2.7	10.7	10.7	8.0	100.0
400만원 이상	(43)	14.0	25.6	.0	7.0	4.7	9.3	2.3	.0	16.3	11.6	9.3	100.0
무응답	(10)	10.0	40.0	.0	.0	.0	.0	10.0	.0	10.0	.0	30.0	100.0
경제수준													
상	(37)	27.0	18.9	2.7	2.7	10.8	10.8	.0	5.4	16.2	.0	5.4	100.0
중상	(809)	13.5	30.5	2.0	3.8	7.7	5.6	2.7	1.7	11.7	8.8	12.0	100.0
중하	(885)	17.3	30.6	1.8	5.8	6.1	3.7	1.7	2.8	13.3	8.0	8.8	100.0
하	(104)	20.2	31.7	1.9	2.9	4.8	1.9	1.9	1.9	11.5	10.6	10.6	100.0
무응답	(40)	17.5	37.5	2.5	2.5	10.0	10.0	.0	2.5	5.0	5.0	7.5	100.0
혼인상태													
미혼	(696)	10.5	29.0	2.3	4.2	11.5	7.8	1.6	1.6	8.2	6.0	17.4	100.0
기혼	(1179)	19.3	31.5	1.7	4.9	4.2	2.9	2.4	2.8	14.9	9.6	5.9	100.0
지역													
서울	(461)	11.3	29.1	2.0	5.2	6.3	9.1	2.4	3.3	12.6	9.1	9.8	100.0
부산	(199)	15.6	23.6	.5	10.6	5.5	4.5	1.0	.0	15.6	10.6	12.6	100.0
대구	(85)	25.9	20.0	.0	5.9	5.9	4.7	1.2	2.4	18.8	8.2	7.1	100.0
인천	(90)	12.2	35.6	2.2	7.8	3.3	.0	3.3	.0	10.0	10.0	15.6	100.0
광주	(67)	29.9	37.3	.0	4.5	1.5	3.0	3.0	.0	7.5	7.5	6.0	100.0
대전	(56)	5.4	23.2	1.8	3.6	12.5	3.6	.0	1.8	21.4	12.5	14.3	100.0
울산	(22)	22.7	31.8	13.6	.0	4.5	.0	.0	9.1	4.5	.0	13.6	100.0
경기	(350)	13.4	29.7	1.4	3.4	7.1	4.0	2.3	3.1	14.0	8.0	13.4	100.0
강원	(63)	28.6	20.6	3.2	1.6	4.8	4.8	7.9	1.6	14.3	6.3	6.3	100.0
충북	(48)	12.5	43.8	2.1	6.3	8.3	2.1	4.2	2.1	10.4	2.1	6.3	100.0
충남	(66)	25.8	36.4	.0	1.5	1.5	.0	.0	1.5	12.1	12.1	9.1	100.0
전북	(70)	20.0	32.9	2.9	2.9	12.9	2.9	5.7	.0	7.1	5.7	7.1	100.0
전남	(91)	19.8	39.6	7.7	.0	14.3	4.4	.0	4.4	4.4	1.1	4.4	100.0
경북	(74)	17.6	39.2	4.1	4.1	8.1	4.1	.0	5.4	5.4	6.8	5.4	100.0
경남	(133)	17.3	36.1	.0	2.3	8.3	1.5	.8	1.5	12.8	9.8	9.8	100.0

문14. 귀하는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3> 우선순위 가중종합

	사례수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직장내 상담 전문가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신문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잘모름	계
전체	(2514)	14.5	39.9	1.4	2.6	8.0	3.3	.9	1.2	7.3	3.7	6.3	8.9	2.0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4.0	41.9	1.5	3.0	5.3	2.8	1.0	1.2	9.1	4.3	5.8	8.0	1.9	100.0
비직업인	(799)	15.7	35.4	1.2	1.7	13.8	4.3	.7	1.2	3.2	2.5	7.3	10.7	2.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3.3	41.5	1.3	4.3	3.9	2.8	.8	1.2	7.7	5.1	5.8	8.4	4.0	100.0
100~199만원	(768)	14.0	43.0	1.7	2.7	5.1	2.3	1.1	1.2	10.8	4.0	6.0	6.9	1.2	100.0
200~299만원	(327)	14.8	40.2	1.6	1.9	5.3	3.3	1.3	1.0	8.7	4.9	6.0	9.6	1.3	100.0
300~399만원	(96)	14.2	36.0	1.9	3.0	6.0	2.2	1.5	1.5	12.0	6.7	3.7	8.2	3.0	100.0
400만원 이상	(60)	7.4	48.5	1.2	5.5	3.7	4.9	.6	1.2	8.0	3.1	6.1	9.8	.0	100.0
무응답	(13)	25.0	50.0	.0	.0	5.6	.0	2.8	.0	2.8	.0	8.3	5.6	.0	100.0
경제수준															
상	(44)	17.6	39.2	.8	2.4	8.0	11.2	.0	1.6	6.4	1.6	4.8	6.4	.0	100.0
중상	(1054)	12.2	39.6	1.8	2.0	9.7	3.7	1.3	1.1	7.5	4.0	7.2	8.0	1.8	100.0
중하	(1202)	16.1	40.5	1.0	2.9	7.0	2.9	.7	1.3	7.1	3.6	5.6	9.1	2.1	100.0
하	(160)	16.7	38.0	1.4	4.0	3.1	.5	.5	.5	8.0	4.0	6.8	12.7	3.8	100.0
무응답	(54)	15.5	38.5	2.0	.7	10.8	5.4	1.4	2.0	4.1	1.4	4.7	12.2	1.4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0.1	40.1	1.7	2.1	13.1	5.4	.7	.9	3.9	2.4	11.1	6.6	2.0	100.0
기혼	(1629)	17.0	39.7	1.2	2.8	5.2	2.2	1.1	1.3	9.2	4.5	3.7	10.1	2.0	100.0
지역															
서울	(577)	11.1	41.5	1.7	2.4	7.7	6.6	1.3	1.8	7.6	3.7	6.1	7.4	1.1	100.0
부산	(210)	12.1	45.4	.8	6.6	10.2	1.8	.3	.3	8.6	5.0	6.9	1.3	.6	100.0
대구	(138)	15.5	38.0	.6	2.5	5.8	2.2	.3	1.1	5.5	3.6	3.3	21.1	.6	100.0
인천	(134)	12.6	36.9	1.1	4.2	5.9	2.2	2.0	1.1	9.8	5.3	6.7	7.8	4.5	100.0
광주	(71)	26.8	45.5	1.0	2.4	5.3	1.0	1.9	.0	8.1	2.4	3.8	1.9	.0	100.0
대전	(72)	7.5	44.5	.5	2.0	11.5	2.0	.0	.5	11.0	4.5	7.0	6.0	3.0	100.0
울산	(54)	17.7	30.0	2.3	3.1	3.8	.0	.0	1.5	2.3	1.5	2.3	27.7	7.7	100.0
경기	(485)	11.7	39.4	1.4	2.3	9.0	3.0	.9	1.3	8.1	4.4	9.3	7.0	2.1	100.0
강원	(81)	15.1	42.2	1.8	2.2	9.3	2.2	2.2	1.3	5.8	1.8	10.7	4.4	.9	100.0
충북	(75)	16.2	36.9	.5	2.5	10.1	3.5	1.0	.5	4.5	1.5	2.5	19.2	1.0	100.0
충남	(98)	17.9	42.0	.8	1.9	5.7	2.3	.0	1.1	7.6	5.3	3.1	10.7	1.5	100.0
전북	(104)	16.5	37.1	2.2	2.2	11.2	1.4	1.4	.0	3.2	2.9	4.7	15.8	1.4	100.0
전남	(109)	37.5	35.6	4.2	.0	7.4	1.3	.0	1.9	2.6	1.0	3.2	3.2	1.9	100.0
경북	(145)	16.8	29.9	1.9	.8	4.4	3.6	.5	1.6	4.4	2.5	3.8	23.1	6.6	100.0
경남	(161)	13.8	41.8	.0	1.5	8.6	2.2	1.1	.9	10.3	4.2	7.7	4.8	3.1	100.0

문15. 만일 귀하가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앞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1> 1순위

	사례수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직장내 상담 전문가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신문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잘모름	계
전체	(2514)	9.8	35.6	4.8	7.1	8.0	2.5	1.9	1.2	5.8	1.6	11.4	6.1	4.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5	35.9	5.5	7.9	5.2	2.0	2.4	1.2	7.6	1.9	11.4	6.4	4.0	100.0
비직업인	(799)	12.6	34.8	3.4	5.4	14.1	3.5	.9	1.0	1.9	1.0	11.3	5.5	4.6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0	35.6	3.3	11.7	3.6	2.1	1.8	1.8	5.7	1.8	9.3	8.4	6.0	100.0
100~199만원	(768)	6.8	37.5	6.1	7.4	4.0	1.7	2.6	1.0	8.6	2.0	12.6	5.1	4.6	100.0
200~299만원	(327)	11.3	34.9	6.1	8.0	5.5	.9	2.8	1.5	8.3	2.1	11.0	7.0	.6	100.0
300~399만원	(96)	12.5	31.3	8.3	1.0	6.3	2.1	4.2	.0	11.5	3.1	9.4	7.3	3.1	100.0
400만원 이상	(60)	1.7	38.3	5.0	11.7	6.7	3.3	.0	3.3	8.3	.0	11.7	8.3	1.7	100.0
무응답	(13)	.0	38.5	7.7	.0	7.7	.0	7.7	.0	.0	.0	15.4	15.4	7.7	100.0
경제수준															
상	(44)	.0	40.9	2.3	9.1	6.8	6.8	2.3	.0	6.8	2.3	15.9	2.3	4.5	100.0
중상	(1054)	8.3	36.8	4.6	6.7	8.3	2.8	2.2	1.1	6.7	1.4	13.0	4.9	3.0	100.0
중하	(1202)	11.6	34.1	5.3	7.4	8.1	2.4	1.7	1.1	5.2	1.7	9.7	6.5	5.1	100.0
하	(160)	8.1	37.5	3.8	8.8	3.1	.6	2.5	1.9	4.4	2.5	11.3	10.0	5.6	100.0
무응답	(54)	11.1	33.3	1.9	1.9	18.5	1.9	.0	1.9	1.9	.0	13.0	13.0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7.2	35.4	4.1	5.9	14.2	5.3	2.1	.9	3.3	1.1	14.5	2.9	3.1	100.0
기혼	(1629)	11.2	35.7	5.2	7.8	4.7	1.0	1.8	1.3	7.1	1.9	9.7	7.9	4.8	100.0
지역															
서울	(577)	6.1	37.8	4.9	7.1	7.8	3.3	2.4	1.2	7.5	1.6	12.1	5.4	2.9	100.0
부산	(210)	10.5	51.4	1.0	7.6	10.5	1.9	.5	.0	7.6	1.4	7.6	.0	.0	100.0
대구	(138)	15.2	37.7	1.4	7.2	7.2	2.2	.7	.0	1.4	2.2	8.7	13.0	2.9	100.0
인천	(134)	11.2	25.4	8.2	7.5	6.7	1.5	2.2	2.2	7.5	2.2	12.7	4.5	8.2	100.0
광주	(71)	22.5	40.8	7.0	4.2	8.5	.0	.0	.0	2.8	.0	14.1	.0	.0	100.0
대전	(72)	.0	34.7	4.2	11.1	13.9	1.4	2.8	.0	4.2	6.9	8.3	6.9	5.6	100.0
울산	(54)	11.1	31.5	.0	9.3	9.3	.0	.0	1.9	1.9	3.7	18.5	3.7	9.3	100.0
경기	(485)	6.4	34.4	5.8	7.8	8.9	3.5	3.5	1.9	5.2	1.9	12.0	3.3	5.6	100.0
강원	(81)	4.9	33.3	9.9	17.3	8.6	.0	2.5	2.5	3.7	1.2	13.6	.0	2.5	100.0
충북	(75)	10.7	32.0	8.0	2.7	8.0	1.3	2.7	1.3	6.7	.0	8.0	16.0	2.7	100.0
충남	(98)	11.2	38.8	.0	6.1	3.1	5.1	3.1	.0	6.1	2.0	10.2	10.2	4.1	100.0
전북	(104)	8.7	32.7	5.8	11.5	9.6	1.0	2.9	.0	5.8	.0	10.6	7.7	3.8	100.0
전남	(109)	43.1	21.1	3.7	1.8	6.4	.9	.0	.9	.9	.0	12.8	5.5	2.8	100.0
경북	(145)	9.7	24.1	6.9	5.5	4.1	3.4	.0	2.8	3.4	2.1	11.0	20.0	6.9	100.0
경남	(161)	5.0	39.1	5.0	2.5	8.1	2.5	.0	.6	10.6	.6	11.8	6.8	7.5	100.0

문15. 만일 귀하가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앞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2> 2순위

	사례수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직장내 상담 전문가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신문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계
전체	(2075)	10.6	26.8	4.0	9.7	6.5	4.4	2.8	3.0	9.8	7.3	15.1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404)	9.2	25.8	4.4	10.2	5.0	4.3	3.1	2.9	12.9	8.3	13.9	100.0
비직업인	(671)	13.4	28.9	3.1	8.6	9.7	4.6	2.2	3.1	3.4	5.1	17.7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259)	10.4	24.3	3.9	9.7	3.5	3.5	2.7	3.5	14.7	8.5	15.4	100.0
100~199만원	(632)	9.5	26.7	5.1	10.4	4.4	3.6	2.8	2.1	13.4	8.9	13.0	100.0
200~299만원	(273)	8.4	26.0	4.8	9.9	4.8	4.4	5.5	2.9	13.2	7.3	12.8	100.0
300~399만원	(84)	4.8	21.4	1.2	15.5	7.1	3.6	2.4	6.0	14.3	10.7	13.1	100.0
400만원 이상	(49)	12.2	18.4	4.1	8.2	2.0	2.0	2.0	6.1	12.2	10.2	22.4	100.0
무응답	(9)	11.1	11.1	11.1	11.1	11.1	.0	.0	11.1	.0	11.1	22.2	100.0
경제수준													
상	(38)	10.5	26.3	5.3	7.9	2.6	2.6	2.6	5.3	15.8	5.3	15.8	100.0
중상	(912)	9.2	25.8	3.8	8.8	8.1	4.9	3.3	2.9	9.5	8.1	15.6	100.0
중하	(967)	10.7	28.0	4.3	10.7	5.5	3.9	2.2	2.9	10.2	6.7	14.9	100.0
하	(118)	20.3	22.0	3.4	8.5	4.2	3.4	5.1	3.4	7.6	7.6	14.4	100.0
무응답	(40)	10.0	35.0	.0	12.5	5.0	7.5	2.5	5.0	7.5	2.5	12.5	100.0
혼인상태													
미혼	(773)	6.7	26.1	3.8	8.3	10.6	6.7	2.5	1.8	8.9	3.8	20.8	100.0
기혼	(1302)	12.8	27.2	4.1	10.5	4.1	3.0	3.1	3.7	10.4	9.4	11.8	100.0
지역													
서울	(492)	7.3	27.2	6.1	7.7	5.1	5.5	1.6	3.7	12.6	6.9	16.3	100.0
부산	(207)	15.9	26.6	1.0	15.0	7.2	2.9	1.4	.5	10.6	7.2	11.6	100.0
대구	(109)	16.5	24.8	3.7	11.9	2.8	2.8	3.7	2.8	14.7	7.3	9.2	100.0
인천	(108)	10.2	26.9	6.5	13.0	3.7	2.8	2.8	2.8	8.3	7.4	15.7	100.0
광주	(70)	20.0	31.4	1.4	10.0	10.0	1.4	2.9	2.9	7.1	4.3	8.6	100.0
대전	(56)	3.6	12.5	3.6	5.4	16.1	7.1	.0	.0	8.9	7.1	35.7	100.0
울산	(41)	14.6	31.7	9.8	4.9	7.3	4.9	.0	7.3	2.4	4.9	12.2	100.0
경기	(395)	9.1	18.2	2.8	10.6	6.6	5.3	4.6	4.6	10.1	8.4	19.7	100.0
강원	(69)	11.6	20.3	7.2	11.6	10.1	4.3	1.4	4.3	7.2	7.2	14.5	100.0
충북	(54)	7.4	37.0	.0	3.7	3.7	3.7	7.4	5.6	11.1	5.6	14.8	100.0
충남	(76)	10.5	28.9	1.3	9.2	6.6	3.9	2.6	.0	14.5	11.8	10.5	100.0
전북	(85)	9.4	23.5	8.2	11.8	12.9	4.7	5.9	3.5	4.7	2.4	12.9	100.0
전남	(97)	11.3	54.6	3.1	5.2	6.2	1.0	1.0	3.1	3.1	2.1	9.3	100.0
경북	(90)	13.3	30.0	4.4	12.2	8.9	6.7	4.4	2.2	1.1	5.6	11.1	100.0
경남	(126)	9.5	32.5	1.6	6.3	3.2	4.0	3.2	.0	11.1	14.3	14.3	100.0

문15. 만일 귀하가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앞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3> 우선순위 가중종합

	사례수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민간 부문의 상담 전문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교육 기관의 상담 전문가	교사나 교수	직장내 상담 전문가	지역 사회, 회사, 종교의 지도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신문	인터넷 진로 관련 사이트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잘모름	계
전체	(2514)	10.0	33.0	4.6	7.9	7.6	3.1	2.2	1.7	7.0	3.3	12.5	4.3	3.0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7	33.0	5.2	8.6	5.1	2.7	2.6	1.7	9.1	3.8	12.1	4.6	2.8	100.0
비직업인	(799)	12.9	33.1	3.3	6.3	12.8	3.8	1.3	1.6	2.3	2.2	13.2	3.9	3.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4	32.5	3.5	11.1	3.6	2.5	2.0	2.3	8.2	3.7	11.0	6.0	4.3	100.0
100~199만원	(768)	7.6	34.4	5.8	8.3	4.2	2.3	2.7	1.3	10.0	4.0	12.7	3.6	3.2	100.0
200~299만원	(327)	10.5	32.3	5.7	8.5	5.3	1.9	3.6	1.9	9.7	3.7	11.5	5.0	.4	100.0
300~399만원	(96)	10.1	28.3	6.2	5.4	6.5	2.5	3.6	1.8	12.3	5.4	10.5	5.1	2.2	100.0
400만원 이상	(60)	4.7	32.5	4.7	10.7	5.3	3.0	.6	4.1	9.5	3.0	14.8	5.9	1.2	100.0
무응답	(13)	2.9	31.4	8.6	2.9	8.6	.0	5.7	2.9	.0	2.9	17.1	11.4	5.7	100.0
경제수준															
상	(44)	3.2	36.5	3.2	8.7	5.6	5.6	2.4	1.6	9.5	3.2	15.9	1.6	3.2	100.0
중상	(1054)	8.6	33.5	4.4	7.4	8.2	3.4	2.5	1.7	7.6	3.4	13.8	3.4	2.1	100.0
중하	(1202)	11.4	32.4	5.0	8.3	7.3	2.8	1.8	1.6	6.7	3.2	11.2	4.6	3.6	100.0
하	(160)	11.4	33.3	3.7	8.7	3.4	1.4	3.2	2.3	5.3	3.9	12.1	7.3	4.1	100.0
무응답	(54)	10.8	33.8	1.4	4.7	14.9	3.4	.7	2.7	3.4	.7	12.8	9.5	1.4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7.1	32.6	4.0	6.6	13.1	5.7	2.2	1.2	5.0	1.9	16.4	2.0	2.1	100.0
기혼	(1629)	11.7	33.2	4.9	8.6	4.5	1.6	2.1	2.0	8.0	4.0	10.3	5.6	3.4	100.0
지역															
서울	(577)	6.4	34.6	5.2	7.3	7.0	3.9	2.2	1.9	9.0	3.2	13.4	3.8	2.1	100.0
부산	(210)	12.3	43.2	1.0	10.0	9.4	2.2	.8	.2	8.6	3.3	8.9	.0	.0	100.0
대구	(138)	15.6	34.0	2.1	8.6	6.0	2.3	1.6	.8	5.2	3.6	8.8	9.4	2.1	100.0
인천	(134)	10.9	25.8	7.7	9.0	5.9	1.9	2.4	2.4	7.7	3.7	13.6	3.2	5.9	100.0
광주	(71)	21.7	37.7	5.2	6.1	9.0	.5	.9	.9	4.2	1.4	12.3	.0	.0	100.0
대전	(72)	1.0	28.5	4.0	9.5	14.5	3.0	2.0	.0	5.5	7.0	16.0	5.0	4.0	100.0
울산	(54)	12.1	31.5	2.7	8.1	8.7	1.3	.0	3.4	2.0	4.0	16.8	2.7	6.7	100.0
경기	(485)	7.2	29.7	4.9	8.6	8.2	4.0	3.8	2.6	6.6	3.7	14.2	2.3	4.0	100.0
강원	(81)	6.9	29.4	9.1	15.6	9.1	1.3	2.2	3.0	4.8	3.0	13.9	.0	1.7	100.0
충북	(75)	9.8	33.3	5.9	2.9	6.9	2.0	3.9	2.5	7.8	1.5	9.8	11.8	2.0	100.0
충남	(98)	11.0	36.0	.4	7.0	4.0	4.8	2.9	.0	8.5	4.8	10.3	7.4	2.9	100.0
전북	(104)	8.9	30.0	6.5	11.6	10.6	2.0	3.8	1.0	5.5	.7	11.3	5.5	2.7	100.0
전남	(109)	33.3	31.4	3.5	2.9	6.3	1.0	.3	1.6	1.6	.6	11.7	3.8	1.9	100.0
경북	(145)	10.5	25.5	6.3	7.1	5.3	4.2	1.1	2.6	2.9	2.9	11.1	15.3	5.3	100.0
경남	(161)	6.3	37.3	4.0	3.6	6.7	2.9	.9	.4	10.7	4.5	12.5	4.9	5.4	100.0

문16. 귀하는 진로선택을 위해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514)	7.2	92.8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7.3	92.7	100.0
비직업인	(799)	6.9	93.1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8	92.2	100.0
100~199만원	(768)	6.3	93.8	100.0
200~299만원	(327)	7.6	92.4	100.0
300~399만원	(96)	8.3	91.7	100.0
400만원 이상	(60)	10.0	90.0	100.0
무응답	(13)	7.7	92.3	100.0
경제수준				
상	(44)	11.4	88.6	100.0
중상	(1054)	8.8	91.2	100.0
중하	(1202)	5.6	94.4	100.0
하	(160)	6.9	93.1	100.0
무응답	(54)	7.4	92.6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9.2	90.8	100.0
기혼	(1629)	6.1	93.9	100.0
지역				
서울	(577)	8.1	91.9	100.0
부산	(210)	4.3	95.7	100.0
대구	(138)	4.3	95.7	100.0
인천	(134)	7.5	92.5	100.0
광주	(71)	11.3	88.7	100.0
대전	(72)	8.3	91.7	100.0
울산	(54)	7.4	92.6	100.0
경기	(485)	10.5	89.5	100.0
강원	(81)	9.9	90.1	100.0
충북	(75)	9.3	90.7	100.0
충남	(98)	2.0	98.0	100.0
전북	(104)	4.8	95.2	100.0
전남	(109)	.9	99.1	100.0
경북	(145)	8.3	91.7	100.0
경남	(161)	2.5	97.5	100.0

문16-1. 만일 귀하께서 상담가나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종합		계	4점 평균(R)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	(180)	11.1	67.2	17.2	4.4	78.3	21.7	100.0	2.9
직업형태									
직업인	(125)	13.6	60.0	21.6	4.8	73.6	26.4	100.0	2.8
비직업인	(55)	5.5	83.6	7.3	3.6	89.1	10.9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26)	15.4	53.8	26.9	3.8	69.2	30.8	100.0	2.8
100~199만원	(48)	10.4	60.4	22.9	6.3	70.8	29.2	100.0	2.8
200~299만원	(25)	16.0	76.0	8.0	.0	92.0	8.0	100.0	3.1
300~399만원	(8)	37.5	25.0	25.0	12.5	62.5	37.5	100.0	2.9
400만원 이상	(6)	16.7	50.0	33.3	.0	66.7	33.3	100.0	2.8
무응답	(1)	.0	100.0	.0	.0	100.0	.0	100.0	3.0
경제수준									
상	(5)	20.0	60.0	20.0	.0	80.0	20.0	100.0	3.0
중상	(93)	11.8	72.0	12.9	3.2	83.9	16.1	100.0	2.9
중하	(67)	9.0	64.2	20.9	6.0	73.1	26.9	100.0	2.8
하	(11)	9.1	63.6	18.2	9.1	72.7	27.3	100.0	2.7
무응답	(4)	25.0	25.0	50.0	.0	50.0	50.0	100.0	2.8
혼인상태									
미혼	(81)	9.9	69.1	16.0	4.9	79.0	21.0	100.0	2.8
기혼	(99)	12.1	65.7	18.2	4.0	77.8	22.2	100.0	2.9
지역									
서울	(47)	8.5	80.9	10.6	.0	89.4	10.6	100.0	3.0
부산	(9)	.0	22.2	66.7	11.1	22.2	77.8	100.0	2.1
대구	(6)	.0	66.7	33.3	.0	66.7	33.3	100.0	2.7
인천	(10)	20.0	50.0	20.0	10.0	70.0	30.0	100.0	2.8
광주	(8)	37.5	50.0	12.5	.0	87.5	12.5	100.0	3.3
대전	(6)	33.3	66.7	.0	.0	100.0	.0	100.0	3.3
울산	(4)	.0	75.0	25.0	.0	75.0	25.0	100.0	2.8
경기	(51)	7.8	68.6	13.7	9.8	76.5	23.5	100.0	2.7
강원	(8)	12.5	62.5	25.0	.0	75.0	25.0	100.0	2.9
충북	(7)	14.3	14.3	57.1	14.3	28.6	71.4	100.0	2.3
충남	(2)	.0	50.0	50.0	.0	50.0	50.0	100.0	2.5
전북	(5)	.0	100.0	.0	.0	100.0	.0	100.0	3.0
전남	(1)	.0	100.0	.0	.0	100.0	.0	100.0	3.0
경북	(12)	8.3	91.7	.0	.0	100.0	.0	100.0	3.1
경남	(4)	50.0	50.0	.0	.0	100.0	.0	100.0	3.5

문17. 귀하는 일반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1> 1순위

	사례수	방송 매체	신문	정보지 잡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 그램	취업 설명회	사회 단체	친구나 선배	가족· 친지	인터넷 사이트	기타	없음	무응답	계
전체	(2514)	20.1	10.8	15.3	4.6	3.2	.8	1.3	.6	21.4	8.6	11.8	.9	.5	.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0.3	11.9	15.3	5.3	2.7	.8	1.3	.6	22.1	7.3	11.2	.8	.3	.2	100.0
비직업인	(799)	19.8	8.4	15.3	3.1	4.4	.8	1.3	.5	19.9	11.3	13.0	1.3	.8	.4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8.6	9.0	18.6	6.9	2.1	.9	.0	.3	20.7	11.1	10.5	.9	.3	.3	100.0
100~199만원	(768)	18.1	11.1	16.5	6.3	2.6	.9	1.4	.5	23.7	6.1	11.2	1.0	.3	.3	100.0
200~299만원	(327)	24.8	13.5	13.1	3.4	1.8	.3	1.5	.3	22.6	6.1	11.6	.6	.3	.0	100.0
300~399만원	(96)	24.0	18.8	6.3	3.1	2.1	2.1	3.1	2.1	20.8	7.3	10.4	.0	.0	.0	100.0
400만원 이상	(60)	25.0	23.3	5.0	6.7	3.3	.0	1.7	.0	23.3	5.0	6.7	.0	.0	.0	100.0
무응답	(13)	30.8	7.7	15.4	.0	.0	.0	.0	7.7	15.4	7.7	7.7	.0	7.7	.0	100.0
경제수준																
상	(44)	29.5	4.5	6.8	.0	2.3	.0	4.5	4.5	27.3	6.8	13.6	.0	.0	.0	100.0
중상	(1054)	18.5	11.7	13.1	4.1	4.6	.6	1.0	.6	22.4	8.3	13.7	.8	.7	.1	100.0
중하	(1202)	21.3	10.3	17.5	5.7	2.3	1.0	1.4	.3	20.1	8.4	10.3	.8	.2	.2	100.0
하	(160)	21.9	10.0	16.3	3.1	1.9	.6	.0	.6	20.6	12.5	8.8	2.5	.6	.6	100.0
무응답	(54)	13.0	11.1	13.0	.0	.0	.0	3.7	1.9	27.8	9.3	14.8	1.9	1.9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5.6	7.0	11.3	4.7	6.7	1.0	1.6	.1	23.7	7.1	19.7	.8	.3	.3	100.0
기혼	(1629)	22.6	12.8	17.4	4.5	1.4	.6	1.1	.8	20.1	9.4	7.5	1.0	.6	.2	100.0
지역																
서울	(577)	18.0	10.7	12.8	5.0	4.7	.9	1.4	.9	21.1	8.0	14.9	.7	.5	.3	100.0
부산	(210)	4.8	15.2	15.7	11.0	5.2	.5	2.4	.0	25.2	13.8	6.2	.0	.0	.0	100.0
대구	(138)	15.2	13.0	21.7	6.5	2.2	.0	.0	.0	26.1	9.4	3.6	1.4	.7	.0	100.0
인천	(134)	18.7	11.2	17.2	6.7	3.0	.0	1.5	.7	21.6	5.2	13.4	.7	.0	.0	100.0
광주	(71)	22.5	8.5	15.5	1.4	4.2	2.8	1.4	.0	22.5	9.9	11.3	.0	.0	.0	100.0
대전	(72)	8.3	15.3	19.4	4.2	9.7	.0	1.4	.0	20.8	4.2	12.5	1.4	2.8	.0	100.0
울산	(54)	27.8	5.6	22.2	1.9	3.7	.0	.0	.0	20.4	7.4	9.3	1.9	.0	.0	100.0
경기	(485)	18.1	8.5	14.4	4.1	2.5	.8	1.4	.2	26.2	7.4	15.3	.4	.6	.0	100.0
강원	(81)	21.0	3.7	12.3	4.9	3.7	1.2	1.2	3.7	28.4	8.6	9.9	.0	.0	1.2	100.0
충북	(75)	21.3	1.3	18.7	.0	2.7	.0	1.3	.0	29.3	13.3	12.0	.0	.0	.0	100.0
충남	(98)	26.5	12.2	8.2	6.1	.0	1.0	1.0	.0	23.5	9.2	6.1	3.1	2.0	1.0	100.0
전북	(104)	17.3	5.8	22.1	1.9	1.9	1.9	1.9	1.9	16.3	12.5	9.6	5.8	.0	1.0	100.0
전남	(109)	45.0	2.8	22.0	1.8	.9	.9	.0	.0	4.6	8.3	12.8	.9	.0	.0	100.0
경북	(145)	37.9	10.3	13.8	3.4	1.4	.7	1.4	1.4	11.7	8.3	7.6	.7	.7	.7	100.0
경남	(161)	24.8	26.7	11.2	1.2	1.2	.6	.6	.0	13.7	6.8	12.4	.6	.0	.0	100.0

문17. 귀하는 일반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2> 2순위

	사례수	방송매체	신문	정보지잡지	공공직업안정기관	대학의취업정보센터	국가운영직업훈련프로그램	취업설명회	사회단체	친구나선배	가족·친지	인터넷사이트	기타	계
전체	(2394)	9.0	15.1	12.5	5.6	2.7	2.0	1.7	1.5	19.3	16.8	13.0	.6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631)	8.6	15.6	12.8	6.1	1.9	2.3	2.1	1.0	20.3	16.2	12.4	.7	100.0
비직업인	(763)	9.8	14.2	12.1	4.7	4.5	1.3	.8	2.6	17.2	18.1	14.4	.4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13)	7.7	14.7	10.5	8.0	2.6	2.6	1.6	.6	22.0	15.0	13.7	1.0	100.0
100~199만원	(739)	8.3	14.9	14.9	5.5	1.9	2.8	1.8	1.1	19.6	16.4	11.9	.9	100.0
200~299만원	(307)	8.8	18.9	11.7	6.5	1.0	1.3	2.6	1.0	19.5	17.6	11.1	.0	100.0
300~399만원	(95)	11.6	21.1	11.6	4.2	1.1	1.1	3.2	1.1	17.9	15.8	11.6	.0	100.0
400만원 이상	(59)	16.9	15.3	10.2	.0	5.1	3.4	5.1	3.4	16.9	15.3	6.8	1.7	100.0
무응답	(11)	9.1	.0	9.1	9.1	.0	.0	.0	.0	27.3	18.2	27.3	.0	100.0
경제수준														
상	(43)	14.0	20.9	4.7	4.7	2.3	2.3	.0	.0	18.6	18.6	14.0	.0	100.0
중상	(1010)	8.0	15.1	10.7	5.4	3.1	2.2	1.9	1.7	20.8	17.2	13.1	.8	100.0
중하	(1145)	9.9	14.8	13.8	6.0	2.5	1.6	1.8	1.3	18.3	16.4	13.1	.3	100.0
하	(148)	8.8	17.6	17.6	4.7	2.0	2.0	.7	2.7	16.2	16.9	8.8	2.0	100.0
무응답	(48)	4.2	8.3	12.5	4.2	2.1	6.3	.0	2.1	20.8	16.7	22.9	.0	100.0
혼인상태														
미혼	(852)	8.1	10.2	9.5	5.5	5.9	1.6	2.2	.8	20.2	13.4	21.8	.7	100.0
기혼	(1542)	9.5	17.8	14.2	5.7	1.0	2.1	1.4	1.9	18.8	18.7	8.2	.6	100.0
지역														
서울	(557)	8.1	14.9	10.1	3.4	2.5	2.2	2.2	.9	22.1	16.7	16.5	.5	100.0
부산	(208)	4.3	10.1	18.3	11.1	1.9	2.4	4.8	.5	21.2	15.9	9.6	.0	100.0
대구	(134)	9.0	12.7	11.2	9.7	3.7	1.5	.7	.7	14.2	29.1	7.5	.0	100.0
인천	(128)	4.7	20.3	8.6	5.5	3.1	3.1	3.1	3.1	17.2	17.2	10.2	3.9	100.0
광주	(70)	7.1	7.1	17.1	8.6	2.9	5.7	.0	.0	18.6	24.3	8.6	.0	100.0
대전	(65)	6.2	13.8	6.2	10.8	1.5	.0	1.5	1.5	20.0	20.0	18.5	.0	100.0
울산	(53)	15.1	15.1	18.9	3.8	1.9	.0	.0	1.9	13.2	20.8	7.5	1.9	100.0
경기	(451)	9.1	15.1	9.8	5.8	3.3	2.2	1.1	3.3	16.9	14.0	18.4	1.1	100.0
강원	(76)	11.8	15.8	17.1	5.3	1.3	1.3	1.3	.0	15.8	18.4	11.8	.0	100.0
충북	(74)	14.9	24.3	9.5	2.7	1.4	1.4	2.7	.0	18.9	14.9	8.1	1.4	100.0
충남	(87)	9.2	17.2	10.3	4.6	8.0	2.3	1.1	.0	18.4	17.2	11.5	.0	100.0
전북	(89)	4.5	3.4	10.1	7.9	2.2	1.1	3.4	5.6	27.0	23.6	11.2	.0	100.0
전남	(109)	11.0	8.3	37.6	2.8	2.8	.0	.0	.9	20.2	10.1	6.4	.0	100.0
경북	(133)	16.5	22.6	8.3	3.8	1.5	.8	.8	2.3	18.0	13.5	12.0	.0	100.0
경남	(160)	11.9	23.8	12.5	4.4	1.9	2.5	.0	.0	20.6	13.8	8.8	.0	100.0

문17. 귀하는 일반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3> 우선순위 가중종합

	사례수	방송 매체	신문	정보지 잡지	공공 직업 안정 기관	대학의 취업 정보 센터	국가 운영 직업 훈련 프로 그램	취업 설명회	사회 단체	친구나 선배	가족·친지	인터넷 사이트	기타	없음	무응답	계
전체	(2514)	16.5	12.2	14.4	4.9	3.1	1.1	1.4	.9	20.7	11.3	12.2	.8	.3	.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6.5	13.1	14.5	5.6	2.4	1.2	1.6	.7	21.5	10.2	11.6	.8	.2	.1	100.0
비직업인	(799)	16.6	10.2	14.2	3.6	4.4	.9	1.1	1.2	19.0	13.5	13.5	1.0	.5	.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5.1	10.8	16.0	7.2	2.2	1.4	.5	.4	21.1	12.3	11.5	.9	.2	.2	100.0
100~199만원	(768)	14.9	12.3	16.0	6.0	2.4	1.5	1.5	.7	22.4	9.5	11.4	1.0	.2	.2	100.0
200~299만원	(327)	19.7	15.2	12.7	4.4	1.6	.6	1.9	.5	21.6	9.8	11.4	.4	.2	.0	100.0
300~399만원	(96)	19.9	19.5	8.0	3.5	1.7	1.7	3.1	1.7	19.9	10.1	10.8	.0	.0	.0	100.0
400만원 이상	(60)	22.3	20.7	6.7	4.5	3.9	1.1	2.8	1.1	21.2	8.4	6.7	.6	.0	.0	100.0
무응답	(13)	24.3	5.4	13.5	2.7	.0	.0	.0	5.4	18.9	10.8	13.5	.0	5.4	.0	100.0
경제수준																
상	(44)	24.4	9.9	6.1	1.5	2.3	.8	3.1	3.1	24.4	10.7	13.7	.0	.0	.0	100.0
중상	(1054)	15.1	12.8	12.3	4.5	4.1	1.1	1.3	.9	21.9	11.2	13.5	.8	.4	.1	100.0
중하	(1202)	17.6	11.8	16.3	5.8	2.4	1.2	1.5	.6	19.6	11.0	11.2	.7	.2	.2	100.0
하	(160)	17.7	12.4	16.7	3.6	1.9	1.1	.2	1.3	19.2	13.9	8.8	2.4	.4	.4	100.0
무응답	(54)	10.3	10.3	12.8	1.3	.6	1.9	2.6	1.9	25.6	11.5	17.3	1.3	1.3	1.3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3.2	8.0	10.7	5.0	6.4	1.2	1.8	.3	22.6	9.2	20.4	.8	.2	.2	100.0
기혼	(1629)	18.4	14.4	16.4	4.9	1.2	1.1	1.2	1.2	19.7	12.4	7.7	.9	.4	.1	100.0
지역																
서울	(577)	14.8	12.1	11.9	4.5	4.0	1.3	1.6	.9	21.4	10.8	15.4	.6	.4	.2	100.0
부산	(210)	4.6	13.5	16.6	11.0	4.1	1.1	3.2	.2	23.9	14.5	7.3	.0	.0	.0	100.0
대구	(138)	13.2	12.9	18.3	7.6	2.7	.5	.2	.2	22.2	15.9	4.9	1.0	.5	.0	100.0
인천	(134)	14.1	14.1	14.4	6.3	3.0	1.0	2.0	1.5	20.2	9.1	12.4	1.8	.0	.0	100.0
광주	(71)	17.5	8.0	16.0	3.8	3.8	3.8	.9	.0	21.2	14.6	10.4	.0	.0	.0	100.0
대전	(72)	7.7	14.8	15.3	6.2	7.2	.0	1.4	.5	20.6	9.1	14.4	1.0	1.9	.0	100.0
울산	(54)	23.6	8.7	21.1	2.5	3.1	.0	.0	.6	18.0	11.8	8.7	1.9	.0	.0	100.0
경기	(485)	15.3	10.6	12.9	4.6	2.7	1.3	1.3	1.2	23.2	9.5	16.3	.6	.4	.0	100.0
강원	(81)	18.1	7.6	13.9	5.0	2.9	1.3	1.3	2.5	24.4	11.8	10.5	.0	.0	.8	100.0
충북	(75)	19.2	8.9	15.6	.9	2.2	.4	1.8	.0	25.9	13.8	10.7	.4	.0	.0	100.0
충남	(98)	21.2	13.8	8.8	5.7	2.5	1.4	1.1	.0	21.9	11.7	7.8	2.1	1.4	.7	100.0
전북	(104)	13.5	5.1	18.5	3.7	2.0	1.7	2.4	3.0	19.5	15.8	10.1	4.0	.0	.7	100.0
전남	(109)	33.6	4.6	27.2	2.1	1.5	.6	.0	.3	9.8	8.9	10.7	.6	.0	.0	100.0
경북	(145)	31.2	14.2	12.1	3.5	1.4	.7	1.2	1.7	13.7	9.9	9.0	.5	.5	.5	100.0
경남	(161)	20.5	25.7	11.6	2.3	1.5	1.2	.4	.0	16.0	9.1	11.2	.4	.0	.0	100.0

문18.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조금(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514)	68.2	31.8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00.0	.0	100.0
비직업인	(799)	.0	100.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00.0	.0	100.0
100~199만원	(768)	99.9	.1	100.0
200~299만원	(327)	99.7	.3	100.0
300~399만원	(96)	100.0	.0	100.0
400만원 이상	(60)	100.0	.0	100.0
무응답	(13)	100.0	.0	100.0
경제수준				
상	(44)	65.9	34.1	100.0
중상	(1054)	65.2	34.8	100.0
중하	(1202)	70.5	29.5	100.0
하	(160)	73.1	26.9	100.0
무응답	(54)	64.8	35.2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57.2	42.8	100.0
기혼	(1629)	74.2	25.8	100.0
지역				
서울	(577)	66.7	33.3	100.0
부산	(210)	64.3	35.7	100.0
대구	(138)	64.5	35.5	100.0
인천	(134)	75.4	24.6	100.0
광주	(71)	67.6	32.4	100.0
대전	(72)	79.2	20.8	100.0
울산	(54)	53.7	46.3	100.0
경기	(485)	68.0	32.0	100.0
강원	(81)	63.0	37.0	100.0
충북	(75)	64.0	36.0	100.0
충남	(98)	68.4	31.6	100.0
전북	(104)	74.0	26.0	100.0
전남	(109)	67.9	32.1	100.0
경북	(145)	74.5	25.5	100.0
경남	(161)	72.0	28.0	100.0

문19. 【직업인】 귀하는 현 직장(일)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1> 1순위

	사례수	공공 직업 안전 기관 등록	민간 취업 알선 기관 등록	구인· 구직 정보	인터넷 사이트	채용· 취업 박람회	학교, 학원 추천	사업체 직접 방문	친구, 친지 소개	자영업 준비	인턴 사원제 통해	기타	없음	무응답	계
전체	(1715)	4.0	1.8	14.8	5.1	.9	6.9	6.7	39.7	16.1	.8	2.9	.1	.3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0	1.8	14.8	5.1	.9	6.9	6.7	39.7	16.1	.8	2.9	.1	.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5	2.1	15.9	5.4	.3	6.6	5.1	45.5	6.9	1.5	6.0	.3	.0	100.0
100~199만원	(767)	4.3	2.0	14.7	5.7	1.4	7.0	7.3	39.6	14.5	.8	2.1	.0	.5	100.0
200~299만원	(326)	3.7	1.5	14.4	3.7	.6	6.4	7.7	37.7	22.1	.6	.9	.3	.3	100.0
300~399만원	(96)	3.1	2.1	16.7	3.1	.0	11.5	6.3	29.2	25.0	.0	3.1	.0	.0	100.0
400만원 이상	(60)	5.0	.0	8.3	1.7	1.7	11.7	10.0	20.0	40.0	.0	1.7	.0	.0	100.0
무응답	(13)	.0	7.7	15.4	.0	.0	.0	.0	46.2	15.4	.0	7.7	.0	7.7	100.0
경제수준															
상	(29)	3.4	.0	3.4	3.4	.0	17.2	3.4	31.0	27.6	3.4	6.9	.0	.0	100.0
중상	(687)	3.2	1.5	12.8	6.3	1.0	9.0	6.6	37.3	18.2	.7	3.3	.0	.1	100.0
중하	(847)	4.6	2.0	16.6	4.6	.8	5.7	7.3	40.0	14.6	.8	2.1	.1	.6	100.0
하	(117)	3.4	2.6	17.9	1.7	.9	2.6	6.0	50.4	11.1	.0	3.4	.0	.0	100.0
무응답	(35)	5.7	2.9	5.7	5.7	.0	2.9	.0	51.4	17.1	.0	5.7	2.9	.0	100.0
혼인상태															
미혼	(506)	4.5	1.8	16.0	9.9	.8	11.3	4.9	39.9	7.7	1.4	1.8	.0	.0	100.0
기혼	1209	3.7	1.8	14.2	3.1	.9	5.1	7.4	39.6	19.6	.5	3.3	.2	.5	100.0
지역															
서울	(385)	3.6	1.8	10.4	10.1	.5	9.1	7.8	37.9	14.0	2.3	2.3	.0	.0	100.0
부산	(135)	5.2	1.5	13.3	3.0	2.2	6.7	6.7	43.7	16.3	.7	.7	.0	.0	100.0
대구	(89)	3.4	1.1	14.6	3.4	.0	3.4	5.6	50.6	15.7	.0	2.2	.0	.0	100.0
인천	(101)	3.0	1.0	18.8	6.9	2.0	6.9	5.0	39.6	12.9	1.0	3.0	.0	.0	100.0
광주	(48)	14.6	.0	14.6	6.3	4.2	4.2	2.1	31.3	22.9	.0	.0	.0	.0	100.0
대전	(57)	1.8	1.8	19.3	5.3	.0	7.0	17.5	36.8	7.0	.0	3.5	.0	.0	100.0
울산	(29)	3.4	3.4	3.4	3.4	.0	6.9	.0	20.7	51.7	.0	6.9	.0	.0	100.0
경기	(330)	3.3	1.5	15.2	6.1	.3	8.5	7.3	42.1	13.0	.0	1.8	.3	.6	100.0
강원	(51)	7.8	3.9	5.9	2.0	2.0	5.9	5.9	58.8	3.9	.0	3.9	.0	.0	100.0
충북	(48)	2.1	.0	14.6	4.2	.0	4.2	4.2	58.3	10.4	2.1	.0	.0	.0	100.0
충남	(67)	3.0	1.5	28.4	.0	3.0	9.0	4.5	43.3	4.5	.0	3.0	.0	.0	100.0
전북	(77)	1.3	1.3	13.0	1.3	2.6	11.7	6.5	33.8	24.7	.0	3.9	.0	.0	100.0
전남	(74)	9.5	1.4	25.7	.0	.0	2.7	2.7	24.3	27.0	1.4	1.4	.0	4.1	100.0
경북	(108)	.0	2.8	11.1	.0	.0	5.6	6.5	35.2	27.8	.0	11.1	.0	.0	100.0
경남	(116)	5.2	4.3	20.7	2.6	.0	.9	7.8	35.3	18.1	.0	3.4	.9	.9	100.0

문19. 【직업인】 귀하는 현 직장(일)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2> 2순위

	사례수	공공직업안전기관등록	민간취업알선기관등록	구인·구직정보	인터넷사이트	채용·취업박람회	학교, 학원추천	사업체직접방문	친구, 친지소개	자영업준비	인턴사원제통해	기타	계
전체	1240	3.2	3.1	20.2	8.9	2.0	5.1	14.1	27.1	11.0	1.3	4.0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240	3.2	3.1	20.2	8.9	2.0	5.1	14.1	27.1	11.0	1.3	4.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248)	4.4	3.6	22.2	10.9	1.2	3.6	16.5	26.6	7.7	.4	2.8	100.0
100~199만원	(569)	3.2	4.0	20.2	5.4	1.9	6.3	13.9	27.6	11.1	2.3	4.0	100.0
200~299만원	(224)	1.8	1.8	17.9	11.6	2.2	4.0	11.6	26.8	16.1	.4	5.8	100.0
300~399만원	(64)	4.7	3.1	21.9	7.8	1.6	3.1	15.6	26.6	7.8	1.6	6.3	100.0
400만원 이상	(43)	2.3	.0	11.6	4.7	4.7	4.7	23.3	30.2	16.3	.0	2.3	100.0
무응답	(10)	.0	.0	20.0	20.0	.0	.0	20.0	30.0	10.0	.0	.0	100.0
경제수준													
상	(15)	6.7	6.7	33.3	6.7	.0	.0	20.0	20.0	.0	6.7	.0	100.0
중상	(515)	2.3	2.7	17.5	9.3	2.1	4.7	14.4	27.4	12.6	2.1	4.9	100.0
중하	(605)	3.8	3.0	21.7	7.8	2.0	5.5	13.2	28.4	10.4	.7	3.6	100.0
하	(80)	5.0	5.0	23.8	11.3	.0	6.3	18.8	20.0	7.5	.0	2.5	100.0
무응답	(25)	.0	4.0	20.0	20.0	8.0	4.0	12.0	16.0	12.0	.0	4.0	100.0
혼인상태													
미혼	(386)	3.1	3.6	19.7	14.0	1.8	5.2	16.1	25.1	4.4	2.3	4.7	100.0
기혼	(854)	3.3	2.8	20.4	6.6	2.1	5.0	13.2	28.0	14.1	.8	3.7	100.0
지역													
서울	(297)	2.4	3.7	20.9	11.8	2.4	4.7	13.1	27.3	8.8	2.0	3.0	100.0
부산	(122)	6.6	4.1	32.8	4.9	.0	4.1	10.7	29.5	6.6	.8	.0	100.0
대구	(68)	1.5	.0	19.1	4.4	2.9	1.5	17.6	25.0	27.9	.0	.0	100.0
인천	(78)	3.8	3.8	16.7	14.1	2.6	5.1	12.8	19.2	10.3	.0	11.5	100.0
광주	(46)	6.5	2.2	19.6	4.3	6.5	.0	10.9	30.4	19.6	.0	.0	100.0
대전	(35)	.0	2.9	22.9	5.7	2.9	11.4	25.7	11.4	8.6	5.7	2.9	100.0
울산	(14)	.0	.0	7.1	14.3	.0	.0	7.1	50.0	14.3	.0	7.1	100.0
경기	(221)	2.7	4.1	19.5	13.6	2.3	6.3	13.1	21.3	7.7	1.8	7.7	100.0
강원	(41)	2.4	.0	14.6	9.8	.0	4.9	24.4	31.7	7.3	.0	4.9	100.0
충북	(29)	.0	.0	20.7	3.4	3.4	.0	17.2	31.0	13.8	.0	10.3	100.0
충남	(44)	6.8	.0	22.7	2.3	2.3	11.4	15.9	31.8	4.5	2.3	.0	100.0
전북	(42)	.0	4.8	9.5	2.4	2.4	4.8	16.7	33.3	16.7	4.8	4.8	100.0
전남	(51)	.0	5.9	13.7	7.8	.0	9.8	13.7	21.6	23.5	.0	3.9	100.0
경북	(61)	9.8	1.6	14.8	3.3	1.6	4.9	9.8	32.8	19.7	.0	1.6	100.0
경남	(91)	2.2	2.2	20.9	6.6	1.1	4.4	16.5	37.4	5.5	.0	3.3	100.0

문19. 【직업인】 귀하는 현 직장(일)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3> 우선순위 가중종합

	사례수	공공 직업 안전 기관 등록	민간 취업 알선 기관 등록	구인 · 구직 정보	인터넷 사이트	채용 · 취업 박람회	학교, 학원 추천	사업체 직접 방문	친구, 친지 소개	자영업 준비	인턴 사원제 통해	기타	없음	무응답	계
전체	1715	3.8	2.1	16.2	6.1	1.2	6.4	8.7	36.4	14.8	.9	3.2	.1	.3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8	2.1	16.2	6.1	1.2	6.4	8.7	36.4	14.8	.9	3.2	.1	.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5	2.5	17.6	6.9	.5	5.8	8.2	40.4	7.1	1.2	5.1	.2	.0	100.0
100~199만원	(767)	4.0	2.5	16.2	5.7	1.6	6.8	9.1	36.4	13.6	1.2	2.6	.0	.4	100.0
200~299만원	(326)	3.2	1.6	15.3	5.7	1.0	5.8	8.7	34.9	20.5	.6	2.2	.2	.2	100.0
300~399만원	(96)	3.5	2.3	18.0	4.3	.4	9.4	8.6	28.5	20.7	.4	3.9	.0	.0	100.0
400만원 이상	(60)	4.3	.0	9.2	2.5	2.5	9.8	13.5	22.7	33.7	.0	1.8	.0	.0	100.0
무응답	(13)	.0	5.6	16.7	5.6	.0	.0	5.6	41.7	13.9	.0	5.6	.0	5.6	100.0
경제수준															
상	(29)	4.1	1.4	9.6	4.1	.0	13.7	6.8	28.8	21.9	4.1	5.5	.0	.0	100.0
중상	(687)	3.0	1.8	14.1	7.1	1.3	7.8	8.7	34.6	16.7	1.1	3.8	.0	.1	100.0
중하	(847)	4.4	2.3	18.0	5.4	1.1	5.6	8.9	37.0	13.5	.8	2.5	.1	.4	100.0
하	(117)	3.8	3.2	19.4	4.1	.6	3.5	9.2	42.7	10.2	.0	3.2	.0	.0	100.0
무응답	(35)	4.2	3.2	9.5	9.5	2.1	3.2	3.2	42.1	15.8	.0	5.3	2.1	.0	100.0
혼인상태															
미혼	(506)	4.1	2.3	17.0	11.0	1.1	9.6	8.0	35.8	6.8	1.6	2.6	.0	.0	100.0
기혼	1209	3.6	2.1	15.8	4.0	1.2	5.1	9.0	36.6	18.2	.6	3.4	.1	.4	100.0
지역															
서울	(385)	3.3	2.3	13.3	10.6	1.0	7.9	9.3	35.0	12.6	2.2	2.5	.0	.0	100.0
부산	(135)	5.6	2.3	19.4	3.6	1.5	5.9	7.9	39.3	13.3	.8	.5	.0	.0	100.0
대구	(89)	2.8	.8	15.9	3.7	.8	2.8	8.9	43.5	19.1	.0	1.6	.0	.0	100.0
인천	(101)	3.2	1.8	18.2	8.9	2.1	6.4	7.1	33.9	12.1	.7	5.4	.0	.0	100.0
광주	(48)	12.0	.7	16.2	5.6	4.9	2.8	4.9	31.0	21.8	.0	.0	.0	.0	100.0
대전	(57)	1.3	2.0	20.1	5.4	.7	8.1	19.5	30.9	7.4	1.3	3.4	.0	.0	100.0
울산	(29)	2.8	2.8	4.2	5.6	.0	5.6	1.4	26.4	44.4	.0	6.9	.0	.0	100.0
경기	(330)	3.2	2.2	16.2	7.9	.8	7.9	8.7	36.9	11.7	.5	3.3	.2	.5	100.0
강원	(51)	6.3	2.8	8.4	4.2	1.4	5.6	11.2	51.0	4.9	.0	4.2	.0	.0	100.0
충북	(48)	1.6	.0	16.0	4.0	.8	3.2	7.2	52.0	11.2	1.6	2.4	.0	.0	100.0
충남	(67)	3.9	1.1	27.0	.6	2.8	9.6	7.3	40.4	4.5	.6	2.2	.0	.0	100.0
전북	(77)	1.0	2.0	12.2	1.5	2.6	10.2	8.7	33.7	23.0	1.0	4.1	.0	.0	100.0
전남	(74)	7.0	2.5	22.6	2.0	.0	4.5	5.5	23.6	26.1	1.0	2.0	.0	3.0	100.0
경북	(108)	2.2	2.5	11.9	.7	.4	5.4	7.2	34.7	26.0	.0	9.0	.0	.0	100.0
경남	(116)	4.3	3.7	20.7	3.7	.3	1.9	10.2	35.9	14.6	.0	3.4	.6	.6	100.0

문20. 귀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계	4점 평균(R)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715)	12.1	58.1	24.5	5.3	70.2	29.8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2.1	58.1	24.5	5.3	70.2	29.8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6	49.7	30.8	9.9	59.3	40.7	100.0	2.6
100~199만원	(767)	11.2	59.2	25.3	4.3	70.4	29.6	100.0	2.8
200~299만원	(326)	16.0	62.3	19.0	2.8	78.2	21.8	100.0	2.9
300~399만원	(96)	15.6	68.8	11.5	4.2	84.4	15.6	100.0	3.0
400만원 이상	(60)	23.3	65.0	11.7	.0	88.3	11.7	100.0	3.1
무응답	(13)	7.7	69.2	23.1	.0	76.9	23.1	100.0	2.8
경제수준									
상	(29)	10.3	69.0	20.7	.0	79.3	20.7	100.0	2.9
중상	(687)	15.7	60.8	19.8	3.6	76.6	23.4	100.0	2.9
중하	(847)	9.7	57.1	26.7	6.5	66.8	33.2	100.0	2.7
하	(117)	5.1	48.7	36.8	9.4	53.8	46.2	100.0	2.5
무응답	(35)	25.7	48.6	25.7	.0	74.3	25.7	100.0	3.0
혼인상태									
미혼	(506)	13.0	54.3	24.9	7.7	67.4	32.6	100.0	2.7
기혼	(1209)	11.7	59.6	24.3	4.3	71.4	28.6	100.0	2.8
지역									
서울	(385)	15.1	61.6	19.5	3.9	76.6	23.4	100.0	2.9
부산	(135)	4.4	54.8	34.1	6.7	59.3	40.7	100.0	2.6
대구	(89)	18.0	48.3	25.8	7.9	66.3	33.7	100.0	2.8
인천	(101)	6.9	60.4	25.7	6.9	67.3	32.7	100.0	2.7
광주	(48)	10.4	54.2	25.0	10.4	64.6	35.4	100.0	2.6
대전	(57)	7.0	63.2	24.6	5.3	70.2	29.8	100.0	2.7
울산	(29)	13.8	44.8	34.5	6.9	58.6	41.4	100.0	2.7
경기	(330)	15.2	57.6	23.3	3.9	72.7	27.3	100.0	2.8
강원	(51)	9.8	52.9	31.4	5.9	62.7	37.3	100.0	2.7
충북	(48)	12.5	64.6	20.8	2.1	77.1	22.9	100.0	2.9
충남	(67)	7.5	70.1	17.9	4.5	77.6	22.4	100.0	2.8
전북	(77)	24.7	41.6	24.7	9.1	66.2	33.8	100.0	2.8
전남	(74)	1.4	70.3	25.7	2.7	71.6	28.4	100.0	2.7
경북	(108)	12.0	53.7	25.9	8.3	65.7	34.3	100.0	2.7
경남	(116)	7.8	59.5	28.4	4.3	67.2	32.8	100.0	2.7

문20-1. 위에서 3), 4)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이유를 다음 중 한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사례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서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서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	직업을 바꾸기 힘들어서	책임감	병역의무 때문	무응답	계
전체	(511)	61.3	13.7	4.1	4.9	3.7	10.4	.8	.4	.2	.2	.2	.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511)	61.3	13.7	4.1	4.9	3.7	10.4	.8	.4	.2	.2	.2	.2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136)	61.8	10.3	3.7	5.9	2.9	12.5	1.5	.7	.0	.0	.7	.0	100.0
100~199만원	(227)	63.0	15.0	4.0	4.0	3.1	10.1	.4	.0	.0	.4	.0	.0	100.0
200~299만원	(71)	56.3	16.9	4.2	5.6	4.2	11.3	.0	.0	1.4	.0	.0	.0	100.0
300~399만원	(15)	73.3	.0	.0	.0	26.7	.0	.0	.0	.0	.0	.0	.0	100.0
400만원 이상	(7)	57.1	.0	.0	14.3	14.3	.0	.0	.0	.0	.0	.0	14.3	100.0
무응답	(3)	66.7	.0	.0	.0	.0	33.3	.0	.0	.0	.0	.0	.0	100.0
경제수준														
상	(6)	16.7	16.7	16.7	.0	16.7	16.7	.0	.0	.0	.0	16.7	.0	100.0
중상	(161)	55.3	11.2	3.7	6.8	7.5	13.7	1.2	.0	.0	.0	.0	.6	100.0
중하	(281)	63.7	15.3	4.3	4.6	1.4	9.3	.0	.7	.4	.4	.0	.0	100.0
하	(54)	66.7	13.0	3.7	1.9	3.7	7.4	3.7	.0	.0	.0	.0	.0	100.0
무응답	(9)	88.9	11.1	.0	.0	.0	.0	.0	.0	.0	.0	.0	.0	100.0
혼인상태														
미혼	(165)	50.9	21.2	6.7	4.2	2.4	11.5	1.2	1.2	.0	.0	.6	.0	100.0
기혼	(346)	66.2	10.1	2.9	5.2	4.3	9.8	.6	.0	.3	.3	.0	.3	100.0
지역														
서울	(90)	61.1	10.0	3.3	4.4	6.7	11.1	.0	1.1	.0	.0	1.1	1.1	100.0
부산	(55)	70.9	9.1	.0	3.6	5.5	7.3	1.8	1.8	.0	.0	.0	.0	100.0
대구	(30)	46.7	6.7	3.3	13.3	6.7	20.0	.0	.0	3.3	.0	.0	.0	100.0
인천	(33)	63.6	12.1	12.1	3.0	3.0	6.1	.0	.0	.0	.0	.0	.0	100.0
광주	(17)	52.9	29.4	.0	5.9	11.8	.0	.0	.0	.0	.0	.0	.0	100.0
대전	(17)	47.1	29.4	.0	5.9	.0	11.8	5.9	.0	.0	.0	.0	.0	100.0
울산	(12)	58.3	25.0	.0	.0	.0	16.7	.0	.0	.0	.0	.0	.0	100.0
경기	(90)	56.7	16.7	5.6	6.7	1.1	10.0	2.2	.0	.0	1.1	.0	.0	100.0
강원	(19)	68.4	5.3	.0	.0	.0	26.3	.0	.0	.0	.0	.0	.0	100.0
충북	(11)	27.3	27.3	.0	18.2	9.1	18.2	.0	.0	.0	.0	.0	.0	100.0
충남	(15)	46.7	20.0	13.3	13.3	.0	6.7	.0	.0	.0	.0	.0	.0	100.0
전북	(26)	65.4	23.1	.0	3.8	.0	7.7	.0	.0	.0	.0	.0	.0	100.0
전남	(21)	71.4	4.8	4.8	.0	.0	19.0	.0	.0	.0	.0	.0	.0	100.0
경북	(37)	67.6	10.8	5.4	2.7	5.4	8.1	.0	.0	.0	.0	.0	.0	100.0
경남	(38)	76.3	10.5	7.9	.0	2.6	2.6	.0	.0	.0	.0	.0	.0	100.0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직무에 대한 자율성 없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R)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1715)	15.2	51.0	28.7	5.0	.1	66.2	33.8	.1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5.2	51.0	28.7	5.0	.1	66.2	33.8	.1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0	48.5	35.3	4.2	.0	60.5	39.5	.0	100.0	2.7
100~199만원	(767)	13.7	52.2	29.5	4.6	.1	65.8	34.0	.1	100.0	2.8
200~299만원	(326)	17.5	51.8	24.8	5.8	.0	69.3	30.7	.0	100.0	2.8
300~399만원	(96)	20.8	55.2	16.7	7.3	.0	76.0	24.0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25.0	56.7	15.0	3.3	.0	81.7	18.3	.0	100.0	3.0
무응답	(13)	38.5	30.8	23.1	7.7	.0	69.2	30.8	.0	100.0	3.0
경제수준											
상	(29)	27.6	44.8	20.7	6.9	.0	72.4	27.6	.0	100.0	2.9
중상	(687)	14.4	52.1	27.7	5.8	.0	66.5	33.5	.0	100.0	2.8
중하	(847)	14.6	51.5	29.4	4.4	.1	66.1	33.8	.1	100.0	2.8
하	(117)	19.7	41.9	32.5	6.0	.0	61.5	38.5	.0	100.0	2.8
무응답	(35)	20.0	51.4	28.6	.0	.0	71.4	28.6	.0	100.0	2.9
혼인상태											
미혼	(506)	10.9	53.4	32.8	3.0	.0	64.2	35.8	.0	100.0	2.7
기혼	(1209)	17.0	50.0	27.0	5.9	.1	67.0	32.9	.1	100.0	2.8
지역											
서울	(385)	12.5	56.6	27.5	3.4	.0	69.1	30.9	.0	100.0	2.8
부산	(135)	8.9	45.9	40.0	5.2	.0	54.8	45.2	.0	100.0	2.6
대구	(89)	15.7	55.1	25.8	3.4	.0	70.8	29.2	.0	100.0	2.8
인천	(101)	17.8	38.6	34.7	8.9	.0	56.4	43.6	.0	100.0	2.7
광주	(48)	8.3	56.3	29.2	6.3	.0	64.6	35.4	.0	100.0	2.7
대전	(57)	3.5	45.6	42.1	8.8	.0	49.1	50.9	.0	100.0	2.4
울산	(29)	13.8	48.3	34.5	3.4	.0	62.1	37.9	.0	100.0	2.7
경기	(330)	17.0	52.1	24.8	5.8	.3	69.1	30.6	.3	100.0	2.8
강원	(51)	11.8	41.2	39.2	7.8	.0	52.9	47.1	.0	100.0	2.6
충북	(48)	22.9	43.8	29.2	4.2	.0	66.7	33.3	.0	100.0	2.9
충남	(67)	6.0	41.8	49.3	3.0	.0	47.8	52.2	.0	100.0	2.5
전북	(77)	29.9	49.4	14.3	6.5	.0	79.2	20.8	.0	100.0	3.0
전남	(74)	2.7	55.4	31.1	10.8	.0	58.1	41.9	.0	100.0	2.5
경북	(108)	41.7	36.1	19.4	2.8	.0	77.8	22.2	.0	100.0	3.2
경남	(116)	10.3	68.1	19.8	1.7	.0	78.4	21.6	.0	100.0	2.9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직무에 대한 역할갈등 및 모호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R)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1715)	12.9	53.4	30.5	3.2	.1	66.2	33.7	.1	100.0	2.8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2.9	53.4	30.5	3.2	.1	66.2	33.7	.1	100.0	2.8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8	54.8	33.5	3.9	.0	62.6	37.4	.0	100.0	2.7
100~199만원	(767)	11.2	55.0	30.2	3.4	.1	66.2	33.6	.1	100.0	2.7
200~299만원	(326)	16.3	53.4	27.0	3.4	.0	69.6	30.4	.0	100.0	2.8
300~399만원	(96)	19.8	44.8	33.3	2.1	.0	64.6	35.4	.0	100.0	2.8
400만원 이상	(60)	21.7	55.0	23.3	.0	.0	76.7	23.3	.0	100.0	3.0
무응답	(13)	38.5	23.1	38.5	.0	.0	61.5	38.5	.0	100.0	3.0
경제수준											
상	(29)	24.1	48.3	27.6	.0	.0	72.4	27.6	.0	100.0	3.0
중상	(687)	11.8	53.4	32.0	2.8	.0	65.2	34.8	.0	100.0	2.7
중하	(847)	12.6	54.1	29.8	3.4	.1	66.7	33.2	.1	100.0	2.8
하	(117)	15.4	47.0	31.6	6.0	.0	62.4	37.6	.0	100.0	2.7
무응답	(35)	22.9	60.0	17.1	.0	.0	82.9	17.1	.0	100.0	3.1
혼인상태											
미혼	(506)	10.5	54.5	32.0	3.0	.0	65.0	35.0	.0	100.0	2.7
기혼	(1209)	13.9	52.9	29.9	3.3	.1	66.7	33.2	.1	100.0	2.8
지역											
서울	(385)	13.2	54.8	30.6	1.3	.0	68.1	31.9	.0	100.0	2.8
부산	(135)	8.1	57.0	30.4	4.4	.0	65.2	34.8	.0	100.0	2.7
대구	(89)	14.6	57.3	24.7	3.4	.0	71.9	28.1	.0	100.0	2.8
인천	(101)	15.8	46.5	33.7	4.0	.0	62.4	37.6	.0	100.0	2.7
광주	(48)	12.5	68.8	18.8	.0	.0	81.3	18.8	.0	100.0	2.9
대전	(57)	3.5	63.2	31.6	1.8	.0	66.7	33.3	.0	100.0	2.7
울산	(29)	3.4	51.7	34.5	10.3	.0	55.2	44.8	.0	100.0	2.5
경기	(330)	14.8	47.9	33.6	3.3	.3	62.7	37.0	.3	100.0	2.7
강원	(51)	2.0	37.3	54.9	5.9	.0	39.2	60.8	.0	100.0	2.4
충북	(48)	16.7	41.7	37.5	4.2	.0	58.3	41.7	.0	100.0	2.7
충남	(67)	3.0	52.2	41.8	3.0	.0	55.2	44.8	.0	100.0	2.6
전북	(77)	11.7	54.5	29.9	3.9	.0	66.2	33.8	.0	100.0	2.7
전남	(74)	4.1	58.1	36.5	1.4	.0	62.2	37.8	.0	100.0	2.6
경북	(108)	35.2	38.0	18.5	8.3	.0	73.1	26.9	.0	100.0	3.0
경남	(116)	9.5	75.0	13.8	1.7	.0	84.5	15.5	.0	100.0	2.9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직무에 대한 업무량 과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R)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1715)	8.2	47.6	34.1	10.0	.1	55.8	44.1	.1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8.2	47.6	34.1	10.0	.1	55.8	44.1	.1	100.0	2.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2	47.9	31.4	13.2	.3	55.1	44.6	.3	100.0	2.5
100~199만원	(767)	7.3	48.6	33.6	10.3	.1	55.9	43.9	.1	100.0	2.5
200~299만원	(326)	8.0	46.9	37.4	7.7	.0	54.9	45.1	.0	100.0	2.6
300~399만원	(96)	11.5	34.4	39.6	14.6	.0	45.8	54.2	.0	100.0	2.4
400만원 이상	(60)	11.7	53.3	30.0	5.0	.0	65.0	35.0	.0	100.0	2.7
무응답	(13)	15.4	53.8	30.8	.0	.0	69.2	30.8	.0	100.0	2.8
경제수준											
상	(29)	13.8	62.1	24.1	.0	.0	75.9	24.1	.0	100.0	2.9
중상	(687)	7.6	46.1	37.3	9.0	.0	53.7	46.3	.0	100.0	2.5
중하	(847)	7.6	49.1	33.2	10.0	.1	56.7	43.2	.1	100.0	2.5
하	(117)	12.0	42.7	26.5	17.9	.9	54.7	44.4	.9	100.0	2.5
무응답	(35)	20.0	42.9	28.6	8.6	.0	62.9	37.1	.0	100.0	2.7
혼인상태											
미혼	(506)	9.1	50.2	33.2	7.3	.2	59.3	40.5	.2	100.0	2.6
기혼	(1209)	7.9	46.5	34.5	11.1	.1	54.3	45.6	.1	100.0	2.5
지역											
서울	(385)	10.4	52.2	32.7	4.7	.0	62.6	37.4	.0	100.0	2.7
부산	(135)	5.9	39.3	36.3	18.5	.0	45.2	54.8	.0	100.0	2.3
대구	(89)	9.0	56.2	27.0	7.9	.0	65.2	34.8	.0	100.0	2.7
인천	(101)	3.0	51.5	32.7	11.9	1.0	54.5	44.6	1.0	100.0	2.5
광주	(48)	2.1	37.5	35.4	25.0	.0	39.6	60.4	.0	100.0	2.2
대전	(57)	1.8	45.6	45.6	7.0	.0	47.4	52.6	.0	100.0	2.4
울산	(29)	10.3	44.8	37.9	6.9	.0	55.2	44.8	.0	100.0	2.6
경기	(330)	11.8	45.8	33.0	9.1	.3	57.6	42.1	.3	100.0	2.6
강원	(51)	5.9	56.9	27.5	9.8	.0	62.7	37.3	.0	100.0	2.6
충북	(48)	10.4	50.0	31.3	8.3	.0	60.4	39.6	.0	100.0	2.6
충남	(67)	1.5	44.8	44.8	9.0	.0	46.3	53.7	.0	100.0	2.4
전북	(77)	11.7	39.0	33.8	15.6	.0	50.6	49.4	.0	100.0	2.5
전남	(74)	5.4	40.5	54.1	.0	.0	45.9	54.1	.0	100.0	2.5
경북	(108)	10.2	36.1	28.7	25.0	.0	46.3	53.7	.0	100.0	2.3
경남	(116)	4.3	60.3	29.3	6.0	.0	64.7	35.3	.0	100.0	2.6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4) 직장내 동료관계 문제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R)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1715)	25.7	55.6	16.3	2.3	.1	81.3	18.6	.1	100.0	3.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5.7	55.6	16.3	2.3	.1	81.3	18.6	.1	100.0	3.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1.3	58.4	18.0	2.4	.0	79.6	20.4	.0	100.0	3.0
100~199만원	(767)	24.6	56.2	17.1	2.0	.1	80.8	19.0	.1	100.0	3.0
200~299만원	(326)	29.4	54.6	13.8	2.1	.0	84.0	16.0	.0	100.0	3.1
300~399만원	(96)	26.0	50.0	18.8	5.2	.0	76.0	24.0	.0	100.0	3.0
400만원 이상	(60)	30.0	51.7	15.0	3.3	.0	81.7	18.3	.0	100.0	3.1
무응답	(13)	46.2	23.1	23.1	7.7	.0	69.2	30.8	.0	100.0	3.1
경제수준											
상	(29)	41.4	48.3	10.3	.0	.0	89.7	10.3	.0	100.0	3.3
중상	(687)	26.6	54.3	16.4	2.6	.0	80.9	19.1	.0	100.0	3.0
중하	(847)	24.1	56.6	16.9	2.4	.1	80.6	19.2	.1	100.0	3.0
하	(117)	24.8	61.5	12.8	.9	.0	86.3	13.7	.0	100.0	3.1
무응답	(35)	37.1	45.7	17.1	.0	.0	82.9	17.1	.0	100.0	3.2
혼인상태											
미혼	(506)	22.7	56.5	18.4	2.4	.0	79.2	20.8	.0	100.0	3.0
기혼	(1209)	27.0	55.3	15.5	2.2	.1	82.2	17.7	.1	100.0	3.1
지역											
서울	(385)	26.8	55.3	16.6	1.3	.0	82.1	17.9	.0	100.0	3.1
부산	(135)	19.3	57.0	21.5	2.2	.0	76.3	23.7	.0	100.0	2.9
대구	(89)	36.0	43.8	15.7	4.5	.0	79.8	20.2	.0	100.0	3.1
인천	(101)	28.7	49.5	19.8	2.0	.0	78.2	21.8	.0	100.0	3.0
광주	(48)	22.9	54.2	16.7	6.3	.0	77.1	22.9	.0	100.0	2.9
대전	(57)	17.5	70.2	12.3	.0	.0	87.7	12.3	.0	100.0	3.1
울산	(29)	34.5	44.8	20.7	.0	.0	79.3	20.7	.0	100.0	3.1
경기	(330)	26.1	54.8	15.8	3.0	.3	80.9	18.8	.3	100.0	3.0
강원	(51)	15.7	70.6	9.8	3.9	.0	86.3	13.7	.0	100.0	3.0
충북	(48)	41.7	54.2	4.2	.0	.0	95.8	4.2	.0	100.0	3.4
충남	(67)	7.5	61.2	26.9	4.5	.0	68.7	31.3	.0	100.0	2.7
전북	(77)	39.0	48.1	10.4	2.6	.0	87.0	13.0	.0	100.0	3.2
전남	(74)	17.6	60.8	21.6	.0	.0	78.4	21.6	.0	100.0	3.0
경북	(108)	38.0	41.7	15.7	4.6	.0	79.6	20.4	.0	100.0	3.1
경남	(116)	14.7	73.3	12.1	.0	.0	87.9	12.1	.0	100.0	3.0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5) 직장내 승진 어려움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그렇지 않음	종합: 그러함	종합: 무응답	계	4점 평균(R)
전체	(1715)	25.1	44.0	25.0	5.6	.3	69.1	30.6	.3	100.0	2.9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5.1	44.0	25.0	5.6	.3	69.1	30.6	.3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9.8	43.7	28.7	7.8	.0	63.5	36.5	.0	100.0	2.8
100~199만원	(767)	22.7	42.9	28.7	5.3	.4	65.6	34.0	.4	100.0	2.8
200~299만원	(326)	27.0	48.8	18.1	6.1	.0	75.8	24.2	.0	100.0	3.0
300~399만원	(96)	31.3	44.8	19.8	3.1	1.0	76.0	22.9	1.0	100.0	3.1
400만원 이상	(60)	38.3	43.3	13.3	3.3	1.7	81.7	16.7	1.7	100.0	3.2
무응답	(13)	30.8	38.5	23.1	7.7	.0	69.2	30.8	.0	100.0	2.9
경제수준											
상	(29)	34.5	48.3	17.2	.0	.0	82.8	17.2	.0	100.0	3.2
중상	(687)	26.3	44.4	24.5	4.5	.3	70.7	29.0	.3	100.0	2.9
중하	(847)	23.6	43.6	26.6	6.0	.2	67.2	32.6	.2	100.0	2.8
하	(117)	23.1	42.7	21.4	12.0	.9	65.8	33.3	.9	100.0	2.8
무응답	(35)	34.3	48.6	17.1	.0	.0	82.9	17.1	.0	100.0	3.2
혼인상태											
미혼	(506)	20.2	46.0	28.9	4.7	.2	66.2	33.6	.2	100.0	2.8
기혼	(1209)	27.1	43.2	23.4	6.0	.3	70.3	29.4	.3	100.0	2.9
지역											
서울	(385)	23.4	50.6	22.6	2.9	.5	74.0	25.5	.5	100.0	3.0
부산	(135)	19.3	39.3	31.1	10.4	.0	58.5	41.5	.0	100.0	2.7
대구	(89)	34.8	46.1	13.5	5.6	.0	80.9	19.1	.0	100.0	3.1
인천	(101)	29.7	41.6	22.8	5.0	1.0	71.3	27.7	1.0	100.0	3.0
광주	(48)	20.8	52.1	22.9	4.2	.0	72.9	27.1	.0	100.0	2.9
대전	(57)	12.3	47.4	40.4	.0	.0	59.6	40.4	.0	100.0	2.7
울산	(29)	31.0	37.9	27.6	3.4	.0	69.0	31.0	.0	100.0	3.0
경기	(330)	28.5	40.6	23.0	7.3	.6	69.1	30.3	.6	100.0	2.9
강원	(51)	9.8	51.0	29.4	9.8	.0	60.8	39.2	.0	100.0	2.6
충북	(48)	31.3	43.8	20.8	4.2	.0	75.0	25.0	.0	100.0	3.0
충남	(67)	7.5	29.9	55.2	7.5	.0	37.3	62.7	.0	100.0	2.4
전북	(77)	35.1	39.0	19.5	6.5	.0	74.0	26.0	.0	100.0	3.0
전남	(74)	23.0	39.2	31.1	6.8	.0	62.2	37.8	.0	100.0	2.8
경북	(108)	43.5	37.0	11.1	8.3	.0	80.6	19.4	.0	100.0	3.2
경남	(116)	14.7	52.6	30.2	2.6	.0	67.2	32.8	.0	100.0	2.8

문21.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 중 경험하시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6)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봉급수준, 수당) 낮음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R)
							그렇지 않음	그러함	무응답		
전체	(1715)	10.0	39.8	38.3	11.7	.2	49.8	50.0	.2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0.0	39.8	38.3	11.7	.2	49.8	50.0	.2	100.0	2.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3	36.5	40.7	16.5	.0	42.8	57.2	.0	100.0	2.3
100~199만원	(767)	8.3	39.5	41.3	10.6	.3	47.8	51.9	.3	100.0	2.5
200~299만원	(326)	14.7	41.7	32.2	11.0	.3	56.4	43.3	.3	100.0	2.6
300~399만원	(96)	14.6	46.9	30.2	8.3	.0	61.5	38.5	.0	100.0	2.7
400만원 이상	(60)	26.7	36.7	30.0	6.7	.0	63.3	36.7	.0	100.0	2.8
무응답	(13)	7.7	15.4	53.8	23.1	.0	23.1	76.9	.0	100.0	2.1
경제수준											
상	(29)	31.0	48.3	17.2	3.4	.0	79.3	20.7	.0	100.0	3.1
중상	(687)	12.4	40.3	39.4	7.4	.4	52.7	46.9	.4	100.0	2.6
중하	(847)	7.2	39.9	38.3	14.5	.1	47.1	52.8	.1	100.0	2.4
하	(117)	11.1	32.5	37.6	18.8	.0	43.6	56.4	.0	100.0	2.4
무응답	(35)	11.4	42.9	34.3	11.4	.0	54.3	45.7	.0	100.0	2.5
혼인상태											
미혼	(506)	7.9	41.7	40.1	10.1	.2	49.6	50.2	.2	100.0	2.5
기혼	(1209)	10.9	39.0	37.5	12.4	.2	49.9	49.9	.2	100.0	2.5
지역											
서울	(385)	10.6	46.8	34.0	8.1	.5	57.4	42.1	.5	100.0	2.6
부산	(135)	6.7	40.0	35.6	17.8	.0	46.7	53.3	.0	100.0	2.4
대구	(89)	6.7	53.9	33.7	5.6	.0	60.7	39.3	.0	100.0	2.6
인천	(101)	9.9	31.7	43.6	14.9	.0	41.6	58.4	.0	100.0	2.4
광주	(48)	10.4	29.2	35.4	25.0	.0	39.6	60.4	.0	100.0	2.3
대전	(57)	5.3	35.1	56.1	3.5	.0	40.4	59.6	.0	100.0	2.4
울산	(29)	10.3	24.1	55.2	10.3	.0	34.5	65.5	.0	100.0	2.3
경기	(330)	12.7	37.6	36.7	12.4	.6	50.3	49.1	.6	100.0	2.5
강원	(51)	5.9	47.1	33.3	13.7	.0	52.9	47.1	.0	100.0	2.5
충북	(48)	6.3	43.8	35.4	14.6	.0	50.0	50.0	.0	100.0	2.4
충남	(67)	.0	34.3	53.7	11.9	.0	34.3	65.7	.0	100.0	2.2
전북	(77)	13.0	28.6	45.5	13.0	.0	41.6	58.4	.0	100.0	2.4
전남	(74)	20.3	28.4	45.9	5.4	.0	48.6	51.4	.0	100.0	2.6
경북	(108)	14.8	29.6	31.5	24.1	.0	44.4	55.6	.0	100.0	2.4
경남	(116)	5.2	51.7	37.9	5.2	.0	56.9	43.1	.0	100.0	2.6

문22.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1) 직무에 대해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무응답		
전체	(1715)	2.0	30.4	62.1	5.2	.3	32.4	67.3	.3	100.0	2.7
직업형태											
직업인	(1715)	2.0	30.4	62.1	5.2	.3	32.4	67.3	.3	100.0	2.7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2	37.4	54.2	3.9	.3	41.6	58.1	.3	100.0	2.6
100~199만원	(767)	1.6	32.1	60.5	5.3	.5	33.6	65.8	.5	100.0	2.7
200~299만원	(326)	1.2	24.5	68.7	5.5	.0	25.8	74.2	.0	100.0	2.8
300~399만원	(96)	2.1	17.7	71.9	8.3	.0	19.8	80.2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0	20.0	71.7	8.3	.0	20.0	80.0	.0	100.0	2.9
무응답	(13)	.0	23.1	69.2	7.7	.0	23.1	76.9	.0	100.0	2.8
경제수준											
상	(29)	.0	20.7	65.5	13.8	.0	20.7	79.3	.0	100.0	2.9
중상	(687)	1.2	25.5	66.1	7.0	.3	26.6	73.1	.3	100.0	2.8
중하	(847)	2.0	33.6	60.4	3.5	.4	35.7	64.0	.4	100.0	2.7
하	(117)	7.7	40.2	48.7	3.4	.0	47.9	52.1	.0	100.0	2.5
무응답	(35)	.0	22.9	65.7	11.4	.0	22.9	77.1	.0	100.0	2.9
혼인상태											
미혼	(506)	1.2	32.6	59.9	6.1	.2	33.8	66.0	.2	100.0	2.7
기혼	(1209)	2.3	29.4	63.0	4.9	.3	31.8	67.9	.3	100.0	2.7
지역											
서울	(385)	1.8	24.9	66.5	6.5	.3	26.8	73.0	.3	100.0	2.8
부산	(135)	2.2	37.8	59.3	.7	.0	40.0	60.0	.0	100.0	2.6
대구	(89)	2.2	29.2	64.0	4.5	.0	31.5	68.5	.0	100.0	2.7
인천	(101)	1.0	31.7	64.4	3.0	.0	32.7	67.3	.0	100.0	2.7
광주	(48)	.0	35.4	58.3	6.3	.0	35.4	64.6	.0	100.0	2.7
대전	(57)	1.8	24.6	68.4	3.5	1.8	26.3	71.9	1.8	100.0	2.8
울산	(29)	3.4	27.6	55.2	13.8	.0	31.0	69.0	.0	100.0	2.8
경기	(330)	2.7	27.3	63.3	6.1	.6	30.0	69.4	.6	100.0	2.7
강원	(51)	2.0	49.0	41.2	7.8	.0	51.0	49.0	.0	100.0	2.5
충북	(48)	.0	43.8	52.1	4.2	.0	43.8	56.3	.0	100.0	2.6
충남	(67)	1.5	28.4	65.7	3.0	1.5	29.9	68.7	1.5	100.0	2.7
전북	(77)	.0	39.0	48.1	13.0	.0	39.0	61.0	.0	100.0	2.7
전남	(74)	.0	31.1	67.6	1.4	.0	31.1	68.9	.0	100.0	2.7
경북	(108)	6.5	24.1	63.9	5.6	.0	30.6	69.4	.0	100.0	2.7
경남	(116)	.9	37.1	59.5	2.6	.0	37.9	62.1	.0	100.0	2.6

문22.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2)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에 대해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무응답		
전체	(1715)	1.9	18.1	71.6	8.2	.2	20.0	79.8	.2	100.0	2.9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9	18.1	71.6	8.2	.2	20.0	79.8	.2	100.0	2.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4	21.3	67.7	8.7	.0	23.7	76.3	.0	100.0	2.8
100~199만원	(767)	1.7	16.8	74.7	6.5	.3	18.5	81.2	.3	100.0	2.9
200~299만원	(326)	3.1	17.5	69.9	9.5	.0	20.6	79.4	.0	100.0	2.9
300~399만원	(96)	1.0	15.6	72.9	9.4	1.0	16.7	82.3	1.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0	15.0	70.0	15.0	.0	15.0	85.0	.0	100.0	3.0
무응답	(13)	.0	7.7	53.8	38.5	.0	7.7	92.3	.0	100.0	3.3
경제수준											
상	(29)	3.4	6.9	69.0	20.7	.0	10.3	89.7	.0	100.0	3.1
중상	(687)	1.0	16.7	72.6	9.3	.3	17.8	82.0	.3	100.0	2.9
중하	(847)	2.5	19.4	71.2	6.8	.1	21.8	78.0	.1	100.0	2.8
하	(117)	2.6	22.2	67.5	7.7	.0	24.8	75.2	.0	100.0	2.8
무응답	(35)	2.9	8.6	77.1	11.4	.0	11.4	88.6	.0	100.0	3.0
혼인상태											
미혼	(506)	1.6	17.4	71.3	9.7	.0	19.0	81.0	.0	100.0	2.9
기혼	(1209)	2.1	18.4	71.7	7.6	.2	20.4	79.3	.2	100.0	2.9
지역											
서울	(385)	.5	14.0	77.1	8.3	.0	14.5	85.5	.0	100.0	2.9
부산	(135)	3.7	27.4	63.7	5.2	.0	31.1	68.9	.0	100.0	2.7
대구	(89)	3.4	16.9	73.0	6.7	.0	20.2	79.8	.0	100.0	2.8
인천	(101)	1.0	17.8	73.3	7.9	.0	18.8	81.2	.0	100.0	2.9
광주	(48)	.0	16.7	72.9	8.3	2.1	16.7	81.3	2.1	100.0	2.9
대전	(57)	.0	19.3	71.9	8.8	.0	19.3	80.7	.0	100.0	2.9
울산	(29)	6.9	24.1	48.3	17.2	3.4	31.0	65.5	3.4	100.0	2.8
경기	(330)	2.1	16.1	71.5	10.0	.3	18.2	81.5	.3	100.0	2.9
강원	(51)	2.0	17.6	68.6	11.8	.0	19.6	80.4	.0	100.0	2.9
충북	(48)	2.1	8.3	75.0	14.6	.0	10.4	89.6	.0	100.0	3.0
충남	(67)	.0	22.4	74.6	3.0	.0	22.4	77.6	.0	100.0	2.8
전북	(77)	5.2	16.9	66.2	11.7	.0	22.1	77.9	.0	100.0	2.8
전남	(74)	4.1	23.0	73.0	.0	.0	27.0	73.0	.0	100.0	2.7
경북	(108)	3.7	18.5	68.5	9.3	.0	22.2	77.8	.0	100.0	2.8
경남	(116)	.0	25.0	69.0	6.0	.0	25.0	75.0	.0	100.0	2.8

문22.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3) 근로조건에 대해(월소득,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무응답		
전체	(1715)	5.2	42.4	46.9	5.4	.1	47.6	52.2	.1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5.2	42.4	46.9	5.4	.1	47.6	52.2	.1	100.0	2.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6	50.0	37.1	3.3	.0	59.6	40.4	.0	100.0	2.3
100~199만원	(767)	3.8	44.1	47.3	4.6	.3	47.8	51.9	.3	100.0	2.5
200~299만원	(326)	5.2	36.5	52.5	5.8	.0	41.7	58.3	.0	100.0	2.6
300~399만원	(96)	5.2	28.1	57.3	9.4	.0	33.3	66.7	.0	100.0	2.7
400만원 이상	(60)	1.7	16.7	66.7	15.0	.0	18.3	81.7	.0	100.0	3.0
무응답	(13)	7.7	53.8	30.8	7.7	.0	61.5	38.5	.0	100.0	2.4
경제수준											
상	(29)	6.9	13.8	58.6	20.7	.0	20.7	79.3	.0	100.0	2.9
중상	(687)	3.2	35.7	53.6	7.6	.0	38.9	61.1	.0	100.0	2.7
중하	(847)	5.2	47.9	43.4	3.2	.2	53.1	46.6	.2	100.0	2.4
하	(117)	16.2	52.1	28.2	3.4	.0	68.4	31.6	.0	100.0	2.2
무응답	(35)	5.7	34.3	51.4	8.6	.0	40.0	60.0	.0	100.0	2.6
혼인상태											
미혼	(506)	3.4	45.7	44.9	6.1	.0	49.0	51.0	.0	100.0	2.5
기혼	(1209)	6.0	41.1	47.7	5.0	.2	47.1	52.8	.2	100.0	2.5
지역											
서울	(385)	2.6	32.7	57.4	7.3	.0	35.3	64.7	.0	100.0	2.7
부산	(135)	4.4	40.0	52.6	3.0	.0	44.4	55.6	.0	100.0	2.5
대구	(89)	2.2	46.1	43.8	7.9	.0	48.3	51.7	.0	100.0	2.6
인천	(101)	5.9	45.5	44.6	4.0	.0	51.5	48.5	.0	100.0	2.5
광주	(48)	10.4	47.9	35.4	6.3	.0	58.3	41.7	.0	100.0	2.4
대전	(57)	3.5	50.9	38.6	7.0	.0	54.4	45.6	.0	100.0	2.5
울산	(29)	10.3	55.2	27.6	6.9	.0	65.5	34.5	.0	100.0	2.3
경기	(330)	6.1	38.8	48.5	6.1	.6	44.8	54.5	.6	100.0	2.5
강원	(51)	3.9	51.0	39.2	5.9	.0	54.9	45.1	.0	100.0	2.5
충북	(48)	4.2	41.7	47.9	6.3	.0	45.8	54.2	.0	100.0	2.6
충남	(67)	3.0	47.8	49.3	.0	.0	50.7	49.3	.0	100.0	2.5
전북	(77)	3.9	53.2	37.7	5.2	.0	57.1	42.9	.0	100.0	2.4
전남	(74)	9.5	54.1	35.1	1.4	.0	63.5	36.5	.0	100.0	2.3
경북	(108)	12.0	37.0	45.4	5.6	.0	49.1	50.9	.0	100.0	2.4
경남	(116)	5.2	56.9	35.3	2.6	.0	62.1	37.9	.0	100.0	2.4

문22.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4) 근무환경에 대해(편의시설 등)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무응답		
전체	(1715)	4.8	34.7	55.0	5.3	.1	39.5	60.3	.1	100.0	2.6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8	34.7	55.0	5.3	.1	39.5	60.3	.1	100.0	2.6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0	37.4	48.2	5.1	.3	46.4	53.3	.3	100.0	2.5
100~199만원	(767)	4.4	35.1	57.1	3.3	.1	39.5	60.4	.1	100.0	2.6
200~299만원	(326)	3.1	32.8	56.7	7.4	.0	35.9	64.1	.0	100.0	2.7
300~399만원	(96)	1.0	38.5	51.0	9.4	.0	39.6	60.4	.0	100.0	2.7
400만원 이상	(60)	3.3	18.3	63.3	15.0	.0	21.7	78.3	.0	100.0	2.9
무응답	(13)	.0	53.8	46.2	.0	.0	53.8	46.2	.0	100.0	2.5
경제수준											
상	(29)	3.4	10.3	62.1	24.1	.0	13.8	86.2	.0	100.0	3.1
중상	(687)	2.3	31.4	59.1	7.0	.1	33.8	66.1	.1	100.0	2.7
중하	(847)	5.5	37.7	53.1	3.5	.1	43.2	56.7	.1	100.0	2.5
하	(117)	14.5	39.3	44.4	1.7	.0	53.8	46.2	.0	100.0	2.3
무응답	(35)	5.7	31.4	51.4	11.4	.0	37.1	62.9	.0	100.0	2.7
혼인상태											
미혼	(506)	3.2	32.4	57.9	6.5	.0	35.6	64.4	.0	100.0	2.7
기혼	(1209)	5.5	35.6	53.8	4.8	.2	41.2	58.6	.2	100.0	2.6
지역											
서울	(385)	2.9	30.1	59.7	7.0	.3	33.0	66.8	.3	100.0	2.7
부산	(135)	4.4	32.6	57.8	5.2	.0	37.0	63.0	.0	100.0	2.6
대구	(89)	3.4	33.7	59.6	3.4	.0	37.1	62.9	.0	100.0	2.6
인천	(101)	4.0	37.6	56.4	2.0	.0	41.6	58.4	.0	100.0	2.6
광주	(48)	8.3	52.1	35.4	4.2	.0	60.4	39.6	.0	100.0	2.4
대전	(57)	.0	33.3	63.2	3.5	.0	33.3	66.7	.0	100.0	2.7
울산	(29)	13.8	51.7	31.0	3.4	.0	65.5	34.5	.0	100.0	2.2
경기	(330)	6.1	32.7	55.5	5.5	.3	38.8	60.9	.3	100.0	2.6
강원	(51)	3.9	47.1	41.2	7.8	.0	51.0	49.0	.0	100.0	2.5
충북	(48)	.0	37.5	52.1	10.4	.0	37.5	62.5	.0	100.0	2.7
충남	(67)	1.5	35.8	56.7	6.0	.0	37.3	62.7	.0	100.0	2.7
전북	(77)	6.5	36.4	50.6	6.5	.0	42.9	57.1	.0	100.0	2.6
전남	(74)	9.5	41.9	47.3	1.4	.0	51.4	48.6	.0	100.0	2.4
경북	(108)	12.0	26.9	54.6	6.5	.0	38.9	61.1	.0	100.0	2.6
경남	(116)	2.6	39.7	55.2	2.6	.0	42.2	57.8	.0	100.0	2.6

문22.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5) 회사에서 자기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무응답		
전체	(1715)	6.8	44.1	42.7	6.2	.1	51.0	48.9	.1	100.0	2.5
직업형태											
직업인	(1715)	6.8	44.1	42.7	6.2	.1	51.0	48.9	.1	100.0	2.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2.0	53.6	30.2	4.2	.0	65.6	34.4	.0	100.0	2.3
100~199만원	(767)	5.6	45.0	44.5	4.8	.1	50.6	49.3	.1	100.0	2.5
200~299만원	(326)	4.9	36.2	50.6	8.3	.0	41.1	58.9	.0	100.0	2.6
300~399만원	(96)	2.1	28.1	54.2	14.6	1.0	30.2	68.8	1.0	100.0	2.8
400만원 이상	(60)	5.0	26.7	50.0	18.3	.0	31.7	68.3	.0	100.0	2.8
무응답	(13)	7.7	46.2	46.2	.0	.0	53.8	46.2	.0	100.0	2.4
경제수준											
상	(29)	10.3	10.3	62.1	17.2	.0	20.7	79.3	.0	100.0	2.9
중상	(687)	4.1	42.5	44.5	8.7	.1	46.6	53.3	.1	100.0	2.6
중하	(847)	7.6	45.7	42.3	4.4	.1	53.2	46.6	.1	100.0	2.4
하	(117)	15.4	53.0	30.8	.9	.0	68.4	31.6	.0	100.0	2.2
무응답	(35)	11.4	37.1	42.9	8.6	.0	48.6	51.4	.0	100.0	2.5
혼인상태											
미혼	(506)	6.1	46.8	40.5	6.5	.0	53.0	47.0	.0	100.0	2.5
기혼	(1209)	7.1	43.0	43.7	6.0	.2	50.1	49.7	.2	100.0	2.5
지역											
서울	(385)	3.6	43.6	45.5	7.3	.0	47.3	52.7	.0	100.0	2.6
부산	(135)	7.4	47.4	39.3	5.9	.0	54.8	45.2	.0	100.0	2.4
대구	(89)	5.6	37.1	52.8	4.5	.0	42.7	57.3	.0	100.0	2.6
인천	(101)	7.9	36.6	51.5	4.0	.0	44.6	55.4	.0	100.0	2.5
광주	(48)	10.4	35.4	47.9	4.2	2.1	45.8	52.1	2.1	100.0	2.5
대전	(57)	5.3	61.4	28.1	5.3	.0	66.7	33.3	.0	100.0	2.3
울산	(29)	13.8	48.3	31.0	6.9	.0	62.1	37.9	.0	100.0	2.3
경기	(330)	7.9	46.4	37.9	7.6	.3	54.2	45.5	.3	100.0	2.5
강원	(51)	5.9	66.7	23.5	3.9	.0	72.5	27.5	.0	100.0	2.3
충북	(48)	2.1	43.8	45.8	8.3	.0	45.8	54.2	.0	100.0	2.6
충남	(67)	6.0	46.3	43.3	4.5	.0	52.2	47.8	.0	100.0	2.5
전북	(77)	13.0	45.5	37.7	3.9	.0	58.4	41.6	.0	100.0	2.3
전남	(74)	8.1	40.5	48.6	2.7	.0	48.6	51.4	.0	100.0	2.5
경북	(108)	14.8	33.3	41.7	10.2	.0	48.1	51.9	.0	100.0	2.5
경남	(116)	1.7	42.2	51.7	4.3	.0	44.0	56.0	.0	100.0	2.6

문22.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6) 내 직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해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무응답	종합			계	4점 평균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무응답		
전체	(1715)	4.9	32.9	56.7	5.4	.1	37.8	62.1	.1	100.0	2.6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9	32.9	56.7	5.4	.1	37.8	62.1	.1	100.0	2.6
소득											
100만원 미만	(334)	9.0	38.9	49.4	2.7	.0	47.9	52.1	.0	100.0	2.5
100~199만원	(767)	4.7	32.3	58.3	4.6	.1	37.0	62.8	.1	100.0	2.6
200~299만원	(326)	3.1	26.1	64.7	6.1	.0	29.1	70.9	.0	100.0	2.7
300~399만원	(96)	.0	24.0	66.7	9.4	.0	24.0	76.0	.0	100.0	2.9
400만원 이상	(60)	.0	21.7	60.0	18.3	.0	21.7	78.3	.0	100.0	3.0
무응답	(13)	15.4	30.8	38.5	15.4	.0	46.2	53.8	.0	100.0	2.5
경제수준											
상	(29)	6.9	6.9	62.1	24.1	.0	13.8	86.2	.0	100.0	3.0
중상	(687)	2.8	28.8	60.8	7.6	.0	31.6	68.4	.0	100.0	2.7
중하	(847)	5.3	34.9	56.6	3.1	.1	40.3	59.6	.1	100.0	2.6
하	(117)	12.0	50.4	35.9	1.7	.0	62.4	37.6	.0	100.0	2.3
무응답	(35)	11.4	28.6	45.7	14.3	.0	40.0	60.0	.0	100.0	2.6
혼인상태											
미혼	(506)	5.1	31.4	58.5	4.9	.0	36.6	63.4	.0	100.0	2.6
기혼	(1209)	4.8	33.6	56.0	5.5	.1	38.4	61.5	.1	100.0	2.6
지역											
서울	(385)	3.6	29.6	59.5	7.3	.0	33.2	66.8	.0	100.0	2.7
부산	(135)	5.9	41.5	49.6	3.0	.0	47.4	52.6	.0	100.0	2.5
대구	(89)	2.2	32.6	57.3	7.9	.0	34.8	65.2	.0	100.0	2.7
인천	(101)	6.9	35.6	49.5	7.9	.0	42.6	57.4	.0	100.0	2.6
광주	(48)	4.2	43.8	52.1	.0	.0	47.9	52.1	.0	100.0	2.5
대전	(57)	5.3	28.1	64.9	1.8	.0	33.3	66.7	.0	100.0	2.6
울산	(29)	6.9	34.5	44.8	13.8	.0	41.4	58.6	.0	100.0	2.7
경기	(330)	6.1	35.5	53.0	5.2	.3	41.5	58.2	.3	100.0	2.6
강원	(51)	3.9	43.1	47.1	5.9	.0	47.1	52.9	.0	100.0	2.5
충북	(48)	6.3	29.2	56.3	8.3	.0	35.4	64.6	.0	100.0	2.7
충남	(67)	4.5	25.4	62.7	7.5	.0	29.9	70.1	.0	100.0	2.7
전북	(77)	5.2	33.8	57.1	3.9	.0	39.0	61.0	.0	100.0	2.6
전남	(74)	8.1	28.4	62.2	1.4	.0	36.5	63.5	.0	100.0	2.6
경북	(108)	5.6	22.2	66.7	5.6	.0	27.8	72.2	.0	100.0	2.7
경남	(116)	1.7	36.2	61.2	.9	.0	37.9	62.1	.0	100.0	2.6

문23. 귀하는 여성의 취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가정에만 전념	결혼 전까지 취업	자녀출산 전까지 취업	자녀출산 후 취업	자녀성장 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출산 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양육 후 취업	결혼 · 자녀 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	기타	계
전체	(2514)	6.5	9.7	6.3	2.7	7.3	10.1	16.4	40.0	.9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7.1	9.9	6.3	2.3	7.9	11.2	15.9	38.4	1.2	100.0
비직업인	(799)	5.3	9.3	6.4	3.8	6.1	7.8	17.5	43.6	.4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3	7.2	5.7	2.1	7.5	9.3	20.1	40.7	1.2	100.0
100~199만원	(768)	5.7	10.8	7.2	2.6	7.8	10.8	15.9	38.3	.9	100.0
200~299만원	(327)	8.9	12.5	4.6	3.4	8.0	12.2	14.4	35.5	.6	100.0
300~399만원	(96)	16.7	11.5	6.3	1.0	9.4	13.5	11.5	28.1	2.1	100.0
400만원 이상	(60)	11.7	8.3	6.7	.0	6.7	11.7	15.0	36.7	3.3	100.0
무응답	(13)	15.4	.0	.0	.0	.0	15.4	23.1	38.5	7.7	100.0
경제수준											
상	(44)	11.4	9.1	4.5	.0	4.5	9.1	11.4	50.0	.0	100.0
중상	(1054)	6.3	10.2	6.3	2.7	6.1	10.4	16.8	40.3	.9	100.0
중하	(1202)	6.8	9.7	6.2	2.7	8.0	10.3	16.5	39.1	.8	100.0
하	(160)	6.3	7.5	8.1	3.8	12.5	5.6	17.5	36.9	1.9	100.0
무응답	(54)	1.9	5.6	7.4	5.6	3.7	13.0	7.4	55.6	.0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3.2	11.1	7.9	2.1	1.8	11.8	11.0	50.1	1.1	100.0
기혼	(1629)	8.3	8.9	5.5	3.1	10.3	9.2	19.3	34.6	.8	100.0
지역											
서울	(577)	6.4	13.3	5.7	3.5	6.4	10.1	13.5	39.7	1.4	100.0
부산	(210)	6.2	6.7	2.4	1.9	19.5	10.0	16.7	36.7	.0	100.0
대구	(138)	8.0	10.1	5.1	2.2	6.5	7.2	11.6	49.3	.0	100.0
인천	(134)	8.2	9.7	7.5	2.2	4.5	10.4	17.2	38.8	1.5	100.0
광주	(71)	1.4	8.5	4.2	9.9	8.5	14.1	8.5	45.1	.0	100.0
대전	(72)	6.9	6.9	11.1	1.4	12.5	8.3	18.1	33.3	1.4	100.0
울산	(54)	1.9	14.8	11.1	.0	3.7	3.7	11.1	53.7	.0	100.0
경기	(485)	6.0	8.9	8.5	2.7	6.0	12.6	20.6	32.8	2.1	100.0
강원	(81)	8.6	6.2	4.9	2.5	11.1	6.2	19.8	40.7	.0	100.0
충북	(75)	2.7	6.7	6.7	1.3	6.7	12.0	21.3	42.7	.0	100.0
충남	(98)	13.3	6.1	3.1	2.0	5.1	7.1	19.4	41.8	2.0	100.0
전북	(104)	12.5	14.4	4.8	3.8	8.7	4.8	16.3	34.6	.0	100.0
전남	(109)	1.8	4.6	10.1	2.8	4.6	24.8	11.9	39.4	.0	100.0
경북	(145)	8.3	10.3	7.6	2.1	3.4	3.4	13.1	51.7	.0	100.0
경남	(161)	4.3	7.5	4.3	1.9	4.3	8.7	21.7	47.2	.0	100.0

문24. 직업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관리직으로 상승하는 길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	가업·사업을 이어가는 길	여러직장 경험후 특정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	여러직장 경험후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길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계
전체	(2514)	18.9	31.4	19.1	14.1	3.4	10.0	2.8	.2	.1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8.3	30.0	21.0	13.7	3.1	11.1	2.6	.2	.1	100.0
비직업인	(799)	20.2	34.4	14.9	15.0	4.1	7.6	3.4	.3	.1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0.4	30.2	19.2	13.2	3.9	8.1	4.8	.0	.3	100.0
100~199만원	(768)	17.8	28.8	24.1	12.8	3.1	10.9	2.3	.1	.0	100.0
200~299만원	(327)	20.8	31.2	19.3	13.1	2.4	11.6	.9	.6	.0	100.0
300~399만원	(96)	15.6	32.3	19.8	12.5	2.1	14.6	3.1	.0	.0	100.0
400만원 이상	(60)	13.3	28.3	18.3	11.7	3.3	25.0	.0	.0	.0	100.0
무응답	(13)	23.1	7.7	23.1	23.1	7.7	15.4	.0	.0	.0	100.0
경제수준											
상	(44)	29.5	31.8	13.6	9.1	2.3	11.4	2.3	.0	.0	100.0
중상	(1054)	19.5	31.2	19.1	15.0	2.9	10.0	2.2	.1	.0	100.0
중하	(1202)	17.5	32.9	19.4	13.6	3.4	9.9	3.0	.3	.1	100.0
하	(160)	25.6	20.6	18.1	13.8	5.6	10.6	5.0	.0	.6	100.0
무응답	(54)	9.3	33.3	20.4	14.8	7.4	9.3	5.6	.0	.0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18.0	31.1	20.5	17.5	3.3	7.2	1.9	.3	.2	100.0
기혼	(1629)	19.4	31.6	18.4	12.3	3.5	11.5	3.3	.1	.0	100.0
지역											
서울	(577)	16.8	31.4	17.2	16.5	2.4	12.8	2.6	.2	.2	100.0
부산	(210)	14.3	42.4	20.5	10.5	5.7	5.7	.5	.5	.0	100.0
대구	(138)	16.7	34.1	24.6	11.6	.7	10.1	2.2	.0	.0	100.0
인천	(134)	21.6	30.6	16.4	16.4	1.5	9.7	3.7	.0	.0	100.0
광주	(71)	14.1	29.6	21.1	16.9	5.6	11.3	1.4	.0	.0	100.0
대전	(72)	16.7	22.2	25.0	12.5	8.3	11.1	4.2	.0	.0	100.0
울산	(54)	9.3	31.5	29.6	18.5	1.9	5.6	3.7	.0	.0	100.0
경기	(485)	19.4	24.9	18.8	17.9	5.8	9.7	2.7	.6	.2	100.0
강원	(81)	37.0	32.1	11.1	13.6	1.2	3.7	1.2	.0	.0	100.0
충북	(75)	20.0	25.3	26.7	17.3	.0	8.0	2.7	.0	.0	100.0
충남	(98)	20.4	27.6	13.3	9.2	1.0	8.2	20.4	.0	.0	100.0
전북	(104)	32.7	28.8	18.3	6.7	1.9	9.6	1.9	.0	.0	100.0
전남	(109)	10.1	60.6	15.6	8.3	2.8	2.8	.0	.0	.0	100.0
경북	(145)	17.2	27.6	19.3	12.4	3.4	18.6	1.4	.0	.0	100.0
경남	(161)	24.8	29.8	22.4	9.3	3.7	9.3	.6	.0	.0	100.0

문25.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각자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우편집배원'의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직업들이 사회적 지위(권력, 돈, 명예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면에서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점수는 0 100점 사이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국회의원 ~ (8) 초등학교 교사

	사례수	국회의원	대기업체 사장	은행원	초등학교 교장	컴퓨터 프로 그래머	토목 기술자	내과의사	초등학교 교사
전체	(2514)	72.1	80.4	71.6	79.9	78.0	71.4	83.3	78.3
직업형태									
직업인	(1715)	71.8	80.4	71.6	80.0	78.3	72.0	83.2	78.2
비직업인	(799)	72.7	80.4	71.6	79.6	77.4	69.9	83.5	78.5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0.5	78.5	71.6	78.9	78.0	69.8	82.3	78.2
100~199만원	(768)	72.4	80.8	71.9	80.2	78.4	72.3	83.8	78.3
200~299만원	(327)	73.1	80.3	70.8	79.8	78.3	73.4	82.4	78.8
300~399만원	(96)	67.7	80.9	70.5	79.2	79.9	73.9	82.0	76.0
400만원 이상	(60)	61.3	79.9	72.2	84.1	78.9	73.2	81.2	79.7
무응답	(13)	76.2	82.3	67.7	79.2	77.7	68.8	85.4	80.4
경제수준									
상	(44)	67.1	74.7	69.1	77.1	76.7	69.8	83.6	76.0
중상	(1054)	71.8	80.2	72.0	80.0	78.3	71.0	83.0	78.4
중하	(1202)	72.6	80.8	71.2	80.0	78.0	71.8	83.6	78.4
하	(160)	72.5	79.7	72.7	80.7	77.5	70.8	83.7	78.7
무응답	(54)	68.1	79.1	71.4	75.1	75.7	70.2	80.2	75.8
혼인상태									
미혼	(885)	72.5	80.4	70.8	78.1	79.1	69.8	82.3	77.0
기혼	(1629)	71.8	80.3	72.0	80.9	77.5	72.2	83.8	79.0
지역									
서울	(577)	64.6	78.9	70.3	78.0	77.5	69.8	82.1	76.6
부산	(210)	85.1	84.6	73.6	85.9	74.3	70.0	85.2	81.6
대구	(138)	81.0	83.8	73.4	79.7	78.8	69.6	81.9	77.2
인천	(134)	53.2	72.4	66.5	75.7	77.4	70.4	80.8	77.2
광주	(71)	85.1	86.8	73.3	81.4	79.1	74.3	86.0	76.1
대전	(72)	82.8	85.6	75.7	84.0	82.0	71.9	88.7	79.6
울산	(54)	81.9	88.1	77.1	87.3	84.3	77.1	91.2	84.7
경기	(485)	61.7	76.8	69.8	77.3	78.6	72.8	80.5	78.4
강원	(81)	77.9	83.5	75.4	81.4	84.3	74.1	87.7	80.3
충북	(75)	76.4	80.1	68.5	78.9	82.4	73.8	81.1	78.3
충남	(98)	61.0	69.6	67.6	74.0	77.1	70.4	79.2	74.7
전북	(104)	77.5	80.1	70.0	80.1	74.6	70.1	82.3	76.7
전남	(109)	87.7	87.5	74.5	82.1	80.0	71.9	88.7	77.8
경북	(145)	83.4	82.8	74.9	80.5	77.0	70.8	83.6	79.8
경남	(161)	84.6	84.7	75.1	86.6	76.0	72.0	88.3	81.2

문25.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각자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우편집배원'의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직업들이 사회적 지위(권력, 돈, 명예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면에서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점수는 0 100점 사이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 대기업체 사무원(대리) ~ (16) (쌀재배)농민

	사례수	대기업체 사무원 (대리)	변호사	펀드 매니저	전기 기술공	요리사	경찰관	프로 축구선수	(쌀재배) 농민
전체	(2514)	69.6	81.5	76.1	68.3	69.9	67.7	81.3	61.4
직업형태									
직업인	(1715)	69.7	81.5	76.6	68.9	70.2	67.1	81.1	61.6
비직업인	(799)	69.3	81.7	75.1	67.0	69.3	69.1	81.8	60.9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8.2	80.9	74.4	67.4	70.5	68.0	80.7	60.4
100~199만원	(768)	70.0	82.2	77.4	69.8	70.3	67.0	81.3	61.8
200~299만원	(327)	70.1	80.1	76.6	69.3	70.4	68.3	81.6	63.0
300~399만원	(96)	69.4	80.9	77.8	68.3	68.9	62.3	81.1	63.2
400만원 이상	(60)	69.7	77.2	76.5	69.0	68.6	65.4	80.3	64.8
무응답	(13)	65.8	78.1	73.8	61.2	71.9	60.4	77.3	58.1
경제수준									
상	(44)	66.2	80.6	72.9	67.9	66.5	64.4	83.1	64.5
중상	(1054)	70.2	81.6	76.4	68.6	69.7	68.2	80.9	61.8
중하	(1202)	69.3	81.6	76.4	68.4	70.2	67.7	81.7	61.0
하	(160)	68.9	82.2	73.9	67.0	70.5	65.4	80.4	59.1
무응답	(54)	67.9	76.9	73.4	66.8	69.5	65.3	83.4	63.9
혼인상태									
미혼	(885)	68.8	80.9	76.6	67.7	69.8	68.0	81.6	60.9
기혼	(1629)	70.0	81.9	75.9	68.7	70.0	67.6	81.2	61.6
지역									
서울	(577)	69.6	81.0	76.5	68.5	69.5	65.4	80.2	64.0
부산	(210)	74.4	85.3	73.5	63.6	66.7	69.1	79.8	54.2
대구	(138)	68.4	82.2	74.4	65.5	68.9	67.4	84.8	55.2
인천	(134)	66.6	76.1	77.6	69.3	73.8	70.6	79.5	66.8
광주	(71)	72.2	88.2	73.6	65.1	64.6	65.6	81.8	47.3
대전	(72)	74.1	88.6	83.2	70.0	69.2	72.5	84.9	54.5
울산	(54)	74.0	88.0	81.3	75.3	76.4	70.2	77.5	55.4
경기	(485)	67.2	78.0	75.7	70.3	72.0	65.8	81.9	66.0
강원	(81)	73.8	84.4	82.8	71.0	72.5	68.0	79.4	57.4
충북	(75)	69.1	78.2	78.1	72.0	73.2	67.2	80.3	64.8
충남	(98)	66.0	73.3	74.3	69.3	69.5	71.0	83.0	69.0
전북	(104)	67.8	79.8	74.6	66.5	68.1	67.1	83.4	60.6
전남	(109)	73.3	88.0	79.1	66.2	64.5	71.6	83.2	59.4
경북	(145)	65.6	83.4	74.7	66.5	71.8	69.5	83.7	57.7
경남	(161)	71.5	85.0	73.3	68.6	68.0	69.7	79.8	60.4

문25.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각자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우편집배원'의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직업들이 사회적 지위(권력, 돈, 명예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면에서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점수는 0 100점 사이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7) 연예인 ~ (24) 단순노무자

	사례수	연예인	광원 (광부)	목수	어부	(보험) 생활 설계사	선반공 (선반 조작원)	육군대위	단순 노무자
전체	(2514)	69.6	52.4	55.0	53.4	56.8	55.8	69.6	47.9
직업형태									
직업인	(1715)	69.3	52.6	55.7	53.8	56.9	56.3	69.6	48.3
비직업인	(799)	70.4	51.9	53.5	52.5	56.5	54.7	69.7	47.1
소득									
100만원 미만	(334)	68.8	50.4	53.3	51.8	54.3	53.4	67.5	45.3
100~199만원	(768)	70.6	52.6	56.1	53.9	57.5	56.7	70.3	49.0
200~299만원	(327)	68.5	55.1	57.6	55.8	58.5	58.1	70.3	50.2
300~399만원	(96)	64.0	52.3	55.0	53.6	55.7	56.4	67.9	46.8
400만원 이상	(60)	66.4	56.8	58.6	58.5	57.4	57.4	69.3	51.8
무응답	(13)	74.2	48.1	55.0	52.3	59.6	58.5	71.9	42.7
경제수준									
상	(44)	65.1	50.5	52.8	54.3	53.6	54.2	65.3	43.7
중상	(1054)	68.4	52.4	54.6	53.2	56.8	55.7	69.3	48.2
중하	(1202)	70.7	52.5	55.6	53.7	56.9	56.0	70.0	48.5
하	(160)	72.3	50.7	53.4	51.8	55.0	54.1	69.4	42.5
무응답	(54)	65.9	56.0	55.9	56.0	58.9	58.3	70.5	47.7
혼인상태									
미혼	(885)	71.1	52.0	53.9	52.6	55.8	54.5	68.6	46.4
기혼	(1629)	68.8	52.6	55.6	53.9	57.3	56.5	70.2	48.7
지역									
서울	(577)	66.9	54.8	56.5	56.2	57.1	56.7	67.3	49.0
부산	(210)	67.8	47.4	49.7	48.2	54.9	50.9	68.0	45.4
대구	(138)	73.6	46.4	50.1	47.3	51.3	52.2	69.1	41.1
인천	(134)	65.4	56.5	58.0	57.5	56.2	59.1	72.5	53.5
광주	(71)	74.6	40.6	43.2	42.3	55.1	46.9	66.5	40.6
대전	(72)	80.2	47.6	48.9	46.5	62.5	54.9	70.6	43.5
울산	(54)	68.9	48.5	53.7	47.6	56.5	59.0	71.8	46.3
경기	(485)	70.1	56.2	58.7	58.1	58.3	58.8	70.8	52.2
강원	(81)	74.4	51.0	54.8	50.9	60.0	56.4	70.9	45.2
충북	(75)	67.4	53.9	57.2	54.9	60.0	60.7	70.7	50.5
충남	(98)	67.0	55.4	59.3	57.7	51.5	53.7	69.4	48.4
전북	(104)	64.6	52.1	53.9	50.2	59.2	53.6	66.7	48.6
전남	(109)	77.9	57.2	56.8	55.7	56.0	56.0	75.8	52.1
경북	(145)	72.3	42.7	50.2	47.0	53.5	52.3	69.2	37.4
경남	(161)	69.3	53.3	55.7	52.4	58.6	55.8	71.5	47.1

문26. 학교를 졸업하신 후, 현재(2002년 6월) 몇 번째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평균(점)
전체	(2099)	6.5	32.3	30.5	19.3	5.8	5.6	100.0	2.1
직업형태									
직업인	(1651)	.9	29.4	33.7	22.2	7.0	6.8	100.0	2.3
비직업인	(448)	27.2	42.6	18.5	8.9	1.6	1.1	100.0	1.2
소득									
100만원 미만	(334)	.0	35.3	31.4	21.0	5.7	6.6	100.0	2.3
100~199만원	(768)	.0	28.3	34.2	23.3	7.9	6.3	100.0	2.3
200~299만원	(327)	.0	27.5	33.6	23.5	7.0	8.3	100.0	2.5
300~399만원	(96)	.0	30.2	36.5	21.9	4.2	7.3	100.0	2.4
400만원 이상	(60)	.0	18.3	45.0	23.3	5.0	8.3	100.0	2.4
무응답	(13)	.0	15.4	15.4	38.5	30.8	.0	100.0	2.8
경제수준									
상	(36)	5.6	36.1	38.9	13.9	5.6	.0	100.0	1.8
중상	(842)	8.1	31.6	31.9	19.4	5.3	3.7	100.0	2.0
중하	(1034)	4.7	32.4	31.2	19.1	6.2	6.3	100.0	2.2
하	(144)	10.4	33.3	16.7	20.8	6.3	12.5	100.0	2.5
무응답	(43)	7.0	34.9	23.3	23.3	4.7	7.0	100.0	2.1
혼인상태									
미혼	(475)	2.7	36.8	29.5	17.9	6.5	6.5	100.0	2.2
기혼	(1624)	7.6	30.9	30.8	19.8	5.6	5.3	100.0	2.1
지역									
서울	(468)	8.3	34.6	32.1	17.1	3.6	4.3	100.0	1.9
부산	(172)	5.2	23.8	33.1	20.3	8.7	8.7	100.0	2.5
대구	(114)	5.3	33.3	27.2	21.9	7.9	4.4	100.0	2.1
인천	(111)	4.5	25.2	34.2	25.2	6.3	4.5	100.0	2.2
광주	(61)	6.6	31.1	44.3	14.8	1.6	1.6	100.0	1.8
대전	(61)	4.9	32.8	36.1	19.7	6.6	.0	100.0	1.9
울산	(45)	8.9	35.6	13.3	26.7	6.7	8.9	100.0	2.4
경기	(411)	5.8	29.4	26.8	21.9	8.5	7.5	100.0	2.3
강원	(70)	5.7	42.9	24.3	20.0	1.4	5.7	100.0	1.9
충북	(64)	1.6	28.1	34.4	20.3	7.8	7.8	100.0	2.3
충남	(84)	9.5	52.4	22.6	11.9	2.4	1.2	100.0	1.5
전북	(92)	9.8	38.0	29.3	15.2	3.3	4.3	100.0	1.8
전남	(91)	9.9	40.7	29.7	15.4	2.2	2.2	100.0	1.7
경북	(126)	4.0	29.4	37.3	15.9	6.3	7.1	100.0	2.3
경남	(129)	5.4	24.0	31.0	23.3	7.8	8.5	100.0	2.3

문27.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의 직업

<1-1> 첫번째 직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공무원/ 고위 임직원	1	3	.1	.4	.4
전문가	2	49	1.9	6.6	7.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89	3.5	12.0	19.0
사무직원	4	250	9.9	33.6	52.6
서비스·판매 근로자	5	148	5.9	19.9	72.5
농 어업 근로자	6	24	1.0	3.2	75.8
기능원	7	92	3.7	12.4	88.2
기계조작 및 조립원	8	40	1.6	5.4	93.5
단순 노무직	9	47	1.9	6.3	99.9
군인	14	1	.0	.1	100.0
	.	1771	70.4	Missing	
	Total	2514	100.0	100.0	

Valid cases 743 Missing cases 1771

<2-1> 두번째 직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공무원/ 고위 임직원	1	2	.1	.7	.7
전문가	2	17	.7	6.1	6.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31	1.2	11.1	17.9
사무직원	4	65	2.6	23.3	41.2
서비스·판매 근로자	5	87	3.5	31.2	72.4
농 어업 근로자	6	3	.1	1.1	73.5
기능원	7	44	1.8	15.8	89.2
기계조작 및 조립원	8	16	.6	5.7	95.0
단순 노무직	9	14	.6	5.0	100.0
	.	2235	88.9	Missing	
	Total	2514	100.0	100.0	

Valid cases 279 Missing cases 2235

<3-1> 세번째 직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공무원/ 고위 임직원	1	1	.0	.8	.8
전문가	2	6	.2	4.8	5.6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10	.4	8.0	13.6
사무직원	4	32	1.3	25.6	39.2
서비스·판매 근로자	5	36	1.4	28.8	68.0
농 어업 근로자	6	2	.1	1.6	69.6
기능원	7	18	.7	14.4	84.0
기계조작 및 조립원	8	8	.3	6.4	90.4
단순 노무직	9	12	.5	9.6	100.0
	.	2389	95.0	Missing	
	Total	2514	100.0	100.0	

Valid cases 125 Missing cases 2389

<4-1> 네번째 직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공무원/ 고위 임직원	1	1	.0	1.7	1.7
전문가	2	3	.1	5.0	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8	.3	13.3	20.0
사무직원	4	10	.4	16.7	36.7
서비스·판매 근로자	5	19	.8	31.7	68.3
기능원	7	11	.4	18.3	86.7
기계조작 및 조립원	8	5	.2	8.3	95.0
단순 노무직	9	3	.1	5.0	100.0
	.	2454	97.6	Missing	
	Total	2514	100.0	100.0	

Valid cases 60 Missing cases 2454

<5-1> 다섯번째 직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공무원/ 고위 임직원	1	1	.0	2.8	2.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4	.2	11.1	13.9
서비스·판매 근로자	5	11	.4	30.6	63.9
농 어업 근로자	6	1	.0	2.8	66.7
기능원	7	6	.2	16.7	83.3
기계조작 및 조립원	8	4	.2	11.1	94.4
단순 노무직	9	2	.1	5.6	100.0
	.	2478	98.6	Missing	
	Total	2514	100.0	100.0	

Valid cases 36 Missing cases 2478

<7-1> 2002년 5월 현재 직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공무원/ 고위 임직원	1	41	1.6	2.0	2.0
전문가	2	113	4.5	5.4	7.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187	7.4	8.9	16.2
사무직원	4	284	11.3	13.5	29.8
서비스·판매 근로자	5	545	21.7	26.0	55.7
농 어업 근로자	6	40	1.6	1.9	57.6
기능원	7	95	3.8	4.5	62.2
기계조작 및 조립원	8	179	7.1	8.5	70.7
단순 노무직	9	114	4.5	5.4	76.1
실업자	10	42	1.7	2.0	78.1
주부	11	420	16.7	20.0	98.1
은퇴자	13	39	1.6	1.9	100.0
	.	415	16.5	Missing	
	Total	2514	100.0	100.0	

Valid cases 2099 Missing cases 415

문28. 【직업인】 귀하의 현재 직업전환 의도는?

	사례수	직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갖고 있다	가능하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계
전체	(1697)	16.8	11.3	72.0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695)	16.8	11.3	71.9	100.0
비직업인	(2)	.0	.0	100.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1.3	14.4	64.4	100.0
100~199만원	(768)	15.8	11.7	72.5	100.0
200~299만원	(327)	14.7	8.3	77.1	100.0
300~399만원	(96)	17.7	9.4	72.9	100.0
400만원 이상	(60)	1.7	10.0	88.3	100.0
무응답	(13)	7.7	7.7	84.6	100.0
경제수준					
상	(29)	13.8	3.4	82.8	100.0
중상	(680)	13.2	9.7	77.1	100.0
중하	(838)	18.7	12.1	69.2	100.0
하	(116)	26.7	14.7	58.6	100.0
무응답	(34)	8.8	17.6	73.5	100.0
혼인상태					
미혼	(492)	26.6	17.1	56.3	100.0
기혼	(1205)	12.8	8.9	78.3	100.0
지역					
서울	(379)	15.3	12.1	72.6	100.0
부산	(133)	11.3	17.3	71.4	100.0
대구	(88)	10.2	8.0	81.8	100.0
인천	(100)	20.0	10.0	70.0	100.0
광주	(47)	31.9	4.3	63.8	100.0
대전	(57)	22.8	10.5	66.7	100.0
울산	(29)	13.8	27.6	58.6	100.0
경기	(327)	19.9	12.8	67.3	100.0
강원	(50)	18.0	26.0	56.0	100.0
충북	(48)	12.5	14.6	72.9	100.0
충남	(67)	16.4	9.0	74.6	100.0
전북	(77)	16.9	9.1	74.0	100.0
전남	(74)	6.8	8.1	85.1	100.0
경북	(108)	29.6	4.6	65.7	100.0
경남	(113)	8.8	2.7	88.5	100.0

문28-1. 귀하께서 직업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일 자체가 재미 없다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 하지 않는다	근로 조건이 불만 스럽다	직급이 불만 스럽다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공장의 작업 환경과 복지 여건이 나쁘다	출·퇴근이 불편 하다	개인 사정	직무 관련 기술과 전문성 부족	기타	계
전체	(476)	18.5	6.5	12.0	11.3	19.5	9.7	.8	1.1	.6	1.9	7.6	4.6	5.9	100.0
직업형태															
직업인	(476)	18.5	6.5	12.0	11.3	19.5	9.7	.8	1.1	.6	1.9	7.6	4.6	5.9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119)	21.8	10.1	10.9	6.7	21.0	10.1	.0	.8	.0	.0	8.4	6.7	3.4	100.0
100~199만원	(211)	20.4	6.2	11.4	11.4	21.3	9.0	.9	1.4	.9	1.4	6.6	2.8	6.2	100.0
200~299만원	(75)	10.7	2.7	14.7	21.3	18.7	10.7	1.3	.0	1.3	2.7	10.7	1.3	4.0	100.0
300~399만원	(26)	15.4	11.5	7.7	11.5	19.2	7.7	3.8	3.8	.0	7.7	.0	7.7	3.8	100.0
400만원 이상	(7)	.0	.0	28.6	.0	14.3	.0	.0	.0	.0	.0	14.3	14.3	28.6	100.0
무응답	(2)	.0	.0	.0	50.0	.0	.0	.0	.0	.0	.0	.0	.0	50.0	100.0
경제수준															
상	(5)	.0	.0	.0	.0	.0	20.0	.0	.0	.0	.0	20.0	.0	60.0	100.0
중상	(156)	14.7	5.1	14.7	11.5	19.9	10.3	.0	1.3	.0	2.6	9.6	4.5	5.8	100.0
중하	(258)	20.9	7.8	10.9	11.2	20.5	8.5	1.6	1.2	.8	1.6	6.2	3.9	5.0	100.0
하	(48)	20.8	6.3	8.3	14.6	16.7	10.4	.0	.0	2.1	2.1	6.3	6.3	6.3	100.0
무응답	(9)	11.1	.0	22.2	.0	11.1	22.2	.0	.0	.0	.0	11.1	22.2	.0	100.0
혼인상태															
미혼	(215)	20.0	7.4	12.1	9.8	16.7	11.2	.9	.5	.0	1.4	7.0	6.0	7.0	100.0
기혼	(261)	17.2	5.7	11.9	12.6	21.8	8.4	.8	1.5	1.1	2.3	8.0	3.4	5.0	100.0
지역															
서울	(104)	19.2	7.7	8.7	12.5	14.4	6.7	1.9	1.0	1.0	.0	9.6	4.8	12.5	100.0
부산	(38)	21.1	2.6	7.9	15.8	23.7	5.3	.0	5.3	2.6	5.3	.0	10.5	.0	100.0
대구	(16)	37.5	.0	18.8	25.0	12.5	.0	.0	.0	.0	.0	6.3	.0	.0	100.0
인천	(30)	26.7	16.7	10.0	10.0	13.3	16.7	.0	.0	.0	.0	.0	6.7	.0	100.0
광주	(17)	23.5	5.9	23.5	29.4	5.9	5.9	.0	.0	.0	5.9	.0	.0	.0	100.0
대전	(19)	31.6	5.3	5.3	.0	21.1	10.5	.0	.0	.0	.0	5.3	5.3	15.8	100.0
울산	(12)	16.7	8.3	8.3	8.3	16.7	8.3	.0	.0	.0	.0	25.0	.0	8.3	100.0
경기	(107)	10.3	6.5	15.9	11.2	22.4	9.3	.0	1.9	.0	1.9	8.4	4.7	7.5	100.0
강원	(22)	9.1	4.5	4.5	18.2	22.7	4.5	.0	.0	4.5	9.1	18.2	4.5	.0	100.0
충북	(13)	7.7	7.7	7.7	7.7	15.4	23.1	7.7	.0	.0	.0	.0	.0	23.1	100.0
충남	(17)	17.6	.0	.0	5.9	29.4	23.5	.0	.0	.0	5.9	5.9	11.8	.0	100.0
전북	(20)	25.0	10.0	15.0	5.0	15.0	15.0	.0	.0	.0	5.0	10.0	.0	.0	100.0
전남	(11)	9.1	.0	9.1	.0	63.6	9.1	.0	.0	.0	.0	9.1	.0	.0	100.0
경북	(37)	21.6	8.1	16.2	8.1	18.9	13.5	2.7	.0	.0	.0	10.8	.0	.0	100.0
경남	(13)	23.1	.0	30.8	.0	23.1	7.7	.0	.0	.0	.0	.0	15.4	.0	100.0

문28-2. 귀하가 직업전환을 할 때 갖고 계시는 구직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먹고 살수만 있으면 임금 수준은 상관없다	이전 직장과 동일한 조건 이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 이어야 한다	더블 직업이 가능한 직업 이어야 한다	정년 퇴직까지 보장된 직장이면 상관없다	근무 시간외에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	무응답	계
전체	(476)	6.1	14.9	43.1	3.6	6.5	25.6	.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476)	6.1	14.9	43.1	3.6	6.5	25.6	.2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119)	7.6	13.4	40.3	1.7	7.6	29.4	.0	100.0
100~199만원	(211)	7.1	18.0	44.1	5.7	3.8	21.3	.0	100.0
200~299만원	(75)	4.0	14.7	37.3	1.3	14.7	28.0	.0	100.0
300~399만원	(26)	.0	15.4	53.8	.0	7.7	23.1	.0	100.0
400만원 이상	(7)	.0	.0	57.1	14.3	.0	14.3	14.3	100.0
무응답	(2)	.0	50.0	50.0	.0	.0	.0	.0	100.0
경제수준									
상	(5)	.0	.0	80.0	.0	.0	20.0	.0	100.0
중상	(156)	4.5	12.8	44.9	2.6	9.6	25.0	.6	100.0
중하	(258)	7.0	16.3	42.6	4.7	4.3	25.2	.0	100.0
하	(48)	8.3	16.7	33.3	2.1	10.4	29.2	.0	100.0
무응답	(9)	.0	11.1	55.6	.0	.0	33.3	.0	100.0
혼인상태									
미혼	(215)	4.7	11.2	49.3	4.2	4.2	26.5	.0	100.0
기혼	(261)	7.3	18.0	37.9	3.1	8.4	24.9	.4	100.0
지역									
서울	(104)	4.8	14.4	51.0	1.0	3.8	24.0	1.0	100.0
부산	(38)	10.5	23.7	28.9	13.2	15.8	7.9	.0	100.0
대구	(16)	12.5	6.3	62.5	.0	6.3	12.5	.0	100.0
인천	(30)	.0	10.0	33.3	3.3	6.7	46.7	.0	100.0
광주	(17)	11.8	5.9	52.9	.0	11.8	17.6	.0	100.0
대전	(19)	5.3	10.5	63.2	5.3	10.5	5.3	.0	100.0
울산	(12)	8.3	16.7	16.7	8.3	8.3	41.7	.0	100.0
경기	(107)	1.9	11.2	42.1	2.8	7.5	34.6	.0	100.0
강원	(22)	4.5	27.3	40.9	.0	4.5	22.7	.0	100.0
충북	(13)	7.7	.0	53.8	7.7	7.7	23.1	.0	100.0
충남	(17)	.0	17.6	47.1	5.9	11.8	17.6	.0	100.0
전북	(20)	10.0	15.0	35.0	5.0	5.0	30.0	.0	100.0
전남	(11)	9.1	45.5	36.4	.0	.0	9.1	.0	100.0
경북	(37)	18.9	16.2	35.1	5.4	.0	24.3	.0	100.0
경남	(13)	.0	23.1	38.5	.0	.0	38.5	.0	100.0

문28-3. 현재 귀하는 직업전환을 위해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례수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주변 사람과의 상담	직업 훈련과 사설학원 등록	학교 입학과 유학을 준비	잠시 직장 생활을 쉬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응답	계
전체	(485)	34.4	28.0	24.5	3.3	3.9	5.4	.4	100.0
직업형태									
직업인	(478)	34.5	28.5	24.7	3.1	3.6	5.2	.4	100.0
비직업인	(7)	28.6	.0	14.3	14.3	28.6	14.3	.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119)	41.2	21.8	24.4	5.0	2.5	5.0	.0	100.0
100~199만원	(212)	32.5	29.7	28.3	2.4	2.8	3.8	.5	100.0
200~299만원	(76)	28.9	38.2	18.4	2.6	2.6	9.2	.0	100.0
300~399만원	(26)	26.9	30.8	23.1	.0	11.5	7.7	.0	100.0
400만원 이상	(7)	28.6	28.6	14.3	.0	.0	14.3	14.3	100.0
무응답	(2)	.0	50.0	50.0	.0	.0	.0	.0	100.0
경제수준									
상	(5)	40.0	60.0	.0	.0	.0	.0	.0	100.0
중상	(160)	30.0	31.9	25.0	2.5	3.8	6.3	.6	100.0
중하	(262)	36.6	25.2	24.8	3.8	4.2	5.0	.4	100.0
하	(48)	39.6	27.1	22.9	4.2	.0	6.3	.0	100.0
무응답	(10)	20.0	30.0	30.0	.0	20.0	.0	.0	100.0
혼인상태									
미혼	(216)	36.1	20.8	25.9	6.0	5.6	5.6	.0	100.0
기혼	(269)	33.1	33.8	23.4	1.1	2.6	5.2	.7	100.0
지역									
서울	(107)	30.8	29.0	25.2	3.7	3.7	5.6	1.9	100.0
부산	(38)	36.8	26.3	34.2	2.6	.0	.0	.0	100.0
대구	(16)	12.5	62.5	12.5	6.3	.0	6.3	.0	100.0
인천	(30)	56.7	20.0	13.3	3.3	3.3	3.3	.0	100.0
광주	(17)	29.4	47.1	23.5	.0	.0	.0	.0	100.0
대전	(20)	40.0	25.0	25.0	.0	5.0	5.0	.0	100.0
울산	(12)	33.3	50.0	16.7	.0	.0	.0	.0	100.0
경기	(110)	30.9	24.5	27.3	1.8	7.3	8.2	.0	100.0
강원	(23)	21.7	39.1	21.7	4.3	8.7	4.3	.0	100.0
충북	(13)	23.1	30.8	46.2	.0	.0	.0	.0	100.0
충남	(17)	47.1	23.5	5.9	17.6	5.9	.0	.0	100.0
전북	(20)	50.0	20.0	15.0	5.0	.0	10.0	.0	100.0
전남	(12)	25.0	8.3	41.7	8.3	8.3	8.3	.0	100.0
경북	(37)	27.0	27.0	32.4	.0	2.7	10.8	.0	100.0
경남	(13)	84.6	7.7	.0	7.7	.0	.0	.0	100.0

문29. 【직업인】 만약, 귀하에게 지금보다 나은 근무환경(보수/직위/가능성 등)의 직장에서 스카웃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수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옮길 것이다	당장은 힘들지만 천천히 전직 준비를 할 것이다	옮기고 싶으나 현 직장에 대한 예의로 거절할 것이다	지금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무응답	계
전체	(1697)	20.6	30.9	6.8	16.7	25.0	.1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695)	20.6	30.9	6.8	16.7	25.0	.1	100.0
비직업인	(2)	.0	50.0	.0	.0	50.0	.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26.9	31.4	7.8	9.9	24.0	.0	100.0
100~199만원	(768)	21.1	33.3	7.6	15.8	22.3	.0	100.0
200~299만원	(327)	15.9	30.0	4.9	22.6	26.6	.0	100.0
300~399만원	(96)	9.4	31.3	6.3	25.0	28.1	.0	100.0
400만원 이상	(60)	5.0	15.0	3.3	33.3	41.7	1.7	100.0
무응답	(13)	15.4	15.4	.0	38.5	30.8	.0	100.0
경제수준								
상	(29)	6.9	34.5	.0	24.1	34.5	.0	100.0
중상	(680)	15.7	29.4	6.5	20.3	27.9	.1	100.0
중하	(838)	23.4	33.1	7.2	14.7	21.7	.0	100.0
하	(116)	30.2	28.4	6.9	6.9	27.6	.0	100.0
무응답	(34)	26.5	14.7	8.8	20.6	29.4	.0	100.0
혼인상태								
미혼	(492)	25.0	39.6	7.5	9.6	18.3	.0	100.0
기혼	(1205)	18.8	27.4	6.5	19.6	27.7	.1	100.0
지역								
서울	(379)	16.1	35.6	7.4	18.2	22.4	.3	100.0
부산	(133)	29.3	27.8	9.0	17.3	16.5	.0	100.0
대구	(88)	17.0	29.5	4.5	20.5	28.4	.0	100.0
인천	(100)	17.0	31.0	8.0	11.0	33.0	.0	100.0
광주	(47)	34.0	19.1	6.4	25.5	14.9	.0	100.0
대전	(57)	21.1	38.6	3.5	10.5	26.3	.0	100.0
울산	(29)	34.5	24.1	.0	27.6	13.8	.0	100.0
경기	(327)	24.5	30.9	8.6	13.1	22.9	.0	100.0
강원	(50)	22.0	38.0	12.0	10.0	18.0	.0	100.0
충북	(48)	12.5	20.8	6.3	31.3	29.2	.0	100.0
충남	(67)	16.4	37.3	7.5	14.9	23.9	.0	100.0
전북	(77)	13.0	23.4	5.2	15.6	42.9	.0	100.0
전남	(74)	10.8	24.3	2.7	16.2	45.9	.0	100.0
경북	(108)	21.3	33.3	1.9	19.4	24.1	.0	100.0
경남	(113)	26.5	27.4	7.1	15.9	23.0	.0	100.0

문30. 귀하는 몇 세까지 일(직업활동)하기 원하십니까?

	사례수	만40세 까지	만45세 까지	만50세 까지	만55세 까지	만60세 까지	만65세 까지	만70세 까지	만71세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2514)	3.6	4.8	12.2	12.1	25.4	18.9	6.1	6.6	2.1	4.6	3.7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2	5.1	11.4	11.6	23.4	19.8	6.5	7.6	1.9	4.5	4.0	100.0
비직업인	(799)	2.3	4.3	13.9	13.1	29.7	16.9	5.3	4.4	2.4	4.8	3.1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5	6.9	14.1	9.0	18.0	12.9	5.7	10.2	3.3	6.9	5.7	100.0
100~199만원	(768)	4.4	4.3	10.7	12.1	24.2	20.4	6.5	7.0	1.8	5.2	3.3	100.0
200~299만원	(327)	1.8	4.3	10.7	14.4	28.4	20.5	5.5	7.0	.6	2.8	4.0	100.0
300~399만원	(96)	.0	7.3	9.4	9.4	20.8	33.3	7.3	5.2	1.0	3.1	3.1	100.0
400만원 이상	(60)	1.7	3.3	8.3	13.3	16.7	28.3	11.7	10.0	1.7	3.3	1.7	100.0
무응답	(13)	.0	15.4	.0	.0	30.8	30.8	15.4	7.7	.0	.0	.0	100.0
경제수준													
상	(44)	.0	.0	4.5	15.9	25.0	25.0	13.6	9.1	.0	2.3	4.5	100.0
중상	(1054)	3.9	5.0	12.3	13.8	24.4	19.3	5.3	5.8	1.3	5.1	3.8	100.0
중하	(1202)	3.7	4.6	12.1	11.1	27.3	18.5	5.6	7.1	2.5	4.0	3.6	100.0
하	(160)	1.9	6.9	15.0	5.6	20.0	16.3	10.6	8.1	5.0	6.3	4.4	100.0
무응답	(54)	1.9	3.7	7.4	18.5	18.5	24.1	13.0	5.6	.0	5.6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5.8	5.9	14.1	12.7	25.6	15.1	3.4	6.2	.9	6.8	3.5	100.0
기혼	(1629)	2.4	4.2	11.1	11.8	25.2	20.9	7.6	6.8	2.7	3.4	3.8	100.0
지역													
서울	(577)	3.8	4.7	9.7	13.0	22.0	21.8	7.3	5.4	1.6	6.1	4.7	100.0
부산	(210)	3.3	2.9	14.8	15.7	27.1	20.5	3.3	8.6	1.4	1.4	1.0	100.0
대구	(138)	2.9	4.3	11.6	12.3	31.2	17.4	5.8	8.7	.0	5.1	.7	100.0
인천	(134)	2.2	8.2	9.7	12.7	25.4	23.9	3.7	3.7	1.5	3.7	5.2	100.0
광주	(71)	4.2	4.2	16.9	12.7	26.8	12.7	5.6	11.3	4.2	1.4	.0	100.0
대전	(72)	5.6	4.2	23.6	19.4	22.2	9.7	1.4	5.6	.0	4.2	4.2	100.0
울산	(54)	.0	.0	13.0	18.5	35.2	9.3	3.7	3.7	5.6	7.4	3.7	100.0
경기	(485)	3.3	6.2	13.0	7.8	24.3	21.0	6.4	4.3	2.5	6.4	4.7	100.0
강원	(81)	4.9	4.9	12.3	16.0	19.8	17.3	7.4	3.7	1.2	4.9	7.4	100.0
충북	(75)	9.3	4.0	10.7	16.0	5.3	21.3	4.0	9.3	1.3	5.3	13.3	100.0
충남	(98)	4.1	2.0	8.2	10.2	36.7	14.3	5.1	11.2	2.0	2.0	4.1	100.0
전북	(104)	1.9	2.9	14.4	10.6	26.9	15.4	4.8	7.7	5.8	9.6	.0	100.0
전남	(109)	1.8	3.7	8.3	6.4	40.4	24.8	8.3	1.8	.9	.9	2.8	100.0
경북	(145)	3.4	4.1	13.1	14.5	22.8	11.0	10.3	11.0	6.2	.7	2.8	100.0
경남	(161)	4.3	8.1	13.7	10.6	27.3	14.9	6.2	11.2	.0	3.1	.6	100.0

문31.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몇 세까지 일(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만40세 까지	만45세 까지	만50세 까지	만55세 까지	만60세 까지	만65세 까지	만70세 까지	만71세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2514)	3.6	4.7	12.1	16.4	26.6	16.1	5.3	5.2	1.3	7.0	1.8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3.9	5.0	11.0	16.0	24.7	16.9	5.9	6.3	.9	7.4	2.0	100.0
비직업인	(799)	2.9	4.0	14.4	17.1	30.7	14.6	3.9	2.8	2.1	6.3	1.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7.5	8.1	13.2	9.6	18.9	12.9	3.9	9.9	1.8	11.4	3.0	100.0
100~199만원	(768)	3.6	3.9	10.2	17.3	27.5	17.1	5.6	5.6	.8	6.9	1.6	100.0
200~299만원	(327)	1.8	2.4	10.7	19.9	26.3	19.3	6.1	4.6	.6	5.5	2.8	100.0
300~399만원	(96)	1.0	9.4	9.4	21.9	25.0	17.7	5.2	3.1	.0	6.3	1.0	100.0
400만원 이상	(60)	1.7	3.3	10.0	11.7	10.0	30.0	13.3	10.0	.0	10.0	.0	100.0
무응답	(13)	.0	.0	23.1	15.4	30.8	15.4	15.4	.0	.0	.0	.0	100.0
경제수준													
상	(44)	.0	.0	9.1	18.2	25.0	22.7	9.1	6.8	.0	4.5	4.5	100.0
중상	(1054)	3.9	4.6	13.5	16.7	25.7	16.8	5.1	4.5	.8	6.6	1.9	100.0
중하	(1202)	3.9	4.9	11.4	15.9	27.9	15.3	4.9	5.5	1.6	7.2	1.5	100.0
하	(160)	1.3	4.4	10.0	16.9	23.1	13.8	6.9	8.1	3.8	9.4	2.5	100.0
무응답	(54)	.0	5.6	9.3	18.5	27.8	24.1	7.4	1.9	.0	5.6	.0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5.3	6.8	13.3	15.9	27.8	11.9	2.1	4.6	.7	10.3	1.2	100.0
기혼	(1629)	2.6	3.5	11.4	16.6	26.0	18.5	6.9	5.5	1.7	5.3	2.0	100.0
지역													
서울	(577)	4.3	5.0	9.0	17.9	26.0	17.2	5.9	3.1	.3	9.0	2.3	100.0
부산	(210)	2.9	2.9	13.8	17.6	27.6	18.1	4.8	8.1	1.9	1.9	.5	100.0
대구	(138)	2.2	3.6	12.3	12.3	33.3	15.9	5.8	8.0	.0	6.5	.0	100.0
인천	(134)	2.2	9.7	11.9	18.7	23.1	20.9	3.7	2.2	1.5	4.5	1.5	100.0
광주	(71)	4.2	1.4	16.9	19.7	25.4	12.7	9.9	8.5	1.4	.0	.0	100.0
대전	(72)	6.9	9.7	26.4	18.1	20.8	9.7	.0	2.8	.0	2.8	2.8	100.0
울산	(54)	.0	3.7	9.3	14.8	25.9	18.5	9.3	1.9	1.9	14.8	.0	100.0
경기	(485)	3.1	4.1	15.1	14.0	23.9	18.8	3.3	3.5	1.9	9.9	2.5	100.0
강원	(81)	4.9	4.9	9.9	22.2	23.5	9.9	6.2	6.2	1.2	11.1	.0	100.0
충북	(75)	4.0	8.0	10.7	17.3	13.3	18.7	4.0	5.3	1.3	5.3	12.0	100.0
충남	(98)	5.1	4.1	4.1	18.4	43.9	6.1	5.1	8.2	1.0	4.1	.0	100.0
전북	(104)	4.8	2.9	16.3	18.3	24.0	9.6	5.8	3.8	2.9	10.6	1.0	100.0
전남	(109)	1.8	3.7	11.0	11.0	42.2	19.3	5.5	1.8	.9	.9	1.8	100.0
경북	(145)	4.1	3.4	8.3	17.2	25.5	6.9	9.7	11.0	4.8	8.3	.7	100.0
경남	(161)	3.1	5.0	12.4	13.7	25.5	20.5	5.0	9.9	.0	4.3	.6	100.0

문31-1. 위 31번 문항에서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일하기 싫은데 돈을 벌어야 하므로 어쩔수 없다	직장에서 정해놓은 정년퇴직 연령이다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연령이다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2514)	8.7	11.1	25.2	33.7	12.4	5.7	3.2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10.6	11.6	22.9	33.0	12.9	5.2	3.7	100.0
비직업인	(799)	4.6	9.9	30.2	35.3	11.1	6.6	2.3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15.9	5.4	23.4	28.4	13.2	8.1	5.7	100.0
100~199만원	(768)	9.4	12.0	24.2	33.3	13.0	4.8	3.3	100.0
200~299만원	(327)	9.5	16.2	22.0	33.9	11.9	3.7	2.8	100.0
300~399만원	(96)	8.3	20.8	18.8	29.2	11.5	7.3	4.2	100.0
400만원 이상	(60)	10.0	11.7	10.0	48.3	15.0	3.3	1.7	100.0
무응답	(13)	15.4	7.7	23.1	30.8	15.4	.0	7.7	100.0
경제수준									
상	(44)	.0	6.8	31.8	47.7	9.1	2.3	2.3	100.0
중상	(1054)	6.9	12.9	24.2	34.6	12.3	6.0	3.0	100.0
중하	(1202)	9.2	10.1	26.1	33.6	12.4	5.4	3.2	100.0
하	(160)	18.8	6.3	23.8	23.8	14.4	7.5	5.6	100.0
무응답	(54)	11.1	14.8	24.1	37.0	9.3	3.7	.0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6.6	10.5	28.5	34.2	8.7	7.1	4.4	100.0
기혼	(1629)	9.9	11.4	23.4	33.5	14.4	4.9	2.6	100.0
지역									
서울	(577)	9.2	10.1	25.1	35.9	8.8	6.8	4.2	100.0
부산	(210)	10.5	6.7	23.8	33.3	23.3	1.0	1.4	100.0
대구	(138)	8.7	5.8	23.9	40.6	15.9	2.2	2.9	100.0
인천	(134)	8.2	13.4	29.1	29.1	9.0	8.2	3.0	100.0
광주	(71)	9.9	14.1	15.5	47.9	12.7	.0	.0	100.0
대전	(72)	5.6	13.9	29.2	38.9	6.9	1.4	4.2	100.0
울산	(54)	20.4	13.0	22.2	29.6	7.4	7.4	.0	100.0
경기	(485)	6.8	13.6	27.0	30.7	8.9	7.6	5.4	100.0
강원	(81)	9.9	11.1	33.3	18.5	11.1	14.8	1.2	100.0
충북	(75)	14.7	10.7	13.3	34.7	12.0	2.7	12.0	100.0
충남	(98)	8.2	23.5	22.4	23.5	14.3	8.2	.0	100.0
전북	(104)	7.7	9.6	21.2	35.6	18.3	6.7	1.0	100.0
전남	(109)	5.5	11.0	30.3	40.4	11.0	.9	.9	100.0
경북	(145)	11.0	7.6	24.1	32.4	19.3	4.8	.7	100.0
경남	(161)	5.6	8.7	26.7	35.4	15.5	5.6	2.5	100.0

문32. 귀하는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이후에 주로 어떤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사례수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보내겠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겠다	나에게 은퇴 후란 없다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2514)	3.5	64.6	17.0	9.7	4.3	.9	100.0
직업형태								
직업인	(1715)	4.3	62.7	16.2	11.9	4.0	.9	100.0
비직업인	(799)	1.9	68.5	18.9	5.1	4.8	.9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334)	4.2	56.6	16.2	15.0	6.6	1.5	100.0
100~199만원	(768)	4.2	64.1	15.6	11.1	4.2	.9	100.0
200~299만원	(327)	3.1	65.4	17.7	11.3	2.1	.3	100.0
300~399만원	(96)	7.3	64.6	12.5	14.6	1.0	.0	100.0
400만원 이상	(60)	1.7	61.7	20.0	13.3	3.3	.0	100.0
무응답	(13)	.0	53.8	15.4	15.4	15.4	.0	100.0
경제수준								
상	(44)	4.5	61.4	18.2	11.4	4.5	.0	100.0
중상	(1054)	4.2	66.8	17.1	8.6	2.8	.5	100.0
중하	(1202)	2.7	64.3	17.1	10.2	4.8	.9	100.0
하	(160)	6.3	51.3	15.6	13.8	10.0	3.1	100.0
무응답	(54)	1.9	68.5	18.5	7.4	1.9	1.9	100.0
혼인상태								
미혼	(885)	5.8	69.4	13.3	7.2	3.4	.9	100.0
기혼	(1629)	2.3	61.9	19.0	11.1	4.7	.9	100.0
지역								
서울	(577)	5.7	58.8	21.1	9.9	3.6	.9	100.0
부산	(210)	4.8	73.3	12.9	6.7	2.4	.0	100.0
대구	(138)	2.9	66.7	14.5	11.6	1.4	2.9	100.0
인천	(134)	3.0	65.7	17.2	7.5	5.2	1.5	100.0
광주	(71)	.0	71.8	16.9	7.0	4.2	.0	100.0
대전	(72)	2.8	66.7	16.7	9.7	4.2	.0	100.0
울산	(54)	1.9	66.7	18.5	11.1	1.9	.0	100.0
경기	(485)	3.9	62.7	19.4	9.1	4.3	.6	100.0
강원	(81)	3.7	59.3	16.0	8.6	11.1	1.2	100.0
충북	(75)	1.3	69.3	10.7	14.7	2.7	1.3	100.0
충남	(98)	2.0	58.2	18.4	6.1	13.3	2.0	100.0
전북	(104)	2.9	73.1	12.5	7.7	2.9	1.0	100.0
전남	(109)	1.8	77.1	13.8	3.7	1.8	1.8	100.0
경북	(145)	2.1	65.5	9.0	19.3	4.1	.0	100.0
경남	(161)	1.2	61.5	17.4	13.7	5.6	.6	100.0

기본연구 02-41

한국인의 직업 의식 조사(II)

2002년 12월 일 인쇄
2002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강 무 섭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135-949)
홈페이지: http:/ / www.krivet.re.kr
전 화: (02) 3485-5000, 5100
팩 스: (02) 3485-5200

등 록 제16-1681호 (1998.6.11)
ISBN 89-8436-573-4 93330

인쇄처 전화

 < 값 12,000원 >

■ 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02-3485-5320 E-mail: hansang@krivet.re.kr